고서화 고문헌 등에 나타난
명승자원 발굴조사

- 경남 · 부산 · 울산 · 경북 · 대구 -

2014. 11.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재청

■ 제 출 문 ■

문화재청 貴中

본 보고서를
『고서화 · 고문헌 등에 나타난 명승자원 발굴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1월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엄 안 흠
책임연구자 류 제 헌

■ 목 차 ■

Ⅰ. 조사 목적 및 필요성

1. 명승의 개념 및 가치 ····· 3

2. 연구의 필요성 ····· 4

Ⅱ. 조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내용 ····· 9

2. 조사 방법 ····· 11

3. 주요 자료의 가치와 활용 방법 ····· 13

1) 지리지(地理誌) ····· 13

2) 고시문(古詩文) ····· 14

3)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 ····· 15

4. 연구 분담 체계 ····· 24

Ⅲ. 조사 대상 명승 자원 현황

1. 우수 명승 자원의 명칭과 위치 ····· 27

2. 우수 명승 자원별 개관 ····· 29

1) 안동(安東) 가송협(佳松峽)과 고산정(孤山亭) ····· 29

2) 영덕(盈德) 침수정(枕漱亭) 일원 ····· 31

3) 포항(浦項) 내연산(內延山) 계곡 ····· 34

4) 청도(淸道) 운문산(雲門山) 학심이골 일원 ····· 37

5) 밀양(密陽) 재약산(載藥山) 표충사(表忠寺)계곡 ····· 39

6) 양산(梁山) 천성산(千聖山) 화엄(華嚴)벌 ····· 41

7) 하동(河東) 불일폭포(佛日瀑布) 일원 ····· 43

3. 후보 명승 자원의 명칭과 위치 ····· 45
4. 후보 명승 자원별 개관 ····· 47
1) 영주(榮州) 희방폭포(喜方瀑布) ····· 47
2) 문경(聞慶) 선유구곡(仙游九曲) ····· 49
3) 상주(尙州) 경천대(擎天臺) ····· 51
4) 칠곡(漆谷) 가산(架山)바위 ····· 53
5) 거창(居昌) 사선대(四仙臺) 일원 ····· 55
6) 함양(咸陽) 농월정(弄月亭) 일원 ····· 57
7) 합천(陜川) 황계폭포(黃溪瀑布) 일원 ····· 59
8) 진주(晋州) 촉석루(矗石樓) 일원 ····· 61

Ⅳ. 정밀 조사 및 지정 가치

1. 우수 명승 자원 ····· 65
1) 안동(安東) 가송협(佳松峽)과 고산정(孤山亭) ····· 65
(1) 지리지 ····· 66
(2) 고시문 ····· 66
(3) 실경산수화 ····· 72
(4) 현재적 재구성 ····· 72
(5) 지형 및 식생 분석 ····· 75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 80
2) 영덕(盈德) 침수정(枕漱亭) 일원 ····· 85
(1) 지리지 ····· 86
(2) 고시문 ····· 86
(3) 실경산수화 ····· 91
(4) 현재적 재구성 ····· 91
(5) 지형 및 식생 분석 ····· 97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 102

3) 포항(浦項) 내연산(內延山) 계곡 ····· 107
(1) 지리지 ····· 108
(2) 고시문 ····· 108
(3) 실경산수화 ····· 121
(4) 현재적 재구성 ····· 127
(5) 지형 및 식생 분석 ····· 131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 137
4) 청도(淸道) 운문산(雲門山) 학심이골 일원 ····· 142
(1) 지리지 ····· 143
(2) 고시문 ····· 143
(3) 실경산수화 ····· 145
(4) 현재적 재구성 ····· 145
(5) 지형 및 식생 분석 ····· 148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 153
5) 밀양(密陽) 재약산(載藥山) 표충사(表忠寺)계곡 ····· 157
(1) 지리지 ····· 158
(2) 고시문 ····· 158
(3) 실경산수화 ····· 160
(4) 현재적 재구성 ····· 161
(5) 지형 및 식생 분석 ····· 164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 171
6) 양산(梁山) 천성산(千聖山) 화엄(華嚴)벌 ····· 176
(1) 지리지 ····· 177
(2) 고시문 ····· 177
(3) 실경산수화 ····· 184
(4) 현재적 재구성 ····· 184
(5) 지형 및 식생 분석 ····· 186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 190

7) 하동(河東) 불일폭포(佛日瀑布) 일원 ····· 195
(1) 지리지 ····· 196
(2) 고시문 ····· 197
(3) 실경산수화 ····· 210
(4) 현재적 재구성 ····· 213
(5) 지형 및 식생 분석 ····· 214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 219
2. 후보 명승 자원 ····· 223
1) 영주(榮州) 희방폭포(喜方瀑布) ····· 223
(1) 지리지 ····· 223
(2) 고시문 ····· 223
(3) 실경산수화 ····· 233
(4) 현재적 재구성 ····· 233
(5) 지형 및 식생 분석 ····· 235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 239
2) 문경(聞慶) 선유구곡(仙游九曲) ····· 242
(1) 지리지 ····· 242
(2) 고시문 ····· 242
(3) 실경산수화 ····· 251
(4) 현재적 재구성 ····· 252
(5) 지형 및 식생 분석 ····· 258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 262
3) 상주(尙州) 경천대(擎天臺) ····· 265
(1) 지리지 ····· 265
(2) 고시문 ····· 265
(3) 실경산수화 ····· 276
(4) 현재적 재구성 ····· 276
(5) 지형 및 식생 분석 ····· 279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 283

4) 칠곡(漆谷) 가산(架山)바위 ····· 286
(1) 지리지 ····· 286
(2) 고시문 ····· 286
(3) 실경산수화 ····· 290
(4) 현재적 재구성 ····· 292
(5) 지형 및 식생 분석 ····· 293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 297
5) 거창(居昌) 사선대(四仙臺) 일원 ····· 300
(1) 지리지 ····· 300
(2) 고시문 ····· 300
(3) 실경산수화 ····· 303
(4) 현재적 재구성 ····· 306
(5) 지형 및 식생 분석 ····· 307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 311
6) 함양(咸陽) 농월정(弄月亭) 일원 ····· 314
(1) 지리지 ····· 314
(2) 고시문 ····· 314
(3) 실경산수화 ····· 320
(4) 현재적 재구성 ····· 322
(5) 지형 및 식생 분석 ····· 324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 328
7) 합천(陜川) 황계폭포(黃溪瀑布) 일원 ····· 331
(1) 지리지 ····· 331
(2) 고시문 ····· 331
(3) 실경산수화 ····· 339
(4) 현재적 재구성 ····· 339
(5) 지형 및 식생 분석 ····· 341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 345

8) 진주(晋州) 촉석루(矗石樓) 일원 ····· 350
(1) 지리지 ····· 350
(2) 고시문 ····· 350
(3) 실경산수화 ····· 369
(4) 현재적 재구성 ····· 370
(5) 지형 및 식생 분석 ····· 372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 375

Ⅴ.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앞으로의 과제
1. 기대효과 ····· 381
2. 활용방안 ····· 382
3. 앞으로의 과제 ····· 383

Ⅵ. 참고문헌 ····· 385

부록
1. 명승 자원 조사 보고서 ····· 395
2. 명승 자원의 지정 범위(안) 지번 목록 ····· 402
3. 조선시대의 지리지에 수록된 명승 자원 목록 ····· 414
4. 최종 검토 대상 명승 자원 목록 ····· 430
5. 최종 검토에서 탈락한 명승 자원 목록 및 사유 ····· 433

Ⅰ. 조사 목적 및 필요성

1. 명승의 개념 및 가치

❍ 명승(名勝)이란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름난 경치’(noted scenery) 또는 ‘이름난 경치가 있는 곳’(scenic places)을 뜻한다. ‘이름난’이라는 형용사는 명승 개념이 인간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환경이기보다는 ‘한 문화 집단의 관점에서 본’ 탁월 경관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명승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나온 산물로서 빼어남과 아름다움에 대한 한국인의 집단적 가치가 투영된 경관이다(전종한, 2012, 265). 한편으로, 명승은 한 문화 집단 내의 간주관적 의미 세계를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채색의 스펙터클한 공간(spectacle space)이 아니라 일종의 장소(place)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명승은 자연 경관인 동시에 문화 경관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을 찾아 시문이나 실경산수화로 남겼고 지리지에도 지역별 명승들을 선별하여 주요 항목으로 기록하였다. 때로는 명승 자원을 여생을 위한 은둔의 장소로 만들어 가면서 그곳을 동학들과 학문을 나누고 후학을 양성하는 공간으로 삼았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명승은 자연과 인문의 복합체로서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뛰어난 자연 경관이었고,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미학 경관이었으며, 당대의 문화와 역사성이 스며있는 문화 경관이었다.

❍ 현대에 이르러 명승은 ‘경치가 아름다운 지역’이라는 형식미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의 장’으로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고, ‘지역의 대표적 이미지를 담은 의미 경관’으로서 상징성을 갖는 문화재가 되고 있다(신상섭, 2011; 김학범, 2009). 또한 세계화 시대라 일컫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명승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고유하게 전개되어 온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내포하는 경관 표상이며, 이와 관련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자(김창규, 2012) 상징 경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명승의 지정과 연구는 공익 차원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가운데 형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 있어 그 동안 명승 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는 자연 명승과 역사문화 명승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기초 조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문화재청의 지원 하에 팔경(八景), 동천(洞天), 구곡(九曲) 등 전래 경승(景勝)에 대한 보다 진전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에서 추진해 온 전래 경승에 대한 관심과는 다소 다른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위 '현대 팔경'을 지정하여 장소 마케팅의 일환으로 명승 자원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오늘날 명승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점차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명승 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는 기존의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보다 심화·진전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조사 연구는 명승을 '자연 경관과 인문 현상의 복합체'로서 개념화하고, 특히 명승이 갖는 '자연 경관과 인문 현상의 복합체'로서의 성격과 그것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은 무엇보다도 해당 명승을 기록한 고서화(古書畵)의 내용과 그곳에 담긴 시선들을 해석해 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본 조사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명승을 기록한 대표적인 고서화로서 세 종류의 자료를 선정했는데, 옛 지리지(地理誌), 시문(詩文),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가 그것이다.

❍ 먼저, 옛 지리지를 통해 우리는 지역마다 어떤 장소들을 명승으로 인식했는지, 어떤 명칭으로 그곳을 지칭했고, 어떤 항목으로 분류했는지, 지역별로 얼마나 많은 명승이 어떻게 분포했는지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옛 시문을 통해 우리는 당대 사람들이 명승의 어떤 부분들을 주로 향유했는지, 명승을 구성하는 일련의 경관 요소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즐겼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실경산수화를 통해서는 당대 사람들이 각각의 명승을 어떤 이미지(images)로 내면화하였고 어떤 방식으로 재현했는지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바라보는 방식(way of seeing)'으로서의 명승을 잘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본 조사 연구는 명승 자원에 접근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 분야에 주로 기여해왔던 조경학과 지리학 외에 한문학과 회화 연구를 아우르는 학제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명승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그 성과를 인문·사회과학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명승이 갖는 인문적·문화적 가치를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오늘날 널리 요구되는 '경관을 매개로 한 스토리텔링'을 위한 토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조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내용

❍ 조사 지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대한 주요 연구 내용(보고서의 목차)은 다음과 같다(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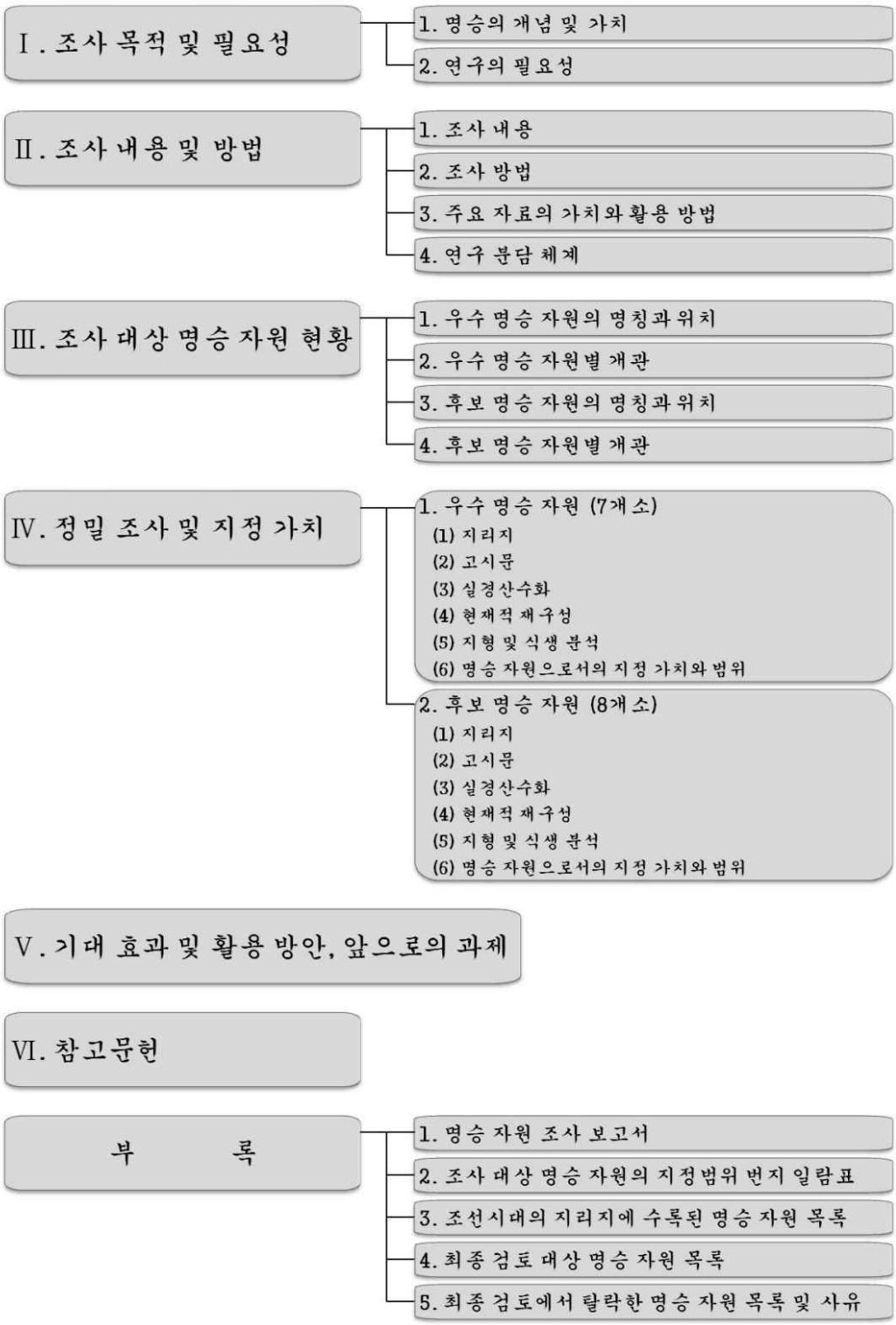
① 조선시대의 주요 지리지 분석을 통해 당대의 명승 자원 목록을 추출한다.

② 지리지에서 추출한 명승 자원 목록을 바탕으로 '현지답사 ➡ 고시문 및 실경산수화 자료의 유무 확인 ➡ 전문가 자문 회의' 순서로 최종 명승 자원 목록을 확정한다.

③ 최종 명승 자원 목록을 바탕으로 지리지, 고시문, 실경산수화를 검색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며, 의미를 해석하는 등 조사 연구를 수행한다.

④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명승 자원의 종합적 가치(values)를 경관적 가치, 문화·역사적 가치, 지형적 가치, 생물학적 가치로 나누어 세부 평가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우수 명승 자원>(7개소)과 <후보 명승 자원>(8개소)을 분류·제안한다.

⑤ 위 ①~④를 토대로 조사 대상 명승 자원의 지정 가치를 제안한다. 지형 분석 및 환경 평가에 근거한 명승의 지형적, 물리적 보전/훼손 상태의 분석, 명승의 진정성(authenticity) 및 완결성(integrity)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가치 평가가 이뤄진다. 또한 역사지리적인 고증을 토대로 명승의 진정성과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정 범위를 제시한다. 이때 명승에 대한 진정성이란 명승의 물리적 원형 본존뿐만 아니라 그것이 향유되는 역사적 전통의 계승도 포함하는 상태를 가리키며, 명승의 완결성이란 명승이 가진 진정성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여건을 갖춘 상태를 지칭한다.


Ⅰ. 조사 목적 및 필요성
1. 명승의 개념 및 가치
2. 연구의 필요성
Ⅱ. 조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내용
2. 조사 방법
3. 주요 자료의 가치와 활용 방법
4. 연구 분담 체계
Ⅲ. 조사 대상 명승 자원 현황
1. 우수 명승 자원의 명칭과 위치
2. 우수 명승 자원별 개관
3. 후보 명승 자원의 명칭과 위치
4. 후보 명승 자원별 개관
Ⅳ. 정밀 조사 및 지정 가치
1. 우수 명승 자원 (7개소)
(1) 지리지
(2) 고시문
(3) 실경산수화
(4) 현재적 재구성
(5) 지형 및 식생 분석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2. 후보 명승 자원 (8개소)
(1) 지리지
(2) 고시문
(3) 실경산수화
(4) 현재적 재구성
(5) 지형 및 식생 분석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Ⅴ.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앞으로의 과제
Ⅵ. 참고문헌
부 록
1. 명승 자원 조사 보고서
2. 조사 대상 명승 자원의 지정범위 번지 일람표
3. 조선시대의 지리지에 수록된 명승 자원 목록
4. 최종 검토 대상 명승 자원 목록
5. 최종 검토에서 탈락한 명승 자원 목록 및 사유

〈조사 내용의 체계화〉

2. 조사 방법

❍ 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선 시대의 주요 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대동지지(大東地志)』 등 조선 중기 및 후기의 대표적 지리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명승이 수록된 항목을 확인하고 항목별 명승 자원 목록을 1차로 정리한다(<1차 명승 자원 목록>).

⬇

② 지리지를 통해 정리한 <1차 명승 자원 목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옛 시문 또는 실경산수화로 기록되어 전하는 명승 자원들을 확인한 후, 양질의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 명승 자원들을 중심으로 <2차 명승 자원 목록>(45개소)을 추출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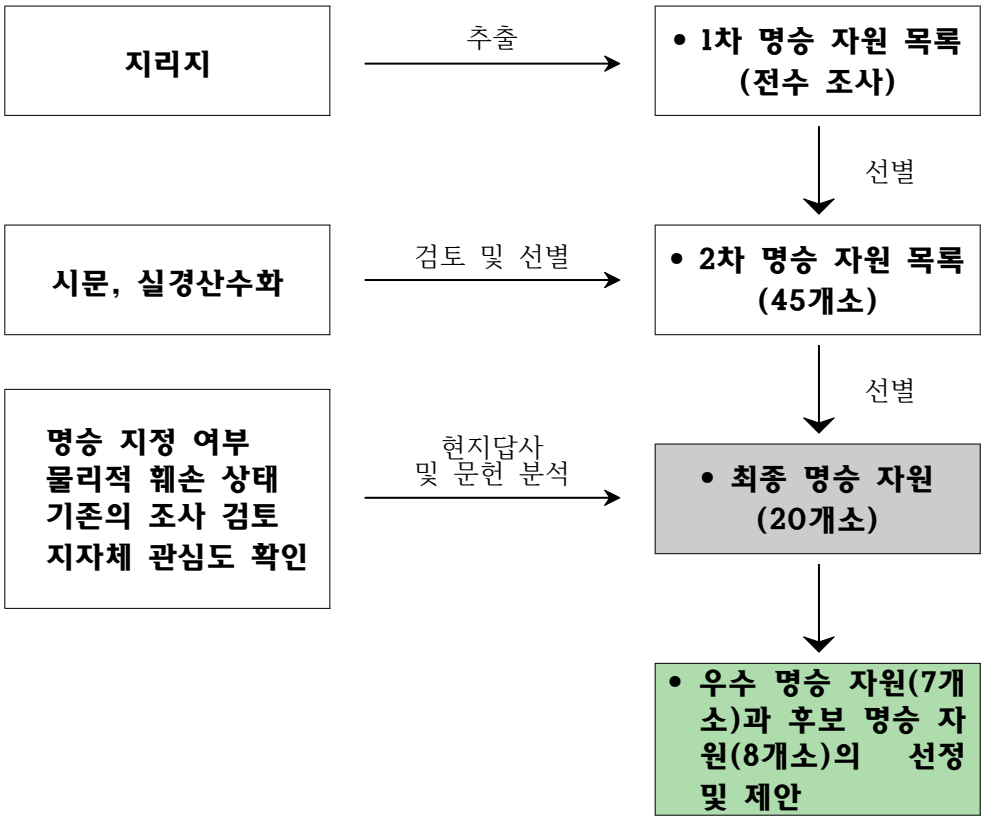
③ <2차 명승 자원 목록>을 토대로 현지답사 및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에 명승으로 지정된 곳, 그 원형의 물리적 훼손이 심각한 곳, 문화재청 주관으로 조사 보고가 이루어진 곳을 제외시켜 본 연구 조사를 위한 <최종 명승 자원 목록>(20개소)을 정리한다.

⬇

④ <최종 명승 자원 목록>을 바탕으로 문화재청 관계자를 포함한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회를 통해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오늘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대팔경'으로 지정한 곳,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보존 혹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등 사회적으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곳들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우수 명승 자원>(7개소)과 <후보 명승 자원>(8개소)을 확정한다.

⬇

⑤ <최종 명승 자원>을 대상으로 지리지 분석, 실경산수화 해석, 고시문 분석을 수행하여 본 보고서를 완성하고, 이 중 <우수 명승 자원>(7개소)과 <후보 명승 자원>(8개소)을 제안함에 있어서는 현지 주민 면담, 지방자치단체 관심도 파악, 지적 조서 확충 등을 통해 명승 후보 지역으로서의 종합 평가를 시도한다.



〈조사 연구를 위한 작업의 흐름도〉

3. 주요 자료의 가치와 활용 방법

1) 지리지(地理誌)

지지(地志) 또는 지지(地誌)라고도 불리는 지리지(地理誌)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록이다. 지리지는 자연지리적인 내용뿐 아니라, 역사·문화·사회·경제·정치·행정·군사 등과 같은 인문지리 내용까지 풍부하게 담고 있어, 지리지가 담고 있는 시대와 지역의 모습을 이해하려는 연구자에게 최적, 최다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리지가 수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명승과 관련된 편목이 많다. 따라서 지리지는 각 지역에 분포하는 명승 자원을 일차적으로 추출하여 정리하는 데 가장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지리지는 당시 사람들이 경관 또는 경치를 어떻게 평가하였고 또 이를 어떻게 향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이 조사에서는 조선시대 지리지에서 각 지역의 명승자원을 추출하여 조사 대상을 목록화하고, 이를 다시 당시 시문, 그리고 오늘날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선정한 관광자원, 기존 연구 성과 등과 대조하여 정밀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목적에 가장 적당한 조선시대 지리지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꼽을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중종의 명에 따라 1530년(중종 25)에 『동국여지승람』을 새로 증보하여 만든 전국 지리지로, 다른 지리지와는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각 지역의 주요한 명소들을 소재로 한 우리나라 문사(文士)들의 시문(詩文)을 수록한 것이다. 즉 각 지방의 산천(山川)에 대한 기록에서 산과 강의 위치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산과 강에 얽힌 고사나 이를 소재로 한 시문을 함께 싣고 있다. 누정의 경우에도 누정의 위치·연혁·특성과 함께 누정을 방문하고 남긴 유명 인사들의 시와 기문(記文)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제영(題詠) 항목을 두어, 각 지방의 명소를 소재로 창작된 시들을 모아 놓았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각 지역의 대표적인 명승 자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즐겼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에 편찬된 지리지이므로, 여기에 수록된 명승 중 후대에 내려와 그 가치가 상실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책이 편

찬될 당시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후대에 새롭게 유명해진 명승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조사에서는『신증동국여지승람』을 기초자료로 삼고, 조선후기에 편찬된 전국 지리지인『여지도서(輿地圖書)』와『대동지지(大東地志)』를 보조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여지도서』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관찬지리지로, 1757년에서 1765년 사이에 각 군현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책으로 묶은 관찬읍지이다. 조선후기 들어 간행된 지 270여 년이나 된『신증동국여지승람』을 다시 고치고 그동안 달라진 내용을 싣기 위해서 1757년(영조 33)에 홍양한(洪良漢)의 건의로 왕명에 따라 홍문관에서 간행하였으며, 중앙에서 직접 그 내용을 편찬하기 보다는 각 군현의 313개의 읍지(邑誌)와 영지(營誌), 진지(鎭誌)를 모아 그대로 책으로 묶은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 사람들의 시각이 생생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대동지지』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완성한 뒤에 편찬에 착수하여 1864년경에 완성한 지리지로, 가장 대표적인 사찬 전국 지리지로, 19세기의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2) 고시문(古詩文)

『고려사』,『조선왕조실록』,『신증동국여지승람』,『대동지지』,『여지도서』 등 역사서 및 지리지를 비롯하여 고려와 조선의 문집에 실린 다양한 관련 시문(詩文)들에는 각 지역의 명승을 향유하던 당대의 양상과 맥락을 담고 있다. 이들 자료는 현대인들이 전통 명승을 이해하고 향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려사』,『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서를 통해서는 명승 자원에 대한 국왕과 조정 관료 등의 관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대동지지』,『여지도서』 등 지리지에는 지리적 내용뿐 아니라 옛 문인들이 명승을 유람하면서 남긴 문학작품들도 수록되어 있다.

특히『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다수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어 이들 작품은 해당 명승에 대한 문학적 향유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만『신증동국여지승람』은 1530년(중종 25)에 최종 증보되었으므로 이 시기까지의 시문만을 포괄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다루지 않은 조선 중기 이후의 시문들까지 검토하여 문인들의 명승 향유 양상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려와 조선의 문인들이 남긴 문집들에 나타난 명승 유람 시문들을 분석해야 하는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표점·영인하여 방대한 규모로 간행한 『한국문집총간』에 수록 된 문집들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의 대표적 성과로 손꼽히는 한국문집총간은 고전 번역과 한국학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역대 문집 1,260여종을 선별하여 수집·정리하는 원전정리사업의 대표적 간행물이다. 한국문집총간은 1986년부터 편찬에 착수하여 1988년 첫 번째 간행본 20책을 세상에 선보였으며, 그 후 매년 20책씩 간행하여 지난 2005년 정편 350책을 완간하였다. 정편 350책에는 신라 최치원(崔致遠)의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에서 구한말 조긍섭(曺兢燮)의 『암서집(巖棲集)』에 이르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 662명의 문집 663종이 수록되었는데 원서로는 15,018권 4,917책에 381,679면의 방대한 양이다. 여기에 수록된 자료 중에서 문학사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문인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명승 관련 시문을 분석하면 명승 향유의 방식과 향유의 의의가 더욱 명료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3)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의 역사문화 명승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에는 크게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와 고지도(古地圖)를 포함시킬 수 있다. 실경산수화는 조선시대 회화 중에 우리나라에 실재하는 경관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17세기 말 이후 한국 고유의 시대정신과 예술경향을 나타내는 실경산수화를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라고 구별하여 부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실경산수화로 통칭된다. 실경산수화에 묘사된 장소나 소재는 대부분 오랜 시기동안 재현되어 온 곳이며 특정한 동기와 배경에서 선호된 것이다. 또한 18세기 이후 이름 높은 명승 자원이나 유적지를 여행한 뒤 그 기행의 성과를 그림으로 그리는 기행사경(紀行寫景)이 문인관료들 사이에 유행하였다. 따라서 명승이나 명소를 단폭에 그린 명승명소도(名勝名所圖)나 기행의 경험과 흥취를 기념한 일련의 사경도(寫景圖)가 실경산수화의 주된 대상으로 사용될 것이다.

실경산수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경산수화를 지역별, 소재별로 분류하

여 제작 빈도수가 높은 명승을 추출할 필요가 있겠다. 이어서 많이 그려진 명승이 옛 시문 속에서는 얼마나 자주 소재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시문과 그림에서 모두 인기 있었던 소재를 선별할 것이다. 실경산수화의 시점(視點)과 구도, 지형지물의 표현방식과 비중 등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명승을 조망하는 위치나 관점을 알아내려고 한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명승을 어떻게 향유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줄 것이다.

조선시대에 실경산수화를 직접 제작하거나 주문한 사람들은 대부분 문인관료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시서화일치사상(詩書畵一致思想)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치를 문학적으로 서술하는 것과 회화적으로 재현하는 것에 같은 의미를 부여하였고 실제로 두 가지의 예술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기행사경의 경우는 시문과 그림의 제작이 병행되곤 하였다. 따라서 명승을 주제로 한 시문은 상당히 회화성이 농후하며 여기에서 추출된 이미지는 현전하는 실경산수화와 비교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그림과 시문이 서로 상호보완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실경산수화의 시점과 묘사 방식은 당대 사람들의 명승에 대한 향유 방식을 재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할 것이다. 다음 <표 1~5>는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북도 · 대구광역시에 해당하는 명승명소도의 목록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경상남도 명승명소도 목록

연번	명승	지명	작가	제목	작품 관련 정보
1	海印寺	합천	鄭敾	海印寺	지본담채, 23.1×67.7, 국립중앙박물관
2	涵碧樓	합천	작자미상	陜川 涵碧樓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3	紅流洞	합천	작자미상	陜川 紅流洞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4	海印寺	합천	작자미상	陜川 海印寺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5	落花潭	합천	작자미상	陜川 落花潭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6	黃溪瀑布	합천	작자미상	陜川 黃溪瀑布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7	海印寺	합천	金允謙	海印寺 (嶺南紀行帖)	지본담채, 30.3×32.7, 동아대학교박물관
8	紅流衕	합천	金允謙	紅流衕 (嶺南紀行帖)	지본담채, 31.2×32.6, 동아대학교박물관
9	紅流洞	합천	작자미상	紅流洞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10	涵碧亭	합천	작자미상	涵碧亭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11	花開縣	하동	李澄	花開縣舊莊圖	1643년, 견본담채, 89.3×56.0, 국립중앙박물관
12	智異山 天王峰	하동	작자미상	河東 智異山 天王峰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13	佛一庵 瀑布	하동	작자미상	河東 佛一庵瀑布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14	新興寺	하동	작자미상	河東 新興寺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15	智異山	하동	작자미상	智異山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16	佛日菴	하동	작자미상	佛日菴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17	三神洞	하동	작자미상	三神洞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18	松臺	거창	金允謙	松臺 (嶺南紀行帖)	지본담채, 30.7×38.0, 동아대학교박물관
19	蓴岩	거창	金允謙	蓴岩 (嶺南紀行帖)	지본담채, 30.2×41.9, 동아대학교박물관
20	迦葉菴	거창	金允謙	迦葉菴 (嶺南紀行帖)	지본담채, 30.0×21.1, 동아대학교박물관
21	迦葉衕瀑	거창	金允謙	迦葉衕瀑 (嶺南紀行帖)	지본담채, 31.1×30.4, 동아대학교박물관
22	月淵	함양	金允謙	月淵 (嶺南紀行帖)	지본담채, 30.3×38.9, 동아대학교박물관
23	蛇潭	함양	金允謙	蛇潭 (嶺南紀行帖)	지본담채, 29.9×46.7, 동아대학교박물관

연번	명승	지명	작가	제목	작품 관련 정보
24	下龍游潭	함양	金允謙	下龍游潭 (嶺南紀行帖)	지본담채, 30.6×30.8, 동아대학교박물관
25	極樂菴	함양	金允謙	極樂菴 (嶺南紀行帖)	지본담채, 27.2×42.8, 동아대학교박물관
26	花林洞	함양 (安陰)	작자미상	安陰 花林洞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27	愁送臺	함양 (安陰)	작자미상	安陰 愁送臺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28	長水寺 龍湫	함양 (安陰)	작자미상	安陰 長水寺龍湫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29	極樂菴	함양 (安陰)	金喜誠	極樂菴 (不染齋主人眞籍帖)	지본담채, 30.0×55.2, 삼성미술관 리움
30	畵巖	함양 (安陰)	金喜誠	畵巖 (不染齋主人眞籍帖)	지본담채, 30.0×55.2, 삼성미술관 리움
31	龍吟瀨	함양 (安陰)	金喜誠	龍吟瀨 (不染齋主人眞籍帖)	지본담채, 30.0×55.2, 삼성미술관 리움
32	松臺	함양 (安陰)	金喜誠	安陰 松臺	지본담채, 31.2×27.4,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33	花林洞	함양 (安陰)	작자미상	花林洞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34	猿鶴洞	함양 (安陰)	작자미상	猿鶴洞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35	尋眞洞	함양 (安陰)	작자미상	尋眞洞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36	赤壁	산청 (丹城)	작자미상	丹城 赤壁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37	換鵝亭	산청 (山陰)	작자미상	山陰 換鵝亭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38	換鵝亭	산청 (山陰)	金允謙	換鵝亭 (嶺南紀行帖)	지본담채, 30.0×45.9, 동아대학교박물관
39	換鵝亭	산청 (山陰)	작자미상	換鵝亭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40	矗石樓	진주	작자미상	晋州 矗石樓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41	矗石樓	진주	작자미상	矗石樓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42	嶺南樓	밀양	작자미상	密陽 嶺南樓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43	嶺南樓	밀양	작자미상	嶺南樓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44	鼎巖	의령	작자미상	宜寧 鼎巖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45	十翫亭	의령	작자미상	宜寧 十翫亭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46	閒山島	거제	작자미상	閒山島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47	錦山 九井巖	남해	작자미상	南海 錦山 九井巖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연번	명승	지명	작가	제목	작품 관련 정보
48	錦山	남해	작자미상	錦山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49	閑山島 制勝堂	통영	작자미상	統營 閑山島 制勝堂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50	洗兵館	통영	작자미상	統營 洗兵館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51	床巖	고성	작자미상	固城 床巖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표 2. 부산광역시 명승명소도 목록

연번	명승	지명	작가	제목	작품 관련 정보
1	永嘉臺	부산	작자미상	釜山 永嘉臺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2	東萊	부산	작자미상	東萊府使接倭使圖	18세기, 지본채색, 81.5×460.0, 국립중앙박물관
3	太宗臺	부산	金允謙	太宗臺 (嶺南紀行帖)	지본담채, 29.9×46.1, 동아대학교박물관
4	沒雲臺	부산	金允謙	沒雲臺 (嶺南紀行帖)	지본담채, 30.0×46.0, 동아대학교박물관
5	沒雲臺	동래	작자미상	東萊 沒雲臺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6	太宗臺	동래	작자미상	東萊 太宗臺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7	海雲臺	동래	작자미상	東萊 海雲臺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8	沒雲臺	부산 (東萊)	작자미상	沒雲臺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9	海雲臺	부산 (東萊)	작자미상	海雲臺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10	永嘉臺	부산	金允謙	永嘉臺 (嶺南紀行帖)	지본담채, 29.6×47.6, 동아대학교박물관
11	倭館	부산	卞璞	倭館	지본담채, 133.0×58.5, 국립중앙박물관
12	釜山	부산	李聖麟	釜山 (槎路勝區圖卷)	1748년, 지본담채, 35.2×70.3, 국립중앙박물관

표 3. 울산광역시 명승명소도 목록

연번	명승	지명	작가	제목	작품 관련 정보
1	盤龜臺	울산 (彦陽)	작자미상	彦陽 盤龜臺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표 4. 경상북도 명승명소도 목록

연번	명승	지명	작가	제목	작품 관련 정보
1	陶山書院	안동	鄭敾	陶山書院	지본담채, 21.2×56.3, 간송미술관
2	陶山書院	안동(禮安)	작자미상	禮安 陶山書院(嶠南名勝帖)	지본수묵, 38.3×25.8, 간송미술관
3	陶山書院	안동	鄭敾	溪上靜居(退尤二先生眞蹟帖)	1746년, 지본수묵, 25.4×40.0, 개인
4	陶山書院	안동	姜世晃	陶山書院圖	1751년, 지본담채, 26.8×138.5, 국립중앙박물관
5	陶山	안동	金昌錫	陶山圖	지본담채, 각첩 39.0×27.5, 연세대도서관
6	陶山	안동	작자미상	陶山圖	지본담채, 30.0×130.0, 계명대학교도서관
7	陶山	안동	작자미상	陶山圖	지본담채, 106.7×77.0, 障子, 복제, 개인
8	陶山	안동	傳 崔北	陶山之圖	지본담채, 27.0×144.0, 조남학 소장
9	陶山	안동	작자미상	陶山圖	지본담채, 33.0×51.6, 서정철 소장
10	落淵	안동	작자미상	安東 落淵(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11	河回書院	안동	작자미상	安東 河回書院(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12	淸凉山	안동	작자미상	安東 淸凉山(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13	暎湖樓	안동	작자미상	安東 暎湖樓(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14	東湖	안동	李宗岳	東湖解纜(虛舟府君山水遺帖)	1763년, 지본채색, 35.0×25.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5	?	안동	李宗岳	羊汀過帆(虛舟府君山水遺帖)	1763년, 지본채색, 35.0×25.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6	七灘	안동	李宗岳	七灘候船(虛舟府君山水遺帖)	1763년, 지본채색, 35.0×25.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7	泗水	안동	李宗岳	泗水泛舟(虛舟府君山水遺帖)	1763년, 지본채색, 35.0×25.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8	?	안동	李宗岳	船倉繫纜(虛舟府君山水遺帖)	1763년, 지본채색, 35.0×25.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9	落淵(陶淵)	안동	李宗岳	落淵莫色(虛舟府君山水遺帖)	1763년, 지본채색, 35.0×25.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	藥山 仙刹寺	안동	李宗岳	山寺尋眞(虛舟府君山水遺帖)	1763년, 지본채색, 35.0×25.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1	輞川	안동	李宗岳	輞川歸棹(虛舟府君山水遺帖)	1763년, 지본채색, 35.0×25.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2	白雲亭	안동	李宗岳	雲亭風帆(虛舟府君山水遺帖)	1763년, 지본채색, 35.0×25.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3	伊湖	안동	李宗岳	伊湖停棹(虛舟府君山水遺帖)	1763년, 지본채색, 35.0×25.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번	명승	지명	작가	제목	작품 관련 정보
24	鮮魚淵	안동	李宗岳	鮮魚返照 (虛舟府君山水遺帖)	1763년, 지본채색, 35.0×25.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5	伴鷗亭	안동	李宗岳	伴鷗觀燈 (虛舟府君山水遺帖)	1763년, 지본채색, 35.0×25.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6	河隈마을	안동	李義聲	河隈圖十曲屛	1828년, 지본담채, 각 130.0×59.0, 국립중앙박물관
27	落淵	안동	작자미상	落淵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28	映湖樓	안동	작자미상	映湖樓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29	淸凉山	안동	작자미상	淸凉山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30	陶山	안동 (禮安)	작자미상	陶山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31	聖留窟	울진	鄭敾	聖留窟	지본담채, 27.2×28.5, 간송미술관
32	雙島亭	성주	鄭敾	雙島亭圖	견본담채, 34.7×26.4, 개인
33	淸河邑城	포항	鄭敾	淸河邑城圖	지본수묵, 32.7×25.9, 겸재기념관
34	內延山 三龍湫	포항	鄭敾	內延山 三龍湫圖	견본수묵, 29.8×21.1, 국립중앙박물관
35	內延山 三龍湫	포항	鄭敾	內延山 三龍湫圖	지본수묵, 134.7×56.1, 삼성미술관 리움
36	內延山 瀑布	포항 (淸河)	작자미상	淸河 內延山 瀑布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37	內延山	포항 (淸河)	작자미상	內延山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38	東洛書院	구미	작자미상	仁同 東洛書院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39	天生山城	구미	작자미상	仁同 天生山城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40	砥柱碑	구미	작자미상	仁同 砥柱碑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41	金烏山城	구미 (善山)	작자미상	善山 金烏山城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42	鸕鷀亭	구미 (善山)	작자미상	善山 鸕鷀亭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43	月波亭	구미 (善山)	작자미상	善山 月波亭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44	梅鶴亭	구미 (善山)	작자미상	善山 梅鶴亭 (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45	月波亭	구미 (善山)	작자미상	月波亭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46	鸕鷀亭	구미 (善山)	작자미상	鸕鷀亭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47	海鶴亭	구미 (善山)	작자미상	海鶴亭 (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연번	명승	지명	작가	제목	작품 관련 정보
48	望北亭	의성(比安)	작자미상	比安 望北亭(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49	望北亭	의성(比安)	작자미상	望北亭(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50	仙遊洞	문경	작자미상	聞慶 仙遊洞(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51	仙遊洞	문경	작자미상	仙遊洞(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52	靑巖	성주	작자미상	靑巖(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53	檜淵書院	성주	작자미상	星州 檜淵書院(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54	鳳飛巖	성주	金尙眞	鳳飛巖(武屹九曲圖)	지본담채, 36.0×23.0, 정재국 소장
55	玉山書院	경주	작자미상	慶州 玉山書院(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56	鳳凰臺	경주	작자미상	慶州 鳳凰臺(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57	骨窟石窟	경주	작자미상	慶州 骨窟石窟(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58	盤龜	경주	작자미상	盤龜(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59	玉山	경주	작자미상	玉山(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60	骨窟	경주	작자미상	骨窟(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61	鳳凰臺	경주	작자미상	鳳凰臺(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62	觀魚臺	영덕(寧海)	작자미상	寧海 觀魚臺(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63	淸心樓	영덕	작자미상	淸心樓(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64	淸心樓	영덕	작자미상	盈德 淸心樓(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65	觀水樓	상주	작자미상	尙州 觀水樓(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66	龍遊洞	상주	작자미상	尙州 龍遊洞(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67	龍遊洞	상주	작자미상	龍遊洞(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68	朝陽閣	영천	작자미상	永川 朝陽閣(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69	彌勒菴動石	영천	작자미상	永川 彌勒菴動石(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70	朝陽閣	영천	작자미상	朝陽閣(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71	白雲洞書院	영주(順興)	작자미상	順興 白雲洞書院(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연번	명승	지명	작가	제목	작품 관련 정보
72	浮石寺	영주(順興)	작자미상	順興 浮石寺(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73	白雲洞	영주(順興)	작자미상	白雲洞(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74	架巖山城	칠곡	작자미상	漆谷 架巖山城(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75	架巖	칠곡	작자미상	架巖(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 38.5×45.5, 일본 유현재
76	玉井巖	청도	작자미상	淸道 玉井巖(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77	開湖亭	고령	작자미상	高靈 開湖亭(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표 5. 대구광역시 명승명소도 목록

연번	명승	지명	작가	제목	작품 관련 정보
1	達城	대구	鄭敾	達城遠眺	재료, 크기, 소장처 미상
2	達城	대구	작자미상	大邱 達城(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3	霞鶩堂	대구	작자미상	大邱 霞鶩堂(嶠南名勝帖)	지본담채, 38.3×25.8, 간송미술관
4	達城	대구	鄭槩	大邱達城圖	지본채색, 49.0×69.0, 영남대학교박물관

4. 연구 분담 체계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 속	직위	성 명	소 속	직위	성 명
연구 총괄	한국 교원대학교	교수	류제헌	한국 교원대학교	박사 과정	신동섭
					석사 과정	조영남
지리지 분석 연구	한국학 중앙연구원	부교수	정치영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 과정	김우선
고시문 해석 연구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	조융희	광운 대학교	강사	김지현
				서천 고등학교	교사	여희정
실경산수화 해석 연구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	박정혜	중앙 대학교	강사	박정애
명승의 현재적 재구성	경인 교육대학교	부교수	전종한	대전여자 상업고등학교	교사	유영석
				한국 교육개발원	연구원	전소열
지형 및 토지이용 분석	한국 교원대학교	교수	이민부	동대전 고등학교	교사	최 훈
식생 자원 조사	상명 대학교	조교수	강현경	상명 대학교	박사 과정	백승준

Ⅲ. 조사 대상 명승 자원 현황

1. 우수 명승 자원의 명칭과 위치

본 조사 연구에서는 지리지 분석, 고시문 및 실경산수화 해석, 현지 조사, 그리고 중간 보고회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에 명승으로 지정된 곳, 원형의 물리적 훼손이 심각한 곳, 문화재청 주관으로 조사 보고가 이루어진 곳 등을 확인하고, <우수 명승 자원>을 도출하였다.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 지역에 분포하는 총 7개소의 우수 명승 자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표와 같다.

〈우수 명승 자원 목록〉

연번	소재	명 칭	주요 지점	현 위치
1	경북	안동(安東) 가송협(佳松峽)과 고산정(孤山亭)	고산정, 가송협, 고산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2	경북	영덕(盈德) 침수정(枕漱亭) 일원	침수정, 옥계계곡	경북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3	경북	포항(浦項) 내연산(內延山) 계곡	상생·보현·삼보·잠룡· 무풍·관음·연산폭포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4	경북	청도(淸道) 운문산(雲門山) 학심이골 일원	학소대폭포, 비룡폭포, 쌍폭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5	경남	밀양(密陽) 재약산(載藥山) 표충사(表忠寺)계곡	재약산, 옥류동천, 금강동천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6	경남	양산(梁山) 천성산(千聖山) 화엄(華嚴)벌	화엄벌, 천성산 제1봉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7	경남	하동(河東) 불일폭포(佛日瀑布) 일원	불일폭포, 청학봉, 백학봉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안동 가송협과 고산정
①
영덕 침수정 일원
②
③
포항 내연산 계곡
청도 운문산 학심이골 일원
밀양 재약산 표충사 계곡
④
⑤
⑥
양산 천성산 화엄벌
⑦
하동 불일폭포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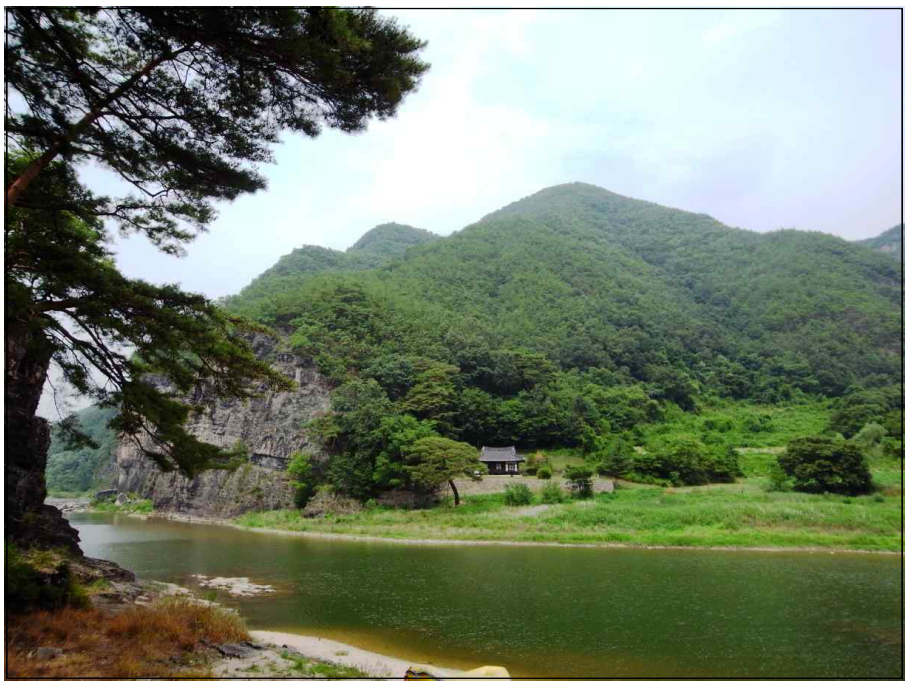
〈우수 명승 자원 위치도〉

2. 우수 명승 자원별 개관

1) 안동(安東) 가송협(佳松峽)과 고산정(孤山亭)



위치 및 주변 지형



가송협과 고산정

고산정(孤山亭)은 안동팔경의 하나인 가송협(佳松峽)의 단애(斷崖) 아래에 위치한 정자이다. 주위에는 외병산(外屛山)과 내병산(內屛山)이 병풍처럼 둘러 있

고 낙동강의 상류인 가송협의 건너에는 송림과 함께 고산(孤山)이 솟아 있어 절경을 이루고 있다. 고산은 고산정 맞은편에 홀로 떨어져 솟아 있는 산으로 독산(獨山)이라고도 부르며, 풍수지리에서는 '거북이가 물에 잠겨 죽은 형상(龜死潛水)'이라고 한다. 지형적으로 가송마을은 낙동강 하천이 과거에 흘렀던 구하도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고산은 미앤더핵(meander core)에 해당하는 지형이다. 고산정은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고산정과 고산 사이의 협곡을 가송협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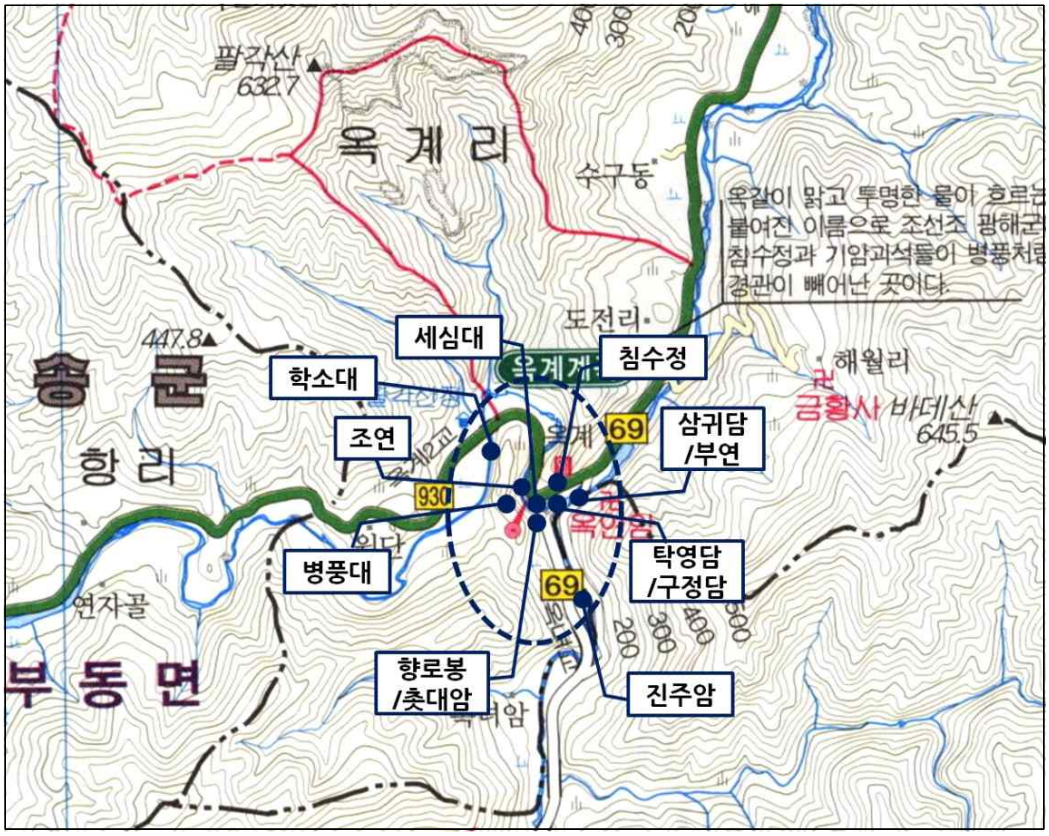
고산정은 본래 정유재란 때 안동 수성장으로 활약하여 좌승지에 증직된 바 있는 성성재(惺惺齋) 금난수(琴蘭秀, 1530~1599)의 정자이다. 금난수의 행장(行狀)에 따르면 금난수가 35세 되던 1564년(명종 19)에 당시 선성현(宣城縣)의 명승지일(名勝之一)이었던 가송협에 정자를 짓고 일동정사(日東精舍)라 부르며 늘 경전을 가까이 한 채 유유자적하였다 한다.

고산정 건립당시 사정과 주위의 절경에 대해서는 「일동록(日洞錄)」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창건 당시부터 예안지방의 대표적인 절경으로 알려져 그의 스승인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도 누차 문인들과 함께 와서 영시유상(詠詩遊賞)하였다 한다. <고산제영(孤山題詠)>에는 퇴계의 문도를 비롯하여 재경관인(在京官人)들까지 찾아 차운(次韻)한 시(詩)가 수백 수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인근에는 퇴계 이황이 지나다니던 길(예던길)과 농암종택 등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이 위치하고 있다.



구하도와 고산(右)

2) 영덕(盈德) 침수정(枕漱亭) 일원



위치 및 주변 지형



침수정과 옥계계곡

예로부터 경주 사람들이 경승지(景勝地)를 꼽을 때 '남반구 북옥계(南盤龜北玉溪; 남쪽은 반구, 북쪽은 옥계)'라 했다는데, 옥계(玉溪)란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下玉里)부터 영덕군 달산면 옥산리(玉山里)까지의 계곡을 일컫는 것이다. 본래 하옥리와 옥산리 모두 영일군에 속했으나, 옥산리는 생활권이 영덕 쪽에 가까워 1987년에 영덕군에 이속(移屬)되었다.

경상북도 기념물 제45호로 지정되어 있는 옥계계곡은 팔각산(八角山)과 동대산(東大山)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산과 강이 아름다우며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특히 하천이 거대한 암반 위를 흐르며 침식작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암석을 깎아 놓았고 또한 암반 사이를 관통하여 일직선의 협곡을 만들어 놓았다. 계곡 주위의 깎아 놓은 듯한 기암괴석은 37경의 비경을 빚어 놓았다. 계곡 가운데 경관이 가장 빼어난 곳에 있는 침수정은 계곡의 경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삼귀담과 부연, 탁영담(마당소)

1784년(정조 8)에 손성을(孫聖乙)이 옥계리 마을 주변에 흩어져 있는 계곡미가 '별유천지(別有天地)'임을 알아 침수정(枕漱亭)을 짓고, '흐르는 물을 베개 삼아 돌로 양치질을 하며 세월을 잊겠다(침류수석: 枕流漱石).'는 심사로 중국 진서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전한다. 팔각산에서 일생을 마쳤던 그가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골라 이름 붙여 놓은 것이 무려 37경이다. 이름 있는 경치로는 침수정 앞에 병풍 모양으로 깎아 놓은 듯한 바위가 병풍대(屛風臺)이고, 향로처럼 생긴

것이 향로봉(香爐峰)이다. 그 사이에 촛대와 흡사한 촛대암(燭臺巖)이 있고, 하옥리 방향으로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면, 계곡 가운데 꽃봉오리 모양으로 앉은 것이 진주암(眞珠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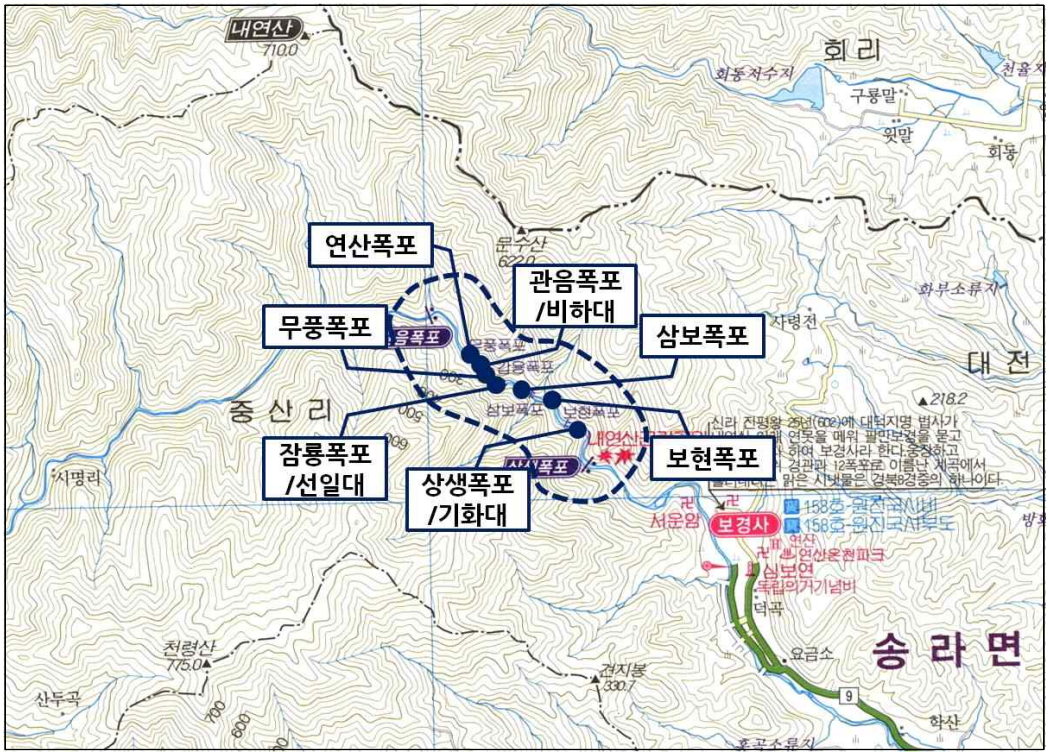
침수정 일원이 위치한 옥계계곡의 하류에는 달산댐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 '광역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높이 52m, 수몰면적 3.07㎢(약 92만 8,000평) 규모의 달산댐 건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1] 달산댐은 영덕군 및 포항시 일원에 일 11만 9천t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댐이며, 현재 달산면 일원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2] 따라서 추후 수몰 여부에 따라 명승 자원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옥계 37경 각각의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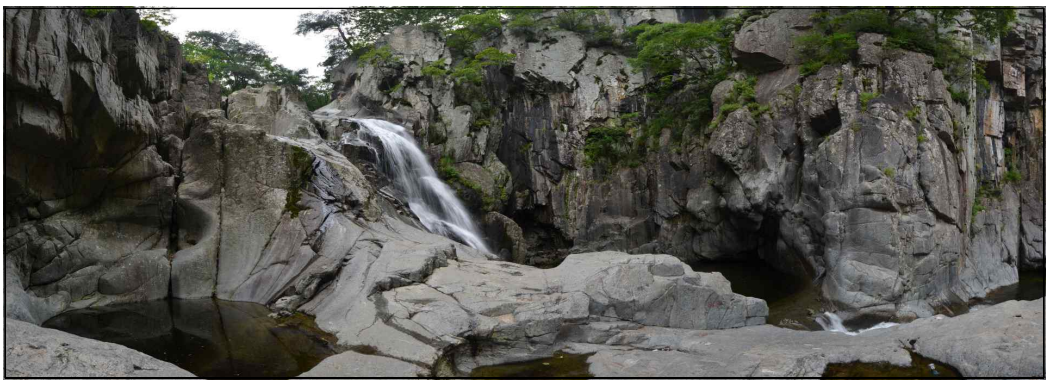
부암(浮巖), 봉관암(鳳官巖), 일월봉(日月峰), 팔각봉(八角峰), 복룡담(伏龍潭), 천연대(天淵臺), 부벽대(俯碧臺), 삼층대(三層臺), 향로봉(香爐峰), 촛대암(燭臺巖), 삼귀담(三龜潭), 소영담(嘯詠潭), 세심대(洗心臺), 탁영담(濯纓潭), 화장석(華長石), 학소대(鶴巢臺), 병풍대(屛風臺), 조연(竈淵), 천조(天竈), 구정담(臼井潭), 부연(釜淵), 존심대(存心臺), 옥녀봉(玉女峰), 마제석(馬蹄石), 선인굴(仙人窟), 구룡담(九龍潭), 진주암(眞珠巖), 광명대(光明臺), 귀남연(龜南淵), 둔세굴(遯世窟), 풍호대(風乎臺), 채약봉(採藥峰), 강선대(降仙臺), 다조연(茶竈淵), 계관암(鷄官巖), 사자암(獅子巖), 영귀대(詠歸臺)

1) 한국일보, 2011, 국토부, 종합계획에도 없던 영양댐·달산댐 추진, 10월 31일.
2) 경북일보, 2014, 포항시, '달산댐 조기 건설 절실', 9월 2일.

3) 포항(浦項) 내연산(內延山) 계곡



위치 및 주변 지형



내연산 청하골의 12폭포 중 제7폭 연산폭포

내연산(內延山) 계곡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하는 계곡으로, 계곡을 따라 12개의 폭포가 장관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한 명승이다. 청하골 또는 내연골이라고도 불린다. 내연산 일원의 명승 지점은 산 능선이나 정상부 혹은 산체 그 자체가 아니라 계곡과 계곡을 따라 연이어 있는 12개의 폭포라 할 수 있다.

내연산 계곡은 청하골이라는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원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계곡'이다. 긴 계곡을 따라 아름다운 열 두 개의 폭포가 연이어 있기 때

문에 12폭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상생폭, 보현폭, 삼보폭, 연산폭, 은폭, 복호폭, 시명폭 등 이름을 얻은 폭포들이 분포한다. 특히 내연산 계곡은 숲으로 덮인 어두운 골짜기가 아니라 하늘이 열려 있고 이것이 계곡의 맑은 물 및 웅장한 기암들과 또한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화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명승이다.


내연산 계곡(청하골)의 전경

내연산은 본래 종남산(終南山)이라 했던 것을 신라 진평왕(眞平王, ?~632)이 견훤(甄萱, ?~936)의 난을 이곳에서 피했다고 하여 안으로 맞아들였다는 뜻의 내연산(內延山) 또는 내영산(內迎山)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진평왕과 견훤의 생존 연대가 3세기 가량 차이 나므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내연산 줄기에서 발원하는 광천(廣川)은 송라면(松羅面)을 관류하여 조사리에서 동해로 유입한다. 광천은 보경사(寶鏡寺) 인근을 기준으로 상류와 하류의 경관이 크게 다른데, 상류는 산지 사이에 깎아 지르는 듯한 협곡을 이루고 있다. 주로 중산리에 해당되는 이 상류부를 내연산 계곡 또는 청하골이라 지칭한다.

내연산 계곡은 내연산(삼지봉, 三枝峯)을 비롯하여 문수봉(文殊峰), 향로봉(香爐峰), 삿갓봉, 천령산 등이 초승달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다. 이들 산지는 주로 풍화에 강한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경사가 급하고 기복이 큰 편이다. 따라서 이들 산지 사이를 40리 가량 관류하는 내연산 계곡은 그 고도나 유량에 비해 깊고 그윽한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해지는 문헌에 따르면 내연산은 조선시대 이래로 명승지로써 주목받아 왔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삼동석(三動石)이 언급되어 있으며, 해월(海月) 황여일(黃汝一, 1556~1622)의 <내영산 유람록(遊內迎山錄)>을 비롯하여 대산(大

山) 이상정(李象靖, 1710~1781), 취흘(醉吃) 유숙(柳潚, 1564~?) 등의 시문이 남아 있다. 또한 진경산수화의 거장인 겸재(謙齋) 정선(鄭敾, 1676~1759)의 <내연산 삼용추도(內延山 三龍湫圖)> 등의 산수화가 전해지고 있어 전통 명승으로 손색이 없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는 대구일보가 진남교반(문경), 문경새재(문경), 주왕산(청송), 금오산(구미), 청량산(봉화), 희방폭포(영주), 빙계계곡(의성) 등과 함께 내연산 보경사를 경북팔경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보경사를 지나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양 옆으로 깎아 지르는 수직단애가 나타나고 그 사이로 '내연산12폭'이라 칭해지는 폭포와 소가 나타난다. 12폭은 하류에서부터 상생폭포(相生瀑布), 보현폭포(普賢瀑布), 삼보폭포(三洑瀑布), 잠룡폭포(潛龍瀑布), 무풍폭포(無風瀑布), 관음폭포(觀音瀑布), 연산폭포(延山瀑布), 은폭포(隱瀑布), 복호1폭포(伏虎瀑布), 복호2폭포, 복호3폭포, 시명폭포(時明瀑布) 등으로 이뤄져 있다.

12폭 중에서도 삼용추를 중심으로 하는 상생폭포~연산폭포 구간의 경관이 빼어나다. 특히 제1폭인 상생폭포와 제6폭인 관음폭포, 제7폭인 연산폭포를 삼폭포라고 일컫는다. 하폭인 상생폭포는 쌍폭으로 이뤄져 있으며, 그 모습이 웅장하지는 않지만 쌍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단아하다. 중폭인 관음폭포 역시 쌍폭으로 이뤄져 있는데, 선일대, 비하대, 관음대를 비롯한 수직의 단애가 폭포를 둘러싸고 있고, 소 주변에는 관음굴을 비롯하여 천연굴이 뚫려 있다. 상폭인 연산폭포는 내연폭포라고도 하는데, 12폭 중 가장 규모가 큰 폭포이며 내연산을 대표하는 폭포이다. 여름철의 우렁찬 폭포 소리뿐만 아니라 겨울철의 얼음기둥은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4) 청도(淸道) 운문산(雲門山) 학심이골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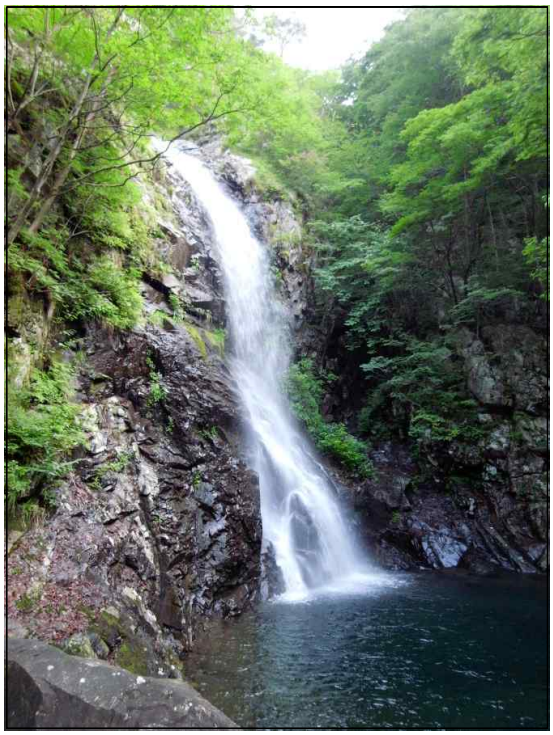
위치 및 주변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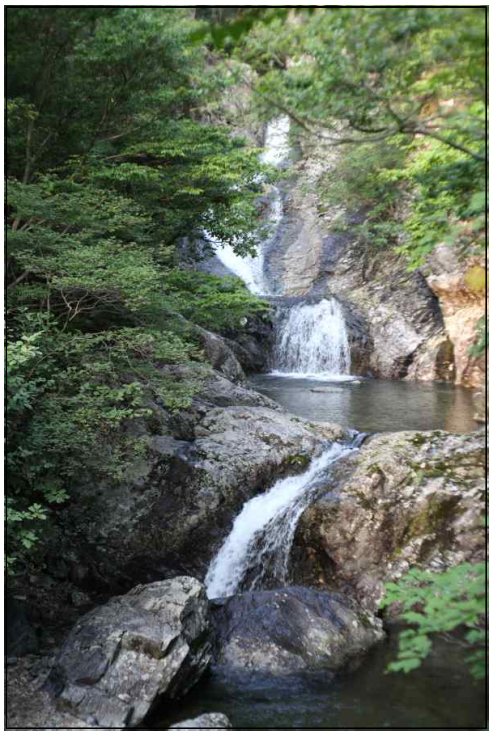
운문산 학심이골

운문산(雲門山)은 가지산(加智山)과 연결되는 해발고도 1188m의 산으로 경북과 경남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일대는 지형 경관이 수려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이 보전되어 있어 '영남 알프스'라고 불리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멸종위기종인 산작약, 솔나리, 무산쇠족제비 등 514종의 식물과 수달, 삵, 하늘다람쥐, 담비, 벌매, 원앙, 소쩍새 등을 비롯한 1076종의 동물이 서식 분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운문산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운문산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자연 휴식년제로 입산이 통제되고 있는 운문사 안쪽 골짜기에는 비경이 많다. 천문동 계곡, 배넘이골, 학소대 등이 잘 알려져 있으며, 대개 사리암 입구를 지나는 큰골 주변에 있다. 그 중에서도 운문사에서 사리암계곡을 따라 2km 정도 올라가면 운문산과 가지산으로 갈라지는 골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지산 쪽으로 4km정도 깊은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약 25m정도 높이의 학소대폭포(鶴巢臺瀑布)를 만날 수 있다. 이 폭포 입구에만 들어서면 아무리 한 여름철이라도 한기를 느낄 정도로 시원하며 바닥넓이는 10여 평, 길이가 4m 되는 소(沼)가 있는데 물의 맑기가 거울과 같다. 옛날에 폭포를 중심으로 많은 학들이 모여 살아 학소대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학소대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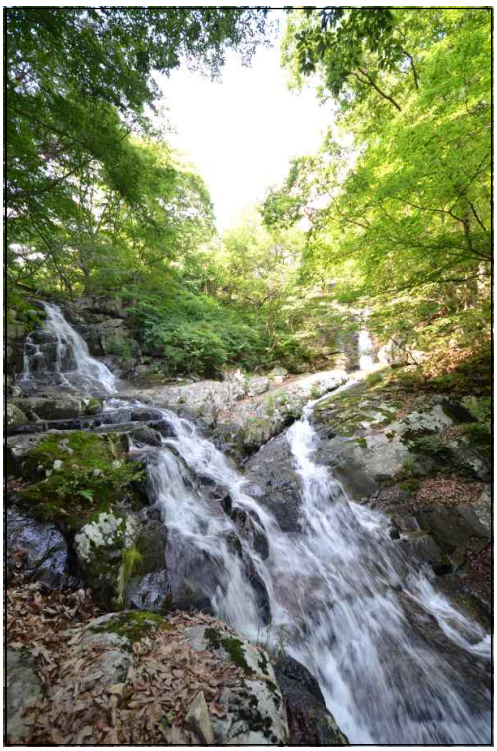


비룡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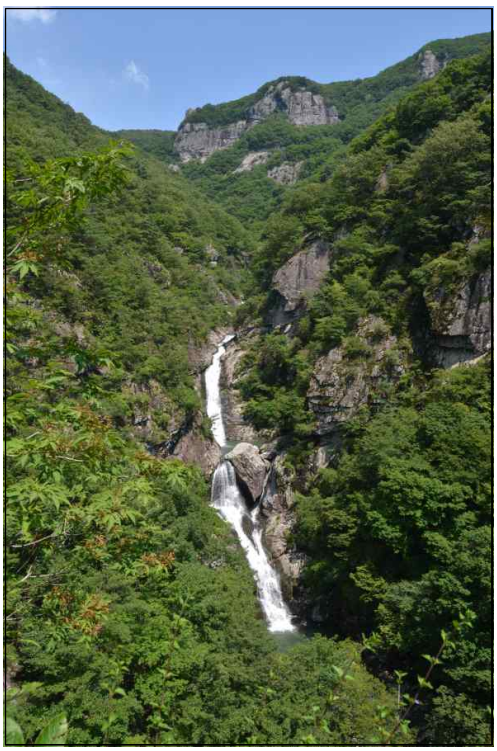
5) 밀양(密陽) 재약산(載藥山) 표충사(表忠寺)계곡



위치 및 주변 지형



금강동천의 금강폭포



옥류동천의 흑룡폭포

재약산(載藥山)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주봉은 수미봉(須彌峰)이다. 북쪽 2km 부근에 솟아 있는 천황산(天皇山)과 맥이 이어지는데, 천황산의 주봉은 사자봉(獅子峰)이다. 천황산이 일제강점기 때 붙은 이름이라 하여 천황산을 재약산으로 일컫기도 하는데[3], 이러한 혼동은 '우리 이름 되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천황산 사자봉을 재약산 주봉으로, 재약산을 수미봉으로 부르면서 생겨났다.

해발 1,000m 이상의 준봉들로 이루어진 영남알프스에 속하는 산으로 산세가 수려하여 삼남금강(三南金剛)이라 부른다. 산세는 부드러운 편이나 정상 일대에는 거대한 암벽이 있다. 수미봉 · 사자봉 · 능동산 · 신불산 · 취서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은 드넓은 억새평원으로 사자평이라 부르는데, 해발고도가 800m에 달한다.

서사면에는 유명한 대찰(大刹)인 표충사(表忠寺)를 비롯하여 내원암 · 서상암 등의 절이 있고, 표충사 우측의 계곡인 옥류동천(玉流洞川)에는 층층폭포(層層瀑布)와 흑룡폭포(黑龍瀑布), 좌측의 계곡인 금강동천(金剛洞川)에는 금강폭포(金剛瀑布) 등의 명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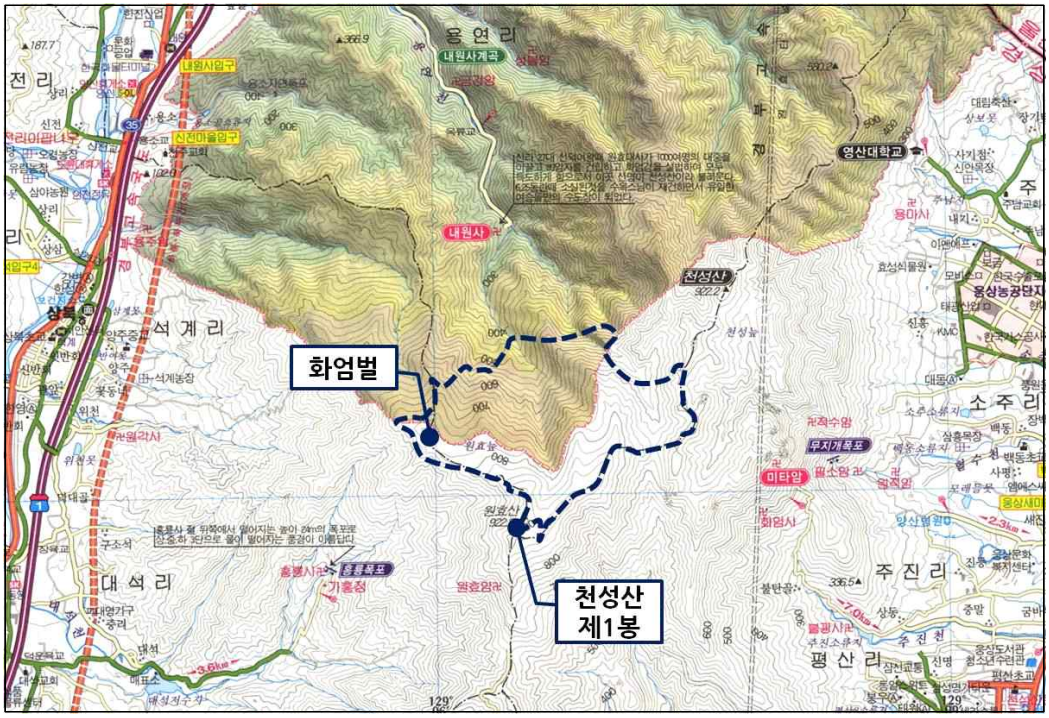
재약산 기슭에 자리하는 표충사는 유생들을 교육하고 성현들을 제사하는 표충서원이 사찰영역 안에 있어 불교와 유교가 한 자리에 공존하는 특색 있는 사찰이다. 654년(신라 무열왕 1)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여 죽림사(竹林寺)라 한 것을 신라 흥덕왕 때부터 영정사(靈井寺)라 하였고, 1839년(헌종 5)에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국난을 극복한 서산, 사명, 기허대사를 모신 표충사당(表忠祠堂)을 이곳으로 이건(移建)하면서 절 이름도 표충사(表忠寺)가 되었다. 표충사는 신라시대 때부터 고려시대까지 보우국사(889년),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국사(1286년), 천희국사(1290년)가 선풍을 관장하여 일국의 명찰이 되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사명대사의 8세(世) 법손(法孫)인 월파당(月坡堂) 천유선사(天有禪師)가 8도도총섭(八道都摠攝)에 올라 전국사찰(八道寺刹)의 승규(僧規)와 풍기(風紀)를 감찰 단속하는 규정소(糾正所)가 설치되었으며, 근대에는 조계종 종정과 통합종단의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선사(曉峰禪師)가 주석하다가 입적한 곳이다. 예부터 명산유곡으로 이름이 높았던 표충사 일대에는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남긴 각종 전설들이 전해 온다.

---

3) 부산일보, 2013, 밀양 재약산~천황산, 1월 17일.

6) 양산(梁山) 천성산(千聖山) 화엄(華嚴)벌



위치 및 주변 지형



천성산 정상부에서 조망한 화엄벌

천성산(千聖山) 1봉은 천성산과 원효산(元曉山)을 통합하여 일컫기 전에는 원효산이라 불리던 산이다. 양산의 최고 명산으로 웅상, 상북, 하북 3개 읍면에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해발 922m이다. 예로부터 깊은 계곡과 폭포가 많고 또한 경치가 빼어나 소금강산(小金剛山)이라 불리었으며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당나라에서 건너온 1천명의 스님에게 화엄경을 설법하여 모두 성인이 되게 했다고 하는데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산 정상부에 과거 공군 부대가 입지해 있던 터가 남아 있으며 그로 인해 정상부 및 그 주변에 인위적인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나 천성산 정상부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능선에 위치한 화엄(華嚴)늪은 2002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또한 지형적인 측면에서 화엄벌은 산지습지로 자연환경 변천의 귀중한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이탄(늪에 살던 식물들로 만들어진 흑갈색의 퇴적물)층이 형성되어 있어 가치가 높다.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꽃이 만산홍(滿山紅)을 이루고, 화엄늪과 밀밭늪에는 희귀한 꽃과 식물(끈끈이주걱), 그리고 곤충들의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또한 가을이면 긴 억새가 온 산을 뒤덮어 환상의 등산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곳 정상은 한반도에서 동해의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름이나 전국에서도 해돋이 광경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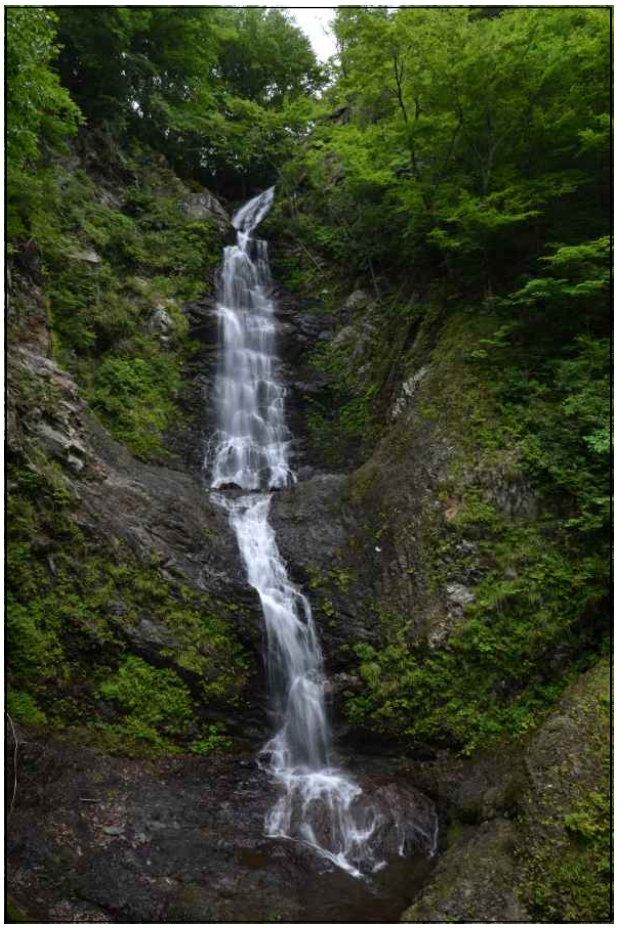


화엄벌에서 조망한 천성산 제1봉

7) 하동(河東) 불일폭포(佛日瀑布) 일원



위치 및 주변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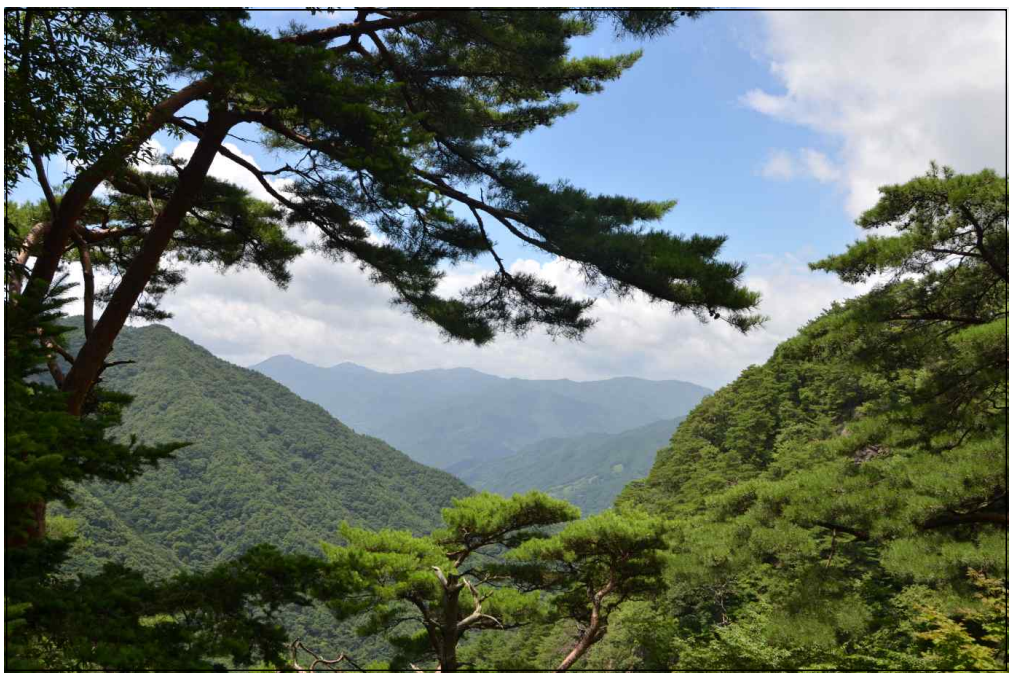
불일폭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에 있는 폭포로 지리산 산자락 중에서 삼신봉과 관음봉 사이의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폭포가 되어 떨어지는 장소가 불일폭포(佛日瀑布)이다. 지리산국립공원에 있는 10경의 하나이며, 쌍계사 북쪽 3㎞ 지점에 펼쳐진 불일평전(佛日平田)에서 약 4㎞ 들어가 있다.

폭포 아래 소(沼)에 살던 용이 승천하면서 좌우에 청학봉(靑鶴峰), 백학봉(白鶴峰)을 만들고 그 사이로 물이 흘러 폭포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또한 최치원이 청학을 불러들였다는 환학대(喚鶴臺)와 불일폭포와 대비천 사이의 청학동(靑鶴洞) 등 불일폭포 일원에는 최치원과 관련된 지명들이 많이 남아 있다.

불일(佛日)이라는 지명은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 1158~1210)의 시호에서 유래한 것이다. 지눌은 고려 희종 때 폭포 근처에서 수도하였고, 지눌의 덕망과 불심에 감동한 희종이 '불일보조(佛日普照)'를 시호로 내렸는데, 이로부터 암자의 이름을 불일암, 폭포를 불일폭포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폭포는 그 높이가 60m에 달하며, 백척단애의 비폭이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형상이다. 봄에는 신록, 가을에는 오색 단풍과 어우러지며, 한여름에도 냉기를 느끼게 하는 장쾌한 물줄기가 가히 장관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 폭포를 이루는 절벽과 주변의 숲이 반원 형태를 이뤄 폭포수의 소리가 더욱 웅장하게 들려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청학봉과 백학봉의 모습

3. 후보 명승 자원의 명칭과 위치

본 조사 연구에서는 지리지 분석, 고시문 및 실경산수화 해석, 현지 조사, 그리고 중간 보고회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에 명승으로 지정된 곳, 원형의 물리적 훼손이 심각한 곳, 문화재청 주관으로 조사 보고가 이루어진 곳 등을 확인하고, <후보 명승 자원>을 도출하였다.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 지역에 분포하는 총 8개소의 후보 명승 자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표와 같다.

〈후보 명승 자원 목록〉

연번	소재	명 칭	주요 지점	현 위치
1	경북	**영주(榮州) 희방폭포(喜方瀑布)**	희방폭포, 희방사, 희방계곡	경북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2	경북	**문경(聞慶) 선유구곡(仙游九曲)**	제1곡~제9곡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3	경북	**상주(尙州) 경천대(擎天臺)**	경천대, 무우정, 옥주봉, 용소	경북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4	경북	**칠곡(漆谷) 가산(架山)바위**	가산바위, 가산산성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5	경남	**거창(居昌) 사선대(四仙臺) 일원**	사선대, 월성계곡	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6	경남	**함양(咸陽) 농월정(弄月亭) 일원**	농월정지, 월연암	경남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7	경남	**합천(陜川) 황계폭포(黃溪瀑布) 일원**	황계폭포, 자연정	경남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8	경남	**진주(晋州) 촉석루(矗石樓) 일원**	촉석루, 의암, 대숲	경남 진주시 본성동


영주 희방폭포
①
문경 선유구곡
②
③
상주 경천대
칠곡 가산바위
④
거창 사선대 일원
⑤
함양 농월정 일원
⑥
⑦
합천 황계폭포 일원
⑧
진주 촉석루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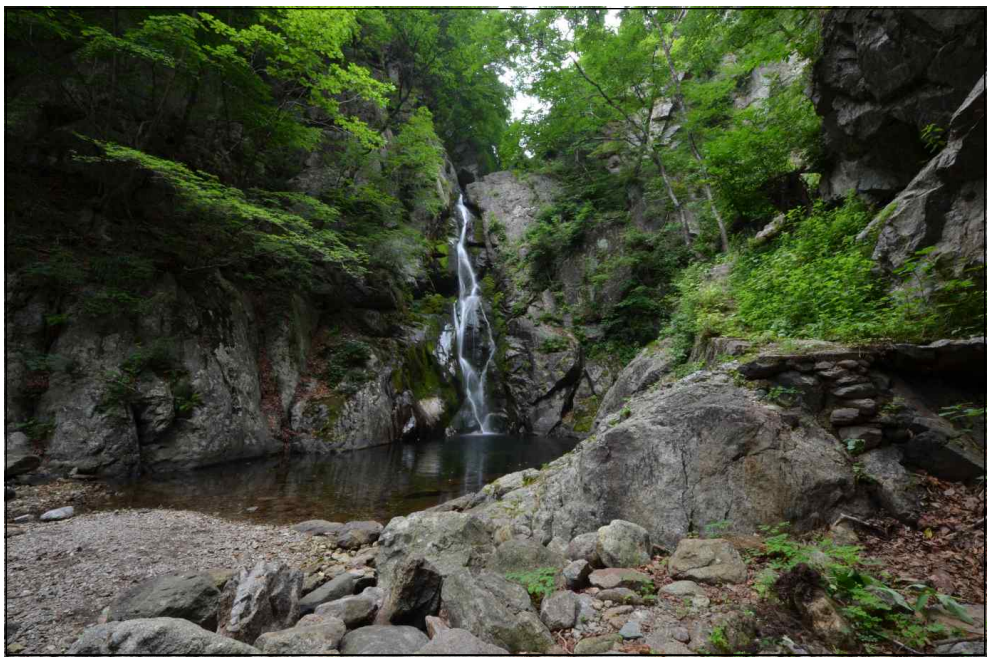
〈후보 명승 자원 위치도〉

4. 후보 명승 자원별 개관

1) 영주(榮州) 희방폭포(喜方瀑布)



위치 및 주변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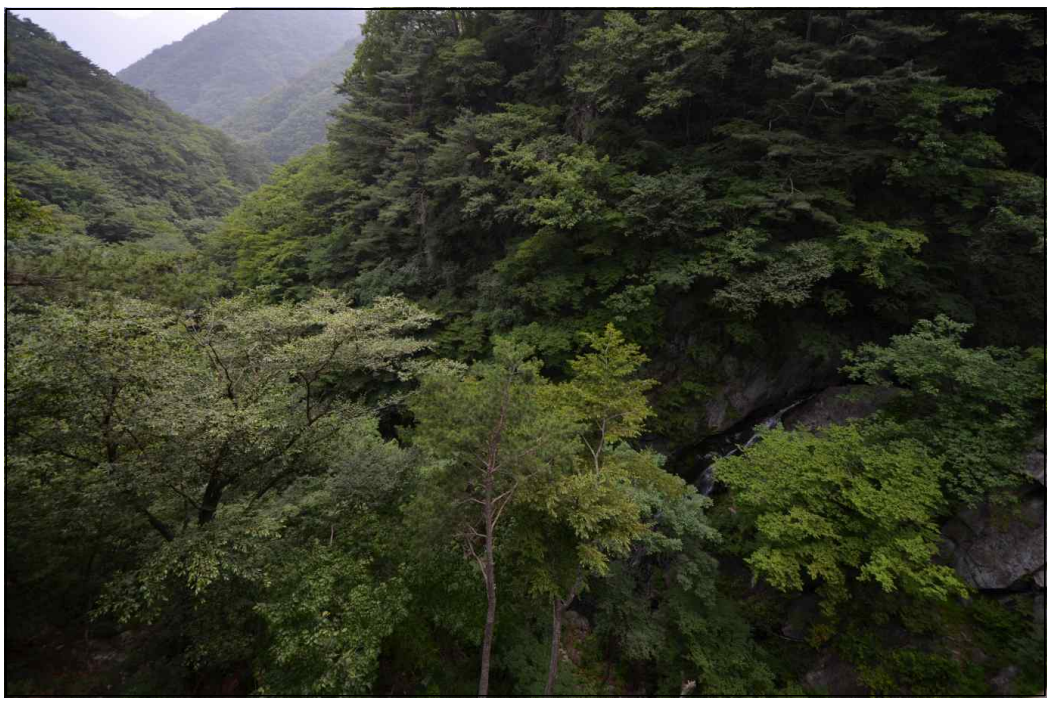


희방폭포

소백산(小白山)의 남서쪽에 위치한 희방폭포(喜方瀑布)는 연화봉(蓮花峰)과 제2연화봉 사이 계곡의 물이 모여 폭포를 이루는 곳이다. 희방폭포를 빠져나온 물은 하류로 흘러가며 죽령(竹嶺)에서 발원한 남원천과 합쳐져 풍기읍을 관통하며 하류로 흘러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낙동강 지류의 최상류 지역에 위치한 희방폭포는 소백산의 으뜸가는 절경이며, 영남의 제1폭포로 손꼽이는 높이 28m의 웅장한 폭포로, 해발 700m에 위치하고 있다. 소백산 영봉의 하나인 연화봉 밑 깊은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몇 천 굽이를 돌아서 흐르다가 이곳에 멈춰,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한 소리와 함께 폭포수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습이 절경이다. 이와 같은 장관이 넋을 잃게 하여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하늘이 내려주신, 꿈속에서 노니는 곳(天惠夢遊處)'이라 읊으며 감탄했다고 한다. 그러나 갈수기에는 상대적으로 유량이 적어져 그 위용을 제대로 감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폭포 바로 위에는 희방사가 있으며, 폭포 아래의 희방계곡은 숲이 울창하고 계곡 물이 차서 피서지로 각광받는 곳이다. 소백산 등산 코스에 속하나 자연보호 때문에 통제되는 곳이 많다. 주변에 죽령, 소수서원, 비로폭포, 석천폭포, 부석사, 희방사, 희방계곡, 월전계곡, 석륜암계곡 등을 함께 관광할 수 있다.



희방계곡

2) 문경(聞慶) 선유구곡(仙游九曲)



위치 및 주변 지형



선유구곡 제9곡 옥석대

소백산맥 산줄기에 위치한 둔덕산(屯德山)과 대야산(大耶山)의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합쳐져 용추계곡을 이루며 몇 굽이를 흐르다 하류로 가면서 선유동(仙游洞)을 이루고 있다. 선유동계곡을 흘러나온 물은 동남쪽으로 흘러 양산천과 합쳐지고 후에 낙동강으로 본류로 유입된다.

둔덕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맑은 시냇물을 따라 약 1.8km에 걸쳐 이어져 있는 선유구곡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신선이 노닐만한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곳이다.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암반 위로 수정처럼 맑은 물이 수천 년을 흘러 기이한 물길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고 하여 선유동이라 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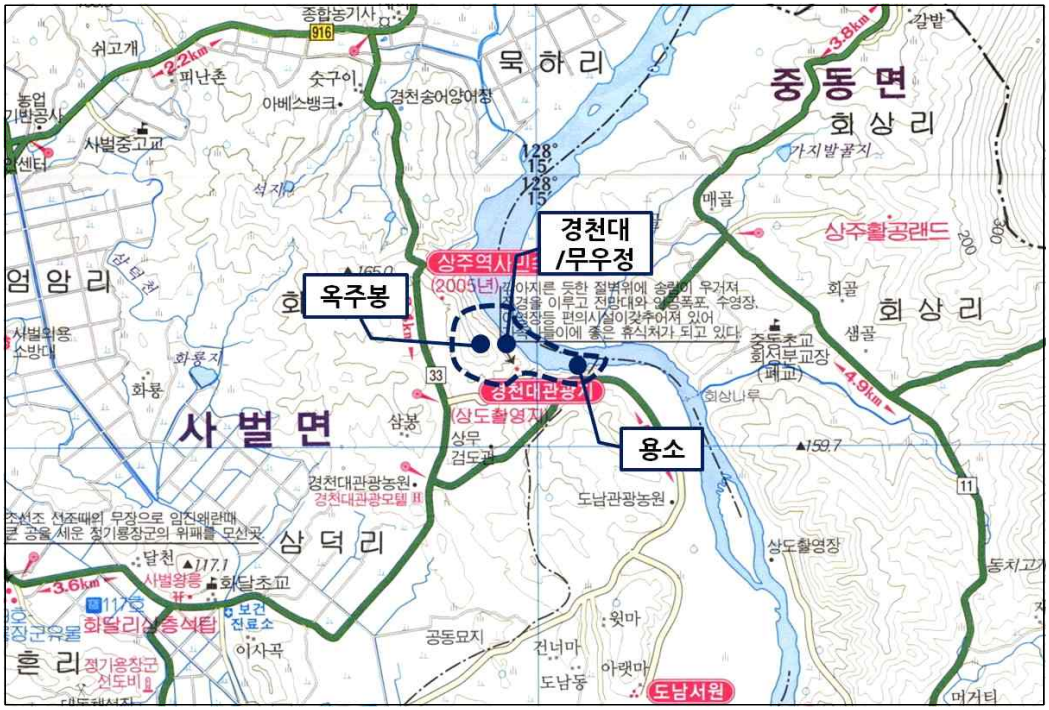
옛 부터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잦았던 곳이며 고운 최치원, 우복 정경세, 도암 이재, 손재 남한조, 병옹 신필정 등이 즐겨 찾았던 곳이다. 선유동의 경관에 매료되었던 유자(儒者)들은 아홉 굽이의 특징에 따라 이름을 붙였다. 제1곡은 옥하대(玉霞臺), 제2곡은 영사석(靈槎石), 제3곡은 활청담(活淸潭), 제4곡은 세심대(洗心臺), 제5곡은 관란담(觀瀾潭), 제6곡은 탁청대(濯淸臺), 제7곡은 영귀암(詠歸巖), 제8곡은 난생뢰(鸞笙瀨), 제9곡은 옥석대(玉舄臺)가 아홉 굽이의 이름이다. 아홉 굽이마다 붙여진 이름이 암반에 각자로 음각되어 있으며, 외재(畏齋) 정태진(丁泰鎭, 1876~1956)의 구곡시가 남아 있다.

선유동천 나들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중간 중간 끊어진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천을 따라 트래킹 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하천을 따라 조성된 선유동천 나들길은 하류의 운강 이강년 기념관에서부터 상류의 용추계곡까지 이어지며 선유구곡 뿐만 아니라 칠우칠곡도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선유구곡 제5곡 관란담

3) 상주(尙州) 경천대(擎天臺)



위치 및 주변 지형



경천대

낙동강(洛東江)은 상류에 위치한 상주 일원을 관통하며 굽이쳐 흐르다 옥주봉(玉柱峯) 일대의 공격사면에 해당하는 곳에 절벽을 형성시키며 절경을 이루어 놓았다. 낙동강의 아름다운 경치는 끊어질 듯 말 듯 하며 계속 이어지는데, 이 아름다운 절벽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경천대(擎天臺)이다. 경천대에는 하늘로 우뚝 솟아오른 절벽 위로 송림이 우거져 있고, 그 아래로 푸르디푸른 강이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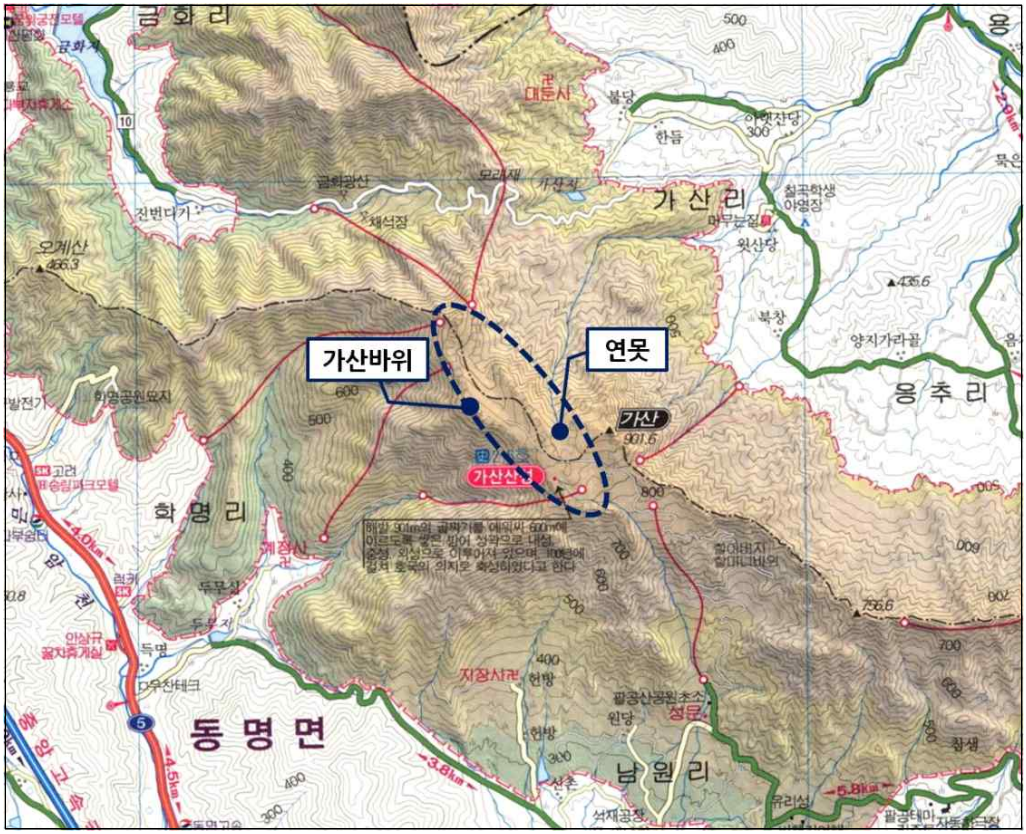
이 눈부신 절경을 경천대에서 내려다보면 이곳의 빼어난 경관에 대한 찬양과 명성이 헛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천대에는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의 명장 정기룡(鄭起龍, 1562~1622) 장군이 젊었을 때 이곳에서 용마(龍馬)와 더불어 수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그때 장군이 바위를 파서 만들었다는 말먹이통이 남아 있다. 또한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인해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鳳林大君)이 청나라 심양(瀋陽)으로 볼모로 끌려갈 때 따라가 함께 고생했던 우담(雩潭) 채득기(蔡得沂, 1605~1646)가 후일 모든 관직을 마다하고 은거했다는 무우정(舞雩亭)이 있다.

경천대가 있는 곳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옥주봉에 올라 낙동강을 바라보면 크게 휘감아 도는 물줄기와 보호사면에 형성되어 있는 농경지의 모습이 회룡포(回龍浦)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공격사면 쪽에 형성된 절벽이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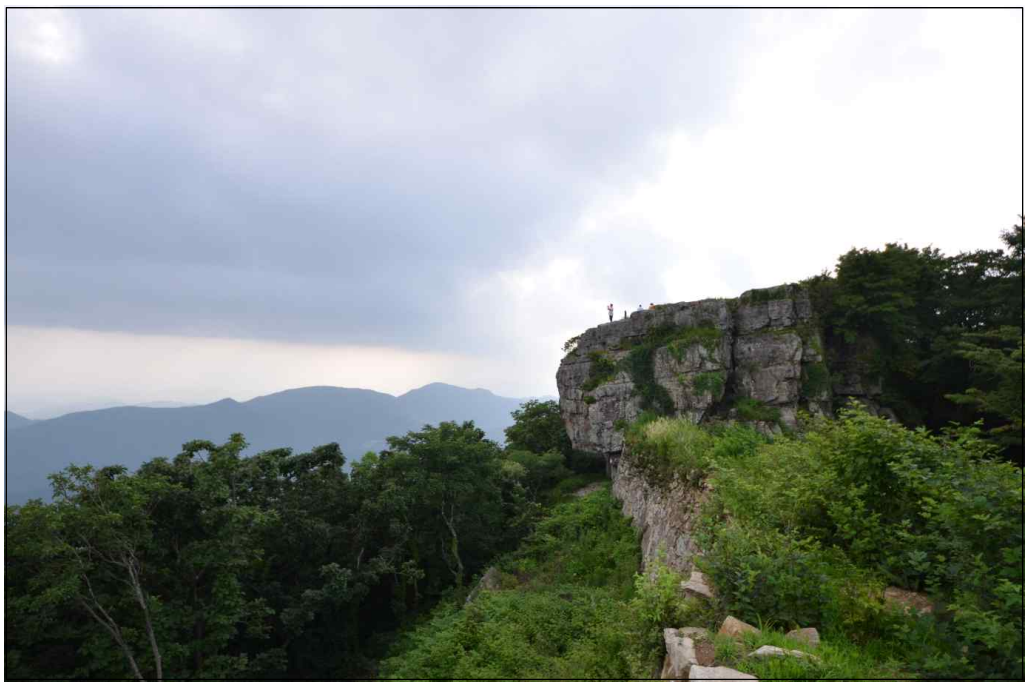


옥주봉에서 바라본 낙동강

4) 칠곡(漆谷) 가산(架山)바위



위치 및 주변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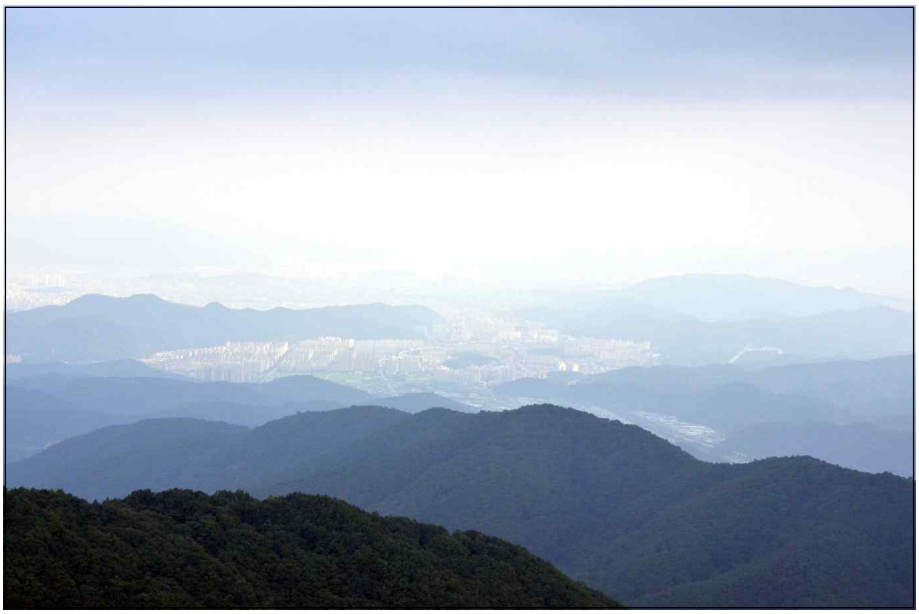


가산바위와 성곽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가산산성(架山山城) 서북쪽 정상부에 우뚝 솟아 있는 편평한 가산바위는 일명 가암(架巖) 또는 개산암(介山巖)이라고도 한다. 사면이 깎아지른 듯이 우뚝 솟아 있는 높이 약 10m의 바위로 가산산성의 성벽 사이에 위치하며, 상면에 80평 정도의 넓은 평지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바위 동쪽에는 깊이 갈라진 큰 구멍이 뚫려 있는데, 통일신라 때의 고승(高僧) 도선(道詵)이 지기(地氣)를 다스리기 위해 바위 위 구멍 안에 쇠로 만든 소와 말의 형상을 묻었으나 조선시대 관찰사 이명웅(李命雄)이 성을 쌓으면서 없애버렸다는 전설이 전한다.

가산바위는 중생대 경상계의 동명층에 속하는 보라색 셰일(shale)로 이루어져 있으나 팔공산 화강암의 관입으로 접촉변성작용을 받았다. 가산바위는 성층면을 따라 수평으로 쪼개져 표면이 편평하며, 수직으로 쉽게 갈라져 사방이 절벽을 이룬다. 가산바위의 한 가운데에도 폭 30㎝ 내외의 균열이 동굴처럼 뚫려 있다.

현재 가산산성의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가산바위로 오르는 길에는 고산습지화한 연못이 있다. 등산코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고산습지는 원형보존이 잘 되어있었으며 하류의 농경지에 물을 대기위한 수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복구중인 가산산성을 지나 가산바위에 올라보면 사방 탁 트여있어 경치를 조망하기 좋으며 특히 영남대로가 정면으로 보인다. 날씨가 맑은 날은 멀리 대구분지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가산바위에서 조망한 대구 일대

5) 거창(居昌) 사선대(四仙臺) 일원



위치 및 주변 지형



사선대와 월성계곡

사선대(四仙臺)가 위치한 월성계곡(月星溪谷)은 남덕유산(南德裕山) 동쪽 자락의 월성천을 따라 형성된 길이 5.5㎞의 계곡이다. 계곡을 따라 사선대, 장군바

위, 분설담, 모리재, 갈계마을 등 곳곳에 명소와 전설, 역사가 한데 어우러져 있으며, 수려한 경치를 자랑한다. 남덕유산에서 발원한 월성천은 서에서 동으로 굽이쳐 흘러가며, 그 공격사면에 사선대가 자리 잡고 있다. 월성계곡은 거대한 암반들이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그 사이를 월성천이 흘러가는 형태이며 사선대와 어우러진 계곡과 거대한 암석들은 멋진 경관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유지라 돗자리나 자리를 빌려준다는 광고가 주변에 있고 계곡까지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 있어 경관을 해치고 있다.

사선대(四仙臺)라는 명칭은 층을 이룬 네 덩어리의 바위 위에서 신선들이 바둑을 두었다 하여 명명된 것이다. 그 밖에도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堈)이 의병의 근거지로 삼으려했던 곳이라 하여 왕실의 선원(璿源)을 기린다는 뜻에서 사선대(思璿臺)라 하기도 한다.

월성은 흔히 '하늘마을'로 통한다. 덕유산과 지리산, 가야산 등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거창에서도 지대가 높고 산세가 아름답기 때문이다. 계곡의 폭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주변 산세가 워낙 거대해 수량이 풍부하다. 계곡 물놀이와 더불어 젖은 옷과 몸을 말리기에도 좋은 바위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고 계곡물은 그 바위 사이를 헤집으며 작은 폭포도 만들고 여울도 만들면서 갈계리의 위천계곡과 수승대계곡으로 흘러내려간다.



사선대 하단부의 각자들

6) 함양(咸陽) 농월정(弄月亭) 일원



위치 및 주변 지형



농월정지와 월연

화림동(花林洞)은 해발 1,508m의 남덕유산에서 발원한 금천(남강의 상류)이 서상면과 서하면 일대를 관류하면서 냇가에 기이한 바위와 담, 소를 만들어 놓

은 곳으로 그 길이가 60리에 달한다. 특히, 농월정(弄月亭)에 이르러서는 반석 위로 흐르는 옥류와 소나무가 어우러져 무릉도원을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정자 문화의 보고라 불리는 화림동의 정자 가운데 하나인 농월정은 조선 선조 때 관찰사와 예조 참판을 지낸 지족당(知足堂) 박명부(朴明榑, 1571~1639)가 정계에서 은퇴한 뒤 지었다고 한다. 농월정 주변에는 지족당의 후학들이 거대한 암반에 '지족당장구지소(知足堂杖屨之所)'라는 문구를 음각해 놓았고 지금은 붉은색으로 글자가 표시되어 있다.

농월정이라는 이름은 '달을 희롱한다'는 뜻이다. 그 이름처럼 밤이면 달빛이 물아래로 흐른다고 한다. 농월정 앞에 넓게 자리하고 있는 반석을 달바위라고 부르는데, 바위 면적이 정자를 중심으로 1,000여 평 된다. 정자는 뒤쪽 가운데에 한 칸짜리 바람막이 작은 방을 둔 정면 3칸, 측면 2칸 누각으로 팔작지붕이었으며, 걸터앉거나 기댈 수 있도록 삼면에 계자난간(鷄子欄干: 걸터앉거나 기대어 주위 공간을 조망하기 위한 것)을 둘렀었다. 그러나 2003년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소실되었고,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농월정지 앞의 하천에는 거대한 암반이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암반 위에 다수의 포트홀(pothole)이 형성되어 있으며, 곳곳에 각자가 새겨져 있다.



화림동 각자바위와 월연

7) 합천(陜川) 황계폭포(黃溪瀑布) 일원



위치 및 주변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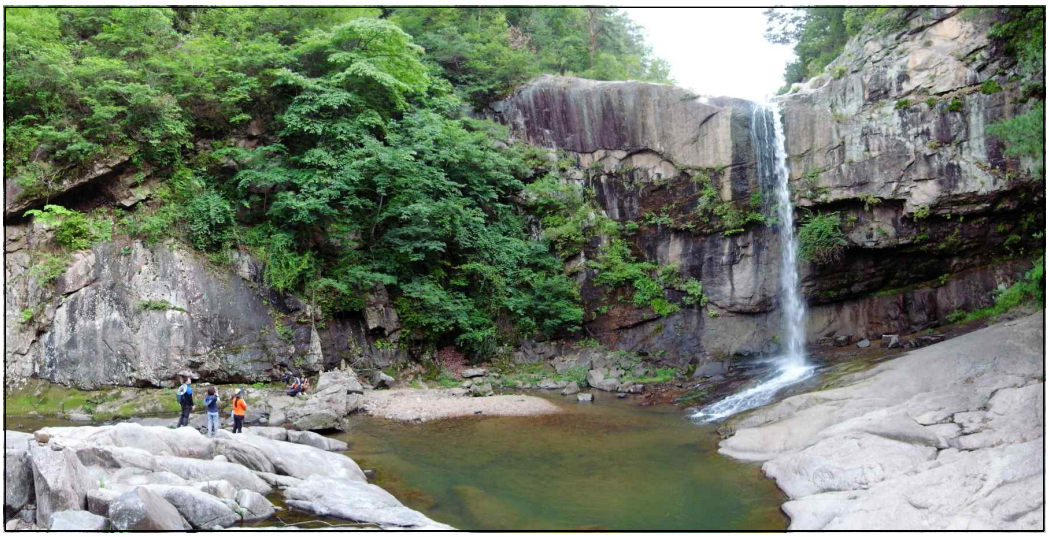


황계폭포의 상폭(左)과 하폭(右)

구장산(龜藏山)과 허굴산(墟堀山)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황계천(黃溪川)을 이루며 흐르다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에서 황계폭포가 되어 떨어진다. 주위의 아름다운 경치와 잘 어울리는 명소로 계류가 풍광명미(風光明眉)하고, 주변의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험준하다. 폭포 자체의 경치 또한 절경이라, 20여 m 높

이 절벽위에서 떨어지는 폭음은 뇌명과 같고, 수량의 많고 적음은 때에 따라 다소 다르나 마를 때가 없어 한 여름에도 더위를 익히 잊게 한다. 하단 폭포 밑 소는 명주실 한 꾸리가 다 들어가도 닿지 않을 정도로 깊다하여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옛 선비들이 승경에 도취하여, 저 유명한 중국의 여산폭포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폭포 자체는 규모가 크고 상단의 직폭과 하단의 와폭으로 구성되어 있어 멋진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에 특별한 인공 시설을 볼 수 없음에도 상류의 황계리와 월계리 일원에서 유입되는 농축산 폐수로 인해 악취가 상당한 상태이다. 따라서 명승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류의 하수를 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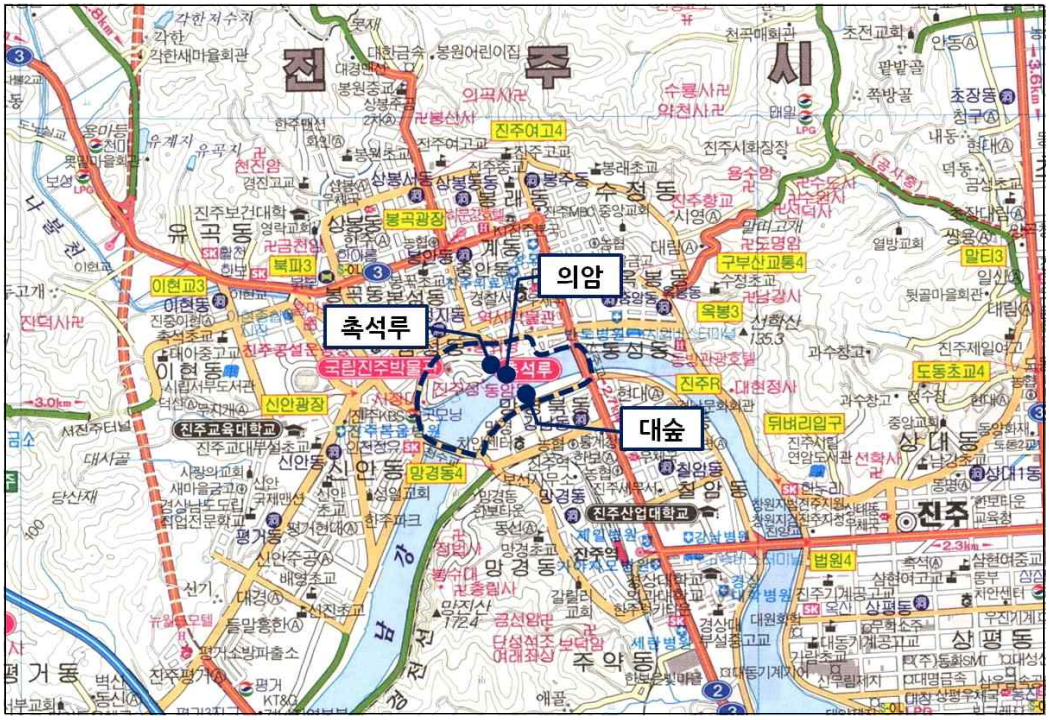


황계폭포 상단부



황계폭포 하단부

8) 진주(晉州) 촉석루(矗石樓) 일원



위치 및 주변 지형



의암에서 바라본 촉석루

촉석루(矗石樓)는 진주성(晉州城)의 누각으로 바로 아래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南江)이 굽이쳐 흐르며, 남강의 공격사면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진주성의 남쪽 장대(將臺)로 1365년(공민왕 14)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며, 임진왜란 때 왜적이 침입하자 총지휘는 물론 남쪽 지휘대로 사용하였으므로 남장대(南將臺)라고도 하였다.

촉석루에 관한 기록을 보면 《진양지(晉陽誌)》에 고려 때 김중선(金仲先) 등이 진주성 수축 시 신축하였다고 하였으며, 《동국여지승람》에는 김주(金湊)가 영남루(嶺南樓)를 중건할 때 촉석루를 본보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누기(樓記)에는 조선 초 목사 권충(權衷)과 판관 박시결(朴時潔)이 중건하고 하륜(河崙)이 누기를 지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임진왜란 때 의기 논개가 낙화(落花), 순국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현재의 건물은 6·25전쟁 때 화재로 소실된 것을 1960년에 재건한 것이다.

촉석루는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촉석루를 기준으로 남강 건너편에 대숲이 하천을 따라 조성되어 있으며 그 너머로 주변 산세가 함께 어우러져 훌륭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10여 년 전에 건설되었다는 아파트가 촉석루 전면의 산세 경관을 가리고 있어 옥에 티이다. 특히 촉석루는 10월에 유등축제(流燈祝祭)를 할 때면 하천 위에 떠있는 등과 저녁노을 그리고 촉석루의 야간 조명등이 어우러져 더욱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한다.



촉석루에서 조망한 남강변의 대숲

Ⅳ. 정밀 조사 및 지정 가치

1. 우수 명승 자원

1) 안동(安東) 가송협(佳松峽)과 고산정(孤山亭)



낙동강 상류에서 바라본 가송협과 고산정의 모습

(1) 지리지

『여지도서』에서 고산과 관련된 기록이 확인된다. 고산의 위치와 빼어난 경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금난수(琴蘭秀)가 지은 고산정과 이황(李滉)의 시를 기록하고 있다.

명칭	지리지	세부 항목	내 용
고산	여지도서	예안현	관아의 동쪽 25리에 있다. 산과 물의 경치가 매우 빼어난 곳이다. 금난수(琴蘭秀)가 이 산 북쪽에 정자를 지었다. 이황의 시가 전한다.

(2) 고시문

고산정에 대해서는 여러 편의 고시문이 전해진다. 이들 고시문은 주로 고산정의 창건자인 금난수, 금난수의 스승이며 도산에서 청량산을 다니며 이곳을 자주 거쳐갔던 이황, 그리고 금난수의 동문이자 이황의 문하생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낙동강의 경치가 잘 묘사되어 있다.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고산정 -시(詩)	금난수(琴蘭秀)	『성재집(惺齋集)』 (권1)	〈고산정에서, 스승(이황)의 운으로 지어 고을 원 신지제에게 주다.(孤山亭。用先師韻呈主倅申之悌。)〉
		『성재집(惺齋集)』 (권1)	〈孤山亭和金▣韻〉
		『성재집(惺齋集)』 (권1)	〈孤山亭。閱朱子書。敬次先師韻。〉
	이황(李滉) 외	『성재집(惺齋集)』 (권4)	〈孤山亭題詠〉
	유도원(柳道源)	『퇴계집(退溪集)』 (고증 권1)	〈獨遊孤山云云〉
	정탁(鄭琢)	『약포집(藥圃集)』 (속집 권1)	〈次鄭子中 韻。題琴聞遠蘭秀孤山亭。〉
	권문해(權文海)	『초간집(草澗集)』 (권2)	〈敬次老先生孤山亭韻。贈琴聞遠〉
	김령(金坽)	『계암집(溪巖集)』 (권3)	〈遊孤山亭十絶〉
	권만(權萬)	『강좌집(江左集)』 (권4)	〈孤山亭。謹次老先生韵。〉
	송환기(宋煥箕)	『성담집(性潭集)』 (권1)	〈孤山亭敬次退溪韻〉
	윤봉오(尹鳳五)	『석문집(石門集)』 (권1)	〈孤山亭。次退溪先生韻。〉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권1)	〈고산정 옛터를 찾아가서(過孤山亭遺墟)〉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고산정 -시(詩)	이정(李楨)	『구암집(龜巖集)』 (권1)	〈題孤山亭〉
	박지화(朴枝華)	『수암유고(守庵遺稿)』 (권1)	〈次栗谷題孤山亭韻〉
	박지화(朴枝華)	『수암유고(守庵遺稿)』 (권1)	〈次金盤谷孤山亭韻〉
		『수암유고(守庵遺稿)』 (권1)	〈過孤山亭火墟。有感〉
	이민구(李敏求)	『동주집(東州集)』 (동주전집 권6)	〈孤山亭〉
	하진(河溍)	『태계집(台溪集)』 (권4)	〈次鄭學圃孤山亭韻〉
	이현석(李玄錫)	『유재집(游齋集)』 (권8)	〈孤山亭次〉
	이현조(李玄祚)	『경연당집(景淵堂集)』 (경연당시집 권2)	〈次孤山亭〉
	채팽윤(蔡彭胤)	『희암집(希菴集)』 (권7)	〈恩退丈重修孤山亭。季台丈往會有詩。退堂和之。幷以見寄要和。亭卽台之從祖西坰公所創。而皆山公脩之者也。退台後於皆。盖三世堂搆云。〉
	심육(沈錥)	『저촌유고(樗村遺稿)』 (권1)	〈追記孤山亭。淸遠之遊。詩以識之。〉
	허훈(許薰)	『방산집(舫山集)』 (권6)	〈過孤山亭。江上無舟。不得渡。悵吟一絶。〉
	송병선(宋秉璿)	『연재집(淵齋集)』 (권2)	〈孤山亭。贈鄭應賢。〉
	조긍섭(曺兢燮)	『암서집(巖棲集)』 (권2)	〈孤山亭〉
	배응경(裵應褧)	『안촌집(安村集)』 (권1)	〈孤山亭〉
		『안촌집(安村集)』 (권1)	〈題孤山亭嘲主人〉
	유명천(柳命天)	『퇴당집(退堂集)』 (퇴당시집 권1)	〈題孤山亭〉
		『퇴당집(退堂集)』 (퇴당시집 권4)	〈孤山亭次靜齋韵〉
		『퇴당집(退堂集)』 (퇴당시집 권5)	〈自海上歸到孤山亭。謾賦十絶。〉
	이야순(李野淳)	『광뢰집(廣瀨集)』 (권1)	〈追次孤山亭重修韻〉
	오운(吳澐)	『죽유집(竹牖集)』 (권1)	〈孤山精舍。敬次退溪先生韻。〉
고산정 -문(文)	이이순(李頤淳)	『후계집(後溪集)』 (권7)	〈孤山亭重修上樑文〉
	유명천(柳命天)	『퇴당집(退堂集)』 (퇴당문집 권5)	〈題朱熊兩天使孤山亭詩記後〉

<시(詩)>

1. 금난수(琴蘭秀, 1530~1599), <孤山亭和金▣[聃壽]韻>, 『성재집(惺齋集)』, 卷1

매화나무와 학은 고산의 빼어난 운치 / 梅鶴孤山勝
풍류가 마치 적벽의 가을과 같네. / 風流赤壁秋
숲으로 난 길을 함께 거니노라니 / 相追林下徑
그림 속의 유람과 한가지구나. / 同作畫中遊
단풍잎 붉은 비단으로 수놓고 / 楓葉粧紅錦
강가에 뜬 구름 푸른 강물 일렁이듯. / 江雲動碧油
태연하게 이별을 하고 나면 / 居然成一別
맑은 꿈속에서 아련히 만나겠지. / 淸夢會悠悠

* 김담수(金聃壽)의 시에 화운하여 금난수가 고산의 가을 풍경과 흥취를 읊은 시이다. 매화나무와 학으로 고산정이 빼어난 풍광으로, 소식(蘇軾)이 적벽에서 노닌 가을 풍류에 비길 만하다고 하였다. 그곳에 난 숲길을 따라 그림 속 유람을 김담수와 함께 한다고 하였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한 듯 단풍잎이 붉게 물들고 강가에 푸른 빛 구름이 움직이는 경치 속에서 김담수와의 한 때를 평화롭게 그려냈다.

2. 이황(李滉, 1501~1570) 외[4], <고산정 제영(孤山亭題詠) [사우(師友)들이 써 준 시(師友贈遺)]>, 『성재집(惺齋集)』, 卷4

<1> 이황(李滉), <고산의 절벽에 쓰다(題孤山絶壁)>

일동주인(日洞主人) 금씨의 아들[5] / 日洞主人琴氏子

---

4) 금난수의 사우(師友)들이 고산정에서 금난수를 떠올리며 그를 향해 남긴 시가 상당히 많다. 이황이 8편의 시를 남겼고, 그 외 41명의 문인들이 각기 시를 남겼다. 본문에는 이황의 시문만을 소개한다.

5) 일동주인(日洞主人) 금씨의 아들: 이황의 제자였던 금난수(琴蘭秀)가 고산 앞에다 일동정사(日洞精舍)를 짓고 홀로 오가며 지냈다. 금난수의 아들 금각(琴恪)의 『일동록(日洞錄)』이 전한다. 여기서는 금난수의 아들 금각을 말하는 듯하다.

지금 있는지 강 건너로 소리쳐 물어보네. / 隔水呼問今在否
밭 갈던 농부 손 저을 뿐 말소리 들리지 않고, / 耕夫揮手語不聞
쓸쓸히 구름 낀 산 바라보며 우두커니 앉아있네. / 悵望雲山獨坐久

* 고산의 절벽 근처에서 금난수의 모습을 떠올리며 읊은 시이다. 일동주인인 금난수의 아들을 찾아가 집에 있는지를 강 건너 농부에게 묻는데 농부가 손을 흔들며 말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한 채 구름 낀 산 아래 홀로 오래도록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2> 이황(李滉), <고산을 다시 유람하며(再遊孤山)>

험한 곳 넘어 깊숙이 들어가 또 다른 세상을 보았네. / 越險投深得一天
경대(瓊臺)와 요포(瑤圃)있고 지초밭[6]에 햇빛 비치네. / 瓊臺瑤圃映芝田
옛날 와서 못 본 것을 이제야 보게 되니 / 舊來不見今來見
동천 속 신선을 직접 만나보지는 않을는지. / 疑是親逢洞裏仙

* 험한 산과 깊은 물을 건너자 선계에서나 볼듯 한 아름다운 누대와 동산이 보인다. 그곳의 밭은 신선이 가꾼다는 지초밭처럼 보인다. 예전에 왔던 곳인데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고산의 풍광에 빠져든 이황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3> 이황(李滉), <문원(聞遠; 금난수의 字)에게 글을 써 주다(書贈聞遠)>

宿霧初收海旭紅。碧溪靑嶂繞重重。長潭過盡無人見。驚喜孤山入望中。

* 고산에 이르는 길의 아침 풍경과 고산을 보게 되어 느낀 기쁨을 읊은 시

6) 지전(芝田): 선인(仙人)이 가꾸는 영지(靈芝) 밭. 진(晉)나라 왕가(王嘉)의 《습유기(拾遺記)》 〈곤륜산(崑崙山)〉에 "제9층은 산의 형태가 점점 협소해진다. 그 아래에 영지 밭과 향초 밭이 모두 수백 경 있는데, 신선들이 씨 뿌리고 가꾼 것이다.(第九層 山形漸小狹 下有芝田蕙圃 皆數百頃 群仙種耨焉)"라는 말이 나온다.

이다. 간밤에 낀 안개가 막 걷히어 아침 햇살 붉게 비치고, 푸른 시내와 푸른 산이 겹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곳이 바로 고산이다. 장담(長潭)을 다 지나도록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데 고산이 시야에 들어오니 놀라며 기뻐한다는 내용이다.

<4> 이황(李滉), <선학대(仙鶴臺)>

날은 저물고 뗏목은 푸른 물결 가르는데 / 晩日橫槎截碧流
요대(瑤臺)[7]의 가을은 수심조차 맑게 씻어내는구나 / 瑤臺秋色洗淸愁
선금(仙禽; 학)은 본디 고산보(孤山譜)에 속하였기에 / 仙禽本屬孤山譜
그릇된 이름 잘 바꾸어 빼어난 유람처 되었다네. / 好替訛名作勝遊

* 선학대의 가을 저녁 풍경을 읊은 시이다. 저물녘에 뗏목을 타고 절벽 따라 흘러가니, 아름다운 누대의 가을빛이 시름을 맑게 씻어준다는 내용. 아마도 '학소대(鶴巢臺)'보다는 '선학대'가 학의 신령스러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라 생각하여 3~4구와 같이 쓴 것으로 보인다.

<5> 이황(李滉), <문원의 고산정 시에 차운하여(次聞遠孤山亭韻)>

세속을 벗어나지 못한지라 아직 귀거래 못했지만 / 身非出世未須歸
안개와 노을 홀로 차지하고 지내는 일 어찌 어기고 지내겠는가? / 占斷烟霞豈有違
빼어난 경계에다 비옥하기까지 하여 밭도 일구고 / 境絶更饒田墾闢
산은 외따로 있어 학이 깃들기에도 알맞네 그려. / 山孤惟稱鶴栖飛
미투리 한 켤레로 사시사철 오가노니 / 四時來往雙芒屩
온갖 일 흥망성쇠에도 칡 옷 하나면 그만이네. / 萬事榮枯一薜衣
일동정사 월명담의 아름다운 이름 내가 좋아하기에 / 日月佳名吾亦愛

---

7) 요대(瑤臺): 유융(有娀)의 미녀가 산다는 누대 이름이다. 이백(李白)의 〈청평조사(淸平調詞)〉에 "군옥의 산 정상에서 본 것이 아니라면, 요대의 달빛 아래에서 만난 것이 분명하네.(若非群玉山頭見, 會向瑤臺月下逢)" 라는 표현이 나온다. 군옥(群玉)은 서왕모(西王母)가 산다는 산 이름이다.

다시 그대 찾아 남은 경치 구경하리라. / 尋君時復玩餘輝
여러 사람 찾아와 봄날을 지내며 / 多君來訪索居春
풍광을 완상하고 스무날을 보냈네. / 把玩風光尙二旬
산수와 더불어 진정한 주인이 되었으니 / 得與溪山眞作主
이 말고 더 이상 다른 사람 따를 필요 있겠나? / 何須此外更隨人

* 어느 봄날 고산정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세상일을 잊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 지내면서 느낀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6> 이황(李滉), <고산의 금문원에게 안부를 묻다.(寄問孤山琴聞遠)>

아련히 그리워하노니, 절벽 천 길 아래 / 遙憐絶壁千尋下
개울 기슭 띠집에서 옛 글을 읽겠지. / 茅屋臨流讀古書
정양(靜養)하며 하는 공부 깨달았는지? / 靜養工夫能會未
글 속의 참맛이 요즘은 어떠한지? / 書中眞味近何如

* 천 길 절벽 아래 강가에서 고서를 읽으면서 지낸다는 금난수에게 근황을 묻는 내용의 시이다.

<7> 이황(李滉), <琴聞遠自孤山寄詩一絶。言小舟已具。景致可樂云。次韻却寄。>

春非孤我我孤春。縱得歸山亦絆身。聞道仙源舟已辦。欲將逃世問眞人。

<8> 이황(李滉), <홀로 고산을 유람하는데, 월명담(月明潭)에 이르러 물길 따라 산을 돌아 내려가다 보니 가는 곳마다 승경을 만나 그때마다 절구를 지었다.(獨遊孤山。至月明潭。因並水循山而下。每得勝境。卽賦一絶。)>

[孤山]
어느 때 신선의 도끼 굳은 바위 깨뜨렸는가? / 何年神斧破堅頑

천 길이나 우뚝 서서 옥빛 물가에 걸터앉았구나. / 壁立千尋跨玉灣
은거하는 그대가 주인 되지 않았다면 / 不有幽人來作主
고산이라 외로운 절경 그 누가 올랐을까? / 孤山孤絶更誰攀

日洞佳名配月潭。官居知是謬村談。箇中儘有良田地。欲問琴孫置一庵。[日洞]
窈然潭洞秀而淸。陰曇中藏木石靈。十日愁霖今可霽。抱珠歸卧月冥冥。[月明潭]
瘦馬凌兢越翠岑。俯窺幽壑氣蕭森。淸遊步步皆仙賞。怪石長松滿碧潯。[寒粟潭]
立腳誰能似此中。人生踪迹如浮梗。中藏屹屹勢爭雄。激水千年詎有窮。[景巖]
長憶童時釣此間。卅年風月負塵寰。我來識得溪山面。未必溪山識老顔。[彌川長潭]
靑山綠水已超氛。更着中藏白白雲。爲洗鄕音還本色。地靈應許我知君。[白雲洞]
下有龍淵上虎巖。藏砂千仞玉爲函。故應此境人多壽。病我何須斸翠巉。[丹砂壁]
幽夐川沙李丈居。平田禾熟好林墟。卜隣我亦專西壑。茅屋中藏萬卷書。[川沙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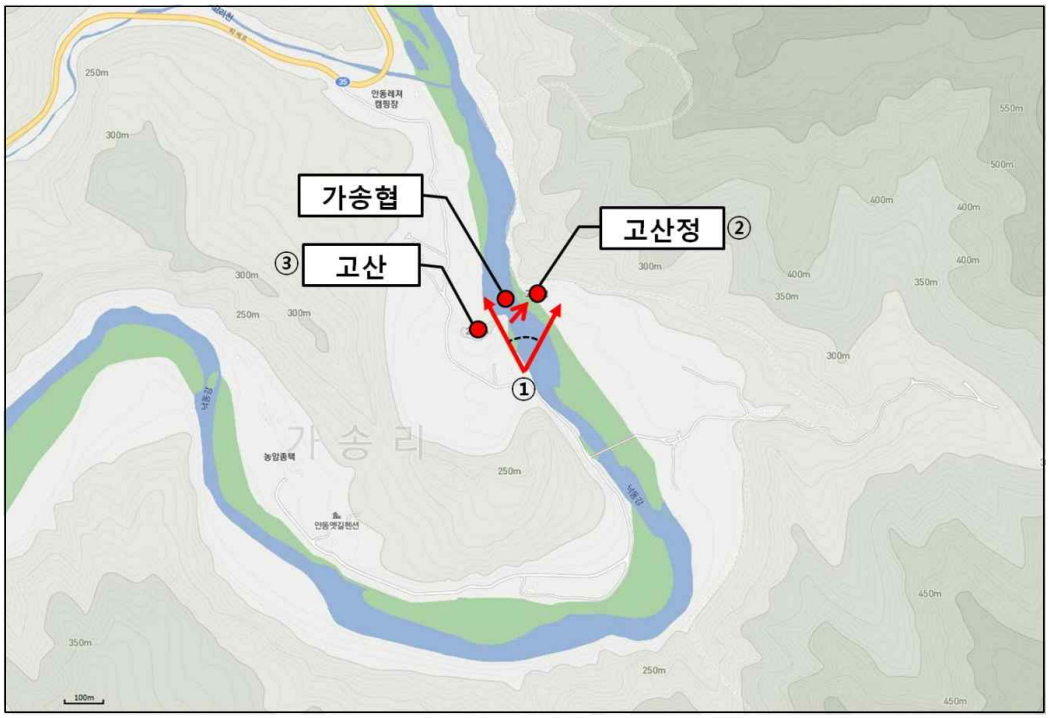
* 고산을 홀로 유람하며, 고산(孤山), 일동(日洞), 월명담(月明潭), 한속담(寒粟潭), 경암(景巖), 미천장담(彌川長潭), 백운지(白雲池)에 대해 읊은 시들이다. 천 길 높이로 우뚝 솟은 절벽이 있는 고산(孤山)의 모습, 월명담(月明潭)에 짝할 만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일동(日洞) 등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3) 실경산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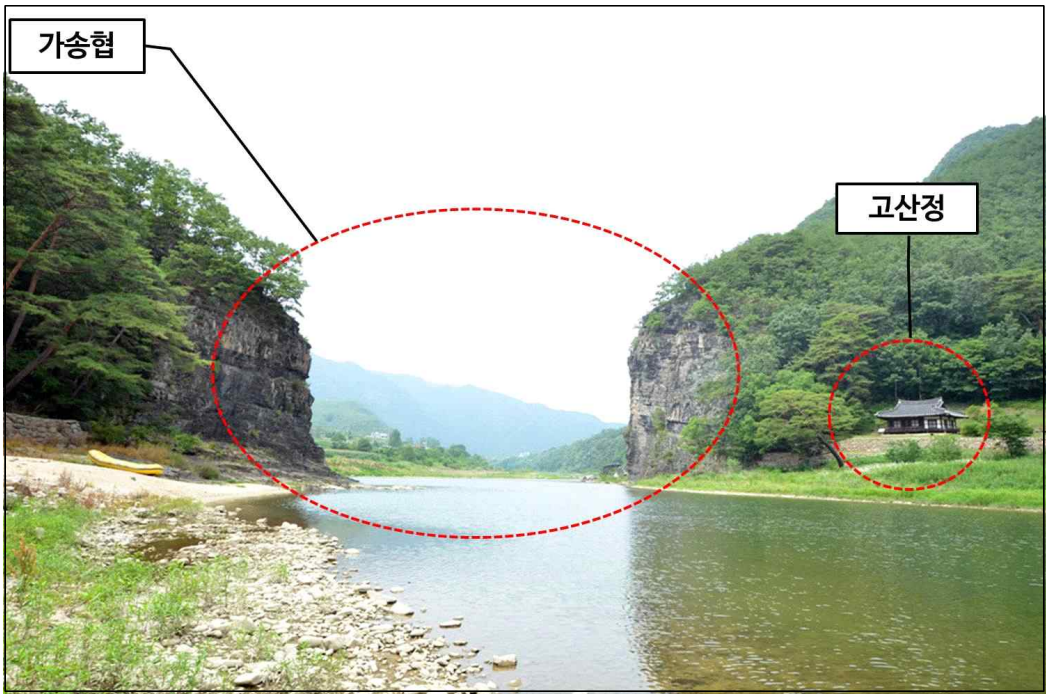
- 자료 없음.

(4) 현재적 재구성

고산정은 성성재 금난수의 정자로 가송협 단애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그의 스승 퇴계 이황이 누차 문인들과 함께 영시유상(詠詩遊賞) 하던 곳으로 그가 거닐던 길(예던길)이 주변에 남아있으며, 고산정 맞은편에는 낙동강 구하도의 미앤더핵(meander core)에 해당하는 독산이 자리 잡고 있다. 해당 경관을 지도와 함께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면에서 바라본 가송협



② 고산정 원경과 근경



③ 고산정에서 바라본 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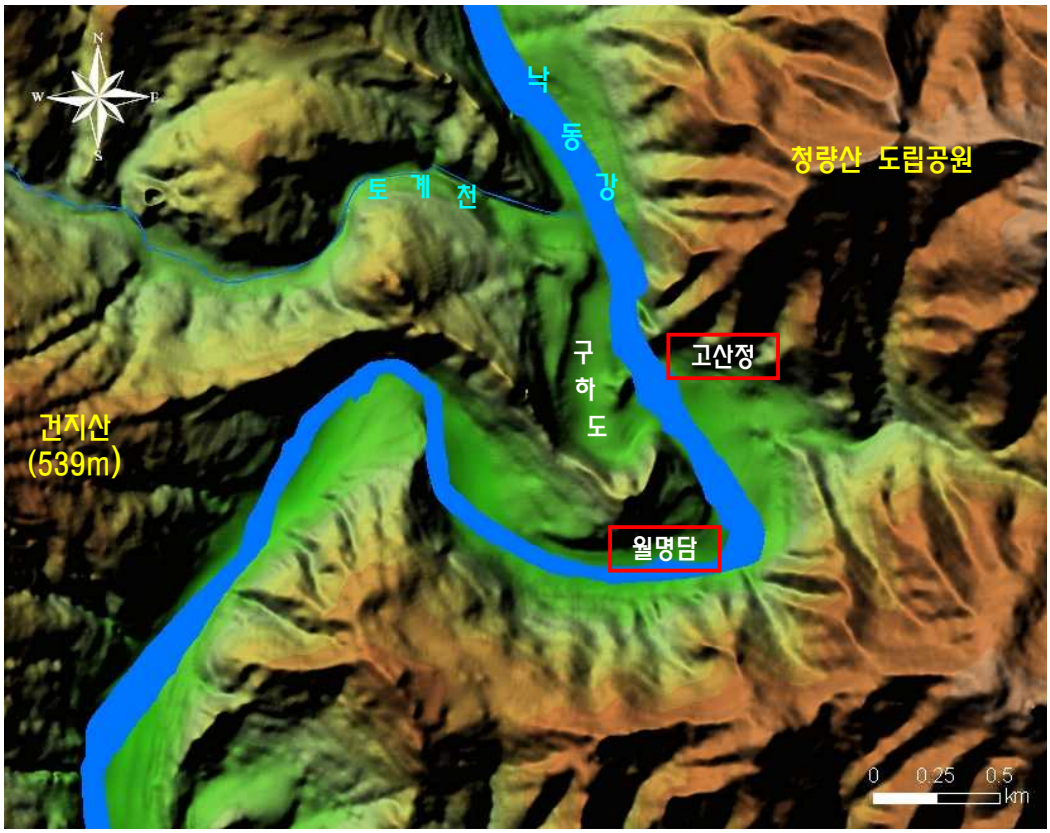
(5) 지형 및 식생 분석

가. 지형 및 지질

고산정은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청량산(870m)과 건지산(539m) 사이의 협곡을 곡류하면서 흘러가는 낙동강 주변에 위치한 정자이다.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안산암류의 퇴적암이 우세한 가운데 좁고 긴 단열을 따라 하천이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개석을 진행하여 공격사면(undercut slope)과 활주사면(slip-off slope)이 교대로 나타난다. 또한 이 일대는 지반융기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심산유곡(深山幽谷)의 형태로 높은 산지와 좁은 골짜기가 비경을 자랑하고 있어 낙동강 중상류 일대의 강변에 서원이 다수 분포한다.

퇴적암의 특성상 층리가 발달하였으며, 낙동강 공격사면의 단애(cliff)에서는 이러한 층리가 노출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낙동강은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일대를 흐르면서 원래는 고산의 서쪽으로 흐르는 곡류하천이었다. 그러나 고산의 동쪽부분이 하방침식에 의해 절단되면서 고산은 곡류핵(meander core)상태로 남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 흐르던 하도는 구하도(old river channel)가 되어 현재는 논으로 이용하고 있다. 고산정은 고산의 반대편에 위치하며 낙동강의 하

도 양안에 있는 하안단구 위에 만들어졌다. 이 하안단구는 남쪽의 선상지와 협화적으로 만나는데, 이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 월명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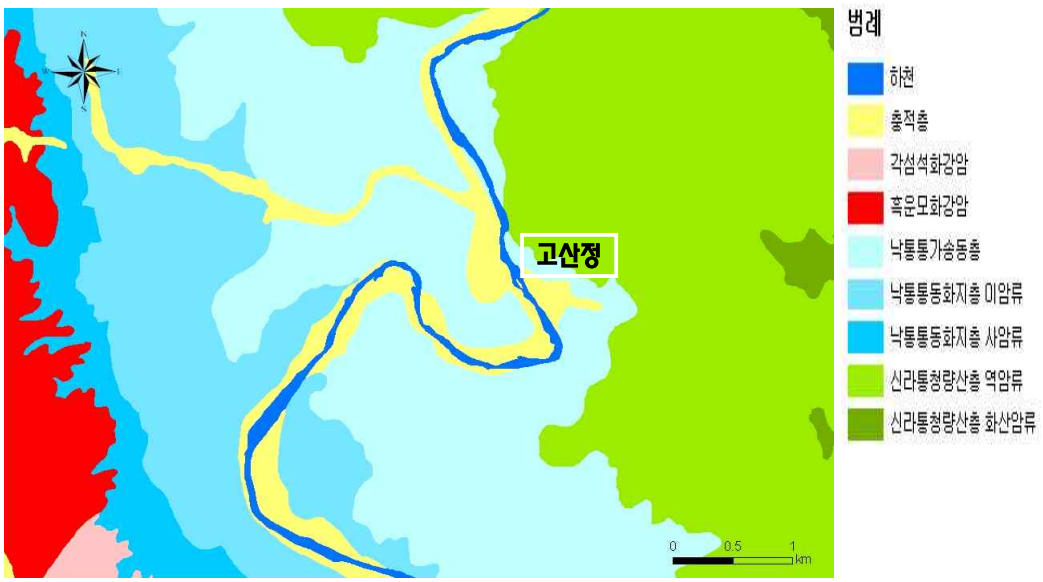
고산정 일대의 지형(DEM)

고산정은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화산암류 중심의 청량산(870m) 도립공원의 남서쪽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신생대 3기 동해지각 확장에 따른 횡압력의 영향으로 융기와 함께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단열이 형성되었다. 이 구조선을 따라 이전에 형성되었던 백악기 퇴적암층을 개석하면서 좁고 긴 형상으로 낙동강이 흐른다. 청량산 산체의 서쪽 협곡을 따라 낙동강이 굽이치면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가는데 동-서 방향의 단열을 따라 지류하천인 토계천이 합류하면서 낙동강의 후퇴사면에 퇴적층을 두텁게 발달시키고 있다.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선구조(lineament)[8]는 안동분지 전체에서 뚜렷하다. 이러한 선구조는 이 지역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안동 단층선과 관련성이 있으며 북동-남서 방향의 소백산지의

8) 지형도 상에 표시할 수 있는 규모의 선형으로 나타나는 구조로서, 대부분 단층, 절리, 균열 등 지표 암석권의 단열구조와 일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형적인 특성, 수계특성, 선형구조를 따른 식생 분포 등에 의해서 결정되고, 단층과 절리 등과 관련된 리니아먼트는 지하수 부존 및 유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광물자원용어사전, 2010).

배열과는 달리 그 내부의 곡지나 분지의 배열은 북북동-남남서 방향이나 동-서 계열을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김영래, 2007; 기근도, 2010).

안동시 북부와 봉화군 남쪽의 낙동강 중상류 일대는 아래 지질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일부 화강암이 존재하고 중생대 백악기로 추정되는 경상계 퇴적층(가송동층, 동화지층, 청량산층)이 주를 이룬다. 퇴적암의 경우 수평 및 수직절리의 발달이 탁월하고 유수의 개석 작용에 따라 하천 양안 및 해안에 단애의 발달이 두드러진다. 퇴적암을 흐르는 하천의 경우 측방 확대가 어려우 좁은 평탄형 곡지가 발달하는데, 이것이 조밀하면서 뚜렷한 선구조로 나타난다. 하상물질은 미립물과 암설로 이루어진 풍화층을 반영하여 자갈하상이 주를 이룬다. 수평누층군인 경상계 퇴적암은 특히 강도가 약해서 약한 지반운동에도 단열이나 절리가 형성되기 쉽다. 그러므로 단열을 따라 직선상의 좁은 평탄형 곡지가 치밀하게 발달해 있고 비슷한 고도대의 낮은 산지군 또한 조밀하게 발달해 있다. 급사면의 산지 사면에는 V자곡이나 현곡(haning valley), 단애(cliff), 그리고 삼각말단면(triangular facet) 등이 발달해 있다(송미숙, 2007).



고산정 일대의 지질

나. 자연 경관

청량산 산체의 남쪽에 동서 방향으로 형성된 소규모의 단열을 따라 '높은데골'이라는 골짜기가 발달해 있고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가사리라는 마을이 하안단구 위에 자리하고 있다. 하안단구(river terrace)는 낙동강의 곡류에 따라 형성된 구 하상이나 범람원이 융기하여 형성된 지형으로 취락, 농경지, 교통로 등 사람들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 일대는 래프팅, 오토캠핑의 장소로서 점차 변모되고 있어 인간 간섭에 따라 훼손이 될 우려가 있다.

주변의 기반암이 주로 수평 층리가 우세한 백악기 퇴적암인 만큼 급경사의 사면에서 떨어져 나온 암설들이 테일러스(애추)의 형태로 뿔모양으로 쌓여 있고 강 옆의 수직 절벽을 자세히 보면 층리를 반영하여 떡시루처럼 겹겹이 퇴적된 암석을 흔히 볼 수 있다.



가송리에서 바라본 고산정 전경



A1 - 하안단구 배후의 테일러스(애추)



A2 - 고산의 퇴적암 단애

다. 식생경관적 특징

고산정에서 바라보이는 소나무경관이 대표 경관으로서 우수하며 대경목으로서 흉고직경 33~73cm에 이르며 수령은 55~150여년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산정을 지키고 있는 탱자나무(흉고직경 21cm)도 지나온 세월을 대변하는 역사문화자원이다.

고산정 주변 식생으로 소나무, 느티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등이 우점하였으며 아교목층에 산뽕나무, 복사나무, 노간주나무, 물푸레나무가 출현하였고, 관목층에 국수나무, 산조팝나무, 생강나무, 참싸리, 쥐똥나무, 줄딸기 등이 우점하였다.



고산정 주변 자연경관



고산정 전면경관



고산정 건너편 소나무 전체경관



고산정 건너편 소나무 세부경관



고산정 내 탱자나무경관



고산정 후면부 참나무류경관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가.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

○ 문화 · 역사적 가치: 고산정은 조선 중기에 활동했던 성성재 금난수의 정자이다. 고산정은 조선 시대 사림이 경영했던 정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그것의 입지에 영향을 준 가송협, 고산의 소나무 숲, 낙동강 상류의 맑은 물 등 빼어난 자연 경관을 오늘날까지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또한, 고산정은 조선시대 안동으로부터 청량산으로 가던 옛길인 예던길 주변에 입지하고 있다. 그 결과, 이곳을 경유해 간 많은 묵객들의 옛 시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대 영남 사림들의 자연관을 엿볼 수 있고 명승의 향유 방식과 주요 명승적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재적 관점에서 이곳의 명승을 재구성해 볼 수도 있다.

○ 지형적 가치: 이 일대에서는 '가송협'이라 칭할 만큼 험준한 산지 사이를 굽이쳐 흘러가는 낙동강이 빚어낸 풍광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낙동강의 공격사면인 수직단애와 활주사면인 범람원 및 하안단구가 교대로 나타나고 있고 구유로의 흔적인 구하도(old river channel)가 존재하여 지형의 학습장으로서 가치가 있다. 하천의 퇴적사면 일대는 구 하상이나 범람원이 융기하여 하안단구(river terrace)가 발달해 있는데 배후에 급경사의 좁은 곡지를 따라 주빙하성 공급물질을 포함한 선성지성 퇴적물이 협화적으로 만나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공간을 취락, 농경지, 도로 등의 토지이용의 형태로 점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래프팅, 캠핑, 펜션 등의 관광지로 변모되고 있어서 점차 인위적 훼손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 식생적 가치: 안동팔경 중 하나인 아름다운 소나무가 많다고 하여 지어진 가송협(佳松峽)의 단애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고산정 주변에는 소나무 및 참나무류들이 어우러져 자연의 경이로운 병풍을 이루고 있다. 낙동강 원줄기가 흘러가는 안동의 생태와 문화유산 속에 가송협은 층층이 떡시루를 쌓아올린 것 같은 장엄한 기암괴석층과 우거진 송림경관이 절정을 이룬 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협곡을 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 속 수묵화와 같은 고즈넉한

고산정 일원은 바위와 소, 협곡, 단애 등의 가송협, 외병대, 내병대, 독산, 벽력암으로 불리는 등 독특한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소나무 경관이 아름다워 퇴계는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칭했을 만큼 자연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다.

나. 지정조사 의견

❍ A 위원

○ 가송협의 하안단애 기저부에 위치하는 정자로, 배후의 높은 단애가 고산정을 품은 듯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협곡 속에서도 정자의 전면부는 개방되어 있고 낙동강의 수계와 계곡의 수림들이 잘 어우러진다. 고산정 건너의 고산은 고산정 앞의 경관에 대하여 광각적 시야를 허용하지 않고 엄격히 제한하는 듯한 효과를 준다. 또 고산 기슭의 송림은 마치 고산정의 부속 정원을 이루는 형태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너무 개방적이지도 않으면서, 너무 왜소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경관성을 가진다 할 수 있다. 더불어 부드러운 자연의 곡선 속에 고산과 고산정 후방의 절벽에 발달하는 수평의 층리가 이루는 기하학적 평행선들은 고산정을 둘러싼 전체 경관 속에서 파격적인 구도를 구성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 이러한 명승적 가치와 더불어 고산정의 또 다른 자연유산적 가치는 고산 후면의 구하도이고, 주변에 월명담, 미천장담 등이 가송협의 미적 가치를 높여주며, 특히 강변에 형성되어 있는 옛길도 문화적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B 위원

○ 강원도 태백으로부터 흘러온 낙동강이 청량산을 지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가송협은 기암절벽의 단애로 이루어진 협곡임. 고산정은 가송협의 단애 아래 위치하고 있는 정자로서, 외병산과 내병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강물 건너에는 송림과 함께 독산이 솟아 있어 아름다운 비경을 나타냄.

○ 낙동강 변을 따라 이어지는 옛길인 예던길 주변에 조성된 고산정은 금난수가 지은 정자로서 수차례 보수 및 개축이 이루어 졌으며, 금난수, 이황 등

이 지은 다수의 시가 전해오고 있음.

○ 가송협 단애는 과거에 먹황새가 살고 있어 “천연기념물 제72호 안동 도산면의 오관번식지”로 지정되었다가 먹황새의 번식이 지속되지 않아 1973. 8.14 지정이 해제된 곳임.

○ 낙동강 변의 옛길로서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예던길’은 농암종택에서 고산정에 이르는 구간이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변해 있어 고산정 일원과 함께 묶어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가송협 단애를 중심으로 하는 고산정 일원은 수려하나 웅장하지는 못함. 국가지정 명승으로의 가치를 확보하려면 물리적 경승요소를 보완하는 인문적 가치를 규명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C 위원

○ 고산정은 안동팔경의 하나인 가송협의 단애 아래에 위치한 성성재 금난수의 별서이다. 주위에는 외병산과 내병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낙동강의 상류인 가송협의 건너에는 송림과 함께 독산이 솟아 있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지리적으로 보면 가송마을은 낙동강 하천이 과거에 흘렀던 구하도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독산은 고산정과 마주하여 경관적 가치를 더해준다.

○ 고산정 건립당시 사정과 주위의 절경에 대해서는 「일동록(日洞錄)」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창건 당시부터 예안지방의 대표적인 절경으로 알려져 그의 스승인 퇴계선생이 누차 문인들과 함께 와서 영시유상(詠詩遊賞)하였다. <고산제영(孤山題詠)>에는 퇴계의 문하생들을 비롯하여 재경관인(在京官人)들까지 찾아와 차운한 시가 수백 수에 달하고 있다. 한편, 퇴계 이황이 지나다니던 길(예던길)이 남아있고 한 굽이 넘어서는 농암종택이 분포하고 있어 고산정과 함께 예던길, 농암종택 등의 관광 자원으로 명승적 가치가 뛰어나다.

○ 또한 고산정일원은 자연경관은 물론 인문경관으로서도 남아있는 시문과 기문 등 자료가 많아 명승적 가치가 충분하고, 시기를 놓치면 주변이 훼손될 염려가 많으므로 우선적으로 명승지정을 추천한다. 다만 고산정은 훼손되지 않은 한국의 몇 남아있지 않은 ‘예던길’ 옛길의 중심에 있어 예던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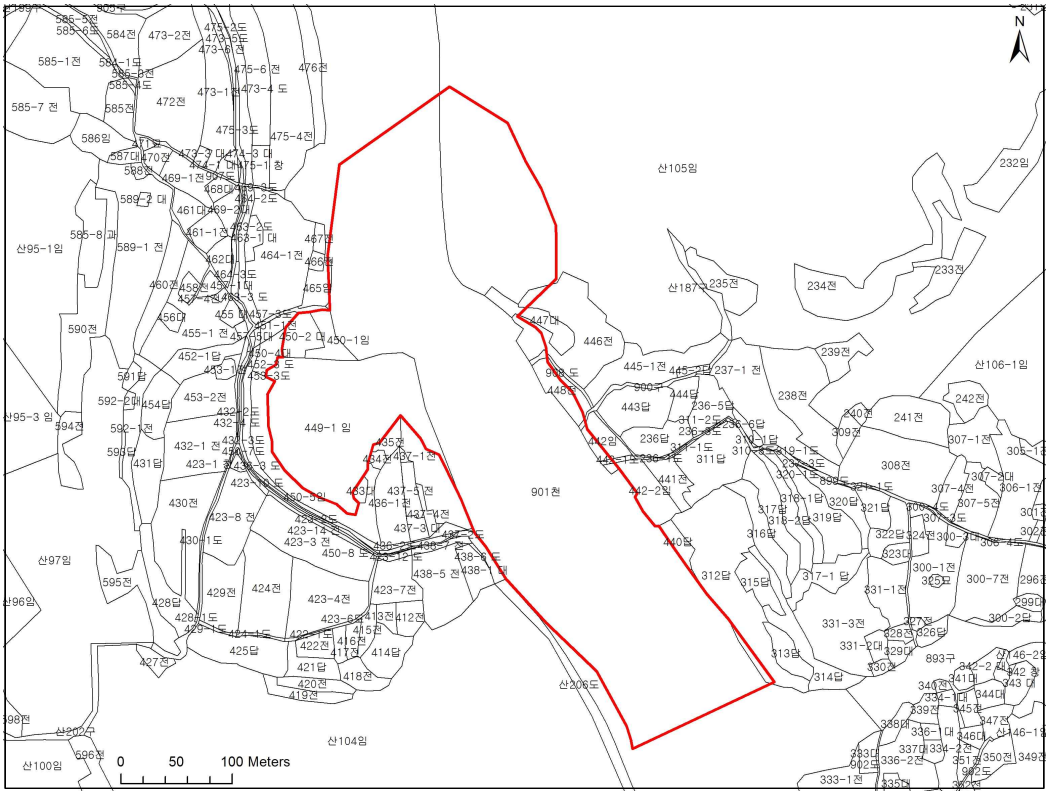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하여 명승지정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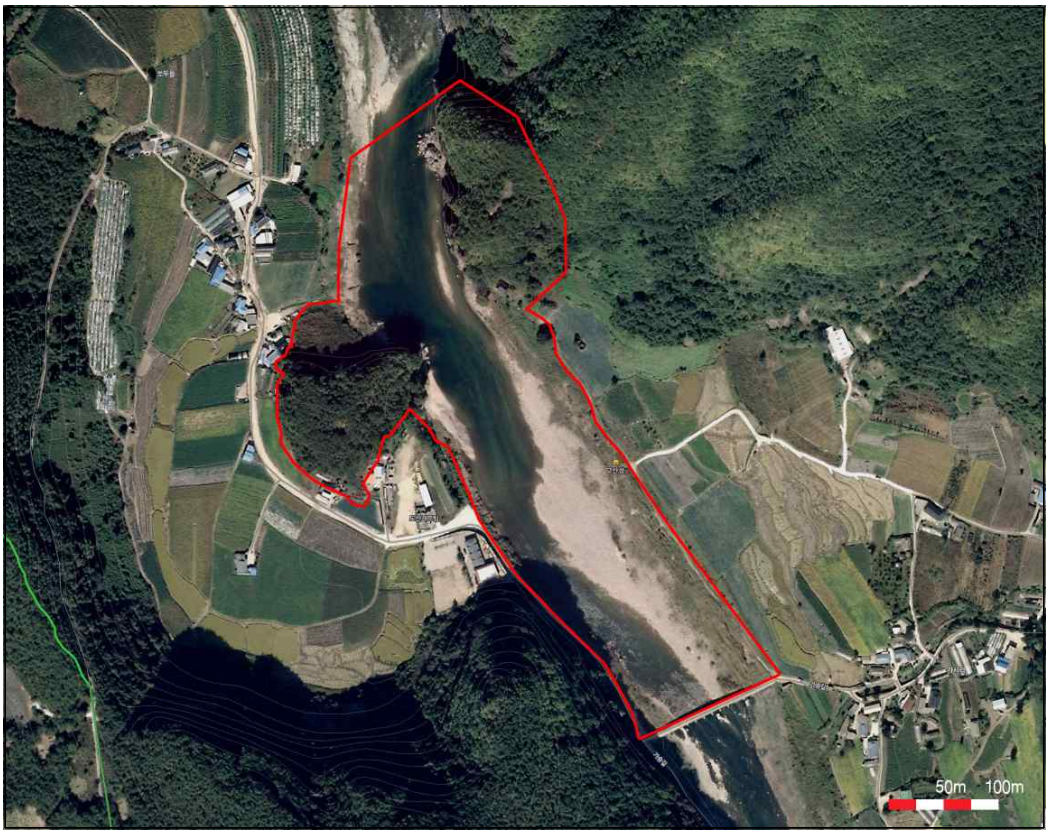
○ 농암종택과 고산정사이의 콘크리트길은 빼고 하천경관으로 연결하여 월명담, 한속담, 미천장담까지 구간을 이어서 확대 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명승의 지정 범위

명승의 지정 명칭과 범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지정내용
명칭	안동(安東) 가송협(佳松峽)과 고산정(孤山亭)
지정종별	명승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지번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447번지 외 14필지
면적	105,359.7㎡
관리단체	경상북도 안동시청
문화재 지정 여부	지정 권장


N
0
50
100 Meters


50m
100m

2) 영덕(盈德) 침수정(枕漱亭) 일원



삼귀담 건너편에서 바라본 침수정의 모습

(1) 지리지

- 자료 없음.

(2) 고시문

주로 18~19세기에 기록된 시가 남아 있으며, 대부분 손성을(孫聖乙)이 지은 침수정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노래하고 있다. 각 작품별로 동일한 대상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침수정 일대의 각기 다른 경관을 노래하고 있다. 각 작품별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침수정 -시(詩)	이남규(李南珪)	『수당집(修堂集)』 (권1)	〈손승선(孫承宣)의 침수정(枕漱亭)에 제(題)하여 보내다.(寄題孫承宣庚鉉枕漱亭)〉
	허훈(許薰)	『방산집(舫山集)』 (권5)	〈옥계(玉溪) [옥계 가에 침수정이 있는데 손성을이 지은 것이며, 골짜기 입구에 바위가 있는데 화표주라고 한다. 경암(敬庵) 노경임(盧景任)이 영덕 군수가 되어 바위 위에 영귀대(詠歸臺)라고 새겼다.(溪上。有枕漱亭。孫星乙所構。洞口。有石。名華表柱。盧敬庵景任。爲盈德宰。刻詠歸臺於石上。)]〉
	침류옹(枕流翁)		〈침류정 원운(枕漱亭原韻)〉
	김종덕(金宗德)	『천사집(川沙集)』 (권1)	〈병암(屛巖)〉
		『천사집(川沙集)』 (권1)	〈옥계(玉溪)〉
	김재성(金在性)		〈삼가 침수정의 시에 차운하여(謹次枕漱亭韻)〉
	김일규(金一圭)		〈삼가 침수정의 시에 차운하여(謹次枕漱亭韻)〉
	기정진(奇正鎭)	『노사집(蘆沙集)』 (권2)	〈침수정에서, 김치회에게 화답한 시 2수(枕漱亭。和金穉晦二首。)〉
	조성(趙晟)	『양심당집(養心堂集)』	〈接花果。贈朴啓賢。兼示沈守精，申宗淮。〉
	조욱(趙昱)	『용문집(龍門集)』 (권3)	〈見外侄沈守精作石假山長篇。佳甚。作一絶。〉
침수정 -문(文)	기우만(奇宇萬)	『송사집(松沙集)』 (권20)	〈枕漱亭重建記〉
	홍경모(洪敬謨)	『관암전서(冠巖全書)』 (책16)	〈枕漱亭記〉

<시(詩)>

1. 이남규(李南珪, 1855~1907), <승선(承宣) 손경현(孫庚鉉)의 침수정(枕漱亭)에 제(題)하여 보내다(寄題孫承宣庚鉉枕漱亭)>,『수당집(修堂集)』卷1

험한 바위는 몇 곳이며 샘물은 몇 줄기던가. / 幾處危巖幾道泉
안배해 지은 자그만 건물이 아담해라. / 安排小築得淸便
왕유의 망천 별장처럼 시와 그림 겸하고 / 輞川別業詩兼畵
귀향한 도연명처럼 귀거래사 짓는다네. / 彭澤歸來賦一篇
바람 잔잔하여 꽃향기는 자리에 스미고 / 風定花香侵席上
비끼는 석양에 솔 그늘이 창을 가려라. / 日斜松影落窓前
나중에 내려갈 때 낯설지 않으려고 / 異時南下非生客
새로 지은 시 멀리 보내 미리 길을 간다네. / 遙寄新詞道路先

* 19세기 후반의 유학자 이남규(李南珪)가 승선 손경현의 침수정을 떠올리며 읊은 시이다. 1784년(정조 8)에 이곳에 숨어들었던 손성을이란 선비가 옥계리 마을주변에 흩어져 있는 계곡미에 반해 침수정을 짓고 팔각산에서 일생을 마쳤다고 전하는 것으로 보아, 승선 손경현은 그 후손이 아닌가 생각된다. 왕유가 망천 별장에 은거한 일과 도연명이 <귀거래사>를 읊으며 낙향했던 고사를 떠올리며, 잔잔한 바람에 꽃향기 풍겨오고 석양녘 창가에 솔 그늘지는 침수정의 풍경을 읊었다.

2. 허훈(許薰, 1836~1907), <옥계(玉溪) [옥계 가에 침수정이 있는데 손성을이 지은 것이며, 골짜기 입구에 바위가 있는데 화표주라고 한다. 경암(敬庵) 노경임(盧景任)이 영덕군수가 되어 바위 위에 영귀대(詠歸臺)라고 새겼다.(溪上。有枕漱亭。孫星乙所構。洞口。有石。名華表柱。盧敬庵景任。爲盈德宰。刻詠歸臺於石上。)]>,『방산집(舫山集)』卷5

노공이 새긴 글씨 푸른 이끼 끼었는데 / 盧公遺刻蝕苔靑

수석(漱石)[9] 산옹이 이 정자를 빌렸구나. / 漱石山翁昔此亭
반 이랑의 맑은 물결은 옥거울 펼친 듯. / 半畝澂波開玉鏡
사시사철 짙은 안개 푸른 병풍에 방울지네. / 四時濃靄滴蒼屛
태을선인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구름이 길을 덮었고 / 乙仙未返雲埋逕
정영위(丁令威)의 화표주만 남아 물가에 달빛이 가득하네. / 丁柱猶存月滿汀
문에 들어서자 차가운 샘물이 옥 비파 소리를 내니 / 入戶寒泉瑤瑟響
정신이 맑아져 밤새도록 꿈에서 자주 깨는구나. / 神淸終夜夢頻醒

* 19세기의 학자 허훈(許薰)이 쓴 시이다. 옥계 옆에 침수정이 있고, 골짜기 입구에 화표주라 불리는 바위가 있으며, 그 바위에 노경임(盧景任, 1569~1620)이 쓴 '영귀대(詠歸臺)'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풍경을 읊었다. 이끼가 낀 바위의 글자, 옥거울처럼 맑은 물, 구름이 자욱하게 덮인 길, 달빛이 가득 비치는 화표주, 맑게 샘물 흐르는 소리 등을 묘사하였다.

3. 침류옹(枕流翁), <침류정 원운(枕漱亭原韻)>[10]

내 모든 일 이 정자에 맡기니 / 萬事吾身付一亭
기둥 사이로 맑은 소리 부서져 들어온다. / 淸音擊碎入牕棂
늦봄에 용은 근심스레 굴 속에 몸을 감추고 / 龍愁春暮蟠藏窟
맑은 가을에 학은 기뻐하며 병암에서 춤추며 맴돈다. / 鶴喜秋晴舞環屛
삼귀담 오래된 바위 얕아진 폭포수 들여다보고 / 老石三龜窺淺瀑
팔각산 한가로운 구름 성긴 문 위로 걷히는 구나. / 閒雲八角捲疎扃
평소 부질없이 자연 속에 살아오면서 / 平生浮坐烟霞積
선계의 참된 인연 얼마나 꿈꿨던가. / 玉府眞緣夢幾輾
[辛亥九月上澣]

---

9) 수석(漱石): 진(晉)나라 손초가 숨어 살려고 하면서, "돌을 베개 삼고 흐르는 물에 양치질하련다.(枕石漱流)" 라고 말해야 할 것을, "물을 베고 돌로 양치질하련다.(枕流漱石)" 라고 잘못 말했는데, 왕제(王濟)가 그 말을 듣고서 잘못을 지적하자, 손초가 "물을 베는 것은 속진에 찌든 귀를 씻어 내기 위함이요(洗其耳), 돌로 양치질하는 것은 연화(煙火)에 물든 치아의 때를 갈아서 없애려 함이다(礪其齒)." 라고 대답했던 고사가 전한다. 《世說新語 排調》

10) 현재 침수정에 걸려 있는 현판 가운데 주목할 만한 작품

* 작자인 침류용(枕流翁)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맑은 물소리 들려오는 침류정에서 바라본 풍경을 신선 세계로 묘사하고 선계의 인연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늦봄엔 용이 굴에 몸을 감추고, 맑은 가을엔 학이 병풍바위에서 춤추며, 삼귀담의 오래된 바위로 폭포수 떨어지고, 팔각산의 구름이 문위에 걷히는 풍경을 그렸다.

4. 김종덕(金宗德, 1724~1797), <병암(屛巖)>,『천사집(川沙集)』卷1[11)]

첩첩이 푸른 바위 옛 숲을 둘렀는데 / 數疊蒼巖遶古林
마침내 병풍 열어젖히니 골짜기 그늘졌네. / 遂開屛障洞門陰
하늘 떠받침은 본래 버티는 힘 있기 때문이오. / 撑天自有扶持力
땅에 꽂혀 있음은 끝내 흔들리는 마음 없기 때문이라. / 插地終無轉動心
덮인 덩굴 위로 가을이 깊어 황금빛 자물쇠로 닫아걸면 / 蘿面秋深金作鎖
돌 틈으로 물결 부서져 옥소리가 들리네. / 石齦流碎玉生音
바람 불면 마음 슬퍼져 연거푸 머리를 긁적이니 / 臨風慨想頻搔髮
늙은 여생 몇 년이나 이 소리 들으려나. / 旅老何年坐此音

* 김종덕(金宗德)은 본관이 안동이고 의성 출신인 18세기의 학자이다. 이상정(李象靖)의 문인으로, 1753년(영조 29)에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오직 학업에만 열중하였다. 이 시는 병풍바위의 주위의 가을 풍경과 감회를 읊은 것으로, 푸른 바위가 첩첩이 숲을 둘렀고, 덩굴이 우거진 곳에서 돌 틈에 물결 부딪히는 소리 들으며 늙은 여생의 서글픈 감회를 읊고 있다.

5. 김재성(金在性, ?~?), <삼가 침수정의 시에 차운하여(謹次枕漱亭韻)>[12)]

오랜 세월 하늘이 아껴둔 곳에 이 정자 지으니 / 慳秘多年卜此亭
명승에 노닐며 나는 듯한 기둥에 기대어 보네. / 名區遊子倚飛楹

11) 현재 침수정에 걸려 있는 현판 가운데 주목할 만한 작품
12) 현재 침수정에 걸려 있는 현판 가운데 주목할 만한 작품

연못의 용 떠난 뒤 물결로 자취 남고 / 潭龍已去餘紋跡
누대의 학 외로이 깃든 곳에 돌병풍이 에워쌌네. / 臺鶴孤捿繞石屛
골짜기 들어서며 텅 빈 곳에 별업을 열고 / 谷口谿砑開別業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선방을 닫아걸었네. / 塵寰遙遠掩仙扃
주인옹 이따금 거문고를 타면서 / 主翁時奏瑤琴曲
산수 속에서 홀로 깨어 있구나. / 山水中間也獨醒
[甲申 黃花節 直庵 金在性 謹稿]

* 19세기의 문인 직암(直庵) 김재성(金在性)이 침수정을 읊은 시이다. 침수정 기둥에 기대어 돌병풍이 누대를 에워싼 풍경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인다. 한적한 골짜기에 별업을 열고, 세상과 떨어진 곳에 선방을 닫아걸고 산수 속에 홀로 깨어 있는 모습을 그렸다.

6. 김일규(金一圭, ?~?), <삼가 침수정의 시에 차운하여(謹次枕漱亭韻)>[13)]

태연히 물가 바위 곁에 날개 펼친 침수정 / 居然泉石翼然亭
명승을 기리며 이 정자 지었다네. / 頌是名區建是楹
하늘의 비밀 감추어져 이 세상이 아닌 듯하고 / 天秘渾淪形外界
땅의 기이함을 간직하여 그림 속의 병풍이라. / 地藏奇絶畵中屛
여유로운 세속 선비 서로 찾아와보니 / 從容俗士相尋路
신선 같은 분 혼자서 방문 닫고 있구나. / 彷佛仙人獨掩扃
느릿느릿 마루 앞 걷다가 돌아갈 때면 / 緩步軒前還往裡
풍광을 두루 살피며 마음 상쾌해지네. / 統觀風物快心醒

* 일산(逸山) 김일규(金一圭)가 침수정을 찾아와 풍경과 감회를 읊은 시이다. 물가 바위 곁에 날개 펼쳐 그림 속의 병풍처럼 아름답다고 찬탄하고, 침수정 주위를 거닐며 풍경을 바라보니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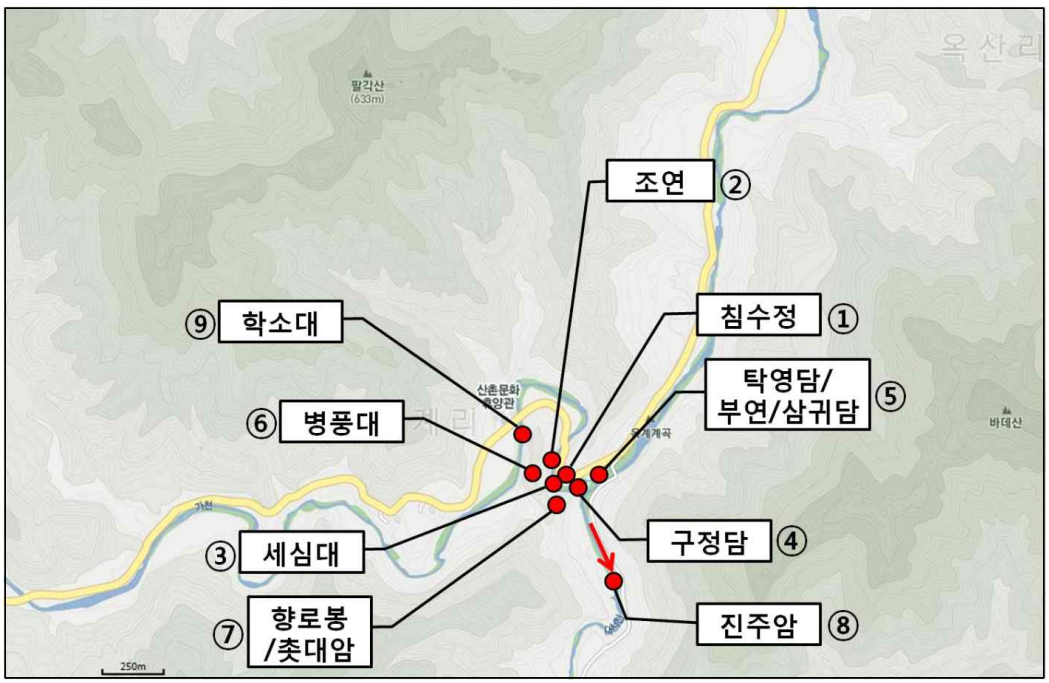
13) 현재 침수정에 걸려 있는 현판 가운데 주목할 만한 작품

(3) 실경산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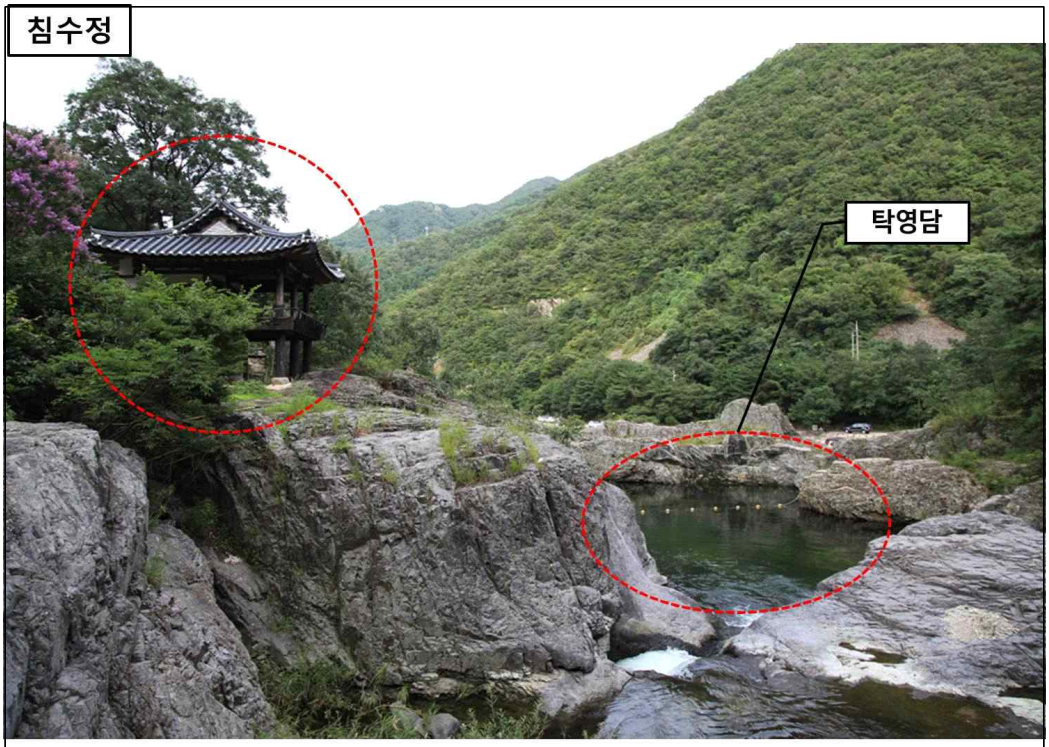
- 자료 없음.

(4) 현재적 재구성

1784년(정조 8)에 손성을이란 선비가 옥계리 마을 주변에 흩어져 있는 계곡미에 반해 침수정을 지었다. 침수정이 나오는 고시문은 주로 19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침수정의 아름다운 경관을 노래하거나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느끼는 개인적 감상을 담고 있다. 팔각산에서 일생을 마친 손성을이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골라 이름 붙여 놓은 것이 37경이다. 이 중 일부의 해당 경관을 지도와 함께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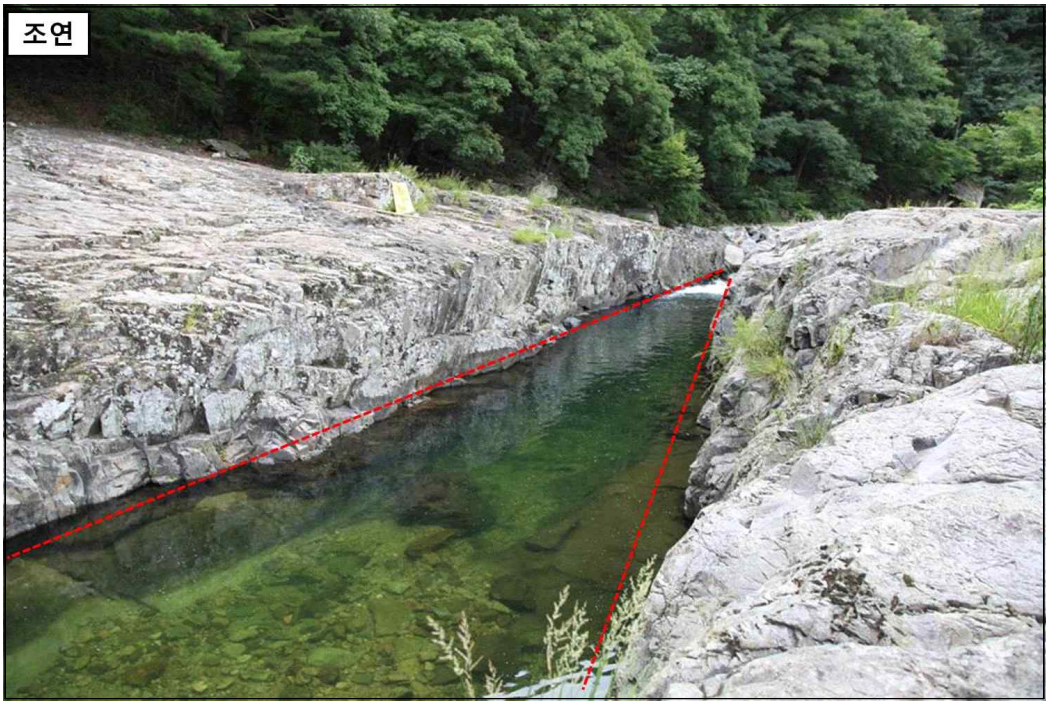


① 침수정 원경과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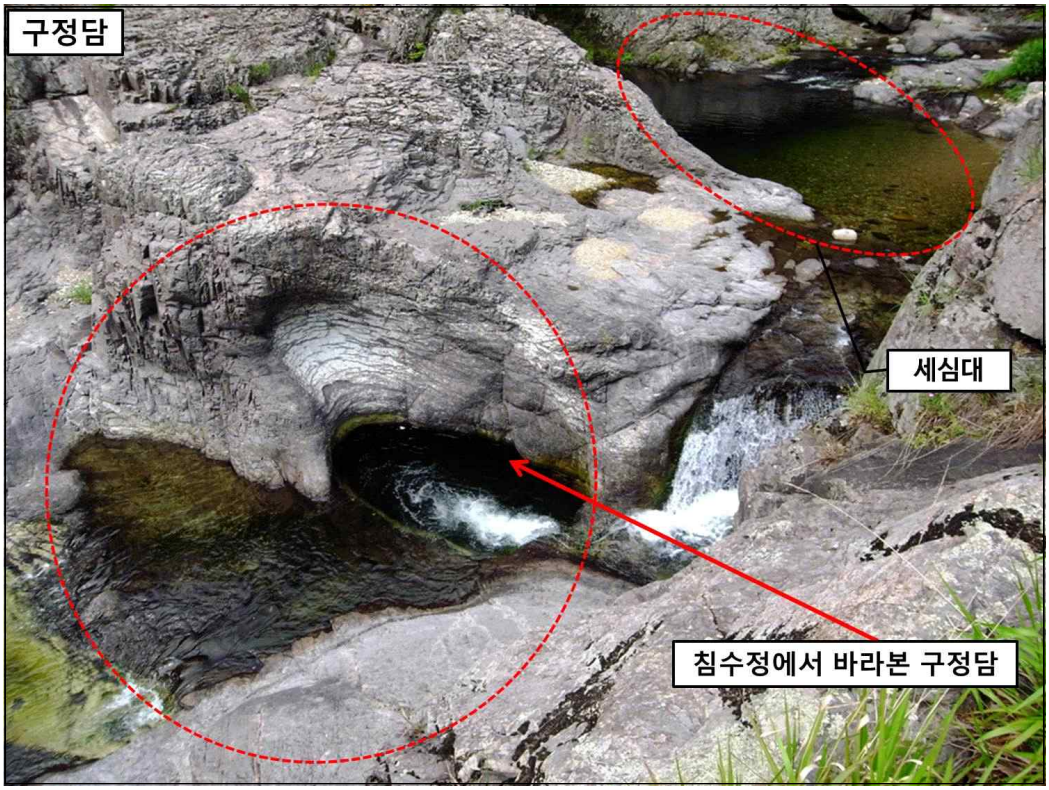
② 측면에서 바라본 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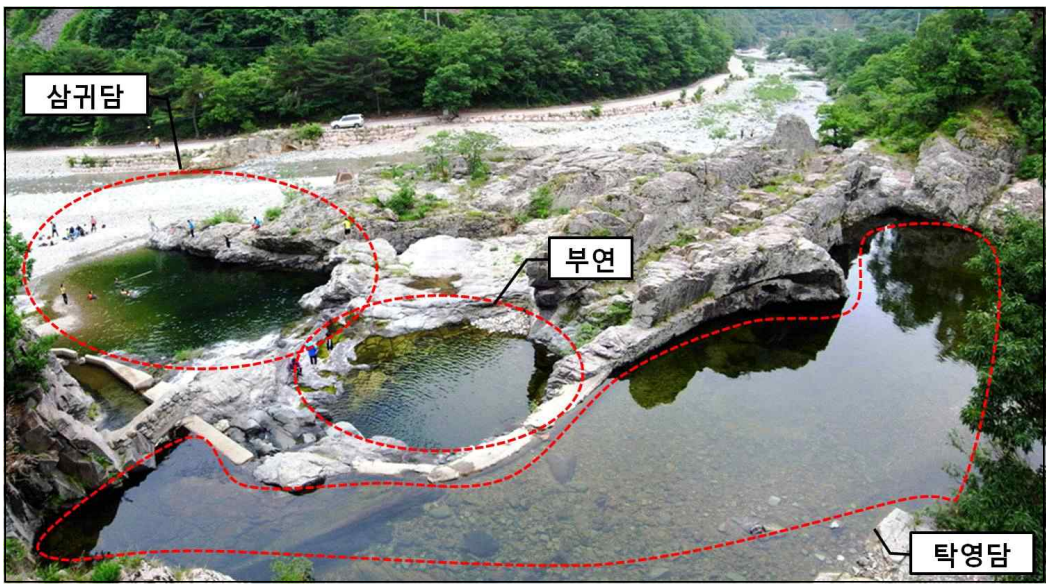
③ 침수정에서 바라본 세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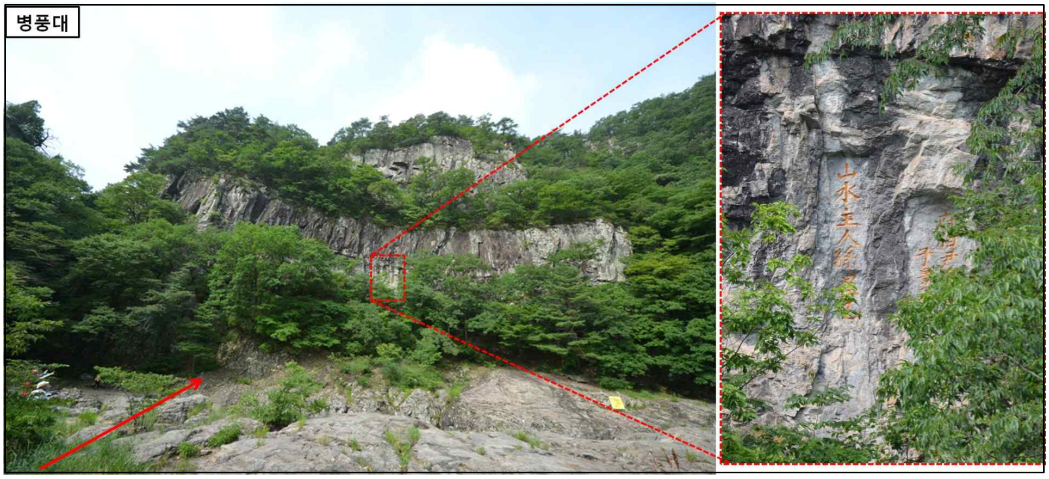
④ 침수정에서 바라본 구정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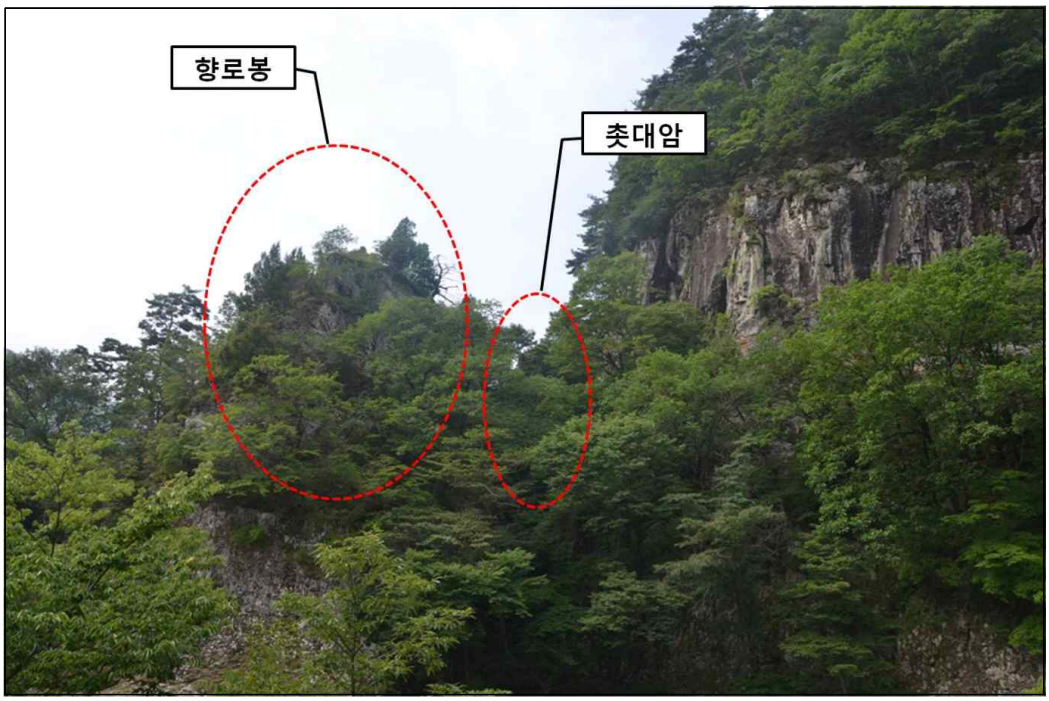
⑤ 자연 수영장을 이루고 있는 삼귀담, 부연, 탁영담



⑥ 침수정 동편에 병풍처럼 펼쳐진 병풍대와 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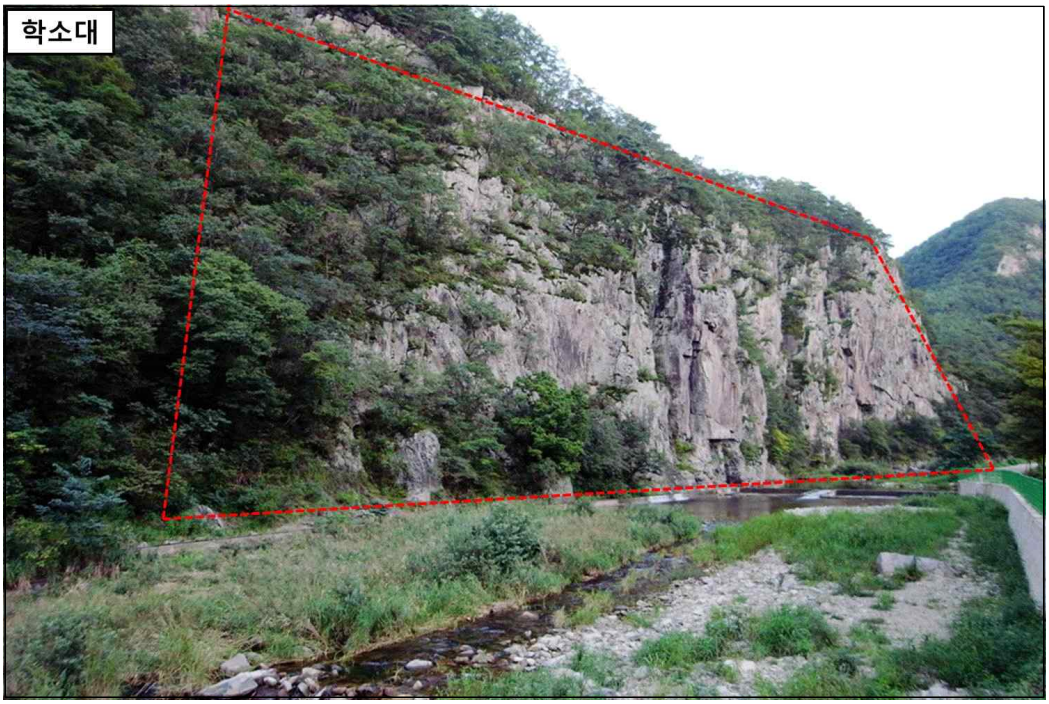
⑦ 병풍대에 연이어 있는 촛대암과 향로봉



⑧ 진주암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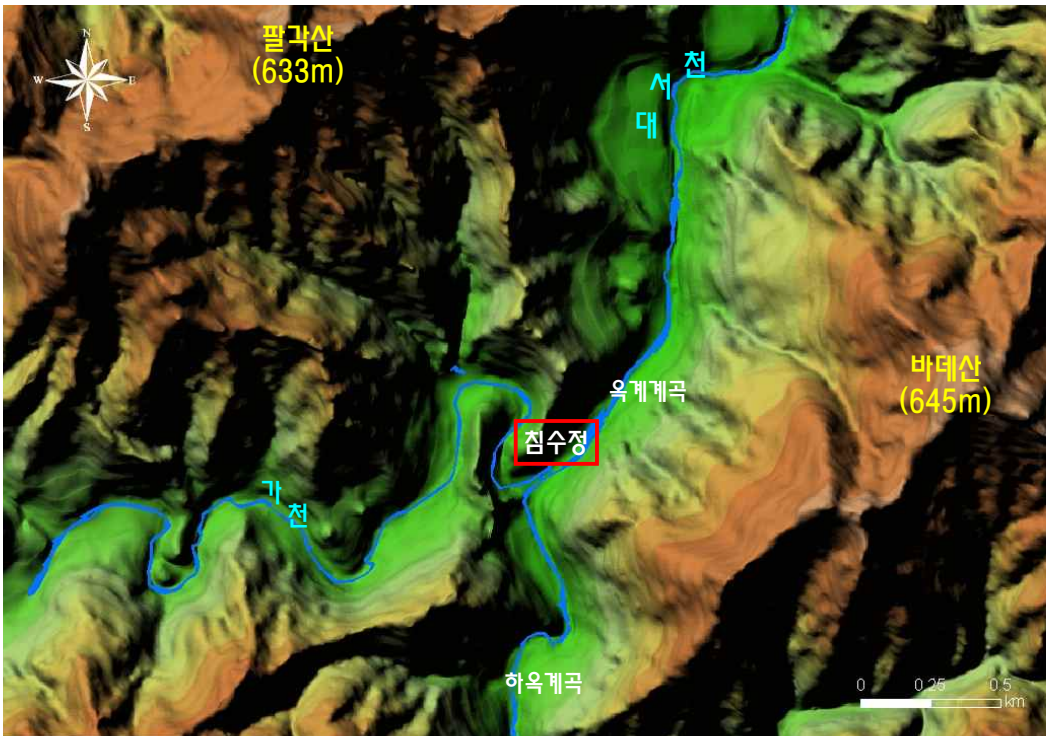


⑨ 측면에서 바라본 학소대



(5) 지형 및 식생 분석

가. 지형 및 지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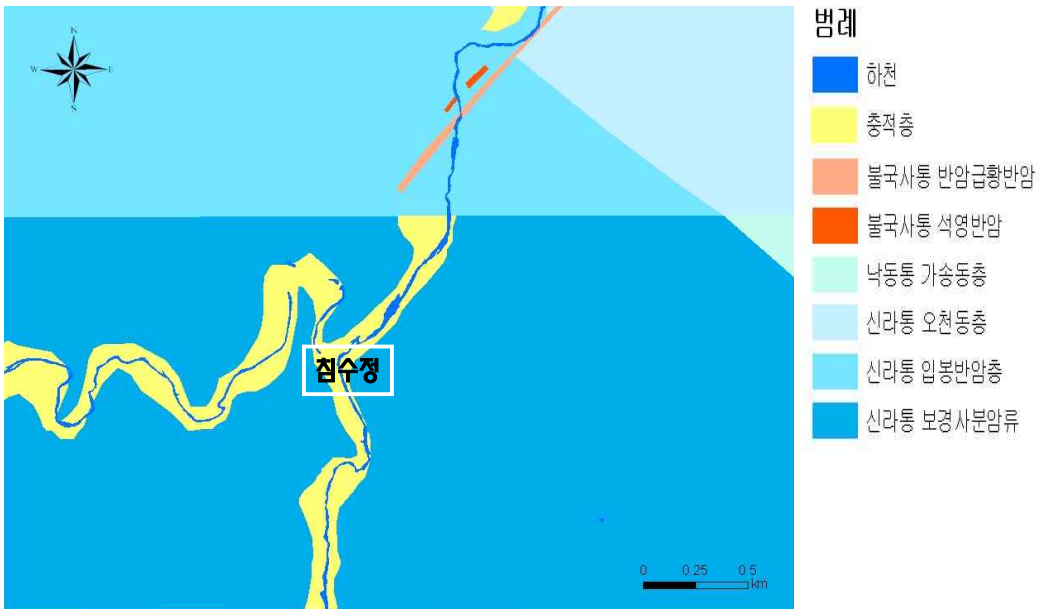


침수정 일대의 지형(DEM)

영덕군 달산면에 위치한 옥계계곡은 한반도의 동해안의 주요 능선인 주왕산(721m)부터 내연산(720m)사이의 분수계를 따라 동사면으로 흐르는 대서천(13.25km)의 협곡에 위치한다. 북쪽으로는 팔각산(633m), 남쪽으로는 바데산(650m)이 매우 가깝게 자리 잡고 있어서 주변산지로부터의 암설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영덕오십천의 상류에 여러 지류가 침식한 계곡으로 경승지(景勝地)가 많고 정자와 기암괴석, 폭포와 연못 등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다. 특히 크고 작은 암설의 공급이 탁월하여 돌과 바위만으로 이룬 삼귀암 · 향로봉 · 병풍석 · 일월봉 · 벼슬봉 · 학소대 · 진주암 · 부암 · 구룡담 · 마제석 · 구정담 등 37경의 비경을 자랑한다.

대서천은 팔각산과 바데산 사이를 곡류하면서 흘러 하옥계곡과 옥계계곡 등의 아름다운 하천경관을 만들었다. 가천과 대서천이 만나는 침수정 일대는 계곡 경관 가운데 가장 빼어난 곳이다. 공격사면을 향해서는 기반암이 드러나는 암석단애(rock cliff)인 병풍암을 형성하였으며, 곡류로 인한 유로변경을 할 때 하천침

식에 강한 암석부분은 촛대암과 같은 큰 규모의 잔구(殘丘)를 형성하였다. 또한 하도의 약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굴식과 마식이 일어나면서, 큰 소(pool)를 형성하고 있는데, 옥계계곡 하류에 위치한 탁영담이 대표적인 예이다.



침수정 일대의 지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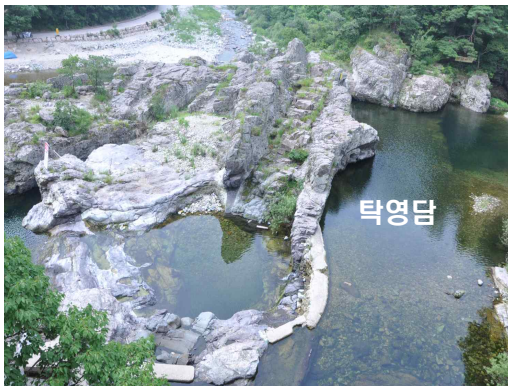
이 지역은 중생대 백악기에 수차례 분출된 알칼리성과 중성의 용암이 굳어서 퇴적층을 이루며, 침수정 일대에서는 약 4매에 화산퇴적층이 발견된다. 옥계계곡 일대의 지질은 중생대에 형성된 신라통 보경사분암으로 성질은 중성인 안산암계와 알칼리성인 현무암계 사이의 특성을 보인다. 또한 중생대 백악기 말의 불국사운동과 신생대 마이오세의 경동성 요곡운동을 거치면서, 많은 구조선이 이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거시적인 구조선 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이며, 남북 방향과 북서-남동 방향도 작용함으로써, 거시적인 산지방향 및 옥계계곡을 흐르는 대서천과 지류천인 가천의 유로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옥계계곡은 염기성 화산암계인 안산암과 현무암이 분출하여 퇴적된 경상계 퇴적암이 기반암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분출시기와 특성이 다른 용암들의 퇴적으로 인하여 부정합면이 보이고 여러 매의 화산암반층이 퇴적되었고 그 중 마지막 단은 드물게 호우 시 범람의 가능성도 보인다. 또한 이들 부정합면을 따라 절리밀도가 높고, 이를 따라 굴식이 진전되고 있다. 또한 옥계계곡은 지류의 규모와 본류의 규모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들 두 하천이 만나는 장소는 하방침식력의

차이에 따라 고도차가 발생한다. 이로 인한 현곡(hanging valley)이 형성되어 지형적 경관을 이루고 있다.

나. 자연 경관





A1 - 암석하도에 발달한 포트홀



A2 - 옥계계곡 하식애

옥계계곡의 침수정은 하천의 범람원(flood plain)과 암석단구(rock terrace)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정자이다. 대서천은 침수정의 앞의 기반암을 지나면서 하식(fluvial erosion) 작용을 통해 유로를 확장하는데, 수평 및 수적절리면에 따른 차별침식으로 인하여 계단상의 하도를 형성한다. 또한 하천의 유량이 적어지는 갈수기에는 이러한 계단상의 하도지형은 일시적으로 소(pool)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하천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곳에서는 국지적으로 포트홀(pothole) 혹

은 그루브(groove)가 형성되어 하천유로를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옥계계곡은 북동-남서 방향의 단열을 따라 대서천이 심한 곡류를 하게 되었고, 중생대 말 여러번 분출한 신라통의 화산암반층을 개석하면서 미지형을 만들어냈고, 침수정은 홍수 시에도 침수되지 않는 단구상에 위치한 정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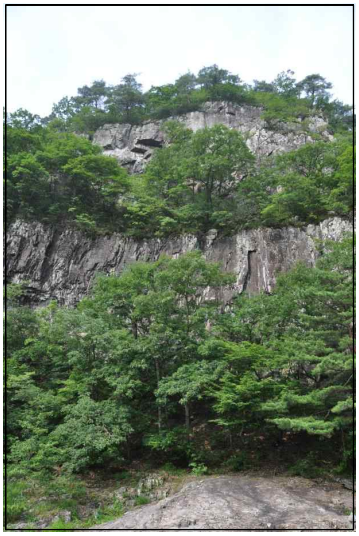
다. 식생경관적 특징

팔각산과 바데산 사이에 위치한 옥계계곡은 맑은 물과 큰 계곡의 경치로 유명한데, 침수정 주변경관이 그 절정을 이룬다. 천연 자연이 만들어낸 다양한 수심의 계곡과 주변 식생경관으로 암반 틈새의 원추리와 참나리, 부처꽃이 우점하면서 여름철 주홍빛과 보라빛 꽃색의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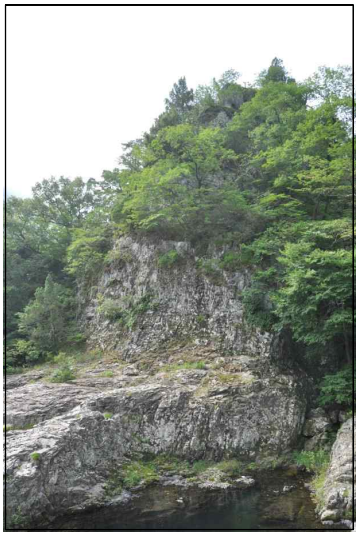
특히, 수직 암벽을 따라 군락을 이루고 있는 둥근잎꿩의비름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중의 하나이며,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지가 국소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종이다. 둥근잎꿩의비름은 여러해살이 초본류로 척박한 절벽 틈새에 뿌리를 내리고 휘늘어진 형태로 7~8월에 홍색 빛을 띤 자주색 꽃이 줄기 끝에 둥글게 모여 달린다. 타원형의 잎은 돌나물과에 속하는 식물답게 다육질로 두툼하며 잎에 많은 수분을 저장하고 있으므로 척박한 바위틈에서도 생육이 양호하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바위틈에 뿌리를 내려 살아가고 있는 둥근잎꿩의비름 자생지는 침수정 일원의 잘 보전된 깨끗한 자연환경을 대변하고 있는 우수식물자원으로서 평가되었다.

침수정 전면의 병풍모양으로 깎아지른 듯한 병풍대와 향로봉의 주요 식생은 소나무, 느티나무, 신갈나무, 굴피나무, 서어나무가 우점하며 아교목층으로 팥배나무, 당단풍나무, 쇠물푸레나무, 산뽕나무, 비목나무, 층층나무가 주요 종으로 분포한다. 관목층으로 암벽부를 따라 철쭉이 대군락을 이루며 산조팝나무, 작살나무, 조록싸리, 참싸리, 줄딸기, 국수나무, 광대싸리, 쥐똥나무 등이 생육하여 암벽과 다양한 꽃색의 조화를 이루어 화려한 계절감을 부여한다. 초본층으로 달뿌리풀, 넉줄고사리, 부처손, 돌나물, 기린초, 바위채송화 등이 주요종으로 분포하였다.

침수정 주변은 회화나무,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복사나무, 석류나무, 배롱나무, 향나무, 매화나무, 산수유 등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관목으로 탱자나무, 회양목, 사철나무 등이 생육하고 있었다.



절벽부에 단을 이룬 식생경관



절벽부의 소나무-낙엽활엽수경관



절벽 하단부 식생경관(낙엽활엽수)



절벽 상단부 식생경관(소나무)



절벽부의 둥근잎꿩의비름 군락지



암벽 사이의 둥근잎꿩의비름



암벽 사이의 부처손



암반 사이의 원추리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가.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

❍ 문화·역사적 가치: 침수정은 조선 후기에 옥계계곡 일대의 자연미에 반해 이곳에 은거한 선비 손성을의 정자이다. 그 후 19세기의 시문들에서 침수정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계곡 경관을 노래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고, 침수정에 걸려 있는 중수기 현판에도 침수정 일대의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손성을은 침수정을 포함한 이 일대의 경관을 37경으로 지정해 경영하였다. 그의 37경은 옥계계곡의 소와 담, 절벽과 소나무, 암봉 등 다양한 종류의 자연 경관을 포함하는 경승으로서, 이 지역에서는 '남반구 북옥계'라 하여 경상도 남부의 반구대와 쌍벽을 이루는 계곡의 주요 경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주요 경관 요소는 현재까지 마을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침수정 일대는 조선시대 향촌 사회에서 거주하였던 한 유학자의 명승 경영 방식과 자연관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 지형적 가치: 옥계계곡에 위치한 침수정 일대는 지형적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느낌으로서의 가치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자연스러움의 극치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크다. 중생대 말 백악기에 폭발한 안산암 계통의 화산암이 시기를 달리하여 퇴적되었고 이들의 퇴적상에 따라서 풍화·개석 패턴이 달라지면서 다양한 미지형을 만들어 놓았다.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대서천 중상류에는 하곡 양안에 급경사의 산지에서 공급된 암설이 다량으로 공급되어 하상 주변에 두터운 암설퇴(gravel bar)를 형성시키고 있다. 또한 유수에너지가 상당히 강한 곳에는 굴식(掘蝕) 및 마식(磨蝕)의 진행으로 돌개구멍(pothole), 소(pool) 등의 미지형 경관이 밀도 높게 분포하고 있어 운치를 자아낸다.

❍ 식생적 가치: 천연림으로 둘러싸인 팔각산과 동대산의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깊은 계곡, 옥같이 맑고, 투명한 물이 머무는 탁영담 등의 빼어난 경관 속 침수정은 한 폭의 동양화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와 같은 인문, 지

형경관과 함께 어우러진 암벽 상단부마다 단을 이룬 소나무경관, 신갈나무 및 굴피나무와 같은 낙엽활엽수경관은 수직절벽부와 수평적 배경을 이루고 있어 경관적 조망가치가 뛰어나다. 특히, 계곡의 바위틈이나 척박한 암벽에서 생육하고 있는 둥근잎꿩의비름 자생지는 무엇보다 보전가치가 높다.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로서 자생지가 매우 국한되어 있는 식물로서 현재, 절벽부 바위식생으로서 생육면적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보전방안이 필요하다.

나. 지정조사 의견

❍ A 위원

○ 치밀하고 견고한 화산암류들이 깊은 계곡을 형성하였고, 강한 유수는 소와 담을 형성하였다. 침수정은 덕길산이나 무장산으로부터 내려오는 하천이 옥계계곡에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옥계계곡보다 높은 지류의 하구에 침수정이 위치하고 있어 침수정에서 합류부를 바라보는 시야는 개방적이다. 침수정 아래 형성된 소는 다소 높이가 있어 침수정과 연관 지어 경관성을 평가하기에는 약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측면에서 침수정을 조망할 때는 중요한 경관적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한다. 또 침수정 전면부에 인접한 단애는 침수정을 위축시키는 형상을 이룬다. 옥계계곡에서 조망한 침수정도 큰 자연 경관 속에서 균형미를 찾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연 속에 묻혀 있는 듯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너무 인접한 도로의 개설은 명승적 가치를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된다.

❍ B 위원

○ 경상북도 기념물 제45호로 지정되어 있는 옥계계곡은 영덕군을 흘러 동해로 나가는 오십천의 상류에 위치한 골짜기로, 예로부터 아름다운 경승지로 꼽혀 왔음. 특히 경주지역에서는 “남반구 북옥계”라 해서 남쪽으로는 울산의 반구대를 북쪽으로는 영덕의 옥계계곡을 으뜸으로 칭하고 있음.

○ 1784년 손성을이 지은 침수정이 위치하고 있는 옥계계곡은 팔각산과 동대산에서 흘러내리는 계류가 합류하는 계곡으로,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음.

○ 근래 침수정 인근에는 도로의 개설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침수정일원의 경관보존 의지로 인해 도로공사를 중단함으로써 계곡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상황임.

○ 영덕 침수정 일원은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경승지로서, 자연경관으로서의 가치와 인문학적 의미가 빼어나 국가지정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대상으로 판단되며, 지방기념물 지정구역을 중심으로 구획함이 바람직함.

❍ C 위원

○ 옥계계곡은 팔각산과 동대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산과 강이 아름다우며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계곡 주위의 깎아 놓은 듯한 기암괴석은 37경의 비경을 빚어 놓았으며 계곡 가운데 경관이 가장 빼어난 곳에 있는 침수정은 계곡의 경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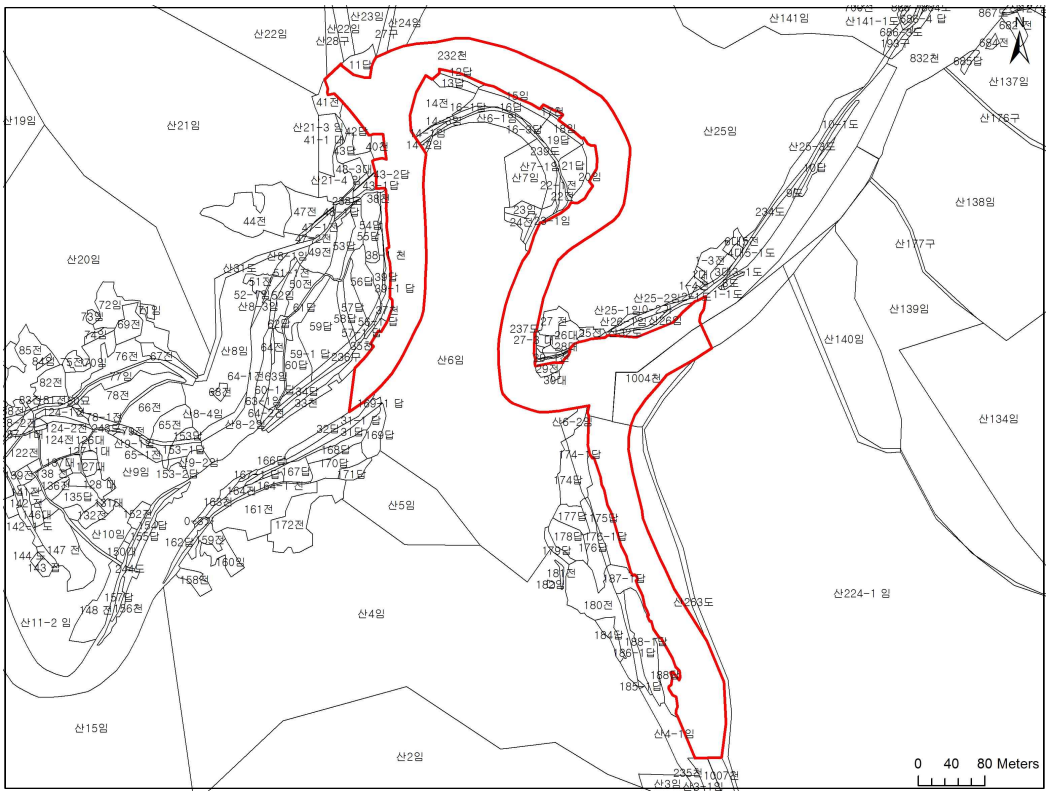
○ 조선 1784년(정조 8)에 손성을이 옥계리 마을 주변에 흩어져 있는 계곡미가 '별유천지'임을 알아 침수정을 짓고 ‘흐르는 물을 베개 삼아 세월을 잊겠다.’는 심사로 침수정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전한다. 이름 있는 경치로는 침수정 앞에 병풍 모양으로 깎아 놓은 듯한 바위가 병풍대이고, 향로처럼 생긴 것이 향로봉이다. 그 사이에 촛대와 흡사한 촛대봉이 있고, 하옥리 방향으로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면, 계곡 가운데 꽃봉오리 모양으로 앉은 것이 진주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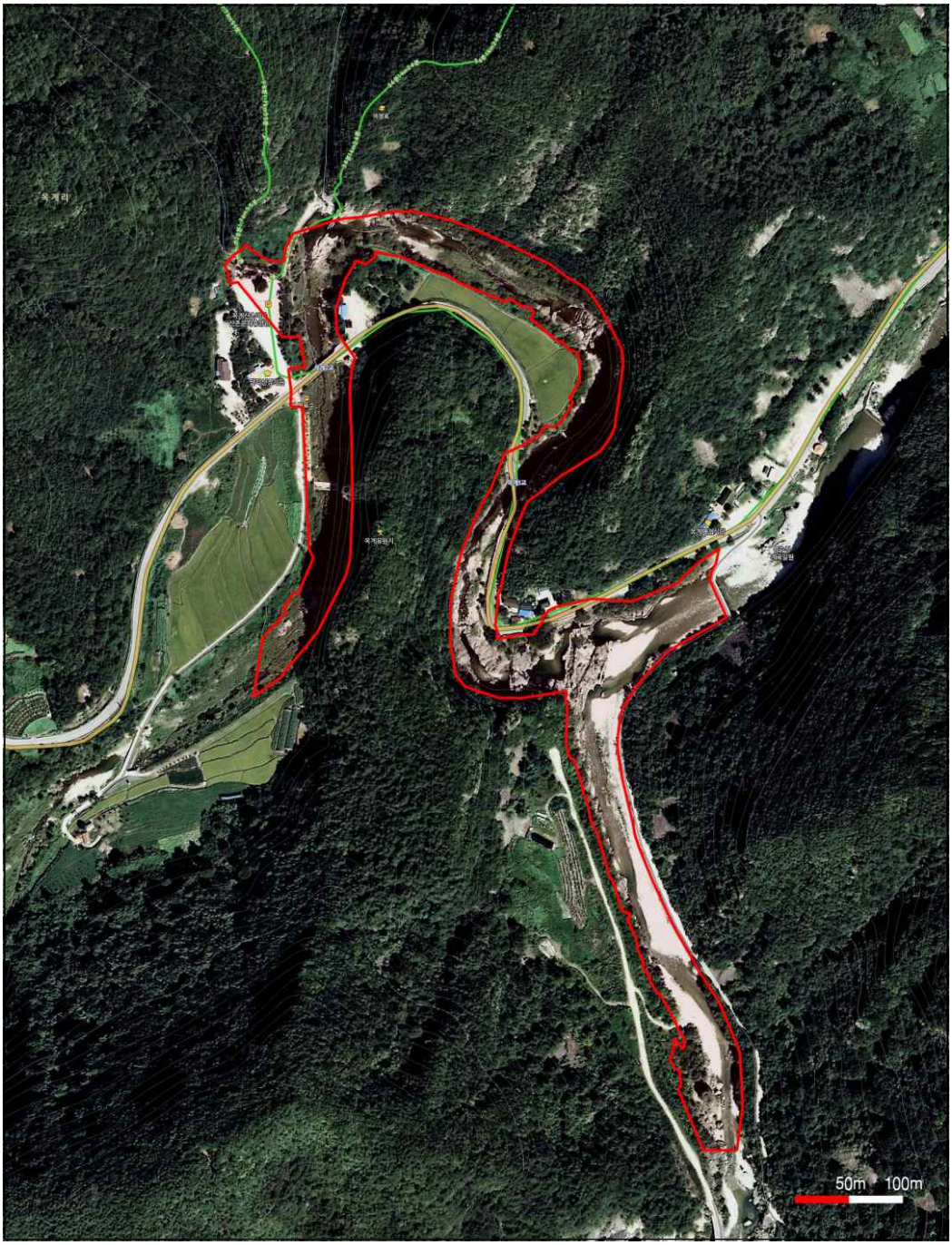
○ 자연경관도 아름답지만 손성을이 짓고 시문을 읊은 기록과 암각 등 인문적인 요소가 잠재해있으며, 주변에 도로가 개설될 것을 지역 주민들의 합심된 노력으로 막는 등 지역사람들의 이곳 사랑이 남달라 보존관리의 이점이 있는 등을 고려해 볼 때 명승으로 지정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 명승의 지정 범위

명승의 지정 명칭과 범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지정내용
명칭	영덕(盈德) 침수정(枕漱亭) 일원
지정종별	명승
소재지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지번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30번지 외 3필지
면적	65,453.9㎡
관리단체	경상북도 영덕군청
문화재 지정 여부	지정 권장




50m
100m

3) 포항(浦項) 내연산(內延山) 계곡



내연산 삼용추(三龍湫)의 중폭(中瀑)인 관음폭포와 비하대

(1)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 『대동지지』 모두에서 내연산과 관련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경상도 청하현 항목의 산천조에서 내연산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특히 『대동지지』에서는 바위와 폭포의 경치가 기묘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명칭	지리지	세부 항목	내 용
내연산	신증동국여지승람	청하현	현의 북쪽 11리에 있다. 산에는 대(大)·중(中)·소(小) 세 개의 바위가 솥발처럼 벌려 있는데, 사람들이 '3동석(動石)'이라고 한다.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조금 움직이지만 두 손으로 흔들면 움직이지 않는다. 신라 진평왕(眞平王)이 견훤(甄萱)의 난을 이 산에서 피했다.
	여지도서	청하현	관아의 북쪽 11리에 있다. 으뜸 산줄기가 응봉산에서 뻗어 나온다. 내영산에는 대, 중, 소 세 개의 돌이 바위 위에 솥발처럼 벌려 있는데, 사람들이 '삼동석(三動石)'이라고 부른다.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조금 움직이지만 두 손으로 누르고 흔들면 움직이지 않는다. 신라 진평왕(眞平王)이 이 산에서 견훤(甄萱)의 난리를 피했다.
	대동지지	청하현	서북쪽 20리에 있다. 대, 중, 소 세 개의 돌이 바위 위에 솥발처럼 벌려 있는데, 속칭 '삼동석(三動石)'이라 한다. 바위와 폭포의 경치가 가히 기묘하고 유한(幽閒)하다. 보경사가 있다.

(2) 고시문

내연산은 여러 문인들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주로 깎아 지르는 듯한 단애와 단애 사이를 굽이치며 흐르는 계곡, 계곡 곳곳에 분포하는 폭포들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고시문의 목록과 함께 대표적인 고시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내연산 -시(詩)	하수일(河受一)	『송정집(松亭集)』 (권1)	〈초여름에 박영해부사와 함께 유정승을 모시고 내연산을 유람하다.(孟夏。與朴寧海陪柳巡相遊內延山)〉
	조경(趙絅)	『용주유고(龍洲遺稿)』 (권3)	〈내연산 용추(內延山龍湫)〉
	이휘일(李徽逸)	『존재집(存齋集)』 (권1)	〈내연산에 유람하며 익승(翼昇)의 시에 차운하여(遊內延山。次翼昇韻。)〉
	김창흡(金昌翕)	『삼연집(三淵集)』 (습유 권11)	〈내연산(內延山) [청하에 있다.(在淸河)]〉
	손기양(孫起陽)	『오한집(聱漢集)』 (권1)	〈내연산에서 숙평(叔平)의 시에 차운하다.(內延山。次叔平。)〉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내연산 -시(詩)	조수삼(趙秀三)	『추재집(秋齋集)』 (권4)	〈內延山〉
	조태억(趙泰億)	『겸재집(謙齋集)』 (권15)	〈內延山瀑布。次崔督郵季晦韵。〉
	이현일(李玄逸)	『갈암집(葛庵集)』 (권1)	〈내연산(內延山)에 노닐며 중씨(仲氏)의 시에 차운하다.〉
	유숙(柳潚)	『취흘집(醉吃集)』 (권3)	〈暮春遊內延山。宿古文殊。與雪熙上人討論黃庭經。仍以詩贈之。〉
	유도원(柳道源)	『노애집(蘆厓集)』 (권1)	〈東遊紀行〉
	이정(李楨)	『구암집(龜巖集)』 (권1)	〈내연산을 유람하며(遊內迎山)〉
	이준(李埈)	『창석집(蒼石集)』 (권1)	〈내영산을 유람하며 황회원의 시에 차운하여 함께 온 계원들에게 보임.(遊內迎山。次黃會元韵示同來諸契。)〉
	고용후(高用厚)	『청사집(晴沙集)』 (권1)	〈내영산 망선대에서 읊조리다.(內迎山。望仙臺口號。)〉
	조인영(趙寅永)	『운석유고(雲石遺稿)』 (권2)	〈내연산에서(內延山)〉
내연산 -문(文)	이상정(李象靖)	『대산집(大山集)』 (권7)	〈권맹견께 답함 갑술년[1754, 영조 30](答權孟堅 甲戌)〉
	성대중(成大中)	『청성집(靑城集)』 (권6)	〈遊內延山記〉
	서사원(徐思遠)	『낙재집(樂齋集)』 (권7)	〈동유일록(東遊日錄)〉
	이긍익(李肯翊)	『연려실기술 (燃藜室記述)』	〈지리전고(地理典故)〉
	유숙(柳潚)	『취흘집(醉吃集)』 (권5)	〈내연산의 덕경과 설희 두 스님의 시에 써준 서문(贈內延山人德瓊, 雪熙詩序)〉
	이만부(李萬敷)	『식산집(息山集)』 (권4)	〈내영(內迎)〉
	황여일(黃汝一)	『해월집(海月集)』 (권8)	〈내영산 유람록(遊內迎山錄)〉
	강필효(姜必孝)	『해은유고(海隱遺稿)』 (권14)	〈사유록 하(四遊錄 下)〉

<시(詩)>

1. 하수일(河受一, 1553~1612), <초여름에 박영해부사와 함께 유정승을 모시고 내연산을 유람하다.(孟夏。與朴寧海陪柳巡相遊內延山)>, 『송정집(松亭集)』 卷1

내연산은 어찌 푸르른가? / 內廷何蒼蒼

청하 북쪽에 있기 때문이지. / 乃在淸河北
동쪽으로 커다란 바다에 맞닿아 있어 / 東臨滄海水
일망무제 아득하구나. / 一望渺無極
골짜기 입구에 절[14]이 있고 / 谷口有琳宮
문 앞의 오솔길 이끼로 물들었네. / 門逕苔蘚色
십 여리를 가고 가니 / 行行十里餘
푸른 절벽 더욱 우뚝하구나. / 蒼壁尤絶特
좌우로 마치 병풍 같은데 / 左右若屛障
단풍나무 녹나무도 우거져 있네. / 又多楓楠植
가운데 두 갈래 폭포 / 中有雙天紳
위로부터 곧장 천 척 아래로 떨어지네. / 上下千尺直
우레치고 바람 불어 해는 희미하여 밤 같은데 / 雷風薄日夜
눈처럼 흩날리다 잠깐 사이에 모이는구나. / 雪霰集頃刻
향로봉은 내가 보지 못하니 / 香爐吾不見
그 형승을 누가 알런가? / 形勝誰有得
맑은 물줄기 흘러 각각 못을 이루니 / 澄流各成潭
검푸른 물 속 깊이를 측량할 수 없구나. / 黝深不可測
혹 검은 용이 물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 或疑驪龍潛
온갖 괴이한 일 사람을 의심케 하네. / 萬怪令人惑
아니면 푸른 머리의 노인이 / 又疑綠髮翁
구름 속에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인지. / 雲臥人不識
상국께선 호기로워 / 相國豪氣多
신선의 신 신고 날듯이 오르는데 / 鳧舃飛登陟
두 나그넨 짚신 신고서 / 二客任芒鞋
열 걸음에 두세 번 쉬는구나. / 十步再三息
마침내 바위에 걸터앉아 / 終據石頭坐
각기 신선주 마시고나니 / 各把瓊漿食
안기생(安期生)[15]과 연문(羨門)[16]이 / 安期與羨門

14) 절: 원문의 '임궁(琳宮)', 임궁은 보통 도교(道敎)의 사원을 말하고 감우(紺宇)는 불교 사원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임궁' 도 도교 사원이 아닌 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서로 침묵 지키는 듯. / 怳若相語默
잠시 뒤 홀연히 이별을 고하니 / 須臾忽分手
막막한 마음 슬프고 슬프구나. / 黯然情惻惻
땀 흘리며 질펀히 논 것을 써보고 싶지만 / 欲述汗漫遊
시 짓는 능력 없어 부끄럽다네. / 自愧無詩力
산속에서 나가고 나면 / 應知出山中
꿈에서나 부질없이 서로 그리워하겠지. / 夢裏空相憶

* 하수일(河受一)은 남명 조식(曺植)의 문인으로 자는 태역(太易), 호는 송정(松亭)이다. 초여름에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내연산을 유람하고 쓴 오언시로 동해 바다를 앞에 두고 솟아 오른 기암괴석과 맑은 계곡을 그리면서 아름다운 내연산을 보게 된 즐거움을 노래했다. 자신의 솜씨가 부족해서 내연산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그려내지 못함을 아쉬워하였다. 정상에 있는 바위에 걸터앉아서 마신 술 한 잔에 신선의 정취를 느끼는 모습이 이채롭다.

2. 조경(趙絅, 1586~1669), <내연산 용추(內延山龍湫)>, 『용주유고(龍洲遺稿)』 卷3

깎아지른 듯 솟은 절벽은 한결같이 만 장(丈) 높이인데 / 峭壁削成恒萬丈
번개 소리 내며 날듯이 떨어져 천 길 벼랑에 걸렸다네. / 飛流霆擊挂千尋
골짜기 풍경은 인간 세상 모습 아닌데 / 洞門物色非人世
호리병 속 누대인양 예로부터 닫혀있었네. / 壺裏樓臺鎖古今
눈을 위로 올려보니 높이 뜬 학 그림자 구름이 따라가고 / 抉眥雲隨高鶴影
연못을 들여다보니 바람이 노룡의 울음소리 전해 오는구나. / 劈潭風送老龍吟
이곳의 유람 분명 천태산의 꿈[17]보다 나으리니 / 玆遊定勝天台夢

---

15) 안기생(安期生): 동해의 선산(仙山)에서 살았다는 고대의 전설적인 선인의 이름이다. 진시황이 동유(東游)할 때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을 보고 싶으면 수십 년 뒤에 봉래산으로 찾아오라고 한 뒤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史記 封禪書》 《列仙傳》

16) 연문(羨門): 고대 선인이었던 연문자고(羨門子高)를 가리킨다. 진시황(秦始皇)이 일찍이 동해(東海)가를 유람하면서 연문자고 등의 선인을 찾았다고 한다.

17) 천대산의 꿈: 유신(劉晨)과 완조(阮肇) 두 사람은 모두 후한 때의 인물이다. 전설에 의하면, 후한 명제(明帝) 영평(永平) 연간에 이 두 사람이 약초를 캐러 천태산(天台山)으로 들어갔다가 길

자기 글 자랑하던 흥공(興公)[18]을 비웃겠네. / 顧笑興公擲地金。

* 조경(趙絅)은 조선 중기 문인으로 자는 일장(日章), 호는 용주(龍洲), 주봉(柱峯), 간옹(艮翁)이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시원스레 떨어지는 폭포와 학소대 바위에 서린 학의 그림자를 통하여 인간세상이 아닌 선계로 들어선 듯한 이미지를 그리고 폭포 밑 용추 속에 노룡의 울음소리가 바람결에 들린다고 표현하였다.

3. 이휘일(李徽逸, 1619~1672), <내연산에 유람하며 익승(翼昇)의 시에 차운하여(遊內延山。次翼昇韻。)>,『존재집(存齋集)』卷1

밖은 누추하나 안으로는 아름다움 감추었으니 / 外陋中藏美
진실로 덕이 같다고 자랑하지 못하겠네. / 眞同德不誇
기암괴석 위태로워 떨어질 듯 하고 / 奇巖危欲落
그윽한 오솔길 가늘고도 멀기만 하구나. / 幽逕細還賒
아직 문장가 솜씨 본 적이 없고 / 未閱文章手
그저 불가·도가만 모여 있구나. / 徒成釋老家
소나무 가지 끝 달이 반쯤 걸렸는데 / 松梢半輪月
맑디맑은 커다란 기운 한 점 더러움도 없어라 / 淸淑浩無淫

* 이휘일(李徽逸)은 조선 중기 문인으로 자는 익문(翼文) 호는 존재(存齋), 명서(冥棲), 저곡(楮谷)이다. 기이한 바위가 떨어지기라도 하려는 듯 위태롭게 걸려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가는 오솔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화자가 소나무 가지 끝으로 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있다. 맑은 경지를 느낄 수 있다.

을 잃고 헤매다 두 여인을 만났다. 그 집에 들어가 하룻밤 유숙한 다음 부부의 연을 맺고 살게 되었다. 반년이 지난 후 세상에 나와 보니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 아무도 없고 이미 7대(代)가 지났음을 알게 되었다. 다시 여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돌아갈 길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太平廣記 神仙傳》

18) 흥공(興公): 흥공은 진(晉) 나라 손작(孫綽)의 자(字)이다. 손작이 지은 〈천태산부(天台山賦)〉가 매우 뛰어났는데, 그는 벗 범영기(范榮期)에게 이를 보이면서, "자네 시험 삼아 땅에 던져 보게. 금석 소리가 날 것이네." 라고 하였다.

4. 김창흡(金昌翕, 1653~1722), <내연산(內延山) [청하에 있다.(在淸河)]>, 『삼연집(三淵集)』 습유 卷11

직녀의 베틀에 만 길 비단 걸린 듯 / 織女機頭萬丈紗
밤이 되자 은하수에 씻은 듯한 밝은 달 떠오르네. / 夜乘明月洗銀河
긴 바람 불어와 천마(天磨)를 북쪽에 떨어뜨려 / 長風吹落天磨北
용왕을 위아래 집에 나누어 놓았구나. / 分作龍王上下家

* 김창흡(金昌翕)은 조선 후기 문인으로 자는 자익(子益), 호는 낙송자(洛誦子), 삼연(三淵)이다. 직녀가 베틀 위에서 만 장(丈)이나 되는 비단을 절벽에 걸어 놓은 것으로 폭포를 묘사하였다. 은하수에 씻고 나온 달이 빛나고 있다며, 몽환적인 달밤의 폭포수를 읊었다. 그리고 마지막 폭포수 위 아래로 소[湫]가 있음을 용왕의 집이 위아래로 나뉘어 있다고 형상화하면서 내연산의 아름다움을 신비롭게 형상화하였다.

5. 손기양(孫起陽, 1559~1617), <내연산에서 숙평(叔平)의 시에 차운하다.(內延山。次叔平。)>, 『오한집(聱漢集)』 卷1

우연히 빌린 호리병 속 세계[19] 유람하다가 / 偶借壺中境界遊
옷깃 풀고 불전에 기대니 상쾌하구나. / 披襟快倚梵王樓
이름난 곳 흰 바위 맑은 샘물 길 이루고 / 名區白石淸泉路
좋은 시절 단풍과 자주 국화 가을이로다. / 令節丹楓紫菊秋
나보다 앞서 채찍 휘두르며 명승지 찾더니 / 先我著鞭探絶勝
그대와 술 마시며 깊은 시름 쏟아내네. / 共君謀酒瀉幽憂
정녕 다시 산신령과 약속하노라니 / 丁寧更與山靈約
사공(司空)이 늙어 쉴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노라. / 不待司空老曛休

19) 호리병 세계: 후한의 술사 비장방(費長房)이 시장에서 약을 파는 선인(仙人) 호공(壺公)의 총애를 받아 그의 호리병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 일월(日月)이 걸려 있고 선경인 별천지(別天地)가 펼쳐져 있더라는 전설을 인용한 것이다. 『後漢書』 卷82下 〈方術列傳下 費長房〉

* 손기양(孫起陽)은 조선 중기 문인으로 자는 경징(景徵), 호는 오한(聱漢)이다. 1596년(선조 29) 가을 숙평(叔平) 즉 이준(李埈, 1560~1635)이 청하(淸河)지역의 재해를 조사하려고 이곳을 찾았다가 손엽(孫曄), 최흥국(崔興國)과 함께 내연산을 유람하게 되었다. 이에 손기양도 급히 따라가 보경사에서 이들 일행을 만나 함께 유람하고 숙평이 쓴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지었다. 가을이 되어 더욱 아름다운 경치를 흡사 신선의 호리병 속에 든 별천지 같은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국화가 피고 단풍이 진 풍경 속에서 함께 노니는 즐거움을 읊었다.

<문(文)>

1. 이상정(李象靖, 1711~1781), <권맹견께 답함 [갑술년(1754, 영조 30)](答權孟堅 甲戌)>『대산집(大山集)』卷7[20]

(…전략…) 지난달 말에 일이 있어 내연산(內延山)에 들어가서 삼폭(三瀑)의 여러 승경을 완상하고, 다시 옥산서원에 가서 선배의 유촉(遺躅)을 돌아보았으니, 남쪽으로 부임한 이래로 온갖 일이 자신의 뜻에 어긋났지만 유독 이 한 번의 일만은 조금 스스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달 말쯤 가솔을 실어 보낸 뒤에 조용히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가려고 계획하니, 아마 산림 속에서 지낼 날이 많아 전날의 소원을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청아한 시에 대해서 감히 화답하기를 잊겠습니까마는 한결같이 골몰하느라 문득 운자(韻字)를 잊어버려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으니, 응당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을 기다려야겠습니다.

(…전략…) 前月末。因事入內延。玩三瀑諸勝。再到玉山。俯仰前輩遺躅。南來百事敗人意。獨此一著。差自慰耳。方以月末。津遣家累。欲爲逡巡解歸計。恐山林之日長。可以穩報前債也。淸韻不敢忘和。一向汨沒。旋失韻字。思索不起。當俟賦歸之日耳。

---

20)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문을 따르되, 문맥에 따라 일부 윤문함.

* 이상정(李象靖) 조선 후기 학자로 자는 경문(景文), 호는 대산(大山)이다. 1754년(영조 30) 권맹견에게 보낸 답장에 내연산의 세 폭포를 유람했던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2. 성대중(成大中, 1732~1809), <遊內延山記>,『청성집(靑城集)』卷6

계묘년(1783, 정조 7) 8월에 안찰사 이공(李公)을 따라 청하(淸河)의 내연산(內延山)에 들어갔다. 안찰사 어른은 고을을 살피며 지나던 중이었다. 산 입구에는 학산서원(鶴山書院)이 있었으니 회재(晦齋) 이문원공(李文元公; 이언적) 어른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 말에서 내려 엄숙하게 지나갔다. 보경사(寶鏡寺)에 이르렀는데 한나라 명제 때 창건한 곳으로 옛날에는 53개의 암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폐사하고 오직 고개 왼편의 거찰로만 일컬어진다. 고려 원진국사(圓眞國師)의 비석이 있는데, 이공노(李公老)가 지은 것으로, 돌이 깨지고 이끼가 끼어 글자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癸卯仲秋。從按察李公。入淸河之內延山。按察公時以行部過也。山口有鶴山書院。晦齋李文元公俎豆所也。下馬肅容而過。至寶鏡寺。漢明帝時所刱。云舊有五十三菴。今幾盡廢而猶稱嶺左巨刹。有高麗圓眞國師碑。李公老製。而石剝苔蝕。字半不可辨。

견여(肩輿)를 타고 시내를 따라 올라가 이른바 용추라는 곳을 보았다. 절과의 거리가 겨우 십리 정도였다. 6~7번 꺾인 비탈진 돌길을 따라 오르다보니 길이 가팔라 견여를 타고 갈 수가 없었다. 반쯤 가는데 왕왕 길이 끊어져 잔도로 이어져 있었다. 절벽으로부터 시내가 내질러 달려 산이 무너질 듯 격하게 쏟아져 내리니 폭포라 이름 한 것이 10여 개였다. 용추에 이르러서는 사다리를 더위잡고 올라갔다. 발을 옆으로 붙여가며 기운 벼랑을 올라갔다. 위태로운 곳을 밟고 서서 바라보니 비로소 장관이었다. 폭포수가 십여 장(丈)을 거꾸로 걸려 있었다. 날리다 모였다 하며 쏟아져 내리다 바위에 부딪쳐 춤을 추었으며, 우박처럼 튀고 눈처럼 날리며 내달려 연못이 되었다. 높은 절벽이 둘러쳐 있는데 빛이 가운데를 뚫고 새어 나왔다. 그윽하고 깊숙하여 검푸르니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아마도 신물(神物)이 엎드려 있기 때문인 듯하였다.

肩輿循溪而上。觀所謂龍湫者。距寺財十里。歷石磴六七折。峻仄不容輿者。半之往往徑絶。續之以棧。崖蹙溪駛。崩湍激瀉。以瀑名者十餘。而及至乎湫則攀梯而升。側足欹厓。蹈危而觀始壯矣。瀑流倒掛十數丈。飛漱注射。觸石而舞。雹跳雪翔。驅而卽潭。峻壁環擁。漏景中穿。窈冥黯黑。不可狎視。盖有神物伏焉。

남쪽으로는 학소대(鶴巢臺)가 있다. 우뚝 솟은 바위가 하늘을 어루만지는데 사방이 깎아지른 듯 솟아있으나 꼭대기는 평평하여 유람객 중에 간혹 그곳까지 가는 이도 있었다. 벼랑을 지나 바위틈을 올라 산 정상에 이르니 곧 대비암(大悲菴)이 있었다. 의민(毅旻)이라는 이름난 승려가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늙고 병이 들어 산을 내려올 수 없다고 하였다. 나 또한 험준함이 꺼려져 가보지 못했다. 대비암 오른쪽에는 계조암(繼祖菴)이 있고 그 위에는 내원이 있다.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 제1용추에 도착하니 기세는 아래 용추보다 못하지만, 그윽한 맛은 그곳보다 나았다. 석문은 옆으로 나 있는데 겨우 사람이 지날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 민가 십여 채가 계곡에 임하여 있었다. 마을의 닭이 울고 개 짖으니, <도화원기>와 비슷하였다. 이곳은 내연산 중에서 가장 깊숙한 곳이라서 예로부터 복지동천(福地洞天)이라 일컬어졌나보다. 가을 하늘 높고 다리만 튼튼하면 마땅히 한 번은 그 곳에 가봐야 할 것이다.

南有鶴巢臺。竦石摩霄。四削而上夷。遊者或至焉。徑崖罅躋山頂。則大悲菴在焉。名僧毅旻者居之。而老病不能下山。余亦憚險不得往。菴之右有繼祖菴。其上則內院也。泝澗而上。得第一湫。氣勢遜於下湫而窈窕勝之。石門旁開。劣通人蹊。氓戶十數家。臨澗而居。村落雞犬。彷彿桃花源記。是爲內延之奧。殆古所謂福地洞天者歟。秋高脚健。會當一至其所。

또 그 위에는 삼동석(三動石)이 솟아 있었다. 기괴한 볼거리로는 거북바위(龜石), 무풍계(無風溪), 낙하교(落霞橋), 한산대(寒山臺), 습득대(拾得臺), 기화대(妓花臺)가 있다고 하여 모두 유정대사가 기록해 두었지만, 지금은 절의

승려조차 아는 이가 드물었다. 내연산은 예로부터 물과 바위로 알려졌는데 봉우리들이 그다지 기이하진 않아도 밝고 빼어난 기운이 허공에 비쳐 족히 사람을 감발시킬 만했으니, 진실로 명산이라 하겠다. 밤이 되어 선방에서 잤다. 별빛과 달빛이 온 산에 가득하였다. 새벽녘에는 비가 조금 왔다. 다음날 안찰사 어른은 영덕 길로 향하였고 나는 흥해의 임지로 돌아왔다.

又其上則三動石峙焉。亦詭觀云。龜石，無風溪，落霞橋，寒山臺，拾得臺，妓花臺。具在惟政大師記。而今則寺僧亦少知者。山故以水石稱。峰巒不甚奇雋。而明秀之氣。映帶空冥。有足聳發人者。信其爲名山也。夜宿禪寮。星月滿山。曉少雨。翌日。按察公向盈德路。余還興海官次。

* 성대중(成大中)은 조선 후기 서얼문인으로 자는 사집(士執), 호는 청성(靑城), 순재(醇齋), 동호(東湖)이다. 이덕무, 홍원섭, 박지원 등과 교유하였다. 1783년(정조 7) 8월에 안찰사 이공(李公)을 따라 청하(淸河) 내연산을 유람하였다. 내연산 초입의 회재 이언적을 배향한 학산서원을 지나 보경사에 도착했다. 보경사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십여 장이나 되는 폭포가 있었으며, 그 위로 삼동석(三動石)이 있음을 기록하였다. 귀석(龜石) , 무풍계(無風溪) , 낙하교(落霞橋) , 한산대(寒山臺) , 습득대(拾得臺) , 기화대(妓花臺) 등의 이름을 유정대사(惟政大師)가 기록해 두었지만, 지금은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적음을 안타까워했다.

3. 서사원(徐思遠, 1550~1615), <동유일록(東遊日錄)>, 『낙재집(樂齋集)』, 卷7

(…전략…) 21일. 날씨가 맑았다. 날이 밝자 내가 사또에게 가서 감사인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사또가 듣고는 먼저 왔다. 흰죽을 먹으려 하자 사또가 굳이 관찬을 내오고 연포(軟泡)[21]도 차리고 나서 술도 차렸다. 여섭(汝燮)이 물러나 홀로 참석하지 않았다. 군섭이 말하기를, “형이 참석하지 못하여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하여, 내가 “어제는 군섭이 없더니, 오늘은 여섭이 없구나.”라고 말하였다. 내가 먼저 취기가 올라 골짜기로 들어갔고 다른 이들도 사또에게 작

21) 연포(軟泡): 두부나 무 · 고기 등을 넣고 끓이는 맑은 장국. 연포국 · 연포탕이라고 한다.

별 인사를 한 후에 뒤따라왔다. 해보(諧甫), 해중(諧仲)이 뒤따라 들어 왔을 때 나는 이미 문수대를 지났다. 문수대의 높이는 십 장(丈)이었다. 그 아래로는 시내 속에 있는 반석이 여기저기 드러나 있었다. 산속의 형승이 여기서부터 점차 기이해졌다. 태평교를 건넜는데, 태평교는 절벽 위로 나무를 가로질러 놓고 그 위로 다닐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석문(石門)으로 들어가니 두 개의 바위가 마주보고 서있는 것이 마치 문같았다. 이 문이 없었더라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 사자항 길을 넘으니 암벽이 각이 져서 발을 붙이기가 어려웠다. 위에는 옛 문수암(文殊庵)이 있었는데, 바라볼수록 기이하고 아름다웠는데, 물어보니 승려가 "이 곳은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기에 보지 않고 지나쳤다. 아래에는 귀연(龜淵)이 있었다. 귀연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으나 바위들이 대체로 기이하게 두르고 있었다. 내가 그제서야 남여를 타고 문수대를 오르내렸다. 보현암(普顯庵)을 거쳐 적멸암(寂滅庵)으로 들어가니 적멸암은 앞에 만 장 높이의 절벽을 마주하고 있었으며, 뒤에는 천 층의 산이 있고 그 사이에 삼나무와 단풍나무가 뒤섞여 자라고 있었다. 승려가 용추가 가깝다고 말하였다. 가서 보니 만 길 하얀 절벽이 좌우에서 옹위하며 서 있고 천 척 높이에서 폭포수가 날아 곧장 가운데로 떨어져 내렸다. 아래에는 신령스런 못이 있어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연못가에 있는 기이한 바위는 저절로 평평하게 되어 수십 명은 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었다. 그 가운데로 들어가 보니 선계에 앉아 있는 듯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르게 하였다. 절벽 중간 부분에 학의 둥지가 있다고 하였다. 용추 아래에는 관음담이 있다. 용추 위에는 동굴이 있어 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니 매우 기이하였다. 중들을 시켜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르도록 하였더니 바위 계곡에서 메아리치는 것이 마치 커다란 천둥의 울림 같았다. 내가 '용추'로 시 한 수를 지었다. 해보는 벽 위에다 이름을 쓰고 나오다가 한 발을 잘못 디뎌 버선이 물에 젖어 우스웠다. 나는 관음담 위 동굴에 가서 해보를 시켜 내가 지은 절구를 적으라 하였다. 대비암(大比菴)에 올랐다. 대비암은 새로 지은 곳이라 매우 정결하였다. 나는 미탕(米湯) 한 그릇만 마시고 먼저 선각(禪閣)에 올랐다. 여섭 형제가 뒤를 따랐고 다른 이들은 저녁을 먹었다. 뒤로 가보니 암자는 억장 높이에 있었다. 이미 올

라와 보니 몸이 하늘가 은하수 사이에 있는 것 같았다. 대 위를 천천히 거닐다 보니 신선을 옆에 끼고 영주로 들어간 것 같았다. 내려가지 않고 이곳에 묵은 것은 밤에 월출을 보고 아침에 일출을 보기 위해서였다. 이날 밤에 산에 바람이 매우 심하게 불어 차가운 달빛이 밝게 빛났다. 중을 불러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물으니 오경(五更: 3~5시)이 끝나 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또 달이 어느 봉우리 위로 나온 것인지 물었는데 방향을 분간하지 못했다. 참선하는 자들이라 참으로 이와 같았던 것이니, 우스웠다.

(…전략…) 二十一日晴。平明余將往謝主倅。主倅聞而先來。將飮白粥。主倅強進以官饌。又設軟泡。因設飮。而汝燮退獨不參。君燮曰兄之不參。似於未安。余曰昨日君燮非矣。今日汝燮非矣。余先醉入洞。諸君拜別主倅而後行。諧甫諧仲追步而入。則余已過文殊臺。臺高十丈。下有盤石錯露于溪中。山中形勝。自此漸奇。旣渡太平橋。橋則橫木壁上而通。因入石門。兩巖對立如門。若無此門。更無道處。越獅子項路。巖角難得着脚。上有古文殊庵。望之若奇絶焉。問之則僧云此無足觀。乃不見而過。下有龜淵。淵不甚大。而巖石多奇瓌。余始乘藍輿。登下文殊。由普顯庵入寂滅庵。庵對萬丈之壁。後有千層之岳。杉楓染相間而生。僧曰龍湫近矣。旣至則粉壁萬仞。擁立左右。千尺飛瀑。直投其中。下有靈潭。深不可測。潭上奇巖。自作平處。可坐數十人。成梯而後可登。入其中則如坐壺中之天。令人不覺錯愕。而壁之腰又有鶴巢云。龍湫之下。有觀音潭。上有石窟。可容三十餘人而甚奇恠。使諸僧作聲于其中。則巖壑相應。如巨雷之震。余成龍湫一絶。諧甫題名壁上而出。差一足而水濕襪可笑。余到觀音潭上窟。使諧甫題所咏一絶。登大比菴。菴是新成最爲精潔。余只飮米湯。先登禪閣。汝燮昆季從之。諸君夕食。而後則菴在億丈之上。旣登則身居霄漢間如也。逍遙乎臺上。怳若挾飛仙而入瀛洲也。留宿不下者。將以夜看月出朝觀日出也。是夜山風甚緊。寒月皎皎。呼僧問夜。則不知五更之終。又問月出何峯。則不知東西。坐禪者固如是乎。可笑可笑。

22일. 날씨가 맑았다. 새벽이 되자 일찍 일어났다. 나는 바람이 싫어서 암자에 앉아 있었고 일행들은 절벽 틈새를 따라 깎아지른 절벽을 올랐다. 해가 뜨려 하는 모습을 보니 바다가 아득히 펼쳐진 곳에 구름이 자욱한데, 불붙은 수

레바퀴가 비로소 구르기 시작하면서 만경창파가 붉게 물들었다. 잠깐 앉아 있는 사이에 천지가 매우 밝아졌으니 이는 이른바 '바다 밑을 떠나지 않았을 때는 온 산이 다 어둡더니, 잠시 후 하늘 복판에 이르자 온 세상이 밝아졌네(未離海底千山暗。纔到天中萬國明).'[22]라는 것이었다. 암자로 내려가 흰 죽을 먹고 암벽 위에 이름을 썼다. 내가 다시 걸어가며 '용추' 운으로 절구 한 수를 짓자 일행도 모두 차운하였다. 대비암에 내려가 밥을 먹었다. 발길을 돌려 계조암(繼祖菴)에 올랐다. 서쪽으로 천 길 절벽을 마주하고 남으로는 만 리 바다에 임해 있어서 제일가는 암자라 일컬을 만하였다. 군섭을 시켜 이름을 적게 하였다. 나는 감동하여 절구 한 수를 지어서 손수 벽 위에다 적었는데 눈물이 흘러 떨어졌다. 적멸암을 경유하여 보경사로 돌아갔는데 산 높이 구름만 자욱하게 낀 모습이 보일 뿐이었다. 내가 <산을 내려가며(下山)>라는 절구 한 수를 지었다. 대개 산에서 나오는 동안 형승이라고는 석문으로부터 계조암에 이르기까지 겨우 6~7리 사이에 있는데, 암벽과 시내와 못이 기이하여 무어라 형언할 수가 없었다. 온 골짜기가 단풍 숲으로 별천지를 이룬다. 폭포는 12곳인데, 용추가 가장 웅장하다. 들어가 볼 수 있는 바위 가운데 계조암이 제일이다. 사람들이 소금강이라 일컫는 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었다. 수도 없이 굽은 길 위로 곳곳이 낙엽으로 미끄러워지기 시작하였는데, 모두 바윗길이라서 발을 비스듬히 붙이고 오르내리느라 걸을 때마다 숨을 헐떡이며 탄식하였으며 오르고 올라도 높고 멀어보였다. 유산기 같은 글에서 읽었던 것을 여기에서 징험할 수 있었다.

二十二日晴。旣曉早起。余畏風坐菴。諸君從巖隙而登峭壁。觀日之將出。則滄溟浩渺。海雲微茫。火輪初轉。萬頃光赤。坐看須臾。天地大明。此所謂未離海底千山暗。纔到天中萬國明者也。下菴飮白粥。題名巖壁。余更步龍湫韻成一絶。諸君盡次。下飯大比。旋登繼祖菴。西對千尋之壁。南臨萬里之海。可謂第一菴也。使君燬題名。余有感成一絶。手題壁上。落涕而下。由寂滅而歸寶鏡。但見雲關深邃而已。余成下山一絶。大槩出山。形勝自石門至繼祖僅六七里之間。巖壁溪潭。奇不名狀。滿壑楓林。別有一區。瀑有十二而龍湫極壯。巖有入處而繼祖第一。人所謂小金剛不虛矣。路轉百曲。葉葉初滑。皆幷石。側足而上下則步步有脅息之歎。而登登有高視之遠。讀書如遊山之說。方驗於此矣。

22) 이 시는 송 태조가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 서사원(徐思遠)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행보(行甫), 호는 낙재(樂齋), 미락재(彌樂齋), 만오당(晩悟堂), 고시자(顧諟子)이다. 정구(鄭逑)의 문인으로 장현광(張顯光), 손처눌(孫處訥)과 교유하였다. 1603년(선조 36) 9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 가까이 영주 일대를 유람하고 <동유일록(東遊日錄)>이라는 유산기를 남겼다. 9월 10일 여행을 시작해서 19일 아침 내연산(內延山)으로 출발할 때까지 입암서원에 머물면서 입암 주변의 명승지를 답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 19일부터 22일까지는 내연산 주변을 유람하면서 보경사 일대를 다니면서 구경한 풍광의 아름다움을 기록하였다.

(3) 실경산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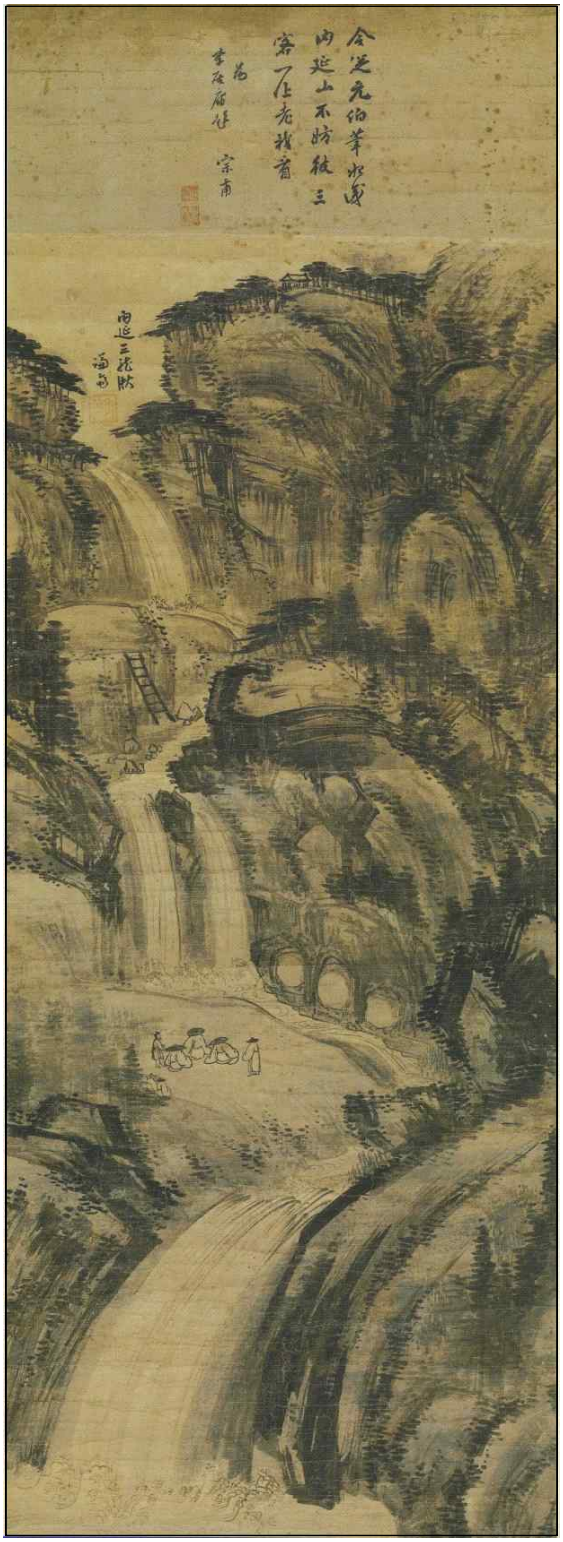
〈내연산 삼용추도〉, 정선

정선(鄭敾, 1676~1759), <내연산 삼용추도(內延山 三龍湫圖)>, 1734년경, 견본수묵(絹本水墨), 29.8×21.1cm,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 겸재(謙齋) 정선(鄭敾)은 청하현감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1734년(영조 10, 59세) 가을 읍치에서 북쪽으로 11리 거리에 있는 내연산(內延山) 계곡을 유람하였다. 내연산은 기암계곡과 12폭포가 빚어내는 풍치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명산이다. 현재 삼용추(三龍湫) 중 상폭(上瀑)에 해당하는 연산폭포(延山瀑布) 암벽에서 '갑인추 정선(甲寅秋 鄭敾)'이라 새긴 바위글씨가 확인되어 정선이 다녀간 사실을 증명한다.

그 무렵 정선이 현장에서 받은 감흥을 담은 실경산수화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내연산 삼용추도(內延山 三龍湫圖)>라 생각된다. 상부 여백에 화제(畵題)와 정선의 관서(款書) 및 인장이 있다. 화면 가득 상·중·하, 세 줄기의 폭포가 바위 절벽을 타고 쏟아지는 삼용추의 경관이 담겼는데, 각 폭포의 이름은 상폭이 연산폭포(延山瀑布)이고, 물줄기가 두 갈래로 나뉘어 떨어지는 중폭은 관음폭포(觀音瀑布)이며, 다시 한 줄기로 모아져 쏟아지는 맨 아래 하폭은 무풍폭포(無風瀑布)로 추정된다. 폭포 좌우에 병풍처럼 암벽이 둘러싸고 있으며, 우측으로 벼랑을 따라 산을 오르는 소로(小路)가 보인다. 중앙의 관음폭포는 쌍폭의 물줄기는 물론 우측 하단에 세 개의 암굴(岩窟)까지 묘사되어 있어 현장감을 더한다. 하지만 맨 아래 무풍폭포의 경우 좁은 바위틈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계류에 가깝다 하여 '무풍계(無風溪)'라 불리는 만큼 현장 모습과 차이가 있다. 한편 폭포 우측 봉우리 정상부에 있는 전각은 선일대(仙逸臺)의 암자일 가능성이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 선일대는 현재 터만 남은 상태이나 축대가 일부 남아 있고 기와 파편이 흩어져 있어 옛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내연산 삼용추도>는 무엇보다 삼용추 일대를 근접 포착하여 경관의 특색을 살린 구도가 인상적이다. 또 힘찬 수직준(垂直皴)과 부벽준(斧碧皴)을 자유자재로 결합시킨 암벽 표현과 바위 주름에 툭툭 찍은 미점(米點), 간명한 묵선으로 나타낸 소나무 묘법 등에 60대를 전후해 개성이 무르익기 시작한 정선 화법의 특징이 배어 있다.



〈내연산 삼용추도〉, 정선

정선(鄭敾, 1676~1759), <내연산 삼용추도(內延山 三龍湫圖)>, 1734년경, 지본수묵(紙本水墨), 134.7×56.1cm, 삼성미술관 리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인 정선의 <내연산 삼용추도(內延山 三龍湫圖)>에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 마찬가지로 내연산 계곡 삼용추의 경관이 재현되어 있다. 이 경우 보다 폭이 좁고 긴 화폭을 사용했고 폭포와 기암절벽의 묘사에 사용한 필치도 다소 차이가 난다. 화면의 상부 여백에 화제와 정선의 관서(款書) 및 인장이 있다.

이 <내연산 삼용추도>는 종축의 화폭을 적절히 활용해 '삼용추'를 포치함에 따라 가파른 산세와 바위 벼랑을 타고 낙하하는 폭포의 기세가 한결 강조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맨 위쪽의 연산폭포와 맨 아래 무풍폭포의 규모에 차이를 두어 원근의 거리감이 뚜렷해졌고, 물줄기 하단에서 튕겨 오르는 포말도 실감나게 묘사했다. 암벽의 윤곽을 농묵의 속도감 있는 붓질로 처리하여 강렬한 인상을 자아내며, 소나무를 비롯한 수목 처리에 진한 먹을 사용해 생기를 불어넣었다. 한편 폭포 오른쪽 봉우리 정상부에 있는 건물은 선일대(仙逸臺)에 자리했던 암자일 가능성이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 폭포를 감상하는 정선 일행이 중앙부 관음폭포 아래 너럭바위에 모여 있는 점이나 중폭에서 상폭으로 오르는 절벽에 나무 사다리가 배치되어 있는 점 등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에 없는 요소이다.

정선과 절친했던 문인화가 종보(宗甫) 조영석(趙榮祏, 1686~1761)이 이성용(李聖庸)을 위해 별지에 써 화폭의 상단에 붙인 제발(題跋)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원백의 필치를 보고 / 今從元伯筆
비로소 내연산을 알게 되었네. / 始識內延山
저 세 나그네가 / 不妨彼三客
늙은 나와 함께 앉아 구경해도 상관없다네. / 一坐老我看



<청하 내연산 폭포 - 교남명승첩>, 작자미상

작자미상, <청하 내연산 폭포(淸河 內延山 瀑布)>, 《교남명승첩(嶠南名勝帖)》, 18세기, 지본담채(紙本淡彩), 38.3×25.8cm, 간송미술관

정선은 1721년(경종 1, 46세) 그의 생애 첫 외직으로 대구 근처 하양현감(종6품)으로 임명되어 1726년(영조 2, 51세)까지 5년여 동안 재직하였다. 그는 하양에 머무는 동안 고을 인근의 명승지를 재현한 실경산수화를 그려 《영남첩(嶺南帖)》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작품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간송미술관 소장 《교남명승첩(嶠南名勝帖)》[23]의 구성과 내용이 관련 기록과 연관되어 한때 정선의 작품으로 오인되기도 했으나 화풍의 특징이나 완성도 면에서 정선과는 거리가 있다.

23) 간송미술관 소장 《교남명승첩(嶠南名勝帖)》은 영남지역 34개 고을에 산재하는 58곳의 명승지 경관을 재현한 실경산수화 58폭으로 구성된 화첩이다. 한때 겸재 정선의 작품으로 언급되기도 했으나 그 양식이나 회화성으로 보아 뒷날 정선 화풍을 따른 화가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작자미상으로 분류되는 《교남명승첩》의 <청하 내연산 폭포(淸河內延山 瀑布)>는 내연산의 폭포가 화제이다. 세부 표현에서 정선 화풍과 유사한 요소가 발견되긴 하지만, 정선이 동일한 경관을 재현한 타 기관의 소장품과 비교할 때 필묵의 운용 솜씨에 차이가 많아 정선 화법을 배운 후대 화가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심지어 화면의 상부 여백에 경관의 소재지와 경관명을 쓴 화제(畵題)가 있고, 화면 중앙에 2단의 폭포가 그려져 있으나 내연산 12폭 중 어느 폭포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즉 실제 내연산의 지형지세가 잘 드러나 있지 않아서 화가가 현장을 답사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



〈내연산 - 영남명승35경도〉, 작자미상

작자미상, <내연산(內延山)>, 《영남명승35경도(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紙本彩色), 38.5×45.5cm, 일본 유현재

경상도에 분포하는 주요 경관을 담은 명승도 35폭으로 꾸며진 《영남명승35경도(嶺南名勝35景圖)》[24]의 <내연산(內延山)>에는 기암계곡을 중심으로 한 내연산의 전경(全景)이 담겨 있다. 오른쪽 하단 계곡 입구에 602년(신라 진평왕 25)에 창건된 보경사(寶鏡寺)가 자리하고 있고, 사찰구역으로부터 왼편으로 지그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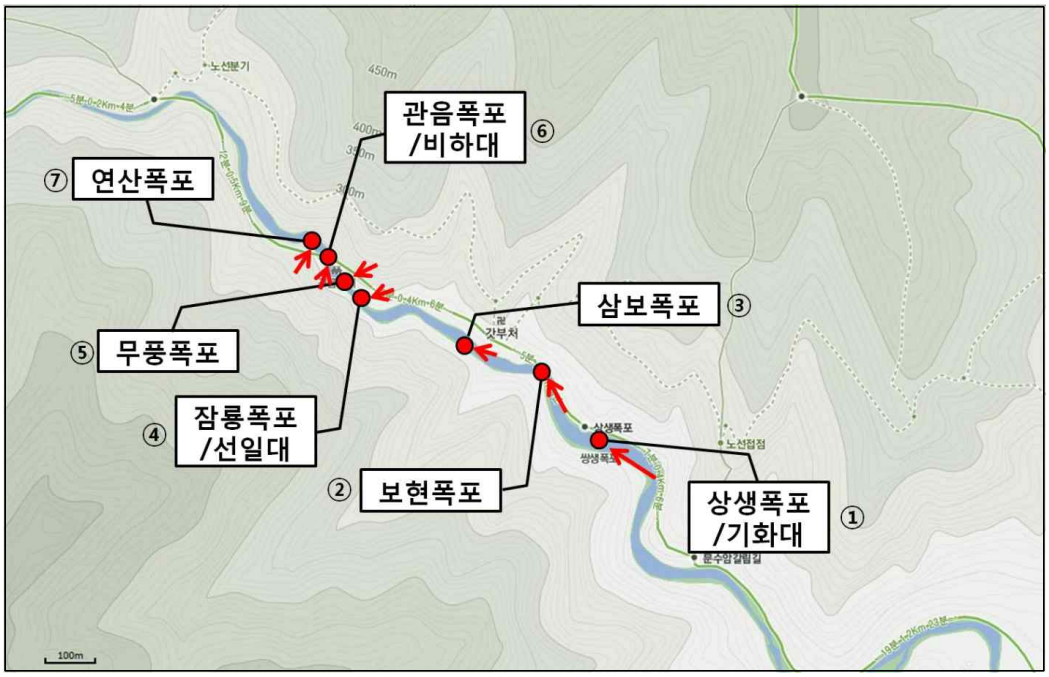
24) 일본의 유현재 소장품을 소개하는 도록에 실린 도판을 통해 처음 알려진 《영남명승35경도(嶺南名勝35景圖)》는 영남지역의 명승 35곳의 경관을 담은 실경산수화로 구성되어 있다. 화면에 적용된 필묵법이나 채색법 등으로 미루어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제작 경위나 화가의 성명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형태로 계곡이 이어진다. 계곡 사이사이에서 폭포가 눈에 띄지만, 내연산 12폭 중 어느 폭포인지 구별해 내기는 어렵다. 상부 좌우의 거대한 봉우리에 사이의 절벽을 타고 떨어지는 폭포가 삼용추(三龍湫) 중 상폭에 해당하는 연산폭포(延山瀑布)로 추정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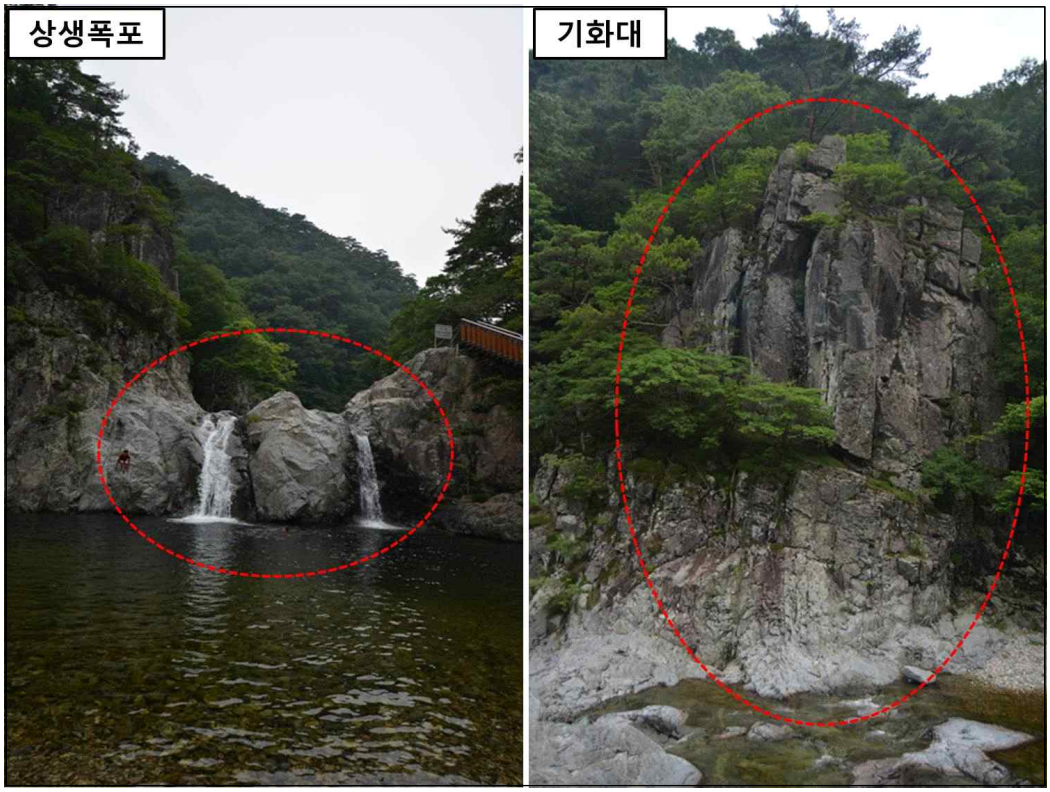
주요 산봉우리와 바위 절벽은 모두 약간 구불거리는 먹 선을 사용해 윤곽과 주름을 표현해 매우 도식적인 인상을 준다. 대상 경관의 사실적인 재현보다는 주요 지형지물을 적절히 안배하여 내연산의 특징적 면모를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계적인 필묵법이나 채색법은 이미 정형화된 모본(母本)을 바탕으로 현지의 지역화사(地域畵師)가 베껴 그렸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4) 현재적 재구성

내연산에는 정선의 <내연산 삼용추도>에 묘사된 삼용추를 포함하여 총 12개의 폭포가 있다. 삼용추에 해당하는 상폭, 중폭, 하폭은 각각 연산폭포, 관음폭포, 무풍폭포를 묘사한 것으로 보나, 하폭을 무풍폭포가 아닌 상생폭포나 잠룡폭포로 보는 견해도 있다. 12폭 중에서도 삼용추가 포함된 제1폭 상생폭포~제7폭 연산폭포 구간의 경관이 빼어나며 이 구간의 경관을 지도와 함께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면에서 바라본 상생폭포와 기화대



② 보현폭포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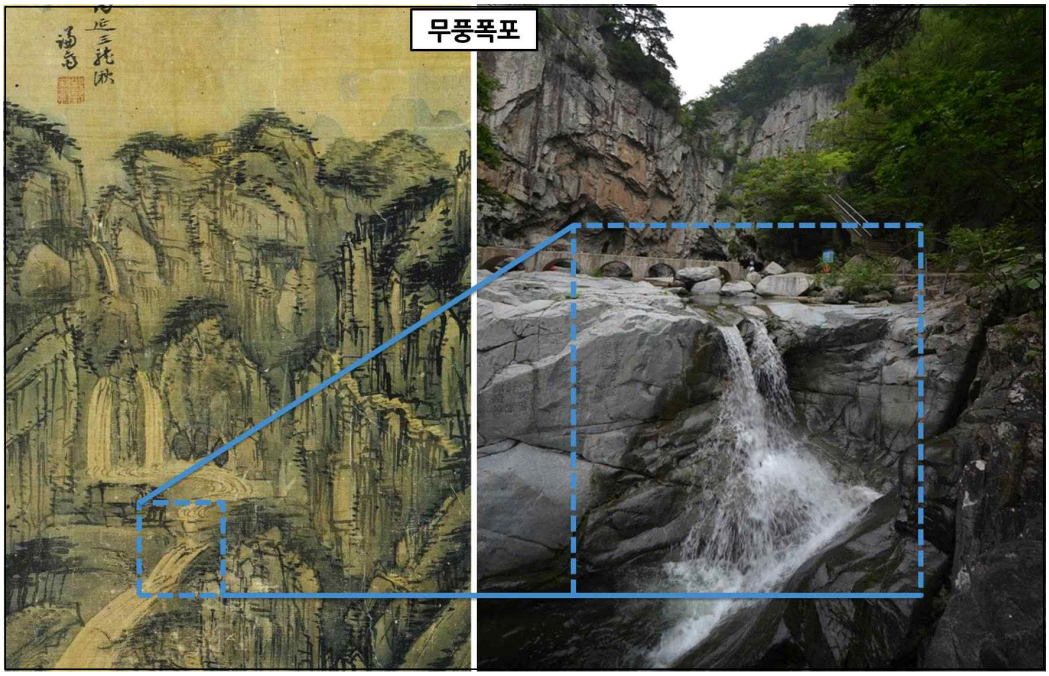
③ 내연산 삼보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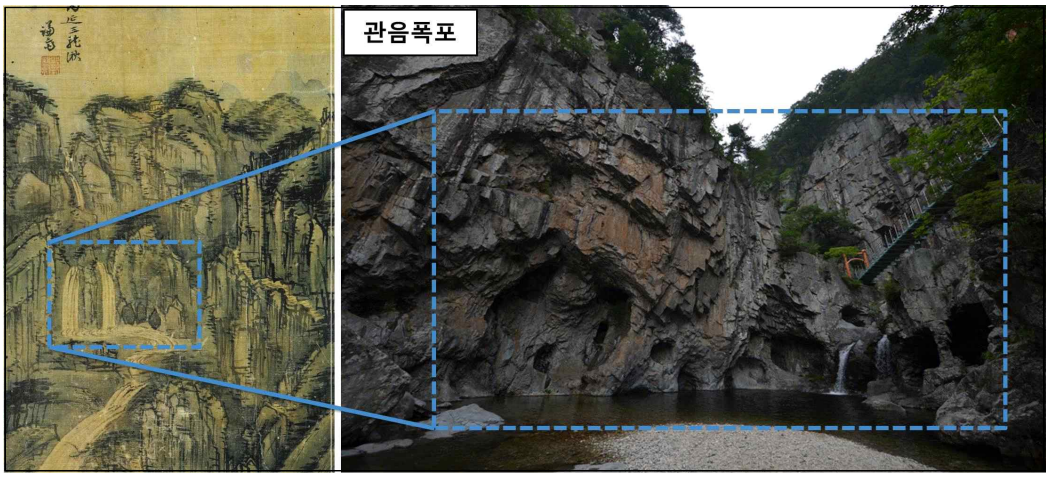
④ 선일대 원경과 잠룡폭포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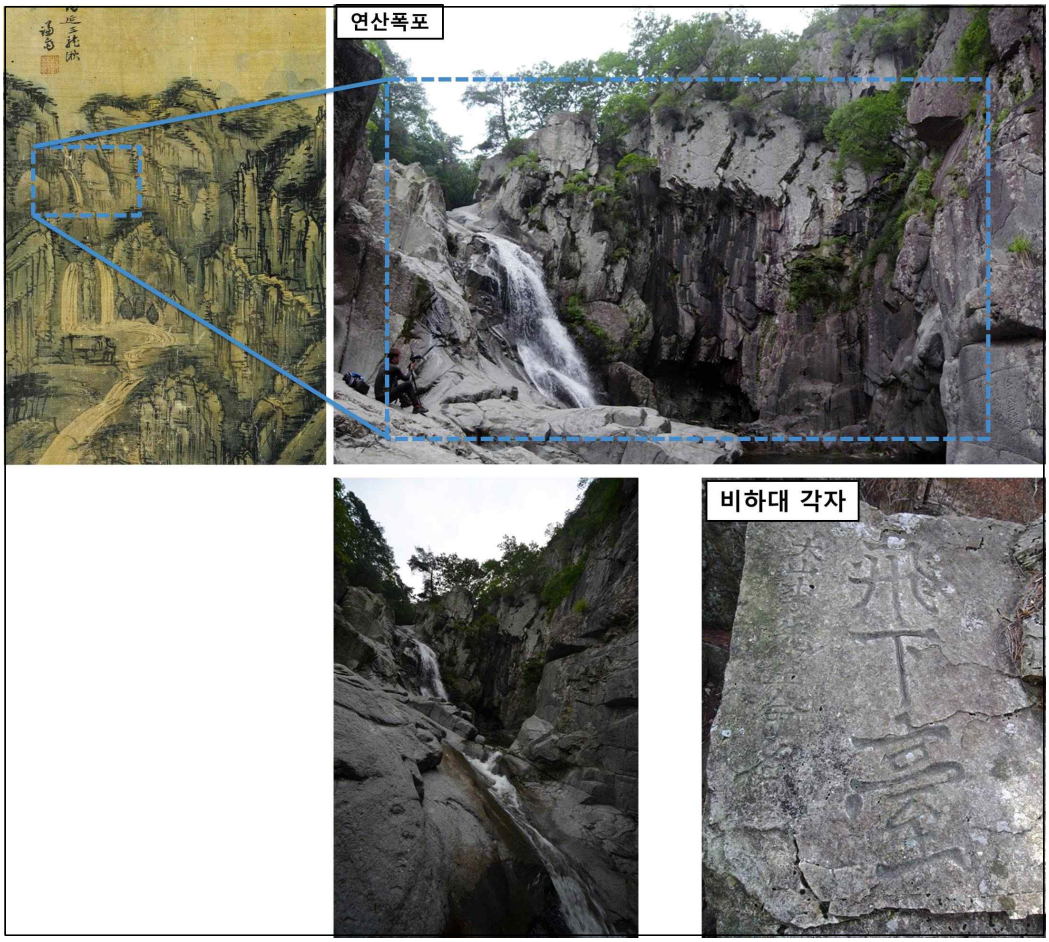
⑤ <내연산 삼용추도>에 그려진 무풍폭포 실제 경관



⑥ <내연산 삼용추도>에 그려진 관음폭포 실제 경관



⑦ <내연산 삼용추도>에 그려진 연산폭포 실제 경관 및 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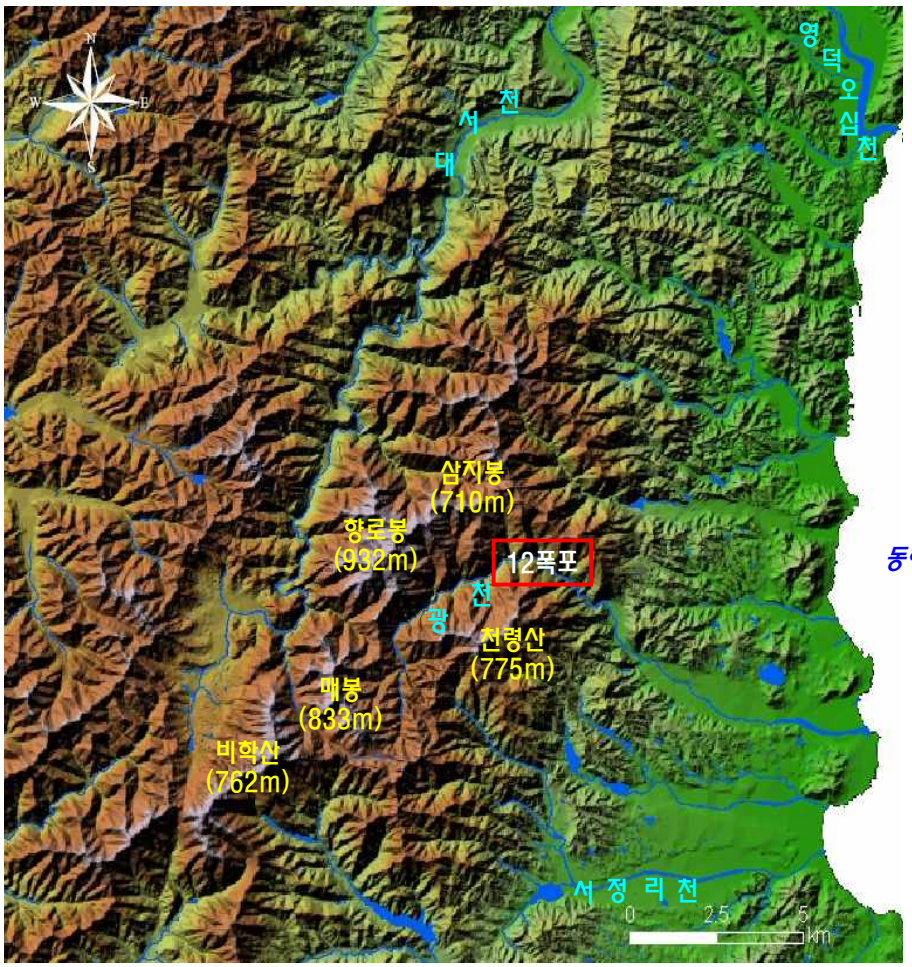
(5) 지형 및 식생 분석

가. 지형 및 지질

내연산은 경상북도 포항시 송라면·죽장면 및 영덕군 남정면 경계에 위치한 산으로 원래 종남산이라 불리다가 신라 진성여왕이 이 산에서 견훤의 난을 피한 뒤에 내연산이라 개칭하였다. 내연산 일대의 거시적인 지형윤곽을 살펴보면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운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산열이 주를 이루면서 700~900m의 준령(峻嶺)이 해안가에 근접하게 펼쳐져 있다. 주요 하천으로는 내연산 서쪽에서 발원한 대서천이 남-북 방향으로 흐르다가 영덕오십천에 합류하여 동해로 빠져나가고, 내연산 매봉과 천령산 사이 계곡에서 발원하여 12폭포를 형성하면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광천이 대표적이다.

내연산군립공원은 북서쪽에 위치한 주왕산국립공원과 같이 태백산맥의 산줄기

임에도 불구하고, 능선 및 봉우리의 해발고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풍화에 가장 강한 암석으로 취급되는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형의 경사가 매우 급하고 기복도 매우 높은 편이다(지광훈 외, 2009). 북동-남서 방향의 산지가 동해안에 인접하여 분포하기 때문에 이 산지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빠져나가는 동-서 방향의 하천은 규모가 작으나 단열을 따라 굴곡도가 크고 하상경사차로 인한 폭포(waterfall), 폭호(plunge pool) 등의 다양한 지형 요소를 형성시켜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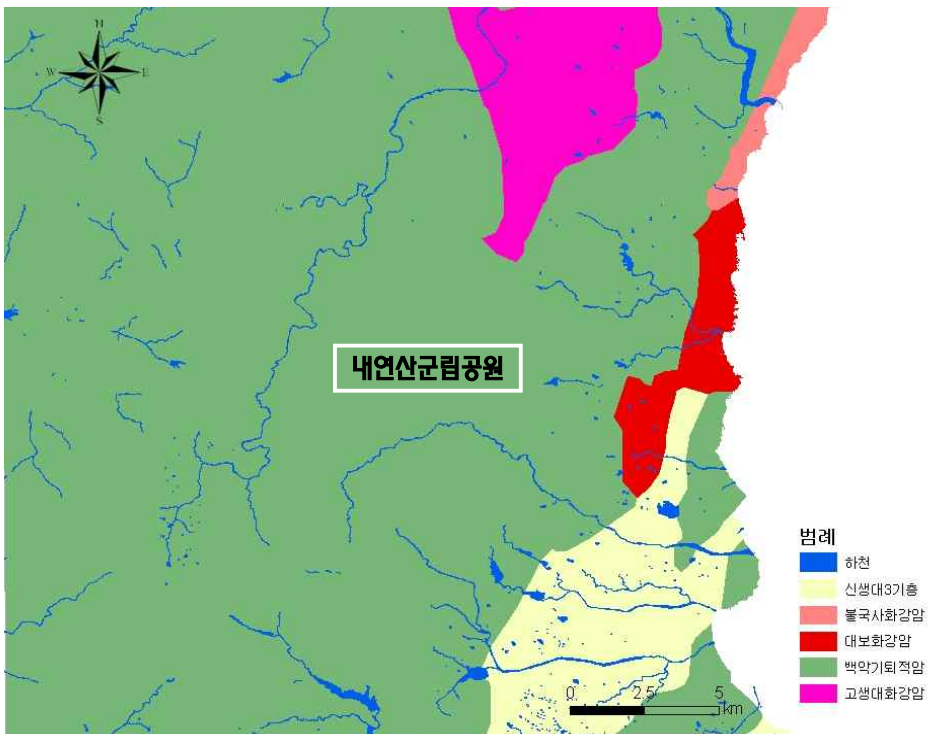


내연산 일대의 지형(DEM)

내연산 주변 일대의 지질구조를 살펴보면, 북쪽의 고생대 화강암류를 제외하고 대부분 쥐라기 화강암(대보 화강암)과 백악기 경상누층군에 속하는 퇴적암류를 기반으로, 이들을 분출 피복한 백악기 화산암류, 이를 관입한 규장암류, 산성 내지 중성 암맥, 그리고 제3기 화산암류와 퇴적암으로 구성된다.

내연산 일대에 주를 이루는 백악기 퇴적암류는 남서부인 영일군 청하면 마북

리에서 북북동으로 벋쳐 영덕군 남정면 선곡동까지 이어진다. 화산암체를 둘러싼 각 퇴적암류의 경사가 대체로 화산암체를 향하여 발달한다. 이 백악기 퇴적암의 단열을 따라 분출하여 형성된 유문암질 응회암이 퇴적암층과 호층을 이루며 내연산 보경사 화산암체의 산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내연산 응회암은 수직, 수평 절리가 잘 발달하여 계곡과 골짜기 마다 높은 절벽과 폭포가 발달하였다(한미경, 2000). 주왕산 지역과 마찬가지로 폭발성이 강한 산성화산암(유문암)류가 분포하는 지역 중 최북단에 위치하며, 폭포와 기암절벽이 잘 발달하는 것은 이 지역 화산암의 대부분이 화산재의 일종인 회류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견상 용암과 구별하기 어려운 회류응회암은 휘발성 물질을 함유하는 산성 마그마가 대규모로 극렬하게 폭발 분출하면서 화구로부터 뿜어져 나온 뜨거운 화산재 가스체가 공중으로 솟구치지 않고 지표면을 따라 용암처럼 빠르게 흘러내려 저지대 곳곳을 메운 뒤 굳은 것이다(황상구 · 이병주, 2004). 중 · 산성 화산암류인 안산암 및 응회암은 분출 후 형성된 균열에 많은 충진 물질이 메워져 있어서 풍화나 침식에 강한 저항력을 보이며, 이에 산지는 급사면을 이루고 있다. 고도와 기복량은 화강암보다 적지만 커다란 단일 산체를 이루며 급사면을 이루는 곳은 안산암 및 응회암이다(양재혁, 2007).



내연산 일대의 지질

나. 자연 경관

낙동정맥이 울진의 통고산, 영덕의 백암산, 청송의 왕거암(주왕산의 모산)을 거쳐 내려오다가 잠시 동쪽으로 가지 뻗어나간 산줄기가 동해안 옆에서 또아리를 튼 산이 내연산이다. 국립공원 주왕산에서 멀지않은 거리에 또 하나의 걸출한 명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내연산은 국립공원도 아니고 도립공원도 아닌 군립공원이다. 그러나 그 격에 있어선 결코 국립공원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숲이 짙고, 암벽, 단애는 높고 협곡은 깊고 험하며 폭포는 무수하다. 내연산의 청하골은 그 길이가 직선거리로 10킬로를 넘는 큰 계곡이다. 개울의 수량도 많은 편이고 무엇보다 폭포가 12군데나 있어서 내연산의 산행취지에는 폭포를 섭렵하는 의의를 빼놓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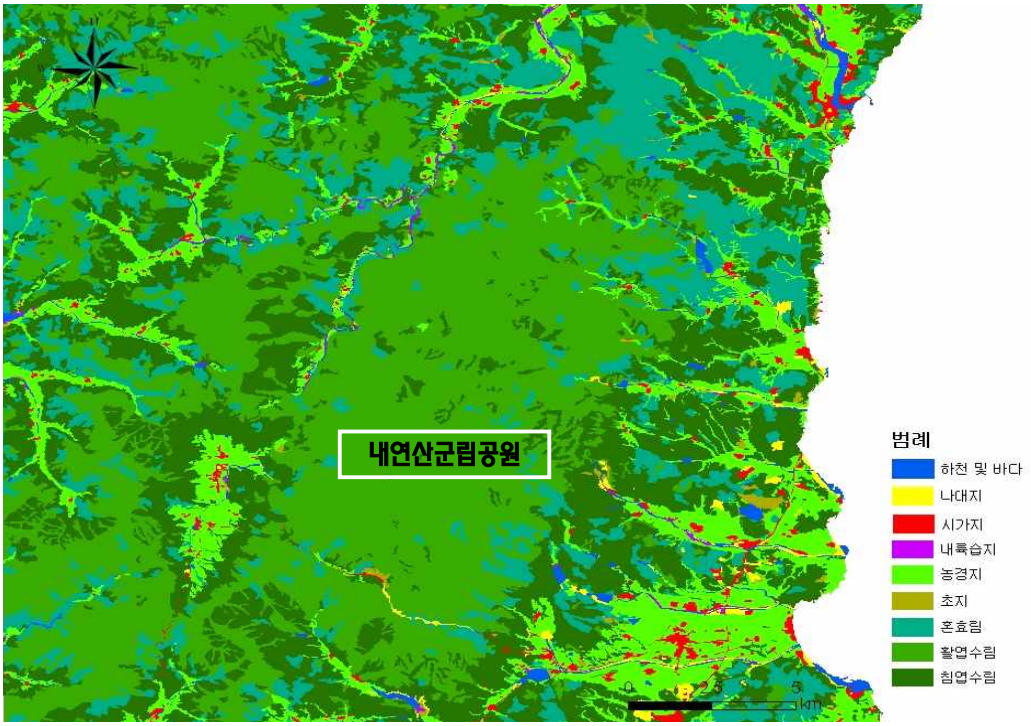
관음폭포(제6폭)



수직단애

내연산 일대 토지피복도를 보면 동쪽 해안가에 농경지와 시가지로 점유되어 있고, 대부분 북동-남서 방향의 대상으로 식생이 밀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천 및 도로를 따라서 부분적으로 인공화 되어있지만 활엽수림[25]>혼효림>침엽수림 순으로 식피밀도가 높아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 사료된다. 보경사가 있는 내연산 계곡일대는 울창한 소나무 숲과 느니타무 숲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해발고도가 낮은 저지대는 상대적으로 침엽수 군락지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해발고도가 높은 고지대로 갈수록 활엽수 군락지가 높게 나타난다.

25) 내연산 일대는 활엽수림의 밀도가 높은데 특히 신갈나무군락과 느티나무군락으로 대표된다. 신갈나무군락의 철쭉꽃군과 참회나무군은 해발고와 지형이 높은 곳과 노암율이 낮은 곳에 각각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느티나무군락은 신갈나무군락과 역의 관계로 나타났다(이병천 · 윤충원, 2002).



내연산 일대의 토지피복도(landuse map)

다. 식생경관적 특징

경북 포항의 내연산 숲길은 12개의 폭포와 담·소·여울·암반·기암괴석 등의 경관요소와 어우러진 능선부의 소나무 경관이 주요 식생을 차지하고 있다. 그 하부의 아교목층에 당단풍, 서어나무, 까치박달, 고로쇠나무, 쇠물푸레나무, 팥배나무, 쪽동백나무, 비목나무, 굴피나무 등이 우점하였으며 관목층에서는 생강나무, 철쭉을 중심으로 고추나무, 병꽃나무, 국수나무, 고광나무, 미역줄나무 등이 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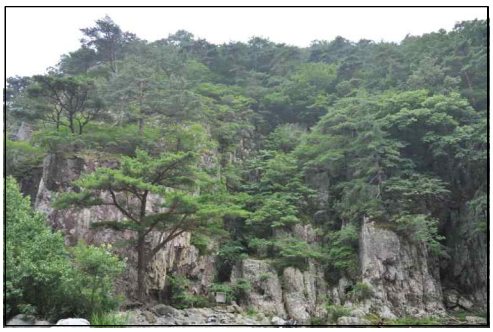
내연산 계곡 사면부에는 굴참나무와 신갈나무가 우점하였으며, 계곡부에는 물푸레나무, 층층나무, 느티나무와 같은 낙엽활엽수 식생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다양한 폭포경관과 어우러지는 기암괴석 사이사이의 암벽식생에 있어 부처손, 바위솔, 바위채송화, 기린초, 원추리, 참나리, 거북꼬리, 넉줄고사리 등이 주요 식생을 이루었으며 관목으로 작살나무, 병꽃나무, 산조팝나무, 쇠물푸레나무 등이 우점하였다.



보경사 입구 소나무 대경목지



원진국사 부도 가는 소나무 숲길



수직적 기암절벽과 소나무 경관



연산폭포 암벽식생경관



암벽식생(기린초, 바위채송화, 부처손)



바위솔



부처손



기린초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가.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

❍ 문화·역사적 가치: 내연산은 조선시대 이래로 영남 지방의 대표적인 명승지로 기록되어 왔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비롯해 황여일(1556~1622)의 유람록과 이상정(1710~1781), 손기양, 유숙, 이긍익 등이 남긴 많은 옛 시문, 겸재 정선(1676~1759)을 비롯한 작자 미상의 화가들이 그린 세 폭의 실경산수화 등 이곳의 풍광을 노래하거나 그림으로 남긴 다수의 옛 시문과 산수화들이 전한다. 낙폭이 가장 크고 웅장한 연산폭포 일대에는 겸재 정선이 남긴 각자를 비롯해 다수의 각자들이 분포하여 이곳을 다녀간 많은 묵객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옛 시문과 실경산수화에는 내연산 계곡의 핵심 경관 요소들이 어떤 것들인지 잘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내연산 계곡을 따라 연속되어 나타나는 10여 개소의 폭포와 크고 작은 소에 대한 당대의 느낌과 이미지가 담겨 있다.

❍ 지형적 가치: 내연산은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류 단열을 따라 분출한 회류응회암이 주를 이루면서 해안가에 병풍처럼 솟아 있는 동해안의 월출산과 같은 느낌을 준다. 비록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수평·수직 절리의 탁월한 발달로 인해 형성된 단애, 폭포, 소 등의 다양한 지형요소가 배합되어 절경을 자랑한다. 그 중 백미는 청하골이라고 하는 광천 중상류 일대의 12폭포 경관으로 여러 단의 하상경사를 따라 폭포 및 폭호가 밀도 높게 분포하고 있고 배후에는 수직단애가 펼쳐져 있어 산지와 하천경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산 정상에서 동해안의 해안경관마저 관찰하기에 좋은 조망점을 제공한다. 내연산의 동쪽 해안가 일대를 제외하고 북동-남서 방향으로 장방형의 식생점유지역이 밀도 높게 나타나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내연산 입구의 소나무 숲 경관, 내연산 고지대에 나타나는 활엽수 군락지, 그리고 점이적으로 형성된 혼효림이 응회암류의 풍화된 토양위에 정착되어 있다. 포항 사람들이 '소금강'이라고 소개하고 겸재 정선이 1733년 청하 현감으로 와서 '내연산 삼용추'라는 명작에 표출할 정도로 이 일대는 지형과 식생이 조화를 이루어 비경을 자아낸다.

❍ 식생적 가치: 내연산의 대표 식생군으로 신갈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소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 느티나무군락이 우세하며 철쭉 및 참회나무군과 같은 관목군락, 망개나무 등의 희귀식물군락, 암벽식생군락 등의 다양한 식물사회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내연산 식생은 식물분포 구계학상, 온대남부와 중부의 경계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꿩의바람꽃, 말나리, 나도바람꽃, 연잎꿩의다리, 정향나무 등의 북부성 식생과 일엽초, 돌가시나무, 비목나무, 감태나무 등의 남부성 식생이 공존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식물상의 분포가 풍부한 지역이다. 내연산 소산 관속식물은 총 640종류 이상이 되어 내연산 지형경관과 더불어 식물 종 다양성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자생수종으로 어우러진 내연산 계곡 숲길은 수직적인 기암괴석, 병풍처럼 치솟아 있는 암벽 경관, 거칠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탐방객들의 건강을 위한 치유의 길이자,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중요한 자연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자연성이 아름다운 내연산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는 보경사 입구부의 소나무 대경목 군락지, 원진국사 부도 가는 소나무길 또한, 장엄한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중요한 식생학적 가치를 갖는다.

나. 지정조사 의견

❍ A 위원

○ 내연산, 삼지봉, 삿갓봉 등에서 발원한 계류들이 합류하여 광천을 이루어 흐르며 여러 곳에서 폭포를 형성한다. 화산암들로 이루어진 지역적 특징에 따라 상대적으로 험준한 계곡들이 형성되고 곳곳에 낙차가 심한 수계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폭포를 중심으로 우수한 자연 경관들이 만들어지는데 내연산 계곡은 이러한 침식지형의 경관적 요소가 매우 두드러진 곳이다. 계곡의 수량은 항상 풍부하여 폭포들은 항상 경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풍부한 식생은 내연산 계곡의 경관성을 더해주고 있고, 크고 작은 소나 담이 형성되어 있어 계곡은 경관적으로 더 풍부해진다. 대부분의 구간이 모두 경관성이 뛰어나지만, 상생폭포에서 연산폭포 구간이 경관적 가치가 가장 우세하다. 더불어 관음폭은 폭포뿐만 아니라 폭호와 주변에 형성되어있는 작은 규모의 동굴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잘 보여준다.

❍ B 위원

○ 포항시 송라면에 위치하고 있는 내연산 계곡은 보경사를 지나 내연산 정상 방향으로 형성된 협곡에 상생폭포, 보현폭포, 관음폭포, 연산폭포 등 12개의 폭포가 굽이굽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수려한 계곡임.

○ 내연골 또는 청하골이라 불리고 있는 내연산 계곡은 말 그대로 '시원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계곡'임.

○ 보경사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심산유곡으로서, 순수한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고 있는 청정한 계곡이며, 겸재 정선의 <내연산 삼용추도> 등 옛 그림으로 묘사되고 있고 다수의 시문도 전해지고 있는 아름다운 경승지임.

○ 포항 내연산 계곡은 자연경승으로서의 가치와 고서화에 의한 인문학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대상으로서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대상지임. 지정범위는 상생폭포에서 연산폭포에 이르는 12폭포를 포함하는 계곡구역이 바람직함.

❍ C 위원

○ 내연산 계곡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하는 계곡으로, 계곡을 따라 12개의 폭포가 장관을 이루는 경승지로서 청하골 또는 내연골이라고도 불린다. 내연산 일원의 명승 지점은 산 능선이나 정상부 혹은 산체 그 자체는 물론 계곡을 따라 연이어 있는 12개의 폭포가 있어 더욱 경관적 가치가 빛난다.

○ 내연산 계곡은 상생폭, 보현폭, 삼보폭, 연산폭, 은폭, 복호폭, 시명폭 등 제각기 이름 있는 폭포들이 여기저기 분포하고 있고 한 계곡의 맑은 물 및 웅장한 기암들과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화를 느끼게 해준다.

○ 전해지는 문헌에 따르면『신증동국여지승람』에 삼동석(三動石)이 언급되어 있으며, 해월 황여일의 <내영산 유람록>을 비롯하여 대산 이상정, 취흘 유숙 등의 시문이 남아 있다. 또한 진경산수화의 거장인 겸재 정선의 <내연산 삼용추도> 등의 산수화가 전해지고 있어 명승으로의 가치가 충분하다.

○ 12폭 중에서는 삼용추를 중심으로 하는 상생폭포~연산폭포 구간의 경관이 빼어나다. 상폭인 연산폭포는 내연폭포라고도 하는데, 12폭 중 가장 규모가 큰 폭포이며 내연산을 대표하는 폭포이다. 여름철의 우렁찬 폭포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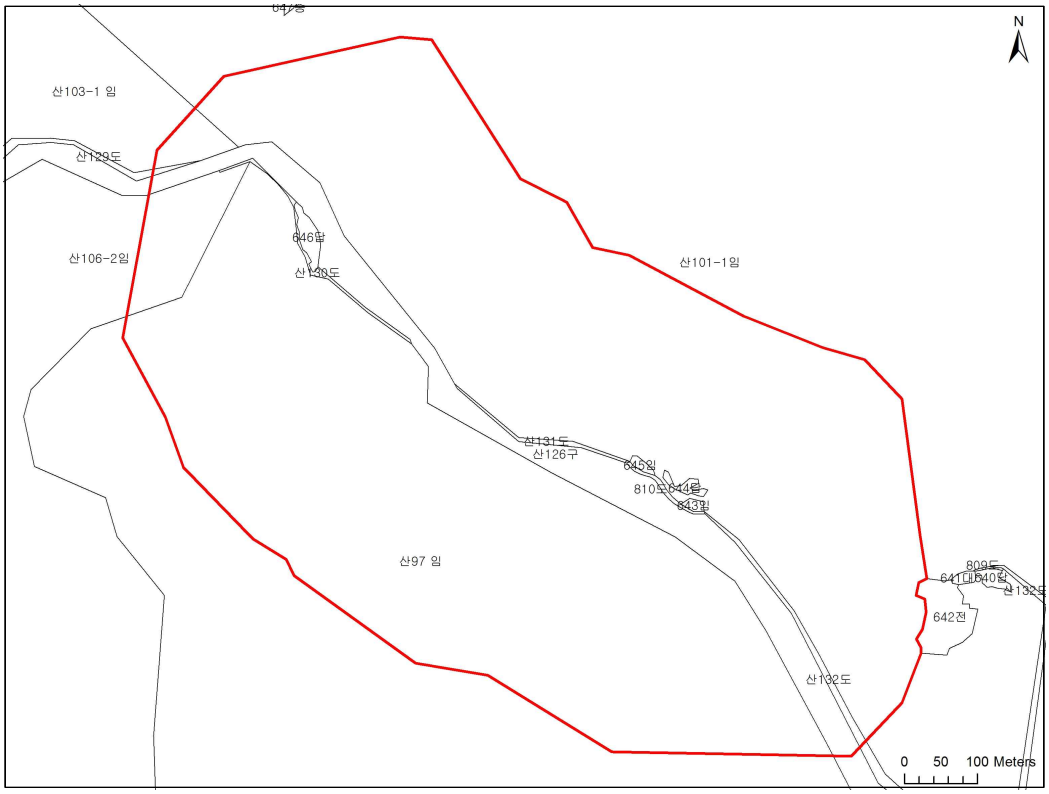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겨울철의 얼음기둥은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 따라서 포항 내연산 계곡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명승으로 지정하는 데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다. 명승의 지정 범위

명승의 지정 명칭과 범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지정내용
명칭	포항(浦項) 내연산(內延山) 계곡
지정종별	명승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지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126번지 외 13필지
면적	691,012.8㎡
관리단체	경상북도 포항시청
문화재 지정 여부	지정 권장


N
산103-1 임
산129도
646답
산106-2임
산130도
산101-1임
산131도
산126구
645임
810도644답
643답
산97 임
809도
641대640임
산132도
642전
산132도
0 50 100 Meters


50m 100m

4) 청도(淸道) 운문산(雲門山) 학심이골 일원



운문산 학심이골의 학소대폭포

(1)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운문산의 위치와 운문산에서 발원하는 운문천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명칭	지리지	세부 항목	내 용
운문산	신증동국여지승람	청도군	군의 동쪽 96리에 있다.
운문천	신증동국여지승람	청도군	군의 동쪽 90리에 있다. 근원은 운문산에서 나와서 유천에 이르러 자천과 합친다. 유천(楡川) 군의 남쪽 40리에 있다. 곧 자천과 운문천이 합치는 곳이다.

(2) 고시문

16~17세기에 기록된 시가 전해지고 있으며, 주로 운문사의 아름다운 풍경과 정회를 노래하며 선계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다. 각 작품별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운문사-시(詩)	손처눌(孫處訥)	『모당집(慕堂集)』(권2)	<운문사(雲門寺)>
	곽진(郭瑨)	『단곡집(丹谷集)』(권2)	<운문사의 추억, 벗의 시에 차운하다.(憶雲門寺。次友人韻。)>
	구치용(具致用)	『우교당유고(于郊堂遺稿)』(권4)	<심선(心禪)이 자리를 옮겨 운문사로 들어가다.(心禪移錫入雲門寺)>

<시(詩)>

1. 손처눌(孫處訥, 1553~1634), <운문사(雲門寺)>, 『모당집(慕堂集)』卷2

가파른 봉우리들 그림 그리는 붓처럼 빽빽하고 / 峯崖峯巒森畫筆
구름 걸린 나무들 들쭉날쭉 선계(仙界)를 에워싸네. / 參差雲樹擁仙區
올해 혹시라도 증손 잔치 벌이게 된다면 / 當年倘齒曾孫宴
실컷 난새 타고 물외(物外)에서 노닐리라. / 贏得驂鸞物外遊

* 조선 중기의 문신인 손처눌(孫處訥)이 운문사의 풍경과 정회를 읊은 시이다. 높고 가파른 산봉우리들이 붓처럼 빽빽하고 구름 걸린 나무들이 들쭉날쭉 에워싼 운문사 풍경을 선계(仙界)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난새를 타고서 그곳을 노닐고 싶다는 마음을 읊었다.

2. 곽진(郭瑨, 1568~1633), <운문사의 추억, 벗의 시에 차운하다.(憶雲門寺。次友人韻。)>,『단곡집(丹谷集)』卷2

운문사에 갔을 적에 / 曾入雲門寺
안개와 노을이 자욱한 속을 / 煙霞縹緲間
때때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즐기고 / 愛眠時枕石
다리를 쉬고 또 산을 올랐네. / 休腳更登山
화조(火棗)[26]로 주린 병을 치료하고 / 火棗療飢病
신선 차로 뒤늦게 찾은 한가로움에 곁들였지. / 仙茶助晩閒
지금 자주 기억하노라니 / 如今頻記憶
그윽한 계곡물 꿈속에도 졸졸 흐르네. / 幽澗夢潺湲

* 조선 중기의 문신인 곽진(郭瑨)이 운문사에서 노닐던 때를 회상하며 읊은 시이다. 안개와 노을이 자욱한 운문사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까지 청하며 쉬면서 올랐고, 과일 먹고 차를 마시며 한적함을 누렸었는데, 그 때 일이 자꾸 떠오르며 꿈속에서도 그 계곡물 흐르는 풍경이 보인다는 내용이다.

3. 구치용(具致用, 1590~1666), <심선(心禪)이 자리를 옮겨 운문사로 들어가다.(心禪移錫入雲門寺)>,『우교당유고(于郊堂遺稿)』卷4

운문사 부용꽃 핀 북쪽에 깊숙이 있으니 / 雲門深在芙蓉北
맑은 가을날 동부(洞府)[27]로 그대를 보내네. / 洞府淸秋送爾還

---

26) 화조(火棗): 금단(金丹)보다도 오히려 약효가 뛰어나서 복용하기만 하면 날개가 돋아 공중을 날 수 있다는 전설상의 선과(仙果) 이름.
27) 동부(洞府): 도교(道敎)에서 말하는 신선 마을.

향기로운 안개 피어나는 굴속에 용이 함께 잠자고 / 香霧窟中龍併睡
벽도암 옆에 학이 함께 한가로이 있을 테지. / 碧桃菴畔鶴同閒
본디 천성이 선경을 좋아하여 / 從來野性耽靈境
몇 번이나 유인(幽人; 은거하는 이)에게 좋은 산을 물었던가. / 幾向幽人問好山
동림사(東林寺)에서 백련사(白蓮社)를 결성했던 일[28]을 본떠 / 擬結東林蓮社會
천화(天花) 속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십시다. / 茶甌對啜天花間

* 조선 중기의 문신인 구치용(具致用)이 거처를 옮겨 운문사로 들어가는 승려 심선(心禪)에게 준 시이다. 운문사 일대 부용꽃의 존재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향기로운 안개 피어나는 굴속에 용이 함께 잠자고 벽도암 가에 학이 함께 한가로이 있는 모습을 통해 운문사를 선경으로 그렸다.

(3) 실경산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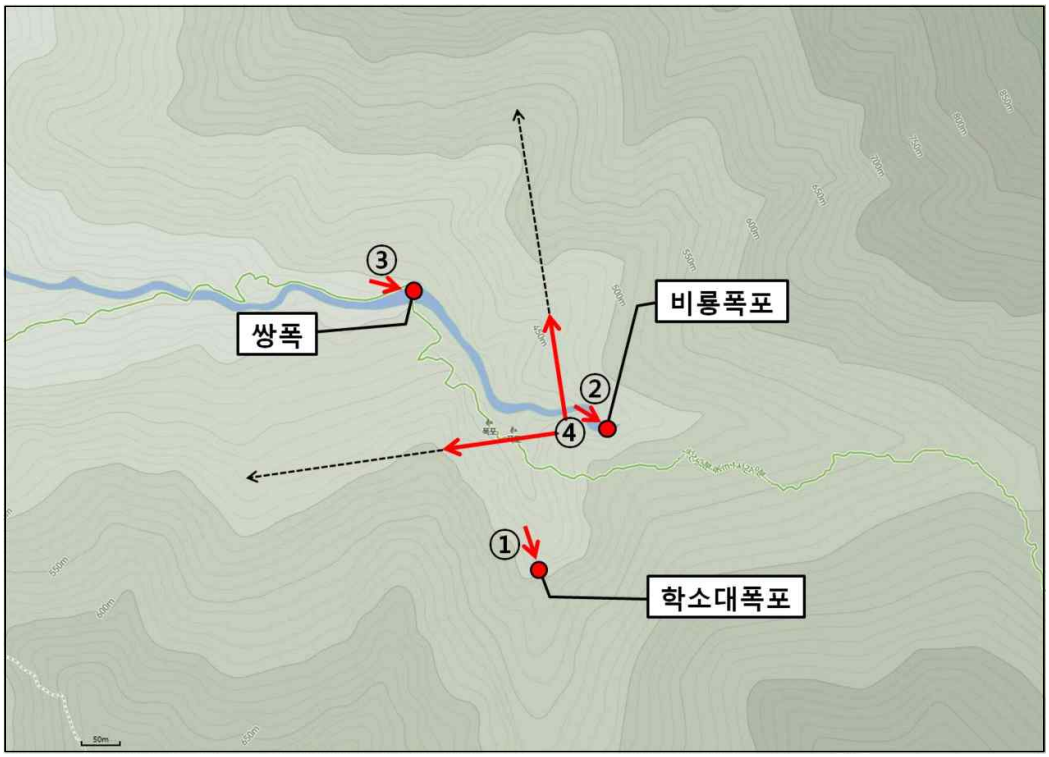
- 자료 없음.

(4) 현재적 재구성

15~17세기에 기록된 고시문은 주로 운문사의 전체적인 경치에 대한 감상을 담고 있다. 현재 학심이골 일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연 휴식년제로 입산이 통제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이다. 운문사에서 계곡을 따라 산을 오르면 약 25m 높이의 학소대폭포가 나타난다. 과거에 폭포를 중심으로 많은 학들이 모여 살아 학소대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폭포 아래 부분에는 원형에 가까운 깊은 폭호가 나타나며 암벽이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어 장쾌한 폭포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학소대폭포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 비룡폭포와 쌍폭도 분포하고 있으며 해당 경관을 지도와 함께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28) 동림사(東林寺)에서 백련사(白蓮社)를 결성했던 일: 동진(東晋)의 고승(高僧) 혜원법사(慧遠法師)가 혜영(慧永)·유유민(劉遺民)·뇌차종(雷次宗) 등 18명과 여산(廬山)의 동림사(東林寺)에서 정토 신앙 단체를 결성하고는 백련사(白蓮社)라 이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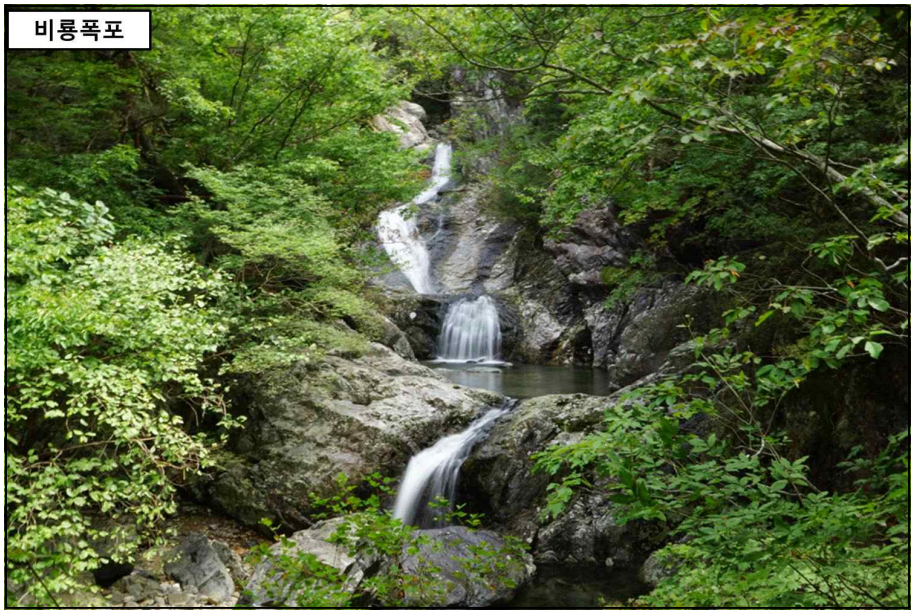


① 학소대폭포 정면과 측면, 각자





② 정면에서 바라본 비룡폭포



③ 측면에서 바라본 쌍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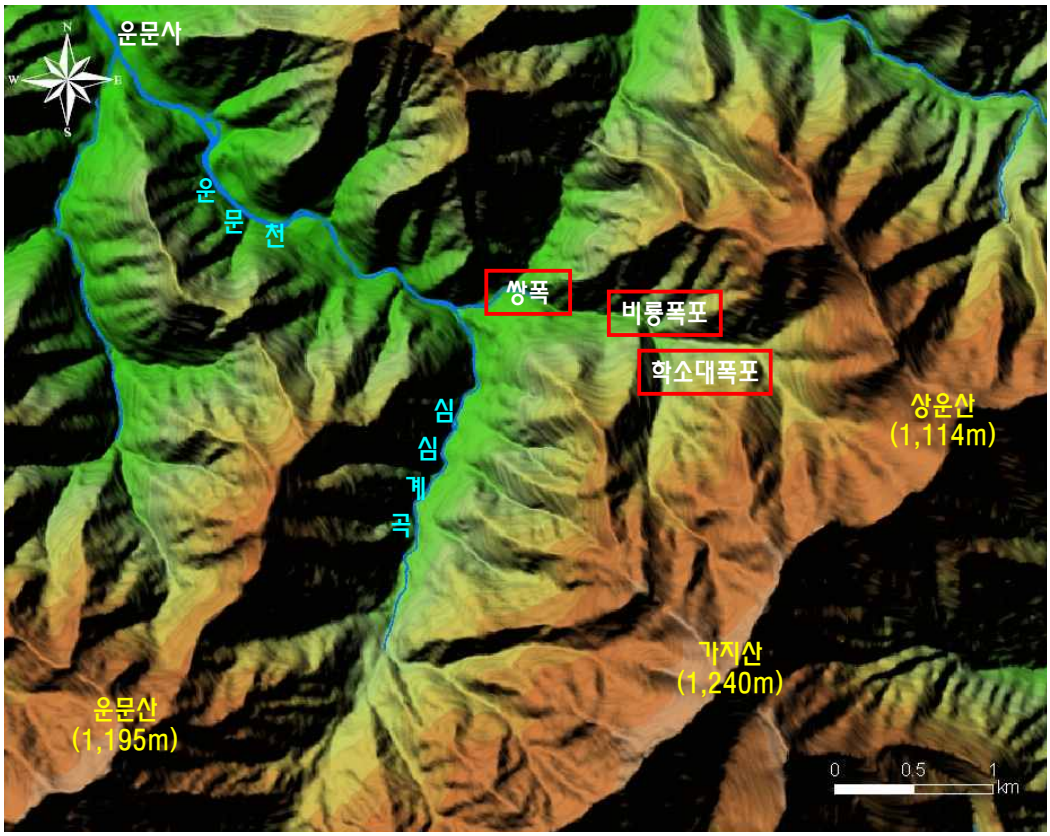


④ 비룡폭포 상단에서 바라본 학심이골



(5) 지형 및 식생 분석

가. 지형 및 지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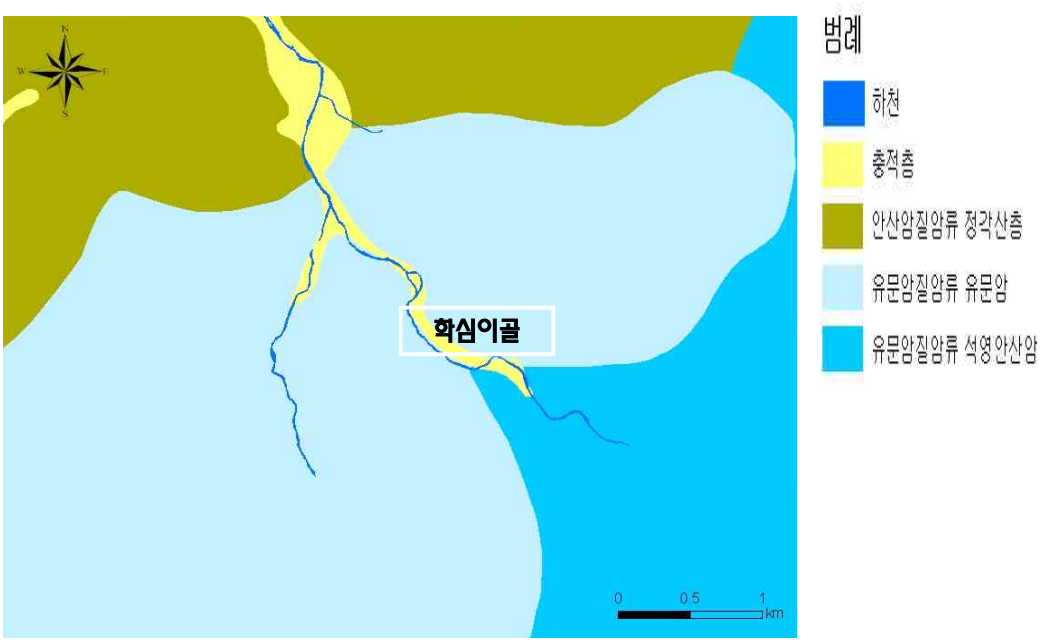


운문천 일대의 지형(DEM)

운문산은 가지산(1,240m)과 연결되는 해발고도 1,188m의 산으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일대는 지형 경관이 수려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이 잘 보전되어 있어 '영남 알프스'의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에는 멸종위기종인 동·식물이 다량으로 분포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운문산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 산은 태백산맥의 고헌산(1,033m)에서 갈라져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성현산맥(省峴山脈) 중의 한 산으로, 동쪽으로는 가지산(1,240m)·고헌산, 서쪽으로는 억산(944m)·구만산(785m)·부산(591m)·호암산(612m)·화악산(932m)·천왕산(619m) 등을 지나 비슬산괴(琵瑟山塊)와 연결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학심이골은 운문산과 가지산에서 발원한 운문천의 협곡 구간을 의미하는데, 주요 폭포 경관은 운문천 상류의 심심계곡 보다는 상운산과 가지산 사이에서 발원하는 소하천에서 나타난다. 그 계곡을 따라 상운산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쌍

폭, 비룡폭포(학소1폭), 학소대폭포(학소2폭) 등 3개의 비교적 규모가 크며 보존 상태가 양호한 폭포군(瀑布群)이 나타난다.



운문천 일대의 지질

운문산 일대의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말에 분출한 유천층군의 산성화산암인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변에는 그 후 신생대 제3기 화성암이 관입되어 있다(서종철,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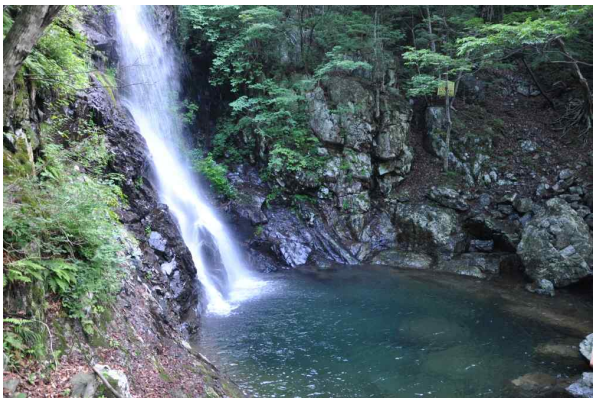
토양조사 결과, 학심이골 일원의 토성은 미사질 양토나 미사질식양토가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토양은 약건 혹은 적윤하여 수분조건이 임목생장에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의 배수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토심이 평균 70㎝ 정도로 적당하고 암노출도는 10~30% 정도로 나타났다. 토양의 화학성은 우리나라 온대 중·북부 지역의 평균범위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유기물함량, 전질소, 유효태 인산 모두 갈색산림토양의 평균 범위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어 임분의 생육에 양호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송민섭, 1997).

위 지질도를 보면 운문천 하류는 유문암질암류 유문암, 상류는 유문암질암류 석영안산암이 분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백악기 화산암류인 유문암과 안산암이 주를 이루는 데 이들은 표층풍화의 성향을 보이면서 수평 및 수직절리를 따라 암괴의 발달이 현저하다. 풍화 및 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크기 때문에 북동-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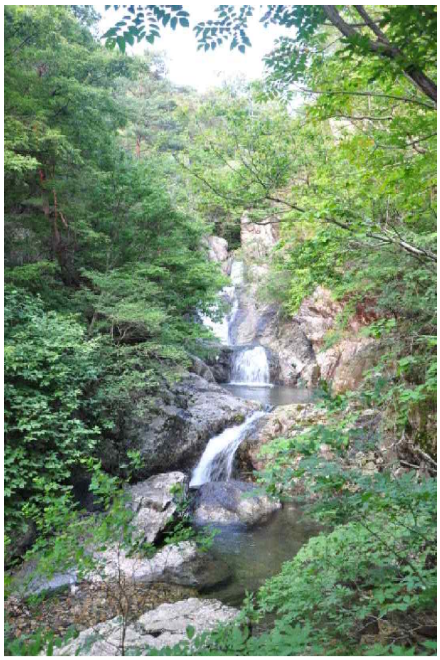
방향의 단열을 따라 유도된 동창천과 동천 사이에서 우뚝 솟은 형태의 잔류암체(殘留岩體)로 남아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절리밀도가 높은 곳에서 개석이 진행되어 곳곳에 하상구배 차에 따른 폭포가 다수 존재한다.

나. 자연 경관

여러 폭포 중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규모가 큰 학소대 폭포는 높이 25m정도로 경사가 급변하는 기반암의 단애에 형성된 지형이다. 이 폭포에서 주목할 점은 폭호로 깊이 2m이상, 폭 10m이상으로 약 100㎡ 이상의 넓고 깊은 규모의 폭호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드러난 기반암의 절리를 따라 식생들이 천이(vegetation succession)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절경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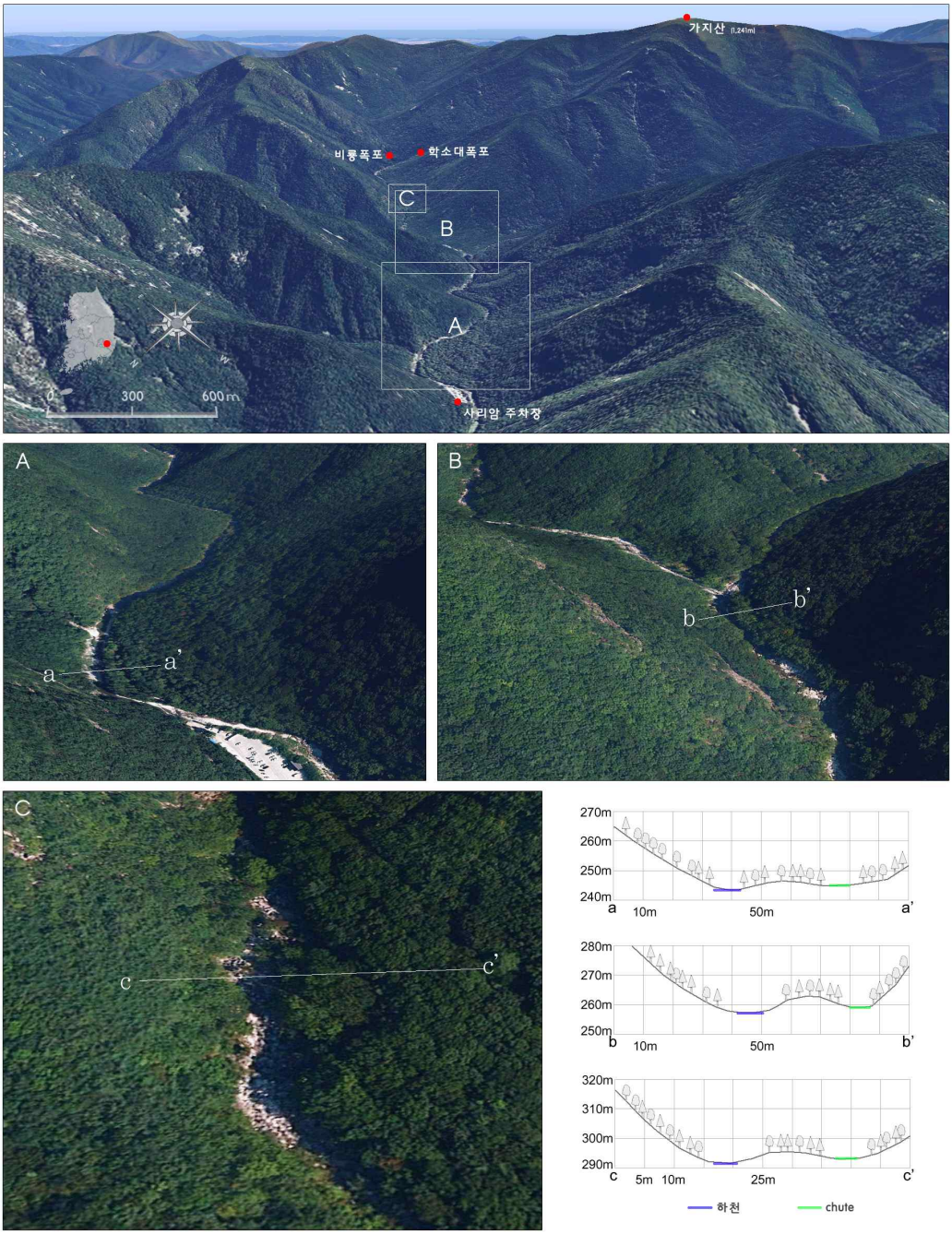
학소대폭포



비룡폭포

또한 이 지역의 기반암은 부정합면을 따라 기반암끼리의 경연차가 나타나거나, 같은 기반암이라 하더라도 절리밀도 차이에 의한 침식저항력의 차이가 잘 발생한다. 그리고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하천의 형태를 띠며 각각의 하천의 침식력 차이도 잘 발생한다. 이렇게 국지적인 하천침식에 의해 계곡길 곳곳에는 하상비고 차이에 의해 형성된 현곡(hanging valley)과 여러 계단을 가진(cascade type) 지형을 이루고 있다. 비룡폭포는 단일 규모는 학소대폭포에 비해서 작지만 여러 단으로 꺾이면서 용이 승천하는 모양을 보여 절경을 자랑한다.

운문사에서 계곡을 따라 상운산으로 향하는 통로는 하천의 유로변경에 따라 여러 지형경관을 보인다. 쌍폭 인근의 하천에서는 망류하도(braided steam)의 일부가 평소에는 건천형태로 흐르는 샛강하도(chute)형태를 띤다. 폭은 약 3m 이상이며 하도길이는 약 1km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에는 홍수시를 제외하고는 샛강하도에 유수가 잘 흐르지 않아, 하도 내에 관목류의 식생이 정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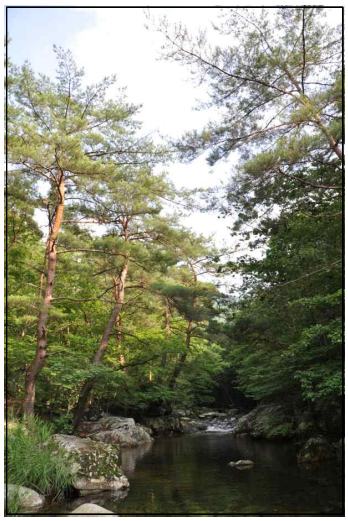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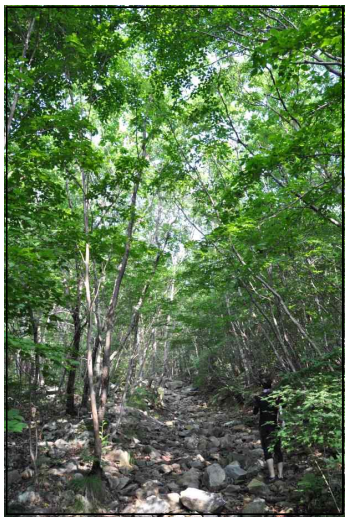
학심이골 샛강하도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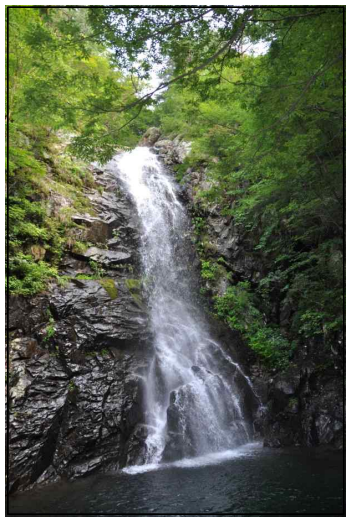
다. 식생경관적 특징

학심이골 일원의 식생경관은 운문사를 중심으로 하는 상록침엽수경관과 계곡부의 소나무(흉고직경 평균 40~50cm) 및 낙엽활엽수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운문사 진입로는 소나무 및 전나무 중심의 평지림으로 과거 사찰에서 식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나무가 소나무와 공존하고 있다.

계곡부내 폭포 암반 상부에는 소나무 및 당단풍나무가 우점종으로 중심경관을 이루었고, 암괴류 주변은 굴참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가 우점종인 참나무류가 주요 식생경관을 형성하였다. 학소대 및 비룡폭포 주변의 졸참나무, 서어나무 및 고로쇠나무, 느티나무, 당단풍나무, 함박꽃나무, 진달래, 철쭉 등이 어우러지는 낙엽활엽수경관으로 구분된다. 관목층에서 우점종은 생강나무, 국수나무, 조록싸리, 광대싸리, 병꽃나무, 박쥐나무 등이 발견되었으며 초본층에 있어서는 말나리, 원추리, 기린초, 참억새, 산수국, 단풍취, 애기나리, 천남성, 꿀풀, 까치수영 등이 우점하였다. 부분적으로 일본잎갈나무 및 잣나무와 같은 인공식재림도 존재하였다.


계곡부 소나무경관


암괴류 주변 참나무류경관


폭포 주변의 낙엽활엽수경관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가.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

❍ 문화·역사적 가치: 운문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청도군 조에 기록이 보이고, 16~17세기에 이곳을 다녀간 선비들이 지었던 옛 시들이 전한다. 이들 시에는 계곡보다는 운문사 일대의 풍광을 읊고 있는 편이어서 학심이골 자체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다. 다만, 학심이골 계곡의 최대 규모 폭포인 학소대폭포에는 '학소대(鶴巢臺)'라는 각자가 남아 있고, 비룡폭포(飛龍瀑布)라는 지명도 전하는 것을 볼 때 이곳을 유람한 묵객들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 지형적 가치: 운문산 군립공원에서 학심이골 일원은 중생대 백악기에 불출한 유문암 및 안산암 계통의 기반암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암석류의 표층풍화 과정에서 공급된 미립토를 기반으로 하여 식생의 점유밀도가 높게 나타나며, 그로 인해 희귀한 동물도 많아 생태적으로 우수하다. 이러한 토층의 발달은 높은 습포효과를 촉진함으로써 계곡을 따라 유량이 풍부하고 부분적으로 단열의 밀도가 높은 곳에는 하상비고가 커져서 계단모양의 폭포경관을 만들어 냈다. 계곡의 규모에 비해서 폭포의 규모가 크고 주변 식생과 조화가 아름다워 보존가치가 크다.

❍ 식생적 가치: 운문사 입구부의 대경목인 소나무 및 전나무는 웅장한 수직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운문사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문화경관림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높다. 또한 계곡부의 낙엽활엽수경관과는 대비되는 효과를 줄 수 있어 사찰경관과 조화되는 문화경관으로서 의미가 크다. 운문산 계곡 거석과 바위들 주변에 우점하는 소나무 및 당단풍나무는 초록빛-붉은빛의 가을색 조화를 이루어 영롱한 계곡경관을 연출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계곡물이 불규칙한 암반 사이에서 힘차게 떨어지는 수직적인 폭포경관을 포용하고 있는 원개형의 낙엽활엽수 식생경관은 소박하고 담백한 심산유곡의 느낌을 자아내고 영롱한 숲의 역사를 알려주는 식생경관요소로서의 가치가 높다. 암괴류 주변의 굴참나무를 중심으로 하는 참나무류는 우리나라 고유 자생종으로서 원형경관을 나타내고, 자연수림대인 낙엽활엽수 계곡경관은 졸참

나무, 느릅나무, 박달나무, 층층나무, 물푸레나무가 주종을 이루어 자생 식생 경관의 신록, 가을의 소박한 단풍경관을 연출하기에 훌륭한 식생자원이다.

나. 지정조사 의견

❍ A 위원

○ 자연휴식년제로 잘 보존되고 있는 계곡들에는 아름다운 경관을 갖춘 곳이 여러 곳 있다. 가지산에서 발원하는 하천은 오염되지 않아 맑은 하천을 형성하고, 수림들도 잘 보존되고 있다. 사리암 입구에 위치한 답사구역의 초입에서는 넓은 계곡의 폭으로 인하여 다소 개방되어 있는 느낌을 주어 경관적 가치를 추구하기에는 부족한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을 지나면서 곧 계곡은 좁아지고 하천은 깊어지면서 크고 작은 소와 담들이 잘 어우러져 있다. 특히 상류부에 발달하는 폭포들은 운문산 학심이골의 자연유산적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 가운데서도 학소대폭포는 웅장한 규모와 넓은 폭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다. 이 외에도 비룡폭포와 쌍폭 등이 잘 보존되고 있어 계곡 전체가 훌륭한 명승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 B 위원

○ 운문산은 '영남알프스'라 불리는 가지산 줄기에 속해 있는 산군에 속하는 해발 1,188m의 높은 산으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음. 운문산 일대의 지형과 산세는 매우 수려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으로 유명함.

○ 특히 운문사 방향의 계곡에는 쌍폭, 비룡폭포, 학소대폭포 등 빼어난 폭포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더욱 잘 보존되고 있는 상황임.

○ 운문산 학심이골은 다수의 폭포와 계류가 아름답고 청정한 계곡으로서, 명승으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이며, 지정구역은 운문사 상류의 쌍폭, 비룡폭포, 학소대폭포를 포함하는 계곡구역이 바람직함.

❍ C 위원

○ 운문산은 해발고도 1,188m의 산으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지형 경관이 수려하여 '영남 알프스'라고 불리고 있다. 이 지역에는 멸종위기종인 산작약, 솔나리, 무산쇠족제비 등 514종의 식물과 수달, 삵, 하늘다람쥐, 담비, 벌매, 원앙, 소쩍새 등을 비롯한 1,076종의 동물이 서식 분포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이곳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연 휴식년제를 실시함으로써 자연보전은 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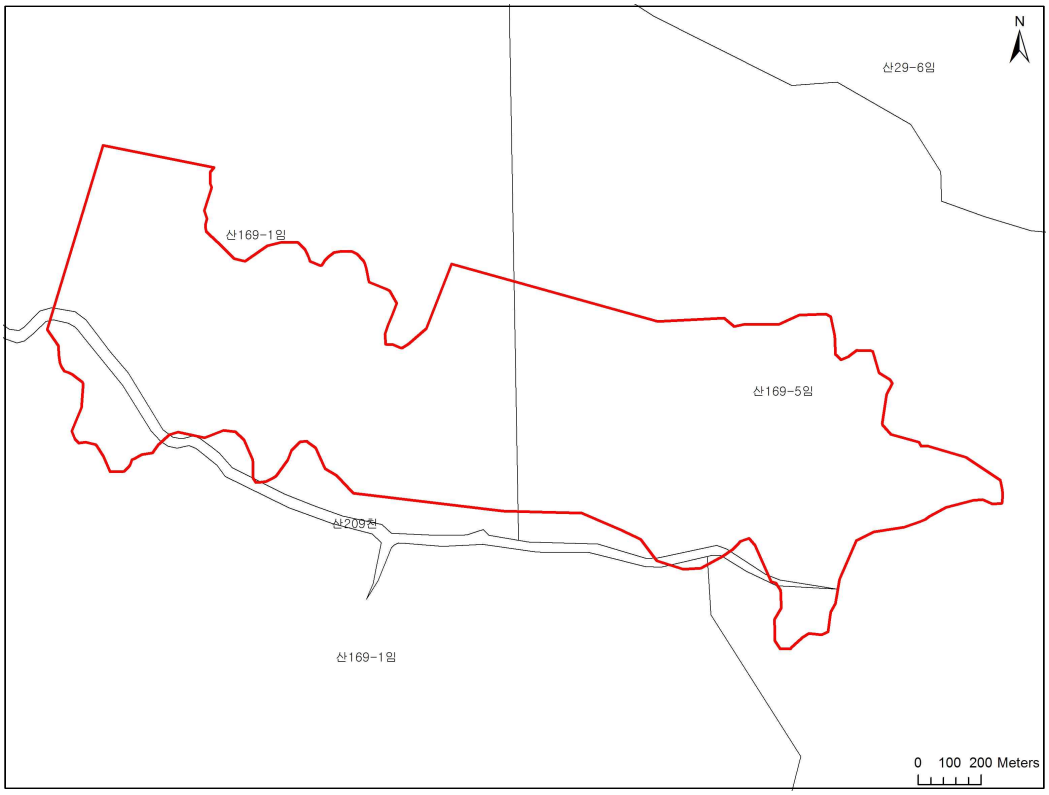
○ 운문사 안쪽 골짜기에는 천문동계곡, 배넘이골, 학소대 등 비경이 많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25m 높이의 학소대폭포는 절경 중의 절경이라 할 수 있다. 학소대폭포에는 학소대(鶴巢臺)란 암각위에 바닥넓이가 10여 평, 길이가 4m 되는 소가 있는데 물의 맑기가 거울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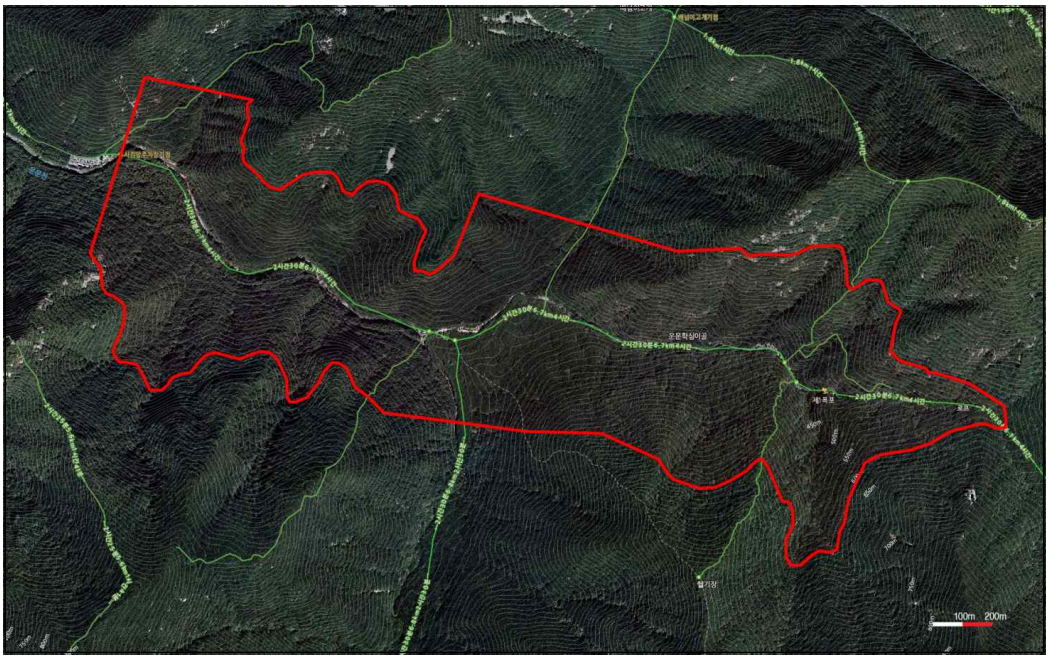
○ 청도 운문산 학심이골은 계곡의 보존 상태나 자연경관적 측면에서 명승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다. 명승의 지정 범위

명승의 지정 명칭과 범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지정내용
명칭	청도(淸道) 운문산(雲門山) 학심이골 일원
지정종별	명승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지번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169-5번지 외 2필지
면적	2,021,586.5㎡
관리단체	경상북도 청도군청
문화재 지정 여부	지정 권장


N
산29-6임
산169-1임
산169-5임
산209천
산169-1임
0 100 200 Meters


100m 200m

5) 밀양(密陽) 재약산(載藥山) 표충사(表忠寺)계곡



옥류동천 상류에 위치하고 층층폭포의 모습

(1)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 간략한 위치를 서술하고 있는데, 두 지리지 모두 재약산(載藥山)을 재악산(載嶽山)으로 기록하고 있다. 표충사(表忠寺)의 이전 이름인 영정사(靈井寺)가 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재약산을 재악산이라고 칭했음을 알 수 있다.

명칭	지리지	세부 항목	내 용
재악산	신증동국여지승람	밀양 도호부	부의 동쪽 41리에 있다.
	여지도서	밀양 도호부	관아의 동쪽 40리에 있다. 천화령(穿火嶺)에서 뻗어 나온다.

(2) 고시문

표충사(表忠寺)와 배후의 재약산에 대해 읊은 고시문이 전한다. 이들 고시문의 목록과 주요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표충사-시(詩)	신국빈(申國賓)	『태을암집(太乙菴集)』(권1)	〈表忠寺。次壁上韻呈沈明府。〉
		『태을암집(太乙菴集)』(권1)	〈白雲歌。送表忠寺摠攝僧有聞。〉
재약산-문(文)	손기양(孫起陽)	『오한집(聱漢集)』(연보)	〈聱漢先生文集年譜〉
	목만중(睦萬中)	『여와집(餘窩集)』(권23)	〈七灘亭上樑文〉

<문(文)>

1. 손기양(孫起陽, 1559~1617), <聱漢先生文集年譜>, 『오한집(聱漢集)』

(…전략…) 십오년 정해년 선생 29세에 노개방(盧盖邦)과 재약산에서 공부를 하였다. 노개방은 같은 고을 사람이다. 선생과 평소에 친하게 지냈는데 평지에 거처할 때에 충효로써 서로 권면하다가 함께 산사로 들어가서는 걸상을 묵고서 함께 학문을 탐구하면서 절차탁마하였다. 이듬해에 노개방과 함께 과거에 급제하였다. (…후략…)

(…전략…) 十五年丁亥 先生二十九歲 與盧公 盖邦 讀書于載藥山。盧公同邑

人。與先生素善。平居以忠孝相勉。至是俱入山寺。結榻同研。切磋講磨。明年與盧公俱登第。(…후략…)

* 손기양(孫起陽)은 조선 중기 정구(鄭逑)의 문인으로 정경세(鄭經世), 이준(李埈) 등과 교유하였다. 자는 경징(景徵), 호는 오한(聱漢)이다. 손기양의 연보를 보면 손기양이 29살 되던 1587년(선조 20)에 고향 사람 노개방(盧盖邦)과 함께 재약산에서 공부하였으며, 이듬해 노개방과 함께 과거에 급제하였다.

2. 목만중(睦萬中, 1727~1810), <七灘亭上樑文>,『여와집(餘窩集)』卷23

地去萬里有餘。問名則是士。生百世之下。聞風而興。猶傳聱漢舊居。宛想狂奴故態。先生初非果於忘者。亦嘗出而仕焉。世外之浮榮掉頭。實自癸丑以後。嶠南之名士屈指。蓋在甲乙之間。梅福逃名。只稱南昌故尉。張翰起興。不待洛陽秋風。歸歟嚴光山前。依然謝眺宅近。桑麻掩映。地僻一區。舟楫沿洄。川長七里。山如高人偃蹇。顧名而思。谷以隱者盤旋。卜居爲此。跡已謝於烏臺一步。頻草絶交之書。志相合則蒼石諸賢。高歌招隱之操。先生可以祭社。後人爲之起亭。自宇宙便有江山。雲烟不變。伊甍棟屢經歲月。風雨所搖。主人以白眉良。保靑氊舊。荊山之璞玉徒抱。少日西遊。齊門之竽瑟不諧。中世長往。鄕井不改於五世。某水某丘。渠矱相傳於百年。肯堂肯搆。爾乃拊貽基而興念。嗣遺躅而圖功。峭壁淸流。面背之勢依故。凉軒燠室。容膝之地有餘。凭欄而幽事愜心。岸巾而遐賞供眼。明沙若雪。繚長浦而遷延。穹林如雲。亘邃壑而晻翳。殿春幽花急雨新瀑。娟娟几案之前。曲沼芳蓮顚厓老松。亭亭埃之外。暝入遙山之色。帶日歸鴉。曉占前村之炊。和烟籠竹。添園叟觀魚而魚樂。百里奚飯牛而牛肥。漁火相連。燈淵之號以是。農歌互答。琴野之名在玆。發深省於淸晨。磬落雲際。到上方於昏黑。錫飄橋頭。石室爛柯。不識長安之翻覆。苔磯垂釣。何關溫溪之淺深。惟此菟裘之營。儘爲藎軸。之樂。雨蓑衣晴篛笠。自稱魚鳥主人。朝灘上暮蘆中。莫是羊裘男子。風塵消息。永絶君房之報書。巖扃光輝。猶疑客星之流照。展此名緣吾設。微斯人與誰歸。竿頭一絲。扶鼎之風不斷。楣額二字。嘉遯之心莫回。聊陳拋樑之謠。庸替相杵之役。

어영차 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지네, / 兒郎偉拋樑東
가랑비 내려 온갖 꽃 붉게 비치네, / 細雨雜花相暎紅
재약산 앞으로 산보 나왔더니, / 載藥山前行藥至
기수에서 목욕하는 삼월 관동(冠童)[29]이 성대하구나. / 浴沂三月盛冠童

兒郎偉拋樑西。野勢橫琴高復低。一道淸渠資百畝。天風粳稻結花齊。
兒郎偉拋樑南。上元峯頭絶烟嵐。金波送上三更月。長水高山影盡涵。
兒郎偉拋樑北。黛光遙破太陰黑。子陵先生是化身。臨流屹立千尋壁。
兒郎偉拋樑上。危樓四面江山曠。不知何處是京華。中夜遙依北斗望。
兒郎偉拋樑下。日夜長川流不舍。隨意蒼蒹白露中。至今疑有垂綸者。

伏願上樑之後。起居唯適。漁釣自娛。續妣祖之居。茂矣苞矣。申大夫之頌。輪焉奐焉。殊有鳳毛。堪喜階蘭之競茁。斯如鳥革。豈憂樓竹之易摧。

* 목만중(睦萬中)은 조선 영·정조 연간의 문인으로 호는 여와(餘窩)이다. 칠탄정(七灘亭)의 상량문을 쓴 육위송(六偉頌; '偉'자가 들어가는 여섯 수의 노래) 첫머리에 재약산(載藥山)이 보인다. 가랑비 내려 다양한 꽃들이 붉게 비칠 때 재약산 앞으로 산보하러 나온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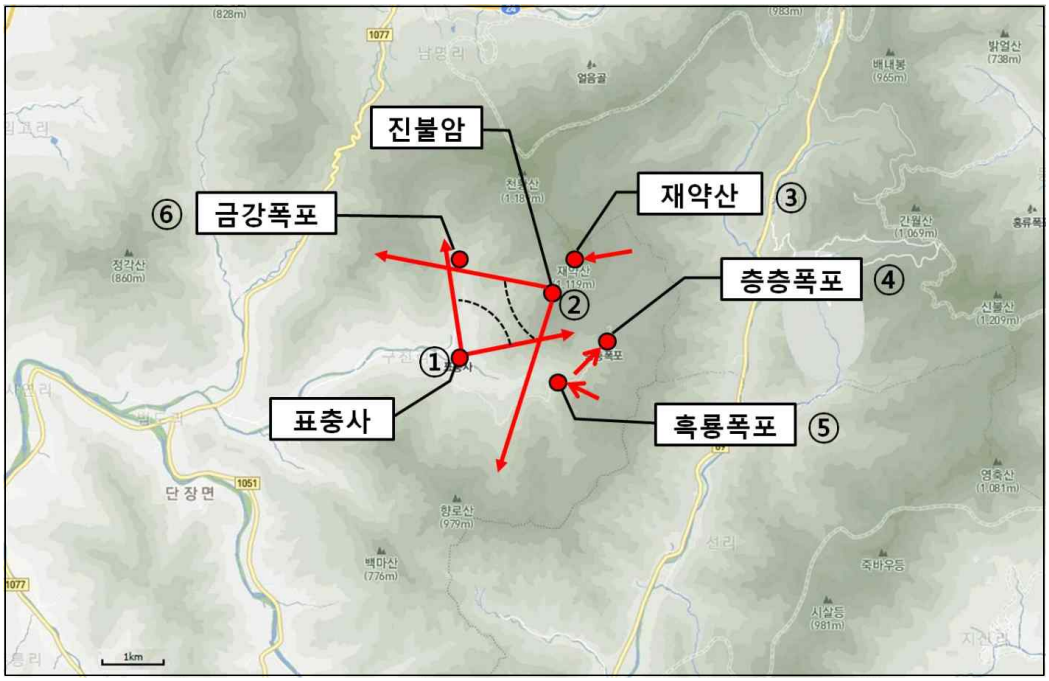
(3) 실경산수화

- 자료 없음.

29) 관동(冠童): 관동은 어른과 아이를 말한다. 공자의 제자 증점(曾點)이 자신의 뜻을 말하라는 공자의 명에 슬(瑟)을 울리다 말고, "저문 봄날 봄옷이 이루어지거든 어른 대여섯 사람, 동자 예닐곱 사람과 함께 기수(沂水)에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을 쐬고 시를 읊으면서 돌아오겠다." 라고 말한 고사를 차용하였다. 공자가 증점의 이 말을 듣고 그의 쇄락(灑落; 순수하고 깨끗함)한 기상을 인정하였다 한다. 《論語 先進》

(4) 현재적 재구성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재악산(載嶽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재약산은 천황산으로도 불렸으며 산기슭과 계곡에는 유명한 대찰(大刹)인 표충사를 비롯하여 층층폭포, 흑룡폭포, 금강동천 및 금강폭포 등이 있고, 정상부에는 억새가 자생하는 사자평이 펼쳐져 있다. 특히 높이 20m가 넘는 층층폭포는 거대한 암벽이 폭포를 중심으로 반원형 극장을 이루고 있어 보는 이를 압도하는 느낌을 준다. 재약산의 경관을 지도와 함께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 표충사에서 바라본 재약산 연봉



② 진불암에서 바라본 표충사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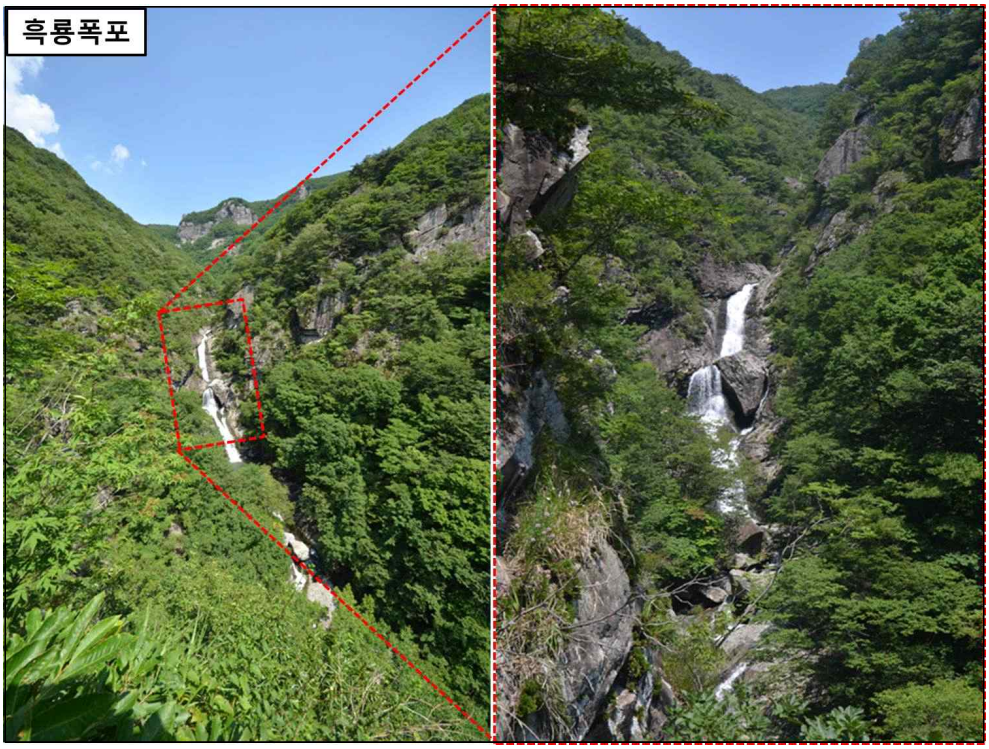
③ 사자평에서 바라본 재약산(수미봉)



④ 층층폭포의 정면과 측면



⑤ 흑룡폭포 원경과 확대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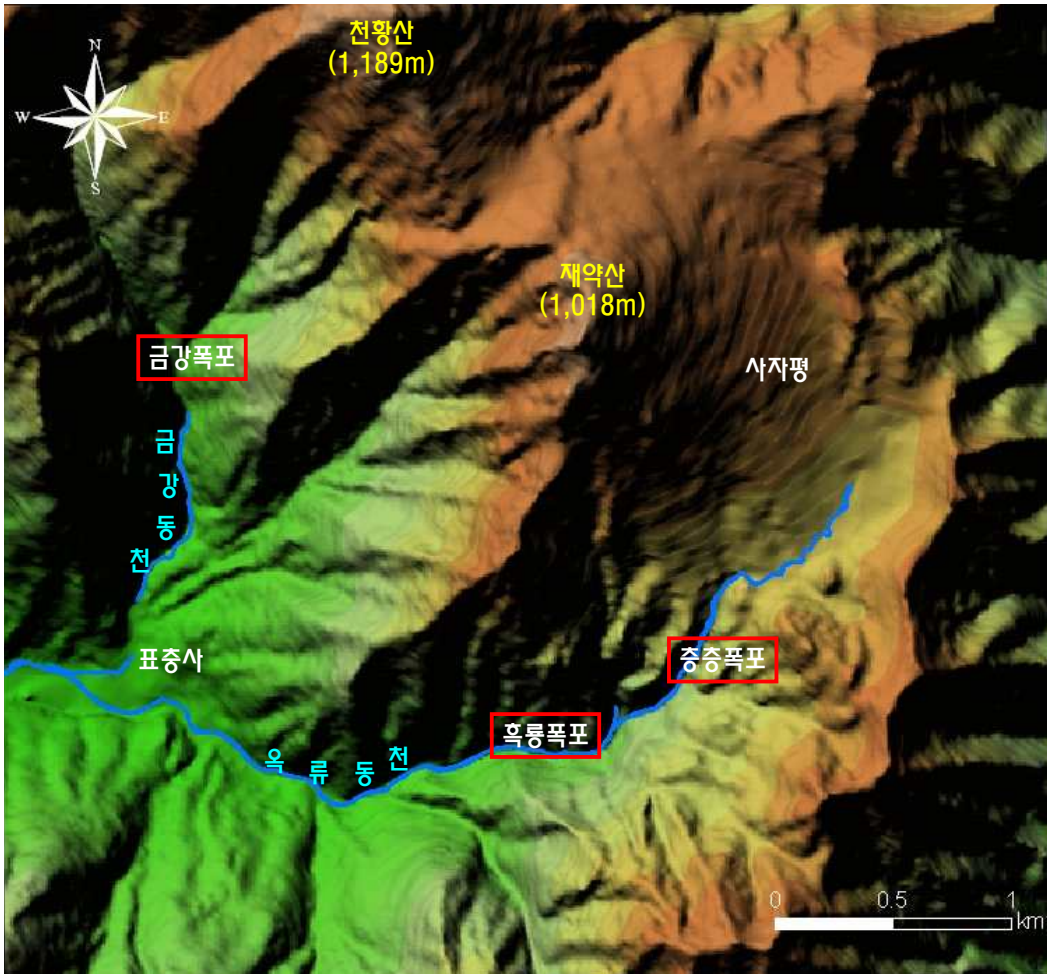
⑥ 합류점에 위치한 금강폭포



(5) 지형 및 식생 분석

가. 지형 및 지질

재약산(1,119m)은 경남 울주군과 밀양시의 접경 주변에 위치하며, 천황산(1,189m), 가지산(1,241m) 등 해발 1천m가 넘는 산들이 연속적으로 무리를 이루고 이 일대를 통칭하여 '영남 알프스'라고 일컫는다. 이 일대의 구조선은 주로 북북동-남남서 방향을 따르는데 1,000m의 준봉(峻峯)들을 자랑하는 산열과 산체 사이를 좁고 긴 단열을 개석하면서 흘러가는 하천이 자연지역(natural region)을 이룬다. 산세는 부드러운 편이나 정상 일대에는 거대한 암벽을 갖추고 있다. 수미봉·사자봉·능동산·신불산·취서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은 드넓은 억새평원으로서 사자평이라 부르고, 지형학적으로 신생대 3기 경동성 융기운동의 영향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고위평탄면이다. 재약산이 속한 산계는 북북동-남남서 방향이고 해안가에 인접하여 습윤한 남동풍의 영향으로 습포 효과(wet sponte effect)가 높은 편인데, 특히 사자평 일대는 지형적으로 평탄하여 고산임에도 불구하고 습원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표충사 일대의 지형(DEM)

재약산의 바깥쪽으로는 능동산(983m)에서 발원한 단장천이 남북방향으로 흐르다가, 밀양호를 거쳐 동서방향으로 유로를 바꾸고, 남쪽으로는 관음봉에서 발원한 시전천이 구조선을 따라 동서방향으로 표충사를 관통하여 흐르다가 시전천에 합류하고 있다. 이들 하천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유천층군의 기반암 특성상 유량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풍화·침식에 강한 백악기 화산암(유문암, 안산암)의 기반암 특성상 계곡을 따라 높은 비고차를 보이면서 곳곳에 규모가 큰 폭포를 형성시켰다. 표충사에서 옥류동천(시전천 상류)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흑룡폭포와 층층폭포가 자리하고 금강동천 상류에는 금강폭포와 은류폭포가 펼쳐진다.

재약산과 천황산 사이의 능선은 동서사면이 비대칭적인 경사를 보이고 있다. 동사면은 능선에서 고도 750~900m까지는 14° 내외의 완만한 사면을 유지하다

가 그 이하에서는 다시 33° 내외의 급경사를 보이고 있어 전형적인 고위평탄면의 지형을 보이는 반면 서사면은 경사 33° 내외의 급사면을 유지한다(전영권, 1996).

지질학적으로 보면, 이 일대는 넓은 의미의 경상분지에 속한다. 경상분지 동남부를 따라 남해안으로 연결되는 화산대는 한국호의 여러 화산호 가운데에서도 경상호라고 할 수 있다(황상구 · 김상욱, 1994). 중생대 백악기에 구조적으로 형성된 커다란 호수에 화산 폭발로 인해 분출한 유문암 및 안산암질의 화산성 쇄설물이 퇴적되어 주요 기반암을 이루고 있다. 화산 쇄설성 퇴적암을 일명 유천층군이라 하는데 이 지역의 유천층군은 크게 하부의 중성 화산암류와 상부의 산성 화산암류로 나뉜다. 전자는 주사산 안산암질암류에 해당되고, 후자는 운문사 유문암질암류에 해당된다(김상욱 · 이영길, 1981).



표충사 일대의 지질

나. 자연 경관

재약산의 동쪽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층층폭포는 낙차가 40m에 이르는 거대한 폭포이며, 많은 유량이 흘러 절경을 자아내고 있다. 다만 낙수는 폭호로 바로 떨어지지 않고, 단단한 기반암의 오목사면을 낙차공으로 삼아 흐르면서, 폭호의 깊이는 유량에 비해 그다지 깊지 못하다. 층층폭포의 단애(cliff)는 지형학적으로 보았을 때 중생대에 시기와 분출특성을 달리한 성층지형에 해당한다. 사

진에서 볼 수 있듯이, 상부는 비교적 밝은 계통의 유문암계 암석층이 두드러지는 반면, 부정합면 아래로 비교적 어두운 계통의 안산암계 암석층이 쌓여 있다.

흑룡폭포 일대의 지질은 석영과 사장석이 우세한 안산암계의 기반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기반암은 중생대말과 신생대의 잦은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많은 구조선이 지나가고 있다. 흑룡폭포를 올라가는 계곡길에는 동결·융해로 인한 파쇄대 암설층들이 형성되어 있고, 지중풍화로 인해 형성된 풍화기반암(saprolite)이 잘 발견되고 있다. 또한 흑룡폭포는 협곡에 형성된 폭포로서, 절리면을 따라 드러난 폭포벽과 폭포가 어우러진 경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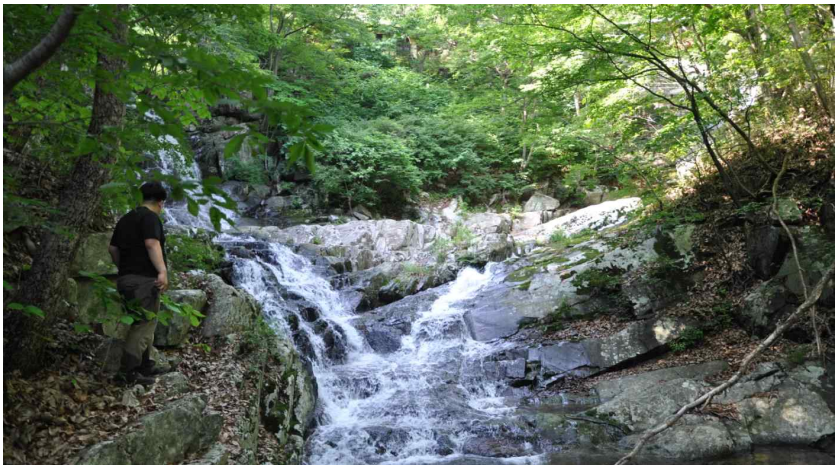


층층폭포



흑룡폭포

금강폭포는 2개의 폭포가 케스케이드의 단계 지형을 따라 낙하하면서 만나는 폭포이다. 주변의 기반암은 중생대 말부터 신생대까지 수차례에 걸친 지각변동으로 발달된 수평·수직절리가 직교로 만나고 있다. 이들은 장방형의 암석들이 노출되며 급사면을 이루기에 하천이 이를 지나면서 폭포를 이루는 케이스이다. 폭포 곳곳에서는 기반암의 표면에 집적된 절리와 나마(gnamma)도 확인할 수 있다.



금강폭포

재약산의 사자평은 고산초원지대로서 광활한 면적의 억새밭과 더불어 생물종 다양성이 높고 우수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영남알프스를 보러 온 많은 관광객들의 출입으로 인한 답압(踏壓)과 과거 군사사용작전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지속적인 인간의 간섭이 이뤄졌다. 또한 활엽수림의 침입으로 인해 현재 많은 경관훼손이 일어난 상태이다(서동진 외, 2010). 2006년 12월 '습지보전법'에 근거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들늪이 인접해 있다. 사자평은 천황산의 고지대에 있는 넓은 습지지대이자 고위평탄면이다. 이렇게 높은 지역에 습지가 있는 까닭은 지형적으로 기반암질과 관계가 있다. 큰 하천이 없는 고지대에서는 습지에 필요한 수분은 빗물을 통해서만 유입할 수 있는데, 이 때 사자평 일대는 토양성분에 점토층이 많아 습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정밀조사 때 본 사자평은 잦은 공사로 인한 인공경관이 너무 많아 자연습지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고 심한 배수가 일어나고 있으며, 불투수층 바닥을 가진 인공적인 배수로가 만들어져 배수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자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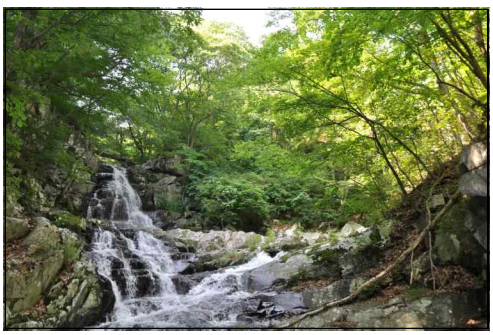
다. 식생경관적 특징

밀양 재약산은 표충사와 함께 아기자기하게 산세와 어우러져 펼쳐지는 다양한 폭포경관을 담고 있는 계곡식생지, 사자평의 대면적의 억새군락지, 진불암 주변의 전형적인 신갈나무군락지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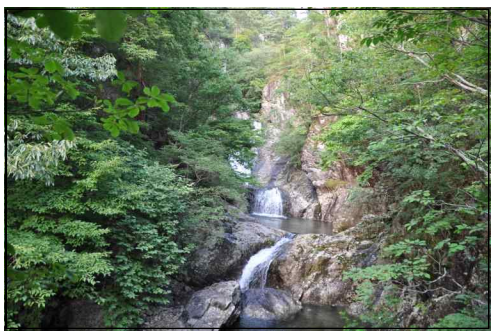
다채로운 폭포경관(층층폭포, 흑룡폭포, 금강폭포)과 어우러진 원개형 낙엽활엽수길의 조망은 매우 수려하다. 이와 같은 계곡부의 주요 식생은 다양한 자생 낙엽활엽수로서 교목층에는 굴참나무, 신갈나무, 서어나무, 소나무, 느티나무가 주요종이며 아교목층에는 함박꽃나무, 산벚나무, 노각나무, 쪽동백나무, 당단풍나무 등과 같이 꽃과 잎이 아름다운 계곡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관목 및 초본층에는 철쭉, 진달래, 말발도리, 생강나무, 덜꿩나무, 으름덩굴, 산수국, 말나리, 원추리, 꿀풀, 노루오줌, 바위채송화, 기린초 등의 아름다운 지피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사자평은 병풍처럼 펼쳐지는 신갈나무군락지를 경계로 참억새가 우점하였으며 일부 참싸리, 미역줄나무, 찔레 등의 생육범위가 확산되면서 천이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초본층에 꽃창포, 골풀, 오이풀, 노루오줌 등의 습생식물들이 우점하였다. 그러나 점차, 사자평의 육지화 및 이용에 따른 훼손이 문제화되면서 환경부에서 '사자평' 습지 복원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사자평은 밀양의 8경이자 우리나라 고산습지로서 가장 넓은 억새평원으로서 보전가치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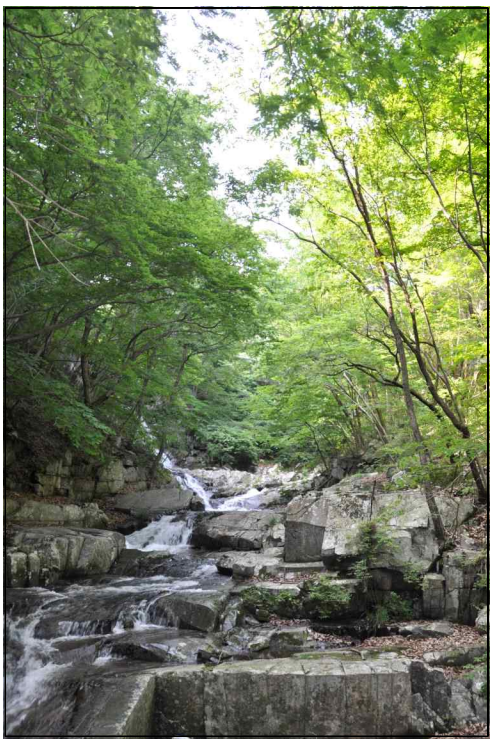
재약산의 해발고가 높은 산림식생은 신갈나무군락으로 굴참나무 및 소나무 등이 동반종이며 아교목층에 산벚나무, 팥배나무, 당단풍나무가 우점하며 관목층에 생강나무, 국수나무, 비목나무, 조록싸리 등이 우세한 전형적인 참나무류 식생구조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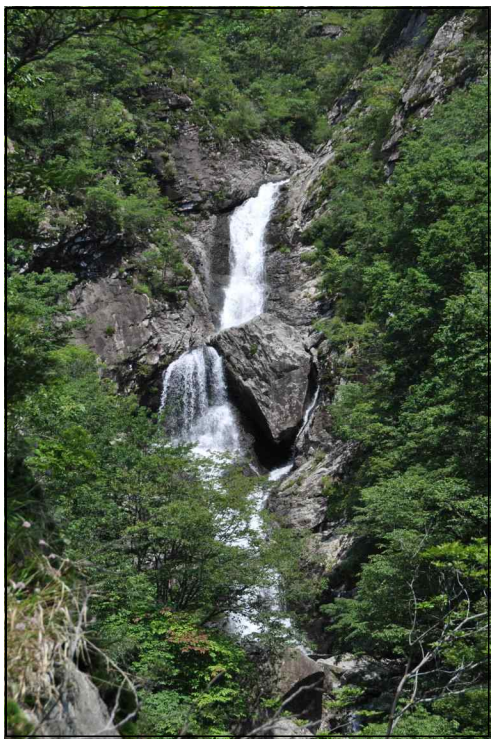
폭포와 어우러진 참나무류 포용경관(1)



폭포와 어우러진 참나무류 포용경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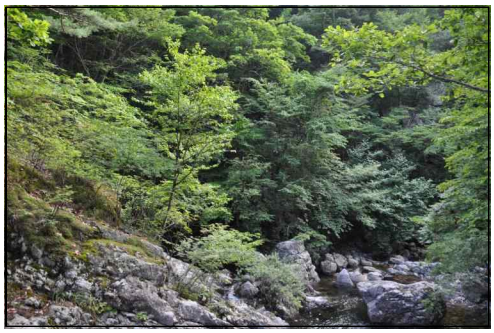
폭포와 어우러진 계곡 식생경관



협곡 형태의 폭포와 어우러진
낙엽활엽수경관



원개형의 낙엽활엽수 경관(1)



원개형의 낙엽활엽수 경관(2)



사자평의 신갈나무군락지(경계부)



사자평 초지전경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가.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

❍ 문화·역사적 가치: 재약산 표충사계곡 일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와 『여지도서』의 밀양도호부 조에 기록이 보이고, 신국빈, 손기양(1559~1617), 목만중(1727~1810) 등이 지은 옛 시문들이 전한다. 이들 시문에는 재약산과 표충사 일대의 풍광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계곡을 따라서는 금강폭포, 흑룡폭포 등 불교 및 유교와 관련된 지명들이 남아 있고, 표충사 자체는 조선시대에 유교와 불교 경관이 습합 관계 속에서 공존하게 된 특별한 의미의 문화경관이라 할 수 있다.

❍ 지형적 가치: 재약산 일대는 산세가 수려하여 삼남금강(三南金剛)이라 부르며,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준봉들로 이루어진 영남알프스의 중심에 있다. 지형적으로 가치가 있는 경관적 요소로는 사자평 일대의 고산습지와 옥류동천 상류에 발달한 비고차가 크고 웅장한 층층폭포, 흑룡폭포 그리고 금강동천 상류에 형성된 비고차가 낮지만 아늑함을 안겨주는 금강폭포를 들 수 있다. 사자평 습지는 유문암질의 화산암의 융기로 형성된 고위평탄면이고 높은 습포효과로 인해 풍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점토층을 공급함에 따라 초본류와 목본류가 밀도 높게 발달해 있다. 그리고 표충사에서 양 방향의 계곡을 따라서 형성된 폭포는 나름대로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점토 및 실트층의 토층에서 함유된 수분이 충전되어 흐름으로써 수원의 함양이 높아 보존가치가 크다.

❍ 식생적 가치: 재약산의 식생은 식물군계에서 해발고도 700m이상에서는 신갈나무군락이 분포하며 층층폭포 등의 계곡은 기존에 소나무 식생이었으나 현재 굴참나무와 공존하는 계곡식생을 나타내었다. 표충사 주위와 내원암 주변 식생은 소나무 중심경관을 형성하였으며 사자평을 중심으로 한 고산 초원지대로서의 억새군락도 특이한 식생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이와 같이 재약산은 흑룡폭포, 층층폭포 등의 거대한 물줄기와 함께 어우러진 초록지붕을 형성하고 있는 낙엽활엽수경관, 표충사 주변의 장엄한 소나무경관, 가을의 순백색 억새경관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자연경관을 연출하고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나. 지정조사 의견

❍ A 위원

○ 표충사의 배후를 이루는 산들은 깊은 수림들 사이에 대규모로 발달하는 암벽들이 독특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표충사를 두고 남동쪽으로 발달하는 수계와 북쪽으로 발달하는 두 개의 수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 두 수계를 따라 협곡과 폭포들이 만들어져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표충사 남쪽에서 동서로 발달하는 계곡의 골이 깊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잘 보존되고 있다. 상류부에 발달하는 층층폭포는 이렇게 좁은 계곡 끝부분에 넓은 개활지를 형성하며 발달하고 있다. 폭포가 상부에서 아래쪽으로 직하하지 않고 여러 번의 작은 단을 이루어 낙하하면서 층층폭포라 불리는 것으로 보인다. 폭포가 이루어져 있는 단애의 폭이 넓어 다른 폭포들과 달리 시야가 가려지지 않아 전체 전경의 폭이 넓다. 층층폭포가 규모의 폭포 혹은 남성적이라 한다면, 표충사 북쪽 계곡의 금강폭포는 비록 규모는 작으나 아기자기한, 여성적인 폭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는 재약산 일원은 훌륭한 자연유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며, 잘 보존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층층폭포 앞에 설치되어 있는 출렁다리나 금강폭포 위에 설치되어 있는 암자와 교량 등은 전체적으로 경관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 B 위원

○ 재약산은 '영남알프스'라 불리는 낙동정맥의 산군에 속하는 해발 1,189m의 높은 산으로 경상남도 밀양시와 울산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음.

○ 재약산 산역 중에서 표충사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재약산 계곡은 층층폭포, 흑룡폭포, 금강폭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다수의 폭포가 자리하고 있으며, 깊은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리는 계류는 굽이굽이 아름다운 경치를 지니고 있음.

○ 재약산 계곡은 다수의 폭포와 계류가 아름답고 청정한 계곡으로서, 명승으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 지정구역은 재약산 정상으로부터 층층폭포, 흑룡폭포, 금강폭포를 포함하며, 표충사를 제외한 구역이 바람직함.

❍ C 위원

○ 재약산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경계에 있는 산으로 산세가 수려하여 삼남금강(三南金剛)이라 부른다. 재약산은 인근 일대의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준봉들로 이루어진 영남알프스에 속하는 산이다. 수미봉 · 사자봉 · 능동산 · 신불산 · 취서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은 드넓은 억새평원으로서 사자평이라 부르는데, 일대는 해발고도가 800m에 달한다.

○ 재약산 기슭에 자리하는 표충사는 유생들을 교육하고 성현들을 제사하는 표충서원이 사찰영역 안에 있어 불교와 유교가 한 자리에 공존하는 특색있는 사찰이다. 표충사는 신라시대 때부터 고려시대까지 보우국사(889년),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국사(1286년), 천희국사(1290년)가 선풍을 관장하여 일국의 명찰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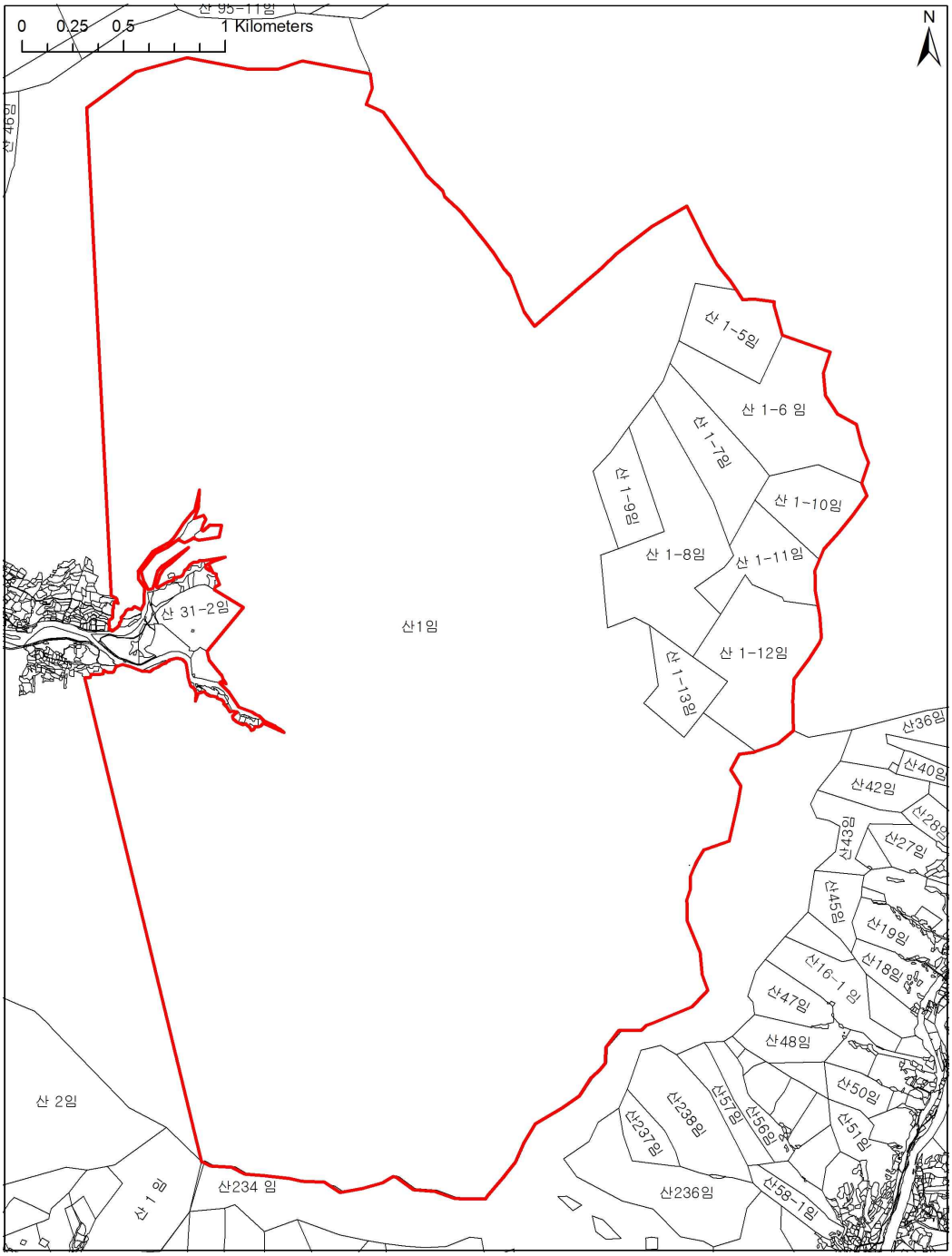
○ 예부터 명산유곡으로 이름이 높았던 표충사 일대에는 수많은 고승들이 남긴 각종 전설들이 전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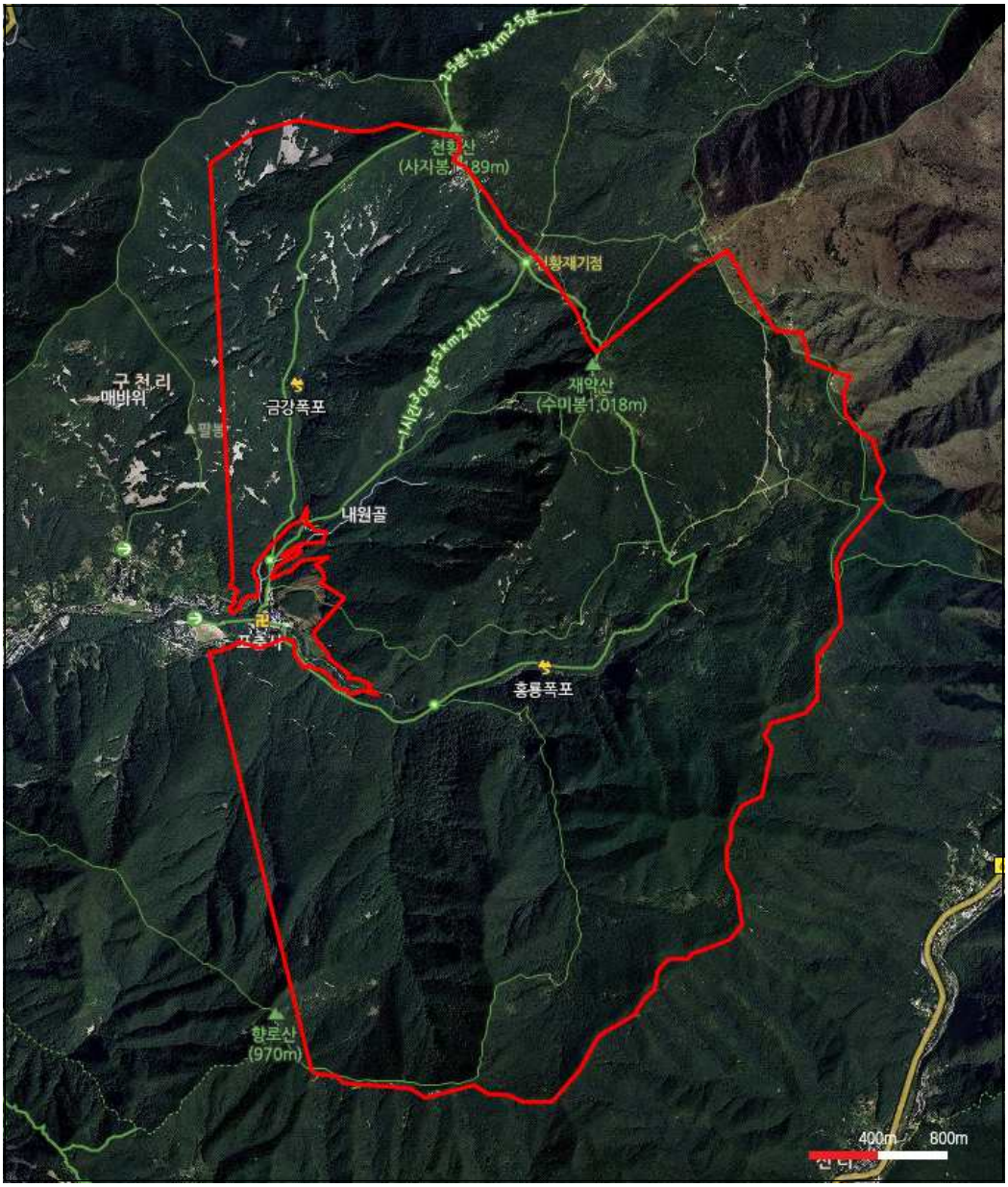
○ 재약산 표충사계곡 일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숨어있는 비경으로서 명승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다. 명승의 지정 범위

명승의 지정 명칭과 범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지정내용
명칭	밀양(密陽) 재약산(載藥山) 표충사(表忠寺)계곡
지정종별	명승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지번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1번지 외 12필지
면적	15,071,559.6㎡
관리단체	경상남도 밀양시청
문화재 지정 여부	지정 권장


0 0.25 0.5 1 Kilometers
N
산 95-11임
산 46임
산 1-5임
산 1-6 임
산 1-7임
산 1-9임
산 1-10임
산 1-8임
산 1-11임
산 31-2임
산1임
산 1-12임
산 1-13임
산36임
산40임
산42임
산28임
산43임
산27임
산45임
산19임
산18임
산16-1 임
산47임
산48임
산50임
산238임
산57임
산237임
산556임
산51임
산236임
산58-1임
산 2임
산 1 임
산234 임


2.5분1.3km2.5분
천황산
(사자봉,
89m)
시황제기점
1시간30분2.5km2시간
재약산
(수미봉1,018m)
구 천 리
매바위
금강폭포
내원골
홍룡폭포
향로산
(970m)
400m
800m

6) 양산(梁山) 천성산(千聖山) 화엄(華嚴)벌



화엄벌 일원의 억새밭

(1)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원적산(圓寂山), 천성산(千聖山), 소금강산(小金剛山)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불지사(佛池寺)가 원적산(圓寂山)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명칭	지리지	세부 항목	내 용
원적산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산군	고을 북쪽 20리에 있으며, 혹은 천성산(千聖山)이라고도 하고, 또는 소금강산(小金剛山)이라고도 한다. 불지사(佛池寺)가 있다. 절 북쪽 바위 언덕 아래에서 샘이 솟아 나오는데 빛이 금과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산군	고을 서쪽 56리에 있다.

(2) 고시문

천성산에 대한 고시문은 주로 천성산의 빼어난 경관을 읊은 것으로 천성산을 유람하며 내원사에 도달할 때까지 나타나는 아름다운 골짜기, 벼랑, 바위 등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이 많다. 각 작품 별 내용을 번역 및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천성산-시(詩)	남경희(南景羲)	『치암집(癡庵集)』(권3)	<소봉 이자형공과 천성산에서 노닐다가 내원사에 이르러 시를 읊다(與小峯李公子衡, 遊千聖山, 到內院呼韻)>
	이안눌(李安訥)	『동악집(東岳集)』(권23)	<원적산으로 돌아가는 경일 상인에게(贈別敬一上人還圓寂山)>
천성산-문(文)	강위(姜瑋)	『고환당수초(古歡堂收艸)』(문고 권2)	<천성산 삼성암에서 결사하여 모연(募緣)한 글(千聖山三聖庵結社募緣文)>
	남경희(南景羲)	『치암집(癡庵集)』(권6)	<다시 원적산을 유람하고 기록하다(再遊圓寂山記)>

<시(詩)>

1. 남경희(南景羲, 1748~1812), <소봉 이자형공과 천성산에서 노닐다가 내원사에 이르러 시를 읊다(與小峯李公子衡, 遊千聖山, 到內院呼韻)>, 『치암집(癡庵集)』卷3

들쭉날쭉 골짜기 이 맞물리듯 산세 이어지다 / 亂峽交牙勢若連
탁 트이니 바로 별천지로구나. / 穿來別是洞中天
절벽 의지한 암자엔 구름 머물러 있는데 / 庵依絶巘雲應宿
가파른 벼랑으로 꺾여들자 말 나아가지 않네. / 路轉危崖馬不前
담장 둘레 나무들 더욱 조밀하고 / 衆樹圍墻添邃密
문 앞 층층 바위 높고 단단해 보이네. / 層巖當戶覺高堅
온산에 눈바람 불제 은근한 마음 베풀어주니 / 滿山風雪慇懃意
그저 은거할 곳 찾을 뿐 어찌 선(禪)을 좋아해서겠는가. / 只取冥棲豈愛禪

* 조선 후기의 문신인 남경희(南景羲)가 천성산을 유람하고 내원사에 도달하여 쓴 시이다. 산세가 깊고 험한 길을 따라 절을 찾아가는 모습과 절 주변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골짜기는 치아가 맞물리듯이 이어져 있고 절은 벼랑에 세워져 있으며, 위태로운 벼랑에 길이 구불구불 꺾이어 말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무성한 나무가 절 담장을 에워싸고 층층 바위가 높고 굳건하게 절 문 앞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그렸다.

<문(文)>

1. 강위(姜瑋, 1820~1884), <천성산 삼성암에서 결사하여 모연(募緣)[30]한 글(千聖山三聖庵結社募緣文)>, 『고환당수초(古歡堂收艸)』 문고 卷2

저는 벗들과 마음을 같이 하여 일찍이 은거하리라[31] 약속했는데, 문장에 서로 감응하여 또한 이웃으로 삼아 거처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중략…) 수계(修禊)[32]를 하여 어진 이들이 모두 이르렀고, 또한 결사를 만들어 뜻을 함

30) 모연(募緣): 착한 인연을 맺을 사람을 모집한다는 뜻으로, 절에서 기와를 갈거나 건물을 짓는 등의 불사를 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재물을 보시하도록 권하는 것을 말한다.
31) 은거하리라: 원문의 '開逕', 도잠(陶潛)의 〈귀전원(歸田園)〉에 "내 본심이 정히 이와 같으니, 오솔길 내고 좋은 친구만 바라노라.(素心正如此 開逕望三益)" 라고 하였다. 오솔길은 한(漢)나라 때 은사(隱士) 장후(蔣詡)가 일찍이 자기 문정(門庭)에 세 오솔길을 내놓고 구중(求仲)과 양중(羊仲) 두 사람하고만 종유했던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은자의 처소를 말한다.
32) 수계(修禊): 물가에서 노닐면서 불길한 재앙(災殃)을 미리 막던 풍속으로, 보통 삼월 삼일에 행하였다.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의 난정 수계(蘭亭修禊)에 대한 고사가 유명하다.

께하는 이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는 이른바 남촌에 순박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 있어 아침저녁으로 왕래했다는 일 같은 것이요[33], 동림의 아름다운 일[34]이 고금에 빛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근기가 용렬함에도 외람되이 일찍부터 상승(上乘)[35]을 사모하였는데, 창문 종이를 뚫고 들어온 벌은 괴롭게도 벗어날 기약이 없고[36], 새끼를 안고 조는 석호(石虎)[37]는 광명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병통을 함께 안고 지냈으니, 들은 바가 적은 것이 허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경동(京東)의 옥 쌓인 지역에서 세속 바깥의 황금 깔린 땅[38]을 특별히 점지하여, 삼성(三聖)이 산에 내려와 비로소 그 터의 이름을 전하고, 천불(千佛)에 구름이 피어나 아름다운 조짐을 예고하였습니다. 게다가 바위 골짜기 숨어있으면서도 빼어나며, 샘과 돌 그윽하면서도 기이합니다. 여기에 백년 된 나무 동산이 있어 하루새에 띠집이 완성되길 기다렸다가 두세 군자와 아름다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18명의 어진 이들이 함께 성대한 모임을 이루니 대운사에서 바로 누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끝마침에도 반드시 때가 있으니 정토에 재화와 곡식을 미리 쌓아놓고 어찌 길이 없다고 말합니까? 욕계(欲界)를 벗어나 멀리 형체 너머의 인연을 맺어 승경지에서 노니니 이미 눈앞에 즐거움이 있고 마음으로 사람들을 묶어 통역관의 말 빌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수긍된다면 책 끝에 서명을 해 주십시오.

伏以故舊同心。尙有開徑之約。文章相感。亦多買隣之人。故羊裘跡著千秋。王，杜名傳四海。矧欲證萬刼不壞之身。度十方無量之衆者。旣登無上大道。俱八不二法門。龍象之姿。縱難多得。風雲之骨。必須相成。故聲氣遠投。燥濕各就。有修禊而群賢畢至。亦聯社而同志共參。是謂南村素心。往來晨夕。東林勝

---

33) 남촌에 … 것이요: 도연명(陶淵明)의 시에서 온 말. "옛날 남촌에 살고자 한 것은, 그곳에 복거(卜居)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씨 고결한 사람 많다기에, 아침저녁 그들과 즐기려 함이라네(昔欲居南村, 非爲卜其宅. 聞多素心人, 樂與數晨夕)."

34) 동림의 아름다운 일: 동진(東晉)의 고승 혜원(惠遠)이 여산(廬山)의 동림사(東林寺)에서 유유민(劉遺民)·뇌차종(雷次宗) 등 명유(名儒)를 비롯하여 승속(僧俗)의 18현(賢)과 함께 염불 결사(念佛結社)를 맺었던 일을 말한다. 그 사찰의 연못에 백련(白蓮)이 있기 때문에 백련사(白蓮社)라고 일컬었다. 《蓮社高賢傳 慧遠法師》

35) 상승(上乘): 최상의 교법(敎法)을 뜻하는 불교 용어.

36) 창문 종이를 … 없고: 《전등록(傳燈錄)》에 "신찬선사(神贊禪師)가 하루는 벌 새끼가 창지(窓紙)를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말하기를 '세계가 저렇게 광활한데 선뜻 나가지 못하고 고지(故紙)만 뚫는구나.' 하였다."는 말이 나온다.

37) 석호(石虎): 선문(禪門)의 오도어(悟道語)에 '바위 위의 석호는 새끼를 안고 존다.(巖上石虎抱兒眠)'는 말이 있다.

38) 황금 깔린 땅(布金): 황금을 땅에 깐다는 뜻으로, 사원 건립 기금을 시주하는 불교 신도를 가리킨다.

事。焜燿古今者也。鄙等猥以劣根。夙慕上乘。窓蜂鑽紙。苦無出脫之期。石虎抱兒。莫造光明之域。抱玆同病。咎在寡聞。乃於京東積玉之區。特占世外布金之地。三聖嶽降。肇傳名基。千佛雲興。預告佳兆。且其岩壑隱秀。泉石幽奇。有此百年樹園。待成一日茅棟。得與二三君子。同結勝緣。有如十八賢人。共修盛會。則大雲卽成樓閣。終必有時。淨土預峙資粮。豈曰無路。超出欲界。遠締形外之因。徜徉勝區。已有眼前之樂。以心契人。無借譯於臺舌。有首肯者。請署名於卷端。

* 19세기 후반에 작성된 강위(姜瑋)의 글이다. 강위는 김택영, 황현, 이건창과 더불어 한말 사대가로 일컬어질 만큼 시문으로 명성이 높았던 인물이며, 이 글은 천성산 삼성암의 불사를 위해 신도들에게 보시할 것을 권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삼성(三聖)이 산에 내려와 터의 명성이 전해졌고 천불(千佛)에 구름에서 일어나 좋은 조짐을 미리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위와 골짜기가 깊고도 빼어나며 물과 돌이 그윽하면서도 기이하여 백년의 원림이 여기에 있으니,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서명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남경희(南景羲, 1748~1812), <다시 원적산을 유람하고 기록하다(再遊圓寂山記)>,『치암집(癡庵集)』卷6

임자년(1792, 정조 16)에 이자형(李子衡)과 원적산의 여러 암자를 둘러보며, 내원(內院)과 금봉(金鳳)에서 묵고, 원적(圓寂), 성불(成佛), 서암(西庵)을 들렀다. 어떤 이는 다 보았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다 보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도 하였는데, 한겨울이라서 흥이 떨어져 금봉(金鳳)으로 돌아왔다.

歲壬子。余與李子衡。觀圓寂山諸庵。所宿二庵內院，金鳳也。所歷三庵圓寂，成佛及西庵也。或曰可觀盡於是。或曰是不足以盡之。時當大冬。朔風敗興。遂從金鳳歸。

경신년(1800, 정조 24) 윤 4월 계해일에 이용호, 박문응, 임지국, 윤용견과

함께 석계(石溪)를 따라 갔다. 호미(虎尾) 장군이라는 사람도 함께 갔다. 운흥동천(雲興洞天) 길로 갔는데, 물소리와 나무 모습이 맑고 그윽하여 좋았다. 폐사(廢寺)가 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사자암(獅子庵)에서 묵었다. 갑자일에 중이 술을 내오기에 가지고 따라오라 하고는 고개를 넘어 풀숲에 앉아 술을 돌렸다. 술이 반쯤 거나하게 돌자 문응에게 노래를 청하였는데, 호미가 제대로 화답을 했다. 길이 험해서 말이 다닐 수 없었기에 말을 데리고 혼 호미장군은 대둔(大芚)에서 기다리게 했다. 조계(曹溪)를 지나 안적암(安寂庵)에서 식사를 했다. 암자는 깨끗하고 고요하여 청아하게 앉았노라니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다. 암자의 승려가 길을 인도하여 계곡을 따라 내려갔는데 종종 기이한 곳이 있어 그때마다 고요히 쉬며 생각을 맑게 한 뒤에 내려갔다.

庚申之歲閏四月癸亥。携李用浩，朴文應，任持國，尹龍見。從石溪往。所謂虎尾將軍者亦從。取道雲興洞天。泉聲樹影。淸幽可喜。吊廢寺宿獅子庵。甲子僧進酒。令携而從之。踰嶺坐草行盃。酒半請文應歌。虎尾能和。路險不通馬。虎尾有馬。使迤行待於大芚。歷曹溪食安寂庵。庵蕭灑窈窕。淸坐不忍去。庵僧引路。循溪而下。往往有奇處。輒靜憩澄慮然後乃去。

대둔점(大芚店)에서 백 보 못 미치는 곳에 다다르자 맑은 못과 푸른 벽이 더욱 기이했으니, 예전의 유람이 미진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둔점(大芚店)에 이르자 호미장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홍구(紅薑)를 먹었다. 모두들 불지(佛池)[39]가 청아하여 볼 만하다고 했다. 술이 없을 수 없어 승려에게 호리병을 가지고서 앞서도록 했다. 남쪽으로 높은 고개를 넘자 서쪽으로 천 척 높이의 깎아지른 듯한 바위가 보였는데, 우뚝 솟은 모습이 낯이 익은 듯했다. 구덩이에 물이 있으니 근원 없이 물이 흐를 수 없는 법인데, 단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것만 보였다. 이곳이 이른바 불지(佛池)였다. 땅이 온통 황금빛이어서 매우 괴이했다. 용호가 바위 속에 철액(鐵液)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치상 혹 그러한 것인가 싶었다. 승려가 술을 따라 주자 문응이 여러 차례 노래를 했다. 날도 저물고 해서 성불암(成佛庵)에서 묵었다. 수심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창에 가득한 달빛이 매우 좋았다.

39) 불지(佛池): 원적산 불지사 북쪽 바위 언덕 아래에서 샘이 솟아 나오는데 금빛으로 빛난다고 한다.

幾及大苫店百步。澄潭翠壁益奇。覺昔者之遊未盡也。至店虎尾果待。食紅薑。咸曰佛池淸賞。不可無酒。命僧携壺前行。南踰峻嶺。西見千尺削石。偃謇如相識。其竇有水。不源不流。但見滴滴下墜。所謂佛池也。滿地黃金甚恠。用浩曰石中鐵液。理或然歟。僧酌酒。文應歌數闋。日且夕矣。宿成佛庵。愁蝎不寐。滿牕月色甚宜。

을축일에 원적암에 갔다. 호미 장군은 인사하고 떠났다. 원적암 앞은 골짜기가 깊고 물이 맑고 바위가 하얬다. 반타석(盤陀石)에 잠시 앉았다가 다시 남쪽으로 높은 고개를 넘어갔다. 용호와 문응도 뒤따랐다. 우리 셋이서 견성암(見性庵)을 찾아갔는데, 길이 매우 험하여 여러 차례 꺾어 돌아간 뒤에야 당도할 수 있었다. 견성암을 따라 수십 보를 내려오자 열 장(丈) 높이 되는 폭포가 나왔다. 지팡이 짚고 고요히 감상하다가 내려와 내원(內院)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피곤해 서루(西樓)에 누웠다. 식사를 하고도 아직 날이 일렀는데 두 사람은 머물고 싶어 했으나 지국이 안 된다고 하였다. 마침내 길을 나서서 동쪽으로 큰 고갯길을 올라갔다. 멀리 적멸굴(寂滅窟)을 바라보니 푸른 바위 모양이 그림 같았다. 그 옆에 암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했다. 고갯마루로부터 조금 내려와 북쪽으로 꺾어 올라갔다. 오르락내리락하기를 수차례 하며 언덕으로 난 작은 길을 힘차게 걸어가 미타암(彌陀庵)에서 묵었다.

乙丑至圓寂庵。虎尾辭去。庵前谷深。水淸石白。小坐盤陀石。又南踰峻嶺。用浩，文應後。余三人尋見性庵。路極險。屢屈折乃得。從庵降數十步。得十丈飛泉。植杖靜觀。乃下入內院。二人者憊卧西樓矣。旣食日尙早。二人欲留。持國不可。遂行東登大嶺道。望寂滅窟。石狀蒼然如畫。傍有庵今廢云。從嶺頭乍降。折而北登。登降者數。懸岸細路。履之凜然。宿彌陀庵。

병인일에 적멸굴을 보러 갔다. 굴이 매우 기궤하고 바위 모습이 특이하고 빼어나서 나는 그제서야 본 것을 탄식했다. 벼랑을 따라 길을 잡아 3리 쯤 가자, 토대가 이리저리 얽혀 있어 옛 절터임을 알 수 있었으니 곧 적수암이었다.

丙寅觀窟。窟極奇詭。巖姿特秀。余於是歎其見之晩也。循崖取道北三里許而

土臺盤結。有舊址可辨。卽滴水庵也。

서병(西屛)이 빙 둘러 있었고 남쪽 바위와 북쪽 절벽이 동쪽으로 커다란 평야를 굽어보고 있었으니, 광활함과 깊음 모두 딱 들어맞았다.[40] 기이한 석인(石人)을 세워 문을 삼았고, 폭포가 서병(西屛)의 북쪽에 솟아 있었는데, 우러러 보니 흰 비단 같았다.

環以西屛。南巖北壁。東臨大野。曠奧皆適。北壁之終。異石人立爲門。飛泉出西屛之北。仰之如白練。至臺北抱盤陀石而落。從西屛至平地。可稱萬丈瀑。絶頂之側。泉石如此。奇哉奇哉。咸以爲玆山之遊。於玆極矣。

석문(石門)을 나서 수백 보를 걸어가 다시 계곡을 따라가다 쉬었는데 굽이굽이 맑고 고운 풍광을 차마 떠날 수 없었다. 백명촌(百椧村)에 이르자 마을 사람이 또 말하기를, 물이 떨어지는 곳 위의 석병(石屛) 사이에 금빛 물이 있는데 불지(佛池)보다 낫다고 했다. 승려가 싫어하여 유람하는 이들이 그곳에 가볼 수가 없었다. 다시 낙담하며 돌아보는데 산수의 기이함이 대단했다. (중략) 무릇 천하의 일은 그 끝까지 나아가지 않고서 그 아름다움을 다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나아가되 그칠 줄을 모른다. 백 리를 가는데 구십 리를 가서 그만두면 절반만 한 것이라고 한다. 예전에 미진한 바가 어찌 다만 십 리뿐이겠는가? 이에 앞서 구경한 것과 이번에 구경한 것, 마을 사람에게 들은 것을 함께 기록하였는데, 이번 유람에서 아직도 다 보지 못 한 것을 한탄하면서 아울러 중도에 그만두는 자들을 경계하는 바이다.

出石門數百步。復循溪流憩。曲曲淸麗不忍別。至百椧村。村人又言滴水上石屛間。有金水勝佛池。僧諱之。遊者莫能至。又爲之悵然回望。甚矣山水之奇也。因思昔者二或人之言。以爲盡觀之者。阻人之進者也。以爲不足以盡之者。勉人進乎極也。凡天下事。不造其極。不足以盡其美。故君子進而不知止。行百里者。九十里而止。謂之半也。昔者所未盡。豈特十里哉。遂幷記前後所觀及所聞於村人者。歎玆遊之猶未盡。而且以警夫世之半塗而止者。

---

40) 광활함과 … 들어맞았다: 당나라 문인 유종원(柳宗元)이 《永州龍興寺東丘記》에서 말하기를, "유람하기에 좋은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 광활함과 그윽함 이 두 가지뿐이다.(遊之適, 大率有二: 曠如也, 奧如也, 如斯而已.)" 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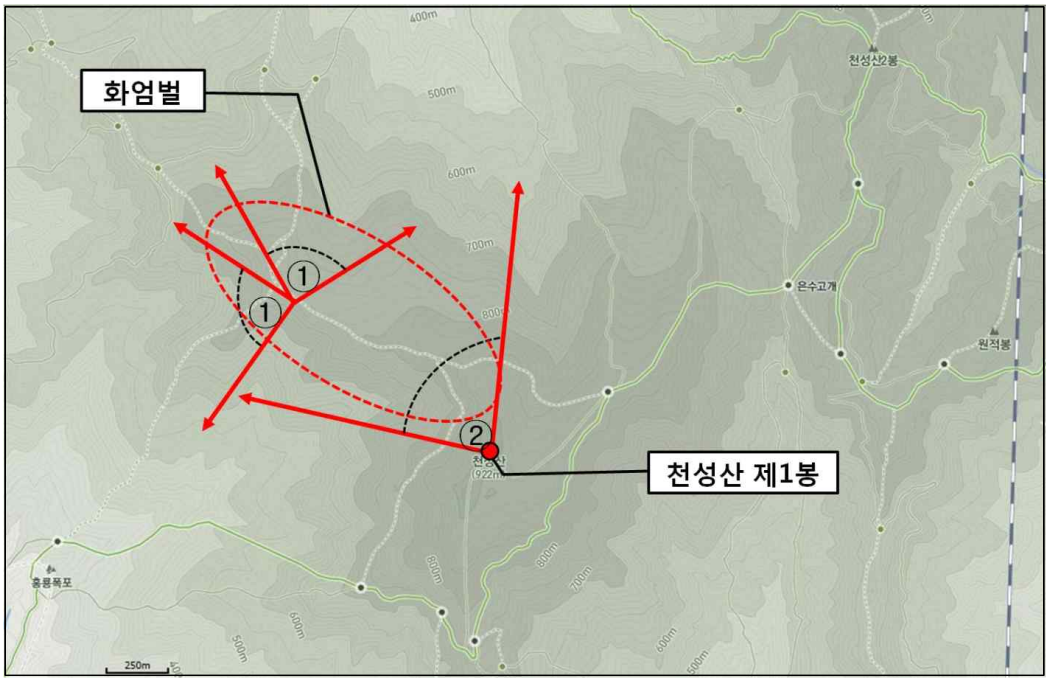
* 조선후기의 문인인 남경희(南景羲)가 원적산을 거듭 유람하며 남긴 글이다. 유람 경로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두 차례의 유람에서 유람 경로와 대상을 달리하면서도 아직 충분히 구경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운흥동천(雲興洞天)-(獅子庵)-조계(曹溪)-안적암(安寂庵)-대둔점(大芚店)-불지(佛池)-성불암(成佛庵)-원적암-견성암(見性庵)-내원(內院)-미타암(彌陀庵)-적멸굴(寂滅窟)-적수암(滴水庵)-백명촌(百榠村)에 이르는 노정이 자세하다.

(3) 실경산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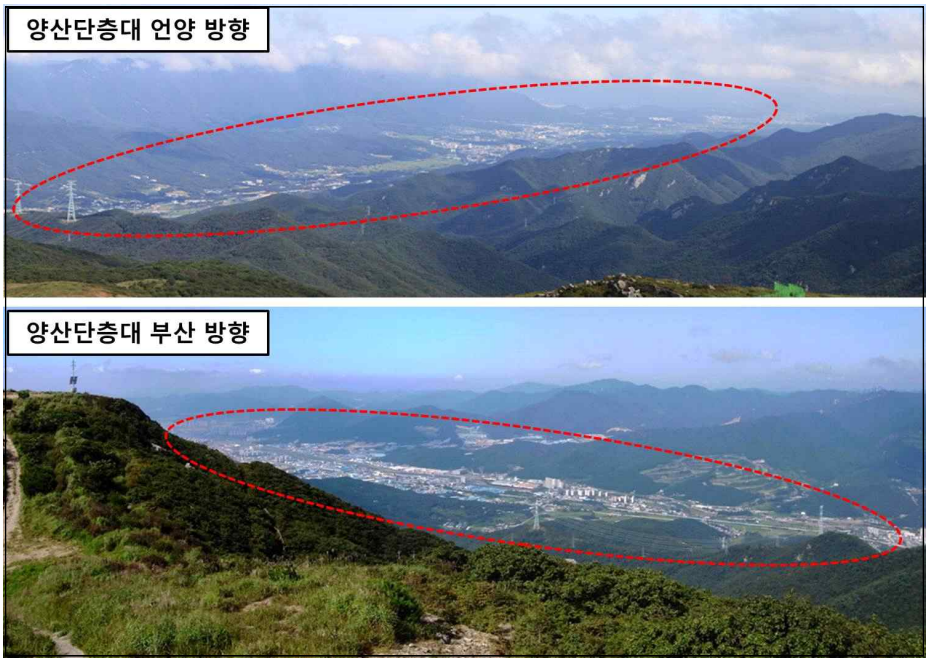
- 자료 없음.

(4) 현재적 재구성

고시문에 원적산, 원효산이라고도 표현된 천성산은 산 정상부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능선에는 억새가 자생하는 거대한 늪(화엄늪)이 형성되어 있다. 천성산 제1봉은 과거 공군 부대가 입지해 있었지만 지금은 철거되어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 천성산 제1봉에 오르면 사방이 틔어 있어 쾌청한 날이면 가시거리가 길게 나타나며, 화엄늪 전체와 양산단층대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해당 경관을 지도와 함께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화엄벌에서 바라본 양산단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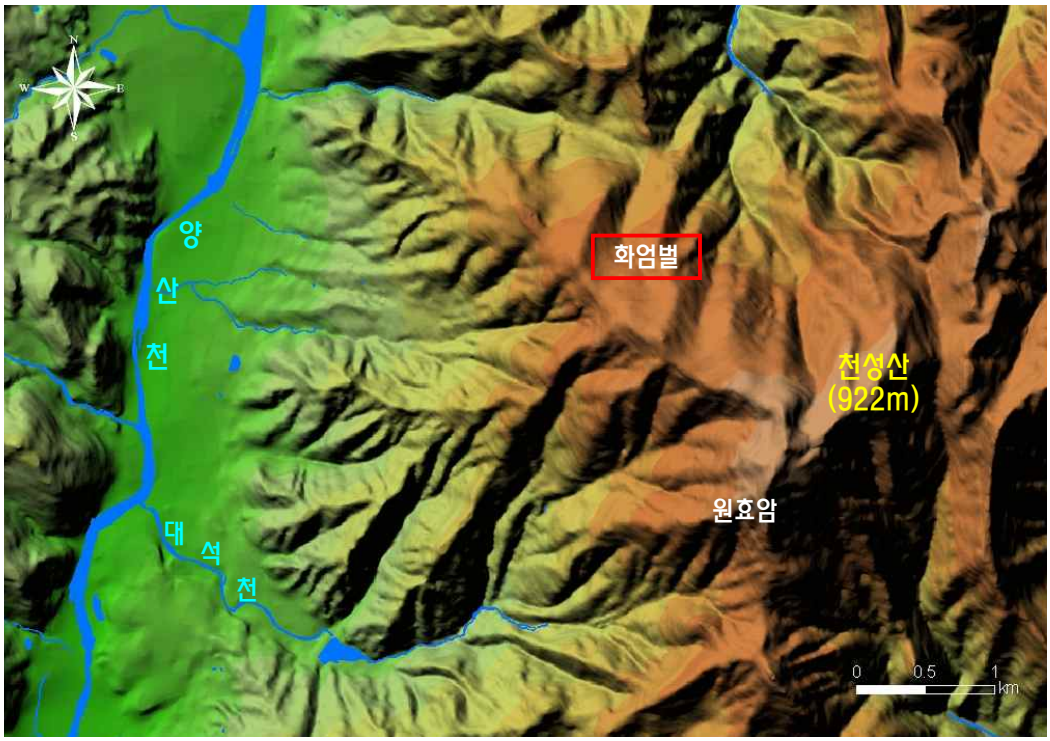


② 천성산 제1봉에서 바라본 화엄벌



(5) 지형 및 식생 분석

가. 지형 및 지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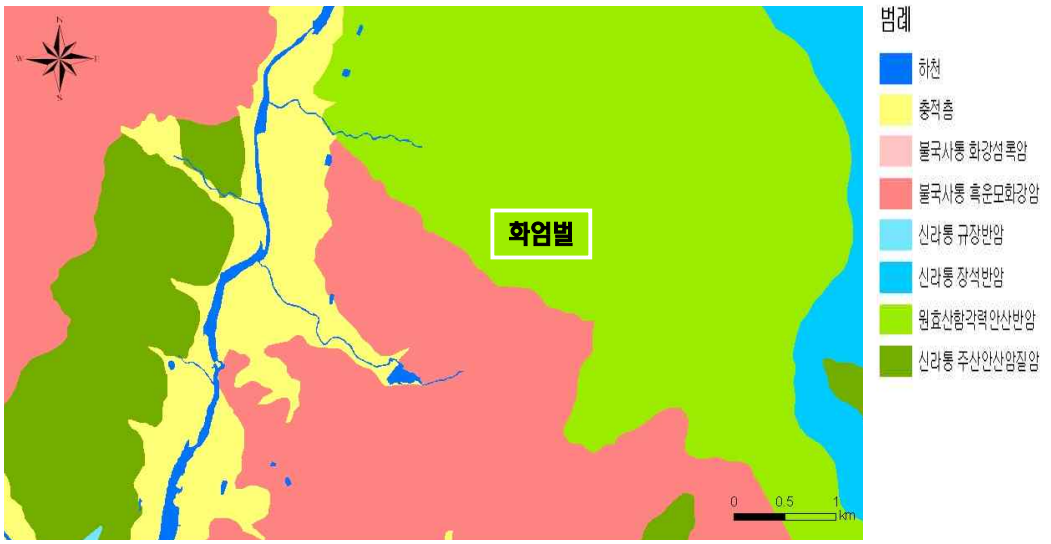


화엄벌 일대의 지형(DEM)

천성산(811.5m)은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뻗어있는 험준한 산악지형이다. 천성산과 정족산을 잇는 능선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양산단층, 동쪽에는 동래단층이 각각 위치하여 한반도의 동남부를 관통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단층대를 따라 주요 하천인 양산천과 회야강이 흐르고 있다. 이 두 주요 하천 사이의 산악 지역은 산 능선부를 중심으로 뚜렷한 비대칭 지형을 이루고 있다. 우선 서사면은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깊고 유로가 긴 계곡들이 발달한 반면, 동사면은 가파른 급사면을 형성하고 골짜기 발달이 미약하다. 이 때문에 산악하천은 대부분 서사면을 따라 양산천으로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또한 천성산의 하천하계망은 규칙적인 단열을 따라 격자상 하계망(trellis drainage pattern)을 유지하고 있다(손문 외, 2003).

천성산 1봉은 천성산과 원효산을 통합하여 일컫기 전에는 원효산이라 불리던 산이다. 양산의 최고 명산으로 웅상, 상북, 하북 3개 읍면에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해발고도 922m이다. 산 정상부에 과거 공군 부대가 입지해 있던 터가 남

아 있으며 그로 인해 정상부 및 그 주변에 인위적인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나 천성산 정상부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능선에 위치한 화엄늪은 2002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화엄벌 일대의 지질

한반도의 동남부 경상분지는 중생대 말에 거대한 화산 활동의 장이었으며 그 결과로 중성 내지 산성화산암류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경상남도 양산군의 천성산과 그 주변 일대에도 안산암질암, 데이사이트질응회암 및 유문암질응회암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김진섭 · 성종규, 1996). 천성산 일대의 지질은 지질계통과 암상에 따라 하부로부터 접촉변성작용을 거의 받지 않은 경상누층군 하양층군, 후기 화산암류와 화강암류의 화성활동에 의해 접촉열변성작용을 받아 호온펠스화된 하양층군, 이를 정합적으로 피복하고 있는 유천층군 화산암류, 이들을 관입한 불국사화강암류, 그리고 최후기 산성 및 염기성 암맥들로 구성된다.

위 지질도에서는 데이사이트질응회암을 원효산함각력안산반암, 유문암질응회암을 장석반암으로 기재하고 있다. 천성산을 중심으로 화엄벌을 포함한 동쪽 일대는 유문암 및 안산암이 주를 이루고 있고 양산단층대의 균열을 따라 불국사화강암이 관입하면서 화강섬록암, 흑운모화강암, 각섬석흑운모화강암이 서쪽에 대상으로 나타난다. 원효암 일대는 주로 안산암 계통의 화산암이 충분히 개석되지 못한 채 괴상의 노두로 드러나 있고 화엄벌 일대는 고위평탄면이라는 지형적 요건으로 인해 유문암질응회암의 풍화산물인 미립질의 점토층이 두텁게 쌓여 고산습지의 경관으로 나탄난다. 반면 대석천 일대는 불국사 화강암의 개석으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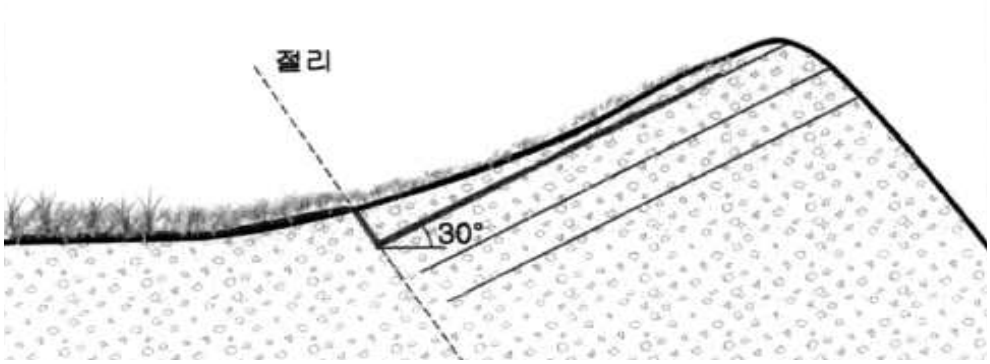
해 홍룡폭포 같은 급애면이 발달하거나 양산천과 합류하는 구간처럼 단열의 밀도가 높은 지역은 곡저평야를 형성하여 인간생활의 터전을 제공한다.

나. 자연 경관

천성산의 정상부는 고위평탄면으로 과거 군부대가 주둔했으며, 바로 밑은 화엄늪(93,000㎡)으로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일대에 초본류 중심의 넓은 습원이 형성될 수 있었던 기후지형적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주능선 정상부에서는 절리 상부 사면에서 탈거된 토양이 절리 하부 사면에 쌓이면서 평탄한 지형이 형성되었고, 절리를 통해 용출된 지하수가 흐르면서 늪지가 발달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동해안과 인접하여 습윤한 바람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었고 이러한 수증기의 습포효과로 인해 기반암인 안산암의 풍화가 촉진되어 미립질의 산물이 다량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천성산 정상 화엄벌



절리를 따른 지하수의 용출(출처 : 손명원·장문기, 2009)

다. 식생경관적 특징

경남 양산에 위치한 천성산 화엄벌은 개방된 초지경관인 참억새평원과 생태학적으로 희귀한 산지습지로서 화엄늪의 가치가 크다. 천성산 남서쪽 능선부에 형성된 산지형 습원인 화엄늪은 해발 756~830m에 걸쳐 형성되어 있으며 200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화엄벌의 식생경관은 교목식생지, 아교목식생지, 관목식생지, 건조지성 초본식생지, 습윤지성 초본식생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교목식생지는 신갈나무, 물푸레나무가 우점하였으며 아교목식생지는 쇠물푸레나무, 붉나무, 뽕나무, 왕버들 등이 우세하였다. 관목식생지는 미역줄나무, 철쭉, 산철쭉 등이 우점종이었으며 건조지성 초본식생지는 참억새가 대군락을 이루었고, 습윤지성 초본식생지는 진퍼리새, 꽃창포, 가는잎그늘사초 등이 분포하였다.

화엄늪 내 식물상은 환경변화에 민감한 희귀종으로 끈끈이주걱, 두루미천남성, 이삭귀개, 키큰산국과 특산종으로 지정된 좀비비추, 지리대사초, 털둥근이질풀, 분취 4종은 습지의 육상화 진행시, 멸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이수동 등, 2012).

이와 같이 화엄벌은 희귀한 야생화와 곤충들의 귀중한 생태계의 보고로서 습지경관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임도개설 및 인위적 간섭 등으로 유입된 달맞이꽃, 미국개기장, 붉은서나물 등의 귀화식물 등이 확대되어지고 있는 현황이었으므로 이에 따른 자생적 습지 및 초지 복원계획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엄벌 식생경관



물푸레나무



미역줄나무



철쭉



꽃창포



선이질풀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가.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

❍ 문화·역사적 가치: 천성산 화엄벌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양산군 조에 기록이 보이며, 조선 후기에 이안눌, 남경희, 강위 등이 지은 옛 시문들이 전한다. 이들은 천성산의 빼어난 경관을 읊고 있고 이 산에 입지한 내원사에 이르는 수려한 계곡과 바위에 대한 내용도 기록하였다. 특히, 천성산 정상부에 펼쳐진 화엄벌은 원효 대사가 천명의 스님에게 설법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전설의 장소로서의 문화적 의미가 있다.

❍ 지형적 가치: 천성산 화엄벌 일원은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뚜렷한 양산단층대와 울산단층대를 따라 하천이 개석하고 남아 있는 화산잔류암체이다. 주요 기반암이 안산암 및 유문암 계통으로 빠르게 일어나는 표층풍화로 인해 점토 및 실트 등의 미립물질의 공급이 탁월하고 부분적으로 단층작용에 따라 수평 및 수직절리가 발달하여 기암괴석의 암봉, 노두가 잘 관찰된다. 화엄늪

은 지형적으로 횡압력에 따른 융기운동의 결과 형성된 고위평탄면으로 남동해안에서 불어오는 습윤한 공기가 머물면서 높은 습포효과(wet sponge effect)로 인해 풍화가 촉진되면서 형성된 고산습지이다.

❍ 식생적 가치: 경남 양산에 위치한 천성산 일대는 식물구계학적으로 남부아구에 속하며 비교적 전 지역에 참나무류가 우점하고 능선부에는 소나무 등의 침엽수가 분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소나무군락, 신갈나무를 중심으로 하는 참나무류군락, 서어나무군락, 개서어나무군락, 느티나무군락, 소나무-참나무류혼효군락, 진퍼리새군락, 편백나무식재림, 잣나무식재림, 사방오리식재림, 아까시나무식재림 등의 자연림과 인공림으로 구분된다(박성현, 2006). 희귀 야생식물인 끈끈이주걱, 두루미천남성, 이삭귀개 등을 비롯하여 관속식물은 총 502종류(박성현, 2006)로서 다양하다. 특히, 화엄벌은 억새평원이자 고산습지로서 수평적 개방경관을 제공하며, 희귀식물의 보고인 화엄늪이 능선부에 자리 잡고 있어 학술적 가치로서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나. 지정조사 의견

❍ A 위원

○ 천성산은 대략 남북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연봉 중 하나이다. 이 산체의 동쪽과 서쪽은 울산, 양산, 언양 등으로 이미 도시화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이다. 천성산 정상에서 조망하면 동쪽이나 서쪽으로는 이러한 도시화 현상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천성산 정상에 과거 군이 주둔하였던 터라 지형은 이미 상당히 변형되었다. 그러나 군 주둔지를 벗어난 지역은 역설적으로 잘 보존될 수 있어 수목의 발달이 양호하다. 인접한 화엄벌은 현재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천성산 정상을 조망점으로 하였을 때 우수한 경관성을 보인다. 다만 앞으로 군사시설로 훼손된 지역에 대한 자연적 복원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자연복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B 위원

○ 해발 922m의 천성산은 ‘영남알프스’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는 산으로서, 산 정상부의 고지가 평원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평원에 고산습지가 발달해 있는 특이한 곳임.

○ ‘화엄늪’이라 불리기도 하는 천성산 고산습지대는 억새를 비롯해 많은 고산습지식물이 자라고 있어 식물생태경관의 귀중한 장소로 알려진 곳이며, 특히 억새가 피면 대단히 아름다운 억새경관이 많은 등산객을 부르는 고원이기도 함.

○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산상을 붉게 물들이며, 고산습지에 자라는 특이한 식충식물인 끈끈이주걱과 같은 희귀한 고산습지식물은 매우 중요한 식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천성산 화엄벌은 고산평원지대의 고원경관으로서의 가치와 고원에서 멀리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다운 조망지점으로서의 가치가 우수하며, 특히 희귀한 평원에서 자라고 있는 고산식물은 매우 특이한 고원경관을 이루고 있음.

○ 천성산 화엄벌은 지금까지 지정되지 않고 있는 특이한 고산식물경관으로서의 가치와 조망지점으로서의 가치가 우수해 국가지정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대상으로 판단되며, 지정구역은 원효암을 제외한 천성산제1봉과 화엄벌을 포함하는 고산평원 구역이 바람직함.

❍ C 위원

○ 천성산은 양산의 최고 명산으로 웅상, 상북, 하북 3개 읍면에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해발 922m이다.

○ 천성산은 예로부터 깊은 계곡과 폭포가 많고 또한 경치가 빼어나 소금강산이라 불리었다.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꽃이 만산홍을 이루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화엄늪과 밀밭늪은 희귀한 꽃과 식물(끈끈이주걱) 등 곤충들의 생태가 아직 잘 보존되어 있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가을이면 긴 억새가 온산을 뒤덮어 환상의 등산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곳 정상은 한반도에서 동해의 일출을 가

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름이 나 있고 해돋이 광경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이어서 명승적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 화엄늪은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천여 명의 승려에게 화엄경을 설법했다는 유래가 있는 화엄벌에 형성된 산지습지로서 자연환경 변천의 귀중한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이탄층이 형성되어 있고, 앵초, 물매화, 잠자리난, 흰여,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등의 다양한 습지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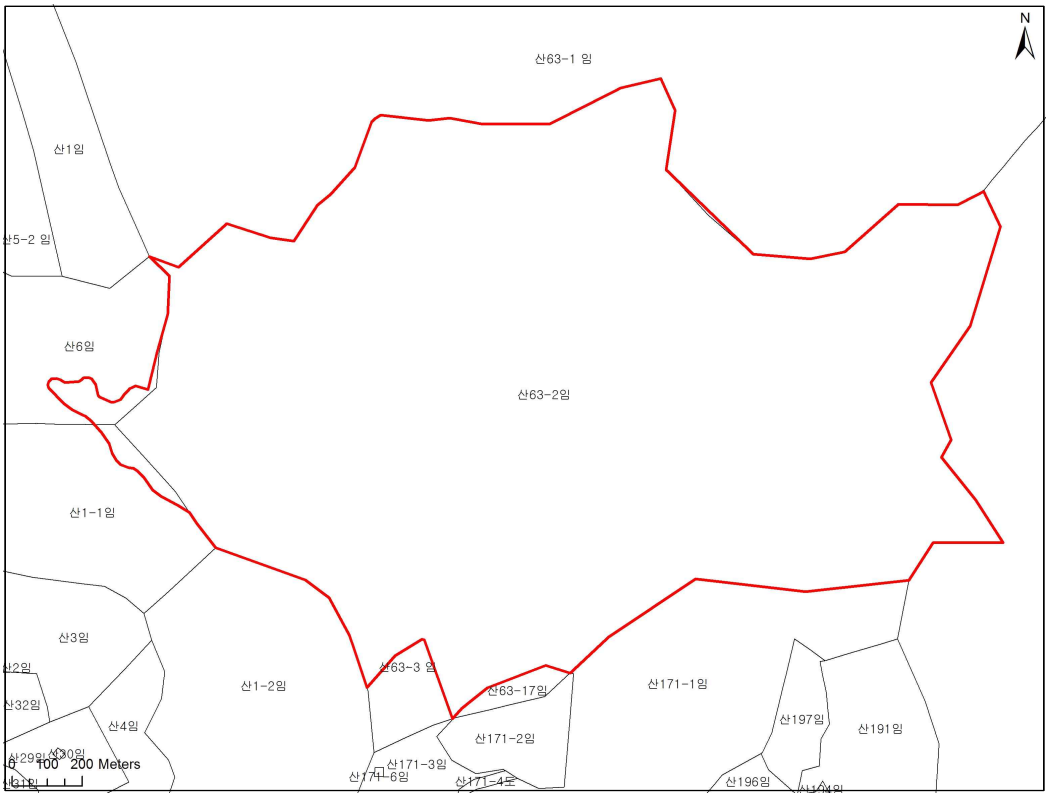
○ 천성산 정상부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능선에 위치한 화엄늪은 2002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천성산 화엄벌은 명승적 가치도 충분하지만 우리나라 명승중 산정상의 평원에 해당하는 명승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명승으로 지정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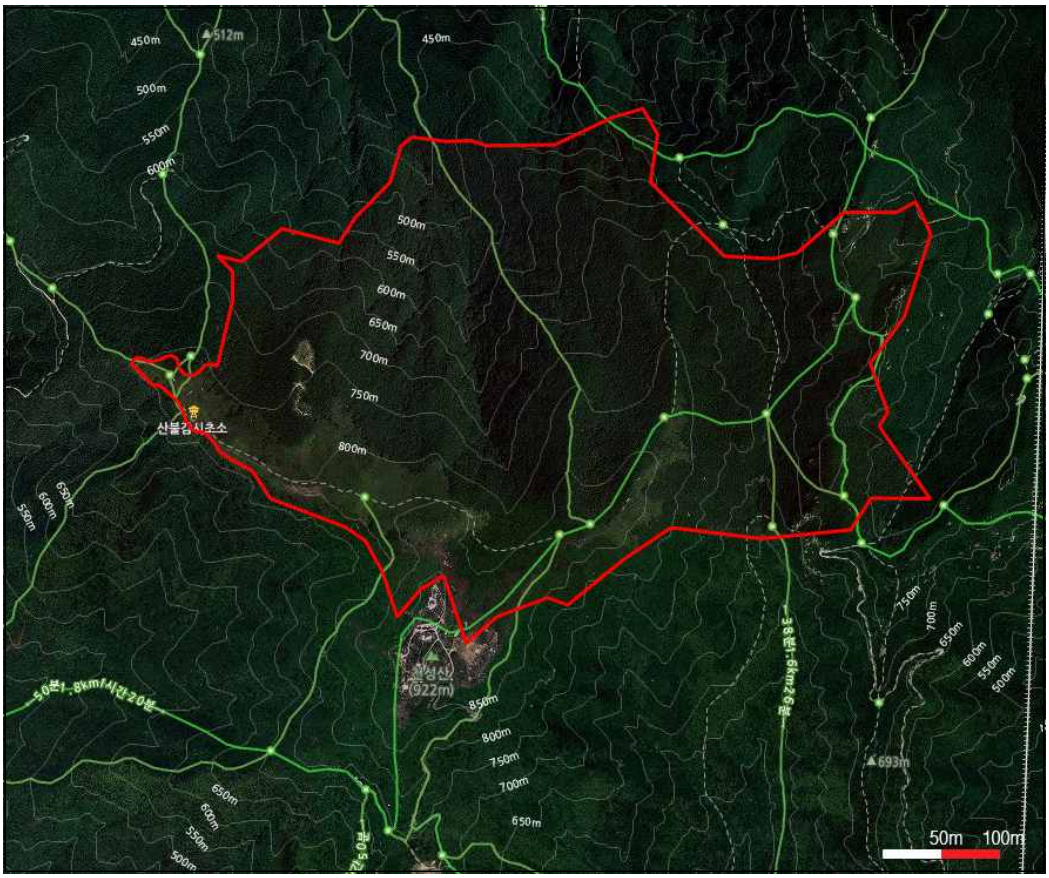
○ 그러나 산 정상부에 과거 공군 부대가 입지해 있던 터가 있으며 그로인해 정상부 및 그 주변에 인위적인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어 옥의 티라 할 수 있다.

다. 명승의 지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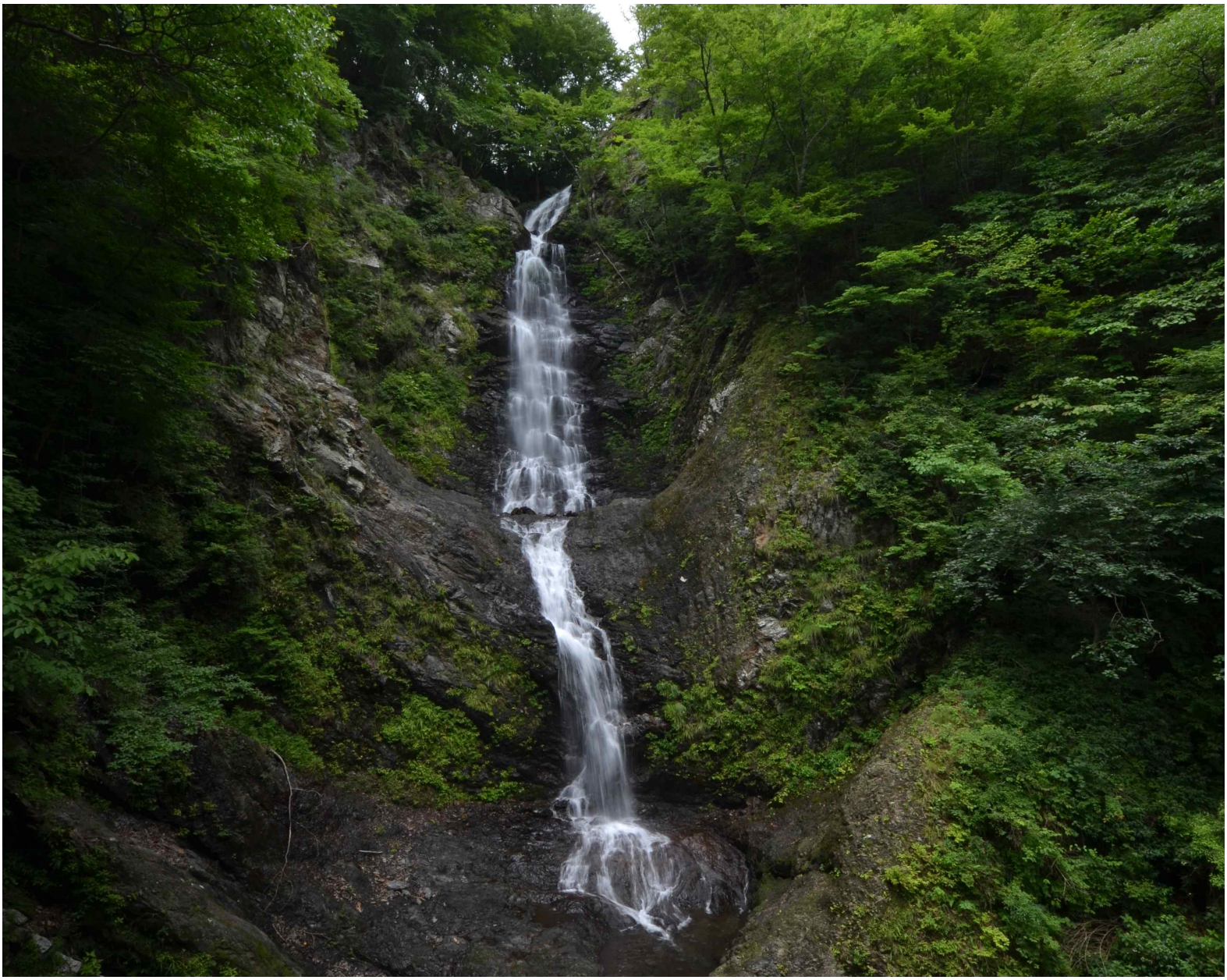
명승의 지정 명칭과 범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지정내용
명칭	양산(梁山) 천성산(千聖山) 화엄(華嚴)벌
지정종별	명승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상북면 대석리, 석계리
지번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산63-2번지 외 2필지
면적	2,829,080.8㎡
관리단체	경상남도 양산시청
문화재 지정 여부	지정 권장


N
산63-1 임
산1임
산5-2 임
산6임
산63-2임
산1-1임
산3임
산2임
산32임
산4임
산29임
산30임
산31임
산1-2임
산63-3 임
산63-17임
산171-1임
산171-2임
산171-3임
산171-6임
산171-4도
산196임
산197임
산191임
0 100 200 Meters


450m
512m
500m
550m
600m
650m
700m
750m
800m
850m
산불감시초소
삼성산
(922m)
693m
50m 100m

7) 하동(河東) 불일폭포(佛日瀑布) 일원



정면에서 바라본 불일폭포의 모습

(1) 지리지

『여지도서』에 남아 있는 불일암(佛日菴)에 대한 기록을 통해 불일폭포 일원의 경관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기록에서는 쌍계사에서 불일암에 이르는 계곡의 험준한 지형을 묘사하고 있으며, 계곡의 이름인 청학동(靑鶴洞)과 폭포에 인접한 봉우리의 이름인 청학봉(靑鶴峯)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불일폭포 아래의 폭호를 용추(龍湫)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명칭	지리지	세부 항목	내 용
불일암	여지도서	하동부	쌍계 위에 있다. 매우 험준한 낭떠러지 골짜기가 10리에 걸쳐있어 다닐만한 좁은 길도 없다. 절벽의 허리 부분을 파서 만든 잔도(棧道)를 통해 단지 한 사람만이 다닐 수 있으니, 오고가는 사람들은 모두 놀라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駭汗] 암자는 평평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낭떠러지 아래로 수 천 길[丈]이나 되며,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두 개의 연못이 있는데, 하나는 '용추(龍湫)', 하나는 '학연(鶴淵)'이라고 한다. 동쪽에 향로봉(香爐峯), 서쪽에 비로봉(毗盧峯)이 있는데, 둘 다 깎아지른 듯이 만 길 높이로 가파르고 험하게 우뚝 솟아있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따르면, 두 세 마리의 청학(靑鶴)이 그 바위틈에 둥지를 틀고 살기 때문에, 골짜기를 '청학동(靑鶴洞)', 봉우리를 '청학봉(靑鶴峯)'이라고 부른다 한다. '학연(鶴淵)' 위에는 '삼선동(三仙洞)'이라는 세 글자가 바위 표면에 새겨져 있는데, 어느 시대 때의 것인지는 모른다. '용추' 위에는 천 자[尺] 높이의 폭포가 있으며, 그 곁 바위에 '완포대(翫布臺)'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환학대(喚鶴臺)'와 '마족대(馬足臺)'가 있는데, 모두 최치원님의 발자취가 서린 곳이다[遺蹟]. 용추는 곧 오늘날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다.
		진주목	서쪽으로 쌍계사(雙溪寺)와 10여 리 거리이다. 벼랑과 골짜기가 아주 험준하여 길을 낼만 한 곳이 없다. 그러므로 절벽 중턱을 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파서 길을 만들었다. 오가는 사람 가운데 놀라 땀이 나며 머리끝이 쭈뼛하지 않는 자가 없다. 암자는 또 낭떠러지에 달아 맨 듯한데, 밑이 수십 수백 길[丈]이나 된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두 개의 연못이 있는데, 하나는 용추(龍湫), 다른 하나는 학연(鶴淵)이라고 한다. 지금은 하동(河東)에 속한다.

(2) 고시문

불일폭포 일원을 다룬 고시문은 주로 불일암과 불일폭포를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일대의 빼어난 경관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특히 불일폭포를 다룬 시문은 폭포의 빼어난 경관을 신비로운 선계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최치원과 관련된 청학동의 유래를 언급하는 작품도 다수 있다. 각 작품별 내용을 선별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불일 폭포 -시(詩)	허목(許穆)	『기언(記言)』 (별집 권1)	〈경진년(1640, 인조 18) 9월 3일에 화개동(花開洞)을 따라 가서 쌍계사(雙磎寺)의 석문(石門)을 보았다. 이어 불일암(佛日庵)에 올라 청학동(靑鶴洞)을 내려다보고 폭포를 구경하다가 감회가 있어 짓다.〉
불일 폭포 -문(文)	민우수(閔遇洙)	『정암집(貞菴集)』 (권4)	〈백상(百祥)에게 보내는 답장(答百祥)〉
불일암 -시(詩)	김낙행(金樂行)	『구사당집(九思堂集)』 (권1)	〈불일암(佛日庵) [쌍계사 금당(金堂) 왼편에서 산등성이를 경유하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 골짜기가 나온다. 또 다시 돌아가면 벼랑이 나오는데 아슬아슬하게 끊어진 곳에 잔도가 있다. 잔도는 세 차례나 돌아가게 되어 있다. 불일암에서 쌍계사까지 7~8리는 된다.(自雙溪金堂左肩。由山脊而上。又下而谷。又轉而崖。磴磴絶處有棧道。棧凡三曲。庵距雙溪可七八里)]〉
	김영조(金榮祖)	『망와집(忘窩集)』 (권2)	〈불일암(佛日庵) [2수○청학동에 있으며 고운 최치원이 창건했다고 한다.(二首○在靑鶴洞。孤雲所創云。)]〉
청학동 -시(詩)	심광세(沈光世)	『휴옹집(休翁集)』 (권1)	〈청학동(靑鶴洞)〉
청학동 -문(文)	허목(許穆)	『기언(記言)』 (권28)	〈지리산 청학동기(智異山靑鶴洞記)〉
	남효온(南孝溫)	『추강집(秋江集)』 (권6)	〈지리산 일과(日課)〉
	김도수(金道洙)	『춘주유고(春洲遺稿)』 (권2)	〈남유기(南遊記)〉
	유몽인(柳夢寅)	『어우집(於于集)』 (후집 권6)	〈두류산 유람록(遊頭流山錄)〉
	조위한(趙緯韓)	『현곡집(玄谷集)』 (卷14)	〈두류산 유람록(遊頭流山錄)〉
	양경우(梁慶遇)	『제호집(霽湖集)』 (권11)	〈바닷가 고을을 두루 돌아보고 두류산에 들어가 쌍계사와 신흥사를 구경한 뒤 쓴 기행록(歷盡沿海郡縣。仍入頭流。賞雙溪神興紀行錄)〉
	오두인(吳斗寅)	『양곡집(陽谷集)』 (卷3)	〈두류산기(頭流山記)〉

<시(詩)>

1. 허목(許穆, 1595~1682), <경진년(1640, 인조 18) 9월 3일에 화개동(花開洞)을 따라 가서 쌍계사(雙磎寺)의 석문(石門)을 보았다. 이어 불일암(佛日庵)에 올라 청학동(靑鶴洞)을 내려다보고 폭포를 구경하다가 감회가 있어 짓다.>, 『기언(記言)』 별집 卷1[41]

불일에서 수직으로 천길 계곡 굽어보니 / 佛日直俯千丈谿
가파른 벽 찬 기슭에 겨우 뚫린 좁은 길 / 寒崖峭壁纔有路
세상 먼지 닿지 않아 연하는 늙어 가고 / 風塵不到煙霞老
골짜기엔 검푸른 바위 빛깔 예스러워 / 洞府蒼蒼石色古
동쪽으로 향로봉의 폭포수를 바라보니 / 東望香爐瀑布水
흩날리고 쏟아져 안개처럼 자욱하네. / 飛流亂灑深如霧
한낮에도 어둑하여 홀연히 슬퍼지니 / 白日晦迷忽悽愴
쌀쌀한 바람 불고 빗방울이 날리누나. / 天風颯颯吹飛雨
학사의 옛 필적은 이끼로 덮여 있고 / 學士舊跡靑苔沒
진결 전해지지 않아 마음 홀로 괴로워라 / 眞訣不傳心獨苦
학 날아간 빈산에 세월이 깊어 가니 / 鶴去山空日月深
아련하게 현포(玄圃)[42]를 생각하게 하는구나. / 使我杳然思玄圃

* 허목(許穆)이 불일암에서 불일폭포를 바라보며 쓴 시로 보인다. 폭포수가 자욱하게 안개처럼 흩어져 신비로운 낮 풍경을 연출하는 것에서 최치원이 남기고 갔을 비결이 전수되지 않음을 안타까워하고, 그곳이 바로 곤륜산의 선계와 맞먹는다고 생각하였다.

2. 김낙행(金樂行, 1708~1766), <불일암(佛日庵) [쌍계사 금당(金堂) 왼편에서 산등성이를 경유하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 골짜기가 나온다. 또 다시 돌아가면 벼랑이 나오는데 아슬아슬하게 끊어진 곳에 잔도가 있다. 잔도는

41)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을 따름.
42) 현포(玄圃): 곤륜산 정상의 선계

세 차례나 돌아가게 되어 있다. 불일암에서 쌍계사까지 7~8리는 된다.(自雙溪金堂左肩。由山脊而上。又下而谷。又轉而崖。磴磴絶處有棧道。棧凡三曲。庵距雙溪可七八里)]>,『구사당집(九思堂集)』卷1

가고 또 가다 드높은 하늘 다하는 곳 / 去去叢霄盡
아득히 먼 곳에 불일암 있다네. / 迢迢佛日庵
은하수 절벽 위로 드리우고 / 銀河垂壁面
청학대는 남쪽에 우뚝 솟아 있다네. / 靑鶴峙臺南
잔도(棧道)는 새들에게도 근심거리니 / 棧道應愁鳥
신선되어 난새라도 타야 할 듯하구나 / 簫鸞若可驂
산행 중에서 이곳이 제일이니 / 山行此第一
돌아가면 기이한 경험 이야기 하리라. / 歸去作奇談

* 김낙행(金樂行)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 자는 간부(艮夫), 호는 구사당(九思堂)이며, 이재(李栽)의 문인으로 이상정(李象靖)과 교유하였다. 쌍계사 금당 왼편으로부터 산등성이를 올라갔다가 그 아래 쪽 계곡으로 내려간 뒤, 다시 굽이돌아 벼랑 있는 곳까지 가면 잔도가 나온다. 이 잔도로 불일암까지 이르게 되니, 불일암과 쌍계사까지의 거리는 7~8리이다. 하늘 끝 높은 곳에 있는 불일암 벽면에 은하수가 드리우는 아름다움을 묘사했다. 남쪽으로는 청학봉이 마주 솟아 있다. 높은 곳에 있는 잔도라 새조차도 근심할 정도로 높다고 표현하였으며, 산행 중 이곳이 제일이라서 돌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여행에서 겪은 것을 전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이한 경험에 대한 자부심을 노래하였다.

3. 심광세(沈光世, 1577~1624), <청학동(靑鶴洞)>,『휴옹집(休翁集)』卷1

危棧補飛路。搖搖跨絶壑。履之若平地。幽討眞成癖。 [右棧路]

[불일암(右佛日菴)]

비로소 불일암에 도착하니 / 始到佛日菴
참선에 든 고승이 있구나. / 入定有高釋
불기운 끊은 지 이미 오래라 / 煙火斷已久
형신은 흡사 고목나무 같다네. / 形神似枯木

[청학봉(右靑鶴峯)]
청학동을 찾아오니 / 來尋靑鶴洞
청학을 따라 노닐고 싶어서라. / 欲從靑鶴遊
청학은 가서 돌아오지 않고 / 靑鶴去不返
돌만 지금까지 천 년 동안 늙어왔구나. / 石老今千秋

[폭포(右瀑布)]
흰 비단처럼 날리며 콸콸 쏟아지며 / 奔流飛白練
푸른 절벽을 양쪽으로 갈라놓는구나. / 劈破蒼崖色
도리어 적막한 분위기 싫어하여 / 還嫌境寂寥
맑은 하늘에 천둥 번개 친다네. / 晴天生霹靂

[향로봉(右香爐峯)]
손으로 자줏빛 옥 지팡이 잡고 / 手携紫玉杖
날듯이 향로봉에 올랐네. / 飛上香爐峯
신선이 오래 전 노닐던 곳 / 仙人舊遊處
낙락장송만이 남아있구나. / 落落餘蒼松

寺下有深潭。毒龍所潛處。欲往驚睡眠。懸崖不得去。[右龍潭]
此地隱孤雲。白衣岸綠幘。我欲從之遊。同騎千歲鹿。[右懷崔孤雲]

* 심광세(沈光世)는 조선중기의 문인으로 자는 덕현(德顯), 호는 휴옹(休翁)이다. 불일암, 청학봉, 불일폭포, 향로봉 등을 유람하며 그 신비로운 분위기를 생생하게 읊고 있다.

<문(文)>

1. 민우수(閔遇洙, 1694~1756), <백상(百祥)에게 보내는 답장(答百祥)>, 『정암집(貞菴集)』 卷4

(…전략…) 또한 방장산을 가서, 천왕봉을 한번 오르고자 한다. 이는 내가 일찍부터 실행고자 하였으나 그러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들어보고 싶구나. 단지 9일로 한정되어 있어 경황없이 다녀야 하는 것이 걱정이다. 지리산 쌍계사는 본래 사람들이 일컫는 바이며, 불일폭포도 기이하고 웅장하여 볼만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보지 않을 수 없다. (…후략…)

(…전략…) 又將往見方丈。一登天王峰。此吾宿昔所經營而不能得者。爲之聳聽。但以九日爲限。則必有忽忽涉獵之患也。智異之雙溪。固爲國人所稱。而佛日瀑奇偉可觀云。此不可不見。 (…후략…)

* 민우수(閔遇洙)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자는 사원(士元), 호는 정암(貞庵)이며, 문충공(文忠公) 민진후(閔鎭厚)의 아들이다. 조카인 민백상(閔百祥, 1711~1761)에게 보낸 편지이다. 불일폭포(佛日瀑布)는 기이하고 웅장하여 볼만한 명소라고들 말하기에 이곳을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2. 허목(許穆, 1595~1682), <지리산 청학동기(智異山靑鶴洞記)>, 『기언(記言)』 卷28[43]

남쪽의 산 중에 지리산이 가장 깊숙하고 그윽하여 신령스러운 산이라고 불린다. 깊숙이 자리한 바위며 빼어난 경치는 일일이 기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중에서 청학동은 더욱 기이하다고 일컬어져 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쌍계사(雙溪寺) 석문(石門) 위에 있다.

南方之山。惟智異最深邃杳冥。號爲神山。其幽巖絶境。殆不可數記。而獨稱靑鶴洞尤奇。自古記之。蓋在雙溪石門上。

43)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에 따름.

옥소(玉簫)의 동쪽 계곡을 지나면 모두 수심이 깊고 바위가 커서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다. 쌍계사 북쪽 언덕에서 산굽이를 따라 암벽을 붙잡고 올라가 불일암(佛日庵) 앞 대(臺)의 석벽 위에 이르러 남향해 서면 바로 청학동이 내려다보인다. 돌로 이루어진 골짜기에 깎아지른 암석들이 우뚝 서 있고, 암석 위에는 소나무·대나무·단풍나무가 많이 있다. 서남쪽 석봉에는 옛날에 학(鶴)이 사는 둥지가 있었다. 산중 노인이 전하기를 "학은 날개는 검고 정수리는 붉으며 다리는 자색이었지만 햇빛 아래서 보면 날개와 깃이 다 푸르렀다. 아침이 되면 빙 돌며 날아올라서 하늘 속으로 사라졌다가 저녁이 되면 둥지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오지 않은 지가 거의 백 년이 되었다." 한다. 이리하여 이 봉우리를 청학봉, 골짜기를 청학동이라 하였다. 남쪽으로는 향로봉(香爐峯)을 마주하고, 동쪽에는 세 개의 석봉이 늘어서 있으며, 동쪽 골짜기는 모두 층층 바위에 기암괴석이다. 전날 저녁 큰 비가 내려 골짜기에 폭포수가 가득하였다. 대(臺) 위의 돌에는 완폭대(玩瀑臺)라고 새겨져 있고, 그 아래는 깊은 못이다.

過玉簫東壑。皆深水大石。人跡不通。從霍溪北崖。隨山曲而上。攀傅巖壁。至佛日前臺石壁上。南向立。乃俯臨靑鶴洞。石洞嶄巖。巖石上。多松多竹多楓。西南石峯。舊有鶴巢。山中老人相傳。鶴玄翅丹頂紫脛。日色下見翅羽皆靑。朝則盤回而上。入於杳冥。夕則歸巢。今不至者幾百年云。故峯曰靑鶴峯。洞曰靑鶴洞。南對香爐峯。其東列爲三石峯。其東壑皆層石奇巖。前夕大雨。瀑布滿壑。其臺上石刻曰玩瀑臺。其下潭水。

숭정(崇禎) 13년(1640, 인조 18) 9월 3일에 나는 악양(嶽陽)에서 섬진강(蟾津江)을 거슬러 올라가 삼신동(三神洞)에 들렀다. 아침에 쌍계사 석문을 보고, 또 쌍계사에서 최 학사(崔學士; 최치원)의 진감선사비(眞鑑禪師碑)를 보았는데, 지금까지 천여 년이 지났지만 이끼 낀 사이로 여전히 보이는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불일암 앞 대에 올라 청학동기를 지었다.

崇禎十三年九月三日。余從嶽陽遡流蟾江。過三神洞。朝日觀霍溪石門。又霍溪寺觀崔學士。眞鑑禪師碑。至今千餘年。莓苔間尙見文字可讀。因登佛日前臺。作靑鶴洞記。

* 조선중기의 문인 허목(許穆)이 남긴 기록이다. 쌍계사로부터 험한 길로 불일암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남쪽으로 청학동이 내려다보인다고 하며, 청학동 인근을 조망하는 주요 지점으로 불일암을 언급하였다. 또한 청학동의 기암괴석과 숲을 묘사하고 있으며, 옛날에는 신비로운 색깔의 학이 날아들었으나 지금은 오지 않는다는 산중 노인의 말을 전하여 이야기에 사실감을 더하기도 하였다.

3. 남효온(南孝溫, 1454~1492), <지리산 일과(日課)>,『추강집(秋江集)』卷6

(…전략…) 내가 승려에게 묻기를 "어디가 청학동이오?" 하니, 의문이 말하기를 "석문을 3, 4리쯤 못 미쳐 동쪽으로 큰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안에 청학암(靑鶴庵)이 있으니, 아마 옛날의 청학동인 듯합니다."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이인로(李仁老)의 시에,

(…전략…) 余問僧曰。誰是靑鶴洞。義文曰。未及石門三四里。有東邊大洞。洞內有靑鶴庵。疑是古之靑鶴洞也。余惟李仁老詩,

지팡이 짚고서 청학동 찾으려 하니 / 杖策欲尋靑鶴洞
숲 너머로 들리는 건 원숭이 울음뿐 / 隔林惟聽白猿啼
누대는 아득하고 삼신산은 저 멀리이니 / 樓臺縹緲三山遠
이끼 속에 어렴풋이 네 글자 적혀 있네. / 苔蘚依稀四字題

하였으니, 석문 안 쌍계사 앞이 여기가 아니겠는가. 쌍계사 위 불일암(佛日庵) 아래에 청학연(靑鶴淵)이 있으니, 여기가 청학동임은 의심할 것이 없다.

則石門內雙溪寺前。無乃是耶。雙溪寺上佛日庵下。亦有靑鶴淵。此爲靑鶴洞無疑矣。

절 앞에 광계(光啓) 3년(887, 신라 진성여왕 1) 7월 모일에 세운 진감선사비명(眞鑑禪師碑銘)이 있으니, 바로 문창후가 교서(敎書)를 받들어 짓고 글씨와 전액(篆額)도 아울러 쓴 것이다. 선사의 이름은 혜소(慧昭)이다. 당나라에 들어

가 유학하였고, 고국에 돌아와서 이 절을 창건하고 임금을 위해 염불하며 일생을 마쳤다. 문창후가 그의 도를 칭찬한 것이 너무 심하니, 선사는 문자선(文字禪)을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문창후가 어찌 추앙함이 이와 같단 말인가.

寺前。有光啓三年七月日所建眞鑑禪師碑銘。乃文昌侯奉敎撰竝書及篆額也。師名慧昭。入唐遊學。還國創此寺。祝上念佛終其身。文昌譽其道泰甚。師無乃文字禪耶。不然。文昌何推之如此耶。

내가 비석을 다 읽고서 나무뿌리로 된 다리를 건넜다. 산승(山僧)이 전하기를 "문창후가 손으로 나무뿌리를 틀어잡고 시냇물을 건너자, 그 뿌리가 점점 커져 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600년 뒤에 들불에 타게 되었으나 아직도 검은 줄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였다. (…후략…)

余讀碑畢。渡木根橋。山僧傳云。文昌手戾木根。引渡溪流。其根漸大。因爲橋。後六百年。爲野火所燒。然猶存黑榦。 (…후략…)

* 조선전기의 문인 남효온(南孝溫)은 청학동의 위치를 비정하면서 불일암을 언급하였다. 불일암 아래에 청학연이 있으니 그곳이 청학동이라고 하였다.

4. 김도수(金道洙, 1699~1733), <남유기(南遊記)>,『춘주유고(春洲遺稿)』卷2

(…전략…) 16일 기사일에, 남여를 타고 불일암(佛日庵)에 올랐다. 승려가, "산중에는 호랑이가 많습니다."라고 하고는 쌍각(雙角)을 불어 앞에서 인도하였다. 길이 험하여 돌 비탈을 올려다보며 몇 리를 올라가니 조금 평평한 곳이 나왔다. 거친 밭 몇 이랑이 있다. 또 몇 리를 가니 승려가, "길이 끊어져 가마가 갈 수 없습니다."라고 알려주어, 지팡이를 짚고 나아가니 절벽의 허리에 걸려 있는 허술한 잔교가 나왔다. 아래로 천 길 낭떠러지를 내려다보며 발을 내딛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위쪽으로 불일암을 바라보니 아득하여 구름 끝에 풍경을 매달아 놓은 듯하였다. 곧바로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음산한 바람이 불어와 마치 귀신이 휘파람을 부는 것 같았다. 암자에서 10여 보 거리에

있는 대(臺)에는 '완폭대(翫瀑臺)'라고 새겨져 있다. 앞에는 향로봉(香爐峰)이 깎아지른 듯 파랗게 우뚝 솟아 있다. 긴 폭포가 오른쪽 산등성이에서 곧바로 떨어지는데, 눈발이 흩날리듯 우박이 떨어지듯 하며 우레가 울리고 번개가 치는 것 같다. 깊숙하고 어두워 만 길 깊이로 음침한 곳은 청학동(靑鶴洞)이라고 한다. 승려가, "고운이 항상 이 골짜기에 머물며 청학을 타고 왕래하였기에 바위틈에 옛날에는 한 쌍의 청학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암자에 앉아서 잠시 쉬었다. 준필이 동쪽 담 위쪽으로 와 돌배 다섯 개를 내왔는데, 맛이 시어 먹을 수가 없었다. 작은 병을 가져오라 하여 거듭 몇 잔의 술을 마시고 다시 나와 바위 위에 앉으니 골짜기의 바람이 솟구쳐 일어 바위의 나무들이 모두 흔들린다. 구름이 넘실거려 마치 거센 파도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다. 다시 비탈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한 무더기의 호랑이 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보았다. 종자가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서 다시 쌍각을 부니 골짜기에 소리가 진동하였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 몇 리를 가서 국사암(國師菴)에 들어갔다. 승려 초한(草閒)이 나와서 맞이하였다. 여기서부터 지세가 조금 넓어지고 아래로 논이 많다. 대나무 울타리와 띠집이 서너 채 있다. 시내를 따라 7리를 가니 소년암(少年巖)이 나왔다. 또 몇 리를 가서 신흥동(神興洞)에 들어갔다. 계곡물과 바위가 매우 아름다웠으며 길가의 바위에는 '삼신동(三神洞)'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절은 수려한 산기슭에 있는데 햇빛이 찬란하게 빛났다. 누대는 큰 골짜기를 굽어보고 있으며 기와와 서까래는 날아갈 듯하다. 대사 덕매(德梅)가 나와서 맞이하기에, 들어가서 점심과 차를 마시고 나와 계곡의 돌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돌 위에는 '세이암(洗耳巖)'이란 세 글자가 새겨져 있다. 승려가 말하기를 고운이 쓴 것이라고 하는데, 필체가 매우 속되어 보이는 것이 고운의 글씨가 아니다. (…후략…)

(…전략…) 十六日己巳。籃輿上佛日庵。僧言山中多虎。吹雙角前導。崎嶇仰磴而上數里。見稍平處。有荒田數畝。又行數里。僧告路窮卸輿。乃杖策而前。遇一略勺架於絶壁之腰。下臨千丈之壑。躡之窸窣。有聲仰見。佛日庵縹緲若懸磬於雲端。卽之室中。陰風颯颯。如鬼物交嘯。距菴十餘步有臺。刻翫瀑。臺前有香爐峰聳磨靑蒼。有長瀑自右肩直垂。霰噴雹擊。雷殷電鬪。冥冥黝黝。陰沉萬仞者。名靑鶴洞。僧稱孤雲常棲此洞。騎靑鶴往來。故巖罅。古有一雙靑鶴

云。坐菴中少憩。俊弼從東邊垣上來。進山梨五枚。味酸不可食。呼小壺連酌數杯。復出坐巖上。洞風衝起。巖木俱動。雲氣澖。如飛澇相磢也。還從磴路而下。見有一塊虎矢煖氣未已。從者愕眙。復吹角振響。右轉數里入國師菴。有僧草閒出迎。自此地勢稍廣。下多水田。有竹籬茆屋三四家。緣溪行七里。有少年巖。又行數里入神興洞。水石絶奇。路傍巖面。刻曰三神洞。寺在錦麓之間。日照燦然。樓臨大壑。甍桷駁騀。有大師德梅迎入點茶。出步磴石。石上刻洗耳嵓三字。僧稱孤雲手蹟。而體畫甚俗。非孤雲也。 (…후략…)

* 9월 16일에 불일암(佛日庵), 완폭대(翫瀑臺), 향로봉(香爐峰), 청학동(靑鶴洞) 등을 유람한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5. 유몽인(柳夢寅, 1559~1623), <두류산 유람록(遊頭流山錄)>, 『어우집(於于集)』 후집 卷6

(…전략…) 7일 병자일. 순지가 작별을 고하며, “나는 몇 년 전에 청학동을 유람하여 이제 다시 가볼 필요가 없으니, 어찌 곧장 돌아가지 않겠소?”라고 하였다. 김화도, “저도 전에 청학동을 실컷 구경하였습니다. 농사철이 되어 일이 있으니 먼저 돌아갈까 합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두 사람을 전송한 뒤 돌아와 혼자 신상연(申尙淵)의 무리와 함께 동쪽 고개를 넘어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이 골짜기는 황혼동(黃昏洞), 월락동(月落洞)처럼 어두컴컴하였다. 긴 대나무가 길 양쪽에 서 있는데, 송아지 뿔처럼 생긴 새로 나온 죽순이 낙엽을 뚫고 삐쭉 나와 있었다. 종종 승려들의 신발에 채여 부러진 것이 있었는데, 북쪽에서 내려온 나그네여서인지 이를 보니 나는 애석하였다. 절벽 밑에 이르자 승려들이 나무를 베어 가로질러놓은 사다리가 여러 군데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컴컴하여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불일암(佛日菴)에 도착하였다. 암자 앞에 평평한 대(臺)가 있고, 벼랑에 완폭대(玩瀑臺)라고 새겨져 있었다. 폭포수가 검푸른 봉우리 푸른 절벽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데, 그 길이가 수백 자는 되어 보였다. 여산(廬山)의 폭포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긴 폭포로는 개성(開城)의 박연폭포(朴淵瀑布)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폭포

는 박연폭포와 비교해 몇 길이나 더 긴 듯하고, 물이 쏟아지는 길이도 더 긴 듯했다. 다만 걸림이 없이 곧장 떨어지는 것은 이 폭포가 박연폭포만 못한 것 같았다. 하늘의 띠가 아래로 드리운 듯한 폭포가 쏟아져 온 골짜기가 우레 치는 듯 요란하고, 붉은 빛을 띤 안개와 흰 눈같은 하얀 물보라가 골짜기 안에 이리저리 흩날렸다. 사람의 귀를 놀라게 하고 눈을 번쩍 뜨게 하여, 망연자실하였다. 이 날의 기이한 구경은 참으로 평생 다시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남쪽에는 향로봉(香爐峯)이 있고, 동쪽에는 혜일봉(慧日峯)이 있고, 서쪽에는 청학봉(靑鶴峯)이 있었다. 승려가 절벽의 구멍을 가리키며, "저것이 학의 둥지입니다."라고 하였다. 옛날에는 붉은 머리 푸른 날개의 학이 그곳에 살았는데 지금은 몇 년 동안 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는 비결서에 '지리산의 푸른 학이 무등산(無等山)으로 옮겨갔다'고 한 말을 들었는데, 이 설과 서로 들어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득 노새만한 산양이 향로봉 꼭대기에 한가로이 누워 있는 것이 보였다. (…후략…)

(…전략…) 丙子。詢之告別曰。年前已遊靑鶴洞。今不須再往。盍徑還乎。金澣亦曰。小民亦曾見靑鶴洞慣甚。西疇有事。請先歸。余旣送二客還。獨與尙淵輩。登東嶺入深洞。洞與黃昏，月落相類。而脩篁挾路。新笋如犢角。穿陳葉而茁。往往僧鞋觸之而折。余北客也。觀之可惜也。就厓斷處。僧斫樹橫爲棧者數所。俯視之。黕黕無底。遂到佛日菴。菴前有平臺。刻厓石曰玩瀑臺。有飛流瀉出于蒼峯翠壁間。長可數百尺。廬山之瀑。吾不知其高下。東方長瀑。莫朴淵如也。而比之可增數丈。其水勢之長過之。獨直下無礙。則似此讓於彼矣。天紳下垂。一壑雷喧。紫烟白雪。交吹於中谷。使人耳驚目駭。悚然自失。此日奇觀。信平生難再者也。南有香爐峰。東有慧日峯。西有靑鶴峯。僧指其崖竇曰。彼鶴巢也。舊有赤首靑翼棲之。今不來有年矣。吾聞秘籙曰。智異山靑鶴。當移無等山。得無與是說相符乎。忽有山羊如驢子。大閑卧香爐峰頂。 (…후략…)

* 조선중기의 문인인 유몽인(柳夢寅)은 최치원의 글씨라고 하는 '쌍계 석문'을 거쳐 불일암에 도착하여 완폭대에서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장엄한 광경을 목도한다. 이 폭포를 박연폭포에 견주면서 아름다움을 완상하였다. 남쪽에 있는 향로봉(香爐峯)과 동쪽에 있는 혜일봉(慧日峯), 서쪽에는 청학봉(靑鶴峯) 등 불일함 주변의 경관을 두루 언급하였다.

6. 조위한(趙緯韓, 1567~1649), <두류산 유람록(遊頭流山錄)>, 『현곡집(玄谷集)』 卷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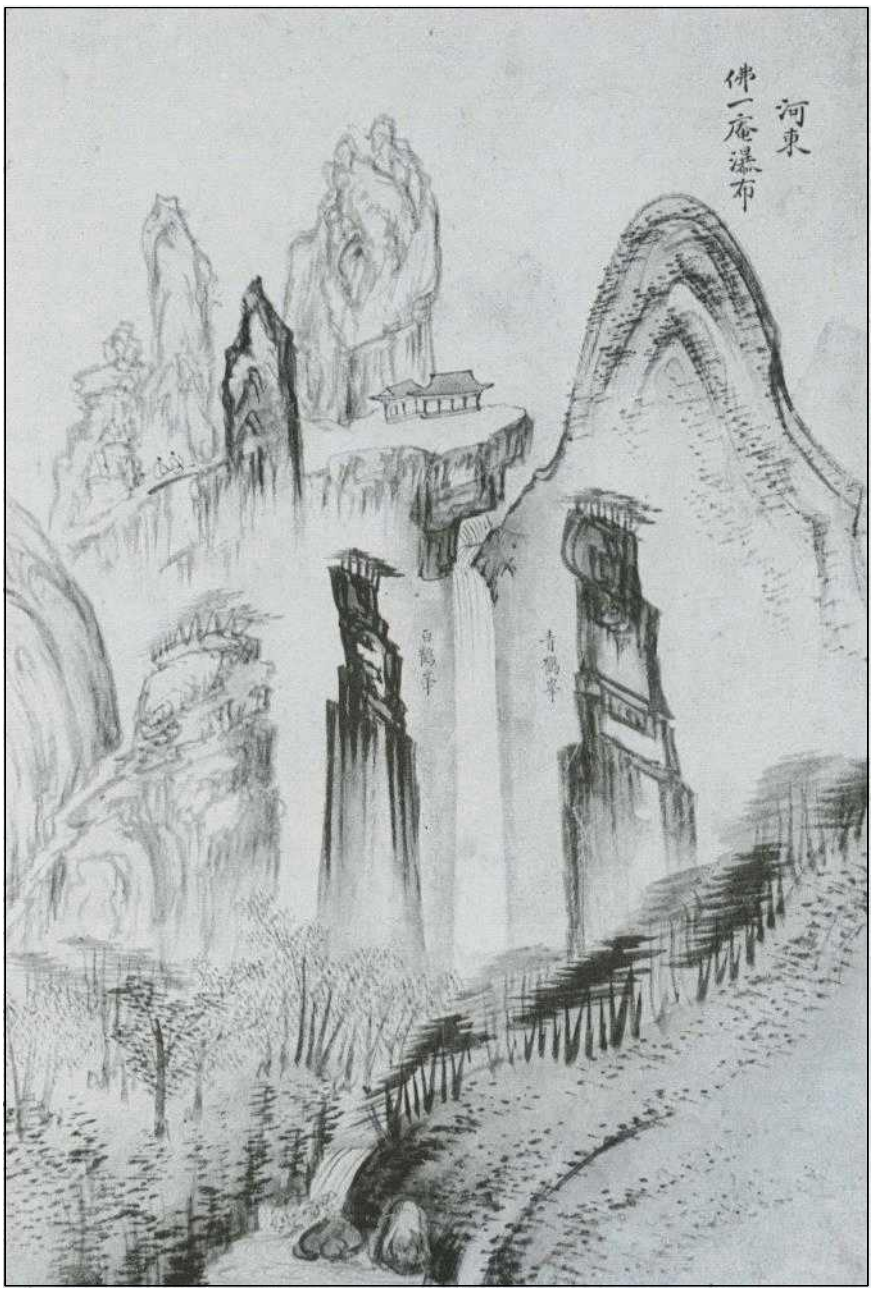
(…전략…) 14일. 계묘일. 맑음. 병사는 진양(晉陽)으로 돌아가고 각성은 신흥사로 돌아갔다. 정오에 가마를 준비하여 불일암(佛日庵)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심생이 광양에서 청노새를 타고 백 리를 달려왔는데도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기이한 일이었다. 다섯 사람이 각자 가마를 타고 법당 뒤쪽을 따라 곧바로 올라가니 정상이 너무 험해서 오를 수가 없었다. 가마 메는 승려들은 풀무질하는 소리를 내면서 헐떡이는데 소금기가 등에 배어 나왔다. 대여섯 걸음 가는 사이에 어깨를 바꾸고 다리를 바꾸며,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미는 통에 왼쪽으로 거꾸러지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니 가마 타는 고통이 가마 메는 것보다 못하지 않았다. 한 치를 나아가고 한 자를 물러나며 힘들게 8~9리를 올라가니 벼랑이 끊어져 나무를 잘라 길을 이어 놓은 곳이 몇 군데 되었는데 굽어보면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계곡인지라 걸어서 건널 수 없을 듯싶었다. 가마에서 내려 신을 신고 포복으로 간신이 벼랑에 붙어 건넜다. 불일암에 도착하니 절은 오래 되었는데 승려는 없고 단청은 떨어져 나가 있으며 빈 감실(龕室)은 고요하고 창문은 영롱하였다. 오른쪽에 청학봉(靑鶴峯)을 마주하고 있는데 위로 구름 속으로 우뚝 솟아 있고, 푸른 절벽은 깎아지른 듯 서 있었다. 승려가 말하기를, “바위틈에 청학 한 쌍이 항상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았었는데 바로 고운(孤雲)이 말을 타고 왕래하던 곳입니다. 천백 년이 지나도록 아무 탈 없이 보존되고 있었는데 불행히 이 산에 놀러 왔던 어떤 영남 유생이 돌을 던져 상처를 입은 뒤에 날아가 버리고 돌아오지 않은지 십여 년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아래에 계곡이 있는데 청학동(靑鶴洞)이라고 했다. 만 길이나 움푹 들어가 있어 그 밑바닥이 보이지 않고 소나무, 삼나무, 회나무, 잣나무가 어둑하게 가리고 있고 다만 구름과 안개가 자욱할 뿐이었다. 왼쪽에는 향로봉(香爐峯)이 청학봉과 마주보고 있는데 웅장함이 서로 맞먹었다. 불일암에서 동남쪽으로 백 걸음쯤 가서 향로봉에 못 미쳐 긴 폭포가 솟아 나와 허공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날아다니는 물살과 이리저리 튀는 물방울이 숲을 씻어내고 계곡에 메아리치며 우르릉대는 것이 마치 수많은 우레가 이 계곡의 하

늘에서 내리치는 것 같았으니 참으로 천하의 장관이었다. 송악(松岳)의 박연폭포와 그 순위를 다툴 만한데 골짜기의 장관은 박연폭포도 미치지 못할 듯싶었다. 절 앞에 십여 명 정도 앉을 만한 누대가 있는데 바위에 '완폭대(翫瀑臺)' 세 글자를 새겨놓았으니 이 또한 고운이 직접 쓴 것이었다. (…후략…)

(…전략…) 十四日癸卯。晴。兵使還晉陽。覺師還神興。亭午。備藍輿將上佛日。沈生自光陽乘靑騾馳來一百里。而日尙早。何其奇哉。五人各乘藍輿。從法堂後直上。絶頂巍峨。高不可攀。擔輿之僧。喘息如鍛。白漿被背。五步十步。更肩遞脚。前挐後推。左傾右側。乘輿之苦。不下於擔輿。寸進尺退。辛勤而上。幾八九里。有崖絶處。斬木架壑。俯臨無底之谷。殆不能步涉者數處。下輿着不借。艱艱匍匐。腹陘而度。到佛日則寺古無僧。金碧散落。虛龕寂歷。窓壁玲瓏。右對靑鶴峯。上切雲天。蒼壁削立。僧云。巖罅有靑鶴一雙。常巢居產雛。乃孤雲所騎而往來者也。經千百年。尙保無恙。而不幸有嶺南儒生之遊此山者。投石中傷。飛去不來者今十餘年矣。其下有洞。名曰靑鶴洞。陰沈萬仞。不見其底。松杉檜柏。闇昧冥漠。但見雲霞晦濛而已。左有香爐峯。與鶴峯相向對峙。高壯敵之。自佛日東南至百步。未及香爐而有長瀑湧出。倒掛半空。飛湍跳沫。洒林噴谷。殷殷訇訇。如千雷萬霆。奔薄鬪擊於洞天之中。眞天下之壯觀也。直與松岳朴淵。爭爲甲乙。而洞壑之奇壯。朴淵亦不得及焉。寺前有臺。可坐十餘人。巖面刻翫瀑臺三字。亦孤雲所自書也。 (…후략…)

* 조선중기의 문인인 조위한(趙緯韓)은 유몽인과 마찬가지로 '쌍계 석문' 글씨의 내력을 최치원과 관련하여 설명하였으며, 청학의 전설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았다. 불일암, 청학봉, 향로봉, 완폭대 등에 대한 서술과 묘사 또한 다른 유산기에서처럼 자세한데, 진주 기생들을 동반하여 유산의 풍류를 고조시키는 장면들이 특징적이다.

(3) 실경산수화



〈하동 불일암폭포 - 교남명승첩〉, 작자미상

작자미상, <하동 불일암폭포(河東 佛一庵瀑布)>, 《교남명승첩(嶠南名勝帖)》, 지본담채(紙本淡彩), 38.3×25.8cm, 간송미술관

<하동 불일암폭포>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 지리산에 있는 불일암(佛一庵, 佛日庵)과 불일폭포(佛一瀑布) 일대 경관을 담은 실경산수화이다. 불일암은 신라시대 쌍계사(雙磎寺)를 중창한 진감국사(眞鑑國師)가 창건하였고, 고려시대 보조국사(普照國師)가 중창해 수도처로 삼으면서 '불일암'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상당 기간 폐허로 있다가 1911년에 쌍계사 승려 양용은(梁龍隱)이 중건하여 오늘에 이른다고 한다.

불일암은 높은 산 중턱에 위치하여 인근의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이자 암자 곁에 천혜의 불일폭포가 자리하고 있는 명승지이기도 하다. 특히 가파른 절벽 아래 높이 60m 벼랑을 타고 쏟아져 내리는 불일폭포의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또 암자 앞쪽 좌우에 청학봉(靑鶴峰)과 백학봉(白鶴峰)이 우뚝 솟아있는데, 봉우리의 이름과 관련해 350여 년 전까지 불일암에 살던 청학 한 쌍이 어느 날 사냥꾼이 돌을 던져 날개가 상하자 날아가 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화면의 상부 절벽 위에 두 채의 기와 건물로 이루어진 불일암이 포치되었고, 좌측 비탈에서 두 명의 인물이 확인된다. 암자 아래 바위 벼랑을 타고 흐르는 불일폭포의 물줄기가 눈에 들어온다. 폭포 앞쪽 좌우에는 돌기둥처럼 솟은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각각 "청학봉"과 "백학봉"이라는 명칭이 묵서되어 있다. 그리고 불일폭포에서 떨어진 물이 다시 하단의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하동 불일암폭포>의 화면 내용은 어느 한 지점에서 조망이 불가능한 넓은 구역을 담고 있으며, 실제 지형지세의 비례를 무시하고 불일암과 불일폭포의 규모를 과장하여 화제(畵題)의 초점을 살렸다. 지금도 그림과 마찬가지로 경내에 두 채의 전각(殿閣)이 있는데, 앞뒤로 불일암과 대웅전이 자리한다. 폭포 묘사의 경우 상류 계곡에서 모인 물이 살짝 꺾이면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상단의 모습이 현장의 실제 지형과 비슷하다. 하지만 중단에 둥그렇게 턱을 형성하는 절벽의 형태를 살리지 않고 수직의 벼랑을 타고 물이 일직선을 이루며 떨어지는 것으로 그려진 점은 상하 2단의 형태를 지닌 불일폭포와 거리가 있다. 이는 산과 언덕, 바위 봉우리, 건물, 수목 등 대부분의 경물을 거친 먹 선묘로 처리한 표현상의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 즉 화가가 개별 경물의 형상을 꼼꼼히 묘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형세를 전달하는 데 치중한 결과로 생각된다.



〈불일암 - 영남명승35경도〉, 작자미상

작자미상, <불일암(佛日菴)>, 《영남명승35경도(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紙本彩色), 38.5×45.5cm, 일본 유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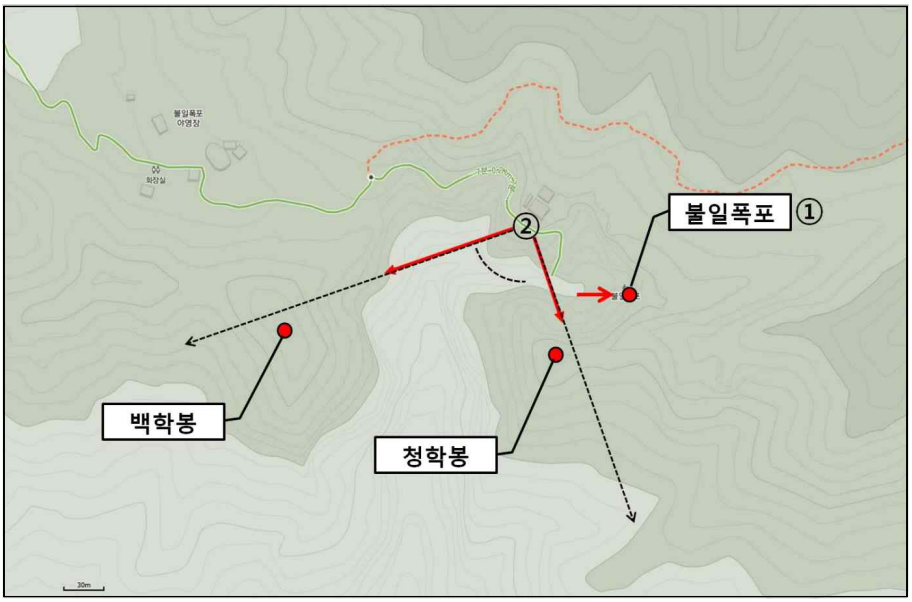
<불일암>에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 있는 지리산 불일암과 불일폭포를 중심으로 인근의 넓은 경관이 담겨 있다. 불일암 바로 옆에는 높이 60m 벼랑을 타고 쏟아져 내리는 불일폭포가 자리하고 있다.

화면의 상부 중앙에 자리한 절벽 위의 건물이 불일암이다. 암자 오른편에는 전망대에서 폭포를 구경하고 있는 인물과 불일폭포가 그려져 있다. 또 암자 왼편에는 산 아래로 연결되는 구불구불한 잔도(棧道)가 이어져 있는데, 중간에 암자를 향해 산을 오르는 인물이 보인다. 화면 한가운데 각각의 명칭이 묵서된 청학봉(靑鶴峰)과 백학봉(白鶴峰)을 포치하였고, 하단부 산 아래 잡목 숲 사이에 민가를 그려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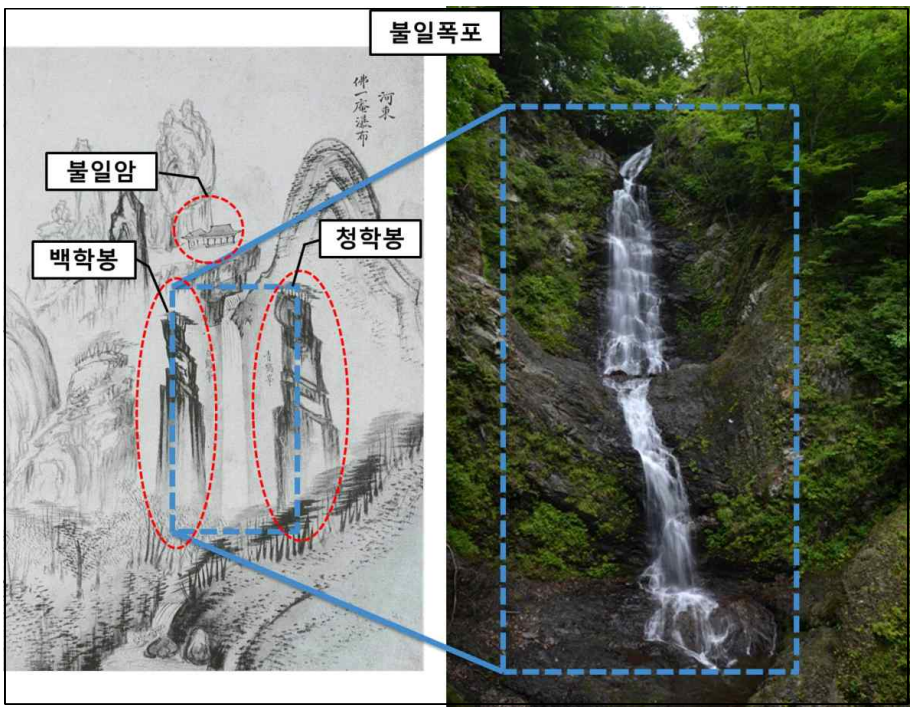
불일암 혹은 불일폭포를 클로즈업하지 않고 인근의 지형지세를 두루 포괄하여 화면에 담았다. 따라서 암자의 구조나 폭포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았으나 그 위치나 규모가 범상하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또 《교남명승첩》에 실린 <하동 불일암폭포>에 비해 청학봉과 백학봉의 규모를 강조한 편이다. 크고 작은 산봉우리 곳곳의 능선에 각종 수목을 그려 넣었는데, 크기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어 실감이 떨어진다.

(4) 현재적 재구성

불일폭포와 불일암을 다룬 고시문이 다수 있으며 작자미상의 산수화도 존재하고 있다. 산수화에는 불일암과 불일폭포가 함께 그려져 있으며 불일폭포 양 옆으로 청학봉과 백학봉이 위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관을 지도와 함께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하동 불일암폭포>에 그려진 불일폭포 실제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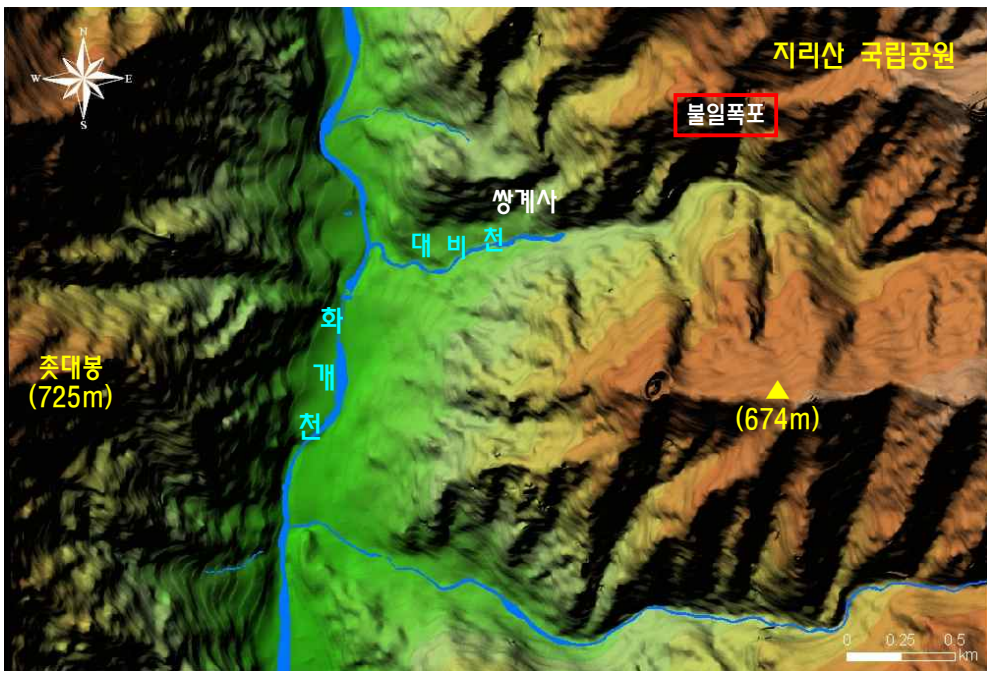


② 불일폭포 좌측의 청학봉과 우측의 백학봉



(5) 지형 및 식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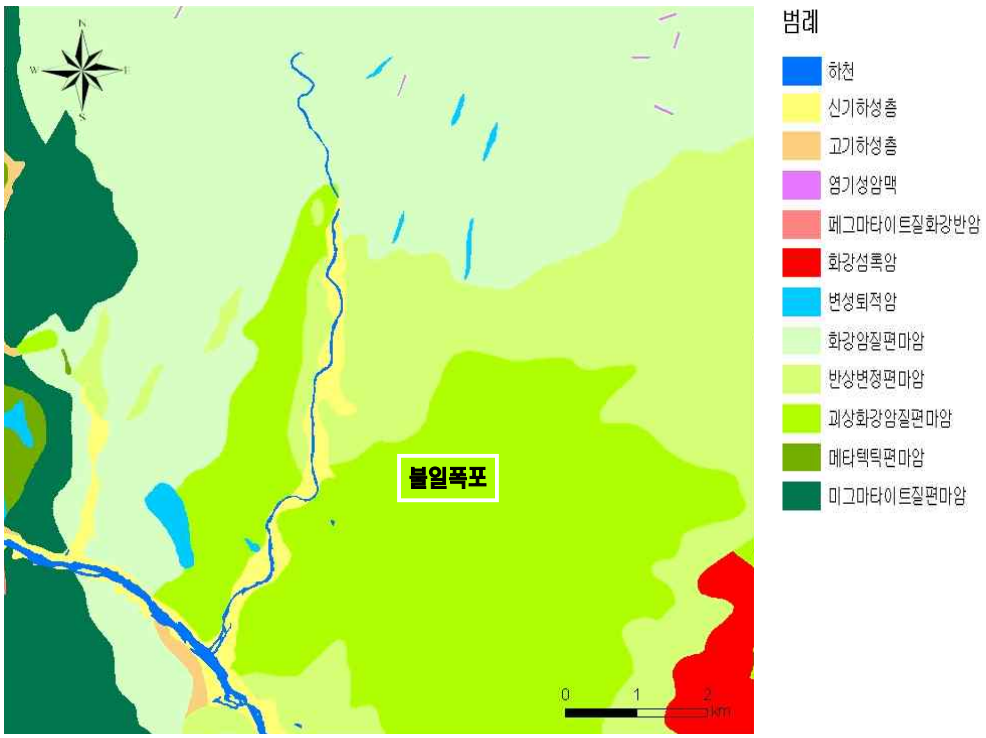
가. 지형 및 지질



불일폭포 일대의 지형(DEM)

지리산 국립공원의 남쪽에 쌍계사 부근의 대비천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남쪽

으로 흐르는 지류하천 상류에 불일폭포가 위치한다. 불일폭포 일대는 상불재(1,120m), 관음봉(1,280m), 거사봉(1,260m)의 능선을 따라 형성된 남북 방향으로 이루어진 분수계의 서사면에 해당한다. 지리산지는 전체적으로 북동-남서 방향의 소백산맥의 말단부에 속하지만 부분적으로 북동동-남서서 방향의 산열을 이루면서 남북 방향의 구조선도 더러 관찰된다. 지리산 남부의 삼신능선을 따라 해발 1,000m에 해당하는 산열이 병풍처럼 서있고 동서 방향의 작은 곡지를 따라 수계가 발달하면서 단열곡류 하천과 폭포가 밀도 높게 발달해 있다. 그 중에서 관음봉에서 발원한 대비천과 합류하는 소하천 상류에 발달한 불일폭포는 지리산체에서 규모가 상당한 폭포이고, 토산인 편마암 또는 화강편마암의 풍화층을 따라 흘러 수원도 풍부한 편이다. 동서 방향의 대비천이 흘러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화개천과 합류하고 화개천은 다시 화개장터 부근에서 북서-남동 방향으로 흐르는 섬진강과 합류하여 남해로 빠져나간다. 지형은 장년기 상태로서 산릉은 비교적 높고, 계곡은 깊고 길게 발달하고 있으며, 지질은 주로 변성퇴적암류와 편마암류를 기반으로 하여 반상변정편마암, 화강암질편마암, 미그마타이트질편마암 및 혼성패그마타이트질편마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의장 2002).



불일폭포 일대의 지질

불일폭포 일대는 지질학적으로 변성암류에 해당하는 편마암 및 화강편마암이 주를 이룬다. 소백산육괴의 서남부인 지리산 남부 일대는 주로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변성암류의 일부는 백악기의 퇴적암류와 화산암류 그리고 백악기의 불국사 화강암에 의해 덮이거나 관입 당했다. 변성암류는 화성기원의 화강암질 편마암과 반상변정질 편마암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화강암질 편마암의 관입 후 반상변정질 편마암이 관입하였다(오창환 외, 2000). 옥천대와 경상분지에 의해 각각 북서부와 남동부가 경계져 있는 영남육괴는 점촌지역을 중심으로 북동부의 소백산지구와 남서부의 지리산지구로 구분되며, 영남육괴 지리산지구의 주요 층서단위는 선캄브리아기 지리산 변성암복합체와 하동-산청 회장암복합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남육괴 지리산지구에 분포하는 지리산 변성암체는 성인에 따라 퇴적기원의 준편마암류와 화성기원의 정편마암류로 구분된다(이덕선 · 강지훈, 2013).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류는 동측에 남북방향으로 하동-산청 회장암 복합체가 편마암류를 관입하여 있고 이는 다시 펠식 그래뉼라이트, 반상변정편마암, 화앙암질 편마암으로 분류되는 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송용선 · 이승구, 1998).

지질도 상에서 불일폭포 일대는 지리산 변성암복합체 중에서 반상변정편마암과 괴상화강암질편마암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화성기원의 정편마암류에 해당한다. 이러한 암석은 편마암과 화강암의 속성이 중첩되어 나타남으로써 괴상의 노두와 미립질의 점토 공급이 탁월하여 절경을 만들어낸다.

나. 자연 경관

지리산권은 남부지방의 중앙 하부지역을 이루고 있어 남부지방을 동 · 서로 나누거나 혹은 양쪽의 산지가 수렴하는 점이지역의 역할을 한다. 천왕봉을 중심으로 경남, 전남, 전북의 경계를 따라 주능선이 뻗어 있으며, 여기에서 곁가지를 친 능선 중 10km가 넘는 것이 15개에 이른다. 그만큼 깊은 골짜기가 많다는 것이며 피아골은 30 여km에 달한 최대의 골짜기이다(뿌리깊은나무, 1987). 지리산지는 해양(남해)와 인접하여 한반도로 올라오는 장마전선과 태풍의 길목에 있는데다가 여름철에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다량으로 공급하면서 산지에 부딪혀 다우지를 이룬다(범선규, 2008). 이러한 기후적 특색으로 인해 연중 지리산지에

는 습포효과가 높고 편마암류의 변성암복합체의 풍화 특성상 미립질의 토층의 발달이 현저하여 토산의 성격을 지닌다.

불일폭포는 서쪽으로 흘러가는 섬진강의 지류천에 위치하는 약 60m정도의 큰 폭포이다. 이곳의 지질은 기본적으로 화강편마암산지 사이사이에 규암과 같은 석영질의 암맥이 관입하여 불연속적인 기반암이 분포하고 있다. 이를 폭포수가 가로지르면서 암석의 차별침식에 의해 단을 이루고 있다. 불일폭포 아래의 데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폭포의 단은 약 3단으로, 일종의 계단형(cascade type)의 폭포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이곳은 지리산 자락 남단의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 폭포뿐만 아니라 고도에 따른 한계 수목도 잘 드러나는 편이다. 불일폭포로 가는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주빙하성 동결·융해 작용에 따라 발달된 암괴원(block field)과 암설 사이에 표층풍화(surface weathering)로 인해 공급된 다량의 미립토를 기반으로 점유한 식생군락을 흔히 볼 수 있어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다.



불일폭포



암괴원과 식생군락

다. 식생경관적 특징

지리산 10경에 해당하는 불일폭포는 쌍계사에서 3km지점에 위치하며 불일암에서 만길 절벽에 흘러내리는 절경과 그 주변의 소나무, 참나무류, 낙엽활엽수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불일폭포를 오르는 비탈길을 따라 고도별 식생경관이 나누어지는데, 고도가 낮은 지역은 굴참나무, 졸참나무, 비목나무, 노각나무, 느티나무, 당단풍나무, 때죽나무 등의 참나무류 및 낙엽활엽수가 분포하였고, 해발고가 높은 지역에는 신갈나무 및 소나무군락이 우세하였고 굴참나무, 쇠물푸레나무, 철쭉 등 암벽이나 전석지대에 생육이 양호한 식물종들이 우점하였다.

불일폭포 주변 식생은 능선부의 소나무경관, 계곡부의 신갈나무 및 굴참나무, 굴피나무, 당단풍나무, 쇠물푸레나무 등의 낙엽활엽수경관, 폭포 수직암반 주변의 부처손, 넉줄고사리, 공작고사리, 산수국 등의 암벽식생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불일폭포 상부의 낙엽활엽수경관



불일폭포와 암벽식생경관



불일폭포 주변 낙엽활엽수
(당단풍나무)



불일폭포 암벽식생
(넉줄고사리, 공작고사리, 천남성)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가.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

❍ 문화·역사적 가치: 불일폭포 일원은 불일암과 관련된 옛 시문들에서 불일폭포를 비롯한 주변의 명승 요소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보이고, 작자가 미상인 두 편의 실경산수화가 전한다. 『여지도서』의 하동부와 진주목 조에는 불일암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용추와 학연이라는 연못이 소개되어 있고, 용추로 떨어지는 천 자 높이의 폭포가 기록되어 있다. 이 폭포가 불일폭포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최치원의 흔적이라 기록한 환학대, 마족대 등의 명승 요소들이 기록되어 있다. 두 편의 실경산수화에도 불일폭포가 두드러지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 중 한 편에는 불일폭포 앞에 청학봉, 백학봉이라는 상징적인 봉우리를 그려내고 있다. 특히, 불일폭포 아래의 용추는 조선시대에 기우제를 지내던 성스러운 장소로서의 문화·역사적 의미가 있다.

❍ 지형적 가치: 지리산 남부 지역을 남북방향으로 관류하는 섬진강에 작은 물줄기가 합류하는 데 그 중 하나가 화개천이다. 이 하천은 다시 상류로 가면서 지류하천인 대비천을 만나는데 작은 계곡길을 따라 가다보면 비교적 규모가 크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불일폭포가 펼쳐진다. 해발고도 약 1,000m를 이루는 산열이 남북 방향으로 병풍처럼 서 있고 그 사이의 단열을 통과하는 하천의 높은 비고차로 인해 형성된 것이 불일폭포이다. 화강편마암의 비율이 높아 절리를 따라 암설 공급이 활발한 화강암과 표층풍화로 인해 미립토가 많이 생성되는 편마암의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어 지형적으로 가치가 높다. 또한 남부 해안에서 오는 습윤한 바람이 부딪혀 연중 수분의 공급이 많아 식피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 식생적 가치: 지리산 식생은 온대남부형에 속하나 고산지대에는 한대식물이, 산록지대에는 온대식물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낙엽활엽수의 경우,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졸참나무·떡갈나무숲, 굴참나무숲, 신갈나무숲, 자작나무숲으로 구분된다. 식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한반도에 서식하는 관속식물의 30%에 이르는 식물종이 생육하고 있다. 이와 같이 쌍계사에서 불일폭포에 이르

는 구간에서의 식물종다양성이 매우 높으며 불일폭포 주변의 암벽식생, 불일암 내부 원개형의 낙엽활엽수경관은 인문적 문화요소와 연계되면서 조화를 매우 잘 이룬 곳이라 판단되었다.

나. 지정조사 의견

❍ A 위원

○ 지리산 삼불재로부터 시작되는 계곡은 운수리에서 합류하여 대비천을 이루어 쌍계사로 흐른다. 합류지점에 이르기 전 불일암 부근에서 낙차가 큰 폭포를 형성한다. 유역이 넓지 않아 수량은 제한적이나 60여m에 달하는 높이는 폭포로서 위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폭포가 위치하는 곳에서는 계곡의 폭이 좁아 주변의 울창한 식생들이 폭포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을 이루어 다소 신비스러움마저 느끼게 한다. 폭포에 접근하기에는 지형이 험하여 쉽지 않으나 탐방로가 정비되어 있어 폭포를 관람하기에는 편리하다. 이러한 조건이 폭포를 다양한 방향에서 조망할 수는 없게 하고 있으나, 반면 이러한 어려운 접근성이 폭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

❍ B 위원

○ 지리산의 넓은 산역 중에서 삼신봉과 관음봉 사이의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계류가 폭포가 되어 떨어지는 곳으로서, 높이 60m에 이르는 매우 높고 규모가 큰 폭포임.

○ 쌍계사 북쪽 3㎞ 지점에 자리한 불일평전에서 약 4㎞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포수가 쏟아지는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폭포 앞에 서면 한여름에도 냉기를 느끼게 하는 장쾌한 물줄기가 장관을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 폭포경관을 대표하는 폭포의 하나로서, 국가지정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임.

❍ C 위원

○ 불일폭포는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에 있는 폭포이다. 지리산 삼신봉과 관음봉 사이의 계곡에서 흘러내려와 60m높이로 백척단애의 비폭과 오색무지개, 장쾌한 물줄기가 가히 장관을 이루며 지리산국립공원에 있는 10경 중 하나이다.

○ 국사암에서 불일폭포를 오르는 구간은 계곡을 따라 오르막과 평지가 반복되어 나타나 오르기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등산코스가 잘 조성되어 있다. 특히 오르는 중간에 환학대나 마족대가 있어 구경거리가 된다. 환학대는 불일암 일대에 살던 신라시대 최치원이 청학동에 산다는 청학을 불러들인 곳으로 알려져 있고, 마족대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하여 원군으로 온 이여송 장군이 말을 타고 지리산을 오를 때 생긴 말발굽 자국이 바위에 새겨졌다는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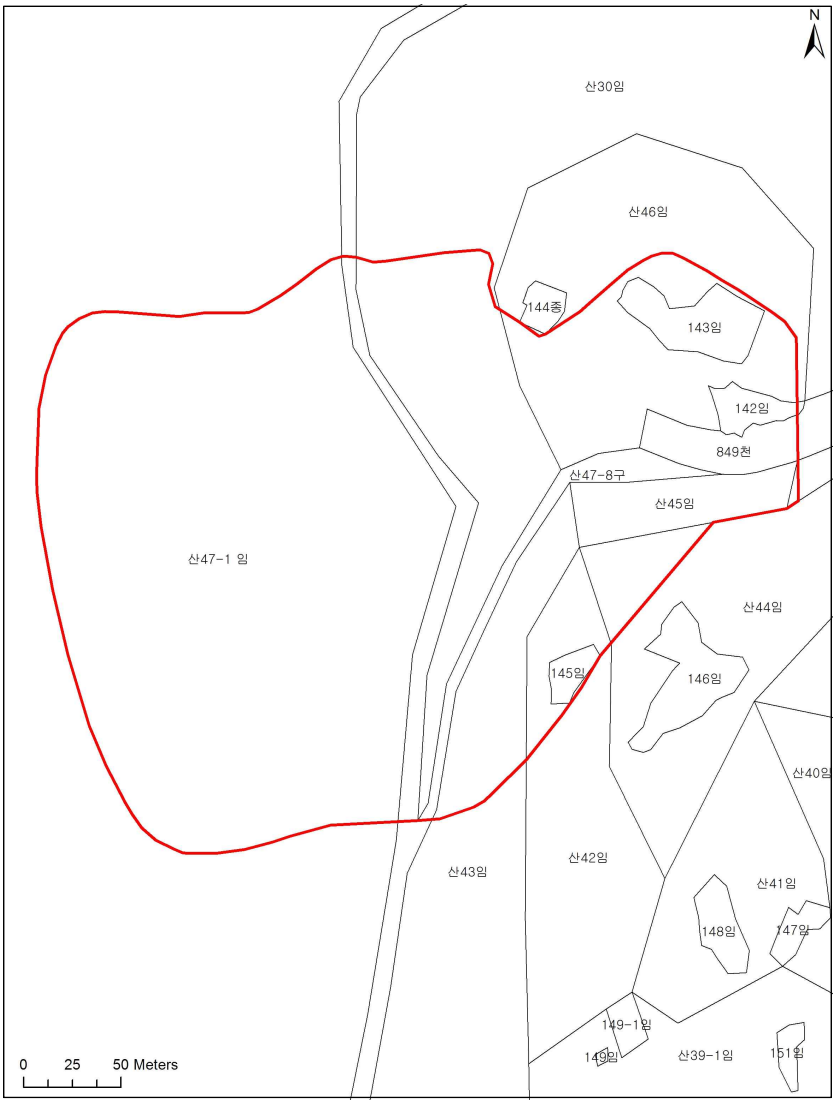
○ 환학대와 마족대를 지나 불일폭포에 도착하면 폭포를 이루는 절벽과 주변의 숲이 반원 형태를 이뤄 폭포수의 소리가 더욱 웅장하게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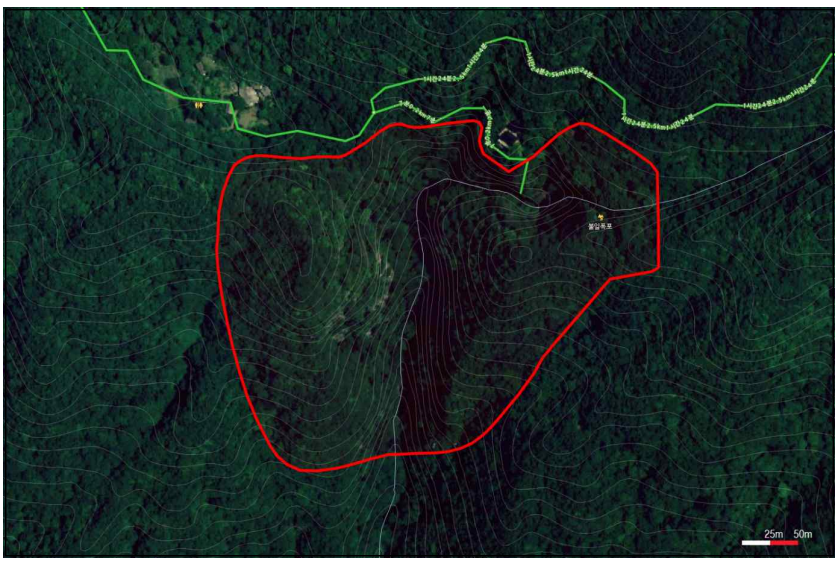
○ 불일폭포는 지리산 깊은 산중에 있는 폭포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폭포로서 최치원과 명나라의 이여송 장군 등의 설화가 있으면서 경관적 가치가 커서 명승으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명승의 지정 범위

명승의 지정 명칭과 범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지정내용
명칭	하동(河東) 불일폭포(佛日瀑布) 일원
지정종별	명승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지번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산46번지 외 11필지
면적	87,840.4㎡
관리단체	경상남도 하동군청
문화재 지정 여부	지정 권장


N
산30임
산46임
144종
143임
142임
849천
산47-8구
산45임
산47-1 임
산44임
145임
146임
산40임
산43임
산42임
산41임
148임
147임
149-1임
149임
산39-1임
151임
0 25 50 Meters


25m 50m

2. 후보 명승 자원

1) 영주(榮州) 희방폭포(喜方瀑布)

(1) 지리지

- 자료 없음.

(2) 고시문

희방폭포와 폭포 밑의 깊은 폭호, 그리고 우렁찬 폭포소리에 대해 묘사한 고시문이 주를 이루며, 희방폭포의 아름다운 경관과 희방사에 대해 함께 언급한 작품도 더러 있다. 각 작품별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희방 폭포 -시(詩)	이태순(李泰淳) 등	『소수서원잡록(紹修書院雜錄)』	〈소백산유산록(小白遊山錄)〉
	유흠목(柳欽睦)	『극암집(克菴集)』	〈희방폭포를 보고(觀喜方寺瀑布)〉
	김홍기(金鴻基)	『만창유고(晩蒼遺稿)』	〈폭포(瀑布)〉
	이야순(李野淳)	『광뢰집(廣瀨集)』 (권2)	〈희방폭포에서 선조의 〈지방폭포〉시에 차운하다.(喜方瀑。次先祖詩池方瀑韻。) [병서(並序)]〉
	서창재(徐昌載)	『오산집(梧山集)』 (권1)	〈비 내린 후 폭포가 용추로 쏟아지는 것을 보다(雨後觀瀑布噴薄注龍湫)〉
희방 폭포 -문(文)	정범조(丁範祖)	『해좌집(海左集)』 (권18)	〈목유선에게 부치는 편지(寄睦幼選書)〉
희방사 -시(詩)	정범조(丁範祖)	『해좌집(海左集)』 (권5)	〈向小白山喜方寺。馬上口呼。〉
	서성구(徐聖耉)	『눌헌집(訥軒集)』 (권1)	〈喜方寺。酬蔡使君, 李茂長。〉
	서창재(徐昌載)	『오산집(梧山集)』 (권1)	〈棲喜方寺〉
	김홍기(金鴻基)	『만창유고(晩蒼遺稿)』	〈희방사에 묵다(宿喜方寺).〉

<시(詩)>

1. 이태순(李泰淳) 등, <소백산유산록(小白遊山錄)>, 『소수서원잡록(紹修書院雜錄 - 榮州: 榮州市, 2005)』

1828년 4월27일 희방사로 들어갔다. 이대간과 이청안이 그로 인하여 동행하였다. 황국재와 방한 황경우, 중이 황종병, 복한 황현도, 봉하 황상로가 뒤따랐다.

二十七日, 入喜方寺, 李大諫李淸安因同行, 黃國材及黃枋漢擎宇・黃中彝宗秉・黃宓漢玄度・黃鳳夏祥老從之.

[희방동 입구에서 지은 연구(喜方洞口聯句)]
[오후에 유치명, 박향보, 김성유, 김중연, 이직심, 황종병, 황현도가 모두 돌아갔다.(午後, 柳穉明, 朴向甫, 金聖有, 金仲淵, 李直心, 黃宗秉, 玄度皆 歸)]
희방사 골짜기 그윽한 경치 우리나라에서 제일, / 喜方幽勝擅吾東
흥에 겨워 절간을 찾았네(유상) / 乘興來尋釋子宮(幼祥)
깊은 숲 때때로 산 빛 속에서 노닐다가, / 深樹時行山色裏
해질녘에 도로 다시 물소리 속에 앉았네(경하) / 夕陽還坐水聲中(擎廈)
어찌 갈매기가 놀라 도망하게 하겠는가, / 肯敎鷗鳥驚人去
복사꽃은 세상과 통하는 것이 해롭지 않네(약선) / 不妨桃花與世通(若先)
흐뭇하여 오래 머무르니 연민이 생겨 / 得意久留成戀着
번거롭게 그대에게 꼭대기까지 오르게 하네(이중). / 煩君且起上頭窮(耳中)

(…중략…)

['희방동 입구에서 지은 연구(聯句)'에 차운하다(次喜方洞口聯句)]
[유치명, 이성연, 김중연이 27일 풍기 향교에서 묵으면서 차운하여 희방사 모임에 보내왔다.(柳穉明, 李聖淵, 金仲淵, 二十七日宿豊校。次韻以送于喜方會中。)]

서쪽의 여울과 숲, 동쪽의 산골짜기(중연) / 爾瀨林西我澗東(仲淵)
푸른 등 흰 바위 용궁을 감쌌네(치명) / 蒼藤白石鎖龍宮(雉明)
길은 맑은 구름 꽃잎 사이로 들어가고(중연) / 路入曇雲花雨裏(仲淵)
사람은 산수 풍광 속에 있네(치명) / 人在山光水色中(雉明)
이상한 새 놀라서 유심히 바라보고(중연) / 怪禽驚客仍耽看(仲淵)
늙은 나무 시내 위에 가로놓여 길을 통하네(치명) / 老樹橫溪遂渡通(雉明)
냇물 근원까지 이르지 못해 한스럽게 쳐다보고(중연) / 未到源頭頻悵望(仲淵)
앉아서 흐르는 물 바라보니 생각 끝이 없네(치명) / 坐觀流水思無窮(雉明)

[폭포 연구에 뒤 이어 짓다(追成瀑布聯句)]
옛날에 희방사를 들었는데 (연중) / 昔聞喜方寺(淵仲)
지금에야 소백산에 왔네(치명) / 今從小白來(雉明)
구름 잠기어 금지(金地: 절)를 쓸고(중연) / 鎖雲金地掃(仲淵)
암벽 사이로 골이 열리네(치명) / 竇石洞天開(雉明)
시내 찬 기운 몸이 오싹하고 (중연) / 澗氣寒初逼(仲淵)
우레 소리 떨어져 돌아가려 하였지(치명) / 雷聲落欲迴(雉明)
은구슬 천 가마니 부수었고(중연) / 銀珠千斛碎(仲淵)
흰 비단 한 필 내걸렸네(치명) / 素練一條裁(雉明)
폭포 분말은 청산을 깨뜨리고(중연) / 噴沫靑山破(仲淵)
흰 물빛은 백설을 시기하네(치명) / 浮光白雪猜(雉明)
쏟아지는 폭포소리 심히 장엄하여(중연) / 轟轂聲甚壯(仲淵)
황홀하여 감흥 표현하기 어렵네(치명) / 怳忽興難排(雉明)
아까운 것은 3천 길의 폭포, / 可惜三千尺
소백 태백 모퉁이에 깊이 감추었네(중연) / 深藏兩白隈(仲淵)
판자를 걸어 길을 내고, / 架棧因作道
옥을 깎아 절로 대(臺)가 되었네(치명) / 削玉自成臺(雉明)
푸른 산 빛 엉기어 물방울 지고(중연) / 凝碧山光滴(仲淵)
검푸른 빛은 착잡한 속인의 마음이라(치명) / 寒紺俗念灰(雉明)
사계절 어찌 빗줄기 끊어지랴, / 四時何斷雨

대낮에도 흙비 쏟아진다네(중연) / 白晝每成霾(仲淵)
이 연산의 폭포를 대하여, / 對此廬山瀑
거침없이 태백과 술잔을 기울이네(치명) / 浪傾太白盃(雉明)
스님 불러 불법을 이야기 하니(중연) / 呼僧話法海(仲淵)
그윽한 흥취 더욱 길어지네(치명) / 幽興轉悠哉(雉明)

[뒤따라 연구 시에 차운하다(追次聯句韻).]
무심히 물길 따라가니 동서가 어렴풋한데 / 尋常逐水眩西東
무수한 은구슬 하늘에서 떨어지네. / 無數銀株落紫宮
웅장한 형세는 금강산 다음가고 / 壯勢肯居楓嶽下
기이한 경치는 내연산에 뒤지지 않구나. / 奇觀不讓內延中
몸을 솟구치면 점점 하늘나라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 騰身轉覺淸都近
발을 들고 돌아보면 돌길이 똟려 있네. / 擧足回看石路通
아름다운 곳에서 쉬고, 쉬다가 시 읊어 / 佳處便休休便咏
산 경치 다 거두어들이니 시가 궁한 지경에 이르도다.(이성연) /
盡收山景到詩窮(李聖淵)

28일 동주(洞主) 이제가씨, 강성등, 이중덕, 이사흥, 서약선이 산에서 나왔다. 희야골[白洞] 진사 황백수가 『정와집』을 가지고 올라왔다. 그래서 강경하, 이학원, 서유상, 유이중에게 청하여 교감하였다. 모두 4일 동안 유숙하였다. 마치고 돌아갈 때 이설서는 부석으로 향하고, 경하와 이중은 서유상에게 들러 밤에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다.

二十八日, 洞主李際可氏, 姜聖登李仲德李士興徐若先出山, 白洞黃進士伯修持『貞窩集』上來, 因要姜擎厦李學源徐幼祥柳耳仲勘校, 留宿凡四日, 罷歸, 李說書向浮石, 擎厦耳仲歷過徐幼祥, 夜話而歸.

(…중략…)

[폭포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와집』의 운자로 함께 읊다(瀑布歸路, 拈貞窩集

拈集韻, 共甫).]

안개 속 늘어선 산맥 내려다보고 / 列嶽風烟俯瞰皐
절간에서 3일 묵어 놀아도 즐겁네. / 禪牕三日此遊遨
어느 해 우(禹)의 손길 이 산을 지나가서 / 何年禹斧玆山過
여산 거꾸로 세워 폭포 우뚝한고. / 倒掛匡廬怒瀑高
이 명승지 궁벽한 곳에 감춰져 있음이 / 以此名區藏僻峽
마치 호걸 선비 초가에서 늙는 것 같네 / 有如豪士老蓬蒿
맑은 시 그로 하여금 빛나게 하려는데 / 淸詩欲使渠生色
누구 작품이 사영운 도잠과 같을는지(백수) / 述作誰能謝與陶(伯修)

바위 위 쏟아내려 멀리 흘러가 / 疊石奔流迥出皐
하느님 이 놀이 준비하였네. / 天翁準備此遊遨
지금 여산의 아름다움 빛을 잃고 / 于今忽失廬山勝
올라오니 바야흐로 소백산 높음을 알겠네. / 到此方知小白高
명승지 시문에 올리니 얼마나 다행인가 / 何幸名區同研筆
우리들 초가에서 늙는 것 한탄할 것이 없네. / 莫嘆吾輩老蓬蒿
숲 속에 우는 새들 귀로의 흥취 재촉하여 / 滿林啼鳥催歸興
미친 듯이 노래 부르며 시름 쏟아버리네(유상) / 且與狂歌瀉鬱陶(幼祥)

어느 하늘에서 신선이 구고(九皐; 깊은 연못)에 내려와 / 羽客何天下九皐
신룡을 타고 소요하는가. / 神龍跨出此逍遨
구슬 갈라 천년 동안 희게 하더니 / 劈開珠玉千年白
물줄기 분출하여 만길 폭포 이루었네. / 噴得雲雷萬丈高
명승지 마침내 산천의 으뜸이 되었는데 / 勝地終看騰海嶽
영웅 어찌 내내 초가집에 누웠으랴 / 英雄豈久臥蓬蒿
헤어지는 술자리 훗날 다시 오기를 약속하니 / 臨分文酒重留約
혜원(慧遠)은 누구인가 나는 늙은 도연명[44](학원) / 慧遠爲誰我老陶(學源)

---

44) 혜원(慧遠)은 … 도연명: 동진(東晉) 때 여산 동림사(東林寺)의 고승 혜원법사(慧遠法師)가 일찍이 도연명(陶淵明)에게 술을 마시게 해 주겠다고 하여 도연명이 동림사를 찾아갔던 고사가 있다. 《蓮社高賢傳 惠遠法師》

돌아가는 발걸음 숲에서 나와 / 翩然歸袖出林皐
폭포 돌아보며 다시 한 수를 읊네. / 瀑布回看更嘯遨
대낮의 우레 소리 산 귀신도 도망가고 / 白日雷轟山鬼走
중천에 구름 걸려 동룡(洞龍) 높이 섰네. / 半天雲掛洞龍高
연못 속 옥을 부순 듯 그대로 거울이고 / 潭心玉碎猶涵鏡
벽면은 가을 기운에 쑥 넝쿨 하나 없네. / 壁面秋橫不受蒿
서응(徐凝)의 나쁜 시[45]에도 길이 부끄러우니 / 長愧徐凝詩也惡
머리 꼬며 돌에 기대어 시상에 골몰하는 도연명(이중) / 撚髭倚石費吟陶(耳仲)

사흘 밤 신선의 꿈 산중에 어리고 / 仙夢三宵繞一皐
높은 산 풍광 속에서 흐뭇한 놀이 / 上方雲物好遊遨
마음은 폭포수 포말 따라 온통 다툼이 없고 / 心隨飛沫渾無競
시는 여산에 이르니 감히 높다 못하네. / 詩到廬山不敢高
천지 용납하여 깊은 골짜기 감추고 / 天地容他藏邃壑
연하 속 풍족한 삶 초가 속에서 늙었네. / 烟霞饒我老蓬蒿
그에게 시 쓰게 하여 도리어 일이 많으니 / 令渠述作還多事
어찌 천 년 전의 사영운 도잠을 생각하랴(경하) / 千載何須憶謝陶(擎廈)

맑은 시내 아홉 번 건너 한 언덕 열리니 / 九渡淸溪劈一皐
신선도 이곳에 내려와 놀았으리라 / 天仙應降此逍遨
금강산 만폭동 언제 보았던가. / 金剛萬瀑何曾見
여산 긴 냇물도 더 높지 않다네. / 廬嶽長川却未高
조물주 여기에다 길이 비장하였으니 / 造物於斯太慳秘
좋은 분 초가 살이 한탄하지 말게나. / 好人莫恨在蔓蒿
동쪽으로 태백산 유람 다시 약속하면서 / 東遊太白重留約
낙동강 돌아가는 뱃길에 도산사당 참배하리라(국재) / 沿洛歸舟拜謁陶(國材)

---

45) 서응(徐凝)의 나쁜 시: 서응은 당(唐)나라의 시인이다. 그가 지은 〈여산폭포(廬山瀑布)〉 시의 끝 구절에 "한 가닥 폭포가 푸른 산빛 깨뜨리네.(一條界破靑山色)"라 한 것에 대해 소식(蘇軾)이 속되고 비루하다고 비판하며 장난삼아 절구 한 수를 지었는데, 그중에 "폭포수가 흩뿌리는 물거품은 많건마는, 서응의 나쁜 시를 씻어 주지 않는구나.(飛流濺沫知多少 不與徐凝洗惡詩)" 하였다. 《東坡全集 卷12》

[폭포에 이르러 징사(澄師)와 작별하며 지어 드림(行到瀑布, 贈別澄師)]
산승이 나그네 떠나보내니 / 山僧送行客
산문 밖에 자욱하던 구름 걷히네. / 山外宿雲開
부디 신선되어 떠나지 마소 / 愼勿乘仙去
훗날 나그네 다시 찾아 올 때까지(하계 원) / 留待客重來(霞溪 源)
조계수 끌어다 놓고 / 劃出曺溪水
구름 뚫고 길 하나 열었네. / 穿雲一路開
스님에게 일러 말하길 / 寄語甁鉢釋
내년 단풍 들 때 다시 찾아오려네(백하 수) / 丹葉客重來(白下 修)

나그네 흥에 겨워 찾아오니 / 客子乘興至
암벽 틈의 길 구름에 기대어 열렸네 / 巖逕倚雲開
산 가득히 단풍 물든 길 / 滿山楓葉路
신선들 오라고 펼쳐놓았다네(송서 하) / 留與列仙來(松西 厦)

천년 세월의 반석에 / 千年盤陀石
만 길 폭포 열렸네. / 萬丈瀑布開
신선들 기약 없이 모여 / 群仙不期會
오월 바람 타고 오네(국오 재) / 五月天風來(菊塢 材)

만고에 쉬지 않고 비상하는 폭포 / 萬古垂天瀑
소백산 깊은 골짜기에 열렸네. / 白山深處開
어찌 훗날 약속을 말하리오. / 何須語後約
흥에 겨우면 절로 찾아오리니(남애 상) / 興到翁自來(南厓 祥)

고풍스러운 희방사 스님 / 喜方僧風古
나그네 보자 안색이 활짝 피네 / 見客好顔開
신선 산에 사흘 밤 묵고 난 그리움 / 仙山三宿戀
밤마다 꿈속에 찾아오리라(수정 이중) / 夜夜夢中來(水晶 耳仲)

2. 유흠목(柳欽睦, 1843~1910), <희방폭포를 보고(觀喜方寺瀑布)>, 『극암집(克菴集)』

길고 무늬 없는 흰 비단, / 長如匹練素無文
물소리는 마치 소낙비 소리처럼 들리네. / 聲勢令人急雨聞
아래로 비치는 햇살에 둥근 무지개 비스듬히 걸리고, / 下照日輪橫作蝀
가운데로 숨은 용은 구름기운 토해내지 / 中藏龍氣吐興雲
자줏빛 이내 천 길 절벽에 걸려 있어, / 煙紫鑪生千尺掛
푸른 산을 쪼개어 둘로 나누네. / 山靑界破一條分
멀리 먼지 덮인 세상 막으니 어찌 번뇌가 생기리오. / 遠隔塵寰何激惱
미친 듯 흘러가면서 유행에 휩쓸리는 무리 구하고자 하지 않네. / 狂奔不欲援流群

* 유흠목(柳欽睦)은 조선 말기의 학자이다. 희고 무늬 없는 비단을 길게 걸어 놓은 듯 쏟아지는 물소리는 소나기가 퍼붓는 듯 희방사폭포에는 저물녘 햇살에 무지개가 걸려 있다고 읊으며, 산의 푸른 빛 폭포 한 줄기가 나누더니 미친 듯이 흘러 속세의 먼지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시상을 마무리 하였다.

3. 김홍기(金鴻基, 1884~1954), <폭포(瀑布)>, 『만창유고(晩蒼遺稿 - 서울: 명월루, 2004)』

여산폭포의 좋은 경치 이곳에서 찾으니 / 廬山勝狀此中尋
한 길로 나는 듯 흐르는 물 백 척 깊이일세. / 一道飛流百尺深
떨어지는 곳에 오히려 푸른 절벽의 형세를 보겠고 / 奔處逾看蒼壁勢
기울어질 때는 검푸른 소의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네. / 傾時難測黑湫心
하늘에 기댄 차가운 칼은 사람 간담을 놀라게 하고 / 倚天寒釰警人膽
땅에 떨어진 마른 우레는 귀신의 음기를 깨뜨리네. / 落地晴雷破鬼陰
이런 기이함을 보지 못하고 헛되이 세상을 저버렸으니 / 不見此奇空負世
그대여 내가 초초하게 읊조림을 들어보게 / 請君聽我草草吟

4. 이야순(李野淳, 1755~1831), <희방폭포에서 선조의 <지방폭포>시에 차운하다.(喜方瀑。次先祖詩池方瀑韻。) [병서(並序)]>, 『광뢰집(廣瀨集)』 卷2

일찍이 선조가 지은 <지방폭포(池方瀑布)> 시 2수를 보았다. 나는 처음에 '지방'이 '희방'을 잘못 쓴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군지를 살펴보니 지방사(池方寺)는 군의 남쪽 천부산(天浮山) 아래에 있는 것이며, 거기에 선조의 절구 2수가 붙어 있었다. 희방을 지방으로 잘못 쓴 것이 아님이 명백하였다.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지금은 지방사가 폐사가 되어 시 또한 사라졌다고 한다. 지방사의 폭포가 희방폭포와 비교해서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시를 희방폭포로 옮겨 거는 것도 일인지라 바빠 겨를이 없어서 선조가 지은 시의 운을 사용해서 시를 짓는다.

嘗看先詩。有池方寺瀑布二絶。余初以爲喜變爲池。今聞郡誌。有池方寺在郡南天浮山下。係之以先生二絶詩。非喜變爲池也明矣。人又謂寺今廢而詩且沒矣。瀑比喜方。不知落下幾層。以詩移揭于喜方。亦一事。卒卒未暇。爲步其韻。

큰 함성 내지르며 떨어지는 운천(雲泉)[46]은 옷을 적실 듯하니 / 吼落雲泉欲濺衣
산도깨비 놀라 달아나고 물새는 날아오른다. / 山魑驚遁水禽飛
안타깝도다 골짜기 천년의 명승지인데 / 可憐一壑千年勝
선생께서 쓰신 시가 걸려 있지 않구나. / 不入先生肇發揮

쏟아지는 눈인가 흩어지는 구름인가 비스듬한 백 척 높이 / 瀉雪崩雲百尺斜
아마도 은하수 흘러 내려 물결 이룬 것인지도 / 天河疑若漏餘波
바라건대 용면(龍眠)[47]의 솜씨 빌릴 수 있다면 / 願言一借龍眠手
교인(鮫人)[48]이 짠 십 척의 비단 깁을 높이 매달 수 있을 것을. / 高揭鮫人十尺紗

---

46) 운천(雲泉): 흰 구름과 맑은 샘물이 있는 승경(勝景)이라는 말로, 보통 은자(隱者)의 처소를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서는 폭포를 지칭한다.
47) 용면(龍眠): 송대(宋代)의 저명한 화가 이공린(李公麟)의 별호이다.
48) 교인(鮫人): 교인은 바다 속에 사는 상상 속의 인물이다. 교인(鮫人)이 물가의 인가(人家)에 머물다가 헤어질 때 눈물방울을 짜내어 진주 구슬로 변하게 한 뒤, 소반에 가득 담아서 주인에게 이별 선물로 주었다는 전설이 진(晉)나라 좌사(左思)의 〈오도부(吳都賦)〉 주(註)에 나온다.

* 이야순(李野淳)은 조선 후기 학자로 자는 건지(健之), 호는 광뢰(廣瀨)이며, 이황(李滉)의 9세손이다. 선조가 지은 '지방폭포(池方瀑布)'의 시에서 '지방'이 '희방'을 잘못 쓴 것인 줄 알았다가 군지를 살펴보고 지방사(池方寺)는 군의 남쪽 천부산(天浮山)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지방사가 폐사가 되어 시 또한 사라졌다고 한다. 선조의 시를 희방사에 걸고 싶으나 겨를이 없어 우선 선조가 지은 시의 운을 사용해서 시를 짓는다고 하였다. 시는 7언 절구 2수로 우렁찬 폭포 소리에 산도깨비가 놀라 숨고 물새들이 날아오른다고 하며 폭포의 절경을 읊었다.

5. 서창재(徐昌載, 1726~1781), <비 내린 후 폭포가 용추로 쏟아지는 것을 보다(雨後觀瀑布噴薄注龍湫)>,『오산집(梧山集)』卷1

비 내린 뒤 폭포수 매달려 골짜기 가득 메우니 / 雨過懸流滿壑來
바라보매 눈인 듯, 들으매 우레인 듯 / 望之疑雪聽疑雷
잠룡이여, 구름이 움직여 그러는 것 아니니 / 潛龍不是雲行物
포말 날리고 물방울 떠다녀도 함부로 서둘지 말게나. / 飛沫浮漚莫浪催

* 서창재(徐昌載)는 조선 후기 학자로 자는 상보(尙甫), 호는 오산(梧山)이다. 위의 작품은 그의 문집 가운데 <희방사에 묵으며(棲喜方寺)> 다음에 실려 있어 희방폭포를 대상으로 지은 시임을 알 수 있다. 비가 내린 후 더욱 세차게 쏟아지는 폭포수, 포말이 크게 일렁이는 용추의 모습을 시로 형상화하였다. 바라볼 때는 백설인 듯하고 들을 때는 우레인 듯 하다며 우렁차고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수와 포말을 시각과 청각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3) 실경산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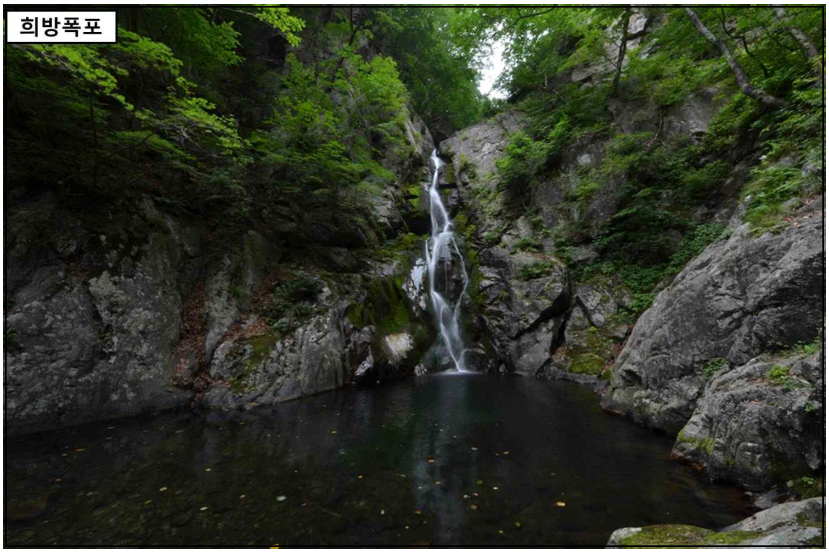
- 자료 없음.

(4) 현재적 재구성

소백산 중턱 해발고도 700m 지점에 있는 높이 28m의 폭포로, 소백산 절경 중 한 곳이며 영남지방 제1의 폭포로 꼽힌다. 소백산의 영봉 중 하나인 연화봉(1,383m)에서 발원하여 희방계곡을 이루며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요란한 굉음과 물보라를 일으키며 수직 암벽을 타고 떨어지는 모습이 장관이다. 조선 전기의 학자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하늘이 내려준 몽유처(天惠夢遊處)'라 평했다 한다. 폭포 바로 위에는 희방사가 있으며, 폭포 아래의 희방계곡은 숲이 울창하고 계곡 물이 차서 피서지로 각광받는 곳이다. 해당 경관을 지도와 함께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 희방폭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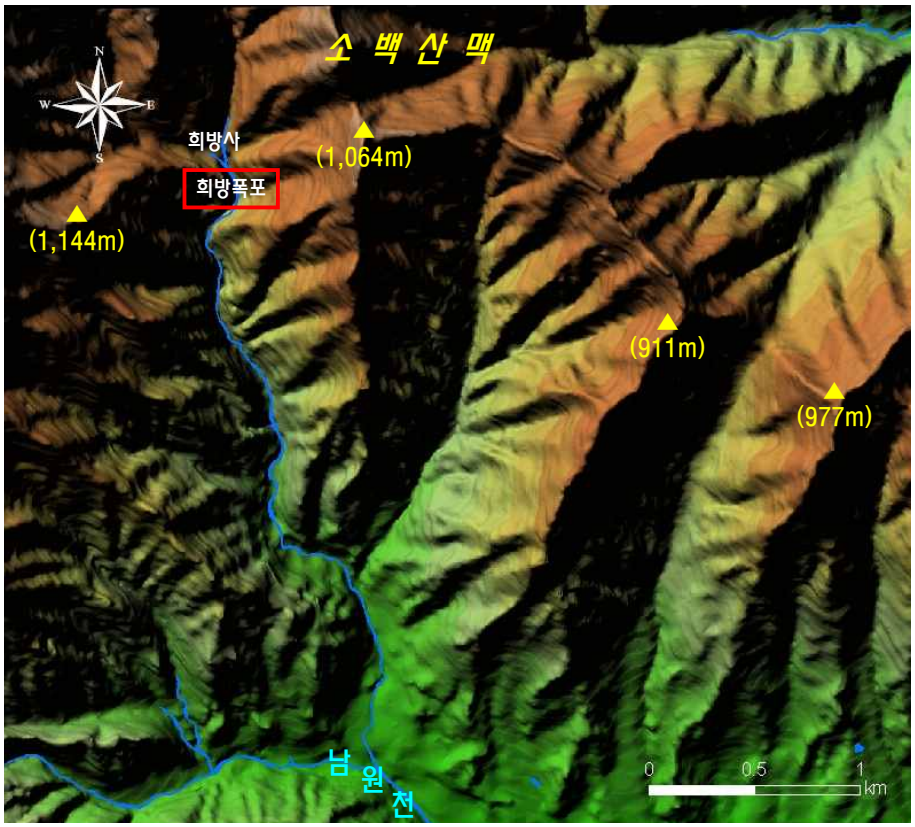
② 희방폭포 상류의 희방사



(5) 지형 및 식생 분석

가. 지형 및 지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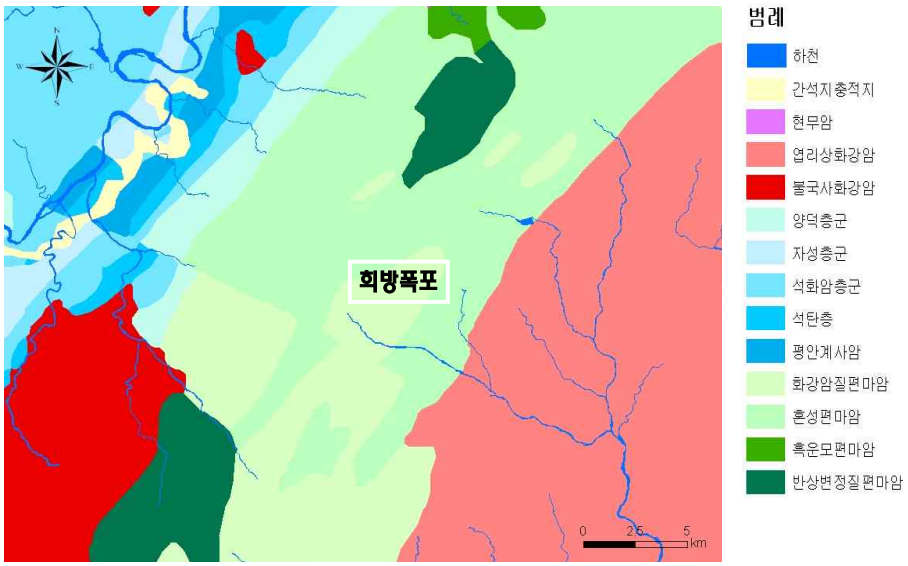
소백산국립공원에서 북동-남서 방향 국망봉(1,421m), 비로봉(1,439m), 제1연화봉(1,394m), 연화봉(1,383m), 제2연화봉(1,357m)으로 산열이 달리고 있는데 희방폭포는 그 중 연화봉과 제2연화봉 사이의 희방계곡에서 관찰되는 경관이다. 좁은 계곡을 따라 소하천이 남쪽으로 흘러가 남원천과 합쳐져 풍기읍을 관통하며 하류로 흘러 낙동강으로 유인된다. 낙동강 지류의 최상류 지역에 위치한 희방폭포는 소백산의 으뜸가는 절경이며, 영남의 제1폭포로 손꼽히는 높이 28m의 웅장한 폭포로 해발고도 700m에 위치하고 있다. 소백산 영봉(靈峯)의 하나인 연화봉 및 깊은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몇 천 굽이를 돌아서 흐르다가 이곳에 멈춰,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한 소리와 함께 폭포수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습이 절경이다.



희방폭포 일대의 지형(DEM)

소백산 중앙부 지역은 풍화에 강한 율리계 편마암류가 분포하여 높은 산악지대를 이룬다. 풍화에 약한 조선계와 영주 흑운모 화강암이 분포하는 북서 주변

부와 남동 주변부 지역들은 비교적 낮은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소백산의 지질구조는 적어도 3회 이상 변형단계를 거쳐 형성되었다. 영남육괴의 북서부에 해당하는 선캄브리아기의 소백산변성암복합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초변성작용에 해당하는 화강암화작용 내지 미그마타이트화작용을 포함하여 2회의 광역변성작용이 발생했음을 반영한다. 북서쪽 주변부를 따라 옥천지향사대의 기저인 양덕층군의 장산규암층이 소백산 편마암 복합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다. 남동쪽 주변부 일부지역에는 쥐라기 대보 화강암이 관입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소백산 일대는 전형적인 편마암 산지에 속한다. 지질도에서 확인된 바로 희방폭포가 있는 소백산 산열을 북동-남서 방향의 편마암 계통의 기반암이 주를 이룬다. 소백산 산체의 북서쪽은 고생대 퇴적암 계통, 남동쪽은 중생대 화강암 계통이 역시 북동-남서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희방폭포 일대는 화강암질편마암과 미그마타이트질편마암이 교호하는 구간으로서 절리밀도에 차에 따른 차별적인 풍화·침식 작용에 따라 계곡을 따라서 하상의 구배차가 커져 경이적인 하상경관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희방폭포 일대의 지질

편마암은 여러 방향의 선구조에 의해서도 잘 해체되지 않아 거대한 산지를 이루고 있으며 풍화도 깊게 진전되지 않은 특성을 보인다(양재혁, 2007). 편마암은 화강암과 같은 결정암이지만 광물결정이 랜덤분포를 보이지 않고 석영질의 띠(felsic band)와 유색광물(mafic mineral)의 띠가 교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물질들의 배열(편리구조)에 의해 석영질의 띠는 입상 붕괴되는 화강암과 달리, 장방형의 암편(flake)이나 암설로 풍화된다(김영래, 2005). 희방폭포도 좁고 긴 단열을 따라 개석이 진행되어 폭포 자체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편마암의 표층풍화로 인해 다량으로 공급된 미립토가 함유한 수분저장능력으로 인해 하천수가 풍부하게 유지하고 있어 산세 및 수세가 조화롭다.

나. 자연 경관



희방폭포



희방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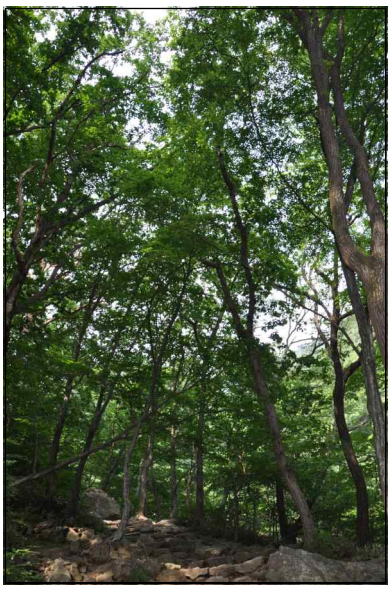
소백산은 장엄하나 완만한 산등성이와 끝없이 펼쳐지는 운해 그리고 울창한 산림이 수려한 계곡과 어울려 장관을 이루어 많은 등산객이 찾아 든다. 지리산과 함께 편마암 산지로 대표되는 산으로서 점토, 실트 등의 미립토가 많아 식생밀도가 높은 전형적인 토산의 경관을 자랑한다. 소백산맥의 중심에 있는 소백산 국립공원의 서쪽 자락에 물줄기가 꽤 거세게 떨어지는 웅장한 희방폭포가 자리한다. 높이 28m로 내륙에서 큰 규모로 손꼽히는 희방폭포가 떨어지는 계곡에는 숲과 그늘과 괴암이 한데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폭포 바로 위에는 선덕여왕 12년에 두문스님이 창건한 희방사가 자리한다(신정일, 2012).

희방폭포는 토산에서 흘러나온 많은 물줄기가 모여 연중 세차게 아래로 떨어진다. 높은 비고차에 비해서 폭호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소백산 등산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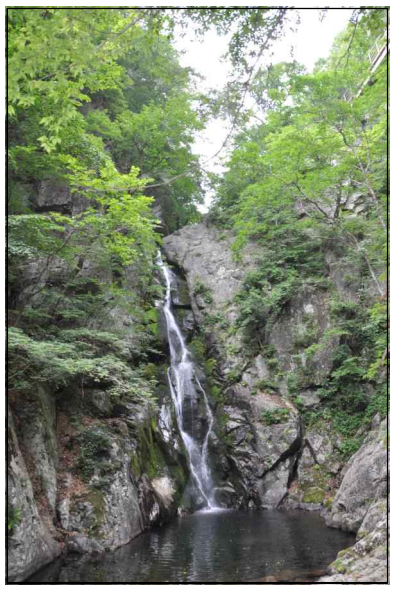
에 속하나 자연보호 때문에 통제되는 곳이 많다.

다. 식생경관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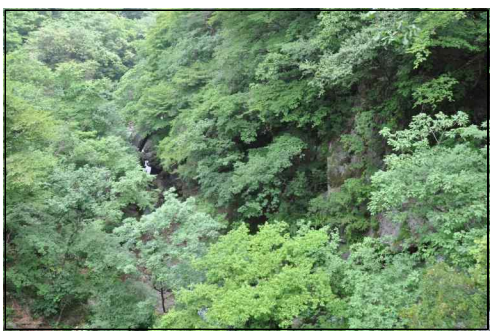
희방계곡의 주요 식생군은 소나무군락지, 소나무-신갈나무군락지, 신갈나무-노각나무-서어나무군락지, 신갈나무-당단풍나무군락지로 구분된다. 소나무 중심의 상록침엽수와 신갈나무, 서어나무를 주요 종으로 하는 낙엽활엽수로 나눠진다. 희방폭포를 향하는 길 주변의 대표식생은 서어나무, 신갈나무였으며 아교목층은 노각나무, 고로쇠나무, 당단풍나무, 물푸레나무, 쪽동백나무, 쇠물푸레나무, 층층나무가 주로 출현하였다. 관목층은 산수국, 누리장나무, 고추나무, 생강나무, 산철쭉, 덜꿩나무 등이었고, 폭포 주변 암벽 및 계곡의 초본식생으로 고마리, 산괴불주머니, 으아리, 물봉선, 기린초 등이 주요 종을 이루었다.



희방폭포 가는 길의
낙엽활엽수 터널경관



희방폭포 주변 식생경관



희방폭포 주변 낙엽활엽수 수관부



암벽부의 산수국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가.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

❍ 문화·역사적 가치: 희방폭포는 영남 제1폭포라는 별칭이 전할 만큼 소백산맥 이남의 대표적인 폭포로 세상에 알려져 있다. 이 폭포는 경상북도 북부, 특히 순흥 지역에서 활동했던 조선시대의 영남 사림들이 즐겨 찾던 폭포였다. 그래서 『소수서원잡록』을 비롯한 순흥 지방의 저술들에 이 폭포에 대한 기록이 자주 보이고, 희방폭포를 유람하고 기록한 유흠목, 김홍기, 정범조 등의 옛 시문들이 전한다. 이들 시문에는 희방폭포의 웅장함에 대한 노래와 함께 희방사 골짜기의 수려한 풍광을 잘 묘사하고 있어 이곳의 명승적 가치를 더한다.

❍ 지형적 가치: 희방폭포는 편마암산지로 대표되는 소백산 산열의 서쪽 연화봉 자락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소하천의 계곡에 속해 있다. 비고차가 커서 웅장하기로 소문나 있지만 상대적으로 폭호의 규모는 크지 않다. 왜냐하면 단열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집수구역(river basinment)이 좁은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편마암의 편마구조로 인해 풍화·침식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울창한 식생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심산유곡의 경관으로 대표되나 하폭이 작아 유량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취약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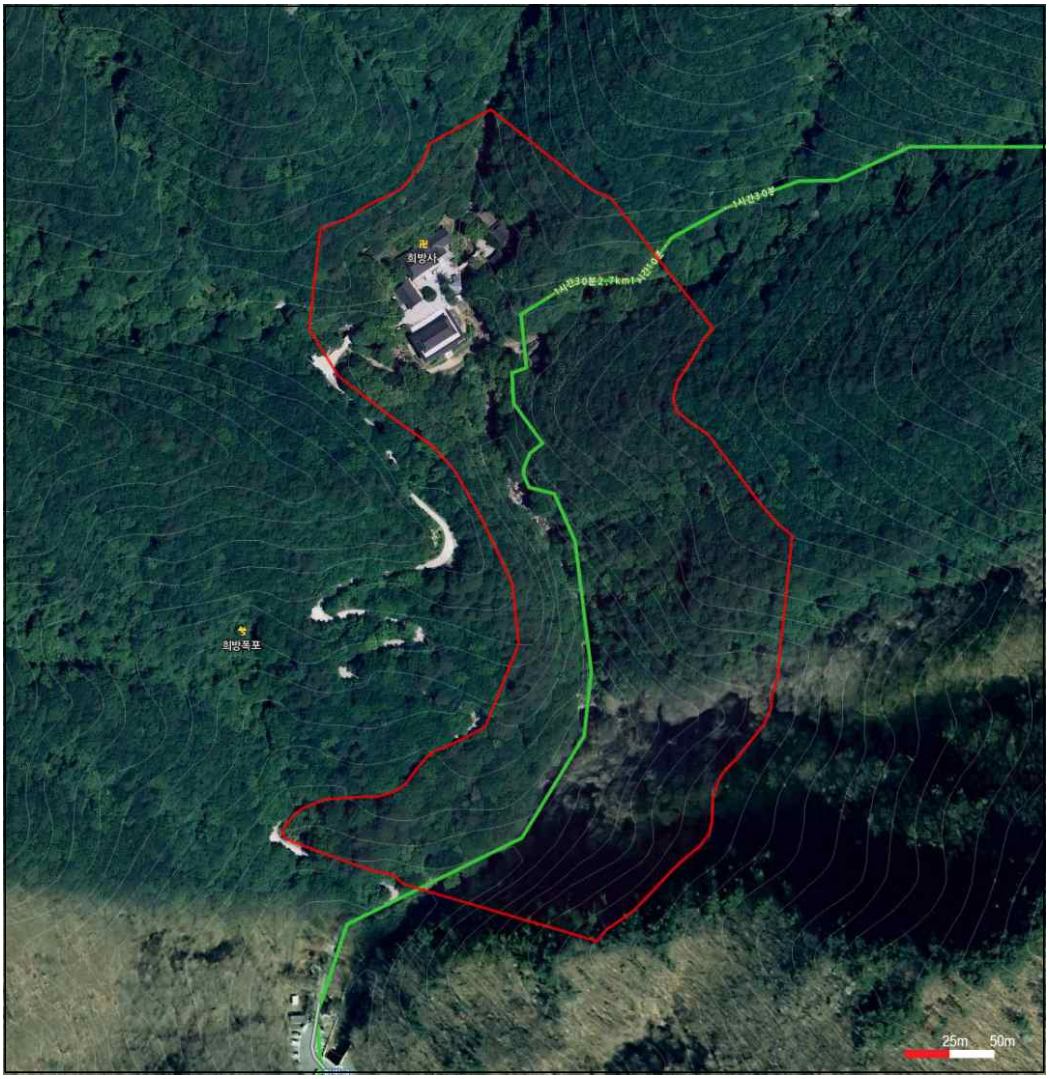
❍ 식생적 가치: 희방폭포를 향하는 계곡부 낙엽활엽수 원개경관의 봄의 신록, 가을의 다양한 단풍은 심산유곡의 고즈넉함을 더한다. 다양한 계류와 거석과 바위들, 돌이 산재하는 희방계곡을 따라 시원스럽게 흐르는 맑은 물소리, 다양한 형태의 여울과 소, 거친 V자형의 스카이라인을 그리면서 형성되어지는 자연수림대의 조망이 수려하다. 희방계곡은 노각나무 자생지의 최북단지역으로서 의미가 크며 쪽동백나무, 서어나무 등과 혼생하여 아름다운 식생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희방폭포는 소백산의 으뜸가는 절경이며 영남의 제1폭포로서, 불규칙한 암반 사이에서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폭포와 이를 포용하고 있는 수평적인 낙엽활엽수의 자연경관적 가치가 크다.

나. 명승의 지정 범위

명승의 지정 명칭과 범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지정내용
명칭	영주(榮州) 희방폭포(喜方瀑布)
지정종별	명승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지번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산1-1번지 외 3필지
면적	72,143.1㎡
관리단체	경상북도 영주시청
문화재 지정 여부	지정 권장




희방사
희방폭포
25m
50m

2) 문경(聞慶) 선유구곡(仙游九曲)

(1) 지리지

선유구곡에 대해서는『여지도서』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위치와 골짜기의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또한 구곡 각각의 이름과 각자가 새겨져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충청도 쪽에 속하는 외선유동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명칭	지리지	세부 항목	내 용
선유동	여지도서	문경현	대야산 동쪽 6, 7리에 있다. 온 골짜기 모두 흰 바위와 맑은 시내로 어우러져 그 안에 경치가 훌륭한 구곡(九曲) 곧 옥석대(玉舄臺), 난생뢰(鸞笙瀨), 영귀암(詠歸巖), 탁청대(濯淸臺), 관란담(觀瀾潭), 세심대(洗心臺), 활청담(活淸潭), 영사석(靈槎石), 옥하대(玉河臺)가 있는데, 모두 바위에 큰 글자로 이름이 새겨져 있다. 증(贈) 집의(執義) 신필정(申弼貞)이 부지런히 학문을 닦던 곳이다. 서쪽에 외선유동(外仙遊洞)이 있는데 역시 뛰어난 자연 경관을 지니고 있다. 문장공(文莊公) 정경세(鄭經世)의 시가 전한다.

(2) 고시문

선유구곡에 대한 고시문은 9곡에 대해 소개하며 아름다운 경관을 노래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 시문에서는 선유동계곡이 단순히 유람만 하는 곳이 아니라 공부와 수양을 하는 곳이라 노래하기도 하였다. 각 작품별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선유동 -시(詩)	김창협(金昌協)	『농암집(農巖集)』(권3)	〈송면(松面)에서 외선유동(外仙游洞)으로 향해 가며〉
		『농암집(農巖集)』(권3)	〈외선유동(外仙游洞)〉
	정경세(鄭經世)	『우복집(愚伏集)』(권2)	〈동쪽 선유동의 반석에 제하다.(題東仙遊洞盤石)〉
	권상일(權相一)	『청대집(淸臺集)』(권3)	〈선유동으로 들어가 옥석대에 이르렀다. 시내에는 9곡이 있으니, 옥석대, 난생뢰, 영귀대, 관란담, 수조대, 세심대, 영사석, 활청담, 옥하대이다.(入仙遊洞至玉舄臺 溪有九曲。玉舄臺, 鸞笙瀨, 咏歸臺, 觀瀾潭, 垂釣臺, 洗心臺, 靈槎石, 活淸潭, 玉河臺。)〉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선유동 -시(詩)	송병선(宋秉璿)	『연재집(淵齋集)』 (권2)	〈학천정(鶴泉亭)〉
	남한조(南漢朝)	『손재집(損齋集)』 (권1)	〈선유동 잡영(仙遊洞雜詠) [병서(幷序)○계축(癸丑)]〉
	정종로(鄭宗魯)	『입재집(立齋集)』 (권2)	〈余聞聞喜山水多絶勝。欲一遊賞久矣。甲寅淸和。友人南宗伯邀我共遊於其別庄仙遊洞。振袂入杜陵。聯鑣作行。宗伯之弟朝伯。余之季兒象觀偕焉。自陽山歷內外仙洞及巴串龍遊諸勝。只得若干首。方欲追賦其景物。而恨無起余者。適會文瑞來到。遂與共賦。〉
	유식(柳栻)	『근와집(近窩集)』 (권1)	〈次靈槎石韻〉
		『근와집(近窩集)』 (권1)	〈次玉舄臺韻〉
	강세진(姜世晉)	『경현재집(警弦齋集)』 (권1)	〈玉舄臺。令琴客彈琴。〉
선유동 -문(文)	송병선(宋秉璿)	『연재집(淵齋集)』 (권22)	〈遊華陽諸名勝記〉
		『연재집(淵齋集)』 (권27)	〈학천정기(鶴泉亭記)〉
	남한조(南漢朝)	『손재집(損齋集)』 (권5)	〈유천서에게(與柳天瑞) [갑인년(甲寅)]〉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권160)	〈慶尙道尙州牧方三祿獄〉
	곽종석(郭鍾錫)	『면우집(俛宇集)』 (권138)	〈濯淸臺記〉

<시(詩)>

1. 김창협(金昌協, 1651~1708), <외선유동(外仙游洞)>, 『농암집(農巖集)』 卷3

푸른 시내 바닥이 훤히 보이고 / 靑溪深淺流
높낮은 바윗돌은 모두가 흰 돌 / 高下一白石
옛적부터 물과 바위 서로 씻기어 / 終古相漱雪
이처럼 유리 빛을 빚어냈으리. / 作此玻瓈色
나는야 정드는 곳 안장 풀고서 / 解鞍情便止
가다 앉다 마음이 내키는 대로 / 行坐信所適
덩굴 속엔 때늦은 꽃이 숨었고 / 晩花翳綠蘿
벼랑 위엔 산새가 노래하는데 / 高鳥吟靑壁
바위산이 깊은 숲 둘러 에워싸 / 巖嶂閉陰岑

인가 멀어 나무꾼 길이 막혔네. / 人遠樵路隔
모든 게 하나같이 고요한 곳에 / 羣物一以靜
구름 햇볕 티 없이 맑기만 한데 / 雲日自淸歷
때마침 상서로운 바람이 불어 / 景風方晝至
흔들리는 나뭇가지 정적을 깨네. / 披拂叩冥寂
옛적에 어느 신선 노닐었던고 / 游者古何僊
이제 와선 그 자취 흔적 끊기어 / 後來遂絶跡
흔들리는 패옥소리 들리지 않고 / 風珮無遺聲
영지라 신선초도 찾을 수 없네. / 芝英不可覓
샘물로 참대 죽순 데치고 삶아 / 淸泉瀹苦竹
이로써 불로 선약 삼아볼거나 / 聊以比靈液

2. 정경세(鄭經世, 1563~1633), <동쪽 선유동(仙遊洞)의 반석에 제하다.(題東仙遊洞盤石)>,『우복집(愚伏集)』卷2[49]

두 선유동 서로 간에 가까이 붙어 있어 / 兩仙遊洞好相隣
중간에는 한 고개의 흰 구름만 놓여 있네. / 只隔中間一嶺雲
명승지를 가지고서 좋고 나쁨 논평 말라 / 莫把名區評甲乙
하늘이 돌과 시내 양쪽 같게 나눠 줬네 / 天將水石與平分
[불한령(不寒嶺) 동쪽은 문경(聞慶) 땅이고 서쪽은 청주(淸州) 땅인데, 두 곳에 모두 수석이 아름다운 곳이 있어서 모두 선유동(仙遊洞)이라고 부른다. 서로 간의 거리는 겨우 이십 리 남짓으로, 유람하는 자들이 서로 자신들이 있는 곳이 더 좋다고 하여 어느 곳이 더 좋다고 정할 수가 없다.(不寒嶺以東爲聞慶地。以西爲淸州地。兩處皆有水石之勝。而俱名仙遊洞。相去僅二十里。遊賞者互有左右。卒莫能定也.)]

* 사람에 따라 내선유동과 외선유동의 우열을 가리도 하는데, 그러한 우열 논쟁은 무의미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49)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 참조.

3. 권상일(權相一, 1679~1759), <선유동으로 들어가 옥석대에 이르렀다. 시내에는 9곡이 있으니, 옥석대, 난생뢰, 영귀대, 관란담, 수조대, 세심대, 영사석, 활청담, 옥하대이다.(入仙遊洞至玉舄臺 溪有九曲。玉舄臺，鸞笙瀨，咏歸臺，觀瀾潭，垂釣臺，洗心臺，靈槎石，活淸潭，玉河臺。)>,『청대집(淸臺集)』卷3

바위는 천연의 색을 가지고 있으며, / 石有天然色
시내는 태고의 소리를 머금고 있다네. / 溪含太古音
황홀한 옥천동에 / 怳惚玉洞天
흐드러진 기화요초의 숲 / 爛熳琪花林
난생뢰 물소리 오히려 들을 만하고, / 鸞笙尙可聽
옥석대 찾아갈 만하네. / 玉舄如相尋
오래도록 머물 수 없기에, / 無以久淹留
도리어 산 속의 새 부러워하네. / 却羨山中禽

그윽한 선유동, / 窈窕仙遊洞
현명한 이 일찍이 은거했던 곳 / 碩人曾薖軸
나월(蘿月)[50]은 베갯머리 비추고, / 蘿月枕上得
계운(溪雲, 계곡 구름)은 집 안에 머물지. / 溪雲軒裏宿
고풍(高風)이 불어 멈추지 않고, / 高風吹未了
송계(松桂)는 푸르러 온 골짜기에 가득하네. / 松桂靑滿壑
나의 흠앙하는 마음 더해져 가는데, / 我來增感仰
산 속에 비치는 햇살 잦아드니 밤이 되려나. / 山日淡將夕

따스한 양기로 앉는 곳마다 봄빛이라, / 揚休滿座春
시문을 고치면서 주필(朱筆)을 연마하네. / 點易硏朱筆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으니, / 于今不可見
내 그리움 어찌 그치리오. / 我褱何由歇
정자는 텅 비었고 푸른 숲 위로 떠 있는 구름 / 亭空綠林雲

50) 나월(蘿月): 여라(女蘿)의 덩굴에 달빛이 비치는 것을 말한다.

문 닫아걸고 있자니 맑은 시내에 달빛 비치네. / 門掩淸溪月
물가에서 난초 지초 캐면서, / 采采汀蘭芷
선현의 자취 공손히 따르네. / 瓣香敬手蓺

* 권상일(權相一)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선유구곡을 이루는 아홉 절경, 옥석대(玉舄臺), 난생뢰(鸞笙瀨), 영귀대(咏歸臺), 관란담(觀瀾潭), 수조대(垂釣臺), 세심대(洗心臺), 영사석(靈槎石), 활청담(活淸潭), 옥하대(玉河臺)를 시 제목의 주석에다 적어두었다. 그리고 선유동에서 선유구곡의 풍경과 이에 대한 감상을 5언 율시 3수로 표현하였다. 첫 번째 작품에서는 계곡이 태고 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난생뢰의 물소리 들을만하고 옥석대 찾아갈 만하다며 오래 머물지 못하는 유람객의 처지라 그곳에 살고 있는 새가 부럽다고 하였다. 두 번째 작품에서는 한가하고 고요한 선유동계곡에 덕이 있는 사람이 한가로이 은거했던 곳으로 오랫동안 불어온 고풍(高風)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비들이 사랑한 곳이었음을 읊었다. 세 번째 작품에서는 선유동계곡에 가득한 봄기운으로 시상을 열고, 선유동계곡이 단순히 유람만 하는 곳이 아니라 공부와 수양을 하는 곳으로 선현의 향기가 전해진다며 시상을 마쳤다.

4. 송병선(宋秉璿, 1836~1905), <학천정(鶴泉亭)>,『연재집(淵齋集)』卷2

봉암(蜂巖)은 별세계로 열려 있어, / 蜂巖開別界
유창(幽暢)한 곳에 새로 기둥을 세웠지. / 幽暢一新楹
막대 짚고 신 신어 선현을 뒤따라, / 杖屨追先哲
시서(詩書)를 후생에게 강론하였네. / 詩書講後生
깊은 샘물 맑은 비파소리처럼 울리고, / 泉泓淸瑟響
우뚝 선 절벽은 푸른 병풍을 이루었네. / 壁立翠屛成
백세토록 정채(精彩) 머물렀으니, / 百世留精采
어찌 한갓 산수의 정일뿐이리오? / 豈徒山水情

* 송병선(宋秉璿)은 구한말 항일운동가로 자는 화옥(華玉), 호는 연재(淵齋), 동방일사(東方一士)이다. 조선 후기의 학자인 도암 이재(陶庵 李縡)가 문경 선유동에서 후학을 가르쳤던 자리에 지역 유림(儒林)들이 그의 덕망을 기려 세운 정자가 학천정(鶴泉亭)이다. 송병선은 시에서 벌바위[蜂巖] 앞으로 별세계가 펼쳐져 있는 곳에 새로이 정자를 세웠다며 시상을 일으키고는 아름다운 산수의 모습을 경련에서 묘사한 후 한갓 산수의 아름다움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도학의 정신이 흐르고 있음을 설의법을 통해 강조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였다.

5. 남한조(南漢朝, 1744~1809) <선유동 잡영(仙遊洞雜詠) [병서(幷序)○계축(癸丑)]>,『손재집(損齋集)』卷1

[선유동(仙遊洞)]
[주자의 운곡시 제1수의 운자를 사용하였다.(用朱子雲谷第一絶韻)]
어찌 반드시 신선될 필요 있으리오. / 何必羽衣客
이 골짜기에 와서 신선처럼 노닐게나. / 爲仙遊此谷
언제나 산문(山門)에 들어서면, / 每一入山門
시원하게 속세 버리고 우뚝 서게 되네. / 飄然遺世獨

[영사석(靈槎石)]
은하수 물가에 매어둔 것이 아니라서, / 不繫銀河渚
이 깊은 골짜기로 떠내려 와 쓰러져 있네. / 偃臥此深谷
아무도 나루터 어디냐고 묻지 않아 / 無人來問津
그냥 혼자서 시를 읊노라. / 也自嘯詠獨

[세심대(洗心臺)]
쉬지도 못하다가 매인 바 없게 되었으니 / 不息故無累
계곡의 흐르는 물을 바라보게나. / 請看流水谷
흐르는 시냇가에 새겨둔 교훈, / 所以川上訓
회옹[주희]께서 근독(謹獨)을 말씀하셨지. / 晦翁發謹獨

[관란대(觀瀾臺)]

곱디고운 산 아래 물, / 涓涓山下水

골짜기를 모두 담기는 어렵다네. / 艱難透壑谷

감형(坎亨)[51]은 격물치지와 같으니, / 坎亨同物格

이 이치 유독 장횡거만이 알았다네.[52] / 此理橫渠獨

[탁영담(濯纓潭)]

자그마한 티끌조차도 굽이쳐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 不受微塵涴

종일토록 빈 골짝 즐기고 있네. / 終日湛空谷

갓끈 씻는 것도 원하지 않는데 / 濯纓猶不願

그대 어찌 발을 씻으리오. / 濯足子何獨

[영귀암(詠歸巖)]

바위틈 시냇물 맑고 또 물결 일렁이니, / 石澗淸且漪

얼굴과 발 씻는 것은 이 골짜기 최고라네. / 盥濯堪此谷

읊조리며 여러 벗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 詠歸同數子

묘한 흥취 누가 유독 깨달았을까. / 妙趣誰覺獨

[난생뢰(鸞笙瀨)]

소나무 그림자 깎아지른 절벽에 춤추고, / 松影舞峭壁

여울 소리 먼 골짜기에 울리네. / 灘聲韻遙谷

구령(緱嶺)[53]은 진실로 있는 것인가, / 緱嶺誠有無

신령스런 피리소리 나 홀로 듣노라. / 靈籟吾聞獨

---

51) 감형(坎亨): 『역경(易經)』에 '습감(習坎 험악한 처지를 뜻함)은 마음으로 형통(亨通)한다.' 라는 구절이 있다.

52) 감형(坎亨)은 격물치지와 같으니, 이 이치 유독 장횡거만이 알았다네: 『송자대전』 150권 〈감형와명(坎亨窩銘)〉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역경(易經)』에 '습감(習坎 험악한 처지를 뜻함)은 마음으로 형통(亨通)한다.' 하였는데, 그 뜻이 광대하다. 횡거 선생(橫渠先生 장재(張載))이 이 괘사(卦辭)를 격물(格物)·치지(致知)하는 과정으로 삼았고 주 선생(朱先生)이 이 과정을 '두 분 정자(程子)보다 더 정밀하다.' 하였으니, 감형(坎亨)의 뜻을 여기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본다면, 전구와 결구는 송시열의 〈감형와명〉의 뜻을 시어로 바꾼 것임을 알 수 있다.

53) 구령(緱嶺): 중국 하남(河南) 언사현(偃師縣)에 있는 산 이름. 신선 왕자교(王子喬)가 환량(桓良)과 칠월 칠석에 함께 만났던 곳으로, 신선이 사는 선경을 비유한 것이다.

[옥석대(玉舄臺)]

유리처럼 맑은 물 옥빛으로 흘러가니, / 琉璃瀉玉流

수정 같은 물빛 온 골짜기에 가득하네. / 晶瑩滿一谷

바위 위에 우연히 생긴 구덩이, / 石上偶成窪

기이한 경치 그 어찌 홀로 즐기랴. / 奇勝渠豈獨

* 남한조(南漢朝)는 조선 후기 문인으로,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종백(宗伯), 손재(損齋)는 그의 호이다. 벼슬에 뜻이 없어 문경(聞慶)의 선유동(仙遊洞)에 옥하정(玉霞亭)을 지어 놓고 후진 교육에 힘썼다. 저서로『손재집(損齋集)』15권이 있다. 1786년(정조 10)에 선유동을 유람하고 선유구곡 영사석(靈槎石), 세심대(洗心臺), 관란대(觀瀾臺), 탁영담(濯纓潭), 영귀암(詠歸巖), 난생뢰(鸞笙瀨), 옥석대(玉舄臺) 등을 5언 절구 8수로 읊은 <선유동 잡영>을 1793년(정조 17)에 지었다. 그리고 선유동의 지명과 선유동의 아름다움, 그리고 유람과 <선유동 잡영>을 짓게 된 배경을 함께 써두었다. 선유동은 문희산(聞喜山) 서쪽 50리 둔덕산(屯德山) 아래에 있는데, 산의 동쪽은 희양산(曦陽山) 서쪽은 청화산(淸華山)이 있다. 선유동은 바로 희양산과 청화산 사이에 있는 기암괴석이 있는 아름다운 계곡이다. 영사석(靈槎石), 세심대(洗心臺), 관란대(觀瀾臺), 탁영담(濯纓潭), 영귀암(詠歸巖), 난생뢰(鸞笙瀨), 옥석대(玉舄臺) 등을 5언 절구 8수로 선유계곡의 아름다운 경치를 읊었다.

<문(文)>

1. 송병선(宋秉璿, 1836~1905), <학천정기(鶴泉亭記)>,『연재집(淵齋集)』卷27

선유동은 영남과 호남 사이에 있으며 내선유동과 외선유동으로 나뉜다. 수석의 빼어난 경치는 화양동과 더불어 백중을 이룬다. 도암 이선생이 파곶(巴串)에 정자 몇 동을 지었으니, 또 그 제도에 따라 종제 지암(知菴) 및 공유(公維)를 시켜 외선유동에다 둔산정사(屯山精舍)를 짓도록 하였다. 용추의 물이 그 위쪽으로 쏟아지고 학대가 그 아래쪽에 우뚝 솟아 숲과 샘물과 바위가 모

두 범상한 경관이 아닌데, 하물며 영광스럽게도 선생께서 오셨던 곳이니 어떠하겠는가. 여기 선유동의 경관은 정사(精舍)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남녘땅에 떨쳤으니 세상의 유람객들은 그 근원을 다 탐색하기 전에는 유람을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그 뒤에 불행하게도 산불에 모두 타 땅은 이미 황폐해지고 풀만 무성하게 자랐다. 다만 보이는 것은 높은 산과 길게 흘러가는 물뿐이라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손가락으로 그 지점을 가리키며 슬프게 탄식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지난해에 선생의 맏후손인 인구(寅九) 및 만용(萬用)이 이를 탄식하며 마침내 이강준(李康準)·채영진(蔡永震)·김중진(金中鎭)과 함께 계획하고 논의하여 다시 건물을 세우려 하자, 원근의 선비들이 듣고 즐거워하며 힘닿는 대로 도왔다. 아! 선생의 유풍과 여운이 사람을 깊이 감동시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면,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겠는가. 오직 그 옛 터는 또한 깊숙한 곳에 있어 화재를 입을까 두려워 사림들이 의논하여 다시 그곳에서 남쪽으로 1리 되는 벌바위[蜂巖]의 옥석대 위에 옮겨 세우고, 이름을 고쳐 학천(鶴泉)이라 하였다. (…후략…)

仙遊洞。介於湖嶺。有內外之別。水石之勝。與華陽相伯仲焉。陶菴李先生。嘗於巴串。構亭數椽。又依其制。使從弟知菴公維。就外洞。築屯山精舍。龍湫注其上。鶴臺屹其下。山林泉石。已非凡境。況被先生所過之精彩乎。於是仙遊之景。盡爲精舍之有。而擅名于南州。世之遊賞者。靡不欲窮源乃已。其後不幸被嘻出之灾。地旣廢而鞠爲茂草。但見山高而水長。行旅莫不指點而咨嗟矣。去歲。先生宗後裔寅九及萬用。慨然於斯。乃與李康準蔡永震金中鎭。同謀合辭。欲復營建。遠近章甫。亦樂聞而隨力助之。噫。此非先生之遺風餘韻感人深。而至今有未沫者。其孰使之然哉。惟其舊址太深邃。恐被菑火。士林議。更移構於其南一里蜂巖之玉舄臺上。改名曰鶴泉。 (…후략…)

* 선유동은 호남과 영남 사이에 있어 내선유동 외선유동으로 나뉘는데 자연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화양동과 백중지세를 이루는 곳이라 하였다. 외선유동 둔덕산에 이재(李縡) 선생이 정사를 짓고 후학을 가르치던 곳에 새로이 학천정(鶴泉亭)을 짓게 된 경위를 밝힌 글이다. 옥석대 위쪽에 정자를 세웠다고 하였다.

(3) 실경산수화



〈선유동 - 영남명승35경도〉, 작자미상

작자미상, <선유동(仙遊洞)>, 《영남명승35경도(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紙本彩色), 38.5×45.5cm, 일본 유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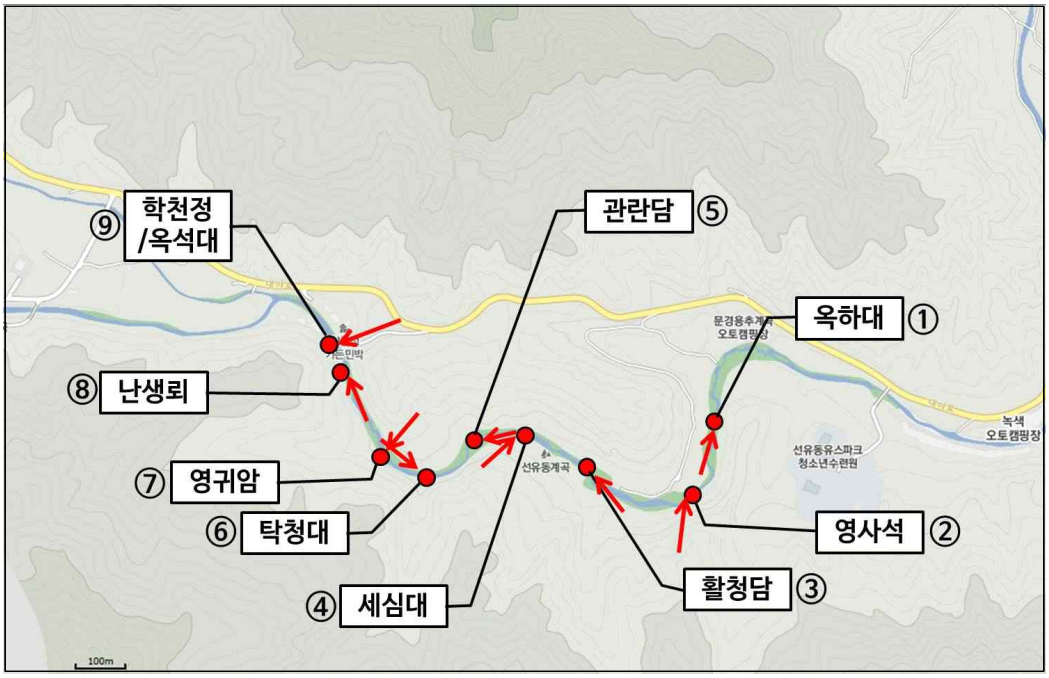
경북 문경시 가은읍과 농암면 일대 둔덕산(屯德山) 골짜기를 가리키는 선유동(仙遊洞)은 신선이 노닐 만한 곳이라는 이름처럼 맑은 계류가 너른 암반을 타고 흐르는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 경관에 취한 정태진(丁泰鎭, 1876~1956)은 하류부터 상류로 이어지는 선유구곡을 지정하고, 제1곡 옥하대(玉霞臺), 제2곡 영사석(靈槎石), 제3곡 활청담(活淸潭), 제4곡 세심대(洗心臺), 제5곡 관람담(觀瀾潭), 제6곡 탁청대(濯淸臺), 제7곡 영귀암(詠歸巖), 제8곡 난생뢰(鸞笙瀨), 제9곡 옥석대(玉舃臺)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오늘날 선유동을 찾으면, “선유동”이라 새긴 해서체 바위 글씨를 비롯해 매 곡의 명칭과 기타 다양한 내용의 각자

(刻字)를 확인할 수 있다. 도암(陶菴) 이재(李縡, 1680~1746)가 일찍이 계곡 상류 용추동(龍湫洞)에 둔산정사(屯山精舍)를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1906년에 그를 추모하는 후학들이 학천정(鶴泉亭)을 건립하기도 했다.

이 <선유동>은 선유동과 인근 산수경관을 화면에 담은 19세기의 실경산수화이다. 조망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화면 중앙에 높은 산악으로 둘러싸인 평평한 지대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오른편 상부에서부터 시계방향을 그리며 계류가 쏟아져 내린다. 건물은 현지의 지형적 특색으로 미루어 이재가 머물렀던 둔산정사로 추정되며, 위치는 제9곡 옥석대 근처 계곡변이다. 현재 학천정 일곽의 여러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화면의 좌측 하단에 민가가 집중 몰려있는 마을을 그려 넣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선유동의 자연경관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계곡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은 점이나 건물 주변의 지형 등이 화면에 재현된 모습과 차이가 있어서 화가가 직접 선유동을 방문하고 그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초점 경물을 과장해 포치하고, 주변의 형세를 적절히 안배해 화면을 구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4) 현재적 재구성

선유동은 신선이 노닐 만한 곳이라는 이름처럼 맑은 계류가 너른 암반을 타고 흐르는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 경관에 취한 정태진은 하류부터 상류로 이어지는 선유구곡을 지정하고, 제1곡 옥하대(玉霞臺), 제2곡 영사석(靈槎石), 제3곡 활청담(活淸潭), 제4곡 세심대(洗心臺), 제5곡 관람담(觀瀾潭), 제6곡 탁청대(濯淸臺), 제7곡 영귀암(詠歸巖), 제8곡 난생뢰(鸞笙瀨), 제9곡 옥석대(玉舄臺)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오늘날 선유동을 찾으면, “선유동”이라 새긴 해서체 바위 글씨를 비롯해 매 곡의 명칭과 기타 다양한 내용의 각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경관을 지도와 함께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선유구곡 제1곡 옥하대



② 선유구곡 제2곡 영사석과 각자



③ 선유구곡 제3곡 활청담과 각자



④ 선유구곡 제4곡 세심대와 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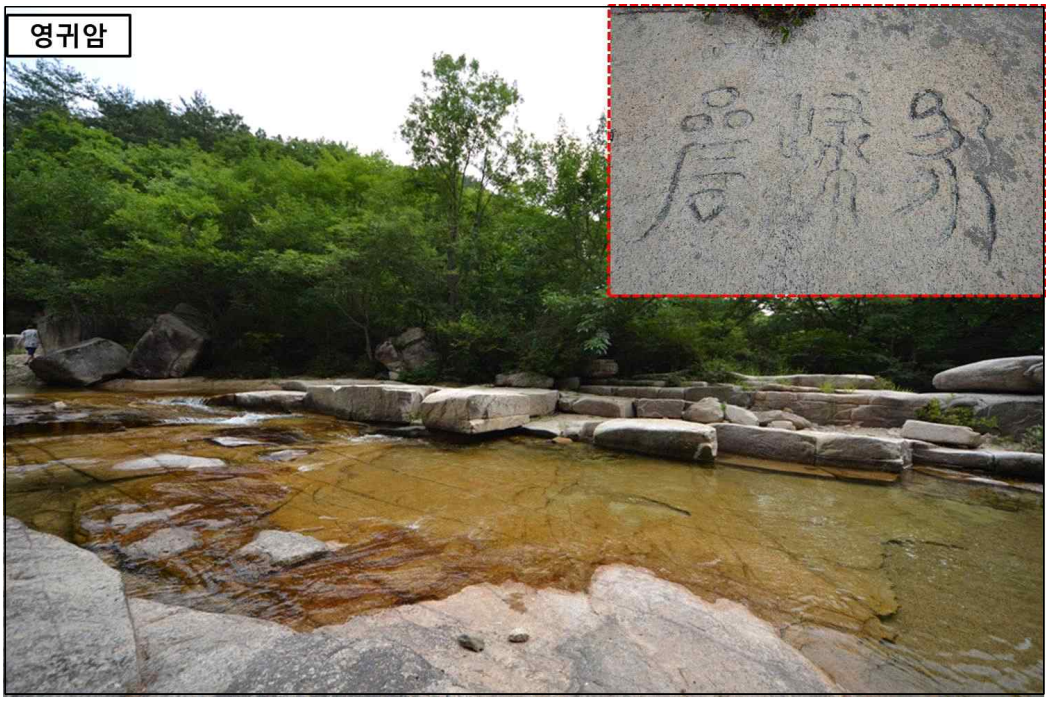
⑤ 선유구곡 제5곡 관란담과 각자



⑥ 선유구곡 제6곡 탁청대와 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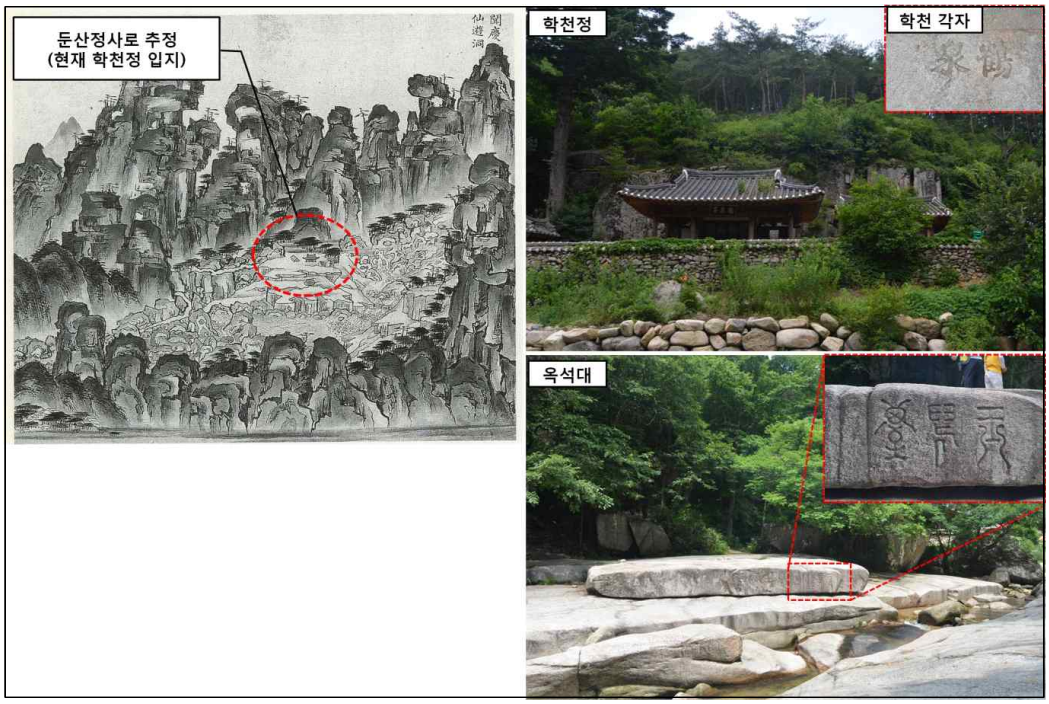
⑦ 선유구곡 제7곡 영귀암과 각자



⑧ 선유구곡 제8곡 난생뢰와 각자



⑨ 선유구곡 제9곡 옥석대와 학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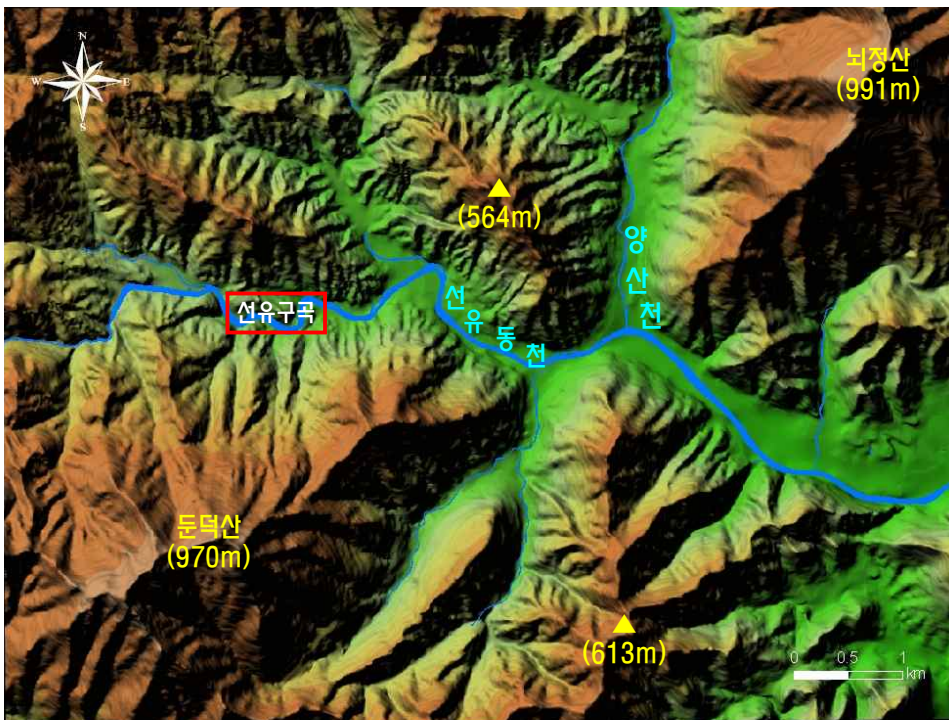


(5) 지형 및 식생 분석

가. 지형 및 지질

소백산맥 산줄기에 위치한 둔덕산(970m)과 대아산(931m) 계곡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합쳐져 용추계곡을 이루며 몇 굽이를 흐르다 하류로 가면서 선유동계곡에 접어든다. 선유동계곡을 흘러나온 물은 동남쪽으로 흘러 양산천과 합쳐지고 후에 낙동강 본류로 유입된다. 선유구곡은 둔덕산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맑은 시냇물을 따라 약 1.8km에 걸쳐 펼쳐져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의 동쪽 대야산 자락이 물줄기 선유동천이 굽이치면서 만들어낸 경관을 선유동계곡 또는 선유구곡이라 칭한다. 이 일대는 소백산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약 900~1,000m 대의 준봉이 즐비하고 높은 산 사이를 개석하면서 흘러가는 골짜기 많아 용추계곡, 선유동계곡, 봉암계곡 등의 산수가 아름다운 경관이 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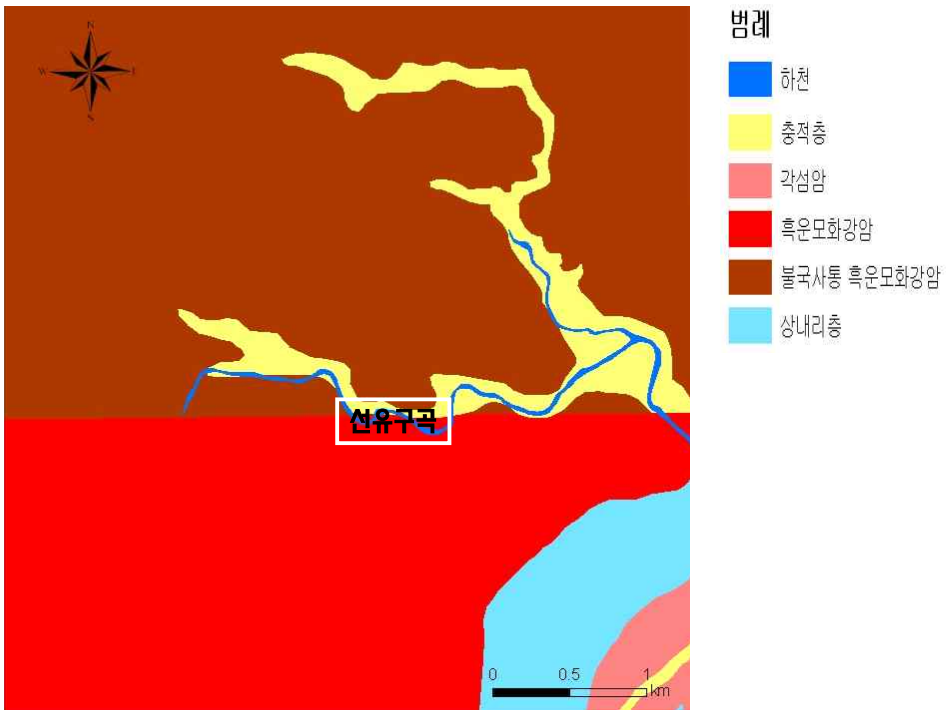
대야산(931m)을 사이에 두고 10km 떨어져 있는 괴산군의 선유동계곡보다 계곡의 길이가 더 길고 계곡미가 빼어나 문경팔경의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인공적으로 쌓아 놓은 듯한 거대한 암석 사이로 맑은 옥계수(玉溪水)가 흐르며 굽이마다 옥하대 · 영사석 · 활청담 · 세심대 · 관란담 · 영규암 · 난생뢰 · 옥석대 등의 경승지(景勝地)가 있다.



선유구곡 일대의 지형(DEM)

선유구곡 일대의 지질은 남동쪽에 부분적으로 퇴적암 계열인 상내리층이 있지만 선유동천을 따라서 주로 흑운모화강암이 밀도 높게 나타난다. 한편, 선유동천과 양산천 주변에는 충적층이 형성되어 있고 이 들이 합류하는 곳에는 제법 큰 범람원이 형성되어 인간 생활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조립질의 입상구조를 지니고 있는 화강암[54]은 조암 광물 입자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공극율이 매우 낮아 암피 상태에서는 물리적 충격에 매우 잘 견딘다. 더구나 화강암 지형에는 각기 다른 밀도의 절리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들 암괴지형에 형성되어 있는 곳은 절리밀도가 낮고 절리간의 간격이 넓어 심층풍화가 진전되지 않고 괴상(塊狀) 지형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일단 절리밀도가 높거나 토층으로 덮여 습포효과가 촉진되면 심층풍화(deep weathering)되어 두터운 풍화층이 발달할 수 있다(김영래, 1996).



선유구곡 일대의 지질

54) 화강암은 단단하지만 토양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수분과 이산화탄소가 공급되면 화강암의 조암광물 중 특히 장석이 풍화를 받아 다른 물질로 바뀐다. 이때 부피가 팽창하고 광물 간의 결합력이 약해진다. 화강암에 절리가 잘 발달해 있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경우 화강암의 풍화는 급속히 진행된다. 풍화가 이루어지는 속도와 풍화물이 제거되는 속도는 상대적인데, 전자가 후자보다 빠르면 풍화층은 더 두꺼워질 것이다. 하지만 후자가 전자보다 빠르다면 풍화층이 제거되고 풍화층 아래의 기반암이 드러나면서, 여러 암봉이 노출된 암괴 지형이 만들어진다(손일, 2011).

나. 자연 경관

선유구곡은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흑운모화강암 위를 선유동천이 개석하면서 만들어낸 하천상류 경관이다. 하천의 하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식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기반암이 드러났으며, 절리방향을 따라 흐르는 하천은 곳곳에 포트홀과 나마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침식이 강한 기반암은 원마도가 높은 기암괴석을 만들면서, 영사석, 영귀암과 같은 큰 바위 형태로 남아 있다. 또한 수평절리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화강암의 경우 판상절리(sheeting joint)와 같은 풍화 특성으로 인하여 세심대, 탁청대, 옥석대와 같은 넓은 평상형태의 바위를 만들었다.



선유구곡을 이루는 경관요소



선유구곡 내의 암석하도

다. 식생경관적 특징

선유구곡은 첩첩이 쌓인 기암괴석과 사시사철 흐르는 맑은 옥계수가 곳곳에 절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여울이 있는 넓은 너럭바위와 암반형 계곡으로서 굽이마다 아름드리 노송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진다. 또한 강변의 오리나무 및 왕버들 대경목 자태는 오랜 세월의 깊이감을 전해준다.

계곡의 대표경관은 소나무(평균흉고직경 15~25cm)이지만 굴참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 등의 참나무류와 혼효된 경관을 나타내었으며 아교목층에 함박꽃나무, 당단풍나무, 팥배나무, 산벚나무, 물푸레나무, 비목나무, 산뽕나무, 관목층에 병꽃나무, 작살나무, 고추나무, 산철쭉, 조팝나무, 철쭉, 찔레, 으름덩굴 등이 어우러져 사계절 아름다운 구곡 식생경관을 연출하였다.

선유구곡 전반적으로 소나무경관이 대표성을 가지며 계곡부 평상 행태의 넓은 암반과 힘찬 물줄기와 함께 한 틈새식생으로 원추리, 달뿌리풀, 갯버들, 작살나무, 광대싸리, 산철쭉, 쇠물푸레나무, 방울고랭이, 큰소리쟁이, 골풀, 물봉선, 관중 등이 발견되었다.

활청담이 위치한 계곡부 주변은 마을과 연계된 넓은 평지형태의 지형으로 부분적으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었다. 인위적 간섭시, 확산속도가 빠른 귀화종인 미국가막사리, 돼지감자, 달맞이꽃과 자생종의 생육을 위협하는 환삼덩굴, 칡의 출현이 높았으므로 이에 따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선유구곡 너럭바위와 소나무경관(옥석대)



선유구곡 왕버들, 오리나무 식생경관(세심정)



소나무 및 참나무류경관(영귀암)



소나무-낙엽활엽수경관(탁청대)



뗏목모양의 바위와 주변 낙엽활엽수경관(영사석)



마을과 연계된 갯버들경관(활청담)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가.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

❍ 문화·역사적 가치: 문경 선유구곡은 맑고 흰 빛깔의 화강암 암반 계곡을 흘러내리는 계류와 많은 대와 소로 이루어진 명승지로서 『여지도서』의 문경현조에 선유동(仙遊洞)이라는 지명으로 소개되어 있다. 옥석대, 난생뢰, 영귀암, 탁청대, 관란담, 세심대, 활청담, 영사석, 옥하대로 이루어진 아홉 굽이의 각 굽이마다 모두 각자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구곡 명승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창협, 정경세, 송병선 등 조선 중후기의 저명한 사림들이 이곳을 향유하면서 많은 옛 시문들을 남겨 놓고 있어 조선시대 유림들에 의한 구곡의 경영과 향유 방식의 일변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작자 미상의 실경산수화도 한 편 전하는데, 이 역시 흰 빛깔의 암반과 소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선유구곡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어 이곳의 문화적 의미를 더해준다.

❍ 지형적 가치: 소백산맥의 줄기에 해당하는 속리산국립공원의 동쪽 둔덕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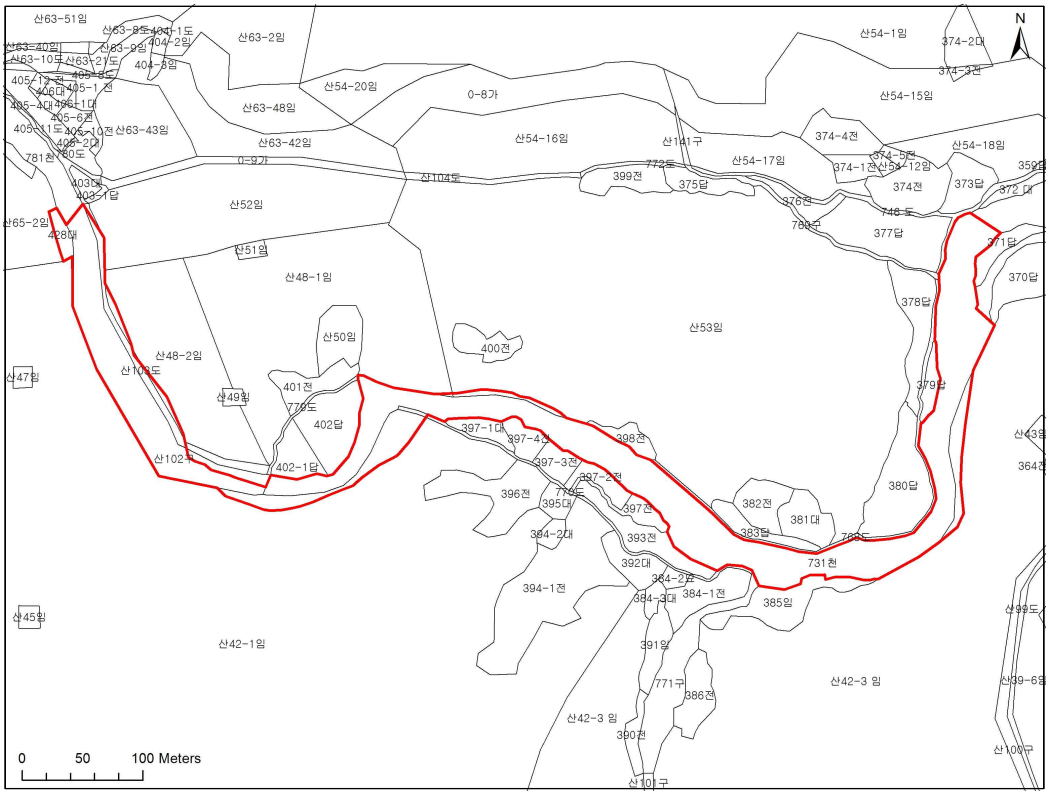
대아산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선유동천을 따라서 굽이치는 산지하천(mountain steam) 경관이 나타난다. 선유구곡 일대는 흑운모화강암이 밀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화강암의 풍화 물질과 하천에 의해 개석되어 형성된 미지형이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냈다. 전체적으로 암석하도(rock channel)의 성격이 강하고 지하에 있던 화강암이 지표면에 노출되면서 압력 팽창에 따른 박리(exfoliation) 및 판상절리(sheeting joint)의 발달로 떡시루처럼 너럭바위가 발달해 있고 이것들이 주변의 송림경관과 조화를 이룬다.

❍ 식생적 가치: 선유구곡별 다양한 미지형경관과 어우러지는 식생경관이 매우 아기자기하고 부드러운 비경을 자아낸다. 옥석대 주변 학천정 상부 능선부의 소나무경관은 청빈하고 올곧은 삶을 살았던 선비의 정신을 알려주는 듯하다. 영귀암은 시루떡과 같은 켜켜히 쌓은 듯한 반석은 갯버들,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 및 참나무류 식생경관과 더불어 고즈넉함을 연출한다. 세심대 주변 왕버들과 오리나무는 강변 식생경관의 랜드마크로 작용하며, 뗏목모양의 넓은 바위와 낙엽활엽수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영사석, 마을 주변을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가 모여 담을 이룬 활청담의 갯버들 및 달뿌리풀 경관이 편안한 구곡문화의 깊이를 더해준다.

나. 명승의 지정 범위

명승의 지정 명칭과 범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지정내용
명칭	문경(聞慶) 선유구곡(仙游九曲)
지정종별	명승
소재지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지번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48-2번지 외 9필지
면적	35,122.8㎡
관리단체	경상북도 문경시청
문화재 지정 여부	지정 권장


N
산63-51임
산63-2임
산54-1임
374-2대
374-3전
산54-15임
산54-20임
0-8가
산63-48임
산54-16임
산141구
374-4전
산54-18임
산54-17임
374-5전
374-1전
산54-12임
374전
373답
372 대
359답
399전
375답
772도
376전
748 도
789구
377답
371답
370답
378답
산52임
산65-2임
428대
산51임
산48-1임
산53임
400전
산50임
산48-2임
산102도
산47임
산49임
401전
779도
402답
402-1답
397-1대
397-4전
398전
397-3전
397-2전
396전
772도
395대
397전
382전
381대
380답
383답
768도
731천
384-2대
393전
392대
384-2전
384-3대
384-1전
394-1전
385임
산45임
산42-1임
391임
771구
386전
산42-3 임
산42-3 임
390전
산101구
산105구
산39-6임
산99도
364전
산43임
379답
0 50 100 Meters


50m
100m

3) 상주(尙州) 경천대(擎天臺)

(1) 지리지

- 자료 없음.

(2) 고시문

경천대에 관한 고시문에는 경천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무우정과 옥주봉에 관한 작품도 있다. 경천대에 대한 고시문들은 대부분 망한 명나라 황제 대한 제사를 홀로 지낸 선비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무우정과 옥주봉을 비롯하여 경천대 일원의 아름다운 경관에 대해 읊은 것도 다수이다. 고시문의 목록과 대표적인 작품을 번역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경천대 및 무우정 -시(詩)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권13)	〈우담십영(雩潭十詠) [별좌(別坐) 채득기(蔡得沂)가 새로 살게 된 곳이다.]〉
	최명길(崔鳴吉)	『지천집(遲川集)』 (권4)	〈次蔡別坐韻[得沂]〉
		『지천집(遲川集)』 (권4)	〈次蔡別坐韻〉
	한장석(韓章錫)	『미산집(眉山集)』 (권1)	〈경천대사(擎天臺辭)〉
	조천경(趙天經)	『이안당집(易安堂集)』 (권1)	〈이후가 무우정을 중수하여 낙성식을 하고 백일장을 열고는 운을 부르기에 화답하다.(李侯重修舞雩亭。設落成開白場。因呼韻遂和。)〉
	정상리(鄭象履)	『제암집(制庵集)』 (권1)	〈登自天臺〉
경천대 및 무우정 -문(文)	이식(李植)	『택당집(澤堂集)』 (별집 권5)	〈무우정기(舞雩亭記)〉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권38)	〈채씨우담신정기(蔡氏雩潭新亭記)〉
	최명길(崔鳴吉)	『지천집(遲川集)』 (권17)	〈무우정기(舞雩亭記)〉
	이만부(李萬敷)	『식산집(息山集)』 (권17)	〈君臣言志錄序〉
	황경원(黃景源)	『강한집(江漢集)』 (권15)	〈徵士故朝散大夫氷庫別坐蔡公墓誌銘〉
		『강한집(江漢集)』 (권29)	〈明陪臣傳[三]〉
	서명응(徐命膺)	『보만재집(保晩齋集)』 (권6)	〈答蔡希範書〉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경천대 및 무우정 -문(文)	서명응(徐命膺)	『보만재집(保晩齋集)』 (권12)	〈贈判決事蔡公墓誌〉
	정종로(鄭宗魯)	『입재집(立齋集)』 (권28)	〈臺巖集序〉
	성만징(成晩徵)	『추담집(秋潭集)』 (권6)	〈書蔡雩潭得沂君臣言志錄後〉
옥주봉 -시(詩)	조찬한(趙纘韓)	『현주집(玄洲集)』 (권6)	〈옥주봉(玉柱峯)〉

<시(詩)>

1. 김상헌(金尙憲, 1570~1652), <우담십영(雩潭十詠) [별좌(別坐) 채득기(蔡得沂)가 새로 살게 된 곳이다.]>, 『청음집(淸陰集)』 卷13[55]

[회곡춘화(會谷春花)]
꽃 심을 땐 뜨락 가득 심을 필요 없거니와 / 栽花不必滿階除
북쪽 언덕 꽃 보이고 남쪽 언덕 꽃 보이네. / 北岸看花南岸如
한밤 내내 부는 동풍 꽃망울을 터뜨리며 / 一夜東風開欲遍
봄빛 가득 싣고서는 나의 집을 향해 오네. / 摠輸春色向吾廬

[우담추월(雩潭秋月)]
가을이 온 빈 난간서 취했던 술 깨고 나자 / 秋生虛檻醉醒初
수면 위는 침침하여 그림자와 소리 없네 / 水面沈沈聲影無
한밤중에 낚싯배가 놀라 소리치는 곳에 / 半夜釣船驚叫處
강물 속에 옥부처가 잠겨 있는 게 보이네. / 江心倒見玉浮圖

[남간유앵(南澗流鶯)]
보리 자라 밭 꽉 차고 곡우 비가 활짝 개자 / 麰麥初齊穀雨晴
집집마다 들밥 내어 밭가는 이 먹게 하네 / 家家炊黍餉春耕
숲 우거진 남쪽 시내 사람 자취 없는 데선 / 南溪樹密無人處
하루 종일 꾀꼴 우는 소리만이 들리누나. / 盡日惟聞黃鳥聲

55)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 참조.

[동령한송(東嶺寒松)]

가는 세월 도도하여 풀과 나무 쇠했으니 / 歲月滔滔草木衰
봄빛 찾아보려 하나 어디 가서 물으리오. / 欲尋春色問何之
복숭아 숲 버들 마을 유난히 더 쓸쓸한데 / 桃園柳巷偏蕭索
푸른 솔만 지난날과 같은 것이 보이누나. / 唯見靑松似舊時

[천대이석(天臺異石)]

첨 만들 땐 귀신 도끼 수고롭혀 다듬었고 / 經始應煩鬼斧裁
아름다운 이름은 또 천대에서 빌려 왔네. / 美名仍借自天臺
신선 한번 떠나간 뒤 쓸어 주는 사람 없어 / 仙翁一去無人掃
풍우 속에 매년 길이 푸른 이끼 끼어 있네. / 風雨年年長綠苔

[평사낙안(平沙落鴈)]

강호에는 가을 물이 흡족하여 가없는데 / 江湖秋水淼無涯
갈대 잎은 쓸쓸하게 양쪽 언덕 꽃 피웠네. / 蘆葦蕭蕭兩岸花
서리 오기 전과 뒤에 기러기 떼 몇 무리나 / 霜後霜前幾群鴈
밝은 달과 서로 짝해 찬 모래에 묵을 건가 / 月明相伴宿寒沙

[옥주조운(玉柱朝雲)]

우뚝 솟은 외로운 돌 강 복판에 서 있으며 / 亭亭孤石半江中
풍이 사는 깊은 궁에 그림자를 드리웠네. / 影落馮夷無底宮
맑은 새벽 흰 구름이 스치어서 지나가매 / 淸曉白雲搖曳過
요동 땅의 신선 학이 변한 건가 의심되네. / 却疑仙鶴化遼東

[귀암모우(龜巖暮雨)]

태사께서 주나라를 안 따르고 동쪽 오매 / 太師東渡不從周
하늘에서 거북 보내 구주 등에 지게 했네. / 天遣神龜負九疇
흐르는 물 가게 하고 비바람을 전송하며 / 流水行之風雨送
지금에도 낙동강의 강 머리에 아직 있네. / 至今猶在洛江頭

[전탄어화(箭灘漁火)]

회곡이나 매촌 마을 모두 어옹 사는 데라 / 檜曲梅村盡釣翁
배 가득한 등불 빛이 강물 붉게 비치누나. / 滿船燈火倒江紅
누가 알리 한밤중의 어부 사는 집의 흥이 / 誰知半夜漁家興
일찌감치 시인 읊는 시 속으로 들어온 걸 / 早入詩人賦詠中

[원암청경(圓庵淸磬)]

달은 뜨고 안개 깔려 만산이 다 비었는데 / 月上烟沈萬籟空
앉은 채로 깊은 솔숲 풍경 소리 듣고 있네. / 坐聞淸磬出深松
오고 가는 산승 자취 찾아볼 수 없거니와 / 山僧來往尋無跡
남봉이나 북봉 속에 있다는 걸 알겠구나. / 知在南峯定北峯

2. 조찬한(趙纘韓, 1572~1631), <옥주봉(玉柱峯)>,『현주집(玄洲集)』卷6

사람들 가장 높은 봉우리라 다퉈 말하며 / 傍人爭說最高峯
뱃머리 쪽 가리키니 흥취 더욱 짙어지는데, / 指點船頭興更濃
옥 같은 풍골 다 보이지 않으려고 / 不欲全身呈玉骨
높은 정상 따라 푸른 소나무 늘어섰구나. / 却從高頂列蒼松
마치 학 지나가며 멀리서 생황 소리 들리는 듯하고 / 如聆過鶴遙笙韻
흡사 신선, 석가, 노자의 자취 보는 듯하네. / 怳接仙翁釋老蹤
술잔 앞에 비친 달빛이 놀랍고 / 且向尊前驚月色
물속엔 옥빛 부용이 거꾸로 비치네. / 水中顚倒碧芙蓉

* 조선 중기의 문신인 조찬한(趙纘韓)이 옥주봉을 유람하며 풍경과 흥취를 읊은 시이다. 조찬한은 1606년 증광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 학유에 제수되고 사간원 정언, 영암과 영천(榮川)의 군수 등을 거쳐 예조참의, 동부승지를 지냈는데, 광해군의 정사가 극도로 문란해지자 외직을 청하여 상주목사가 된 적이 있었다. 상주에 도임하자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와 창석(蒼石) 이준(李埈)이 경내에 살고 있어서 서로 어울렸는데, 이 시는 상

주에 머물 당시 일대를 유람하며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유람하다 가장 높은 봉우리인 옥주봉을 바라보며 흥겨워하고, 소나무가 늘어서 있는 옥주봉 정상을 바라보며 선계에 있는 듯한 흥취를 느끼고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문(文)>

1. 이식(李植, 1584~1647), <무우정기(舞雩亭記)>, 『택당집(澤堂集)』 별집 卷5[56]

영이(詠而) 채별제(蔡別提; 채득기)가 낙강(洛江)의 우담(雩潭)에 새로 살 집을 마련하고는, 천신선생(薦紳先生)의 글을 구하여 그 빼어난 경치를 묘사하게 하고, 스스로 가사(歌詞)를 지어 그 그윽한 운치를 서술한 다음, 나의 변변찮은 글 솜씨로 정기(亭記)를 지어 달라고 부탁해 왔다.

蔡別提詠而。新卜居洛江之雩潭。求薦紳先生之文。以志其勝。自作歌詞。以敍其幽致。且屬余狗續亭記。

살펴보건대, 우담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도 실려 있는 바, 상산(商山) 중심지에서 20리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산맥에서 뻗어 나온 능선 한 줄기가 강물에 가로막혀 멈추면서 움푹 패여 골짜기가 된 곳인데, 이곳이 바로 채군의 집터였다.

按雩潭載國輿志。距商山治二十里。山之自嶺來者。得江而止。窪而爲谷。卽君所宅。

위아래가 모두 바위로 뒤덮인 묏봉우리 하나가 우뚝 서 있으니 그 이름이 옥주봉(玉柱峯)이요, 마치 흙을 쌓아 놓은 듯 위가 평평하여 앉아서 노닐 수 있는 높다란 대(臺)가 있으니 그 이름이 자천대(自天臺)인데, 이는 모두가 그 지방 사람들이 옛날부터 불러온 이름들이다.

矗而爲峯。上下皆石曰玉柱峯。峙而爲臺。上平可坐曰自天臺。皆從土人舊呼也。

---

56)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문을 바탕으로 하여 일부 윤문함.

강의 정상적인 흐름이 산의 바위를 만나 곧장 흘러내리지 못하고 고리처럼 빙 두르면서 담수(潭水)가 형성되었는데, 하도 깊고 고요하여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길이 없다. 예로부터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그 물 아래에 복룡(伏龍)이 살기 때문에 그곳의 경치가 제 아무리 기막히게 좋아도 사람이 감히 그 근처에 터를 잡고 살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옛날 언젠가 큰물이 지고 가뭄이 들었을 때 그곳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우(雩)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나, 그것이 어느 시대의 일인지는 알 수가 없다.

江之經流。遇山巖不能直瀉。環洄而爲潭。深靜不可測。自古相傳下有伏龍。故其地雖奇勝淸絶。人無敢俾而居之。以其舊嘗水旱有禱。故得名爲雩。不知何代事也。

강 복판에 있는 커다란 바위 모양이 마치 햇볕을 쪼이는 거북이 같다 하여 귀암(龜巖)이라 부르고 있으며, 봉우리 아래에 있는 석굴(石窟)은 책을 감춰 두고 거문고를 탈 만한 장소인데도 아직 붙여진 이름이 없다. 이상이 그 지형의 대략적인 내용인데, 그 밖에 멀고 가까이 이어지는 풍경들과 아침저녁으로 변하는 경치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에 실려 있는 만큼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후략…)

江中有巨石。狀如龜曝。故呼爲龜巖。峯下有石窟。可藏書鼓琴。未有名。此其大槪。而他遠近點綴朝晡景象。見於諸記者可略也。 (…후략…)

* 이식(李植)이 채득기의 부탁을 받고 쓴 기문이다. 무우정 주위의 풍광을 차례차례 묘사하고, 무우정의 명칭에 담긴 의미를 서술하였다. 무우정 주위에 옥주봉이 우뚝 서 있고, 자천대가 평평하게 놓여 있으며, 담수(潭水)가 빙 둘러 흐르며, 강 복판에는 귀암이, 봉우리 아래에는 석굴이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2. 김상헌(金尙憲, 1570~1652), <채씨우담신정기(蔡氏雩潭新亭記)>, 『청음집(淸陰集)』 卷38[57]

57)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 참조.

채군(蔡君) 영이(詠而)가 새로 거처하게 된 우담(雩潭)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에게 기문(記文)을 지어 달라고 부탁하기에 내가 그곳의 모양새를 말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蔡君詠而。以其新居雩潭之美。屬余記之。余徵其狀。其言曰。

낙동강(洛東江)은 황지(黃池)에서 발원하여 여덟아홉 고을을 거치면서 천 수백 리를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그 사이에는 강가를 따라서 지어진 집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사람들마다 각자 자신이 뛰어난 집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일찍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낱낱이 살펴보건대, 그 기이함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는 듯하였다. 그러다가 우연히 상산(商山)의 북쪽, 회곡(檜谷)의 남쪽, 매호(梅湖)의 아래에서 깊숙하고 그윽한 터를 얻었다.

洛東之江。發源於黃池。經八九郡千數百里入于海。其間環江而屋者。殆不可數。人人自以爲得地之勝。然沂嘗歷觀而周覽之。若有未盡其奇者。偶於商山之北。檜谷之南。梅湖之下。得奧區焉。

그곳은 세 봉우리가 뒤에 우뚝 솟아 있고, 큰 강이 그 앞을 지나며, 절벽이 에워싸 안았고, 기암이 빙 둘러 있는데, 그 안에 물이 소용돌이치면서 검푸른 빛을 띠고 있는 곳이 있으니, 그곳을 우담이라고 한다. 그 우담은 능히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뿌려서 기우제를 지내면 응험(應驗)이 있다. 평평하여서 디디고 설 수 있을 만한 돌이 있는데, 그곳을 관어대(觀魚臺)라고 한다. 그 물이 매우 맑아서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을 고개 숙여 헤아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높아서 절로 일어난 것을 자천대(自天臺)라고 하는데, 기묘하고 빼어나서 사람의 솜씨로 만들 수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三峯峙其後。大江經其前。絶壁屛擁。奇巖環列。其中窈然而黑者曰雩潭。能興雲泄霧。旱禱有應。有石夷而可據者曰觀魚臺。以其水至淸。魚行可俯而數也。峻而自起者曰自天臺。以其奇巧絶異。非人工所可成也。

그 위에 새로 정자를 지었는데, 정자 이름은 무우정(舞雩亭)이다. 이는 증점

(曾點)이 기수(沂水)에서 목욕한 뜻을 취한 것으로서, 시대는 비록 다르지만 취지는 같은 것이다. 자천대 아래에 석굴이 하나 있는데, 깊숙하고 넓고 평평해서 5, 6십 명 이상을 수용할 수가 있으며, 무더울 때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서늘한 기운이 돌아 마치 얼음을 품고 있는 듯하다. 석굴이 문이 되어 겨우 한 사람씩만 통과할 수가 있다. 옛날 사람들이 병란을 피해 들어가 몸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시골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말을 전하고 있다. 그 곁에 작은 굴이 또 하나 있는데, 굴속에서 나는 맑은 샘물은 달고 차가우며, 불사(佛寺)가 있었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新構亭其上曰舞雩。蓋取諸曾點浴沂之義。異世而同趣也。自天臺之下有石窟。窈窕寬平。容人五六十以上。當暑入之。凜然若懷氷。巖竇成門。厪通一跡。昔人避兵多得全。樵翁野叟至今傳之。旁有小窟。窟中淸泉甘洌。梵屋古跡尙存。

산으로부터 정자에 이르고 정자로부터 우담에 이르는데, 흰모래로 금대(襟帶)를 삼고, 푸른 소나무로 울타리를 삼았으며, 또 아름다운 나무와 특이한 화초와 이름난 꽃과 기이한 풀들이 봄가을로 단장을 하여, 위아래에서 서로 비춘다. 그러니 이것은 한 구역의 뛰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운치로서, 참으로 한두 마디의 말로는 다 형언할 수가 없다.

自山而亭。自亭而潭。以白沙爲襟帶。以靑松爲藩籬。又有嘉木異卉名花奇草。春粧秋飾。交映上下。此一區之勝觀佳致。而固未暇一二談也。

이보다 앞서 세력 있는 자들이 앞 다투어 이곳을 차지하여 살고자 하였다. 그러나 담 아래에는 용이 살고 있다고 하여 두려운 마음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근년에 용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갔고 내가 마침 이르러 왔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르기를, '용이 그대에게 양보한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 이는 하늘이 내게 준 것으로 어찌 운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기록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였다. (…후략…)

先是有力者爭欲得而居之。以潭之下爲龍所宅。懼不敢近。頃歲龍徙而沂適至。或以謂龍遜之沂。則以爲天與之。豈非有數存焉者耶。是不可以無記也。嗚呼。 (…후략…)

3. 최명길(崔鳴吉, 1586~1647), <무우정기(舞雩亭記)>, 『지천집(遲川集)』 卷17

(…전략…) 증점이 죽은 지 이미 2천여 년이 되었고 노나라는 우리 동국과 만 여리의 거리에 있으니, 그 땅과 그 사람을 모두 볼 수 없는데도 그 이름이 동일함을 얻은 데에는 자신의 뜻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여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뜻을 흠모한다면 역시 거의 그 경지에 이른 것이다. 낙동강을 따라 위로 올라가서 곧장 상주 북쪽으로 20여리 가면 그윽하다고 하는 곳이 있다. 산이 감싸고 물이 돌며 안으로는 깊고 밖으로는 넓으며 샘과 바위를 감상할 만하다고 온 나라에서 대단히 칭송한다. 이곳은 사벌왕(沙伐王; 박언창, 신라 54대 경명왕의 5째 아들)의 궁터이니, 오래도록 그곳을 우담(雩潭)이라 전해온다. 못에 용의 굴이 있어 왕왕 신이함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가기를 꺼렸다. 소성의 채후(채득기)가 보고서 기뻐하여 터를 잡을 계획을 세우니 사람들이 그만두라 하였다. 채후는 웃으며 말하였다. “지명이 내 이름과 연관되니 하늘이 준 인연이다. 조물자가 고의로 숨겨둔 비밀의 장소를 만들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용 역시 물(物)이니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이미 그곳에 가서 터를 잡고 살고 있으니 용이 이미 도망간 지 오래됐을 것이다. 여기에 개간을 하고 대나무, 매화나무, 뽕나무, 밤나무를 더 심어 이곳에서 생을 마치고자 한다.” 주위가 모두 산인데, 그 중 가장 빼어나고 기이한 것을 자천대라고 하니 바위를 묶어세운 듯 구름에 닿을 정도로 우뚝 솟았다. 지대가 매우 높아 오래 살기는 어렵다. 그 아래에 단이 있으니 바위의 모양이 넓어 백여 명이 족히 앉을 만하다. 초가를 엮어 집을 지어 무우정(舞雩亭)이라 편액하고 10경의 이름을 붙여 멋지게 만들었다. 이미 자(字)를 ‘영이(詠而)’로 바꾸었으니 이는 이른바 그 이름을 같게 하여 흠모한다는 것이다. 따스한 봄날이라 강산은 더욱 아름답고, 바위와 꽃이 서로 비추어주며, 시냇가 버들이 아름다움을 다투고, 헤엄치는 물고기들은 생기 있게 헤엄치며, 수많은 새들이 노래하니, 마을의 아이와 어른들이 앞뒤로 줄지어 술병과 술통을 들고 와서 마음껏 완상한다. 귀암에 걸터앉아 용혈을 보고, 옥주봉을 지나면서 특이한 바위를 살펴본다. 층층 절벽에 기댄 채 소나무를 붙잡으며, 맑고 시원한 연못에서 티끌을 씻고, 천 길 솟은 멧부리에서 옷깃을 떨치고 돌아와

무우(舞雩) 가에서 소요한다. 잔을 씻어 술을 따르고, 비파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정신이 녹아들고 몸이 풀리어 크나큰 조화에 합한 연후에야 채후가 흠모한 바가 유독 그 이름뿐 아니라 그 즐거움에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렇지만 증점은 실로 쉽게 말할 수 없다. 몸소 성인의 문하에 노닐면서 때에 맞는 비와 같은 교화를 친히 입어 자질이 고매하고 마음이 깨끗하며 인욕의 사사로움을 벗고 천리의 오묘함에 젖어들었으니, 춘삼월의 아름다운 경치와 무우(舞雩)의 아름다운 흥취가 없어도 자족하며 즐거워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증점의 즐거움을 즐기고자 하는 자는 또한 그가 즐긴 바를 추구하며 마음속으로 돌이켜보아야 한다. 영남은 우리나라로 치면 추로(鄒魯; 공자와 맹자)의 고향이며 채후 역시 영남의 명문가문 출신이다. 그 선조인 나재(懶齋)의 문장과 풍류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이목을 비추어주고 있으며 채후 또한 총명함으로 문장과 역사를 두루 섭렵하였다. 옛 것과 기이한 것을 좋아하고 한 가지 능력으로 이름나는 것을 수치로 여겨 말단과 외도(外道)에도 두루 통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 뒤 깨달은 바가 있어 말하기를, "군자가 많은 것을 일삼겠는가?" 하고는 드디어 고역(古易) 한 부를 가져다 머리맡에 두고 익혔다. 장차 화려하고 인위적인 것을 추려내고 근본과 실질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확충해 나가면서 근면함을 그치지 아니하여 거의 증점의 즐거움이 자신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으니 지금의 무우(舞雩)가 옛날의 무우(舞雩)와 같아지게 된 것이다. 지난 날 조물자가 신령한 장소를 비밀리에 숨겨두고 사람을 기다린 것이 과연 아무 뜻 없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 어찌 그 이름이 우연히 같은 것이라고만 하겠는가. 계미년에 채후는 뛰어난 의술 때문에 혼하의 서쪽으로 왕자를 따라갔다. 나도 그때 그곳 객사에 머물며 무료하고 적막하게 지내면서 날마다 채후와 함께 교유하였는데, 매번 우담(雩潭) 산수의 절경과 정자의 이름을 붙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들었으니, 언제나 마음으로는 그곳 명승에 가 있으면서 시끄럽게 말로만 '옛사람이여'라고 부르짖을 뿐이었다.[58]

---

58) 시끄럽게 말로만 '옛사람이여' 라고 부르짖을 뿐이었다: 『孟子』「盡心」편에서 맹자가 만장에게 '狂'의 뜻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뜻이 커서 늘 시끄럽게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라고 하지만, 그 행실을 살펴보면, 행실이 말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다.(其志嘐嘐然曰 古之人古之人 夷考其行而不掩焉者也)" 라고 하며 '狂'의 뜻을 말하였다.

채후가 나에게 문장으로 명승의 자취에 대하여 기록해 달라 부탁하였다. 나는 이미 채후의 뜻을 훌륭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공자 문도의 진정한 즐거움으로 나아가도록 하고자 이 글로써 그의 뜻을 북돋우려 한다.

(…전략…) 曾點死已二千餘年。而魯之距東國又萬餘。則其地與其人皆不可得以見。得其名之偶同者而寓吾意。因是而想其人而慕其志則亦庶幾焉。沿洛東江而上。直尙州治之北二十許里。曰有奧區焉。山擁而水回。內邃而外曠。泉石之賞。艷稱一邦。蓋古沙伐王所宮。故老相傳謂之雩潭。有龍窟於潭。往往能作異。人憚不敢近。邵城蔡侯見而悅之。定爲專壑之計。人多止之者。侯笑曰。地名應吾名。殆有天緣。安知非造物者故爲藏祕。以有待焉。且龍亦物也。奚懼爲。旣往家焉則龍已遁避久矣。於是鋤荒鏟穢。益樹竹梅柘栗。將終老焉。環居皆山也。其最秀而奇者曰自天之臺。束石而起。矗矗干雲。地太高難久居。其下有壇焉。石勢夷曠。可坐百許人。遂結茅爲屋。扁之曰舞雩。而標題十景以侈之。旣又自更其字爲詠而。蓋所謂因其名之同而有慕焉者也。當其春日正暖。江山增麗。巖花交映。澗柳爭妍。游鱗活潑。百鳥嚶鳴。村童野老。後先其行。提壺挈榼。隨意遊賞。跨龜巖窺龍穴。歷玉柱徵異石。倚層壁攀垂松。濯垢淸冷之淵。振衣千仞之岡。返而逍遙乎舞雩之上。洗盞而酌。鼓瑟而歌。神融形釋。合於太和。然後知蔡侯之所慕。不獨于其名而于其樂者矣。雖然。曾點實未易言也。身遊聖門。親被時雨之化。見識迢邁。胸次灑落。蟬蛻人欲之私。春融天理之妙。是不待三春之麗景。舞雩之佳興。而其樂自足也。然則欲樂曾點之樂者。亦在夫求其所以樂而反之於心焉耳。嶺南卽我鄒魯之鄕。而蔡侯又爲嶺南名族。其先祖懶齋文章風韻。至今照映耳目。侯又聰悟明秀。博涉書史。嗜古癖奇。恥名一能。偏門外道。靡不傍通。已乃悟曰。君子多乎哉。遂取一部古易。以爲床頭之翫。蓋將刊落華僞。要歸諸本實。由是而充之。勉勉不已。庶見曾點之樂不外乎吾之方寸。而今之舞雩猶古之舞雩也。向者造物所爲藏祕靈境。以待其人者。果不爲無意。奚但曰其名之偶同而已哉。歲癸未。蔡侯以華扁之術。從儲君於混河之西。余時羈滯旅舍。愁寂無聊。日與蔡侯遊處。每聞雩潭山水之奇絶暨侯卜居命亭之所以。未嘗不神往名區而嘐嘐然古之人也。蔡侯托余爲文以記勝迹。余旣多蔡侯之志。而欲進之以孔門之眞樂。爲此說以勖之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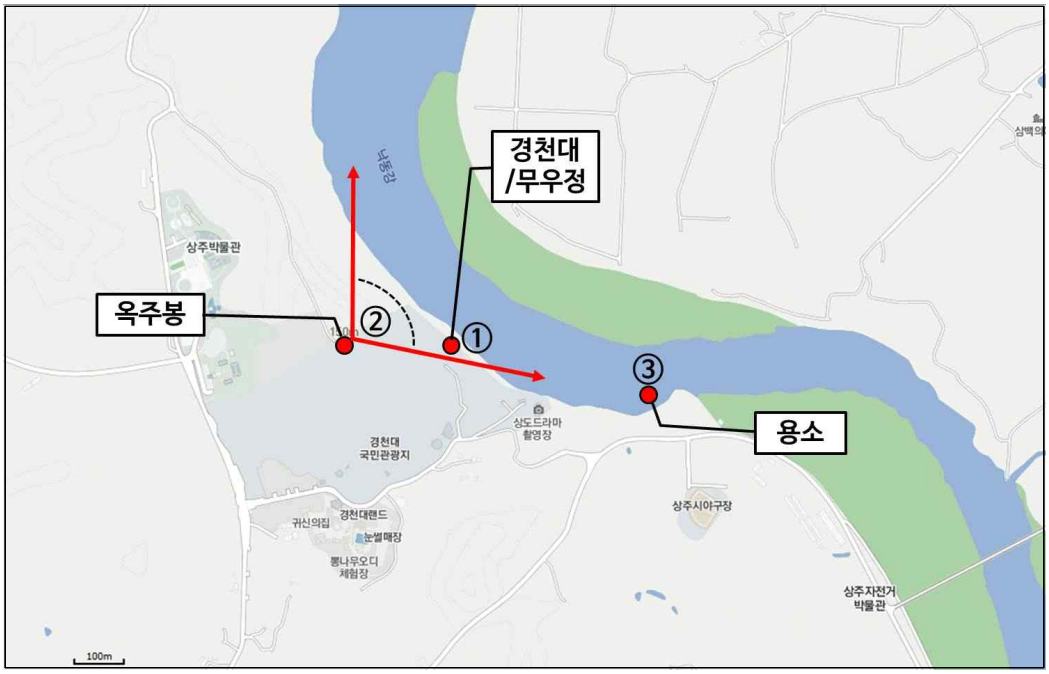
* 최명길(崔鳴吉)이 채득기의 무우정(舞雩亭)과 그 인근의 풍광의 아름다움과 이 정자의 건축이 지니는 철학적 함의에 대하여 기술한 것이다. 공자의 제자 증점이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 올라가 바람을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자연 속에서 노닐며 도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한 바 있는데, 채득기의 무우정(舞雩亭)은 그러한 정신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최명길의 평가이다. 따뜻한 봄날 이 정자에서 경치를 바라보면 강산은 더욱 화려하고 바위에 핀 꽃들은 서로를 비춘다. 계곡의 버드나무 고운 자태 다투고 물고기는 활발하게 헤엄치고 다닌다. 온갖 새들 지저귀고 시골의 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술을 가지고 봄놀이 하면서 귀암(龜巖)에 걸터앉아 용혈(龍穴)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시원한 연못에서 몸을 씻고 천길 솟은 벼랑 위에서 옷깃을 떨치다 돌아오면, 이것이 바로 증점이 옛날 무우(舞雩)에서 소요하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최명길은 강조하고 있다.

(3) 실경산수화

- 자료 없음.

(4) 현재적 재구성

낙동강 상류 옥주봉에는 낙동강 상류의 공격사면에 위치한 경천대와, 무우정, 그리고 용소가 있다. 경천대와 무우정은 각각 19세기의 문신 한장석(韓章錫, 1832~1894)과 18세기의 문신 조천경(趙天經, 1695~1776)이 쓴 시에 등장한다. 경천대를 지나 옥주봉 정상의 전망대에 오르면 낙동강이 보호사면을 끼고 크게 굽이쳐 흐르는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 해당 경관을 지도와 함께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천대 전경과 무우정, 경천대 비석



② 옥주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낙동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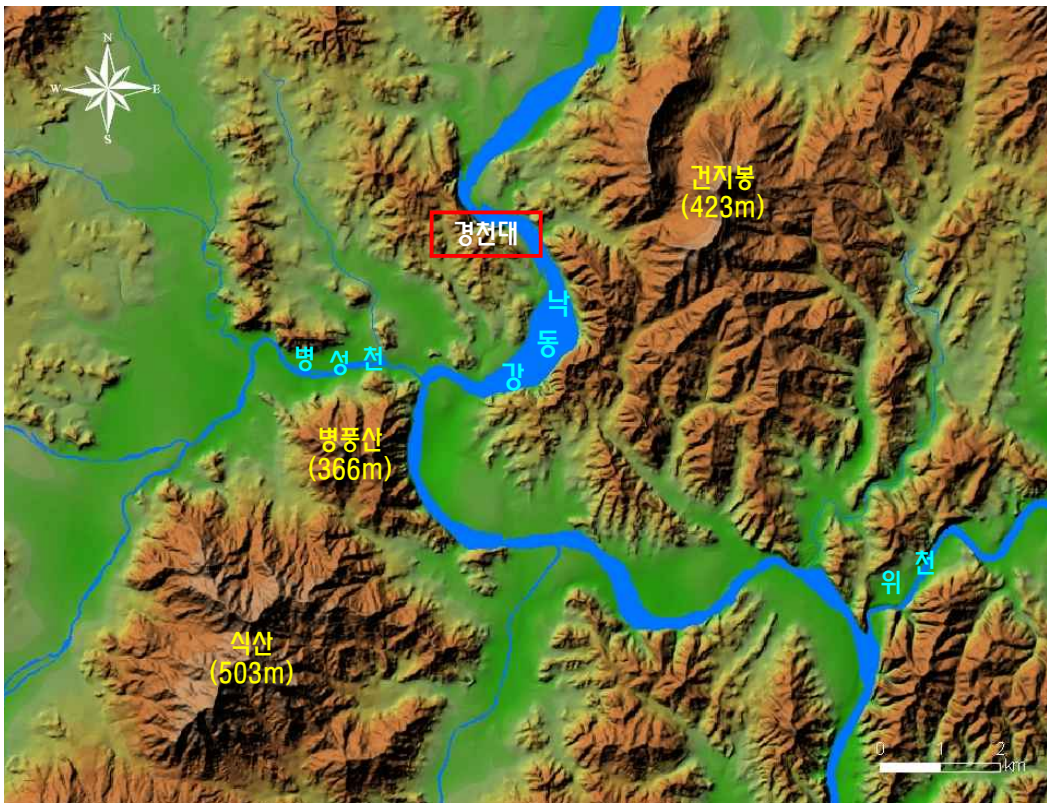
③ 경천대에서 바라본 용소



(5) 지형 및 식생 분석

가. 지형 및 지질

경천대는 안동분지를 빠져나온 낙동강이 상주분지를 관통하며 굽이쳐 흐르다 옥주봉 아래의 공격사면에 해당하는 곳에 절벽을 형성시키며 만들어 잔류암체이다. 이 일대의 거시적 윤곽을 보면 낙동강과 그 지류하천인 병성천, 장천, 위천 등이 합류하면서 상주분지를 형성해 놓았고 하천에 의해 침식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도상구릉(monadnock)이 일부 남아있다. 문경분지와 상주분지 일대는 북동-남서 방향의 소백산맥의 동쪽에 해당하는 곡저평야 일대로 저지를 따라 낙동강이 곡류하면서 끊임없이 침식해 나가고 있다. 경천대 구간에서는 북동-남서 방향의 산열에 해당하는 건지봉(423m), 병풍산(366m), 식산(503m)을 관통하면서 남쪽으로 흘러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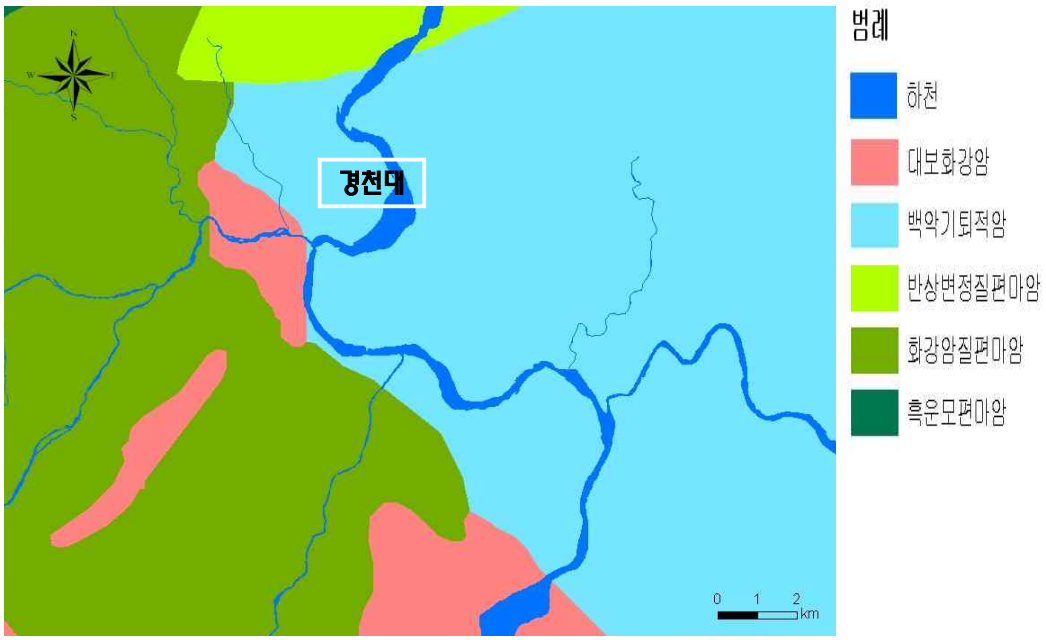


경천대 일대의 지형(DEM)

상주분지를 흘러가는 낙동강을 기준으로 보면 서쪽은 편마암 계통(반상변정질편마암, 화강암질편마암, 흑운모편암), 동쪽은 백악기 퇴적암(경상계 낙동층군 삼덕리층)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특히 건지봉과 경천대 일대는 역암, 사암, 셰일

등 백악기에 호수에서 퇴적된 퇴적암층이 주를 이룬다.

삼덕리층은 하부로부터 백담리멤버, 삼덕리멤버, 묵하리멤버로 구성된다. 백담리멤버는 기저역암으로서 직경 5m 이상에 달하는 거력도 함유하는 역암층이다. 이들 거력들은 개체로 기반을 이루고 있던 반상변정 흑운모암질 편마암이다. 삼덕리멤버는 흑색셰일과 사암의 호층대로서, 흑색셰일은 박층으로 사암층 내에 무수히 협재하며 북상함에 따라서 두께가 점차 작아진다. 묵하리멤버는 본 지역에 분포하는 낙동통 지층군들 중 최상위를 점한다. 본 층은 주로 역암과 사질역암이 호층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숫구이 부근에서는 2매의 흑색셰일과 1매의 적색셰일층을 협재한다. 역암 및 사질역암은 흔히 담갈색 내지 담회색을 띠며 알코즈질이다. 력은 규암, 편마암류, 흑색셰일, 사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경 50cm에 까지 달하는 것도 있으나 보통 7cm 내외의 것이 가장 많다. 원마도는 비교적 양호하여 둥근(rounded) 모양을 보여 준다. 매트릭스의 분급은 매우 불량하다. 묵하리멤버는 경천대 지역의 지질적 토대가 된다(이재근, 2004).



경천대 일대의 지질

나. 자연 경관

경천대는 낙동강의 공격사면에 형성된 삼덕리층 묵하리멤버의 역암과 사질역암층의 하식애 위에 위치한다. 역암층과 사질역암층의 층리와 이와 직교하는 수

직절리를 따른 풍화에 의해 형성된 토르형 암괴가 눈에 띄는 지형경관을 만들어 냈다. 과거 중생대 백악기에 수중에서 분급이 매우 불량한 상태로 역암과 사암이 퇴적된 후 융기한 후 치밀화(compaction)·교결화(cementation)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퇴적암이 도상구릉의 형태로 남아 있다. 이후 압력으로 인해 수평 및 수질절리가 발달하여 토르형태의 암괴가 남아 있고 부분적으로 절리밀도가 높아 표층풍화가 진행된 곳에는 식생이 점유하고 있다.



경천대를 이루고 있는 토르형의 퇴적암 노두

경천대에 속하는 옥주봉 일대가 낙동강의 유수에너지가 강한 공격사면이라면 반대편 농경지가 보이는 곳은 상대적으로 유속이 느려 퇴적이 진행된 활주사면으로서 지형이 완만하고 충적층이 두텁게 쌓여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다. 옥주봉은 하천이 굽이쳐 흘러가는 회룡포처럼 곡류경관을 조망하기에 유리한 지점이다.



옥주봉에서 바라본 낙동강

다. 식생경관적 특징

낙동강 최대 절경을 자랑하는 상주 경천대는 개방된 조망경관으로서 의미가 크다. 건너편 농경지 초지경관 및 좌·우의 깎아지른 절벽부, 노송 식생경관이 절정을 이룬다.

경천대 상부의 소나무 랜드마크 경관과 함께 절벽부의 암벽식생과 산림내부 식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암벽식생은 석위와 고사리류가 우점하며 국수나무, 줄찔레, 참싸리, 산딸기, 담쟁이덩굴 등의 관목류와 해국, 참나리, 부처손, 돌나물, 기린초 등의 초본류가 우점하였으며 일부, 암벽에도 노송이 생육하고 있었다.

산림 내부 식생에 있어 대부분 소나무가 우점하면서 하부식생은 굴참나무, 붉나무, 개옻나무, 산철쭉 등이 소수 생육하는 단층적인 식생구조를 나타내었다. 부분적으로 소나무와의 생태적 경쟁단계로서 굴참나무 및 신갈나무 등으로의 천이진행단계도 관찰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부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천대 주변이 유원지화 되면서 놀이시설 및 집단시설이 산재되어 있었으며 가이즈까향나무, 목부용 등의 외래종이 식재되어 있어 주변경관과 이질적인 요소로 조사되었다. 또한, 다양한 이용강도 및 인위적 간섭 등으로 개망초, 칡, 가시박, 환삼덩굴 등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어가고 있었으며 자생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로 판단되었다. 특히, 가시박은 생태계교란식물로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공원화 및 정비계획에 있어서도 기암절벽과 노송이 잘 어우러진 전망대로서, 역사·문화적 자원인 경천대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구성 및 식재방안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경천대 식생경관



경천대 주변 가시박 확산



경천대 후면부 공원화 시설지



소나무 하부 나지화 진행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가.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

❍ 문화·역사적 가치: 상주 경천대는 조선 후기에 저술된 옛 시문들에서 명승으로 기록된 곳이다. 김상헌, 이만부, 성만징 등이 읊은 다수의 시문들이 전하는데, 이들은 대개 경천대와 함께 무우정에서 바라본 이 일대의 풍광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옛 시문들에 나타난 경천대는 낙동강의 아름다운 풍치와 백사장, 이곳에서 본 낙조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 묘사되고 있다.

❍ 지형적 가치: 경천대는 풍화지형(weathering landform), 하천지형(river landform), 산지지형(mountain landform)적 요소를 한 눈에 관찰하기에 유리한 장소를 제공한다. 이 일대는 경상북도 내륙지형의 생활중심지를 이루고 있는 문경, 상주 등과 같은 침식분지의 지형발달 과정에서 백악기에 형성된 퇴적암과 수평 및 수직절리의 발달에 따른 풍화 양상 그리고 낙동강 같은 하천에 의한 개석 작용을 세트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토르형 암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표층풍화가 활발한 곳에서는 식생이 점유하고 있어 운치를 자아낸다. 옥주봉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곡류경관 또한 아름답다. 하지만 규모가 좀 작고 최근 공원화, 유원지화에 따른 지형경관 변화가 많아 가치가 절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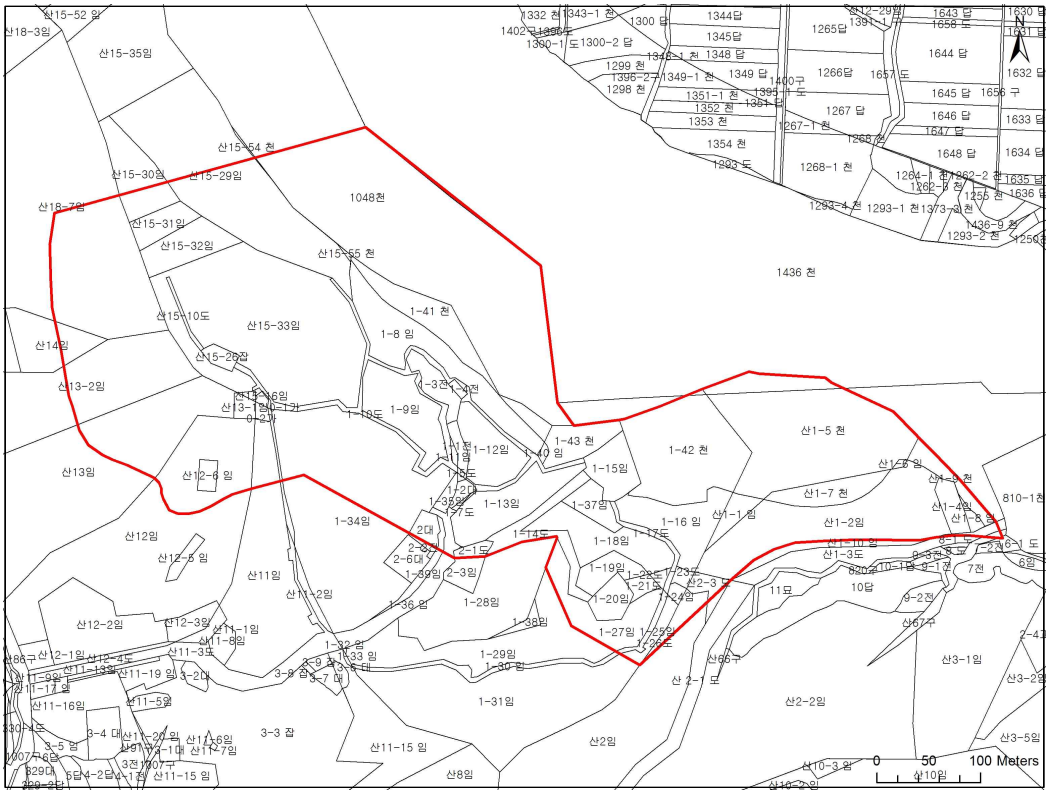
❍ 식생적 가치: 경천대는 낙동강 1,300리 물길 중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지점으로서, 자연·문화적 경관으로서 그 가치를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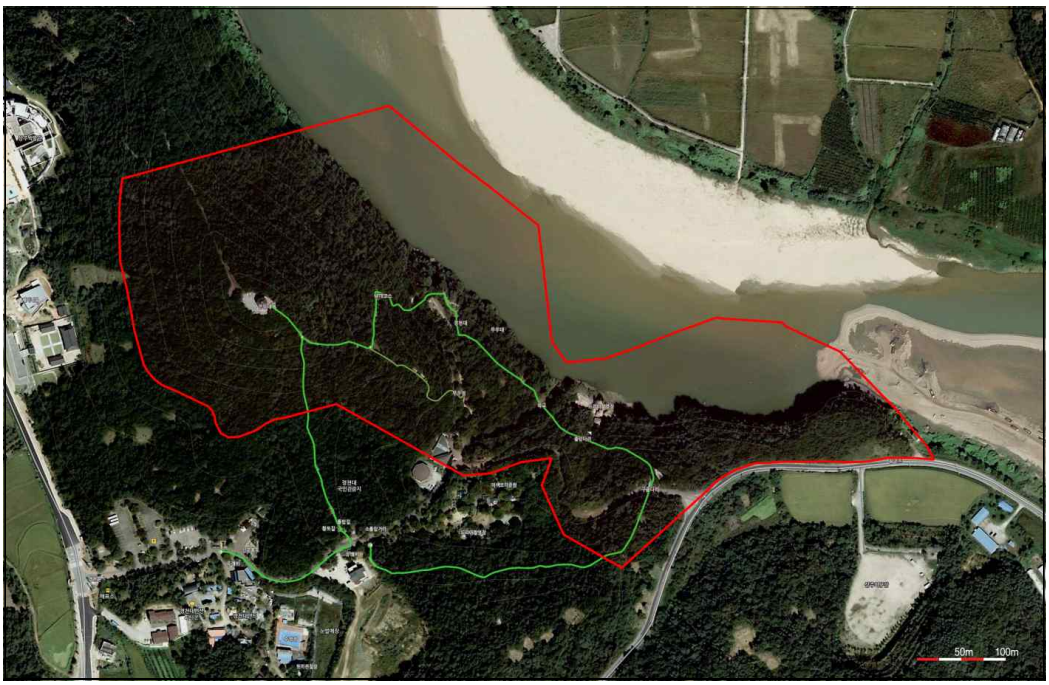
게 평가할 수 있다. 즉, 하늘로 우뚝 솟아오른 절벽 위로 천년을 간직한 송림이 우거져 있고, 그 사이로 낙동강이 흐르는 눈부신 절경은 최고의 장소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생환경과는 이질적인 외래종 식재 및 인위적 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경천대의 위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연성이 높은 정비가 요구되었다. 또한, 일부 소나무 대경목들의 수세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관리와 이용강도가 높아진 지역 내 토양답압에 대한 방안 마련도 병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명승의 지정 범위

명승의 지정 명칭과 범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지정내용
명칭	상주(尙州) 경천대(擎天臺)
지정종별	명승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도남동, 중동면 회상리
지번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8번지 외 72필지
면적	219,095.0㎡
관리단체	경상북도 상주시청
문화재 지정 여부	지정 권장


N
0 50 100 Meters
1048천
1436 천
산15-35임
산15-54 천
산15-30임
산15-29임
산18-7임
산15-31임
산15-32임
산15-55 천
산15-10도
산15-33임
산14임
산15-26잡
산13-2임
산13임
산12-6 임
산12임
산12-5 임
산11임
산11-2임
산12-2임
산12-3임
산11-1임
산11-8임
산11-3묘
산12-1임
산12-4도
산11-13임
산11-19 임
산11-2대
산11-9임
산11-17 임
산11-16임
산11-5임
3-4 대
산11-20 임
산17-6임
3-5 답
3-1대
산17-7임
3-3 잡
산11-15 임
산8임
산2임
산2-2임
산3-1임
산3-2임
산3-5임
산10-3 임
산10-2임
산10임
산66구
산 2-1 묘
산67구
1-41 천
1-8 임
1-3전
1-4전
1-9임
1-10도
1-11전
1-12임
1-43 천
1-40 임
1-15임
1-42 천
1-13임
1-37답
1-34임
1-14도
1-16 임
1-17도
1-18임
1-19임
1-22도
1-23도
1-21도
1-20임
1-24임
1-36 임
1-28임
1-38임
1-27임
1-25임
1-26도
1-32 임
1-33 임
1-29임
1-30 임
1-31임
산1-5 천
산1-6 임
산1-7 천
산1-4임
산1-5 천
산1-1임
산1-2임
산1-10 임
산1-3도
산2-3 도
산1-9 임
산1-8 임
산1-7임
산1-6 임
산1-5 임
산1-4임
산1-3 천
산1-2 천
산1-1 천
산1-8 천
산1-9 천
산1-10 천
산1-11 천
산1-12 천
산1-13 천
산1-14 천
산1-15 천
산1-16 천
산1-17 천
산1-18 천
산1-19 천
산1-20 천
산1-21 천
산1-22 천
산1-23 천
산1-24 천
산1-25 천
산1-26 천
산1-27 천
산1-28 천
산1-29 천
산1-30 천
산1-31 천
산1-32 천
산1-33 천
산1-34 천
산1-35 천
산1-36 천
산1-37 천
산1-38 천
산1-39 천
산1-40 천
산1-41 천
산1-42 천
산1-43 천
산1-44 천
산1-45 천
산1-46 천
산1-47 천
산1-48 천
산1-49 천
산1-50 천
산1-51 천
산1-52 천
산1-53 천
산1-54 천
산1-55 천
산1-56 천
산1-57 천
산1-58 천
산1-59 천
산1-60 천
산1-61 천
산1-62 천
산1-63 천
산1-64 천
산1-65 천
산1-66 천
산1-67 천
산1-68 천
산1-69 천
산1-70 천
산1-71 천
산1-72 천
산1-73 천
산1-74 천
산1-75 천
산1-76 천
산1-77 천
산1-78 천
산1-79 천
산1-80 천
산1-81 천
산1-82 천
산1-83 천
산1-84 천
산1-85 천
산1-86 천
산1-87 천
산1-88 천
산1-89 천
산1-90 천
산1-91 천
산1-92 천
산1-93 천
산1-94 천
산1-95 천
산1-96 천
산1-97 천
산1-98 천
산1-99 천
산1-100 천
산1-101 천
산1-102 천
산1-103 천
산1-104 천
산1-105 천
산1-106 천
산1-107 천
산1-108 천
산1-109 천
산1-110 천
산1-111 천
산1-112 천
산1-113 천
산1-114 천
산1-115 천
산1-116 천
산1-117 천
산1-118 천
산1-119 천
산1-120 천
산1-121 천
산1-122 천
산1-123 천
산1-124 천
산1-125 천
산1-126 천
산1-127 천
산1-128 천
산1-129 천
산1-130 천
산1-131 천
산1-132 천
산1-133 천
산1-134 천
산1-135 천
산1-136 천
산1-137 천
산1-138 천
산1-139 천
산1-140 천
산1-141 천
산1-142 천
산1-143 천
산1-144 천
산1-145 천
산1-146 천
산1-147 천
산1-148 천
산1-149 천
산1-150 천
산1-151 천
산1-152 천
산1-153 천
산1-154 천
산1-155 천
산1-156 천
산1-157 천
산1-158 천
산1-159 천
산1-160 천
산1-161 천
산1-162 천
산1-163 천
산1-164 천
산1-165 천
산1-166 천
산1-167 천
산1-168 천
산1-169 천
산1-170 천
산1-171 천
산1-172 천
산1-173 천
산1-174 천
산1-175 천
산1-176 천
산1-177 천
산1-178 천
산1-179 천
산1-180 천
산1-181 천
산1-182 천
산1-183 천
산1-184 천
산1-185 천
산1-186 천
산1-187 천
산1-188 천
산1-189 천
산1-190 천
산1-191 천
산1-192 천
산1-193 천
산1-194 천
산1-195 천
산1-196 천
산1-197 천
산1-198 천
산1-199 천
산1-200 천
산1-201 천
산1-202 천
산1-203 천
산1-204 천
산1-205 천
산1-206 천
산1-207 천
산1-208 천
산1-209 천
산1-210 천
산1-211 천
산1-212 천
산1-213 천
산1-214 천
산1-215 천
산1-216 천
산1-217 천
산1-218 천
산1-219 천
산1-220 천
산1-221 천
산1-222 천
산1-223 천
산1-224 천
산1-225 천
산1-226 천
산1-227 천
산1-228 천
산1-229 천
산1-230 천
산1-231 천
산1-232 천
산1-233 천
산1-234 천
산1-235 천
산1-236 천
산1-237 천
산1-238 천
산1-239 천
산1-240 천
산1-241 천
산1-242 천
산1-243 천
산1-244 천
산1-245 천
산1-246 천
산1-247 천
산1-248 천
산1-249 천
산1-250 천
산1-251 천
산1-252 천
산1-253 천
산1-254 천
산1-255 천
산1-256 천
산1-257 천
산1-258 천
산1-259 천
산1-260 천
산1-261 천
산1-262 천
산1-263 천
산1-264 천
산1-265 천
산1-266 천
산1-267 천
산1-268 천
산1-269 천
산1-270 천
산1-271 천
산1-272 천
산1-273 천
산1-274 천
산1-275 천
산1-276 천
산1-277 천
산1-278 천
산1-279 천
산1-280 천
산1-281 천
산1-282 천
산1-283 천
산1-284 천
산1-285 천
산1-286 천
산1-287 천
산1-288 천
산1-289 천
산1-290 천
산1-291 천
산1-292 천
산1-293 천
산1-294 천
산1-295 천
산1-296 천
산1-297 천
산1-298 천
산1-299 천
산1-300 천
산1-301 천
산1-302 천
산1-303 천
산1-304 천
산1-305 천
산1-306 천
산1-307 천
산1-308 천
산1-309 천
산1-310 천
산1-311 천
산1-312 천
산1-313 천
산1-314 천
산1-315 천
산1-316 천
산1-317 천
산1-318 천
산1-319 천
산1-320 천
산1-321 천
산1-322 천
산1-323 천
산1-324 천
산1-325 천
산1-326 천
산1-327 천
산1-328 천
산1-329 천
산1-330 천
산1-331 천
산1-332 천
산1-333 천
산1-334 천
산1-335 천
산1-336 천
산1-337 천
산1-338 천
산1-339 천
산1-340 천
산1-341 천
산1-342 천
산1-343 천
산1-344 천
산1-345 천
산1-346 천
산1-347 천
산1-348 천
산1-349 천
산1-350 천
산1-351 천
산1-352 천
산1-353 천
산1-354 천
산1-355 천
산1-356 천
산1-357 천
산1-358 천
산1-359 천
산1-360 천
산1-361 천
산1-362 천
산1-363 천
산1-364 천
산1-365 천
산1-366 천
산1-367 천
산1-368 천
산1-369 천
산1-370 천
산1-371 천
산1-372 천
산1-373 천
산1-374 천
산1-375 천
산1-376 천
산1-377 천
산1-378 천
산1-379 천
산1-380 천
산1-381 천
산1-382 천
산1-383 천
산1-384 천
산1-385 천
산1-386 천
산1-387 천
산1-388 천
산1-389 천
산1-390 천
산1-391 천
산1-392 천
산1-393 천
산1-394 천
산1-395 천
산1-396 천
산1-397 천
산1-398 천
산1-399 천
산1-400 천
산1-401 천
산1-402 천
산1-403 천
산1-404 천
산1-405 천
산1-406 천
산1-407 천
산1-408 천
산1-409 천
산1-410 천
산1-411 천
산1-412 천
산1-413 천
산1-414 천
산1-415 천
산1-416 천
산1-417 천
산1-418 천
산1-419 천
산1-420 천
산1-421 천
산1-422 천
산1-423 천
산1-424 천
산1-425 천
산1-426 천
산1-427 천
산1-428 천
산1-429 천
산1-430 천
산1-431 천
산1-432 천
산1-433 천
산1-434 천
산1-435 천
산1-436 천
산1-437 천
산1-438 천
산1-439 천
산1-440 천
산1-441 천
산1-442 천
산1-443 천
산1-444 천
산1-445 천
산1-446 천
산1-447 천
산1-448 천
산1-449 천
산1-450 천
산1-451 천
산1-452 천
산1-453 천
산1-454 천
산1-455 천
산1-456 천
산1-457 천
산1-458 천
산1-459 천
산1-460 천
산1-461 천
산1-462 천
산1-463 천
산1-464 천
산1-465 천
산1-466 천
산1-467 천
산1-468 천
산1-469 천
산1-470 천
산1-471 천
산1-472 천
산1-473 천
산1-474 천
산1-475 천
산1-476 천
산1-477 천
산1-478 천
산1-479 천
산1-480 천
산1-481 천
산1-482 천
산1-483 천
산1-484 천
산1-485 천
산1-486 천
산1-487 천
산1-488 천
산1-489 천
산1-490 천
산1-491 천
산1-492 천
산1-493 천
산1-494 천
산1-495 천
산1-496 천
산1-497 천
산1-498 천
산1-499 천
산1-500 천
산1-501 천
산1-502 천
산1-503 천
산1-504 천
산1-505 천
산1-506 천
산1-507 천
산1-508 천
산1-509 천
산1-510 천
산1-511 천
산1-512 천
산1-513 천
산1-514 천
산1-515 천
산1-516 천
산1-517 천
산1-518 천
산1-519 천
산1-520 천
산1-521 천
산1-522 천
산1-523 천
산1-524 천
산1-525 천
산1-526 천
산1-527 천
산1-528 천
산1-529 천
산1-530 천
산1-531 천
산1-532 천
산1-533 천
산1-534 천
산1-535 천
산1-536 천
산1-537 천
산1-538 천
산1-539 천
산1-540 천
산1-541 천
산1-542 천
산1-543 천
산1-544 천
산1-545 천
산1-546 천
산1-547 천
산1-548 천
산1-549 천
산1-550 천
산1-551 천
산1-552 천
산1-553 천
산1-554 천
산1-555 천
산1-556 천
산1-557 천
산1-558 천
산1-559 천
산1-560 천
산1-561 천
산1-562 천
산1-563 천
산1-564 천
산1-565 천
산1-566 천
산1-567 천
산1-568 천
산1-569 천
산1-570 천
산1-571 천
산1-572 천
산1-573 천
산1-574 천
산1-575 천
산1-576 천
산1-577 천
산1-578 천
산1-579 천
산1-580 천
산1-581 천
산1-582 천
산1-583 천
산1-584 천
산1-585 천
산1-586 천
산1-587 천
산1-588 천
산1-589 천
산1-590 천
산1-591 천
산1-592 천
산1-593 천
산1-594 천
산1-595 천
산1-596 천
산1-597 천
산1-598 천
산1-599 천
산1-600 천
산1-601 천
산1-602 천
산1-603 천
산1-604 천
산1-605 천
산1-606 천
산1-607 천
산1-608 천
산1-609 천
산1-610 천
산1-611 천
산1-612 천
산1-613 천
산1-614 천
산1-615 천
산1-616 천
산1-617 천
산1-618 천
산1-619 천
산1-620 천
산1-621 천
산1-622 천
산1-623 천
산1-624 천
산1-625 천
산1-626 천
산1-627 천
산1-628 천
산1-629 천
산1-630 천
산1-631 천
산1-632 천
산1-633 천
산1-634 천
산1-635 천
산1-636 천
산1-637 천
산1-638 천
산1-639 천
산1-640 천
산1-641 천
산1-642 천
산1-643 천
산1-644 천
산1-645 천
산1-646 천
산1-647 천
산1-648 천
산1-649 천
산1-650 천
산1-651 천
산1-652 천
산1-653 천
산1-654 천
산1-655 천
산1-656 천
산1-657 천
산1-658 천
산1-659 천
산1-660 천
산1-661 천
산1-662 천
산1-663 천
산1-664 천
산1-665 천
산1-666 천
산1-667 천
산1-668 천
산1-669 천
산1-670 천
산1-671 천
산1-672 천
산1-673 천
산1-674 천
산1-675 천
산1-676 천
산1-677 천
산1-678 천
산1-679 천
산1-680 천
산1-681 천
산1-682 천
산1-683 천
산1-684 천
산1-685 천
산1-686 천
산1-687 천
산1-688 천
산1-689 천
산1-690 천
산1-691 천
산1-692 천
산1-693 천
산1-694 천
산1-695 천
산1-696 천
산1-697 천
산1-698 천
산1-699 천
산1-700 천
산1-701 천
산1-702 천
산1-703 천
산1-704 천
산1-705 천
산1-706 천
산1-707 천
산1-708 천
산1-709 천
산1-710 천
산1-711 천
산1-712 천
산1-713 천
산1-714 천
산1-715 천
산1-716 천
산1-717 천
산1-718 천
산1-719 천
산1-720 천
산1-721 천
산1-722 천
산1-723 천
산1-724 천
산1-725 천
산1-726 천
산1-727 천
산1-728 천
산1-729 천
산1-730 천
산1-731 천
산1-732 천
산1-733 천
산1-734 천
산1-735 천
산1-736 천
산1-737 천
산1-738 천
산1-739 천
산1-740 천
산1-741 천
산1-742 천
산1-743 천
산1-744 천
산1-745 천
산1-746 천
산1-747 천
산1-748 천
산1-749 천
산1-750 천
산1-751 천
산1-752 천
산1-753 천
산1-754 천
산1-755 천
산1-756 천
산1-757 천
산1-758 천
산1-759 천
산1-760 천
산1-761 천
산1-762 천
산1-763 천
산1-764 천
산1-765 천
산1-766 천
산1-767 천
산1-768 천
산1-769 천
산1-770 천
산1-771 천
산1-772 천
산1-773 천
산1-774 천
산1-775 천
산1-776 천
산1-777 천
산1-778 천
산1-779 천
산1-780 천
산1-781 천
산1-782 천
산1-783 천
산1-784 천
산1-785 천
산1-786 천
산1-787 천
산1-788 천
산1-789 천
산1-790 천
산1-791 천
산1-792 천
산1-793 천
산1-794 천
산1-795 천
산1-796 천
산1-797 천
산1-798 천
산1-799 천
산1-800 천
산1-801 천
산1-802 천
산1-803 천
산1-804 천
산1-805 천
산1-806 천
산1-807 천
산1-808 천
산1-809 천
산1-810 천
산1-811 천
산1-812 천
산1-813 천
산1-814 천
산1-815 천
산1-816 천
산1-817 천
산1-818 천
산1-819 천
산1-820 천
산1-821 천
산1-822 천
산1-823 천
산1-824 천
산1-825 천
산1-826 천
산1-827 천
산1-828 천
산1-829 천
산1-830 천
산1-831 천
산1-832 천
산1-833 천
산1-834 천
산1-835 천
산1-836 천
산1-837 천
산1-838 천
산1-839 천
산1-840 천
산1-841 천
산1-842 천
산1-843 천
산1-844 천
산1-845 천
산1-846 천
산1-847 천
산1-848 천
산1-849 천
산1-850 천
산1-851 천
산1-852 천
산1-853 천
산1-854 천
산1-855 천
산1-856 천
산1-857 천
산1-858 천
산1-859 천
산1-860 천
산1-861 천
산1-862 천
산1-863 천
산1-864 천
산1-865 천
산1-866 천
산1-867 천
산1-868 천
산1-869 천
산1-870 천
산1-871 천
산1-872 천
산1-873 천
산1-874 천
산1-875 천
산1-876 천
산1-877 천
산1-878 천
산1-879 천
산1-880 천
산1-881 천
산1-882 천
산1-883 천
산1-884 천
산1-885 천
산1-886 천
산1-887 천
산1-888 천
산1-889 천
산1-890 천
산1-891 천
산1-892 천
산1-893 천
산1-894 천
산1-895 천
산1-896 천
산1-897 천
산1-898 천
산1-899 천
산1-900 천
산1-901 천
산1-902 천
산1-903 천
산1-904 천
산1-905 천
산1-906 천
산1-907 천
산1-908 천
산1-909 천
산1-910 천
산1-911 천
산1-912 천
산1-913 천
산1-914 천
산1-915 천
산1-916 천
산1-917 천
산1-918 천
산1-919 천
산1-920 천
산1-921 천
산1-922 천
산1-923 천
산1-924 천
산1-925 천
산1-926 천
산1-927 천
산1-928 천
산1-929 천
산1-930 천
산1-931 천
산1-932 천
산1-933 천
산1-934 천
산1-935 천
산1-936 천
산1-937 천
산1-938 천
산1-939 천
산1-940 천
산1-941 천
산1-942 천
산1-943 천
산1-944 천
산1-945 천
산1-946 천
산1-947 천
산1-948 천
산1-949 천
산1-950 천
산1-951 천
산1-952 천
산1-953 천
산1-954 천
산1-955 천
산1-956 천
산1-957 천
산1-958 천
산1-959 천
산1-960 천
산1-961 천
산1-962 천
산1-963 천
산1-964 천
산1-965 천
산1-966 천
산1-967 천
산1-968 천
산1-969 천
산1-970 천
산1-971 천
산1-972 천
산1-973 천
산1-974 천
산1-975 천
산1-976 천
산1-977 천
산1-978 천
산1-979 천
산1-980 천
산1-981 천
산1-982 천
산1-983 천
산1-984 천
산1-985 천
산1-986 천
산1-987 천
산1-988 천
산1-989 천
산1-990 천
산1-991 천
산1-992 천
산1-993 천
산1-994 천
산1-995 천
산1-996 천
산1-997 천
산1-998 천
산1-999 천
산1-1000 천


50m
100m

4) 칠곡(漆谷) 가산(架山)바위

(1) 지리지

『여지도서』에 가암(架巖)과 가산(架山)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가암의 대략적인 위치를 밝히고,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으며, 멀리까지 조망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칠곡도호부(柒谷都護府)의 건치연혁(建置沿革)에서 가산산성(架山山城)을 쌓고 도호부(都護府)를 설치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명칭	지리지	세부 항목	내 용
가암	여지도서	칠곡 도호부	부성 서쪽에 있다. 바위 가운데에 굴이 있으며, 이곳에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면 사방이 탁 트여있다.
가산	여지도서	칠곡 도호부	곧 부성의 주산이다. 조선(朝鮮) 인조(仁祖) 18년에 가산에 성을 쌓았는데, 산성과 고을 관아의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마침내 칠곡도호부(漆谷都護府)를 두었다.

(2) 고시문

가산바위에 대한 고시문은 가산바위 일대를 유람하고 그 아름다운 경관에 대해 읊은 것과 가산산성의 축성과 공해지에 대한 기록 등이 남아있다. 이들 고시문의 목록과 주요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가산 바위 -시(詩)	하시찬(夏時贊)	『열암집(悅菴集)』 (권1)	〈架巖。代徐德兼。呈近民軒。〉
가산 산성 -시(詩)	김홍욱(金弘郁)	『학주전집(鶴洲全集)』 (권2)	〈漆谷架山山城。次軸上韻。贈玄悟上人。〉
가산 산성 -문(文)	허목(許穆)	『미수기언(眉叟記言)』 (권10)	〈가산 축성석기(架山築城石記)〉
	심상규(沈象奎)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6)	〈가산창(架山倉)〉

<시(詩)>

1. 하시찬(夏時贊, 1750~1828), <가암에서, 서덕겸을 대신하여 근민헌에 올리다.(架巖。代徐德兼 。呈近民軒。>,『열암집(悅菴集)』卷1

좋은 날 맑은 유람 나서 복장 갖추고서 / 勝日淸遊服旣成
벼랑 부여잡고 벽을 타고 산성에 들어가니 / 攀崖緣壁入山城
관청에서 몇 가지 반찬에 홍로주를 보내와 / 數饍官厨紅露送
이 좋은 때 꽃과 나무에 정을 담아 보네. / 此時花樹正含情

* 18세기 후반~19세기 초의 인물인 하시찬(夏時贊)이 남긴 시이다. 하시찬은 자가 경양(景襄)이고 호는 열암(悅菴)이며, 본관은 달성(達城)이고, 출신지는 대구(大邱)이다. 대도독(大都督) 하흠(夏欽)의 후손으로, 부친은 하문징(夏文徵)이며, 성리학에 뜻을 두고 학문에 힘썼던 인물이다. 가산 바위 일대를 유람하고서 가산 바위에서 쓴 시로 보인다. 1~2구에서 좋은 날 유람하는 옷을 갖춰 입고서 바위를 붙잡고 벽을 따라 산성(山城)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렸고, 3~4구에서 관청 주방에서 홍로주를 보내와 꽃과 나무를 바라보며 흥취에 젖는 모습을 나타냈다.

<문(文)>

1. 허목(許穆, 1595~1682), <가산 축성석기(架山築城石記)>,『미수기언(眉叟記言)』卷10[59]

금상 17년(1639, 인조 17)에 이명웅(李命雄) 공이 부제학(副提學)으로 있다가 영남 관찰사(嶺南觀察使)로 나가게 되었는데 이때는 병자호란을 겪은 직후라서 나라가 안팎으로 혼란스러워 아침에 그날 저녁 일조차 계획하지 못하였다. 오직 남쪽 지방이 그나마 온전하였으므로 당시 부흥을 도모할 수 있는 곳

59)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문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일부 윤문함.

도 남쪽 지방이었다. 이보다 앞서 김시추(金是樞)라는 사람이 요해처에 산성을 쌓자는 상소를 올렸는데 임금께서 그의 계책을 받아들여 영남 관찰사로 제수된 공에게 그 일을 맡겼다.

上之十有七年。李公命雄以副提學。出爲嶺南觀察使。於是國家新去亂。內外板蕩。朝不謀夕。唯南方粗完。當今興復之圖。實在南。先有金是樞者上疏。言山城要害。上用其策。公旣受命。因以此屬公。

공이 임지에 도착하여 지리의 험요(險要)를 자세히 살펴보니, 남쪽 지방의 방어벽을 크게 쌓을 곳으로는 가산(架山)만 한 데가 없었다. 가산은 성주(星州) 동쪽 경계 팔거진(八莒鎭)에 있는데 영해(嶺海)의 요충지로 큰 읍과 군이 바둑판처럼 사방으로 벌려 있어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기가 쉽고 긴 강을 끼고 있어 사방으로 뱃길이 통하였으므로 이곳의 편리함을 파발을 통해 급히 아뢰었다. 그리하여 그해 9월에 장정들을 크게 징발하여 험조(險阻)한 곳을 따라 성을 축조하였는데, 다음 해 4월에 성이 완공되니, 부역한 인원이 10여만 명이었다. 성의 둘레는 3830보(步)이고, 성가퀴는 1752곳이며, 성의 문루(門樓)와 보루(堡樓), 군영(軍營), 열대(列臺), 수문(水門)과 기타 크고 작은 관청과 사원(寺院)이 모두 30여 곳이고, 크고 작은 샘과 못 32개를 팠으며, 무기도 이에 걸맞게 갖추었다.

公旣至。審察地利阨塞。大作南藩扞蔽。莫如架山。山星州東境八莒鎭。山當嶺海要衝。通邑大郡。棋布四列。物力易聚。控引長江。轉漕四通。乃以便宜驛聞。以其年九月。大發男丁。因阻險築城。至明年四月。功告成。凡役民十餘萬人。城周三千八百三十步千七百五十二堞。城門樓，堡樓，軍營，列臺，水門。其他大小公廨寺院。共三十餘所。鑿泉池大小三十二。器械如之。

백성들을 모집하여 부역과 세금을 면제해 주고 성안에서 살게 한 다음 경계를 분할하여 칠곡도호부(漆谷都護府)를 설치하였는데, 얼마 후 이 일을 마뜩찮게 여기는 자들이 여러 차례 비방하자 이공이 떠나갔다. 이후로 산성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꺼렸다. 얼마 안 되어 이공이 별세하였고 관찰사가 두 사람이나 거쳐 갔지만 모두 힘을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옛

일을 들먹이며 이공을 비방하고 성을 설치한 것이 불편하다고 다투어 말하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募民給復。以實城中。因割地分界。置漆谷都護府。旣而不悅者多謗之。李公去矣。自此言山城事。爲世所忌。未久。李公卒。觀察使歷二人。而皆莫肯顧力。以故追詆李公。爭言城不便者滋益多。

이제 관찰사 임담(林墰) 공이 명령을 받고 영남으로 부임하자, 그길로 해변을 순행하면서 열군(列郡)의 지리를 관찰하다가 이곳에 이르러 영루(營壘)를 두루 살펴보고는 감탄하기를, "관방(關防) 중에 이곳보다 더 튼튼한 곳은 없다." 하고는, 임금께 장계를 올려 이공의 뛰어난 능력과 방책(方策)에 관해 극구 말하고, 축성에 참여한 여러 장병들에게 모두 관작과 상을 소급하여 내릴 것을 청하였다. 또 땅이 좁아 이주한 백성의 농지가 부족하므로 더 많은 땅을 떼어 늘려 줄 것을 청하니, 동쪽으로 공산(公山)에 이르고 서쪽으로 대강(大江; 낙동강)까지 경계를 넓혀 주었다. 도호부사(都護府使) 최후헌(崔後憲) 공이 도호부를 설치한 전말을 모두 기록하고서 나에게 기문을 부탁하기에 이것을 산석(山石)에 새기게 한다.

今使相林公墰受命出嶺。卽巡行海邊。仍觀列郡地利。至此。周覽營壘。嘆曰。關防之壯。莫過於此。啓上極言李公賢能方略。其築城諸將士。請皆追行爵賞。又地界小。徙民耕農不足。請增割地益之。東據公山。西盡大江。都護府使崔侯後憲。備述建置都護終始事。屬余爲記。刻之山石云。

* 조선 후기의 문신 허목(許穆, 1595~1682)이 영남도호부사 최후헌(崔後憲)의 부탁을 받고 가산산성의 축성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글이다. 가산산성을 축성하게 된 경위, 축성 과정, 가산 산성의 규모, 산성 축성에 기여한 인물들과 그들에 대한 포상, 축성 이후 보완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2. 심상규(沈象奎), <가산창(架山倉)>, 『만기요람(萬機要覽)』 財用編6

가산창은 칠곡(漆谷)에 있는데, 인조 경진년(1640, 인조 18)에 내성(內城)을

쌓고 숙종 경진년(1700, 숙종 26)에 외성을 쌓았으며, 영종 신유년(1741, 영조 17)에 중성(中城)을 쌓았다. 창(倉)이 여기에 있다. [쌀 5,234석 영, 각곡(各穀) 7,141석.]

架山在於漆谷。而仁祖庚辰。築內城。肅宗庚辰。築外城。英宗辛酉。築中城。倉在於此。[米五千二百三十四石零。各穀七千一百四十一石。]

* 가산산성에 있었던 공해지(공공기관 건물 및 터)에 대한 기록으로는 백과전서식 기록물인 『만기요람(萬機要覽)』의 '제창(諸倉)'조에 위와 같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만기요람(萬機要覽)』은 1808년에 서영보(徐榮輔)·심상규(沈象奎) 등이 왕명에 의해 편찬한 책으로, 18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조선 왕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다.

(3) 실경산수화



〈가암 - 영남명승35경도〉, 작자미상

작자미상, <가암(架巖)>, 《영남명승35경도(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紙本彩色), 38.5×45.5cm, 일본 유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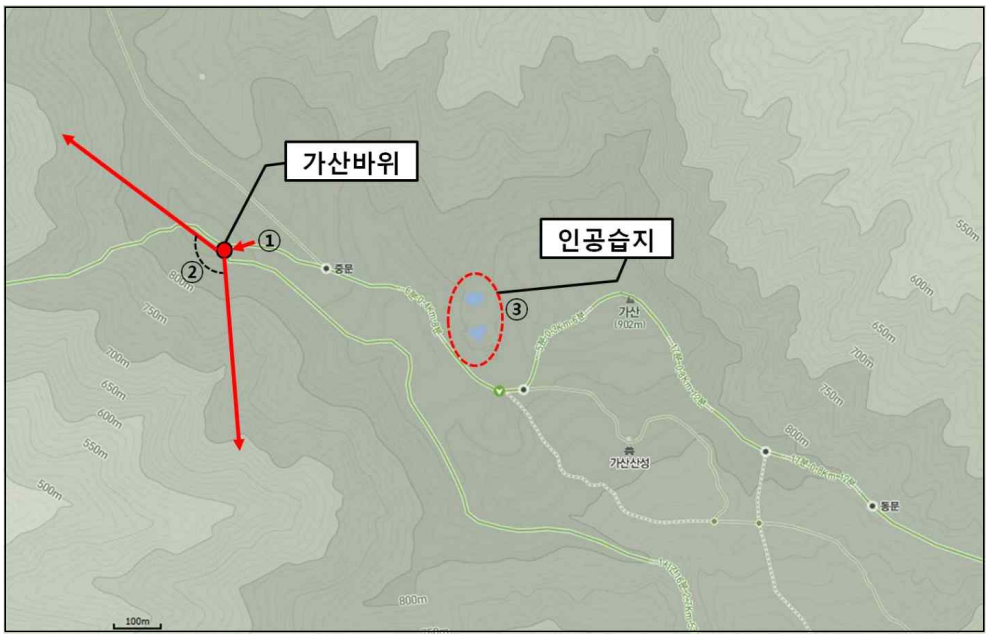
가산산성(架山山城)은 경북 칠곡에 있는 가산(架山)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석성(石城)을 가리킨다. 골짜기와 능선의 지세를 적절히 이용해 축조하였으며, 내성·중성·외성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1639년(인조 17), 경상도관찰사에 제수된 이명웅(李命雄, 1590~1642)은 경상도에 새로운 산성(山城)이 필요함을 조정에 건의하고, 9월부터 축성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 4월에 마무리하였다. 당시 완공된 산성이 내성에 해당한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1700년(숙종 26), 관찰사 이세재(李世載, 1648~1706)의 지휘 아래 외성이 완공되었다. 중성은 1741년(영조 17) 관찰사 정익하(鄭益河, 1688~?)의 건의와 주도로 건설되었는데, 주요 시설은 대부분 내성 안에 있었다.

한편 1640년 내성의 완공과 더불어 칠곡도호부가 설치되었지만, 지형이 험한 산성 안에 관아가 위치하고 있어 많은 불편이 따랐다. 이에 1819년(순조 19) 경상감사 김노경(金魯敬, 1766~1837)이 조정에 장계(狀啓)를 올려 도호부가 팔거현으로 옮겨지고 말았다. 장장 80여 년 동안 칠곡도호부의 거점이었던 가산산성은 정치사회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백성들까지 점차 산성 밖으로 이거함에 따라 폐허화되었다. 이 가산산성 서북쪽 정상부에 우뚝 솟아 있는 바위 봉우리는 '가암(架巖)' 또는 '개산암(介山巖)'으로 불렸다. 사면이 깎아지른 듯이 우뚝 솟아 있는 암봉의 상부에 80평이나 되는 넓고 평평한 공간이 조성된 특이한 형상이며, 바위 한가운데 폭 30㎝ 내외의 깊은 균열이 나있어 널리 시선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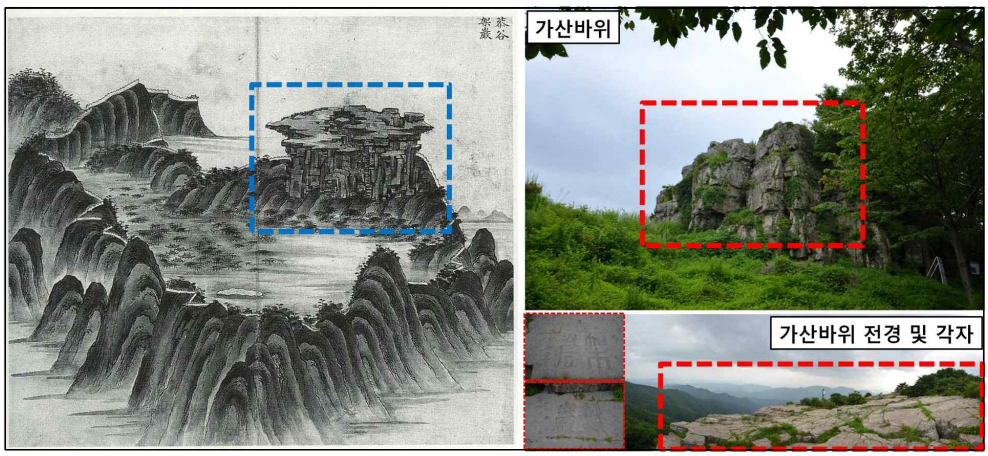
<가암>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조망한 가산산성과 일대 경관을 화면 가득 채워 넣은 실경산수화이다. 산 능선을 따라 이어진 성가퀴와 문루가 가산산성의 위용을 짐작케 하며, 연운 사이로 산성에 둘러싸인 칠곡도호부의 정경이 펼쳐져 있다. 산성의 서북쪽에 자리한 가암은 거대한 버섯구름 형태이며, 암봉의 중간에 갈라진 구멍까지 묘사되어 있어 실감을 더한다. 가암을 중심으로 산성의 기본 구조를 재현하는 데 집중한 결과 관아 건물과 민가가 모여 있는 읍치의 사정은 상세히 드러나 있지 않다. 현재 산성의 복원과 더불어 일부 공해(公廨)의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산성 안쪽에 그려진 넓은 못은 오늘날에도 그 자취를 간직하고 있다.

(4) 현재적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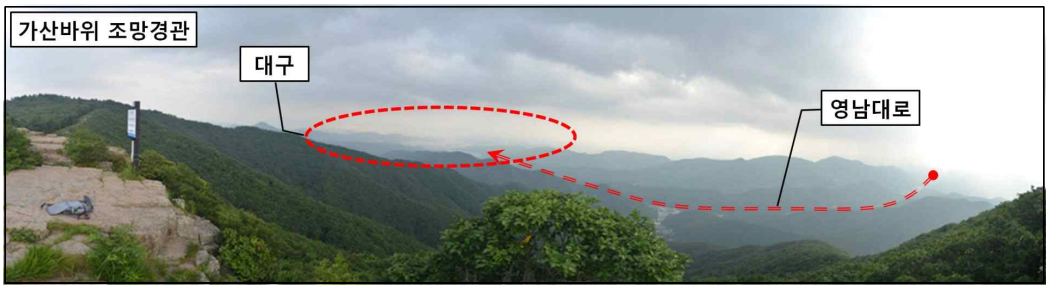
과거에 '가암(架巖)' 또는 '개산암(介山巖)'으로도 불리는 가산바위는 사면이 깎아지른 듯이 우뚝 솟아 있는 암봉으로 상부에는 80평이나 되는 넓고 평평한 공간이 조성된 특이한 형상이며, 바위 한가운데 폭 30㎝ 내외의 깊은 균열이 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산 정상에 위치한 가산바위까지 오르는 길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연못이 있으며, 능선을 따라 가산산성이 축조되어 있다. 가산바위에 오르면 멀리 대구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해당 경관을 지도와 함께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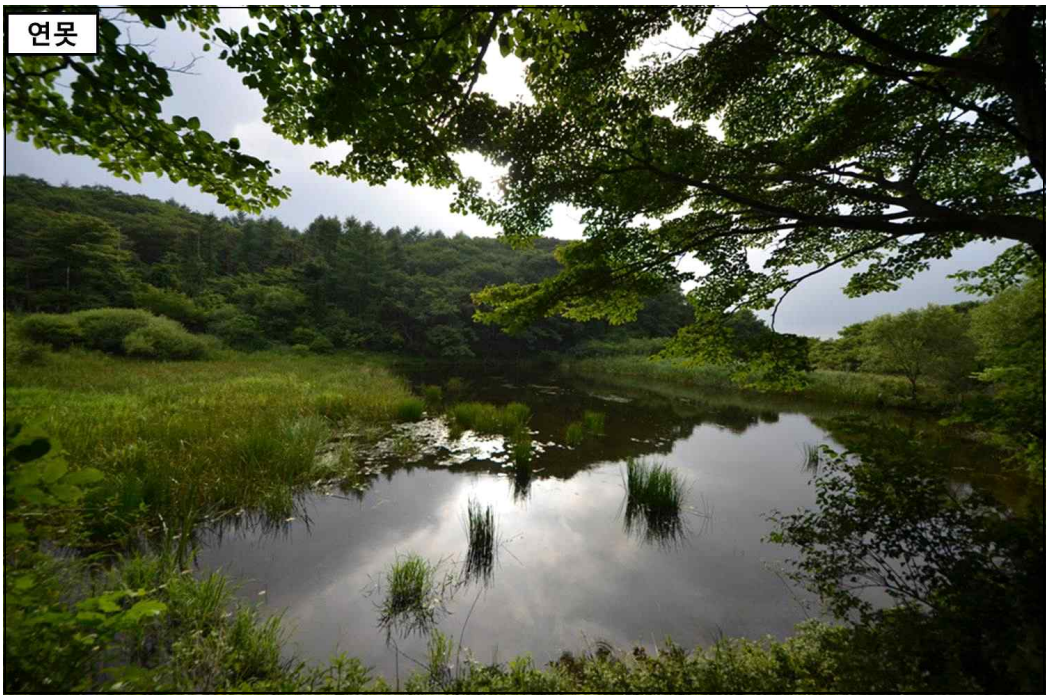
① <영남명승35경도>에 그려진 가산바위의 실제 경관과 각자



② 가산바위에서 조망되는 대구분지 북단과 영남대로



③ 고산습지로 변한 성내 연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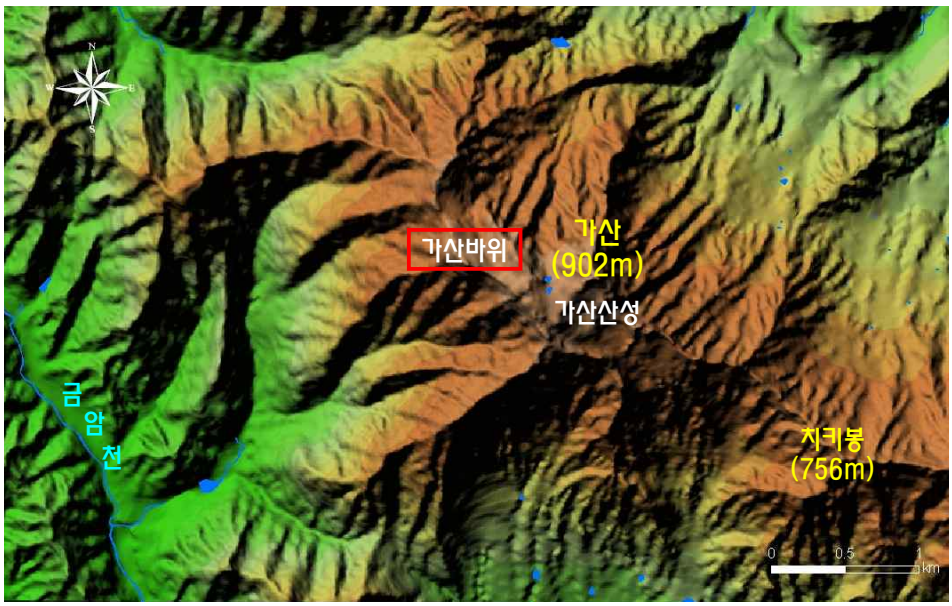


(5) 지형 및 식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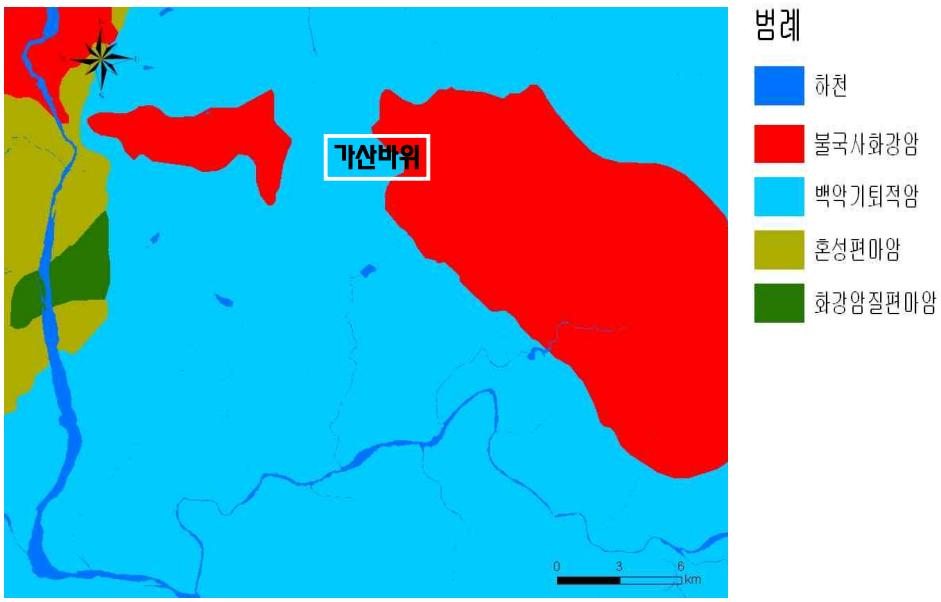
가. 지형 및 지질

대구광역시의 진산(鎭山)이라고 하는 팔공산국립공원 서쪽 끝자락에 가산(902m)이 위치하고 정상일대가 고위평탄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찍이 조선시대에 축조한 산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가산산성 서북쪽 정상부에 우뚝 솟아 있는 편평한 가산바위(가산바우, 가암, 개산암)는 중생대 경상계 동명층에 속하는 퇴적암이다. 팔공산 화강암의 관입으로 접촉변성작용을 받아 그 형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상면에 80평 정도

의 넓은 평지가 조성되어 있다. 가산바위는 성층면을 따라 수평으로 쪼개져 표면이 편평하며, 수직으로 쉽게 갈라져 사방이 절벽을 이룬다. 가산 일대는 전체적으로 북서서-남동동 방향의 산열에 속하고 서쪽으로는 남쪽으로 흘러가는 낙동강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금호강이 만들어 놓은 대구분지가 자리한다. 동서방향에 가까운 산열을 보이고 산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아 가산에서 발원하는 수계는 미약한 편이다.



가산바위 일대의 지형(DEM)



가산바위 일대의 지질

가산바위 일대의 지질은 중생대 경상계의 동명층에 속하는 보라색 셰일로 이루어져 있고 불국사 화강암의 큰 관입으로 변성작용을 받은 양상이다. 서쪽에는 시원생대 영남육괴에 해당하는 편마암이 분포하고 동쪽으로 대다수가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이 분포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불국사화강암이 불연속적으로 관입하여 암상을 이루고 있다. 팔공산국립공원의 중심은 불국사화강암이 주를 이루는 반면 이곳 가산바위 일대는 백악기퇴적암이 밀도 높게 나타나 지질적으로 점이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암질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상부가 퇴적암 성층면을 따라서 완만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자연 경관





A1 - 암괴류



A2 - 성내 연못

가산은 해발고도 902m의 산으로, 지질은 동북부에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한 팔공산 화강암이 분포하며, 서남부에 경상계의 동명층군이 분포한다. 산 정상부분은 완만한 기복을 보이나 북쪽과 서쪽은 절벽을 이룬다. 정상부에는 심층

풍화작용으로 만들어진 화강암 핵석(core stone)들이 흩어져 있으며, 골짜기에는 주빙하성 기후 환경에서 동결·융해 작용에 따라 떨어져 나온 암설이 이동·퇴적되어 형성된 암괴류(block stream)가 분포한다. 자연지형은 아니지만 산성 안에는 공해지를 포함한 인공호수가 여러 개 있다.

다. 식생경관적 특징

가산바위 주변의 대표식생으로는 서어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아교목층에서는 물푸레나무가 우점종으로 돌배나무, 쇠물푸레나무, 호랑버들, 때죽나무 등이 주로 분포하였다. 관목으로는 산수국이 우점종으로 국수나무, 미역줄나무, 생강나무, 찔레, 병꽃나무, 철쭉 등이 주로 출현하였다. 초본층으로는 복수초 대군락지가 분포하였으므로 매우 가치가 높은 지역이었으며, 그 외 습윤한 곳을 선호하는 고마리, 물봉선 등이 대면적으로 분포하였다. 가산바위 상부에서는 암반 틈새식생으로 꼬리말발도리 및 조팝나무를 중심으로 바위손, 기린초, 거북꼬리, 구절초, 둥근잎꿩의비름, 양지꽃 등 건조지에 강한 식물종이 주로 생육하였다.

가산산성 내에는 수변식물군과 함께 고산습지를 연상케 하는 인공연못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연못 수변부에 버드나무, 쇠물푸레나무, 물푸레나무, 층층나무, 당단풍나무, 신갈나무와 같은 목본류가 병풍과 같이 경계부에 생육하고 있었으며 관목층에 산조팝나무, 국수나무, 갯버들, 산수국을 중심으로 분포하였고, 습생초본식물로 괭이사초, 물레나물, 고마리, 여뀌 등이 우점하였다. 수중부에는 부엽식물인 마름, 정수식물인 부들, 꽃창포, 골풀, 달뿌리풀, 세모고랭이, 고랭이, 방울고랭이 등이 우점하였다.



가산바위 암벽 식생경관



성내 연못 주변 식생경관



낙엽활엽수 녹색터널



암괴류와 낙엽활엽수경관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가.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

❍ 문화·역사적 가치: 칠곡 가산바위는 칠곡도호부의 가산산성 정상부에 위치한 넓고 평평한 바위로서 『여지도서』에 가암(架巖) 및 가산(架山)이라 표현되어 있고, 사방이 탁 트여 주변의 멀리까지 조망이 가능한 전략적인 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후기 하시찬, 김홍욱, 허목 등이 옛 시문들에는 가산바위에서 본 가산산성과 그 일대의 풍광을 잘 엿볼 수 있다. 작자 미상의 실경산수화도 한 편 전하는데 가산산성 전체를 그린 이 산수화에서는 가산바위를 특별히 부각시켜 의미 있는 장소로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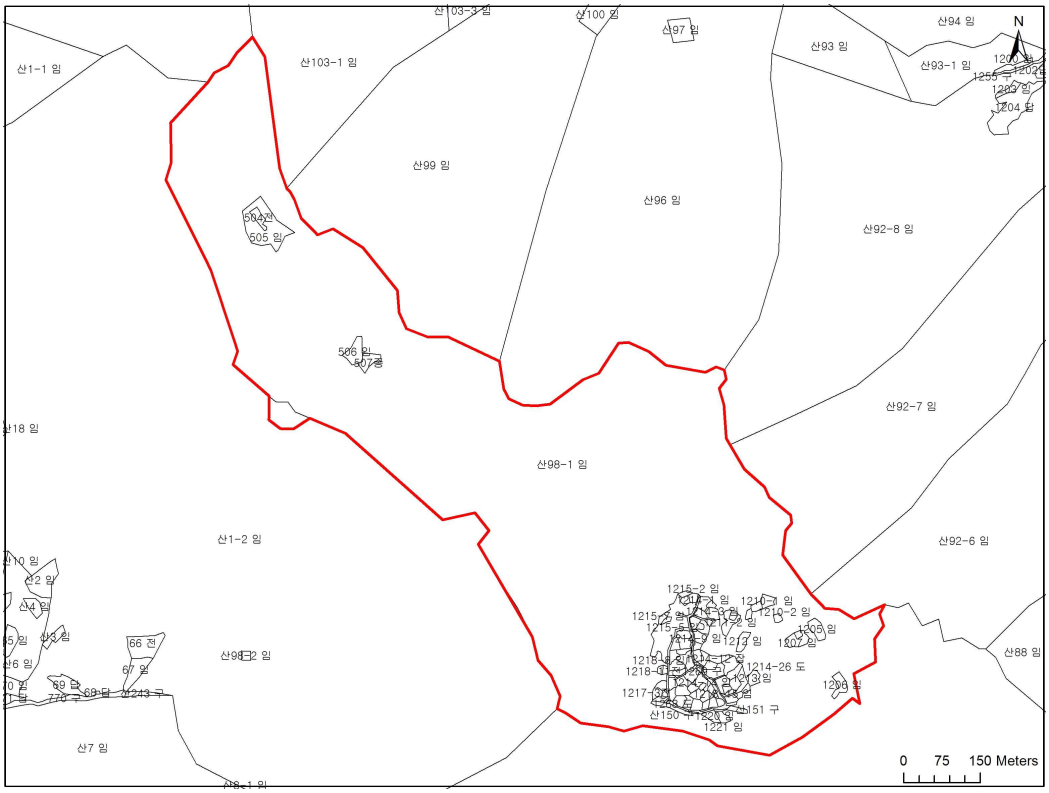
❍ 지형적 가치: 칠곡 가산바위 일대는 해발고도 900m 대에 위치한 평정봉(平頂峰)으로서 주변에 낙동강과 대구 분지를 관찰하기에 좋은 조망점이 된다. 지질적으로는 백악기 퇴적암과 불국사화강암이 혼재하는 곳으로서 두 암질차에 따른 지형요소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산바위는 접촉변성 작용을 받은 셰일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서 반석(盤石)의 형태로 돌출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석축을 쌓아 산성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화강암의 심층풍화로 인해 형성된 핵석(core stone)과 주빙하성 동결·융해 작용에 따라 발달한 암괴류(block stream)가 관찰되어 지형 학습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집중 호우로 무너져 내린 산성에 대한 공사가 진행중이고 지나친 등산객의 남용에 따른 환경 훼손의 우려가 크다.

❍ 식생적 가치: 팔공산도립공원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산림으로 참나무류 및 서어나무가 우점하는 낙엽활엽수림, 소나무-낙엽활엽수혼효림, 소나무단순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암괴류와 같은 지형이 곳곳에 남아 있고, 그 주변에 낙엽활엽수군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습윤한 환경에서 생육이 양호한 고마리 및 여뀌, 사초과 식물들이 지표면을 피복한 현황이었다. 특히, 참좁쌀풀과 꼬리말발도리 등 12종의 희귀종과 18종의 한국 특산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경향신문, 2014) 가산산성 지구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가산산성 동문을 지나, 가산바위 오르는 길에 펼쳐지는 봄의 전령사 노란 복수초군락지, 고산의 인공습지이지만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로서, 다양한 수생식물들의 보고로서 생태적 가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팔공산은 가산산성, 가산바위, 복수초군락지, 고산의 인공습지 등과 같은 생태·환경,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서 팔공산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명승의 지정 범위

명승의 지정 명칭과 범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지정내용
명칭	칠곡(漆谷) 가산(架山)바위
지정종별	명승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가산면 가산리
지번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산1-2번지 외 106필지
면적	652,548.2㎡
관리단체	경상북도 칠곡군청
문화재 지정 여부	지정 권장


N
산1-1 임
산103-1 임
산99 임
산96 임
산97 임
산100 임
산93 임
산94 임
산93-1 임
산92-8 임
산92-7 임
산92-6 임
산98-1 임
산1-2 임
산98-2 임
산88 임
산7 임
산18-1 임
504 전
505 임
506 임
507 전
66 전
67 임
69 답
213 구
1204 답
1209 임
1221 임
0 75 150 Meters


100m 200m

5) 거창(居昌) 사선대(四仙臺) 일원

(1) 지리지

『여지도서』에 사선대(四仙臺)를 송대(松臺)로 기록하고 있다. 그 위치가 월성계곡임을 밝히고, 수직적인 대의 형상과 수평적인 너럭바위의 형상, 월성계곡의 아름다운 경치를 소개하고 있다.

명칭	지리지	세부 항목	내 용
송대	여지도서	안의현	월성대(月星臺)에 있다. 위층은 백 길 높이로 솟아있고, 아래에는 백 명 남짓 앉을 만한 너럭바위가 깔려있다. 그 사이로 굽이굽이 빼어난 경치를 빚으며 물줄기가 흐르는데, 그 냇물 이름을 '송계(松溪)'라고 한다.

(2) 고시문

사선대 일원과 관련된 고시문은 원학동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사선대를 함께 언급한 것이 대부분이다. 원학동과 사선대의 빼어난 경관을 보며 느낀 개인적 감상을 읊은 것이 많다. 대표적인 고시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원학동-시(詩)	남공철(南公轍)	『금릉집(金陵集)』(권1)	<猿鶴洞>
사선대-문(文)	이만부(李萬敷)	『식산집(息山集)』(별집 권3)	<원학동기(猿鶴洞記)>
	송병선(宋秉璿)	『연재집(淵齋集)』(권22)	<안음현산수유기(遊安陰山水記)>

<시(詩)>

1. 남공철(南公轍, 1760~1840) <猿鶴洞>『금릉집(金陵集)』卷1

靑山斷處雲起時。太守風流琴與碁。月明鸛鶴起平林。風靜魚蝦戲淸池。
何必吹笙瑤壇上。强學長生仙術奇。昔有至人去避世。一揖能讓帝王師。
樂國樂國爰得處。百年不斷淸風吹。愧余棲屑五斗祿。朱紱在身將安之。

叔夜縱知七不堪。向平婚嫁苦遲遲。流水之邊多白石。古人一去餘屋基。
何當謝却簪組去。一餐金膏歌紫芝。

* 남공철(南公轍)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원평(元平)이고, 호는 금릉(金陵), 영옹(潁翁), 귀은당(歸恩堂), 사영(思潁), 사영거사(思潁居士), 의양자(宜陽子), 이아도인(爾雅道人), 이아당(爾雅堂), 고동각(古董閣), 서선각(書船閣), 전경재(篆經齋)이다. 김재련(金載璉), 이덕무(李德懋) 등과 교유하였다. 청산이 끝난 곳 구름이 일어나는 곳 거문고 타고 바둑 두며 신선처럼 살아가는 곳으로 원학동을 묘사하고 있다. 임금의 스승자리를 사양하고 들어와 살던 곳으로 백년이 지난 지금까지 맑은 바람 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문(文)>

1. 이만부(李萬敷, 1664~1732), <원학동기(猿鶴洞記)>, 『식산집(息山集)』 별집 卷3

(…전략…) 갈천동은 탁 트여 있지만 숲이 우거진 산기슭이 좁아 별천지를 이루고 있다. 갈천옹(葛川翁)[60]이 제자들과 함께 첨모당(瞻慕堂)에 은거하며 정의(情誼)를 다졌다. 두 개의 정려문이 마을 입구에 있어 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병담정사(屛潭精舍)가 있으니 임씨의 별업이다. 다시 서쪽으로 올라가면 바위가 더욱 하얗고 물은 더욱 거센 기세로 위아래로 몇 리를 흘러가니 한 몸 같다. 이름이 있는 것으로는, 첫 번째가 회암(滙巖)인데, 남쪽으로 작은 골짜기 모리(某里)가 있으니, 동계선생의 구소(鳩巢)가 있던 곳이다. 두 번째는 부연(釜淵), 세 번째는 외순암(外筍巖), 네 번째는 내순암(內筍巖), 다섯 번째는 종연(鐘淵), 여섯 번째는 송암(松巖)이다. 층층이 쌓인 바위가 깨끗하며 맑은 물이 그 사이로 이리저리 흐른다. 물가에는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으며 새들 또한 한가함을 좋아하고 고요함을 흠모하는

60) 갈천옹(葛川翁): 갈천(葛川)은 조선 중기 임훈(林薰:1500~1584)의 호이다. 본관 은진(恩津)으로 자는 중성(仲成)이고, 호는 갈천(葛川)이외에도 고사옹(枯査翁), 자이당(自怡堂)이 있다. 시호는 효간(孝簡)이다.

듯 유람객들을 따라다닌다. 또 산기슭 하나를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월성(月城)이라 일컬었다. 그 틈으로 갈천을 바라보니 겨우 3분의 1밖에 안 보였다. 사람들이 사는 곳도 그러했다. 그 서쪽은 남령(藍嶺)이니 원학동의 끝이다.

(…전략…) 洞府重豁。林麓束隘。爲別一界。葛川翁與弟瞻慕堂。隱居行誼。雙旌在閭首。可式。少北有屛潭精舍。林氏別業也。更西上。石益白。水益蕩激。上下數里。大抵一體。其得名者。第一曰滙巖。南有小谷。曰某里。桐溪鳩巢在焉。第二曰釜淵。第三曰外筍巖。第四曰內筍巖。第五曰鐘淵。第六曰松巖。石層淨潔。淸流交絡。水花爛開。禽鳥亦若樂閒慕靜。與遊人偕來。又上一麓而下。則稱月城。其闢視葛川僅三之一。而人居亦然。其西曰藍嶺。猿鶴洞窮焉。

* 이만부(李萬敷)는 조선 후기 문인으로 자는 중서(仲舒), 호는 식산(息山)이다. 이재(李栽), 이형상(李衡祥) 등과 교유하였다. 이만부는 원학동의 볼만한 경치와 명칭을 하나하나 나열하였다. 회암(滙巖), 부연(釜淵), 외순암(外筍巖), 내순암(內筍巖), 종연(鐘淵), 송암(松巖) 등을 소개하였다.

2.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안음현산수유기(遊安陰山水記)>, 『연재집(淵齋集)』卷22

(…전략…) 월성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동춘당 선생께서 살았던 곳이다. 초당은 우뚝하고 벽에는 숭정황제의 필적인 “非禮不動(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4글자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대나무로 만든 창문이 있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선생께서 손수 만드셨는데 창문을 봉하여 여닫지 않는다고 한다. 선비들이 모여 향음주례를 행하였는데 위엄과 거동이 질서가 있으며 의젓한 것이 마치 선생께서 자리에 계신 듯하였다. 선생께서 병자호란 후에 세상을 피해 이곳에서 은거하시면서 시내 옆에 노송나무를 손수 심으셨다고 한다. 향음주례를 마친 후에 사선대(四仙臺)를 가서 보았다. 푸른 바위가 층층이 겹쳐 사선대가 되었으며 흐르는 물 가까이에 깎은 듯이 서 있었고, 꼭대기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송대(松臺)라고도 불렸다. 그윽하여 은둔하는 선비의 상(像)이 깃들어 있었다. (…후략…)

(…전략…) 抵月城。此同春先生遺居之地。而草堂巋然。壁揭崇禎皇筆非禮不動四字。下有竹牕。傳言先生手構而封不開閉矣。會士設鄕飮酒禮。威儀秩秩。儼若先生在座矣。蓋先生丙子亂後。遯世來寓。而溪傍老檜。亦先生手植云。行禮畢。往觀四仙臺。蒼巖層疊作臺。壓流削立。頭戴古松。又稱松臺。悠然有幽人逸士之像。 (…후략…)

* 송병선(宋秉璿)은 구한말의 항일운동가로 자는 화옥(華玉), 호는 연재(淵齋), 동방일사(東方一士)이다.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이 병자호란을 피해 머물렀던 곳에서 손수 심었던 노송나무[檜]를 보았다. 또한 깎아지른 듯 솟은 푸른 바위 위로 오래된 소나무가 있어 송대(松臺)라고도 불리는 사선대(四仙臺)를 구경하였다.

(3) 실경산수화



〈송대 - 영남기행첩〉, 김윤겸

김윤겸(金允謙, 1711~1775), <송대(松臺)>, 《영남기행첩(嶺南紀行帖)》, 18세기, 지본담채(紙本淡彩), 30.7×38.0cm, 동아대학교박물관

<송대>는 18세기의 문인화가 진재(眞宰) 김윤겸(金允謙, 1711~1775)의 《영남기행첩》[61]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에 자리한 남덕유산 월성계곡의 기암(奇巖)과 곡류가 빚어내는 풍광을 담았다.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은거지여서 '송기(松基)' 혹은 '송대(松臺)'라 불렸다고 한다. 대의 맨 아래쪽 바위 표면에 송대의 다른 이름인 '사선대(四仙臺)' 세 글자와 경상감사를 지낸 김양순(金陽淳, 1776~1840)의 성명이 새겨져 있다.

김윤겸은 바위 덩어리를 층층이 포개놓은 듯한 특이한 형상의 송대를 화면 우측에 포치하였다. 좌측 언덕 위에 화제(畵題)가 묵서되어 있으나 특별히 송대를 클로즈업하지 않고 계곡 일대의 넓은 구역을 포괄하였다. 실제 경관과 비교해보면, 계곡의 상류 쪽에 위치하는 야산의 규모가 과장되긴 했으나 지형지세의 기본 틀이 엇비슷하고, 계곡의 물길과 좌우에 널려 있는 커다란 반석들의 배치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특히 송대의 모양은 김윤겸이 현장에서 대략적인 형상을 사생한 초본을 바탕으로 완성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제 경물의 모양을 상세히 묘사하기보다는 김윤겸의 특유의 간솔한 필묵법으로 처리하였다. 산과 언덕, 바위의 윤곽을 먹 선 위주로 묘사하고, 맑은 담청을 더해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계류와 조화시켰다. 산 능선뿐 아니라 딱딱한 바위 모서리까지도 부드러운 곡선으로 마무리한 점이나 비탈에 늘어선 소나무 묘법 등에 개성적인 화풍이 배어 있다. 계곡의 암반 위에 경치를 감상하는 한 무리의 유람객을 그려 넣어 이름난 명승지의 분위기를 살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61)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영남기행첩(嶺南紀行帖)》은 18세기에 활동한 문인화가 진재(眞宰) 김윤겸(金允謙, 1711~1775)이 그린 실경산수화 14폭으로 구성된 화첩이다. 각 폭에 부산·합천·거창·함양·산청 등지에 자리한 명승지의 경관을 담았고, 김윤겸이 1770년에 진주에서 가까운 소촌찰방(召村察訪)으로 부임한 이후 말년에 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



〈안음 송대〉, 김희성

김희성(金喜誠), <안음 송대(安陰 松臺)>, 지본담채(紙本淡彩), 31.2×27.4cm, 동경국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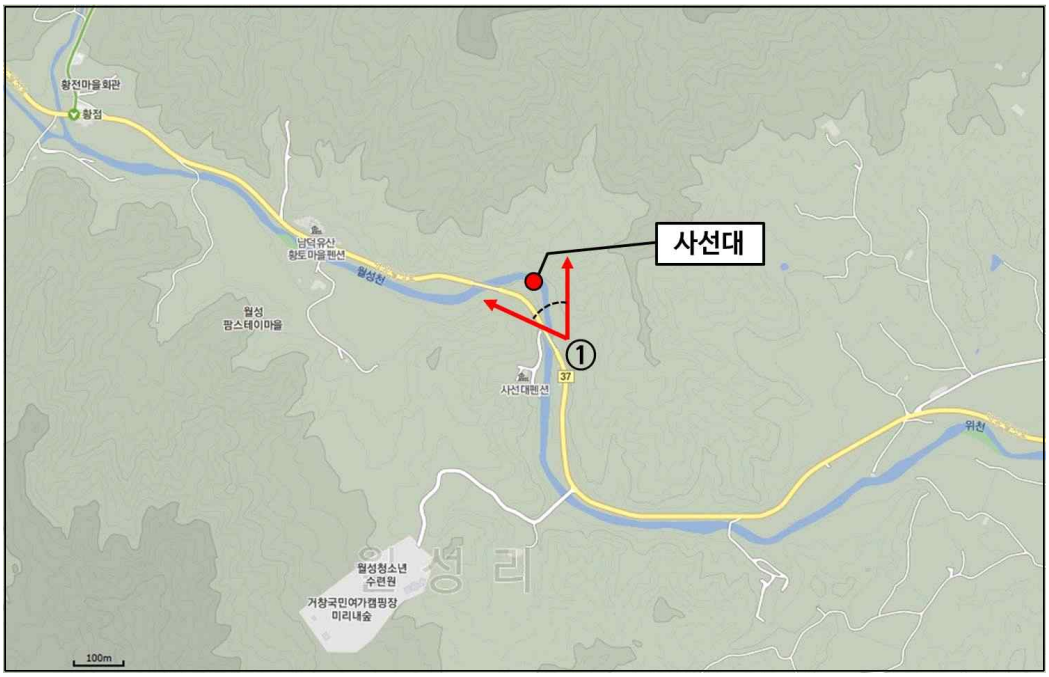
<안음 송대(安陰 松臺)>는 조선 후기에 화원(畵員)으로 활동한 불염재(不染齋) 김희성(金喜誠, 1710년대~1763년 이후)이 그린 실경산수화이다. 경남 거창 남덕유산 자락 월성계곡에 흩어져 있는 기암과 송대, 그리고 넓은 반석 사이로 흐르는 계류가 빚어내는 경관을 재현한 작품이다. 송대는 옛날 맨 꼭대기 평평한 바위에서 신선들이 바둑을 두었다는 전설에 따라 '사선대'라고 불리기도 했다. 특히 모양이 서로 다른 바위를 네 겹으로 포개놓은 듯한 형상을 지닌 송대는 내외 방문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김희성은 화면에 가득 찬 듯한 인상을 줄 만큼 송대에 비중을 두어 포치하였고, 바위의 특징을 살리려 애쓴 흔적이 보인다. 송대의 형상뿐 아니라 계류의 흐름, 좌우에 널린 너럭바위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현장 모습에 부합한다. 다만 송대 아래 넓은 소로 흘러드는 상류의 물길과 가로막힌 야산의 위치가 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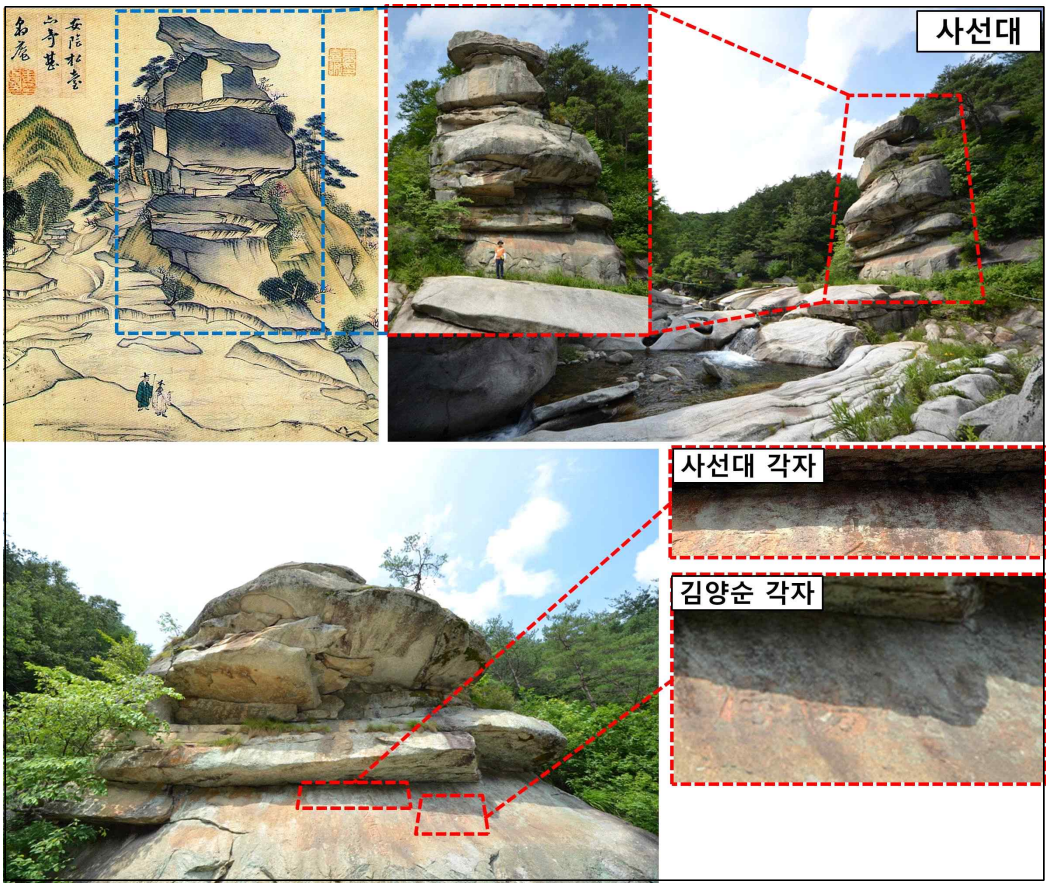
어색하다. 그는 단순한 먹 선으로 송대와 계곡을 형성하는 바위들의 뾰족한 모서리와 윤곽을 강조해 묘사하였고, 표면의 질감을 살리는 준법(皴法) 사용은 자제하였다. 대신 핵심 경물인 송대의 바위는 윤곽선 안에 먹 선염을 더해 육중한 무게감이 살렸다. 커다란 반석 위에 서 있는 두 선비는 송대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동시에 명승 유람의 흥취를 돋운다. 상부 좌측 여백에 김희겸과 친분이 있었던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화평이 있는데, “안음송대 또한 매우 기이하다(安陰松臺亦奇甚)”라 쓴 것이다.

(4) 현재적 재구성

18세기의 문인화가 진재 김윤겸(金允謙, 1711~1775)의 《영남기행첩》에 실려 있는 <송대>에는 월성계곡과 사선대가 그려져 있다.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은거지여서 ‘송기(松基)’ 혹은 ‘송대(松臺)’라 불렸다고 한다. 대의 맨 아래쪽 바위 표면에 음각된 ‘사선대(四仙臺)’ 세 글자는 송대의 다른 이름이라는 설과 네 덩어리의 바위 위에서 신선들이 바둑을 둔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사선대’ 각자 오른쪽 아래에는 경상감사를 지낸 김양순(金陽淳, 1776~1840)의 성명이 음각되어 있다. 해당 경관을 지도와 함께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송대>에 그려진 사선대의 실제 경관과 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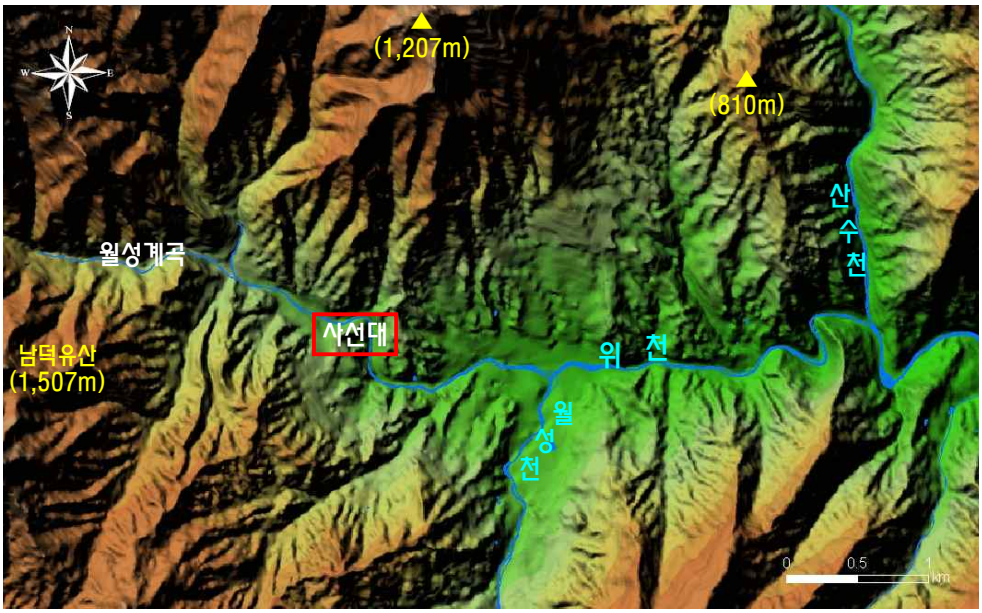
(5) 지형 및 식생 분석

가. 지형 및 지질

남덕유산(1,507m)과 삿갓봉(1,410m)에서 발원한 위천은 상류부에서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며, 굽이쳐 흐르는 공격사면에 사선대가 자리 잡고 있다. 월성계곡은 거대한 암반들이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그 사이를 위천이 흘러가는 형태이며 사선대와 어우러진 계곡의 거대한 암석들은 멋진 경관을 보여준다. 월성은 흔히 '하늘마을'로 통한다. 덕유산, 지리산, 가야산 등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거창에서도 지대가 높고 산세가 아름답기 때문이다. 계곡의 폭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주변 산세가 워낙 거대해 수량이 풍부하다. 해발고도 1,000대의 산줄기가 북동-남서 방향을 달리고 있고 그 사이를 동서방향으로 관통하면서 위천이 협곡의 형태로 흘러가면서 사선대, 수승대 등의 절경의 암석하도 경관을 만들어 냈다. 그 중에 백미가 월성계곡인데 수려한 경치는 기본이고 계

곡을 따라 사선대, 장군바위, 분설담, 모리재, 갈계마을 등 곳곳에 명소와 전설, 역사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

3차원 입체기복도를 보면,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산줄기를 자르면서 동서방향으로 발달한 단열을 따라 위천이 흘러가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위천은 월성계곡~사선대 구간의 협곡을 빠져 나와 월성천과 합류하고 이후 산수천과 합류하면서 동쪽으로 계속 곡류하며 빠져 나간다. 부분적으로 하천이 합류하는 구간은 소규모의 분지를 만들어 놓았고 그 곳은 취락이 비교적 밀도 높게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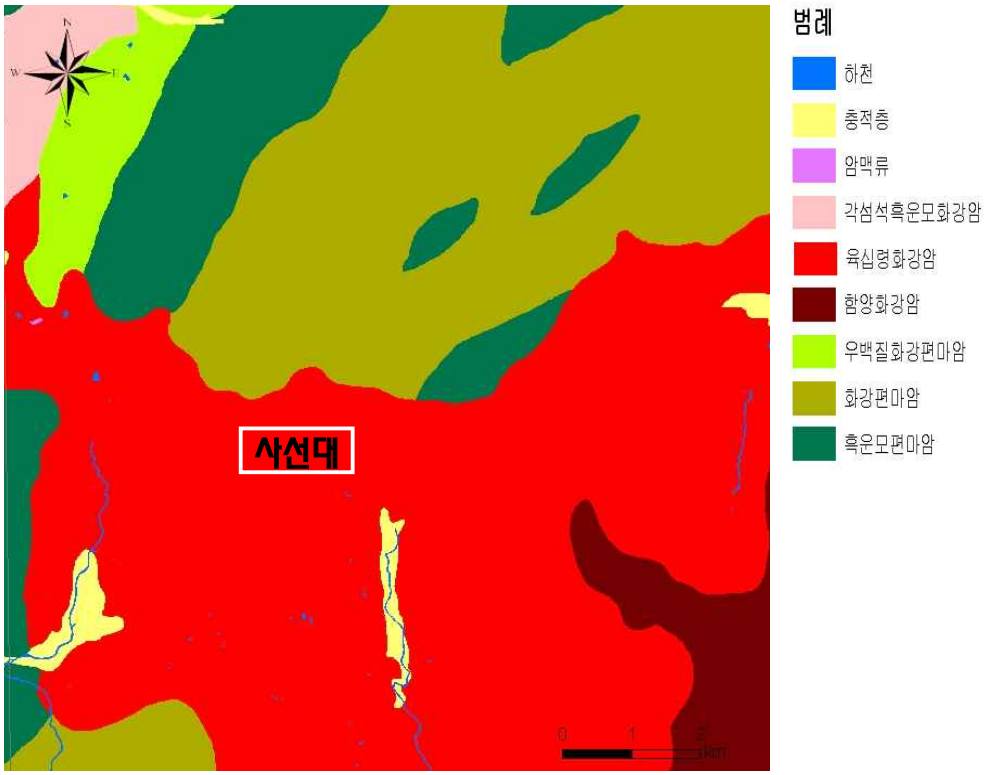
사선대 일대의 지형(DEM)

전라북도 장수군과 경상남도 거창군의 경계를 따라 백두대간에 해당하는 덕유산이 있고, 그 덕유산의 남동쪽에 월성계곡, 사선대가 위치한다. 덕유산은 전체적으로 편마암 계통의 기반암이 주를 이루는 데 사선대 일대는 중생대 쥐라기 대보조산운동 때 관입한 화강암이 밀도 높게 분포함으로써 다양한 하천 침식경관을 만들어 냈다.

화강암은 단일 암석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이들 화강암은 대부분 중생대에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암석으로, 크게 쥐라기 말에 관입한 대보화강암과 뒤를 이어 백악기에 관입한 불국사화강암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대보화강암은 남한에서는 옥천대를 따라 띠 모양으로 분포하나 북한에서는 불규칙하게 분포한다. 이들 대보화강암은 화강섬록암을 비롯하여 흑

운모 화강암, 석영섬록암, 반상화강섬록암 등으로 구성된다. 불국사화강암은 경상분지, 월악산, 속리산, 월출산 등지에 분포한다(권동희, 2006).

화강암의 풍화로 나타나는 지형발달 양상은 심층 풍화된 분지와 암석 산지 혹은 암괴의 봉우리로 양분되는 특색을 보인다. 화강암의 풍화가 기반암에 발달한 절리 밀도와 밀접한 관련 있어, 절리밀도가 높은 곳에서 풍화가 잘 진전되고, 절리밀도가 낮거나 절리 간격이 넓은 곳에서는 암괴 산지로 잔존한다(양재혁, 2007). 분지의 규모가 작고 풍화 형성 초기의 화강암 지대를 관통하는 위천의 경우, 주로 풍화·침식 물질에 모래의 비중이 높고 박리 현상으로 인한 수평절리의 발달이 두드러진다.



사선대 일대의 지질

나. 자연 경관

사선대는 일종의 토르(tor)형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62].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

62) 협의의 토르는 기반암에서 완전히 분리된 핵석(core stone)을 의미한다. 사선대의 경우 과거 지중풍화(underground weathering)를 받아 토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토르와 유사한 지형이라 할 수 있다.

면 돌탑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독특한 지형은 차별적인 풍화작용의 산물이다.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굳어져 만들어지는 화강암이 지각의 벌어진 틈(절리)을 따라 관입하는 데 절리밀도 차에 따라서 차별풍화가 진행된다. 수평 및 수직 절리를 따라서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마치 고인돌과 같은 독특한 풍화지형이 형성된다.



사선대와 월성계곡

다. 식생경관적 특징

대암이 4층으로 켭켭이 쌓여져 있는 사선대의 대표식생은 소나무경관으로 주변은 소면적의 일본잎갈나무식재림과 굴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등과 같은 참나무류 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나무경관은 사선대의 암석 틈새에 뿌리를 내리고 생육하고 있어 수고는 낮으나, 그 자태에서 경이로움을 연출하며 부분적으로 쇠물푸레나무, 산철쭉, 조팝나무 등이 하부에 소수 분포한다.

참나무류 식생은 굴참나무 및 상수리나무, 졸참나무를 주요 종으로 아교목층에 당단풍나무, 노각나무, 산벚나무, 팥배나무, 개옻나무 등이 출현하였으며 관목층에 국수나무 및 조록싸리, 산철쭉, 철쭉, 참싸리, 멍석딸기가 우점하였다.

계곡부를 따라 느릅나무 및 신나무가 우점종으로 물푸레나무, 산뽕나무, 조팝나무, 병꽃나무, 고추나무 등이 주로 생육하였다.

계곡부 암반 사이사이 틈새에서 볼 수 있는 관목층은 쇠물푸레나무 및 철쭉,

조팝나무를 중심으로 원추리, 물봉선, 노루오줌, 달뿌리풀, 물억새, 구절초, 골풀, 까치수영과 같이 계곡 및 암반식생 경관의 대표적인 초본종들이 출현하였다.



사선대 전경과 소나무경관



사선대 주변 일본잎갈나무식재림과 참나무류경관



사선대 건너편 참나무류경관



암반 틈새 원추리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가.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

❍ 문화·역사적 가치: 거창 사선대 일원은 『여지도서』에 송대(宋臺)로 기록하고 있고 사선대 아래를 흐르는 계곡에 대해서는 송계(宋溪)라 칭하였다. 송병선, 송명흠 등 충청도 회덕에 근거지를 두던 은진 송씨 출신 사림들의 옛 시문들이 많고 이만부, 이만운, 홍직필 등 여타 사람들의 시문들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시문에는 사선대의 웅장함과 계곡의 수려함을 노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선대 일대의 암반에는 많은 각자가 남아 있으며, 김윤겸(1711~1775)과 김희성(1700년대 초중반)이 그린 실경산수화도 전한다.

❍ 지형적 가치: 사선대는 지형학적으로 화강암 풍화 지형으로 대표되는 토르(tor)형 지형이고 주변 월성계곡은 화강암 암반을 하천이 개석하면서 흘러나가고 잇는 암석하도이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토르는 설악산, 월출산처럼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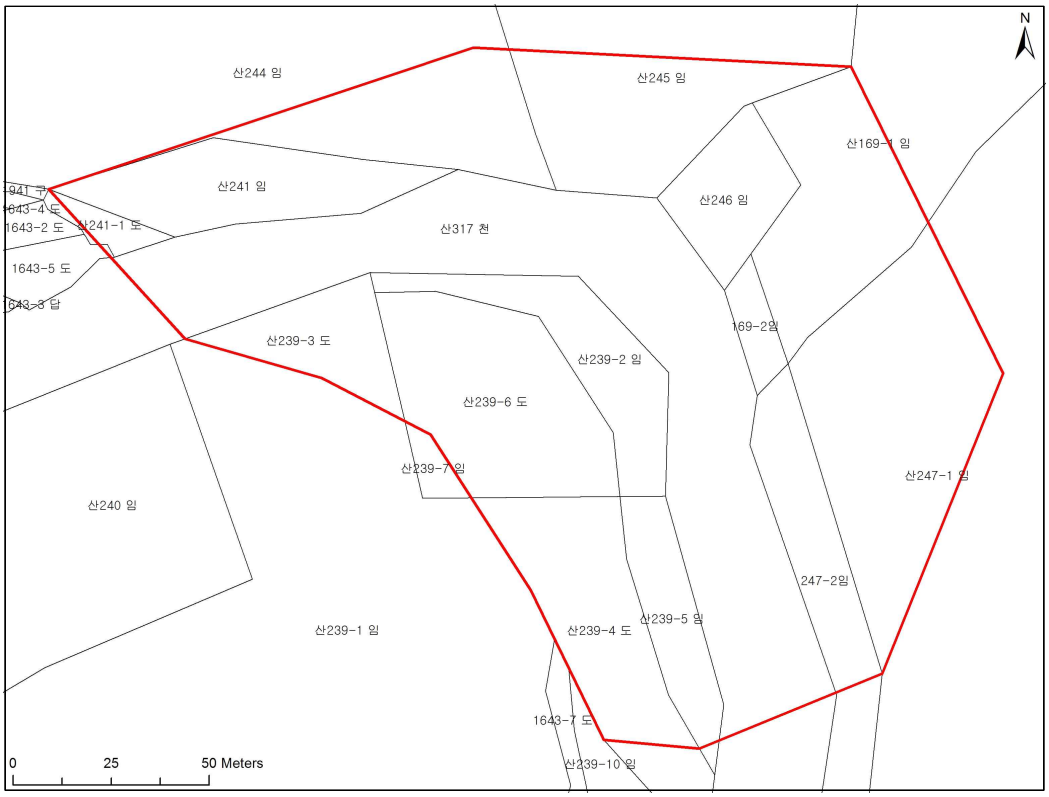
강암 산지의 정상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곳 사선대는 계류 변에 위치하고 있어 독특하다. 또한 토산인 덕유산 편마암 산지에서 위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량을 보내고 있어 좁고 긴 화강암 개석곡을 따라 풍화·침식 지형이 만들어 졌다. 곡폭은 좁지만 토르(tor)형 지형, 돌개구멍(pothole)과 판상절리의 발달로 인해 하상 곳곳에 형성된 너럭바위(broad flat boulder)가 주변의 송림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사선대 일대가 사유지로 묶여 있고 상업 및 관광 행위로 훼손의 우려가 높다.

❍ 식생적 가치: 수직상의 판상절리로 이루어져 형성된 지형경관은 주변 소나무 및 참나무류 식생경관을 배경삼아 그 위상이 두드러진다. 절리된 암반 틈새에서 생육하고 있는 푸르른 소나무 풍광은 장엄함을 부여하고, 하부식생으로 우점하는 산벚나무 및 철쭉은 아름다운 봄꽃으로 만발하고, 가을 단풍빛은 사선대의 거대한 바위들과 조화를 이룬다. 계곡 바닥부의 편평하고 부드러운 암반경관은 입체적인 사선대 형상과 대비를 이루면서 틈새를 따라 띠를 이룬 달뿌리풀 및 원추리, 참나리 등의 초본식생은 수평적인 식생경관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나. 명승의 지정 범위

명승의 지정 명칭과 범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지정내용
명칭	거창(居昌) 사선대(四仙臺) 일원
지정종별	명승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지번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317번지 외 15필지
면적	25,276.2㎡
관리단체	경상남도 거창군청
문화재 지정 여부	지정 권장


N
산244 임
산245 임
산169-1 임
산241 임
산246 임
산317 천
1643-2 도
산241-1 도
1643-5 도
산239-3 도
169-2임
산239-2 임
산239-6 도
산239-7 임
산247-1 임
산240 임
247-2임
산239-1 임
산239-4 도
산239-5 임
1643-7 도
산239-10 임
0
25
50 Meters


25m
50m

6) 함양(咸陽) 농월정(弄月亭) 일원

(1) 지리지

『여지도서』에 월연암(月淵巖), 화림동(花林洞)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월연암에 대해서는 읍치 인근의 점풍대(點風臺)를 기준으로 한 위치와 달과 같은 형상, 옛 이름 등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화림동에 대해서는 각자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명칭	지리지	세부 항목	내 용
월연암	여지도서	안의현	점풍대 서쪽 10리에 있다. 우뚝 솟은 봉우리에 하늘이 빚은 듯한 절벽의 모습이 마치 둥근 달처럼 생겨서 그 바위를 '월암(月巖)', 그 연못을 '월연(月淵)'이라고 이름 하였다.
화림동	여지도서	안의현	골짜기 어귀에 '화림동'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2) 고시문

농월정을 주제로 한 고시문은 주로 농월정과 농월정에서 바라보는 달빛이 비친 시내 및 바위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그 중 허전(許傳)의 시는 농월정을 세운 지족당 박명부에 대해 언급하며 벼슬살이를 뜬 구름과 같다고 읊고 있다. 각 작품별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농월정 및 월연 -시(詩)	허전(許傳)	『성재집(性齋集)』 (권1)	〈박지족당의 '농월정'시에 차운하여(次朴知足堂 弄月亭韻)〉
	조긍섭(曺兢燮)	『암서집(巖棲集)』 (권6)	〈농월정의 원운(原韻)을 써서(弄月亭用原韻)〉
	임훈(林薰)	『갈천집(葛川集)』 (권1)	〈화림동 월연암에서 남명(南冥)의 시에 차운하여 읊다.(花林洞月淵岩。次南冥韻。)〉
	최익현(崔益鉉)	『면암집(勉菴集)』 (권2)	〈농월정에서 잠시 쉬며(弄月亭。暫憩。)〉
	곽종석(郭鍾錫)	『면우집(俛宇集)』 (권2)	〈농월정 현판의 시에 차운하여(次弄月亭板上韻)〉
	윤순거(尹舜擧)	『동토집(童土集)』 (권2)	〈月淵〉
	박장원(朴長遠)	『구당집(久堂集)』 (권2)	〈遊月淵巖示同行〉
	송명흠(宋明欽)	『역천집(櫟泉集)』 (권3)	〈月淵巖。次贈全斯文。〉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농월정 및 월연 -문(文)	송병선(宋秉璿)	『연재집(淵齋集)』 (권22)	〈안음현 산수유람기(遊安陰山水記)〉
	곽종석(郭鍾錫)	『면우집(俛宇集)』 (권147)	〈嘉義大夫, 行禮曹參判, 同知禁義府事, 五衛都摠府副摠管。贈資憲大夫, 吏曹判書, 兼知經筵, 義禁府, 春秋舘事, 世子左賓客, 知足堂先生朴公神道碑。〉
		『면우집(俛宇集)』 (권152)	〈無號齋朴公墓表〉
	송철헌(宋哲憲)	『연재집(淵齋集)』 (권51)	〈年譜〉
화림동 -시(詩)	강익(姜翼)	『개암집(介庵集)』 (집上)	〈화림동에 노닐며(遊花林洞)〉
	조태억(趙泰億)	『겸재집(謙齋集)』 (권3)	〈花林洞〉
	심육(沈錥)	『저촌유고(樗村遺稿)』 (권10)	〈出花林洞〉
	조수삼(趙秀三)	『추재집(秋齋集)』 (권4)	〈花林洞〉
	정창주(鄭昌胄)	『만주집(晩洲集)』 (권1)	〈花林洞〉
	이현익(李顯益)	『정암집(正菴集)』 (권1)	〈花林洞〉
화림동 -문(文)	이만부(李萬敷)	『식산집(息山集)』 (권3)	〈화림동기(花林洞記)〉
		『식산집(息山集)』 (권3)	〈花林洞〉

<시(詩)>

1. 허전(許傳, 1797~1886), <박지족당의 '농월정'시에 차운하여(次朴知足堂 弄月亭韻)>, 『성재집(性齋集)』 卷1

고향으로 물러나와 은거지를 정하는데 / 勇退故山卜築幽
높은 풍모 빼어난 시는 백년토록 남았구나. / 高風逸韻百年留
누대에 달 떠올라 마음속을 비추니 / 樓臺得月懷中照
벼슬살이 구름처럼 꿈밖에 떠 있네. / 軒冕如雲夢外浮
방장산 봉래산이 평지에 펼쳐지고 / 方丈蓬萊平地上
각건(角巾)에 부들 삿갓 쓴 귀인 머리 보이니 / 角巾蒻笠貴人頭

이 속에 참된 즐거움 있음 누가 알리오. / 此間眞樂誰能識
정자 아래 유유히 물결 절로 흐르는구나. / 亭下悠悠水自流

* 조선 후기의 문신인 허전(許傳)의 시로, 지족당 박명부(朴明傅, 1571~1639)가 농월정을 축조하고 지은 시에 차운하여 읊었다. 박명부가 고향으로 퇴직하여 은거지를 짓고 풍격 높게 지낸지 백년이 흐른 유서 깊은 누대에 당도하고 보니 농월정의 달빛이 마음속을 비추는 듯하고 벼슬살이라는 것은 뜬구름만 같다고 읊었다. 지리산과 금강산이 펼쳐진 듯하다고 하였으며, 정자 아래 유유히 흐르는 물결을 보며 이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이 있음을 누가 알 것인가 하고 찬탄하였다.

2. 조긍섭(曺兢燮, 1873~1933), <농월정의 원운(原韻)을 써서(弄月亭用原韻)>, 『암서집(巖棲集)』卷6

현포(玄圃)와 요지(瑤池) 멀고도 그윽한데 / 玄圃瑤池迥且幽
큰 신령님 옮겨와 이 속에 머무네. / 巨靈移向此間留
큰 물결 부서지니 매끄러운 흰 비단이요 / 洪濤碾過氷紈滑
어지러운 폭포 휘감아 도니 눈빛 우유 떠 있는 듯. / 亂瀑瀠回雪乳浮
미친 듯 울리는 소리에 일제히 박수 터져 나오고 / 狂叫可堪同拍手
고심해 시 읊노라 거듭 머리 긁적이네. / 苦吟時復爲搔頭
이제야 알겠네, 달을 희롱하며 퉁소를 부는 것이 / 也知弄月吹簫侶
단연 이해 최고 풍류임을. / 合是當年第一流

* 구한말의 학자인 조긍섭(曺兢燮)이 농월정 원시에 차운하여 읊은 시이다. 중국 곤륜산의 현포(玄圃)와 요지(瑤池)가 내달려 그 신령스런 기운이 농월정에 이르러 머문 것 같다는 말로써 농월정의 빼어난 운치를 표현하였다. 달을 희롱하며 이에 곁들여 퉁소를 부는 맛이야 말로 이곳에서 즐기는 최고의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3. 임훈(林薰, 1500~1584), <화림동 월연암에서 남명(南冥)의 시에 차운하여 읊다.(花林洞月淵岩。次南冥韻。)>,『갈천집(葛川集)』卷1

물 흘러 천 굽이를 돌아가는 곳 / 流水回千曲
형체 잊고 앉아 기심(機心)을 끊었건만 / 忘形坐息機
참된 근본 다 궁구하지 못하여 / 眞源窮未了
해 저물녘 슬픈 맘으로 돌아가누나. / 日暮悵然歸

* 조선 중기의 문신인 임훈(林薰)이 화림동 월연암에서 남명 조식의 시에 차운하여 읊은 시이다. 월연암 아래 굽이쳐 흘러가는 물을 보며 형체도 잊고 기심(機心)[63]도 버리고 근본을 궁구하는 수양의 태도와 참된 근원을 다 궁구하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냈다.

<문(文)>

1.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안음현 산수유람기(遊安陰山水記)>,『연재집(淵齋集)』卷22

(…전략…) 기해년(1899) 봄에 원근의 사우들과 무계산정(武溪山亭)에 모여 '한천유편(寒泉遺編)'[64]을 강학하니 무이(武夷) 고사[65]가 떠올라 뜻을 같이하는 예닐곱 사람들과 함께 채비하여 지팡이 나란히 짚고 나서니 시들었던 흥이 절로 활발히 일어났다. 금령(琴嶺)을 넘어 장수(長水) 경계를 지나가 정씨의 용연정(龍淵亭)에 오르니 푸른 못과 늙은 소나무 때문에 그윽한 운치가 있었다. 육십령(六十嶺)을 넘으니 안음(安陰) 땅이다. 이구평(尼丘坪)을 지나 송계(松溪)에 이르러 경현(景賢) 전희대(全希大)의 서실에서 묵었다. (…중략…)

---

63) 기심(機心): 자기의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묘하게 도모하는 마음.
64) 한천유편(寒泉遺編): 주희가 어머니의 묘소 가까이에 정사(精舍)를 세우고 그 이름을 한천정사(寒泉精舍)라 하였는데, 46세 때 이곳에서 여조겸(呂祖謙)과 함께 40일간 기거하며 《근사록(近思錄)》을 편찬하였다. 그래서 《근사록》을 《한천록》이라고도 한다.
65) 무이(武夷) 고사: 주희(朱熹)가 54세에 무이산(武夷山)의 정자에서 강학하면서 무이산의 아홉 굽이의 경치를 읊은 〈무이구곡가〉를 남겼다.

(…전략…) 歲己亥暮春。遠近士友。會武溪山亭。講寒泉遺編。仍起武夷想。與六七同志。俶裝聯笻。衰興自勃勃也。踰琴嶺。過長水界。登鄭氏龍淵亭。碧潭老松。不無幽趣。越六十嶺。安陰地也。歷尼丘坪。抵松溪。宿于全景賢希大書室。(…중략…)

박씨의 농월정(弄月亭)에 오르니 넓은 너럭바위가 있었고 물이 매우 맑게 흘렀다. 바위에 '화림동(花林洞)'이라 새겨져 있었고, 둘러 앉아 술잔을 나누었다. 한낮에 고을에 들어가 광풍루(光風樓)에 올랐는데, 누각이 개울가를 내려다보고 있어 가슴속이 시원했다. 예전에 일두 정여창 선생이 안음현에 부임할 때 창건한 것이었다. 편액에 문정공의 기문이 걸려 있고, 그 옆에 제월당(霽月堂)이 있었다. 서북쪽으로 가다가 심진동(尋眞洞)으로 돌아 들어가니 길옆에 심원정(尋源亭)이 있었는데, 그윽하고 깊어 좋았다. 계곡을 따라 3리쯤 가니 흰 자갈에 비취빛 벼랑이 있었는데 종종 기이한 모습을 드러냈다. 바위 꼭대기에 노송(老松)이 구불구불 괴이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반송정(盤松亭)이라 불렀다. 또 4~5리 앞에는 장수사(長水寺)가 있었다. (…후략…)

登朴氏弄月亭。廣石盤陀。水甚淸豁。面刻花林洞。意甚樂之。環坐爲流觴之飮。日午入邑。走登光風樓。樓臨川上。襟懷爽豁。昔一蠹宰安陰創建。而楣揭文正公記文。傍有霽月堂。西北行轉入尋眞洞。路傍有尋源亭。幽邃可喜。循溪行三數里。白礫翠崖。往往呈奇。巖巓有老松。蟠屈形怪。人稱盤松亭。又前四五里。爲長水寺。 (…후략…)

* 조선 말기의 문인이자 순국지사인 송병선(宋秉璿)이 기해년(1899년) 봄에 안음현의 여러 누정을 여행하고 기록한 것이다. 원근의 사우들과 무계산정(武溪山亭)에서 『한천유편(寒泉遺編)』을 강학하고 금령고개를 넘어 장수로 들어가 용연정과 벽담 등을 유람하고 함양에서부터 여행한 순서대로 누대와 정자의 주변경관과 선유들의 유적을 기록한 것이다. 농월정(弄月亭)에 이르니 너른 반석이 나타나고 물이 매우 깊은데 화림동(花林洞)이라는 석각이 새겨져 있어 마음이 더욱 즐겁다고 기록하고 있다.

2. 이만부(李萬敷, 1664~1732), <화림동기(花林洞記)>,『식산집(息山集)』卷3

월성(月城)에서 남령(藍嶺) 넘어 북쪽으로 영각사(靈覺寺)로 들어갔다. 그 산은 여악(廬嶽)이라 하는데, 덕유산(德裕山) 남쪽으로 뻗은 곳이자 두류산(頭流山)의 또 다른 줄기이다. 절은 그 겨드랑이 위치에 있어 화림동의 입구가 된다. 서쪽의 육십치(六十峙)는 신라·백제의 옛 경계이다. 동쪽으로 이십 리를 내려가면 남쪽으로 영취산(靈鷲山)이 있는데, 상서로운 구름이 서려 있고 극락전에 삼불(三佛)이 모셔져 있다. 또 동쪽으로 십 리를 가니 군자암(君子巖)이 있는데 물과 바위가 퍽 아름다웠고 양쪽으로 소나무가 이어지며 에워싸니 짙은 푸른빛으로 울창하였다. 일두재(一蠹齋) 정 선생(鄭汝昌)이 그 위에서 노닐었기에 그렇게 이름 지었다고 했다. 그 아래로 용유담(龍游潭), 차일암(遮日巖), 월연암(月淵巖)이 있다. 월연(月淵)의 너럭바위가 가장 평평한데, 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합쳐지고 한 굽이 돌 때마다 흰 물방울 뿜어내니 목욕하기에 좋고 시 읊기에 좋다. 때마침 장맛비 막 그쳐 만물을 윤택하게 적시며 물이 감돌아 흐르니 아무리 가져도 다함이 없구나. 아래로 현치(縣治; 현의 관아가 있는 곳)에 몇 리 못 미치는 곳에서 화림동이 끝난다.

自月城踰藍嶺。北入靈覺寺。厥山曰廬嶽。德裕南騖。頭流別幹。而寺在其腋。爲花林初頭。其西六十峙。新羅，百濟之舊界也。東下二十里。南有靈鷲山。有上下瑞雲，極樂三佛舍。又東行十里。有君子巖。水石頗佳。兩松連抱。深翠鬱鬱。一蠹齋鄭先生游其上。命之名云。其下龍游潭，遮日巖，月淵巖。或間數步。或下百餘步。月淵盤石最平。水數道分合。灣洄沸白。宜於浴。宜於詠。時宿雨初收。潤澤萬類。紆餘敷暢。取之無窮焉。下及縣治不數里而花林洞盡矣

* 조선 후기의 학자 이만부(李萬敷)가 지은 화림동 유람기이다. 월성에서 출발하여 남령(藍嶺), 영각사(靈覺寺), 군자암(君子巖), 용유담(龍游潭), 차일암(遮日巖), 월연암(月淵巖), 현치(縣治; 현의 관아가 있는 곳)에 이르는 여정으로 화림동을 유람하였다. 대체로 여정 위주로 소략하게 서술하였는데, 정여창 선생이 노닐었다는 군자암과 장맛비 그친 월연암의 물 흐르는 모습을 특히 아름답게 여겨 자세히 묘사하였다.

(3) 실경산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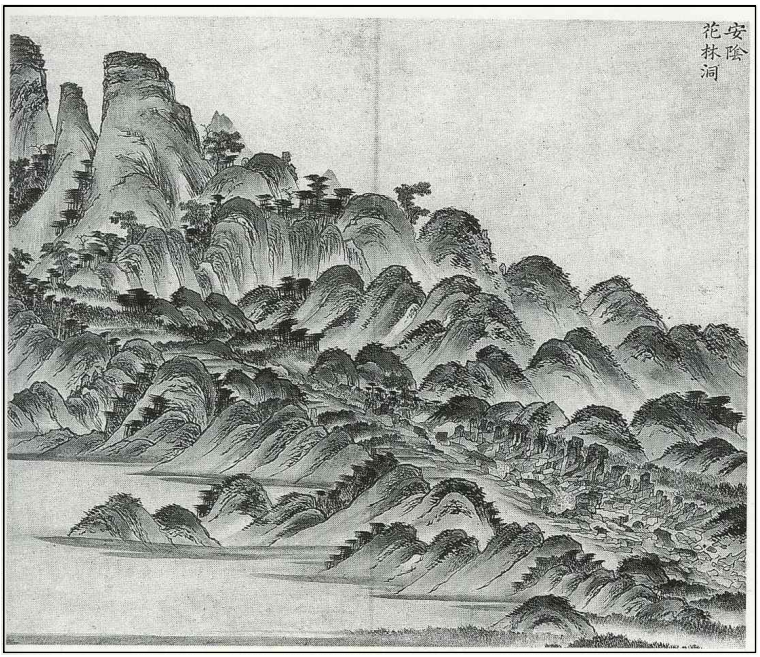
〈월연 - 영남기행첩〉, 김윤겸

김윤겸(金允謙, 1711~1775), <월연(月淵)>, 《영남기행첩(嶺南紀行帖)》, 18세기, 지본담채(紙本淡彩), 30.3×38.9cm, 동아대학교박물관

18세기의 문인화가 진재(眞宰) 김윤겸(金允謙, 1711~1775)의 《영남기행첩》에 실려 있는 실경산수화이다. <함양 월연>은 경남 함양의 대표 명승으로 알려진 화림동(花林洞)계곡에 자리한 월연(月淵)에 초점을 맞춰 그린 작품이다. 널따란 계곡이 시원하게 펼쳐진 너럭바위 사이로 세찬 계류가 형성하는 풍치가 빼어나 벼슬에서 물러난 지족당(知足堂) 박명부(朴明榑, 1571~1639)가 1637년(인조 15), 월연암(月淵巖) 곁에 '달을 희롱한다'는 의미를 지닌 농월정(弄月亭)을 건립했다고 한다. 농월정 앞의 반석은 '달 바위'라 불리는데, 그 면적이 1천여 평에 달한다. 처음에 초가로 지어졌던 농월정은 몇 차례 중건을 거치며 1899년(광무 3)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03년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 현재 정자 터에는 건물을 떠받쳤던 주춧돌과 돌기둥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이다. 또 계곡 곳곳의 바위에서 다양한 서체(書體)와 내용으로 새겨진 각자(刻字)가 확인되는데, 특히 박명부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의 성명이 많다.

이 <함양 월연>은 그와 같은 월연계곡의 경관을 근접 포착해 담은 것이다. 화면의 중앙부 계곡 우측 편에 농월정이 자리했고, 그 아래 흘러내린 물이 잠시

모아졌다 다시 양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못이 월연으로 생각된다. 먹 선묘로 봉우리와 바위 등 경물의 기본 형태를 잡고, 담묵과 청색 선염을 더해 완성한 탓에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상을 풍긴다. 또 계류의 물살과 포말 표현에 상대적으로 힘찬 선묘를 구사해 그 특징을 살렸다. 화면에 농월정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김윤겸이 방문한 시기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터만 있었던 때가 아닌가 싶다.



〈화림동 - 영남명승35경도〉, 작자미상

작자미상, <화림동(花林洞)>, 《영남명승35경도(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紙本彩色), 38.5×45.5cm, 일본 유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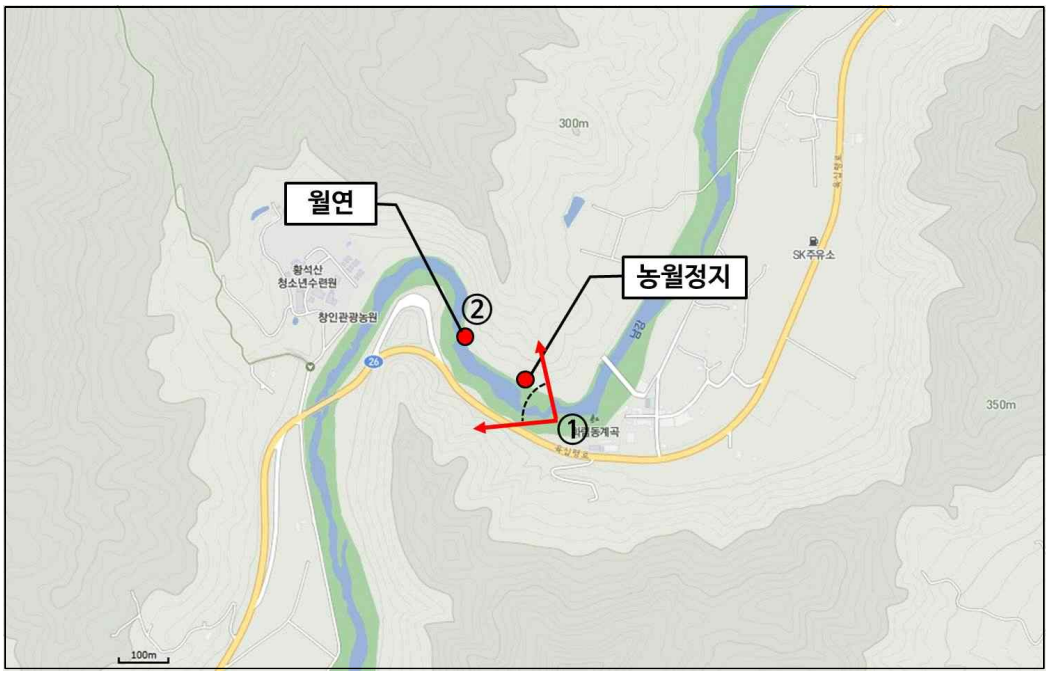
화림동(花林洞)계곡은 해발 1,508m의 남덕유산에서 발원한 금천(錦川)이 경남 함양군 일대에 형성시킨 물길이다. 이 지역은 장장 60리에 걸쳐 기암과 소(沼), 숲이 펼쳐진 아름다운 경관으로 명성이 높았다. 19세기의 문인 임헌회(任憲晦, 1811~1876)는 거연정(居然亭)에 부친 기문에서 “영남의 명승 중에서 안의삼동(安義三洞)이 가장 빼어나고, 그 중에서도 화림동이 최고이다”라고 하였다. 그 때문에 계곡 가에는 거연정 외에도 동호정(東湖亭)과 농월정 등 정자가 지어졌고, 오가는 문인묵객들의 풍류처가 되었다.

《영남명승35경도》중 한 폭인 <화림동>은 화면 좌측 중단으로부터 우측 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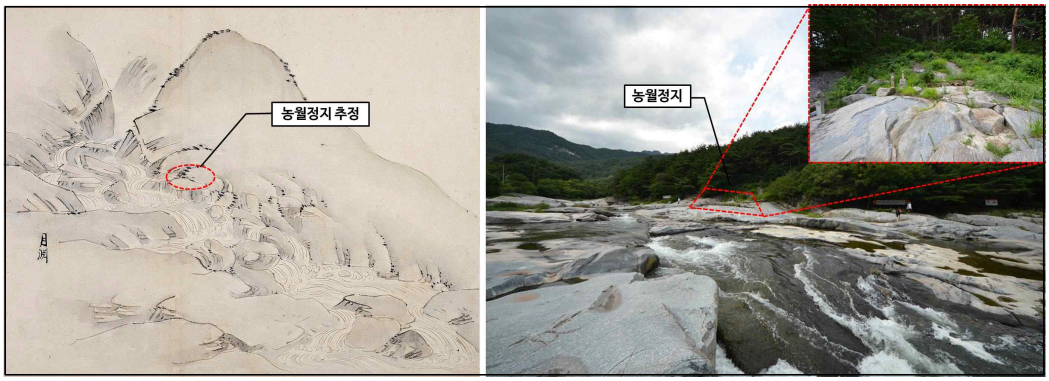
으로 물길을 형성하는 화림동 일대의 경관을 담고 있다. 계곡 양편 공간은 첩첩의 산봉우리로 채워졌는데,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물을 그려 넣지 않아서 정확히 어느 지점을 포착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화면의 구성과 표현법으로 미루어 현장 사생을 거치지 않은 채 지리정보에 의존해 그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 결과 화제(畵題)로 삼은 화림동계곡의 규모는 지나치게 과장되었고, 인근 산악의 형세는 사실감이 떨어지는 지형도(地形圖)의 인상을 풍긴다.

(4) 현재적 재구성

18세기 문인화가 진재 김윤겸의 《영남기행첩》에 실려 있는 <함양 월연>에 농월정지가 남아 있는 월연계곡의 널따란 계곡과 너럭바위가 그려져 있다. 지족당 박명부가 1637년(인조 15), 월연암 곁에 '달을 희롱한다'는 의미를 지닌 농월정(弄月亭)을 건립했다고 한다. 농월정 앞의 반석은 '달 바위'라 불리는데, 그 면적이 1천여 평에 다다르고 바위에는 다양한 크기의 포트홀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농월정은 2003년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 현재 정자 터에는 건물을 떠받쳤던 주춧돌과 돌기둥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해당 경관을 지도와 함께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함양 월연>에 그려진 월연계곡과 농월정지 실제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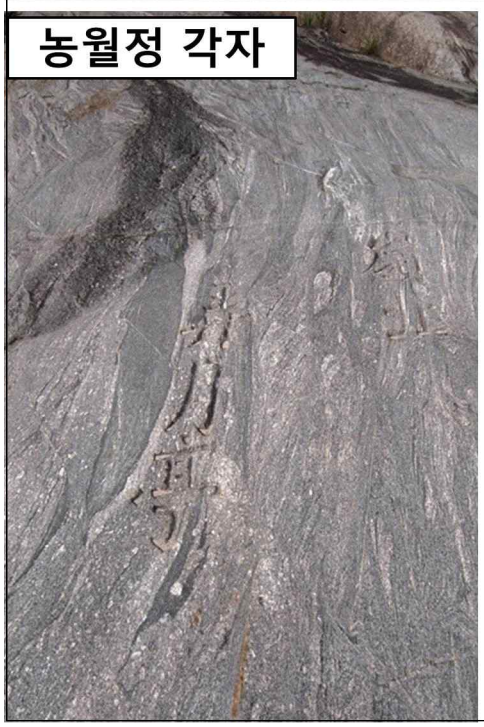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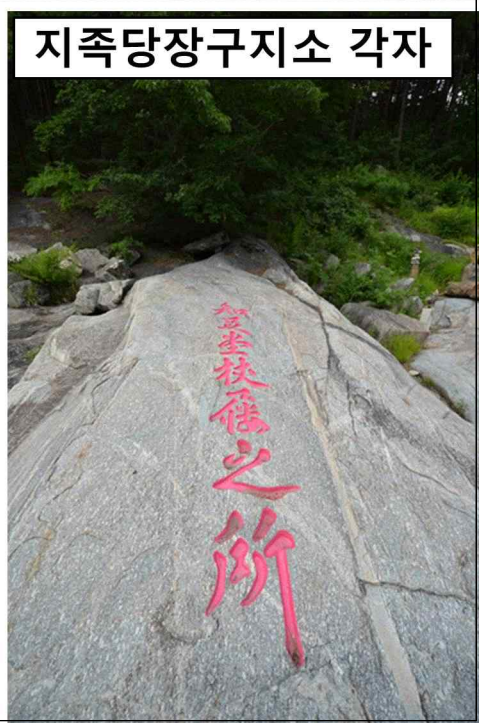
② 월연계곡과 농월정지에서 바라본 달 바위



③ 월연계곡 곳곳에 분포한 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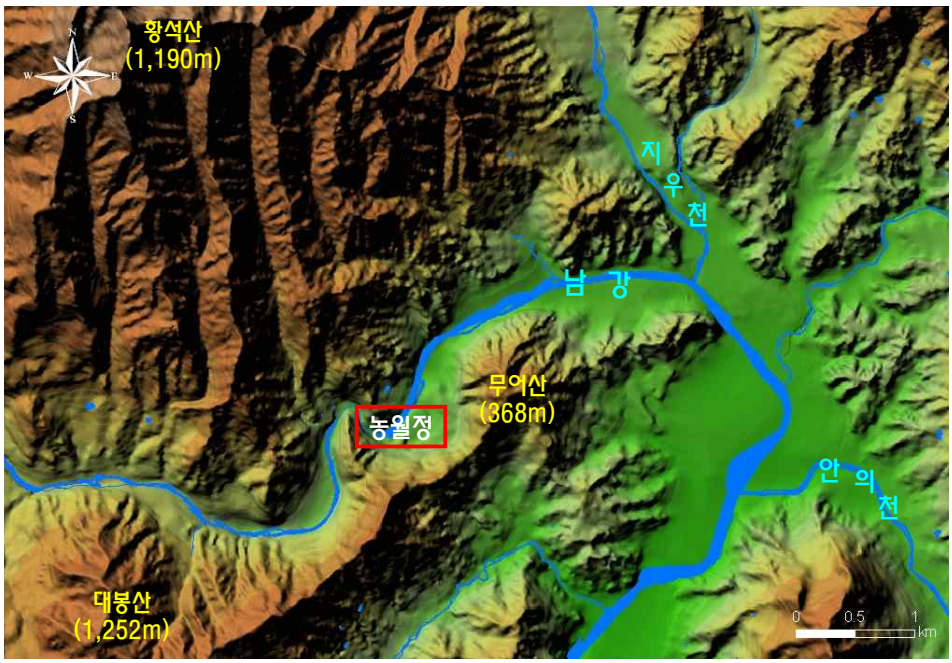
(5) 지형 및 식생 분석

가. 지형 및 지질

화림동계곡은 해발고도 1,508m의 남덕유산에서 발원한 금천(남강의 상류)이 서상~서하를 흘러내리면서 냇가에 기이한 바위와, 담(潭), 소(沼)[66]를 만들고 농

월정에 이르러서는 반석(磐石)위로 흐르는 옥류와 소나무가 어우러져 무릉도원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장장 60리에 이른다. 남덕유산에서 발원한 남강은 남서쪽 방향으로 흐르다가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에서 황석산(1,190m)과 대봉산(1,252m)사이의 협곡을 지나면서 시계방향으로 꺾이게 된다. 이후 대봉산, 무어산 자락을 휘감고 다시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지우천, 안의천 등의 지류가 만나는 곳에서는 개석곡지의 규모가 확대되어 장방형의 곡저평야(river plain)를 형성해 놓았다.

농월정 일대는 북동-남서 방향의 산열 사이를 동서 방향의 좁고 긴 단열을 따라 남강이 개석하면서 만들어 놓은 계곡경관이다. 또한 남강을 끼고 북쪽의 황석산과 남쪽의 대봉산이 병풍의 형세를 하면서 인접함에 따라 이들 산에서 흘러나오는 지류가 공급되면서 유량이 비교적 풍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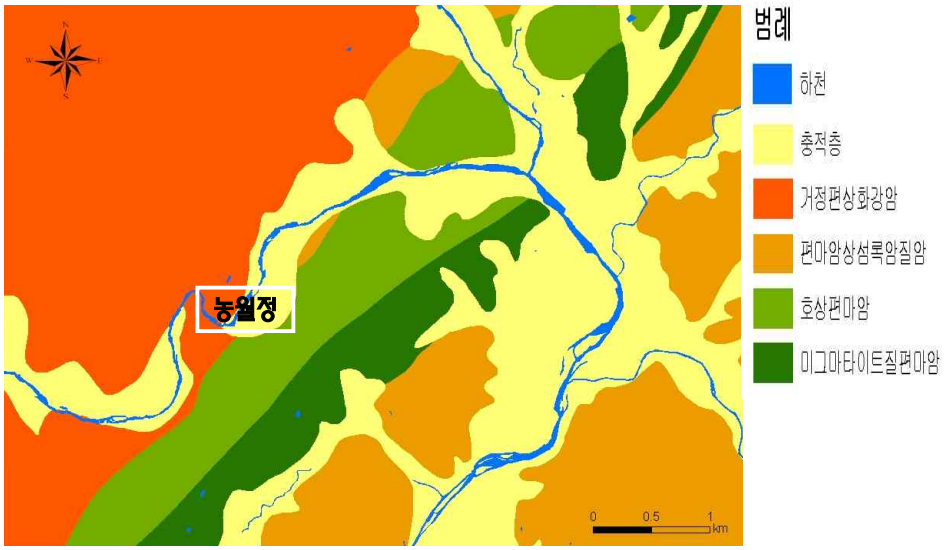
농월정 일대의 지형(DEM)

농월정 일대의 지질을 거시적으로 보면, 암석의 분포가 주요 구조선인 북동-

66) 담(潭)의 사전적 의미는 물이 고인 깊은 못이다. 즉, 폭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하식에 의해 형성된 못을 지칭한다. 소(沼)의 사전적 의미는 늪(沼, marsh)이나 습지를 가리키고, 땅바닥에 우묵하게 패여 물이 고인 곳을 지칭한다. 늪보다 작게 움푹 패여 물이 고인 곳은 웅덩이라고 한다. 탕(湯)의 경우는 폭포 밑에 있는 못으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으나 담과 소의 경우는 사전적인 의미가 각기 다르긴 해도 현실적으로는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다. 또한 폭포가 쏟아져 물이 고이는 곳을 연(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통 못의 규모나 깊이에 따라 담, 소, 웅덩이 순으로 구분하기도 하나 이것은 정확한 기준이 아니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은 어느 때 누가 명명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그 지역 주민들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정해져 전해오는 표현들이다(등산상식사전, 2010).

남서 방향을 따르면서 대상(帶狀)으로 분포한다. 이들 지체구조가 동서 방향 및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단열을 따라 하천이 유도되면서 개석되고 재배치되면서 충적층을 만들어 놓은 양상을 보인다. 농월정 일대를 기준으로 북서쪽 황석산 일대는 화강암의 비율이 높고, 남동쪽은 화강편마암, 편마암의 비율이 높다. 남강 및 그 지류를 따라서는 충적층이 형성되어 있고 여러 하천이 합류하는 안의면 면사무소 일대는 곡저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농월정은 남강 상류 및 황석산 지류에서 공급되는 화강암 계통의 풍화·침식 물질과 편마암 계통의 대봉산 자락에서 공급되는 풍화·침식 물질이 공급되면서 하상에 충적층을 다량으로 형성해 놓았다.



농월정 일대의 지질

나. 자연 경관

함양 안의면 일대를 흐르는 남강은 농월정 부근의 화강편마암의 지형을 지나면서 절경을 이룬다. 남강은 이 부근에서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넓은 하상에 비해 퇴적물이 적으며, 기반암이 드러나 있다. 하도 바로 옆에 판상의 기반암이 드러난 곳을 따라 각자(刻字)가 새겨져 있으며, 일부 기반암은 굴식을 받아 국지적인 단애를 형성하고 있다. 화림동계곡은 국내에서 하폭이 가장 넓은 기반암 하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암을 따라 농월정 인근 곳곳에서 포트홀(pothole)과 나마(gnamma)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포트홀은 절리 및 하천

방향의 영향을 받아 이와 평행하게 열을 지어 발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농월정지와 월연



하상의 포트홀 군

다. 식생경관적 특징

농월정은 화려한 자연의 미를 간직한 화림동계곡 정자의 하나로 지금은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커다란 반석 위에 흐르는 옥류와 하변식생, 소나무숲 경관은 자연과 혼연히 일치하는 조화로움과 아늑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소나무가 대표 식생경관을 나타내었으며, 아교목층에 참나무류가 생육하고 있어 향후, 생태적 천이가 진행되어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농월정 터 후면부의 소나무 식생생육은 매우 양호한 현황이었으며 하층부에 참나무류 및 때죽나무, 산벚나무, 물푸레나무, 붉나무 등의 아교목층 식생이 소수 생육하고 있었다. 향후, 칡의 확산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현재의 소나무경관 유지를 위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양한 바위와 거석, 세찬 물소리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물가의 왕버들 및 보리수, 팽나무, 자귀나무들은 강변식생의 전형을 나타내었다. 또한, 하변식생으로 생강나무, 갯버들, 호랑버들, 산뽕나무, 자귀나무, 족제비싸리 등의 목본류와 갈대, 달뿌리풀, 물억새, 참나리, 원추리, 애기똥풀 등의 초본류가 생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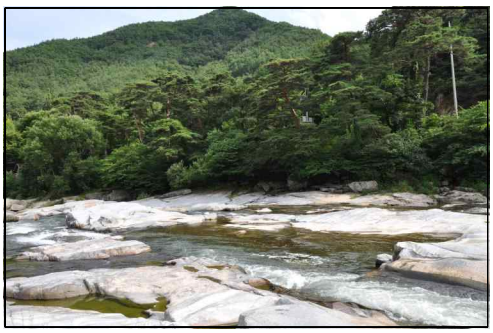
농월정교 주변의 수려한 전경



농월정지 주변 배롱나무와 후면의 소나무경관



농월정 반석과 연계된 개방식생경관



강변 가장자리 소나무경관



소나무경관 하부의 칡군락지



강변과 음식점 가장자리부의 환삼덩굴군락지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가.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

❍ 문화·역사적 가치: 함양 농월정 일원에 대해서는 『여지도서』에 화림동(花林洞)과 월연암(月淵巖)을 중심으로 소개되어 있고, 농월정 일대의 풍광을 노래한 허전, 최익현, 윤순거 등 조선시대의 저명 유림들의 옛 시문들이 다수 전한다. 이들 시문에는 농월정과 그 전면의 인상적인 암반 계곡에 대한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김윤겸(1711~1775)과 작자 미상의 화가가 그린 실경산수화도 전한다. 2014년 기준 농월정은 소실된 상태이나 그 주변에는 이 일대를 거쳐 간 유림들의 각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

❍ 지형적 가치: 남덕유산에서 발원한 남강이 북동-남서 방향의 산열에 속하는 황석산과 대봉산 사이를 동서 방향으로 관류하면서 협곡의 형태로 흘러간다. 화강암 및 화강편마암의 기반암 하상을 개석해가며 흘러가면서 너럭바위(broad flat boulder), 돌개구멍(pothole), 풍화호(gnamma) 등의 미지형을 형성해 놓았고 주변의 송림과 조화를 이루면서 곳곳에 용유정, 거연정, 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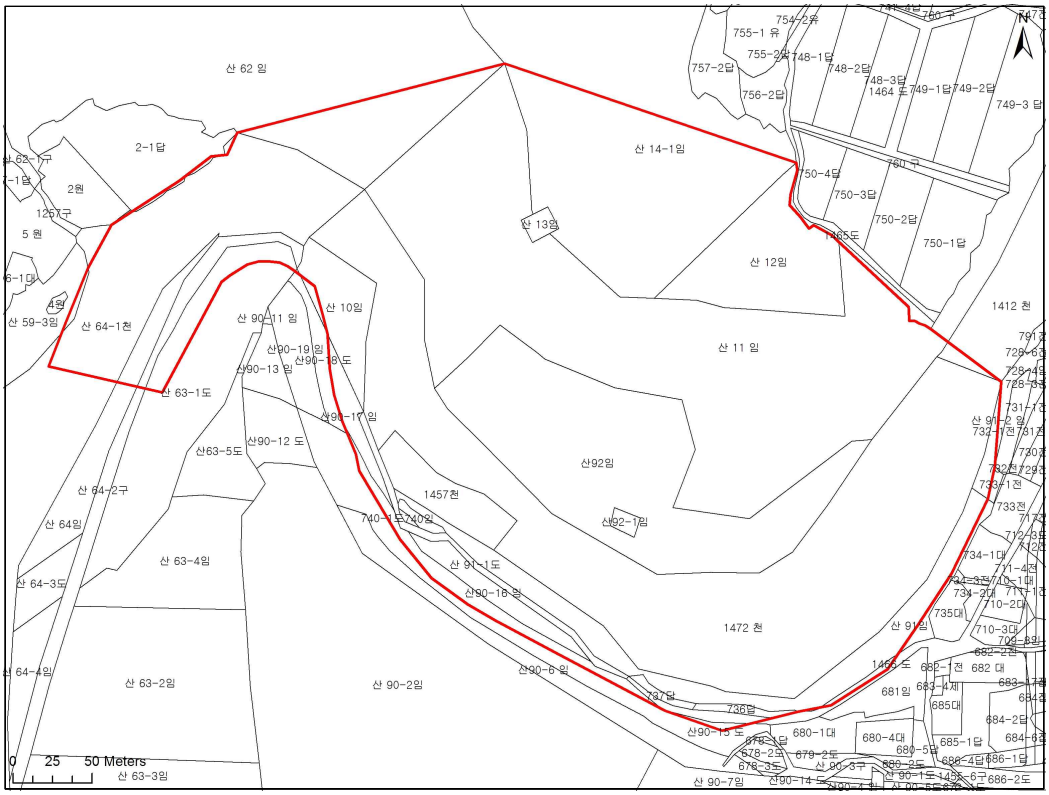
정, 동호정, 농월정 등의 정자가 위치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농월정에 해당하는 남강 하상 및 하안은 기반암 하상이 가장 폭넓게 드러나 풍광의 백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토캠핑장, 상가 점유하는 등 인위적 간섭에 따라 훼손이 될 우려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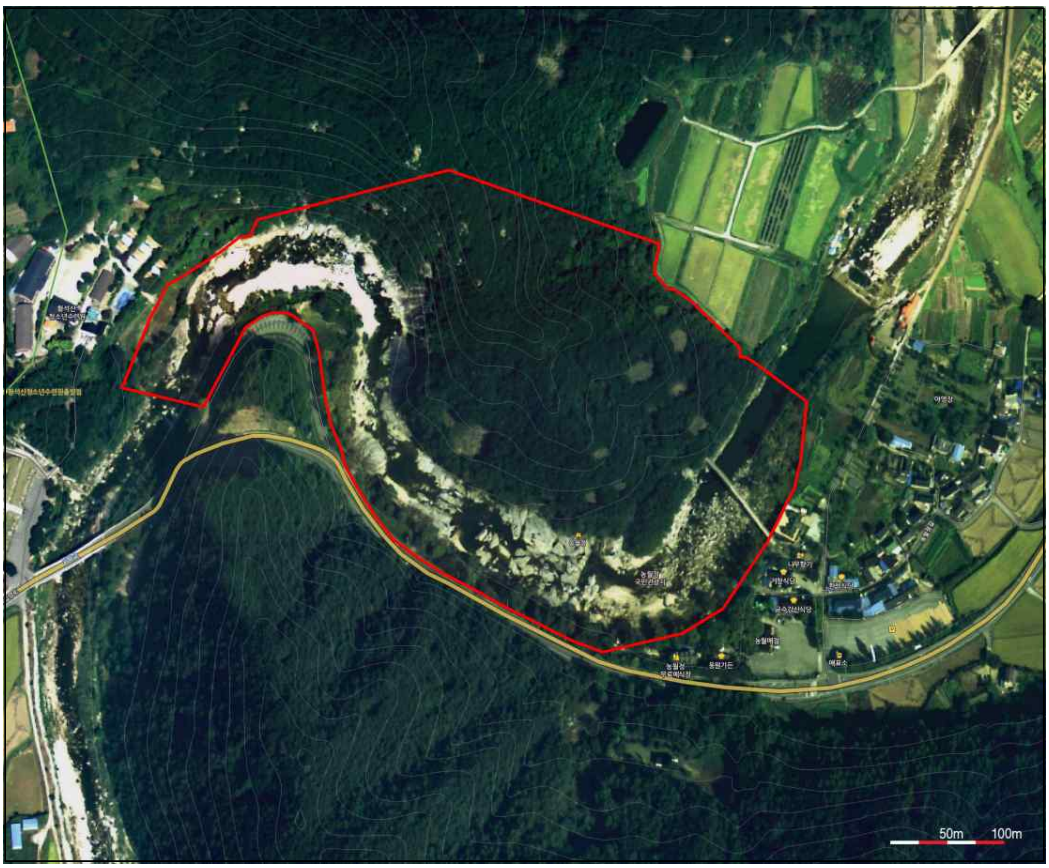
❍ 식생적 가치: 농월정 후면부는 선비의 고장답게 강변을 따라 소나무 숲길이 이어지며, 전면부는 매우 넓은 반석들이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선형의 물줄기는 다양한 형태의 너럭바위, 곳곳의 포트홀, 거석, 바위 사이사이를 세차게 흘러간다. 이와 같은 다양한 미지형경관이 청각적인 물소리와 어우러져 있으며, 소나무, 왕버들, 오리나무, 팽나무, 보리수, 갯버들과 같은 랜드마크 식생경관과 달뿌리풀 및 물억새와 같은 벼과식물들의 바람결에 흔들리는 소리와 형상은 주변 인문요소와 일체화되어 공감각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농월정교 주변의 유원지화가 심해지면서 환삼덩굴의 피복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자생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명승의 지정 범위

명승의 지정 명칭과 범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지정내용
명칭	함양(咸陽) 농월정(弄月亭) 일원
지정종별	명승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서하면 황산리
지번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1472번지 외 28필지
면적	142,977.0㎡
관리단체	경상남도 함양군청
문화재 지정 여부	지정 권장


산 62 임
2-1답
산 14-1임
754-2유
755-1 유
755-2유
748-1답
757-2답
748-2답
748-3답
1464 도
749-1답
749-2답
749-3 답
756-2답
750-4답
760 구
750-3답
750-2답
750-1답
1265도
산 13임
산 12임
산 10임
산 90-11 임
산 64-1천
산 59-3임
산90-19 임
산90-18 도
산90-13 임
산 63-1도
산90-17 임
산90-12 도
산63-5도
산 64-2구
산 64임
산 63-4임
산 64-3도
산 64-4임
산 63-2임
산 90-2임
산92임
산92-1임
1457천
740-1 도740임
산 91-1도
산90-18 임
산90-6 임
1472 천
산 91임
1412 천
737답
738답
산90-15 도
680-1대
680-4대
685-1답
686-4답
686-1답
686-2도
산 90-3구
산 90-7임
산 63-3임
0 25 50 Meters


50m 100m

7) 합천(陜川) 황계폭포(黃溪瀑布) 일원

(1) 지리지

『여지도서』 산천조에 위치와 간략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폭포를 이루는 하천이 황매산에서 발원하여 남강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명칭	지리지	세부 항목	내 용
황계 폭포	여지도서	합천군	관아의 서쪽 30리에 있다. 폭포의 밑에 깊은 연못이 있다. 삼가현 허굴산(虛堀山)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여 동쪽으로 흘러 남강으로 들어간다.

(2) 고시문

황계폭포의 폭포수와 폭포수가 모여 흘러나가는 계곡의 아름다운 경관을 읊은 시가 다수이며 특히 폭포의 소리와 폭포수가 부서지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 많다. 또한 남명(南冥) 조식(曺植, 1501~1572)에 관해 언급한 작품들이 다수 있다. 각 작품별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황계 폭포 -시(詩)	조식(曺植)	『남명집(南冥集)』 (권1)	〈황계폭포(黃溪瀑布) [합천에 있다.(在陜川)]〉
	이진상(李震相)	『한주집(寒洲集)』 (권2)	〈황계폭포(黃溪瀑)〉
	곽종석(郭鍾錫)	『면우집(俛宇集)』 (권8)	〈황계폭포. 玉雪鷗龍등의 글자를 쓰지 않았다.(黃溪瀑布。禁用玉雪鷗龍等字。)〉
	조긍섭(曺兢燮)	『암서집(巖棲集)』 (권2)	〈황계폭포, 이태백의 여산시 운자를 사용하였다.(黃溪瀑。用太白廬山韻。)〉
	하항(河沆)	『각재집(覺齋集)』 (권上)	〈회산서원으로부터 황계폭포를 가다가 대평 길에 이르러 본 것을 적다.(自晦山書院。將往黃溪瀑布。至大坪途中。賦所見。) [회산서원은 삼가현에 있다.(院在三嘉)]〉
	허유(許愈)	『후산집(后山集)』 (권2)	〈황계폭포에서 노닐다(遊黃溪瀑布)〉
	박인(朴絪)	『무민당집(无悶堂集)』 (권1)	〈낙옹 임진부와 황계폭포에서 만나다.(與林樂翁。會黃溪瀑布。)〉
	이종기(李種杞)	만구집(晩求集) (권1)	〈丹城記行〉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황계 폭포 -문(文)	하수일(河受一)	『송정집(松亭集)』 (권4)	〈황계폭포 유기(遊黃溪瀑布記)〉
	김창흡(金昌翕)	『삼연집(三淵集)』 (습유 권28)	〈영남일기(嶺南日記) [무자(戊子)]〉
	이만부(李萬敷)	『식산집(息山集)』 (권3)	〈황계폭포기(黃溪瀑布記)〉
	송병선(宋秉璿)	『연재집(淵齋集)』 (권21)	〈丹晉諸名勝記〉

<시(詩)>

1. 조식(曺植, 1501~1572), <황계폭포(黃溪瀑布) [합천에 있다.(在陜川)]>, 『남명집(南冥集)』 卷1

옥구슬 던진다 해도 골짜기에 부끄러울 정도 / 投璧還爲壑所羞
암벽에는 구슬 가루 머물러 있은 적도 없었지. / 石傳糜玉不曾留
계곡의 신은 용왕이 욕심내도 내버려 두어 / 溪神謾事龍王欲
아침에 만든 명월주를 다 싣고 가도 그냥 둔다네. / 朝作明珠許盡輸

달아맨 듯한 줄기 물 은하수처럼 쏟아져 / 懸河一束瀉牛津
바위로 내달려 어느새 만 섬의 옥돌로 변했구나. / 走石飜成萬斛珉
세상 비판도 아침이 오면 몰아치지 않으리니 / 物議明朝無已迫
물과 바위 탐낸 데다 사람까지 탐내리라. / 貪於水石又於人

* 조식(曺植)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 자는 건중(楗仲), 호는 남명(南冥)이다. 경북 합천 삼가현(三嘉縣)에서 태어났다. 황계폭포 7언 절구 2수를 지었다. 첫 번째 작품은 폭포수를 구슬로 표현하여 사람이 아무리 옥구슬을 던지도 수많은 구슬처럼 부서지는 폭포수에 한참 못 미치리라고 하였다. 폭포의 시원한 물줄기가 고여 있기보다는 그대로 흘러나가는 모습을 계곡의 신이 게을러서 용왕에게 빼앗긴 것이라고 재치 있게 묘사하였다. 두 번째 작품에서도 조식은 폭포수가 바위에 부딪혀 만 섬 옥으로 변한 것이라고 묘사했다.

2. 이진상(李震相, 1818~1886), <황계폭포(黃溪瀑)>,『한주집(寒洲集)』卷2

담담한 구름 속 절벽 속세 먼지 끊어졌고 / 潭潭雲壁絶塵烟
흐릿하게 보이는 바닥 위로 가벼운 우레소리 허공을 흔드네. / 瞥地輕雷撼半天
성난 포말 구슬처럼 튀면서 비로소 곧장 떨어져 내리고 / 怒沫跳珠初直下
내달리던 여울 바위 뚫고 공교롭게 가장자리까지 이어지네. / 奔湍穿石巧緣邊
골짜기 아래 어리석은 용은 가을이라 허물을 벗고자 하는지 / 洞底痴龍秋欲蛻
바위 사이 외로운 학 밤에도 잠들기 어렵구나. / 巖間孤鶴夜難眠
풍경은 여전히 속세로 흘러가기 싫어서인지 / 風景猶爲流俗忤
정상에서 도끼로 뚫은 지 이미 오래되었네. / 上頭斧鑿已多年

* 이진상(李震相)은 조선 후기 문인으로 자는 여뢰(汝雷), 호는 한주(寒洲), 산교(汕嶠), 동교(東嶠), 정와(定窩), 조운헌도재(祖雲憲陶齋), 운도재(雲陶齋)이다. 장복추(張福樞), 이정상(李鼎相), 허훈(許薰) 등과 교유하였다. 구름 속까지 높이 솟은 절벽과 맑은 못을 통해 속세의 먼지와 단절된 황계폭포의 모습으로 시상을 일으켜 폭포에서 곧장 떨어져 포말로 부서지는 폭포수를 그리고는 쉼 없이 쏟아지는 폭포수로 인해 학은 밤에도 잠들지 못한다고 하였다.

3. 곽종석(郭鍾錫, 1846~1919), <황계폭포. 玉雪鷗龍등의 글자를 쓰지 않았다. (黃溪瀑布。禁用玉雪鷗龍等字。)>,『면우집(俛宇集)』卷8

허공을 의지하여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 憑虛何所怒
곧장 위태롭게 뛰어내리네. / 惟直可凌危
먼 근원으로부터 활기차게 흘러와 / 源遠來來活
높은 곳에서 기이하게 떨어지는구나. / 標高落落奇
맑은 물가에서 읊조리니 좋은 시구되어 떨어지고 / 吟淸墜寶唾
차가운 곳 앉았자니 깊은 술잔 가득해지네. / 坐冷澆深巵
진중하게 앉아 마음으로 감상하노라니 / 珍重賞心子
서로 바라보아도 알 듯 모를 듯. / 相看知不知

* 곽종석(郭鍾錫)은 조선말 문인으로 자는 명원(鳴遠), 연길(淵吉), 호는 면우(俛宇), 유석(幼石)이다. 후에 이름을 도(鋾)로 개명하였다. 이진상(李震相)의 문인(門人)이며 허유(許愈), 이종기(李種杞), 이승희(李承熙) 등과 교유하였다. 허공에서 곧바로 떨어지는 폭포를 보면서 어찌 화가 났냐며 독특한 시각으로 황계폭포를 읊었다. 맑은 폭포수 쏟아내면서 구슬 같은 포말이 깨지는 것을 통해 폭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는 마음에 대해 성찰하는 것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였다.

4. 조긍섭(曺兢燮, 1873~1933), <황계폭포, 이태백의 여산시 운자를 사용하였다.(黃溪瀑。用太白廬山韻。)>,『암서집(巖棲集)』卷2

가까이에선 눈이 날리는 듯 멀리서는 안개인 듯 / 近疑飛雪遠疑烟
천길 바위 기운 곳에 한 줄기 폭포 되어 흘러내리네. / 千尺巖傾一道川
응당 도인이 옥피리 빗겨 불면 / 應有道人橫玉笛
긴 바람 불어올 제 하늘의 적막 깨뜨리리. / 長風吹破泬寥天

* 조긍섭(曺兢燮)은 구한말 문인으로 자는 중근(仲謹)이고, 호는 암서(巖棲), 심재(深齋)이다. 문박(文樸), 이건창(李建昌), 김택영(金澤榮), 황현(黃玹) 등과 교유하였다. 이태백의 <여산폭포>의 운을 사용해서 황계폭포를 읊었다. 폭포를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내리는 듯하고 멀리서 보면 안개처럼 보인다며 폭포수가 내려 떨어지면서 생기는 포말로 시상을 일으켰다. 이런 곳에서는 도인의 피리 소리가 제격이라 생각하며 그 신비로운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문(文)>

1. 하수일(河受一, 1553~1612), <황계폭포 유기(遊黃溪瀑布記)>,『송정집(松亭集)』卷4

삼가현의 서쪽 산 중에 기이하기로는 대평산(大坪山)이 최고이고, 대평산 동쪽으로 있는 물 가운데 기이한 것으로는 황계폭포가 최고이다. 이 때문에 유람하는 선비들이 앞 다투어 그곳에 갔다. 내가 일찍이 그 승경에 대해 듣고서 가보려고 하였으나 가지 못한 지 십 년이나 되었다. 올해 겨울 10월 3일 고을 사람이 남명 조식 선생을 추모하여 서원을 세워 봉사하였다. 나는 이 때 각재 숙부(覺齋叔父)[67]를 모시고 외람되게 집사로서 뒤를 따랐다. 봉안한 다음날 여러 사람들이 모두 '황계폭포는 우리 고을의 명승지로 이곳과의 거리가 20리 정도이니 가서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새벽 일찍 나막신을 신고 행장을 챙겨 회곡(晦谷)을 나와 불령(佛嶺)을 넘어 대평산을 바라보았더니, 금성산성과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모두 커다란 바위가 천 길로 우뚝 솟아 있었다. 온통 구불구불 마치 범이 웅크린 듯, 용이 똬리를 튼 듯한 바위들이 중첩되어 천상계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다시 동쪽으로 5~6리쯤 가서 이른바 황계폭포라 일컫는 것을 찾아보았다. 두 골짜기 사이에 수 십장 되는 바위가 깎아지른 듯 서 있고 물이 그 위에서 곧장 아래로 떨어졌다. 그 안쪽에서 폭포를 바라보면 맑은 물이 옥을 뿜는 듯 허공을 날아 떨어지면서 바위와 벼랑에 부딪치며 포효하니 골짜기와 산이 그에 따라 울렸다. 흡사 은하수 뒤집힌 듯 했으며, 번갈아가며 우레가 일고 바람이 부니 진실로 명승지 중에서도 기이한 곳이었다. 그 아래 또 사방 1무(畝)되는 맑은 못이 있었다. 검푸른 물이 고요하였다. 좌우에는 또 우환담(右環潭)이 펼쳐져 있어 수 십 여명이 앉을 만 하였다. 이때가 늦가을이 깊어지기 시작할 무렵이라 초목과 바위 봉우리들이 아직 비단빛으로 치장하고 있어 마치 유람자를 맞이하는 듯하였다. 이에 함께 유람한 16명의 선비들이 각기 술잔을 들어 청아한 기쁨을 누리고 시 한 수씩을 지어 그윽한 흥취를 쏟아냈다. 아득하구나! 호연한 기운 의지하여 아침노을 들이마시며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태초의 세계에서 노닐도다. 아! 이 땅의 빼어난 경치 중국에 가 있으면 반드시 여산(廬山)과 길항이 될 것인데 지금 편벽한 곳 모퉁이에 있을 뿐이로다. 내가 그 아름다운 경치가 빈산에 묻혀 있을까 두려워 돌아와 기록해 두고, 이로써 유람을 좋아하는 후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만력 10년(1582년 선조 15)에 쓰다.

67) 각재숙부(覺齋叔父): 각재는 하항(河沆, 1538~1590)의 호이다. 하항은 하수일의 숙부로 남명 조식의 제자이다.

嘉縣之西。號山之奇者。大坪最善。大坪之東。號水之奇者。黃溪最善。是以。遊觀之士爭相往焉。余嘗聞其勝。而有不得見者盖十載。今年冬十月三日。縣人追慕南冥曺先生。乃立書院以奉祀事。余時陪覺齋叔父。忝在執事後。越奉安翼日。諸君咸曰。黃溪。我邑之名區。去此且二十里。盍往觀焉。於是促晨裝理行屐。出晦谷逾佛嶺以望大坪。金城山城對峙南北。皆大石矗立千仞。磅礴蜿蟺。虎若踞龍若蹲。有磧石上界風味。又東行五六里。求所謂黃溪者觀焉。兩谷間有巖削立數十丈。有水直下其上。由其中以望則淸流噴玉。飛落半空。舂巖吼崖。谷應山鳴。恰似銀河翻倒。雷風相薄。信名區之奇恠也。其下又有澄潭方一畝。黛蓄膏停。左右又有右環潭而平鋪。可坐數十人。于時三秋始暮。草木巖巒。猶帶錦粧。似爲遊方者容焉。於是同遊之士十六人。各擧一觴以做淸懽。賦一詩以瀉幽興。悠悠乎憑灝氣吸朝霞而遊乎造物者之始。噫。以此地之勝。致之上國。則必與廬山相頡頏。而今僻在遐隅。吾懼其使佳境蕪沒於空山也。旣歸爲記。以啓後之好遊者。是歲萬曆十年也。

* 하수일(河受一)은 조식(曺植)의 문인으로 자는 태이(太易), 호는 송정(松亭)이다. 1582년(선조 15) 10월 3일 고을 사람들이 조식을 추모하기 위해 서원을 세우기로 해서 삼가현(三嘉縣)에 갔다가 서원의 일을 마치고 대평산(大坪山) 동쪽에 있는 황계폭포를 보러 갔다. 늦가을이라 폭포 주변에 단풍이 들어 은하수를 드리운 듯한 폭포와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중국 여산폭포와 비교해 봐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며 감탄하고 황계폭포를 유람한 유산기를 지었다.

2. 김창흡(金昌翕, 1653~1722), <영남일기(嶺南日記) [무자(戊子)]>, 『삼연집(三淵集)』 습유 卷28

(…전략…) 3월 21일. 허 아우와 황계폭포를 가서 보았다. 폭포 높이는 십여 장으로 절벽의 모습은 마치 깎아서 파낸 듯 잘라 붙인 듯했는데, 그것을 따져보니 낙연(落淵)[68]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허 아우랑 작별하고 태평리에 이르

68) 낙연(落淵): 낙연도산(落淵陶山). 옥병서재(玉屛書齋)가 있는 곳을 말한다.

러 점심을 먹었다. 정유(鄭瑜)의 집을 지나는데 정유 형제와 여러 사람들이 길 왼편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앉아서 인사를 나누고 일어나니 정유와 그의 종제 권 아무개가 뒤따라오면서 용암(龍巖)에서 함께 묵고자 하였다. 옛 삼가(三嘉)를 지나면서 잠시 냇가에서 쉬었다. 다시 10여 리를 가 용암에 이르렀으니 곧 남명서원이다. 뒤에 또 한 사람이 왔는데 권만시(權萬時)였다. 세교(世交)가 있다고 하면서 정성이 지극하였다. 함께 강당에서 묵었다. (…후략…)

(…전략…) 二十一日。與許弟往觀黃溪瀑布。高可十餘丈。壁勢折陷折補。論之不及落淵。與許弟作別。至太平里中火。過鄭瑜家。鄭瑜兄弟及諸人出候路左。乍坐敍禮起。鄭瑜及從弟某權姓人隨來。盖欲同宿龍巖也。行過古三嘉。乍憩川邊。復行十餘里至龍巖。乃南冥書院也。追至又一人。乃權萬時也。云有世好。欵曲備至。與宿講堂焉。 (…후략…)

* 김창흡(金昌翕)은 조선 후기 문인으로 호는 삼연(三淵)이다. 김창흡은 1708년(숙종 34) 2월부터 영남일대를 두루 유람하면서 <영남일기>를 썼다. 김창흡은 3월 21일 허(許) 아우와 황계폭포를 보았다. 그는 일기 속에서 황계폭포는 높이가 십여 장(丈) 쯤으로 울퉁불퉁한 절벽이 인상적이라 했으며, 황계폭포가 낙연폭포(落淵瀑布: 경북 안동면 수몰지역에 있던 폭포)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3. 이만부(李萬敷, 1664~1732), <황계폭포기(黃溪瀑布記)>,『식산집(息山集)』卷3

강양군(江陽郡)의 군치(郡治)로부터 남강(南江)의 상류를 지나 서쪽으로 30리를 갔다. 산세가 더욱 깊어져 말을 버리고 지팡이 짚으며 계곡으로 들어갔다. 험준한 벼랑은 남쪽과 북쪽이 패여 있었으며, 절벽 위로 폭포가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폭포의 높이는 10여 장 정도 되는데 처음 들어가서 볼 때는 흐릿하게 나부끼더니 우르릉 쾅 바위를 부술 듯 물을 내뿜어 홀연히 소낙비를 만난 듯 바람과 우레가 뒤섞여 일어났다. 뒤늦게야 세차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가 지저귀는 듯 피리를 부는 듯 비파를 타는 듯 울부짖는

듯 노래하는 듯 운당(篔簹)[69]을 울리는 듯 경거(瓊琚)[70]를 떨치는 듯하였다. 대략 5가지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허공으로 떨어지는 물줄기요, 두 번째는 폭포 아래의 못이요, 세 번째는 폭포를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너른 바위요, 네 번째는 구슬처럼 튀어 오르는 포말이요, 다섯 번째는 좌우에 있는 숲과 절벽이다. 햇빛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았다. 박연(朴淵)·조계(漕溪)·한계(寒溪)폭포가 가장 이름이 높은데 장대함으로는 박연폭포만 못하고, 맑기로는 조계폭포만 못하고, 기이함으로는 한계폭포만 못하지만, 세 폭포 다음은 간다고 할만하다.

自江陽郡治。越南江上流。西行三十里。山氣益深。捨馬杖策入谷。峻崖北蔽南虧。仰見飛流倒掛石壁。可十餘丈。初入混混濛濛。轟磕噴薄。如忽遇急雨顚風震雷交發。久覺澧澧瀼瀼。啾啾。如竽如瑟。如哭如謳。響篔簹。振瓊琚。槩言之有五勝焉。一落空。二下成潭。三對有坐石。四跳沫如珠。五左右林壁。逗景不侵。朴淵，漕溪，寒溪三瀑最著名。若較之則壯不如朴淵。淸不如漕溪。奇不如寒溪。當爲三者之亞云。

* 이만부(李萬敷)는 조선 후기의 문인으로 자는 중서(仲舒), 호는 식산(息山)이다. 이재(李栽), 이형상(李衡祥) 등과 교유하였다. <황계폭포기>를 보면 폭포에는 다섯 가지 볼만한 것이 있다. 허공으로 떨어지는 폭포, 떨어진 후 이루는 못, 마주보고 앉아 있는 너른 바위, 구슬같이 튀어 오르는 포말, 황계폭포 주위의 숲과 절벽 등의 승경을 말한다. 박연(朴淵)·조계(漕溪)·한계(寒溪)폭포가 가장 이름이 높은데 장대함으로는 박연폭포만 못하고, 맑기로는 조계폭포만 못하고, 기이함으로는 한계폭포만 못하지만, 그 다음은 간다고 하여 결국 황계폭포를 장대함, 맑음, 기이함을 두루 갖춘 폭포로 칭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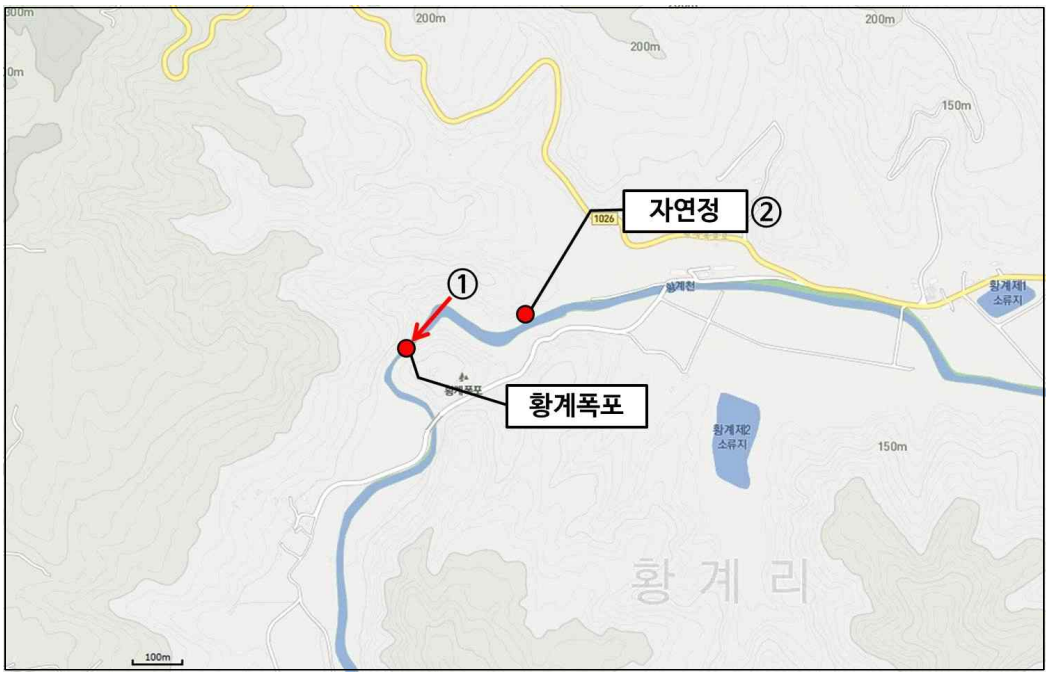
69) 운당(篔簹): 대나무이 일종. 물가에서 나는데, 키가 수십 자, 주위가 한 자 대여섯 치로, 대나무 중에서 가장 큰 것임.
70) 경거(瓊琚): 경거는 보배로운 구슬로 상대방의 시문을 뜻한다.

(3) 실경산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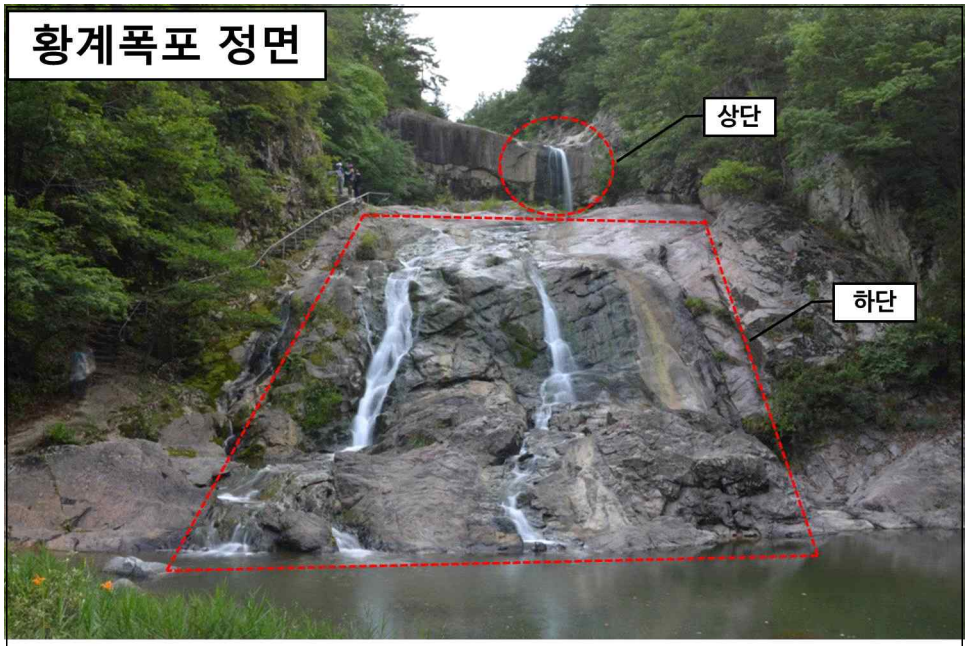
- 자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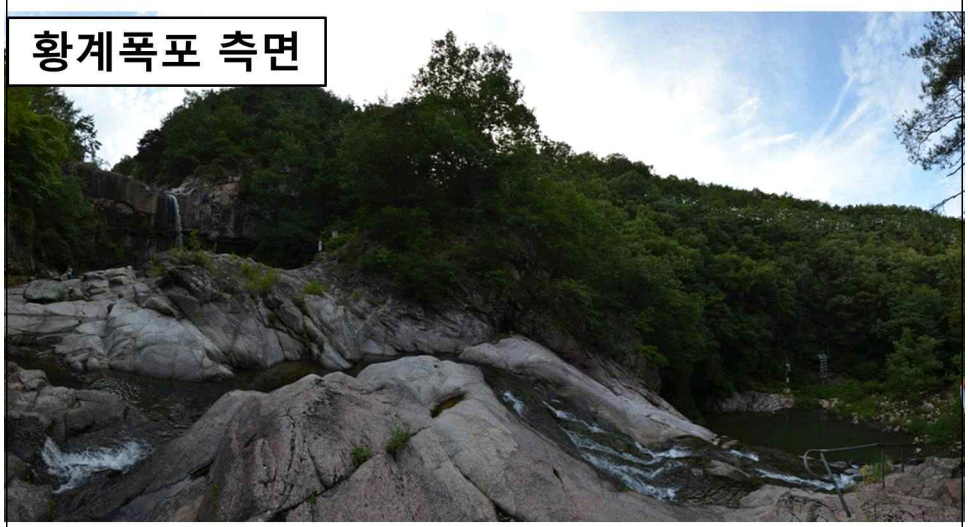
(4) 현재적 재구성

남명 조식의 『남명집』을 비롯하여 많은 고시문에 등장하는 폭포이다. 황계폭포는 상단부와 하단부로 나누어진 2단 폭포로 약 20m 정도의 높이에 이른다. 하단 폭포 아래에는 원형의 큰 폭호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단 폭포의 경우 떨어지는 물의 침식으로 아랫부분이 동굴처럼 되어 있다. 황계리에서 골짜기를 따라 황계폭포로 오는 길에는 자연정(紫煙亭)이 있고 그 우측엔 남명 조식의 시비(詩碑)가 세워져 있다. 해당 경관을 지도와 함께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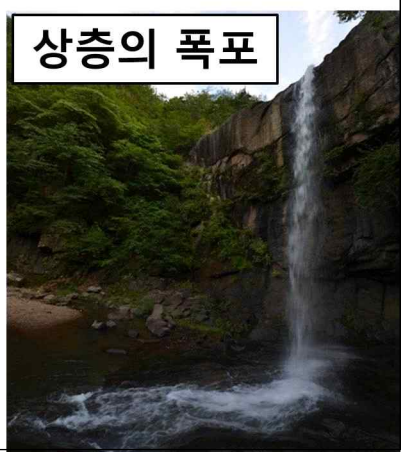


① 황계폭포 정면과 측면, 상단과 하단의 폭포









② 자연정과 남명 조식의 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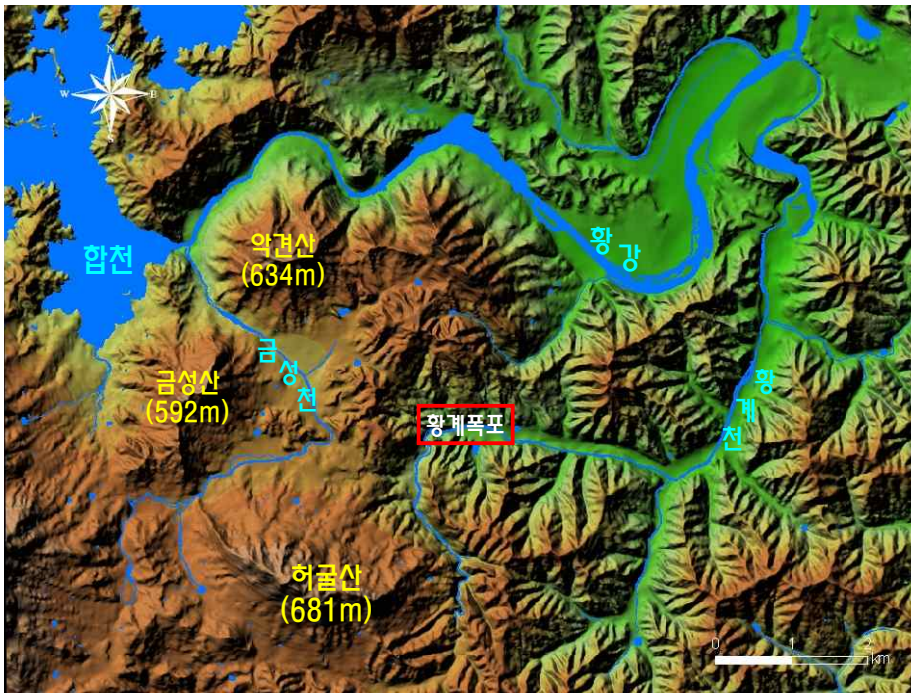
(5) 지형 및 식생 분석

가. 지형 및 지질

황매산(1,130m)과 허굴산(681m)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황계천을 이루며 흐르다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에서 2단의 황계폭포가 되어 떨어진다. 북쪽으로 흘러가던 황계천은 황계폭포 일대에서 동쪽으로 급격히 꺾이면서 흐르고 이윽고 장전리 일대에서 다시 북쪽으로 흘러 용지리에서 황강과 합류하여 빠져나간다. 황강의 지류하천인 황계천은 산발적으로 우뚝 솟아있는 산지사이를 단열곡류 하면서 흘러가는 하천이라서 산수가 아름답다.

황계폭포가 위치한 허굴산은 백두대간의 남덕유산(1,507m)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능선부의 말단부에 있다. 주변의 의령산(481m), 악견산(634m), 금성산(609m)과 함께 거대한 암괴들로 이루어져서 대병 4악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있다. 이중 허굴산과 금성산은 합천댐에 의해 형성된 합천호의 남쪽에 위치하며 주요 지류천을 황강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황계폭포 또한 허굴산에서 발원한 황계천이 황계리에 이르러 경사가 급변하는 협곡에서 형성된 폭포이다. 또한 이 지역은 최후빙기 이후 침식에 의해 노출된 핵석이 암괴원(block field)을 형성하며, 암괴 상부에는 나마(gnamma)가 발달하여 있다(박경근, 2011). 황계천 하상

종단면의 경사를 보면 2개의 경사변환점이 있는데, 중류 월계리에서는 황계폭포를 이루고 상류 월계리에서는 양리 일대의 금성천 상류가 물을 쟁탈하는 양상(stream piracy)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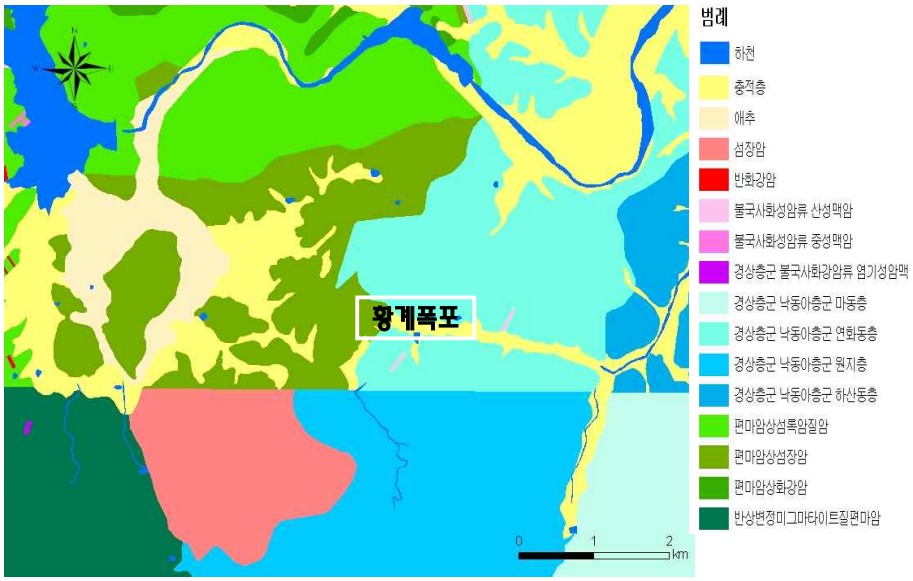
황계폭포 일대의 지형(DEM)

허굴산과 금성산 일대의 기반암을 전반적으로 중생대부터 수차례 화산활동에 의해 관입되거나 변성작용을 받은 암석이 층층이 쌓인 경상누층군에 해당한다. 최하부부터 살펴보면 시대미상의 반상변정 미그마타이트질 편마암이 분포한다. 그리고 그 위를 섬장암과 편마암상 섬록암질암이 관입하였다. 또한 곳곳에서 화강암이 관입하였으며 허굴산 서사면의 둔내리에서 잘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원지층 위를 충적층이 부정합적으로 피복되어 있다. 허굴산의 기반암인 섬장암은 석영 함유량이 화강암에 비해 매우 적거나(5%미만) 없고, 각섬석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 또한 알칼리 성질을 지닌 정장석이 많고, 사장석이 소량 포함되었으며, 섬록암을 함유하여 경관적으로 암갈색이나 밝은 청색을 볼 수 있다(박경근, 2011).

황계폭포를 포함한 오른편은 섬장암이고 왼편은 경상계에 해당하는 원지층이다. 따라서 황계폭포는 두 암석의 경계부를 따라 형성된 것이다. 상단 폭포 기저부를 살펴보면 두께 1m가량 암맥이 판상으로 관입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암맥의 풍화 속도가 빨라 그 위의 암석이 붕락(崩落)되면서 현재의 2단

폭포가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섬장암의 수평, 수직 절리도 2단 폭포 형성에 한몫을 했다(손일, 2011).

아래 지질도를 보면 서쪽에는 편마암섬장암 또는 섬장암이 분포하고 동쪽으로 경상계 퇴적암인 연화동층이 나타나는 데 두 암체가 황계폭포 지점에서 분기하는 양상을 보인다. 서로 다른 암질이 절묘하게 만나고 절리를 따라 침식되는 속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2단의 비교적 규모가 큰 폭포를 만들어 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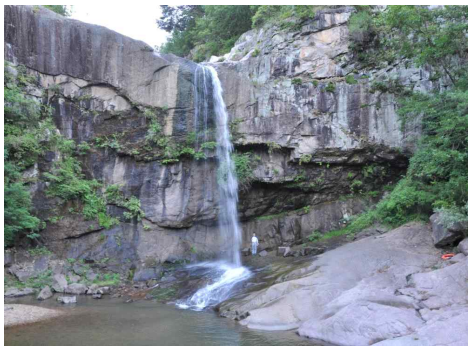


황계폭포 일대의 지질

나. 자연 경관



황계폭포 하단



황계폭포 상단

황계폭포는 합천댐 하류에서 경상층군을 따라 흐르는 대형 2단 폭포이다. 이 중에서 폭포 상단은 일종의 현곡(hanging valley)의 형태를 띠며, 경사가 급한 하도를 따라 약 18m정도를 단일하게 떨어진다. 그러나 유량이 적고 기반암이 단단하여, 폭호(plunge pool)가 크게 형성되지는 못하지만 단애의 규모가 커서

웅장한 느낌을 준다. 황계폭포 하단은 상단에 비해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단일 줄기로 낙하하지 않고 분류(分流)하는 형태로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비고는 높지 않지만 상단에서부터 공급된 하천이 집수하여 비교적 큰 폭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폭포 하단에는 일종의 암석단구에 해당하는 선이 관찰되는데 이 선을 따라서 약간의 경사차를 보인다.

다. 식생경관적 특징

황계폭포는 합천 7경 중의 하나로서 웅장한 2단 폭포와 주변의 자연림과 조화를 이룬다. 황계폭포 가는 진입부의 오솔길 변은 상수리나무, 신갈나무와 같은 참나무류 원개형 경관으로 고즈넉함을 안겨주며 하부에는 때죽나무, 붉나무, 화살나무, 누리장나무, 작살나무, 생강나무, 산초나무, 줄딸기, 국수나무, 청가시덩굴, 사위질빵 등이 출현하였다. 초본층에는 노란 꽃색이 아름다운 산괴불주머니를 중심으로 주름조개풀, 맑은대쑥, 노루발 등이 출현하였다. 오솔길 하부의 하천변 식생으로 갯버들이 중심 종으로 고마리 및 달뿌리풀이 우점하였다.

주변 절벽부 능선부에는 소나무가 주요경관을 차지하였으며 당단풍나무, 쇠물푸레나무, 조록싸리, 참싸리 등이 우점하였으며 소(沼) 주변 식생은 굴참나무를 중심으로 신갈나무, 굴피나무, 쇠물푸레나무 등의 낙엽활엽수경관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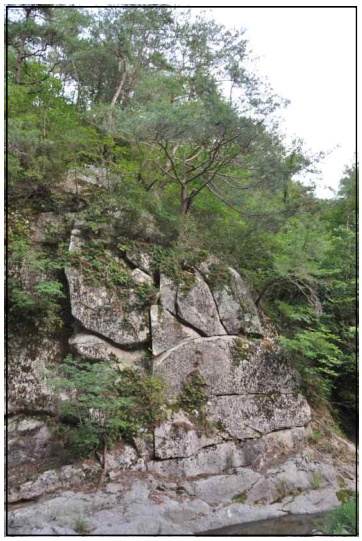
암벽 식생경관에 있어서 산철쭉을 중심으로 작살나무, 조팝나무, 화살나무, 담쟁이덩굴 등의 관목식생과 기린초, 산괴불주머니, 노루오줌, 돌단풍, 부처손, 원추리 등의 초본식생이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자연정 및 폭포 주변에 부분적으로 아까시나무와 같은 외래종이 생육하고 있었으며 환삼덩굴, 며느리배꼽의 확산이 예상되어 자생경관 유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황계폭포 진입로 주변 식생경관



마을 하천변 갯버들경관



하천변 암벽 식생(소나무경관)



황계폭포와 주변 식생전경



황계폭포 상부의 식생



황계폭포 상부 암벽 틈새식생



소(沼)주변의 참나무류 식생경관



소(沼)주변의 달뿌리풀군락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가.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

❍ 문화·역사적 가치: 합천 황계폭포 일원은 『여지도서』의 합천군 조에 폭포와 그 아래의 연못에 대한 기록이 전한다. 남명 조식이 이곳을 자주 왕래하였다고 하며, 그가 지은 시를 비롯해 당대의 진주권 유림들이 지은 다수의 옛 시문들이 전한다. 폭포로 들어가는 계곡의 초입부인 자연정 부근에는 지방 관

리와 유림들이 남긴 많은 각자들이 남아 있어 이곳을 마치 폭포의 입구인 것처럼 장소화하고 있다.

○ 지형적 가치: 허굴산에서 발원한 황계천이 좁고 긴 단열을 따라 곡류하면서 흘러가는 데 하상구배 차에 따라 두 개의 경사급변점이 형성되어 있다. 상류에 있는 경사급변점은 점차 두부침식(headward erosion)으로 유로가 연장되면서 금성천 수계를 쟁탈해가고 있으며, 중류에 있는 경사급변점은 황계폭포를 발달시켰다. 특히 황계천 중류는 중생대 경상계 퇴적암과 화성암 기원의 섬장암이 점이적으로 나타나면서 암질 차에 따른 침식력의 차로 인해 비교적 규모가 큰 폭포경관이 만들어졌다. 두 개의 단으로 구성된 황계폭포는 상단은 남자와 같이 거칠고 웅장한 느낌을 갖고 있고 하단은 여자처럼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이 있어 전체적으로 조화가 아름답다.

○ 식생적 가치: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합천댐 상류에 자리한 황계폭포는 참나무류 오솔길을 따라 걸으면 나타나는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암벽과 어우러지는 절경을 이루고 있다. 험준한 계곡을 감돌아 약 20여 미터 높이의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2단의 황계폭포는 항상 물이 마르는 않는 곳으로 비밀스럽고, 신비로움을 연출한다. 황계폭포 진입부의 좁은 오솔길경관은 마을하천경관과 함께 참나무류 수림터널을 형성하여 자연 속 운치를 더하며 울창한 숲길을 벗어나면 길목에 자연정(紫煙亭)이 나타난다. 자연경관과 더불어 인문적 요소(남명 조식 선생의 시비)를 가미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황계폭포는 주변의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폭포는 2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단부는 절벽으로 곧장 떨어지는 폭포이고 하단부는 바위절벽을 타고 흐른다. 이러한 수직적 지형 특성에 생육 가능한 암벽식물(쇠물푸레나무, 부처손, 기린초, 돌나물 등)과 하단부 폭포가 떨어져 만들어진 소(沼) 주변의 습생식물(고마리, 달뿌리풀 등), 황계폭포 주변을 위요하고 있는 산림식생(소나무 및 참나무류 자연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경관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향후 합천댐, 영상테마파크 등과 연계한 관광객들의 이용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진입로의 정비를 위한 오솔길 가장

자리 돌쌓기 등의 인위적 간섭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황계폭포, 자연정, 주변 자연림과 연계되어 자연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소극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지정조사 의견

❍ A 위원

○ 허굴산 남사면을 따라 흐르는 황계천에 발달된 폭포로 두 개의 단으로 구성된다. 상부 폭포는 폭포수가 폭호에 직하하는 형태이고 하부 폭포는 급사면을 흘러내리는 형태이다. 인접 지형이 급사면들로 이루어져 경관성은 훌륭하다. 다만 폭포에 인접한 상, 하류 지역이 모두 농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상류에 있는 저수지는 폭포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갈수기에는 물이 없는 폭포 혹은 오염이 심한 소량의 폭포수로 인하여 명승적 가치를 추구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다.

❍ B 위원

○ 황매산과 허굴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계류가 기암절벽을 만나 폭포수가 되어 떨어지는 경승임. 2단으로 이루어진 황계폭포는 상부의 1단 폭포는 20여m의 단애로 떨어지는 비폭이며,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는 2단 폭포는 하얀 포말을 이루며 급한 경사의 사면을 흘러내리는 절경을 나타내고 있음.

○ ‘좌안동우함양’이라하는 영남사림 문중에서 우함양을 대표하는 거유 남명 조식(1501~1572)의 ‘황계폭포’라는 시가 전하고 있어 인문학적 의미가 깊은 장소이기도 함.

○ 황계폭포는 자연경승으로서의 가치와 인문학적 의미가 중요한 대상으로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대상지임.

○ 단, 황계폭포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물로 인해 수질이 좋지 않아 물이 맑지 않음. 수질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C 위원

○ 황매산과 허굴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황계천을 이루며 흐르다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에서 황계폭포가 되어 떨어진다. 주위의 아름다운 경치와 잘 어울리는 명소로 구장산 계류가 아름답고, 주변의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험준하다. 경치 또한 절경이라, 20여 미터 높이 절벽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소리는 천둥이 떨어지는 소리 같이 우렁차고, 시기에 따라 그 수량이 줄어들 수 는 있으나, 마를 때가 없어 한 여름에도 더위를 잊게 한다. 1단 폭포 밑 소는 명주실 한 꾸리가 다 들어가도 닿지 않을 정도로 깊다하여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옛 선비들이 승경에 도취한 기록들이 있어서 저 유명한 중국의 여산폭포에 비유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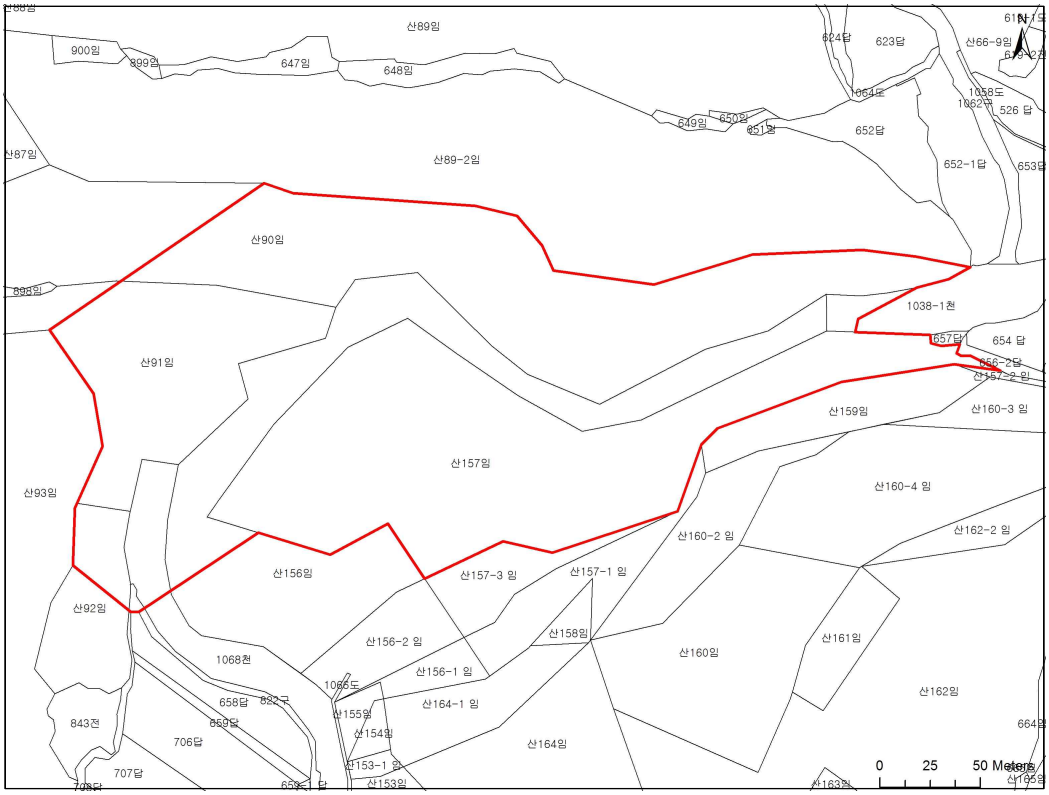
○ 황계폭포는 계곡을 따라 폭포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크고 2단으로 되어 있어 더욱 멋진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따라서 경치가 수려하고 주변에 특별한 인공적인 시설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천 황계폭포는 명승적 가치는 충분히 있고 명승으로 지정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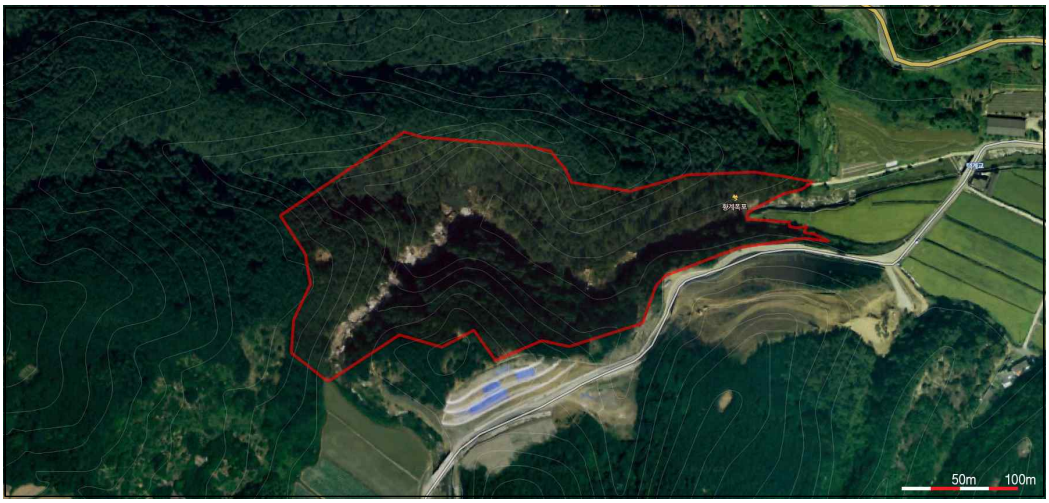
○ 다만, 주변 농경지와 관련 수질 오염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고 약간의 악취도 나고 있어 황계폭포를 명승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내용의 보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명승의 지정 범위

명승의 지정 명칭과 범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지정내용
명칭	합천(陜川) 황계폭포(黃溪瀑布) 일원
지정종별	명승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지번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산156번지 외 7필지
면적	56,541.0㎡
관리단체	경상남도 합천군청
문화재 지정 여부	지정 권장


산89임
900임
899임
647임
648임
649임
650임
651임
624답
623답
산66-9임
1038도
1062구
526 답
652답
652-1답
653답
산87임
산89-2임
산90임
898임
1038-1천
657답
654 답
656-2답
산157-2 임
산91임
산159임
산160-3 임
산157임
산93임
산160-4 임
산162-2 임
산160-2 임
산156임
산157-3 임
산157-1 임
산92임
산158임
산161임
산156-2 임
1068천
산156-1 임
1068도
산160임
산162임
658답
882구
산155임
산164-1 임
843전
859답
산154임
664답
706답
산164임
산153-1 임
707답
708답
659-1 답
산153임
산163임
산165임
0
25
50 Meters


50m
100m

8) 진주(晋州) 촉석루(矗石樓) 일원

(1) 지리지

촉석루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 비교적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두 자료 모두 하륜의 기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물들의 시문을 수록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하륜의 기문을 통해 촉석루의 유래, 형상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 『여지도서』에서는 본문에서 강가 바위의 형상이 촉석루의 유래가 되었음을 소개하고 있고, 촉석루와 그 주변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명칭	지리지	세부 항목	내 용
촉석루	신증동국여지승람	진주목	촉석성 안에 있다. 하륜의 기문, 정을보, 백문보, 백미견, 김구경, 정이오, 유호인, 이우의 시가 전한다.
	여지도서	진주목	촉석성 안에 있다. 아래로 긴 강이 흐르고, 강가[江上]에 큰 바위가 말뚝을 포갠 듯[架疊]이 우뚝 솟아있는데, 그 위에 누각을 지었으므로 '촉석루'라고 이름했다. 큰 평야가 멀리까지 펼쳐지고, 강물은 잡아당기듯 띠를 두르고 흐르며, 뭇 산봉우리들이 두 손을 마주잡고 절하는 듯한[拱揖] 자세를 취하고 있고, 깎아지른 듯한 암벽이 서남쪽을 두 동강내고[塹絶], 언덕의 대나무와 물가의 난초[汀蘭]가 좌우로 그늘을 드리우며, 물새[沙鳥]는 날개 짓하며 울고, 돛단배[風艇]가 드나드니, 참으로 으뜸가는 아름다운 경치이다. 하륜이 기문, 정을보, 백문보, 백미견, 김구경, 정이오, 허침, 유호인, 이우, 김종직, 이황의 시가 전한다.

(2) 고시문

촉석루를 다룬 고시문은 아름다운 촉석루의 경관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촉석루를 충절의 상징으로 노래하거나, 임진왜란 때의 비통함에 대해 읊은 작품도 일부 있다. 각 작품별 내용을 번역 및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촉석루-시(詩)	최립(崔岦)	『간이집(簡易集)』(권6)	〈촉석루(矗石樓)에서 차운하다.〉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권2)	〈촉석루에 다시 노닐며(重游矗石樓)〉
	정을보(鄭乙輔)	『동문선(東文選)』(권15)	〈진주 촉석루(晉州矗石樓)〉
	백미견(白彌堅)	『동문선(東文選)』(권18)	〈진주 촉석루에서 정면재의 시에 차운하여(晉州矗石樓次鄭勉齋韻)〉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촉석루 -시(詩)	이행(李荇)	『용재집(容齋集)』 (권7)	〈촉석루에서 차운하다(矗石樓次韻).〉
	김종직(金宗直)	『점필재집(佔畢齋集)』 (권5)	〈촉석루에서 교은의 시를 모방하다.(矗石樓。效郊隱。)〉
		『점필재집(佔畢齋集)』 (권5)	〈촉석루에 대한 잡시를 안동 조 교수에게 기증하다. 그가 일찍이 진주 학관으로 있으면서 가까이 지낸 여자가 있어 일찍이 향몽록을 저술하였다.(矗石樓雜詩。寄贈安東趙敎授。曾任晉學。有所盼。嘗著香夢錄。).〉
		『점필재집(佔畢齋集)』 (권9)	〈정 경차관이 촉석루에서 부친 시에 두 수로 화답하다.(和鄭敬差。矗石樓所寄。寄二首)〉
	남효온(南孝溫)	『추강집(秋江集)』 (권3)	〈진주(晉州) 촉석루(矗石樓)〉
	백문보(白文寶)	『동문선(東文選)』 (권18)	〈촉석루(矗石樓)〉
		『담암일집(淡庵逸集)』 (권1)	〈촉석루 시에 차운하다(次矗石樓韻).〉
	이황(李滉)	『퇴계집(退溪集)』 (권1)	〈촉석루(矗石樓)〉
	최익현(崔益鉉)	『면암집(勉菴集)』 (권2)	〈촉석루에서 퇴계선생의 시를 차운함.(矗石樓。次退溪先生韻。).〉
	김성일(金誠一)	『학봉전집(鶴峯全集)』 (권2)	〈촉석루(矗石樓)에서 지은 절구 한 수(矗石樓一絶)〉
	조준(趙浚)	『송당집(松堂集)』 (권2)	〈교수 최복린의 시운을 빌려(次崔敎授詩韻)〉
		『송당집(松堂集)』 (권2)	〈동년 최복린을 함안 교수로 보내며(送同年崔 敎授咸安)〉
	하연(河演)	『경재집(敬齋集)』 (권1)	〈因金經歷。寄監司南公。〉
	이석형(李石亨)	『저헌집(樗軒集)』 (권上)	〈晉州矗石樓韻〉
	이육(李陸)	『청파집(靑坡集)』 (권1)	〈矗石樓〉
		『청파집(靑坡集)』 (권1)	〈次矗石樓韻〉
	홍귀달(洪貴達)	『허백정집(虛白亭集)』 (권1)	〈題矗石樓圖二絶〉
	성현(成俔)	『허백정집(虛白亭集)』 (권6)	〈次晉州矗石樓韻〉
	유호인(兪好仁)	『뇌계집(濡谿集)』 (권2)	〈次佔畢齋矗石樓韻〉
		『뇌계집(濡谿集)』 (권3)	〈矗石樓〉
		『뇌계집(濡谿集)』 (권4)	〈矗石樓。次郊隱韻。〉
		『뇌계집(濡谿集)』 (권6)	〈次矗石樓韻〉
		『뇌계집(濡谿集)』 (권6)	〈矗石樓夜飮〉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촉석루-시(詩)	조위(曺偉)	『매계집(梅溪集)』 (권3)	〈燕行錄　晉州矗石樓。戲次許韻。〉
	김극성(金克成)	『우정집(憂亭集)』 (권1)	〈矗石樓小雨。寄擇之行軒。〉
		『우정집(憂亭集)』 (권3)	〈矗石樓〉
		『우정집(憂亭集)』 (권3)	〈矗石樓〉
	김안국(金安國)	『모재집(慕齋集)』 (권1)	〈次矗石樓韻〉
	김정국(金正國)	『사재집(思齋集)』 (권2)	〈次矗石樓韻〉
	송순(宋純)	『면앙집(俛仰集)』 (권1)	〈次晉州矗石樓韻〉
	박승임(朴承任)	『소고집(嘯皐集)』 (권2)	〈次矗石樓韻〉
	황준량(黃俊良)	『금계집(錦溪集)』 (권4 외집)	〈次矗石樓近體及長律〉
	양응정(梁應鼎)	『송천유집(松川遺集)』 (권1)	〈矗石樓〉
	정탁(鄭琢)	『약포집(藥圃集)』 (권1)	〈與琴聞遠。遊矗石樓。書贈一絶。〉
	권호문(權好文)	『송암집(松巖集)』 (권5)	〈次晉州矗石樓區字四韻。寄柳監司〉
	신응시(辛應時)	『백록유고(白麓遺稿)』	〈晉州矗石樓韻〉
	권문해(權文海)	『초간집(草澗集)』 (권2)	〈次矗石樓韻。示金季純。〉
	홍성민(洪聖民)	『졸옹집(拙翁集)』 (권4)	〈矗石樓韻〉
		『졸옹집(拙翁集)』 (권4)	〈晉州矗石樓韻〉
		『졸옹집(拙翁集)』 (권4)	〈晉州矗石樓韻〉
	김륵(金玏)	『백암집(柏巖集)』 (권1)	〈矗石樓韻〉
	조정(趙靖)	『검간집(黔澗集)』 (권1)	〈讀矗石樓韻。令人肝膽輪囷。仍竊效嚬。〉
	한준겸(韓浚謙)	『유천유고(柳川遺稿)』	〈矗石樓下灘泛舟。題絶壁。〉
		『유천유고(柳川遺稿)』	〈矗石樓下灘泛舟。題絶壁。〉
	조위한(趙緯韓)	『현곡집(玄谷集)』 (권6)	〈矗石樓〉
	목대흠(睦大欽)	『다산집(茶山集)』 (권2)	〈矗石樓。次退溪先生韻。〉
	조희일(趙希逸)	『죽음집(竹陰集)』 (권6)	〈晉陽節度南公。重建矗石樓，城壕，樓櫓。百械修擧之餘。乃能留意好事。使古跡不泯。其志可尙也。且思死事之人。不覺愴然興懷。適有誦得友人素灣翁詩韻。乃擬賦焉。〉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촉석루-시(詩)	조임도(趙任道)	『간송집(澗松集)』 (권1)	〈矗石樓偶吟〉
	오숙(吳䎘)	『천파집(天坡集)』 (제3)	〈矗石樓。次東皐韻。〉
	하홍도(河弘度)	『겸재집(謙齋集)』 (권1)	〈次姜牧使 矗石樓觀漲八韻〉
	하진(河溍)	『태계집(台溪集)』 (권3)	〈登矗石樓有感〉
	이소한(李昭漢)	『현주집(玄洲集)』 (권2)	〈矗石樓下。曾有亭子船。間爲潦水所漂失。爾後不復造。余之任之翊年。始復經紀之。以復舊物。而不用雜木。皆以竹成。竝依王元之黃州古事。以竹蓋之。而略用丹雘以文之。趁其年四月八日。懸燈泛水。時適李員外枝茂覲還京口。書扇爲別。〉
		『현주집(玄洲集)』 (권2)	〈將泛舟。兵相李令公設小宴于矗石樓上。口占錄示。〉
	이소한(李昭漢)	『현주집(玄洲集)』 (권2)	〈燈夕夜。泛南江。至召村驛前。還登矗石樓。令李君周卿呼韻〉
	황호(黃昊)	『만랑집(漫浪集)』 (권4)	〈次矗石樓韻〉
	조석윤(趙錫胤)	『낙정집(樂靜集)』 (권2)	〈矗石樓。示任使君, 申督郵 求和。〉
		『낙정집(樂靜集)』 (권3)	〈矗石樓〉
		『낙정집(樂靜集)』 (권3)	〈矗石樓〉
	박장원(朴長遠)	『구당집(久堂集)』 (권2)	〈自次子公韻至養痾。係錄中作。晉州矗石樓。次板上韻。〉
	남용익(南龍翼)	『호곡집(壺谷集)』 (권6)	〈泛舟矗石樓下。醉別李使君, 裵總兵, 曹提督。〉
	김창집(金昌集)	『몽와집(夢窩集)』 (권4)	〈過矗石樓有感〉
	김창흡(金昌翕)	『삼연집(三淵集)』 (권8)	〈晉州矗石樓〉
	이현조(李玄祚)	『경연당집(景淵堂集)』 (경연당시집 권1)	〈次矗石樓韻〉
		『경연당집(景淵堂集)』 (경연당시집 권1)	〈題矗石樓〉
	권두경(權斗經)	『창설재집(蒼雪齋集)』 (권2)	〈矗石樓卽事〉
		『창설재집(蒼雪齋集)』 (권2)	〈泛月還登矗石樓〉
		『창설재집(蒼雪齋集)』 (권2)	〈晉陽牧伯尹遠仲　寄示矗石樓感古之作。次韻却寄。〉
	이재(李栽)	『밀암집(密菴集)』 (권1)	〈登晉陽矗石樓〉
	신의황(申益愰)	『극재집(克齋集)』 (권1)	〈矗石樓〉
	신유한(申維翰)	『청천집(靑泉集)』 (권1)	〈題矗石樓〉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촉석루 -시(詩)	김도수(金道洙)	『춘주유고(春洲遺稿)』 (권1)	〈矗石樓。書示李節度。〉
	최흥원(崔興遠)	『백불암집(百弗菴集)』 (권1)	〈登矗石樓。次三壯士韻。〉
	황경원(黃景源)	『강한집(江漢集)』 (권2)	〈矗石樓〉
	이인상(李麟祥)	『능호집(凌壺集)』 (권1)	〈向矗石樓紀行〉
	채제공(蔡濟恭)	『번암집(樊巖集)』 (권3)	〈題矗石樓〉
	이동급(李東汲)	『만각재집(晩覺齋集)』 (권1)	〈矗石樓〉
	윤기(尹愭)	『무명자집(無名子集)』 (책4)	〈矗石樓〉
	조수삼(趙秀三)	『추재집(秋齋集)』 (권4)	〈矗石樓〉
	남공철(南公轍)	『금릉집(金陵集)』 (권1)	〈矗石樓夜宴〉
	김려(金鑢)	『담정유고(藫庭遺藁)』 (권12)	〈登矗石樓。呈李節度 口號。〉
	이학규(李學逵)	『낙하생집(洛下生集)』 (책19)	〈矗石樓〉
	신좌모(申佐模)	『담인집(澹人集)』 (권8)	〈矗石樓。次板上韻。〉
	이유원(李裕元)	『가오고략(嘉梧藁略)』 (책5)	〈矗石樓〉
	이진상(李震相)	『한주집(寒洲集)』 (권2)	〈矗石樓次板上韻〉
	강위(姜瑋)	『고환당수초(古歡堂收艸)』(시고 권2)	〈矗石樓〉
		『고환당수초(古歡堂收艸)』(시고 권7)	〈矗石樓。和朴晩醒。〉
	허유(許愈)	『후산집(后山集)』 (권2)	〈矗石樓。次退溪先生板上韻。〉
	송병선(宋秉璿)	『연재집(淵齋集)』 (권1)	〈矗石樓。次板上韻。〉
	기우만(奇宇萬)	『송사집(松沙集)』 (권1)	〈矗石樓有感〉
	김택영(金澤榮)	『소호당집(韶濩堂集)』 (소호당시집 권2)	〈矗石樓〉
	조긍섭(曺兢燮)	『암서집(巖棲集)』 (권5)	〈矗石樓〉
		『암서집(巖棲集)』 (권6)	〈陪彝庭至晉西將還。晦峰與諸友送至矗石樓。孝謹時寓城中。爲設厨傳甚盛。乘月乃罷。〉
	문경동(文敬仝)	『창계집(滄溪集)』 (권20 속집)	〈晉州用兪濡溪韻。書矗石樓。僕與金瑛之共和。〉
		『창계집(滄溪集)』 (권20 속집)	〈次矗石樓韻〉
	어득강(魚得江)	『관포시집(灌圃詩集)』	〈宿矗石樓〉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촉석루-시(詩)	정환(丁煥)	『회산집(檜山集)』 (권1)	〈次矗石樓韻〉
	유홍(兪泓)	『송당집(松塘集)』 (권1)	〈次晉州矗石樓韻〉
	금난수(琴蘭秀)	『성재집(惺齋集)』 (권1)	〈登矗石樓。與鄭子精共賦一絶。〉
	여대로(呂大老)	『감호집(鑑湖集)』 (권1)	鑑湖先生文集卷之一　七言律詩　〈題矗石樓榜會契軸〉
		『감호집(鑑湖集)』 (권1)	〈矗石樓〉
	김지남(金止男)	『용계유고(龍溪遺稿)』 (권3)	〈矗石樓次韻〉
	조우인(曺友仁)	『이재집(頤齋集)』 (권1)	〈矗石樓次〉
	신지제(申之悌)	『오봉집(梧峯集)』 (권2)	〈點化呂陜川聖遇 題癸未榜會矗石樓〉
		『오봉집(梧峯集)』 (권4)	〈次矗石樓韻〉
	김중청(金中淸)	『구전집(苟全集)』 (권2)	〈矗石樓韻〉
		『구전집(苟全集)』 (권3)	〈矗石樓次韻〉
	신즙(申楫)	『하음집(河陰集)』 (권1)	〈矗石樓懷古〉
	권극중(權克中)	『청하집(靑霞集)』 (권4)	〈矗石樓夜宴〉
	한몽삼(韓夢參)	『조은집(釣隱集)』 (권1)	〈矗石樓。次板上韻。〉
	정필달(鄭必達)	『팔송집(八松集)』 (권1)	〈矗石樓。次鄭郊隱 板上韻。〉
	이하진(李夏鎭)	『육우당유고(六寓堂遺稿)』(책2)	〈登矗石樓有作〉
		『육우당유고(六寓堂遺稿)』(책2)	〈登矗石樓〉
	이지걸(李志傑)	『금호유고(琴湖遺稿)』 (권4)	〈次矗石樓題詠韻〉
	정석달(鄭碩達)	『함계집(涵溪集)』 (권1)	〈晉陽矗石樓夜吟〉
	이하조(李賀朝)	『삼수헌고(三秀軒稿)』 (권2)	〈汝奎兄在晉陽。用先君子矗石樓韻。作長古以寄之。不敢不和呈。〉
	권덕수(權德秀)	『포헌집(逋軒集)』 (권1)	〈題矗石樓〉
	김명석(金命錫)	『우계집(雨溪集)』 (권2)	〈登矗石樓〉
		『우계집(雨溪集)』 (권2)	〈矗石樓。次板上韻。〉
	윤봉오(尹鳳五)	『석문집(石門集)』 (권3)	〈矗石樓。次板上韻。〉
	정기안(鄭基安)	『만모유고(晩慕遺稿)』 (권1)	〈矗石樓。次板上韻。〉
	서명서(徐命瑞)	『만옹집(晩翁集)』 (권1)	〈登矗石樓〉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촉석루 -시(詩)	서명서(徐命瑞)	『만옹집(晩翁集)』 (권1)	〈次惠之矗石樓韻〉
	최천익(崔天翼)	『농수집(農叟集)』 (집上)	〈自統營還路。登矗石樓有作。〉
		『농수집(農叟集)』 (집上)	〈矗石樓。次靑泉韻。〉
	강세진(姜世晉)	『경현재집(警弦齋集)』 (권2)	〈登矗石樓〉
	김상정(金相定)	『석당유고(石堂遺稿)』 (권5)	〈矗石樓〉
	조진관(趙鎭寬)	『가정유고(柯汀遺稿)』 (권1)	〈矗石樓〉
	이명오(李明五)	『박옹시초(泊翁詩鈔)』 (권8)	〈矗石樓。次板上韻。晩兒同作。〉
	이재의(李載毅)	『문산집(文山集)』 (권5)	〈題矗石樓〉
	안석경(安錫儆)	『삽교집(霅橋集)』 (권1)	〈南將臺〉
	서영보(徐榮輔)	『죽석관유집(竹石館遺集)』(책1)	〈鐵甕南將臺。酬柳生。〉
	조수삼(趙秀三)	『추재집(秋齋集)』 (권2)	〈登南將臺〉
	성근묵(成近默)	『과재집(果齋集)』 (권1)	〈登南將臺〉
	홍한주(洪翰周)	『해옹고(海翁藁)』 (권3)	〈上大興山城南將臺〉
	신좌모(申佐模)	『담인집(澹人集)』 (권4)	〈南將臺。拈山字。〉
촉석루 -문(文)	하륜(河崙)	『동문선(東文選)』 (권81)	〈진주 촉석루 기(晋州矗石樓記)〉
		『호정집(浩亭集)』 (권2)	〈矗石樓記〉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권13)	〈촉석루에서 연유[71]할 때 지은 시의 서(矗石樓讌游詩序)〉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권14)	〈촉석루에서 두 번째 노닐은 기(再游矗石樓記)〉
	이상정(李象靖)	『대산집(大山集)』 (권42)	〈호남의 통문에 답함(答湖南通文).〉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권13)	〈촉석루(矗石樓)〉
	유호인(兪好仁)	『뇌계집(濡谿集)』 (권7)	〈在與齡第。先寄矗石樓。〉
	성여신(成汝信)	『부사집(浮査集)』 (권4)	〈晉州營將姜公軍卒頌德碑銘〉
	하수일(河受一)	『송정집(松亭集)』 (권4)	〈矗石樓重修記〉
	이만부(李萬敷)	『식산집(息山集)』 (별집 권3)	〈自德川轉上矗石樓〉
의암 -시(詩)	심육(沈錥)	『저촌유고(樗村遺稿)』 (권10)	〈의암(義巖)〉

명칭	지은이	출처	관련 시문, 산문
의암 -시(詩)	윤봉오(尹鳳五)	『석문집(石門集)』 (권3)	〈누대 앞에 의로운 기녀인 논개가 순절한 곳이 있어 의암이라고 하였기에 절구 한 수를 짓다.(樓前。有義妓論介殉節處。仍以義巖爲名。爲題一絶。)〉
	김상정(金相定)	『석당유고(石堂遺稿)』 (권5)	〈의암(義巖)〉
	조진관(趙鎭寬)	『가정유고(柯汀遺稿)』 (권1)	〈의암(義巖)〉
의암 -문(文)	오두인(吳斗寅	『양곡집(陽谷集)』 (권3)	〈의암기(義巖記)〉

<시(詩)>

1. 최립(崔岦, 1539~1612), <촉석루(矗石樓)에서 차운하다.>, 『간이집(簡易集)』 卷6[72]

바위 늙고 강은 텅 빈 고즈넉한 별천지 / 石老江空悄別區
동남쪽에 만고토록 이 누대가 서 있도다. / 東南萬古有玆樓
그동안 평지에 있으면서 경승(景勝)을 독점해 왔나니 / 由來擅勝還平地
구태여 상류 향해 도원(桃源)을 찾을 게 있으리오. / 莫去尋眞向上流
맑은 날엔 노을 밖에 걷어 올리는 주렴(珠簾)이요 / 繡箔晴仍霞外捲
달 밝은 밤엔 싫증나도록 물에 띄우는 난주로세 / 蘭舟夜厭月中浮
한 번만 올라선다 해도 범골이 아니라 할 것인데 / 一登定自非凡骨
하물며 삼 년이나 학주를 차지했음이랴 / 何況三年占鶴州

* 조선 중기의 문신 최립(崔岦)이 촉석루의 풍경을 읊은 시이다. 촉석루 일대는 범상치 않은 승경을 자랑한다고 하였다. 촉석루가 평지에 있으면서도 일대에서 최고의 승경으로 칭송되었으니, 굳이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따로 무릉도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곳에 머물게 된 인연에 감격하였다.

71) 연유(讌游): 잔치를 벌여 노님
72)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본을 참조함.

2.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촉석루에 다시 노닐며(重游矗石樓)>,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卷2[73]

세 번째 오른 황학루 흥취 한량없는데 / 黃鶴三登興未窮
재차 찾은 현도관 또다시 춘풍 속이네. / 玄都再過又春風
버들에 기댄 놀잇배 푸른빛을 더하였고 / 畫船依柳新添碧
꽃 같은 가무 기생 붉은빛 약간 가셨구나. / 歌妓如花半褪紅
비단으로 싼 고인 시 벽 위에 아직 있는데 / 尙有紗籠懸壁上
다시 선녀 거느리고 물결 속에 놀았으면 / 且將羅襪弄波中
절도사 부절 나눈 그곳이 어디런가 / 欲知節度分符處
지금은 황주의 비단 무더기 속[74]에 계신다네. / 正在黃州錦綺叢

* 조선 후기의 문인 정약용(丁若鏞)은 촉석루에 관한 시문을 여러 차례 지었다. 이 시는 촉석루를 세 번째 방문할 때 쓴 것이다. 푸른 버들과 붉은 꽃나무가 피어 있는 가운데 놀잇배가 강에 떠 있고, 현판에는 지난날 촉석루에 올라지었던 시인의 시가 보관되어 있다. 장인 홍화보가 지은 시인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은 이 풍경을 바라보며 황해도 병마절도사로 가 있는 장인 홍화보(洪和輔)를 떠올리고 있다. 논개의 위패를 모신 의기사(義妓祠)는 1740년(영조 16)에 경상우병사 남덕하(南德夏)가 건립하였으며, 1779년(정조 3) 우병사 홍화보(洪和輔)가 보수한 바 있는데, 이 때문에 장인 홍화보를 언급한 것이다.

3. 정을보(鄭乙輔, ?~?), <진주 촉석루(晉州矗石樓)>, 『동문선(東文選)』 卷15[75]

황학루는 그 시대에 유명했기에 / 黃鶴名樓彼一時
최군은 일 만들기 좋아하여 우연히 시 남겼지 / 崔君好事偶留詩
올라보니 경치는 다름이 없는데 / 登臨景物無增損

---

73)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본을 참조함.
74) 황주의 비단 무더기 속: 고려시대 황주 지역에서 산대놀이를 하면서 설치한 무대를 꾸밀 때 많은 비단으로 장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컬은 것으로 보인다.
75)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본을 참조함.

편액의 글 품격은 성쇠가 보이누나. / 題詠風儀有盛衰
옥 술잔을 높이 드니 강물 위로 달이 솟아나고 / 玉斝高飛江月出
주렴을 반쯤 걷으니 고개에 구름 드리웠네. / 珠簾半捲嶺雲垂
난간서 고개 돌리매 천지가 작아 뵈니 / 倚欄回首乾坤小
알리라 우리 고을 경치 특별히 기이한 줄 / 方信吾州特地奇

* 『동문선(東文選)』에 수록된 고려 후기 문인 정을보(鄭乙輔)의 시이다. 촉석루를 중국의 황학루에 빗대고 황학루에 시를 써 걸어두었던 최호(崔顥)를 떠올리며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촉석루에서 술을 마시며 바라보는데 강물 위로 달이 뜨고 고개에 반쯤 구름이 걸려 있어 천지가 작게 느껴지며 그곳이 승경임을 알겠다고 하였다.

4. 백미견(白彌堅, ?~?), <진주 촉석루에서 정면재(鄭勉齋)의 시에 차운하여(晉州矗石樓次鄭勉齋韻)>, 『동문선(東文選)』 卷18[76]

불우한 신세라고 유람을 못할손가 / 遊賞非關不遇時
산수의 승경을 시로 읊어야 하리 / 湖山勝景要哦詩
누구의 안목으로 당초에 이 집을 이룩했나 / 窮誰眼力曾經始
내 몸과 나이도 아직 안 늙은 것 자랑하네 / 誇我身年未及衰
기둥에 기대어 바라보니 하늘 땅이 이어있고 / 倚柱乾坤無處斷
물결로 짠 발과 장막이 허공에 드리웠네 / 織波簾幕半空垂
가을달의 풍류는 적선(謫仙)이 시 읊을 만하고 / 風流秋月謫仙詠
저문 강에 어여차 어부들의 뱃노래 / 款乃暮江漁父詞
담소로 한 잔 들며 회포를 펴노니 / 談笑一杯聊自遣
사흘 만에 한 번 내왕 오히려 더디다네 / 竭來三日以爲遲
서남 쪽 기슭에 무성한 숲이랑 대랑 / 茂林脩竹西南岸
나의 정자 너무나 기특할까 도리어 두렵네 / 還恐吾亭分外奇

* 『동문선(東文選)』에 수록된 고려 후기 문신 백미견(白彌堅)의 시이다.

76)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본을 참조함.

5. 이행(李荇, 1478~1534), <촉석루(矗石樓)에서 차운하다(矗石樓次韻).>,『용재집(容齋集)』卷7

여생에 다행히 명승지 저버리지 않아 / 餘生幸不負名區
영남 제일 누각이라 여기 올라왔도다. / 來倚維南第一樓
타지에서 좋은 이들 반가이 만났으니 / 華蓋異方眞邂逅
밤새 술자리 벌여 풍류를 한껏 누리노라 / 綺筵終夕極風流
봉우리들은 곧바로 긴 강을 에워쌌는데 / 峯巒直爲長江擁
수목 아스라이 이어진 곳 저녁놀 떴구나. / 樹木遙連暮靄浮
평소 익히 들어온 곳 지금 맘껏 보노니 / 平日飽聞今快覩
사람들 만나면 주절주절 진주의 경치 얘기하리. / 逢人吃吃說菁州

*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행(李荇)이 촉석루에 올라 풍경과 흥취를 읊은 시이다. 봉우리들을 긴 강이 에워싼 풍경, 숲 저편으로 저녁노을이 지는 모습 등을 그렸으며, 영남 제일의 누각이라 일컬어지는 촉석루에 마침내 오게 된 기쁨과 사람들과 나누는 술자리에서의 흥취를 표출하였다.

6. 김종직(金宗直, 1431~1492), <촉석루에서 교은의 시를 모방하다(矗石樓效郊隱).>,『점필재집(佔畢齋集)』卷5

높은 누각 밝은 달 매화꽃이 필 때에 / 高樓明月梅花時
조물주가 내 흥취 돋워 시 한 수를 내놓게 하네. / 造物撩我拚一詩
수건 물은 청조가 비단 자리에 모이니 / 銜巾靑鳥集錦筵
취흥에 번화함이 쇠해진 걸 깨닫지 못하도다. / 醉興未覺繁華衰
풍광은 향초의 물가에 넘쳐흐르는데 / 光風泛溢蘼蕪渚
물가의 수양버들엔 석양빛이 더디구려 / 渚邊楊柳斜陽遲
난간에 기대어 구름바다를 두루 바라보니 / 欄干倚遍望雲海

철적 소리가 은연중에 비경사[77]에 화답하누나. / 鐵笛暗和飛瓊詞
단구(丹丘; 선계)의 어느 곳도 이를 수가 있는지라 / 丹丘何處擬可到
거울 속에 흰 털 드리운 게 두렵지 않다오. / 鏡中不怕霜毛垂
하늘에 전문(牋文) 올리고 손뼉 치며 웃으니 / 牋與天公拍手笑
옆 사람들 다투어 일단의 기이함이라 말하네. / 傍人爭道一段奇
일찍이 바닷가 제일가는 구역이라 들었더니 / 海上曾聞第一區
봄바람 속에 찾아와 중선루에 기대었네. / 春風來倚仲宣樓
속인으로 청상(淸賞)에 어둡다고 스스로 싫어하지만 / 自嫌塵土迷淸賞
어찌 강산이 명사(名士)를 저버리겠는가. / 豈有湖山負勝流
자꾸자꾸 매화는 술을 맞아 웃는 듯하고 / 故故梅花迎酒笑
울어대는 촉옥새는 사람을 향해 떠오누나. / 關關屬玉向人浮
동으로 흰 구름 바라보니 정위(부모의 거처)가 가까워라 / 白雲東望庭闈近
한가로이 시름하여 먼 고을에서 지체할 것 없네. / 不用閑愁滯遠州

* 조선 전기의 문신 김종직(金宗直)이 교은(郊隱) 정이오(鄭以吾, 1347~1434)의 시를 본떠 촉석루에 올라 바라본 풍경과 감회를 읊은 시이다. 바닷가 제일가는 곳이라고 평소에 익히 들어왔던 촉석루를 찾아가 매화 핀 봄날의 승경을 찬탄하며 한적함을 느끼고 있다.

7. 김종직(金宗直, 1431~1492), <촉석루에 대한 잡시를 안동 조 교수에게 기증하다. 그가 일찍이 진주 학관으로 있으면서 가까이 지낸 여자가 있어 일찍이 향몽록을 저술하였다.(矗石樓雜詩。寄贈安東趙敎授。曾任晉學。有所盼。嘗著香夢錄。)>, 『점필재집(佔畢齋集)』 卷5

주연이 무르녹고 외로운 달 서상에 내릴제 / 酒闌孤月下西廂
언덕 저편에 등불 든 사람이 보이누나. / 隔岸人看畫燭光

77) 비경사: 비경(飛瓊)은 옛 선인(仙人)으로, 서왕모(西王母)의 시녀(侍女)인 허비경(許飛瓊)을 가리킨다. 옛날 허혼(許渾)이 꿈에 곤륜산(崑崙山)에 올라가 두어 사람이 술마시는 것을 보고 시를 읊기를 "새벽에 요대를 들어오니 이슬 기운 맑은데, 좌중에는 오직 허비경만이 있구려. 속된 마음 끊이지 않고 세속 인연 남았는데, 십 리라 하산에 부질없이 달만 밝구나(曉入瑤臺露氣淸 座中唯有許飛瓊 塵心未斷俗緣在 十里下山空月明)" 라고 했던 고사에서 온 말이다.

괴이해라 매화가 다시 수척해졌노니 / 怪底梅花更消瘦
하룻밤 적막한 뜰에 얇은 서리가 내렸구려. / 空階一夜有微霜

위아래 물가에선 봄 물이 나오는데 / 上渚下渚春水生
개인 날에 꽃다운 향기 주렴에 가득하네. / 芳菲晴日滿簾旌
어옹은 느릿느릿 뱃전 울리며 돌아오니 / 漁翁款款鳴桹返
성 안의 인가에는 모두 달빛 밝구려. / 城裏人家盡月明

무성한 긴 숲이 푸른 절벽에 연했는데 / 長林藹藹連蒼壁
단장한 성문과 해자엔 저녁 빛이 새롭구려. / 粧點臺隍晩色新
게으른 나그네는 그림 같은 줄을 모르고 / 倦客不知爲畫本
두어 행인만이 난간에 홀로 서있네 / 欄干獨立數行人

작은 병의 봄빛이 가지에 매우 대단하여 / 小甁春色最繁枝
젊은이와 노인 함께 술잔을 기울이네 / 鐵面蒼髯共一巵
물총새가 날아와서 훔쳐보려고 하니 / 翡翠飛來欲偸眼
이는 바로 누각 머리에 주렴을 걷을 때로세 / 樓頭正是捲簾時
[이 때 매화와 동백(冬柏) 각 한 가지씩 꺾어서 작은 병에 꽂아 책상 위에 놓았었다.]

백백과 주주 두 여자 신선을 / 白白朱朱兩女仙
학궁의 재자가 본래 응당 예뻐했으리. / 虞庠才子故應憐
그 당시 춘풍의 얼굴 지금도 여전할 텐데 / 依然當日春風面
근래엔 향기로운 꿈 몇 번이나 꾸었는고. / 香夢年來幾度圓

강물과 강꽃은 도리어 정이 있거늘 / 江水江花還有情
누각에 기댄 사람은 영가성에서 늙는구나. / 倚樓人老永嘉城
소랑(蘇娘)[78]이 뛰어난 문장을 대단히 찬탄했으니 / 蘇娘絶嘆文章妙

78) 소랑(蘇娘): 사침(謝玼)의 첩인 소자궁(蘇紫蘭)을 이르는데, 그가 사침을 사랑하나 가까이 할 길이 없자, 시아(侍兒)를 보내서 사침이 항상 입는 작은 적삼을 빌려다가 낮에는 이것을 속에 입

일찍이 화전(華牋)과 채필(綵筆) 울리는 걸 보았었다오 / 曾見華牋綵筆鳴
['인로(人老)'와 '필명(筆鳴)'은 그 가까이 지낸 여자의 말을 기록한 것이다.]

* 김종직(金宗直)이 촉석루에 대한 연작시를 지어 조교수에게 준 시이다. 1~4연에서는 촉석루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묘사하였고, 5~6연에서 조교수가 진주 학관으로 있을 때 가까이 지내던 여인을 떠올리고 있다. 명승 자원으로서의 아름다움은 1~4연에 집중되어 있다. 1연에서는 뜰에 얇게 서리가 내리고 매화가 핀 달밤에 술자리가 무르익은 풍경, 2연에서는 맑게 갠 날 꽃 향기 풍겨오고, 강물에는 유유히 배를 탄 어옹이 있으며, 성 안의 인가에는 달이 뜬 풍경, 3연에서는 푸른 절벽에 긴 숲이 이어지고 성문과 해자에 석양이 비치는 풍경을 배경으로 그림처럼 서 있는 나그네의 모습, 4연에서는 작은 화병에 매화와 동백을 꽂아두었는데 물총새가 날아와 주렴을 걷어 보는 풍경을 읊고 있다.

8. 남효온(南孝溫, 1454~1492), <진주(晉州) 촉석루(矗石樓)>, 『추강집(秋江集)』 卷3

누각이 큰 강 옆에 우뚝 솟아 있으니 / 樓壓大江面
기이한 경관 해동에 으뜸일세. / 奇觀甲海東
굽어보며 마시는 한 잔 물 / 登臨一瓢水
차갑기가 선승과 같도다. / 冷與禪僧同

* 조선 전기에 남효온(南孝溫)이 촉석루를 읊은 시이다. 촉석루의 경관이 해동의 으뜸이라고 찬탄하였으며, 누각에 올라 물을 마시며 선승의 차고 깨끗한 정신을 떠올렸다.

고 밤에는 이것을 덮고 잤더니, 사침이 그 사실을 알고는 시를 부쳐 이르기를 "소랑과 한 번 작별한 후 꿈마저 드물었는데, 푸른 적삼을 빌려가니 목마름이 위로되누나. 만일 그윽한 정을 거듭 펴고자 한다면, 응당 사랑의 옷을 지어주기 바란다오.(蘇娘一別夢魂稀 來借青衫慰渴飢 若使閑情重作賦 也應願作謝郎衣**)" 라고 했다고 한다.**

9. 심육(沈錥, 1685~1753), <의암(義巖)>, 『저촌유고(樗村遺稿)』 卷10

옛 기녀에 명망 있는 이가 있었으니, 왜장과 바위 위에서 마주보고 춤을 추다가 그가 술에 취하자 그의 목을 안고 강물로 투신하였다. 지금 사람들이 의암(義岩)이라 부르고, 입석(立石)에 그 일을 기록하였으니, 백 년이 지난 뒤에도 사람을 흐느끼게 한다. 무릇 세상에서 절의(節義)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이것을 보고 스스로 부끄러워할 만하다.

有古妓名論者。與倭將對舞于岩上。仍其醉酣。乃抱其頸而自投于江。至今人稱義岩。亦有立石記其事。百世之下。令人嗚咽。凡世之不識節義者。視此。亦可以自愧矣。

가녀린 여인 이름 해와 달 따라 함께하고 / 弱女名隨日月俱
울퉁불퉁한 바위 하나 강 모퉁이에 펼쳐졌는데 / 槎枒一石殿江隅
죽음 보길 침착히 하며 땅으로 돌아가듯하니, / 從容視死如歸地
천추의 못난 장부 부끄럽기 그지없어라. / 愧殺千秋劣丈夫
촉석루 가파르게 솟아 명성도 높고 / 矗石崢嶸有大名
붉은 빛깔 난간 높고도 밝구나. / 朱楹丹檻儘高明
당시 여러 공들도 죽었는데 / 亦緣當日諸公死
다른 누대와 한가지로 평하려는가. / 輸與他樓一例評

* 심육(沈錥)은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의 문인으로서 강화학파(江華學派)의 중심인물이다. 평생 여러 차례의 소명(召命)을 받았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대부분을 강학(講學)과 유람(遊覽)으로 보냈다. 서문에서 논개의 의로운 행적과 '의암'이라 불리게 된 사연을 소개하고, 감동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일이라고 칭송한 뒤, 시에서 그 감회를 읊었다. 강물에 솟은 바위에 의연히 죽음을 맞이한 논개의 모습을 묘사하여 못난 장부를 부끄럽게 할 만한 일임을 말하고 우뚝 솟은 촉석루와 붉은 난간의 모습을 묘사하여 그의 의로움의 높고 밝은 명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문(文)>

1. 하륜(河崙, 1347~1416), <진주 촉석루 기(晋州矗石樓記)>, 『동문선(東文選)』 卷81[79]

누관(樓觀)을 경영하는 것은 정치하는 자의 여사(餘事)이긴 하나 그 흥하고 폐하는 것으로써 인심(人心)과 세도(世道)를 짐작할 수 있다. 세도는 오르내림이 있는 까닭에 인심의 슬픔과 즐거움이 한결같지 아니하고, 누관이 흥하고 폐하는 것도 그에 따르게 된다. 그렇다면 누관 하나가 폐하고 흥하는 것으로써 한 고을의 인심을 알 수 있고, 한 고을의 인심으로써 한때의 세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니, 어찌 여사로만 돌리고 작게 여길 수 있겠는가.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오래되었는데, 지금 우리 고을 촉석루를 보고 더욱 믿어진다.

樓觀之經營。爲治者之餘事耳。然其廢興。可以見 人心世道矣。世道有升降。而人心之哀樂不同。樓 觀之廢興。隨之。夫以一樓之廢興。而一鄕之人心。 可知矣。一鄕之人心。而一時之世道。可知矣。則亦 豈可以餘事而小之哉。予爲此說者。久矣。今於予 鄕之矗石樓。益信之矣。

누는 용두사(龍頭寺) 남쪽 석벽 위에 있는데, 나는 옛날 소년 시절에 여러 번 올라가 보았다. 누의 규모는 우람하고 넓어 내려다보면 까마득하고, 그 밑으로는 긴 강이 흐르며 여러 봉우리는 밖으로 벌여서 있다. 여염의 상마(桑麻)와 누대의 화목(花木)이 그 사이로 은은히 비치며, 푸른 바위, 붉은 벼랑, 긴 개울, 비옥한 땅이 그 곁에 이어져 있다. 백성의 기운은 맑고 풍속은 후하며 노인들은 편안하고 젊은 자는 순종하며, 농사짓는 농부나 누에치는 아낙네는 제 임무에 부지런하고, 효성스러운 자식과 사랑스러운 손자는 제 힘을 다하여 봉양하고, 방아타령은 마을마다 이어지고 뱃노래는 어촌을 누비며, 온갖 새는 무성한 숲속에서 우짖고 고기떼는 그물에 걸릴 위험이 없으니, 한 구역에 있는 것들이 모두 제 자리를 얻은 것을 볼 수 있다. 더구나 화사한 꽃, 시원한 그늘, 맑은 바람, 밝은 달이 때맞추어 이르고, 소장영허(消長盈虛)와 회명음청

79)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본을 참조함.

(晦明陰晴)의 변화가 서로 바뀌어 끊이지 않으니 즐거움이 또한 무궁하다.

樓在龍頭寺南石崖之上。 予昔少年登望者。屢矣。樓之制。宏敞軒豁。俯臨渺 茫。長江流其下。衆峯列于外。閭閻桑麻。臺榭花木。 隱暎乎其間。翠巖丹崖。長洲沃壤。相接于其側。人氣以淸。俗習以厚。老者安。少者趨。農夫蠶婦。服其 勤。孝子慈孫。竭其力。舂歌連巷而低仰。漁唱緣岸 而長短。禽鳥鳴翔。能自知於茂林。魚鼈游泳。亦無 厄於數罟。物於一區而得其所者。俱可觀矣。至若 繁英綠陰。淸風皓月。以時而至。消長盈虛之化。晦 明陰晴之變。相代而不息。樂亦無窮矣。

그 누의 명칭에 대해서는 담암(淡庵) 백선생(白先生)의 기문이 있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강 가운데 돌이 삐죽삐죽 나온 것이 있어서 누각을 짓고 이름을 촉석(矗石)이라 했다. 김공의 손으로 시작되고 안상헌(安常軒)이 다시 지었는데 모두 장원급제한 이들이다. 그래서 겸하여 이름한 것이다.' 하였다. 누에 대한 시(詩)의 걸작으로는 면재(勉齋) 정 선생의 배율(排律) 육운(六韻)과 상헌(常軒) 안 선생의 장구(長句) 4운(韻)이 있고, 또한 운은(耘隱) 설(偰) 선생의 육절구(六絶句)가 있으며, 그 운(韻)을 화답하여 속작(續作)한 이는 이를테면 급암(及庵) 민 선생, 우곡(愚谷) 정(鄭) 선생, 이재(彝齋) 허 선생이 있는데 모두 가작이니, 선배의 풍류와 문채를 이것으로 인하여 상상할 수 있다. (…후략…)

且其名樓 之義。則有淡庵白先生之記。其略曰。江之中有石 矗矗者。構樓曰矗石。始手於金公。而再成於安常 軒。皆狀元也。因是有兼名焉。題咏之美。則有勉齋 鄭先生之排律六韵。常軒安先生之長句四韵。亦有耘隱偰先生之六絶句。和韵而繼之者。有若及 庵閔先生。愚谷鄭先生。彝齋許先生。皆佳作。前輩 之風流文彩。因可想見矣。 (…후략…)

*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인 하륜(河崙)이 진주 촉석루에 대해 쓴 기문. 누각의 위치와 규모, 주변 풍경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누각 명칭의 유래와 의미, 누각에 대해 읊은 걸작시들, 촉석루를 짓게 된 배경과 지은 과정 등 촉석루 전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2.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촉석루(矗石樓)에서 두 번째 노닐면서 쓴 기문(再游矗石樓記)>,『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卷14

우리나라는 넓이가 수천 리나 된다. 천리 밖에 있는 이름난 누각을 두 번이나 갈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절로 지나가던 곳에 훗날 혹 귀양을 온다던가, 전에 한가하게 유람을 하던 곳에 훗날 혹 직임을 띠고 오는 것은, 비록 다시 온다고 하여도 별게 아닌 것이다. 촉석루(矗石樓)는 산수(山水)의 뛰어남이 영남[嶠南]에서 제일이고 진주의 번화한 문물과 아름다운 여자 또한 이 누대에 못지않을 것이다. (…후략…)

東邦幅員之廣。將數千里也。凡名樓傑閣之在千里之外者。得再至則幸矣。然前之擁節旄而過之者。後或以遷謫至。前之得優游歷覽。而後或有職務鞅掌者。雖再至無爲也。矗石山水之勝。甲於嶠南。而晉之繁華豔冶。又足以當斯樓者。(…후략…)

* 정약용(丁若鏞)이 1780년(정조 4)에 촉석루를 처음 방문한 뒤 12년이 지나 두 번째로 방문한 감회를 읊은 글이다. 촉석루는 영남 제일의 산수를 자랑하고 진주의 문물과 여자 또한 이 누대 못지않은 명승라고 찬탄하며 두 번이나 방문하게 된 기쁨과 연회에서의 흥취를 표현하였다.

3. 오두인(吳斗寅, 1624~1689), <의암기(義巖記)>,『양곡집(陽谷集)』卷3

진양(晉陽)의 성(城) 촉석(矗石) 아래 남강(南江) 물가에 한 바위가 우뚝 물결 속에 솟아 사면이 모두 물로 둘러 싸여 있다. 뭍에서 들어가는 길이 겨우 한 발 남짓 허용하여 바위 위에서 만일 발을 헛디디면 곧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곳에 이른다. 만력(萬曆) 계사년(癸巳年, 1593)에 왜가 침범하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죽음을 무릅쓰고 천여 명을 거느리고 진양성(晉陽城)에 들어와 적의 칼날에 맞서 항거하였다. 그 힘이 다하여 성이 함락되는 날에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바치며 살기를 구하였는데, 당시 관기 논개라는 이는 도적과 더불어 살지 않겠다 맹세하고 죽음 보기를 집으로 돌아가듯

하여 의복을 곱게 단장하고 표연히 이 바위 위에 우뚝 섰다. 뭇 왜적들이 멀리 바라보며 기뻐하였으나 그 위태로움이 두려워 감히 다가서질 못하였다. 문득 한 왜장이 나서서 곧장 나아가 유인하여 나오게 하려고 하였다. 기녀가 웃는 체하며 그를 맞이하고는 마침내 그 왜장을 안고 강물에 투신하여 죽었다. 이에 후대 사람들이 이를 슬퍼하고 의롭게 여겨 '의암(義巖)' 두 글자를 새기고 그 의로움을 기렸다고 한다. (…후략…)

晉陽之城矗石之下南江之濱。有一峭巖直入波心。四面皆水也。自陸而入。僅容一步。而於其上也。若差跬步。便是不測處。在昔萬曆癸巳。黑齒之入寇也。倡義使金千鎰。率敢死卒千餘人。入據晉陽城。以抗賊鋒。及其力竭城陷之日。城中之人。擧皆授首求活。而時有官妓論介者。誓不與賊俱生。視死如歸。凝粧靚服。飄然特立乎此巖之上。衆倭望見而悅之。懼其危而莫敢近。忽有一倭挺身直進。將誘以出。妓乃佯笑而迎之。遂抱持其倭。投江而死。故後之人哀而義之。遂刻義巖二字。以旌其義云。 (…후략…)

* 오두인(吳斗寅)은 1649년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경기도관찰사·공조판서·형조판서 등을 역임했던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약 60년이 흐른 신묘년(1651)에 진주 남강에 이르렀는데, 마침 예전 진주성이 함락되던 날 의롭게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제를 지내는 것을 보고 감격하여 <의암기>를 남기게 되었다. 남강 물가에 우뚝 솟은 의암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곳에서 왜장을 안고 강물에 투신한 논개의 일화, 김천일 등이 왜적을 껴안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의 의로움을 칭송하였다.

(3) 실경산수화



〈촉석루 - 영남명승35경도〉, 작자미상

작자미상, <촉석루(矗石樓)>, 《영남명승35경도(嶺南名勝35景圖)》, 19세기, 지본채색(紙本彩色), 38.5×45.5cm, 일본 유현재

촉석루(矗石樓)는 조선시대 경상도 진주성(晉州城)을 수호하는 주장의 지휘소였다. 임진왜란 때 왜적이 침입하자 총지휘는 물론 남쪽 지휘대로 사용한 탓에 남장대(南將臺)라고도 하였다. 누기(樓記)에 의하면, 조선 초 진주목사 권충(權衷)과 판관 박시결(朴時潔)이 중건하고 하륜(河崙)이 기문을 지었다고 한다. 진주성의 대표적인 명소로는 촉석루 외에 임진왜란 때 의기(義妓) 논개(論介)가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南江)에 뛰어들어 순국한 장소로 전하는 의암(義巖)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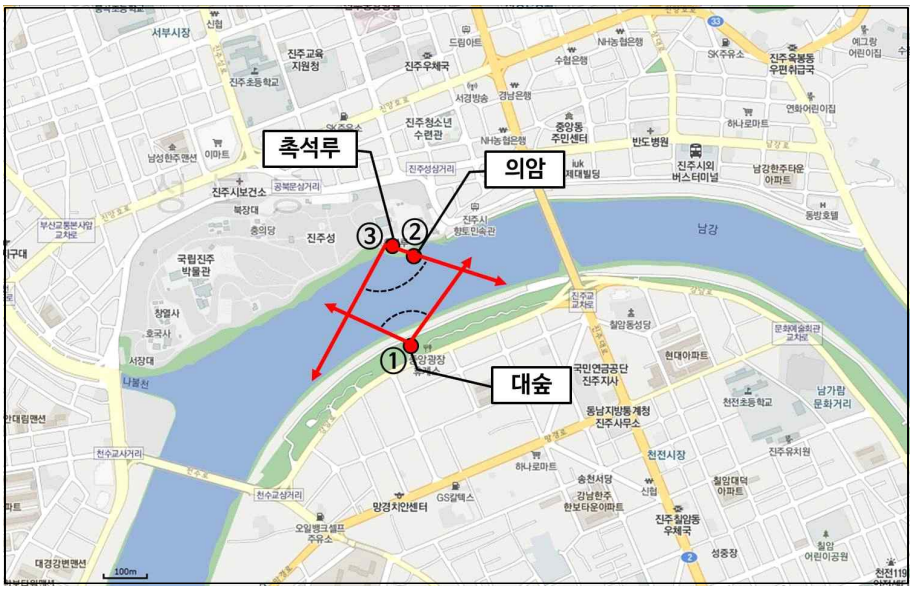
한편 임진왜란을 치른 후 고을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데 1603년(선조 36) 경상우병영이 창원에서 진주로 이전되었고, 경상우병마절도사가 진주목사를 겸임하게 된 것이다. 또한 1591년(선조 24)에 성의 동쪽 구역이 확장되었고, 1605년(선조 38)에 성곽을 증축하면서 내성과 외성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다시 군사 업무와 일반 업무를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진주목사가 따로 파견되어 성 밖 북쪽에 터를 잡은 읍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촉석루>는 진주성과 남강, 읍치, 그리고 인근의 산악까지 광활한 영역을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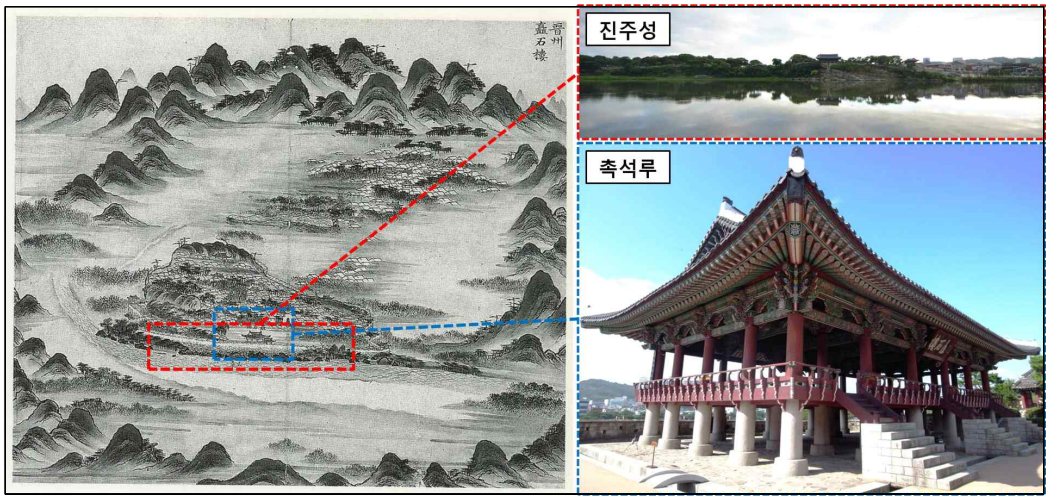
고 있어 18세기 이후 회화식 지도로 많이 제작된 '진주성도(晋州城圖)'와 화면 구성이 비슷하다. 우선 상부 산악과 송림(松林) 아래 수많은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읍치(邑治)"라는 묵서가 확인된다. 하부에 포치한 진주성 외곽으로 남강의 물길이 횡단하고 있으며, 강변의 성곽 중간에 있는 기와 건물, 즉 촉석루가 확인된다. 여타 건물에 비해 규모를 과장했을 뿐 아니라 누명(樓名)까지 묵서해 핵심 경물임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쪽 강안에 의암이라는 명칭이 묵서된 바위가 보인다. 진주성의 전체 형국이나 성문의 위치는 일반적인 '진주성도'와 유사하지만, 내성과 외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또 남강과 연결되는 해자(垓字)로 북쪽 외성 너머에 조성한 못인 대사지(大寺池)의 존재 여부도 분명치 않다. 전체적으로 지형도에 가까운 화면구성, 개별 경물의 특징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묘사력 등 회화성은 약하다.

(4) 현재적 재구성

많은 고시문에 등장하는 촉석루는 고려 말의 진주성을 지키던 주장(主將)의 지휘소로 1365년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의 건물은 6·25 전쟁 때 화재로 소실된 것을 1960년에 재건한 것이다. 촉석루는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남강 건너편에 조성된 대숲과 배후의 산지가 어우러진 훌륭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 지점으로서의 가치도 높다. 또한 임진왜란 때 의기 논개가 순국한 의암도 촉석루 아래에 위치해 있다. 해당 경관을 지도와 함께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영남명승35경도>에 그려진 촉석루와 대숲에서 바라본 실제 경관



② 측면에서 바라본 의암



③ 촉석루에서 바라본 대숲



(5) 지형 및 식생 분석

가. 지형 및 지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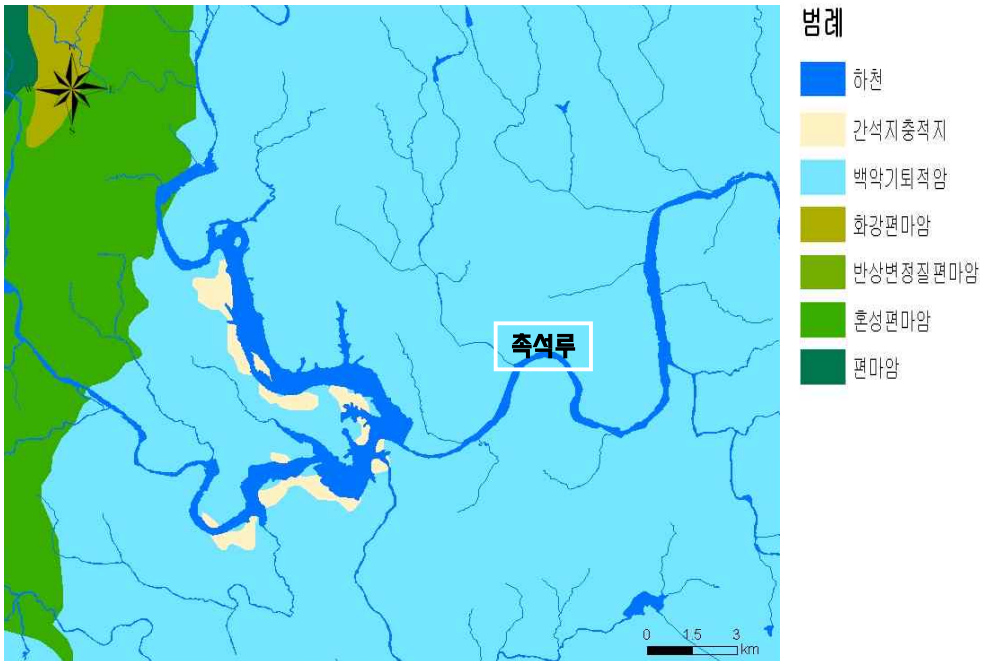


촉석루 일대의 지형(DEM)

진양호를 빠져 나온 남강이 진주분지 일대를 곡류하면서 빠져나가는 중심에 촉석루가 있다. 진주 분지 일대는 전체적으로 500m 이하의 산지 및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어 남강의 폭에 비해서 곡저평야가 넓게 나타난다. 남강은 망진산(172m)을 끼고 곡류하는 데 촉석루는 하천의 공격사면에 해당하는 곳으로 하식애가 나타난다. 촉석루가 위치한 진주성 일대는 북쪽 비봉산 가까이에서 흘러가던 유로가 남쪽으로 변경되고 남아 있는 곡류핵(meander core)에 가깝다. 실제 지질도를 보면 진주성 일대는 중생대 백악기 경상계 퇴적암층으로 나타나고 북쪽의 비봉산 아래 시가지 일대는 충적층으로 드러나 이를 입증한다.

진주분지 일대는 남강 및 영천강 같은 지류하천이 합류하면서 양안에 곡저평야를 빚어놓았고 지대가 높지 않아 유로변경이 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지는 오랜 시간 동안 침식이 진행되어 구릉성 산지가 밀도 높게 나타나고 낮은 지대를 따라서 호우 시 범람이 진행되어 충적층이 두텁게 분포한다. 그리고 진주에서 가까운 곳에 남해안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후빙기 해수면 상승에 따라 범람원의 발달이 더욱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촉석루 일대의 지질

진주시 일대의 거시적인 지질을 보면 서쪽에는 화강편마암, 반상변정질편마암, 혼셩편마암 등 편마암류가 분포하며 촉석루가 있는 진주분지 일대는 백악기 퇴적암이 분포하는 가운데 하천을 따라 충적층이 형성되어 있다.

촉석루가 있는 진주성 일대는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경상계 낙통통 진주층

으로 분류가 된다. 대표암석으로는 담회색알코스질사암, 녹회색 내지 회색사질세일, 세일, 석회질세일, 흑색세일이 호층이 석회암의 박층을 협재한 향상을 보인다. 촉석루가 있는 거대한 수평층의 암석은 세일로 판명이 되며 수평층리를 따라 절리가 넓은 간격으로 발달하고 있고 남강의 유수에너지에 의해 공격을 받으면서 조금씩 개석되어 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수직에 가까운 급애면을 보임으로써 일찍이 천연의 산성요새로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진주성 일대에 국지적으로 백악기 퇴적암이 분포하고 북쪽 배후에는 충적층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남강이 흘러갔던 구 유로로 판명이 된다. 현재 성북동, 상봉동 일대의 충적지는 개간하여 대부분 시가지로 이용되고 있다.

나. 자연 경관

진주성 일대는 백악기 퇴적암류인 셰일층 암반이 기반을 이루고 있고 특히 의암 및 촉석루 일대는 암석이 하천변에 노출되어 급애를 이루고 있다. 주변의 절리밀도가 높은 지역은 풍화·침식으로 인해 저지를 이루는 반면에 이곳은 도상구릉의 형태로 침식에 견디며 남아있다. 남강의 공격사면 바로 위에 위치하여 반대편 후퇴사면에 있는 시가지를 관망하기에 유리하다. 현재 반대편 강변의 충적층에 대숲을 조성하고 수변공간에 코스모스 등의 꽃을 심어 도심 속 휴양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촉석루



남강 대숲 및 코스모스 수변공간

다. 식생경관적 특징

촉석루 주변 식생은 남강을 따라 선형으로 조성된 능수버들경관과 건너편의 대나무경관으로 구분된다. 촉석루 내에는 느티나무, 소나무를 주요 종으로 배롱나무, 회양목, 오죽, 맥문동 등이 식재되어 있다. 남강 변으로 선형공원화가 이

루어지면서 지속적인 이용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푸르른 대나무 숲은 고즈넉하며 청량감을 시민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소중한 자연자원으로 판단되었으며 하부의 마삭줄 덩굴식물 또한 아름다운 지피경관을 연출하였다.

그 외 조성 지역 내 소나무 및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산딸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등이 식재되었고 관목층에 남천, 산철쭉, 줄사철, 눈향나무, 초본류로 맥문동이 식재되었다.



촉석루 주변 식생경관



촉석루 건너편 대나무숲 원개경관



남강변 소나무 및 대나무숲 전경



대나무숲 하부의 마삭줄

(6)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와 범위

가. 명승 자원으로서의 지정 가치

○ 문화 · 역사적 가치: 진주 촉석루 일원은 『여지도서』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비교적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진주권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경승지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리지에 의하면 촉석루를 이루는 명승적 요소는 촉석루 외에 그 앞을 흐르는 남강, 강 주변의 암벽, 강 건너의 대나무 숲과 난초, 물새, 강을 오르내리는 돛단배 등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정약용, 최익현, 김안국 등이 이곳을 노래한 수많은 옛 시문들이 전하며 이 일대를 묘사한 작자 미상의 실경 산수화도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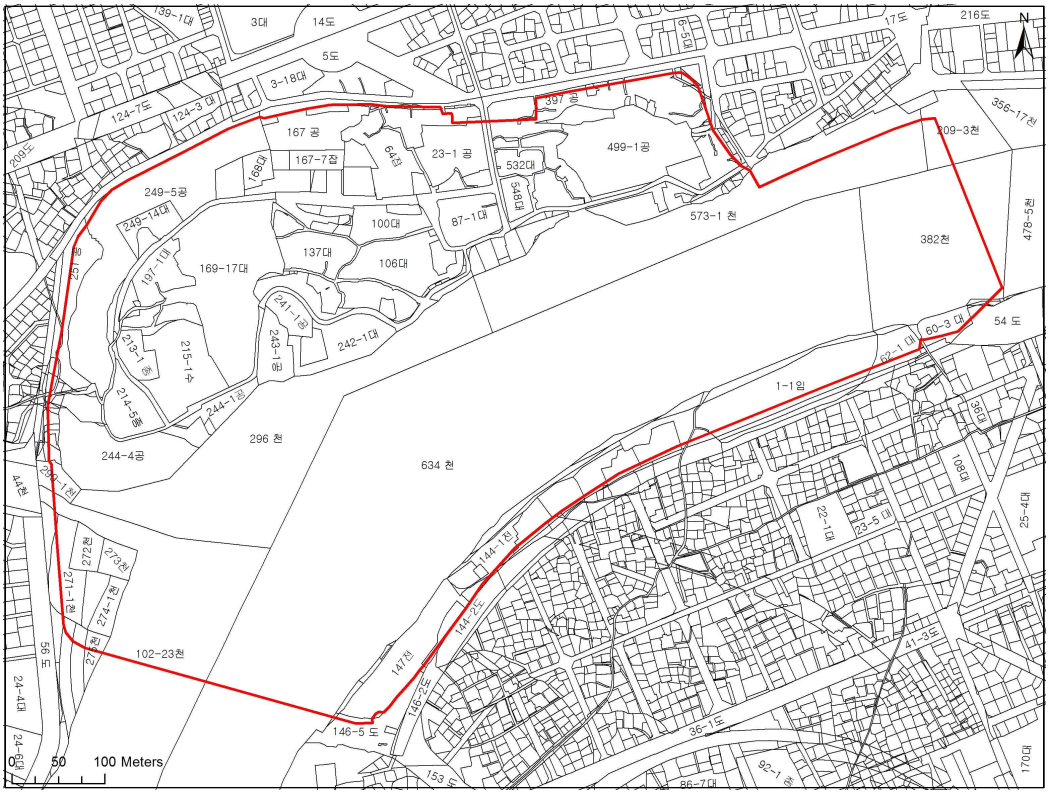
❍ 지형적 가치: 진양호를 빠져 나온 남강이 진주분지를 빠져나갈 때 곡류하면서 공격사면과 후퇴사면이 교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촉석루 일대는 그 공격사면의 상단에 조성한 인문경관이다. 백악기 퇴적암 셰일층을 기반암으로 하고 있는 진주성 일대는 도상구릉(inselberg)의 형태로 우뚝 솟아 있어 과거 산성을 짓기에 천연의 요새였다. 진주성 맞은편 남강 변을 따라 비보풍수(裨補風水) 및 휴양의 일환으로 조성된 대숲 또한 진주의 주요 경관요소로 자리하였다. 하지만 경관조망을 헤치는 고층의 아파트 건물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거나 인위적 경관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자연적 명소로서 가치가 절하된다.

❍ 식생적 가치: 유유히 흐르는 남강(南江)의 바위 절벽 위에 장엄하게 우뚝 솟아 있는 촉석루는 영남(嶺南) 제일의 아름다운 누각임을 자랑한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중건과 보수를 거쳤던 이 누각은 선비들의 희로애락이 함께 했던 소중한 문화유산자원이다. 촉석루 건너편에 조성된 대나무숲은 우리나라 선비의 고고한 품성과 절의가 엿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대나무숲과 어우러진 남강, 높다란 암벽 위에 촉석루는 일체화된 자연 속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나. 명승의 지정 범위

명승의 지정 명칭과 범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지정내용
명칭	진주(晋州) 촉석루(矗石樓) 일원
지정종별	명승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남성동, 동성동, 망경동, 강남동, 신안동
지번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00번지 외 246필지
면적	441,061.5㎡
관리단체	경상남도 진주시청
문화재 지정 여부	지정 권장


N
0
50
100 Meters
3대
14도
5도
3-18대
124-7도
124-3 대
167 공
167-7잡
64삼
23-1 공
397 하
499-1공
532대
548대
87-1대
100대
106대
137대
169-17대
249-5공
249-14대
191-10대
241-1원
243-1원
242-1대
215-1수
214-5원
244-1공
244-4공
296 천
634 천
102-23천
147전
146-5 도
144-1전
144-2도
1-1임
573-1 천
382천
209-3천
356-17전
478-5천
216도
17도
54 도
60-3 대
62-1 대
38대
108대
22-1대
23-5 대
25-4대
41-3도
36-1도
86-7대
92-1
170대
56 도
24-4대
24-5대



Ⅴ.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앞으로의 과제

1. 기대효과

○ 명승의 유형을 자연명승과 역사문화명승으로 양분한다고 할 때 그 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역사문화명승의 분류기준을 보완해 줄 것이다. 특히 명승을 보고 향유하는 방식은 자연 경관과 인문 현상의 복합체라는 명승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여말선초, 또는 더 멀리는 통일신라시대까지 소급되는 명승의 전통이 조선시대를 거치며 불교보다는 성리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팔경, 구곡, 동천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술 자료를 구축하는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 대상 지역이 되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는 한국 고유의 명승 전통이 시작된 곳이므로 고문헌과 고화에 근거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팔경을 중심으로 하는 명승의 가장 오래된 형태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드러난 명승은 일본과 중국과 구별되는 한국 고유의 명승 전통을 특징짓는 물적 증거로 제시될 것이다.

○ 지자체가 지정하고 있는 현대 팔경이 고문헌에 등장하는 전래 팔경과 얼마나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가 알려질 것이다. 특히 전문 연구자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자기 고장의 명승 전통이 지니는 역사성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도시화를 포함한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나날이 파괴되고 주민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명승의 경우에는 비록 부분적으로라도 그 물리적 형태를 복원하는 근거 자료가 제공될 것이다. 특히 도시화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의 교체가 빈번하고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거나 멸실되어 가고 있는 명승 자원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활용방안

❍ 문헌 조사에 근거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명승의 물리적 형태와 그 주변 환경은 현재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명승 지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선인들의 시선과 행위를 그래픽 처리를 거쳐 재구성하는 '명승을 보고 향유하는 방식'은 정부나 민간단체, 특히 지자체가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미지나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로 이용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 고문헌을 보조 자료로 하는 진경산수화의 분석은 명승의 복원을 원하는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게 원형에 가깝게 명승의 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에 결정적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승을 물리적 형태보다는 심미적 측면에서 규정하고 합리화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선인들이 명승을 매개로 구축한 자연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연 환경을 보전하면서 수준 높은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

3. 앞으로의 과제

❍ 고시문과 실경산수화를 통해 명승을 매개로 하는 자연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발굴하려고 시도한 결과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 낼 수 있었다. 명승이 천연기념물과 차별화되는 기준이 되는 무형적 요소, 즉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고시문과 실경산수화에 대한 분석 작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명승을 보고 향유하는 방식'의 현재적 재구성에 있어서 명승을 에워싼 주변 환경의 변화가 극심한 곳은 그 만큼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이러한 환경 변화가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현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도 '현재적 재구성'이라는 작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제 명승이라는 문화재는 규제를 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활용을 권장하는 문화재이므로 지역 발전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명승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거나 지정 범위를 설정할 때는 특별히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의견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며 명승자원의 발굴조사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Ⅵ. 참고문헌

Fairbridge, R. W., 1968, The Encyclopedia of Geomorphology, Dowden, Hutchinson & Ross, Inc.

Gerrard, J., 1998, Rocks and Landforms, Unwin Hyman Ltd, London.

Leopold, L. B., and Wolman, M. G., Miler, J. p., 1964, Fluvial Processes in Geomorphology, Freeman, San Francisco.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창녕 문암정 현장조사 결과.

문화재청, 2007, 2006 전통명승 동천구곡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7, 2007 전통명승 동천구곡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9, 2009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

문화재청, 2012, 고서화 고문헌 등에 나타난 명승자원 발굴조사: 서울·인천·경기·강원.

문화재청, 2013, 고서화 고문헌 등에 나타난 명승자원 발굴조사: 충남·충북·대전·전남·전북·광주.

변주승, 2009, 여지도서: 경상도Ⅴ. 청하·영일·장기·기장·언양·칠곡·밀양·청도·경산·자인, 디자인흐름.

변주승, 2009, 여지도서: 경상도Ⅹ. 문경·함창·봉화·진보·군위·비안·에안·용궁, 디자인흐름.

변주승, 2009, 여지도서: 경상도보유Ⅰ. 울산·하동·영천, 디자인흐름.

변주승, 2009, 여지도서: 경상도보유Ⅱ. 흥해·양산·삼가·의령, 디자인흐름.

변주승, 2009, 여지도서: 경상도보유Ⅲ. 안의·산청·단성·사천, 디자인흐름.

뿌리깊은나무, 1987, 한국의 발견: 전라남도.

서종철, 2008, 운문산 자연휴식년제지역 학술조사보고서.

손 일, 2011, 앵글 속 지리학(상), 푸른길.

신정일, 2012,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다음생각.

이용대, 2010, 등산상식사전, 해냄.

이천용, 2009, 겸재가 반한 포항 내연산 계곡 소나무 숲, 숲과 문화.

지광훈·장동호·박지훈·이성순, 2008, 위성에서 본 한국의 하천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광훈·최성길·장동호·이성순, 2008, 위성에서 본 한국의 산지지형,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지광훈 · 최성길 · 장동호 · 이성순, 2009, 위성에서 본 한국의 산지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리정보연구회, 2004, 개정판 자연지리학사전.
한국광물자원공사, 2010, 광물자원용어사전.
고의장, 2002, 국립공원 지리산 동부지역의 자연경관에 대한 지형학적 특성, 지리학연구, 36(2), pp.113-129.
권동희, 2006, 한국의 습지지형 연구 성과와 과제, 한국지형학회지, 13(1), pp.25-34
기근도, 2008, 경상좌도 동천구곡의 지형적 특성, 한국지형학회지, 15(2), pp.95-109.
기근도, 2010, 안동 금계천 유역의 지형과 생태 환경, 한국지형학회지, 17(4), pp.99-110.
기근도 · 김영래 · 조 헌, 2007, 경상우도 동천구곡의 지형적 특성, 한국지형학회지, 14(3), pp.123-136.
김동이, 1993, 영덕 오십천 하안의 단구지형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욱 · 이영길, 1981, 유천분지 북동부 백악기 화산암류의 화산암석학 및 지질구조, 광산지질, 14, pp.35-49.
김영래, 1996, 미호평야 주변 화강암 풍화층에 발달한 구릉지 지형의 유형화,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래, 2005, 한반도 중남부 화강암과 편마암의 풍화특색,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래, 2007, 영주-봉화 분지의 화강암 지형 경관의 특색, 14(3), pp.71-90.
김용식 · 강기호 · 신현탁 · 김종근, 1999, 경북 내연산 일대의 관속식물상,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3(1), pp.1-16.
김진석 · 성종규, 1996, 천성산 백악기 화산암류의 암석학적 연구(1), 암석학회지, pp.108-120.
김창규, 2012, 명승 개념의 재정립, 명승 학제간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pp.8-35.

김학범, 2009, 한국 명승의 현주소와 과제, 명승의 현황과 전망,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집, 문화재청 · 국립문화재연구소, pp.354-364.

문현숙, 2006, 산지습지의 정의와 이해, 한국동굴학회지, 74, pp.67-71.

박성현, 2006, 천성산 지역의 식생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인협 · 서영권 · 이석면 · 류석봉, 2000, 지리산국립공원 쌍계사지역 계곡부의 해발고와 사면부위에 따른 산림구조,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3(4), pp.340-347.

범선규, 2008, 지리적 관점에서 본 지리산권 문화, 남도문화연구, 14, pp.45-66.

손명원 · 장문기, 2009, 천성산 화엄늪의 형성과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2), pp.204-214.

손 문 · 김종선 · 황병훈 · 류충렬 · 옥수석 · 함세영 · 김인수, 2003, 천성산과 정족산 일원의 지질과 단열 분포, 지질공학, 13(1), pp.107-127.

송미숙, 2007, 소백산지 남동사면 산록대 지역의 지형 특색: 상주~안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14(2), pp.43-55.

송민섭, 1997, 가지산 식생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용선 · 이승구, 1998, 소백산육괴 남부 지리산 편마암 복합체의 지구화학적 진화연구: 펠식 그래뉼라이트를 중심으로, 대한지질학회 발표집, 13.

신상섭, 2011, 한 · 중 · 일 명승 보존과 활용 방안,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문화재청, pp.199-233.

양재혁, 2007, 한반도 남해안의 해안지형 특색 및 발달과정,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창환 · 전은영 · 이정후 · 박배영 · 안건상, 2000, 지리산 남부지역의 화강암질 편마암과 반상변정질 편마암의 변성진화과정,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93.

유영석 · 전종한 · 류제헌, 2013, 전통 명승의 현재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화천

곡운구곡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학회지 25(1), pp.99-113.

이경재 · 최송현 · 조현서, 1993, 소백산 국립공원 희방계곡의 삼림군집구조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6(2), pp.113-127.

이덕선 · 강지훈, 2013, 영남육괴 지리산지구에서 하동 남부 회장암복합체와 그 주변지역의 변형단계별 구조적 특성, 암석학회지, 22(2), pp.179-195.

이도이, 2012, 청도군 운문사 문화경관림 식생구조 특성과 식생경관 회복 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민부 · 김남신, 2007, 선구조선과 하계망 패턴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미원 · 속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14(1), pp.41-51.

이민부 · 김남신 · 양철수 · 한 욱, 2001, 추가령 구조곡 하계망의 방향성과 프랙탈차원 해석, 지질학회지 27(4), pp.597-609.

이병천 · 윤충원, 2002, 내연산 일대 삼림식생의 군락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학회지, 25(3), pp.153-161.

이수동 · 김선희 · 김지석, 2012, 양산시 화엄늪의 산지화 진행실태 및 예방관리 방안,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6(4), pp.498-511.

이영배 · 류제헌, 2012, 진정성과 완결성에 기초한 명승 보호구역의 타당성 검토, 문화재 46(3), pp.32-47.

이유진, 2011, 상주 경천대 일원의 명승지정을 위한 자연, 문화 경관 해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근, 2004, 명승지정 평가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상주 경천대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산업기술연구, 16, pp.1-10.

이재근, 2009, 명승의 개념 및 분류 체계 논의, 명승의 현황과 전망,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집, 문화재청 · 국립문화재연구소, pp.388-389.

전영권, 1996, 천황산 Talus의 형성과 지형발달, 한국지역지리학회, 2(2), pp.173-182.

전종한, 2012, 경관과 장소를 새롭게 읽기, 인문지리학의 시선(전종한 외, 사회평론), pp.239-269.

전종한, 2013,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본 국가 유산의 가치 평가와 범주화 연구: 문화재청 지정 국가 '명승'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pp.929-943.

조화룡, 1997, 양산단층 주변의 지형분석, 대한지리학회지, 32(1), pp.1-14.
한미경, 2000, 경상분지 동북부 보경사 화산암체의 암석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승희, 2012, '구곡'에 관한 지형경관 분석과 스토리텔링: 대구·경북권을 사례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상구, 1991, 안동지역의 지질, 안동개발연구, 2(1), pp.25-53.
황상구·김상욱, 1994, 밀양-양산지역 백악기 화산암류의 암석학적 연구(Ⅰ): 암석조구조적 위치, 지질학회지, 30(3), pp.229-241.
황상구·김상욱, 1994, 밀양-양산지역 백악기 화산암류의 암석학적 연구(Ⅱ): 암석성인, 지질학회지, 30(6), pp.567-577.
황상구·이병주, 2004, 청송동부 주왕산 응회암의 암상과 분출상, 한국암석학회·한국광물학회 2004년 공동학술발표회 논문집.
황상구·조남식, 2000, 영덕 남부 내연산 응회암이 회류 공급지역 해석, 한국암석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경북일보, 2014, 포항시, 달산댐 조기 건설 절실, 9월 2일.
경향신문, 2014, 팔공산, 동·식물 천국 … 한반도고유종 31종 산다. … 무등산보다 많아, 9월 1일.
부산일보, 2013, 밀양 재약산~천황산, 1월 17일.
한국일보, 2011, 국토부, 종합계획에도 없던 영양댐·달산댐 추진, 10월 31일.
두산백과 - http://www.doopedia.co.kr/
산청문화관광 - http://tour.sancheong.go.kr/
한국고전종합DB -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한국의 산 - http://www.kormt.co.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http://www.grandculture.net/

부록

1. 명승 자원 조사 보고서

<table>
<tr><td colspan="4">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조사보고서</td></tr>
<tr><td>조사일자</td><td>2014.08.30.~2014.09.01</td><td>대상 문화재</td><td>고산정 일원</td></tr>
<tr><td>조 사 자</td><td colspan="3">김학범 위원, 이재근 위원, 황재하 위원, 연구진, 실무진</td></tr>
<tr><td>문화재종별</td><td colspan="3">명승</td></tr>
<tr><td>문화재명칭</td><td colspan="3">안동(安東) 가송협(佳松峽)과 고산정(孤山亭)</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3">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td></tr>
<tr><td>지정가치
및 근거</td><td colspan="3">○ 고산정은 금난수(1530~1599)가 지은 정자로서, 낙동강을 따라 이어지는 옛길인 ‘예던길’ 주변에 조성된 것으로 조선 시대의 이 지방 유림들의 자연관과 정자 경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금난수, 이황 등이 지은 다수의 시가 전해오고 있어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다.
○ 고산정이 위치한 가송협은 기암절벽의 단애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협곡이며, 고산정은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에서 건너편의 고산과 가송협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 고산정 주변에는 여러 그루의 노송이 남아 있고, 건너편의 고산(일명 독산)에도 소나무 숲이 잘 보존되어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td></tr>
<tr><td>대상지
범위설정의
타당성</td><td colspan="3">○ 가송협을 중심으로 고산정과 고산을 포함하는 구역
○ 지정구역면적
- 105,359.7㎡</td></tr>
<tr><td>종합의견</td><td colspan="3">○ 고산정일원은 시문과 기문 등 자료가 많아 명승적 가치가 충분하고, 시기를 놓치면 주변이 훼손될 염려가 많다. 다만 고산정은 훼손되지 않은 한국의 몇 남아있지 않은 옛길인 ‘예던길’의 중심에 있어 예던길과 연결하여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td></tr>
<tr><td>참고사항</td><td colspan="3">○ 가송협 단애는 ‘천연기념물 제72호 안동 도산면의 오관번식지’ 지정되었다가 번식이 지속되지 않아 1973. 8.14 지정이 해제된 곳이다.
○ 인근의 가송마을은 낙동강 하천이 과거에 흘렀던 구하도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고산은 과거 미앤더핵(meander core)에 해당된다.</td></tr>
<tr><td colspan="4">2014년 11월 24일
제출자 : 류 제 헌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td></tr>
</table>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14.08.30.~2014.09.01	대상 문화재	침수정 일원
조 사 자	김학범 위원, 이재근 위원, 황재하 위원, 연구진, 실무진		
문화재종별	명승		
문화재명칭	영덕(盈德) 침수정(枕漱亭) 일원		
소재지	경북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지정가치 및 근거	○ 1784년 이 지방의 선비인 손성을이 지은 침수정과 그가 경영한 옥계 37경의 일부를 포함하는 옥계계곡 일원은 팔각산과 동대산에서 흘러내리는 계류가 합류하는 계곡으로, 침수정 주변의 기암괴석과 계류에 의해 깊이 파인 암반 하상, 절벽의 소나무 여러 개의 못 등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다. ○ 옥계계곡은 오십천의 상류에 위치한 골짜기로, 예로부터 경주지역에서는 '남반구 북옥계'라 해서 울산의 반구대와 더불어 이 지역을 대표하는 경승지로 알려져 왔다.		
대상지 범위설정의 타당성	○ 옥계계곡을 일원의 하천 필지를 중심으로 침수정을 포함하는 구역 ○ 지정구역면적 - 65,453.9㎡		
종합의견	○ 침수정 일원은 두 계류가 합류하며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곳으로, 옥계37경의 비경을 빚어 놓았으며, 계곡 가운데 경관이 가장 빼어난 곳에 있는 침수정은 계곡의 경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또한 손성을이 남긴 시문과 암각 등 인문적 요소가 잠재해 있어 명승으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참고사항	○ 침수정 일원은 '경상북도 기념물 제45호 침수정계곡 일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 지방도 개설로 경관 훼손이 우려되자 옥계리 주민들이 이를 저지하는 등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주민들이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4년 11월 24일 제출자 : 류 제 헌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14.08.30.~2014.09.01	대상 문화재	내연산 일원
조 사 자	김학범 위원, 이재근 위원, 황재하 위원, 연구진, 실무진		
문화재종별	명승		
문화재명칭	포항(浦項) 내연산(內延山) 계곡		
소재지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지정가치 및 근거	○ 포항 내연산 계곡은 보경사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심산유곡으로서, 10여 개의 폭포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장관을 이루는 폭포 계곡으로 자연경관의 보존 상태가 뛰어나고 청정한 계곡이다. ○ 겸재 정선의 <내연삼용추도>를 비롯한 실경산수화가 전하며, 이곳을 유람한 저명한 묵객들의 옛 시문과 폭포 주변의 많은 각자들을 통해 전통 명승의 풍치를 느낄 수 있는 경승지이다.		
대상지 범위설정의 타당성	○ 상생폭포에서 연산폭포에 이르는 계곡을 포함하는 구역 ○ 지정구역면적 - 691,012.8㎡		
종합의견	○ 내연산 계곡은 보경사를 지나 내연산 정상 방향으로 형성된 협곡에 12개의 폭포가 굽이굽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수려한 계곡으로, 자연경승으로서의 가치와 고서화에 의한 인문학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대상으로서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대상지이다.		
참고사항	○ 내연산, 삼지봉, 삿갓봉 등에서 발원한 계류들이 합류하여 광천을 이루어 흐르며 여러 곳에서 폭포를 형성한다. ○ 내연산 12폭은 ① 상생폭포, ② 보현폭포, ③ 삼보폭포, ④ 잠룡폭포, ⑤ 무풍폭포, ⑥ 관음폭포, ⑦ 연산폭포, ⑧ 은폭포, ⑨ 복호1폭포, ⑩ 복호2폭포, ⑪ 실폭포, ⑫ 시명폭포 등을 일컫는다.		
2014년 11월 24일 제출자 : 류 제 헌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14.08.30.~2014.09.01	대상 문화재	운문산 일원
조 사 자	김학범 위원, 이재근 위원, 황재하 위원, 연구진, 실무진		
문화재종별	명승		
문화재명칭	청도(淸道) 운문산(雲門山) 학심이골 일원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지정가치 및 근거	○ 운문사계곡의 상류에 해당하는 학심이골은 상류로 가면서 크고 작은 폭포와 연못들이 연속되는 아름다운 계곡임. 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느낌을 주는 주변의 숲이 계류의 풍광과 잘 어우러져 명승지를 이루고 있다. ○ 학소대폭포는 학소대라는 각자가 있고, 높이가 25m로 규모가 웅장하며, 10여 평에 달하는 넓은 폭호가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경관적 가치를 가지며, 이 외에도 비룡폭포, 쌍폭 등의 아름다운 폭포들이 형성되어 있다.		
대상지 범위설정의 타당성	○ 사리암 입구에서 학소대폭포에 이르는 계곡을 포함하는 구역 ○ 지정구역면적 - 2,021,586.5㎡		
종합의견	○ 학심이골 일원은 오랫동안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더욱 잘 보존되고 있는 상황으로, 쌍폭, 비룡폭포, 학소대폭포 등의 폭포와 계류가 아름답고 청정하여 명승으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참고사항	○ 운문산은 '영남알프스'라 불리는 산군의 북단에 위치한 해발 1188m의 높은 산으로 경북과 경남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 학심이골을 포함하고 있는 운문산 북사면 일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 11월 24일 제출자 : 류 제 헌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14.08.30.~2014.09.01	대상 문화재	재약산 일원
조 사 자	김학범 위원, 이재근 위원, 황재하 위원, 연구진, 실무진		
문화재종별	명승		
문화재명칭	밀양(密陽) 재약산(載藥山) 표충사(表忠寺)계곡		
소재지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지정가치 및 근거	○ 이 계곡에서 가장 웅장한 층층폭포 외에 흑룡폭포, 금강폭포 등 불교 및 유교적 의미를 갖는 폭포들이 수려하고, 재약산 정상부의 습지와 갈대숲 평원이 이 일대의 명승적 가치를 더해준다. ○ 재약산 아래에 입지한 표충사는 조선후기 이래의 유교와 불교의 상대적 성쇠와 공존 과정을 보여주는 독특한 의미의 사찰로서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대상지 범위설정의 타당성	○ 옥류동천과 금강동천, 그리고 정상부의 능선을 포함하되 표충사와 내원암 등을 제외한 구역 ○ 지정구역면적 - 15,071,559.6㎡		
종합의견	○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는 재약산 일원은 훌륭한 자연유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보존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층층폭포 앞에 설치되어 있는 출렁다리나 금강폭포 위에 설치되어 있는 암자와 교량 등은 전체적으로 경관적 가치를 감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참고사항	○ 재약산은 '영남알프스'라 불리는 낙동정맥 산군에 속하는 해발 1189m의 산으로 밀양시와 울산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 재약산 계곡 일원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17호 천황산 표충사'로 지정되어 있다.		
2014년 11월 24일 제출자 : 류 제 헌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14.08.30.~2014.09.01	대상 문화재	천성산 일원
조 사 자	김학범 위원, 이재근 위원, 황재하 위원, 연구진, 실무진		
문화재종별	명승		
문화재명칭	양산(梁山) 천성산(千聖山) 화엄(華嚴)벌		
소재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지정가치 및 근거	○ 원효대사가 천명의 승려들에게 화엄경을 설법했다는 이야기가 전하는 전설의 장소로서 문화적 가치가 큼. 화엄벌 정상부에서는 서쪽으로 양산단층대, 동쪽으로 동해가 조망되는 조망점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동해 일출을 볼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하다. ○ 화엄벌은 고산습지대에 형성된 '화엄늪' 일대를 일컫는 것으로 억새를 비롯한 많은 고산습지식물이 자라고 있어 귀중한 식물 생태 경관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대상지 범위설정의 타당성	○ 화엄벌 일원의 고산평원을 중심으로 하는 구역 ○ 지정구역면적 - 2,829,080.8㎡		
종합의견	○ 천성산 화엄벌은 고산식물경관으로서의 가치와 조망지점으로서의 가치가 우수하며, 우리나라의 명승 중 산정상의 평원에 해당하는 명승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지정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사항	○ 해발 922m의 천성산은 '영남알프스'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는 산으로, 화엄벌은 '화엄늪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천성산 1봉 정상부에 과거 공군 부대가 입지해 있던 터가 있으며, 정상부 및 그 주변에 인위적인 평탄화 작업의 흔적이 남아 있다.		
2014년 11월 24일 제출자 : 류 제 헌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14.08.30.~2014.09.01	대상 문화재	불일폭포 일원
조 사 자	김학범 위원, 이재근 위원, 황재하 위원, 연구진, 실무진		
문화재종별	명승		
문화재명칭	하동(河東) 불일폭포(佛日瀑布) 일원		
소재지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지정가치 및 근거	○ 불일암 부근에 위치한 폭포로 웅장한 풍치를 보여주는 폭포이다. 유역이 넓지 않아 수량은 제한적이나 높이가 60여m에 달하여 위용을 갖추고 있고, 폭포 아래에는 폭호와 함께 백학대, 청학대라는 두 봉우리가 마치 폭포의 입구를 상징하듯 솟아있어 명승적 가치를 더해준다. ○ 계곡의 폭이 좁아 주변의 울창한 식생들이 폭포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 원시적인 느낌과 신비스러움을 자아낸다.		
대상지 범위설정의 타당성	○ 불일폭포를 중심으로 청학봉과 백학봉을 포함하는 구역 ○ 지정구역면적 - 87,840.4㎡		
종합의견	○ 지리산 깊은 산중에 위치한 불일폭포는 우리나라 폭포경관을 대표하는 폭포의 하나로서, 최치원과 명나라의 이여송 장군 등의 설화가 있으면서 경관적 가치가 커서 명승으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사항	○ 탐방로가 정비되어 있어 다양한 방향에서의 조망이 어려우나, 이러한 제한점이 주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 ○ 인근의 환학대와 마족대는 각각 최치원과 이여송에 관련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2014년 11월 24일 제출자 : 류 제 헌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			

2. 명승 자원의 지정 범위(안) 지번 목록

명칭	번지(필지)	면적	비고
안동 가송협과 고산정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312답	312.19㎡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442임	278.88㎡	도립공원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442-1도	39.81㎡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442-2임	80.65㎡	도립공원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446전	863.51㎡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447대	391.45㎡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448전	951.66㎡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449-1임	14,082.27㎡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450-1임	960.20㎡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450-2대	1,084.88㎡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465임	75.78㎡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900구	32.18㎡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901천	71,794.12㎡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908도	78.40㎡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산105임	14,333.67㎡	
영덕 침수정 일원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29전	378.70㎡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30대	88.20㎡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232천	60,322.8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1004천	4,664.12㎡	
포항 내연산 계곡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43임	381.41㎡	군립공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44답	724.33㎡	군립공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45임	406.48㎡	군립공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46답	1,691.34㎡	군립공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810도	636.74㎡	군립공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97임	306,387.75㎡	군립공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101-1임	304,597.96㎡	군립공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103-1임	4,879.33㎡	군립공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106-2임	16,792.12㎡	군립공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126구	48,932.73㎡	군립공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129도	296.38㎡	군립공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130도	1,397.13㎡	군립공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131도	1,231.80㎡	군립공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132도	2,657.25㎡	군립공원
청도 운문산 학심이골 일원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169-1임	1,039,014.94㎡	군립공원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169-5임	953,544.16㎡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09천	29,027.43㎡	군립공원
밀양 재약산 표충사 계곡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33-1종	0.59㎡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49임	583.15㎡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1임	13,075,315.56㎡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1-3임	2.98㎡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1-5임	161,364.24㎡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1-6임	363,448.43㎡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1-7임	190,625.67㎡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1-8임	416,829.69㎡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1-9임	113,389.37㎡	

명칭	번지(필지)	면적	비고
밀양 재약산 표충사 계곡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1-10임	146,502.70㎡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1-11임	164,993.48㎡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1-12임	327,832.77㎡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1-13임	110,670.91㎡	
양산 천성산 화엄벌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산1-1임	14,385.49㎡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산6임	21,568.60㎡	도립공원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산63-2임	2,793,126.75㎡	도립공원
하동 불일폭포 일원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142임	713.61㎡	국립공원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143임	1,846.53㎡	국립공원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145임	464.78㎡	국립공원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849천	1,762.55㎡	국립공원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산30임	10,603.06㎡	국립공원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산42임	1,984.45㎡	국립공원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산43임	4,732.80㎡	국립공원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산44임	1,805.96㎡	국립공원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산45임	2,940.22㎡	국립공원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산46임	7,981.50㎡	국립공원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산47-1임	48,456.95㎡	국립공원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산47-8구	4,547.95㎡	국립공원
영주 희방폭포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313-2대	878.97㎡	국립공원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313-3종	7,977.85㎡	국립공원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313-4종	56.56㎡	국립공원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산1-1임	63,229.74㎡	국립공원
문경 선유구곡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428대	461.40㎡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731천	22,639.99㎡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770도	70.79㎡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42-1임	2,208.82㎡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42-3임	1,011.55㎡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48-1임	23.24㎡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48-2임	388.58㎡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53임	346.29㎡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102구	6,987.06㎡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103도	985.07㎡	
상주 경천대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820구	64.61㎡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산1-1임	937.44㎡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산1-2임	11,075.13㎡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산1-3도	266.80㎡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산1-4임	1,041.52㎡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산1-5천	15,920.76㎡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산1-6임	73.72㎡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산1-7천	2,154.81㎡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산1-8임	282.84㎡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산1-9천	1,330.53㎡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산2임	945.71㎡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산2-3도	598.71㎡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0-1가	31.38㎡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0-2가	192.65㎡	

명칭	번지(필지)	면적	비고
상주 경천대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1전	490.99㎡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2대	342.58㎡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3전	1,379.43㎡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4전	146.40㎡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5도	44.92㎡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6전	33.89㎡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7도	55.53㎡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8임	6,319.78㎡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9임	4,352.18㎡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10도	3,869.87㎡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11임	108.11㎡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12임	3,253.40㎡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13임	4,372.47㎡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14도	2,368.28㎡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15임	2,198.23㎡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16임	4,168.44㎡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17도	577.52㎡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18임	4,008.97㎡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19임	1,493.55㎡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20임	1,269.21㎡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21도	474.29㎡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22도	197.22㎡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23도	283.30㎡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24임	229.67㎡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25임	793.53㎡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26도	400.53㎡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27임	3,650.48㎡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34임	11,789.17㎡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35임	380.71㎡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36 임	497.27㎡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37임	1,339.02㎡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39임	175.69㎡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40임	120.11㎡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41천	3,997.52㎡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42천	9,492.82㎡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43천	2,109.28㎡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2대	667.81㎡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2-1도	409.50㎡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1048천	31,508.32㎡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1임	1,342.11㎡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2임	6,075.99㎡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2-6임	521.82㎡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3임	7,164.25㎡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3-1임	442.69㎡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3-2임	7,088.33㎡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4임	1,021.61㎡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5-10도	258.65㎡	

명칭	번지(필지)	면적	비고
상주 경천대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5-12임	89.71㎡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5-16임	118.27㎡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5-26잡	544.55㎡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5-29임	9,154.99㎡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5-30임	1,270.64㎡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5-31임	1,564.72㎡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5-32임	2,748.03㎡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5-33임	21,987.08㎡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5-54천	15.56㎡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5-55천	50.30㎡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8-7임	11,290.36㎡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1436천	2,058.79㎡	
칠곡 가산바위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504전	612.27㎡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505임	5,072.11㎡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506임	1,286.94㎡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507종	936.75㎡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05임	903.03㎡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06임	825.23㎡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07임	913.89㎡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08임	173.45㎡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09임	229.59㎡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0-1임	537.52㎡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0-2임	328.61㎡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0-3임	204.57㎡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1-1임	241.50㎡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1-2임	831.24㎡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2임	630.19㎡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3임	557.77㎡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1임	486.24㎡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2임	182.33㎡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3임	518.53㎡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4임	344.49㎡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5임	121.61㎡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6전	159.27㎡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7전	366.02㎡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8임	363.61㎡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9임	495.16㎡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10임	210.22㎡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11전	359.76㎡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12잡	844.28㎡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13임	355.51㎡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14임	751.15㎡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15임	710.57㎡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16임	482.16㎡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17임	526.51㎡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18임	421.55㎡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19임	232.73㎡	도립공원

명칭	번지(필지)	면적	비고
칠곡 가산바위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20임	126.74㎡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21임	306.52㎡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22임	162.87㎡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23임	193.11㎡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24도	123.83㎡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25도	52.66㎡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26도	669.19㎡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5-1임	208.06㎡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5-2임	270.17㎡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5-3임	259.54㎡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5-4임	60.75㎡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5-5임	4,533.49㎡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5-6임	153.19㎡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5-7임	188.97㎡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6-1임	150.04㎡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6-2임	166.20㎡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7-1임	325.68㎡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7-2임	160.01㎡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7-3전	337.14㎡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7-4임	206.87㎡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7-5임	34.76㎡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7-6임	28.60㎡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1임	408.94㎡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2임	43.04㎡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3임	33.46㎡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4임	455.06㎡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5임	338.41㎡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6임	239.36㎡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7임	330.92㎡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8임	501.86㎡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9임	395.98㎡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10임	307.30㎡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11전	393.50㎡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12전	384.89㎡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13임	506.99㎡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14임	89.11㎡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15임	565.18㎡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16임	166.40㎡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17전	289.99㎡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18임	406.40㎡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19임	124.67㎡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20임	269.35㎡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21전	530.84㎡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22임	343.73㎡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23임	269.57㎡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24임	439.84㎡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25임	373.57㎡	도립공원

명칭	번지(필지)	면적	비고
칠곡 가산바위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26전	444.17㎡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8-27도	209.05㎡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9-1임	51.63㎡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9-2전	42.30㎡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9-3임	67.56㎡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9-4임	205.15㎡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9-5전	287.27㎡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9-6임	224.59㎡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20임	489.48㎡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21임	428.93㎡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33도	47.19㎡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65도	45.97㎡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66도	155.31㎡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67도	83.57㎡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68도	763.22㎡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69구	1,307.47㎡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70도	39.09㎡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71도	39.60㎡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72도	238.29㎡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73도	79.97㎡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74도	61.79㎡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산98-1임	603,913.17㎡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산150구	607.71㎡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산151구	322.54㎡	도립공원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산1-2임	3,250.13㎡	도립공원
거창 사선대 일원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69-2임	277.4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247-2임	1,101.2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643-5도	4.7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169-1임	1,895.1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239-2임	1,238.78㎡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239-3도	881.90㎡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239-4도	1,695.6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239-5임	816.98㎡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239-6도	2,243.9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241임	1,435.77㎡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241-1도	181.4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244임	1,607.90㎡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245임	1,818.68㎡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246임	883.7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247-1임	3,169.0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317천	6,023.91㎡	
함양 농월정 일원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2-1답	116.14㎡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산59-3임	111.49㎡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산62임	4,551.51㎡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산63-1도	1,684.89㎡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산64임	937.25㎡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산64-1천	10,806.24㎡	

명칭	번지(필지)	면적	비고
함양 농월정 일원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산64-2구	1,141.18㎡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736답	282.83㎡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737답	211.81㎡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740임	189.48㎡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740-1도	45.33㎡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1412천	244.02㎡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1457천	2,324.34㎡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1466도	613.35㎡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1472천	33,386.74㎡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10임	2,388.77㎡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11임	35,238.98㎡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12임	5,801.71㎡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13임	296.70㎡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14-1임	14,113.49㎡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90-15도	1,760.29㎡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90-16임	1,338.01㎡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90-17임	882.35㎡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90-18도	10.36㎡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91임	5,542.60㎡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91-1도	1,001.24㎡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91-2임	412.16㎡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92임	17,334.19㎡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92-1임	209.48㎡	
합천 황계폭포 일원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822구	61.07㎡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1038-1천	438.82㎡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1068천	1,322.96㎡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산90임	16,756.03㎡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산91임	8,231.12㎡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산92임	1,085.49㎡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산156임	8,154.20㎡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산157임	20,491.34㎡	
진주 촉석루 일원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54도	128.20㎡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60-29대	11.30㎡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60-3대	1,233.28㎡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62-1대	1,325.06㎡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62-3천	170.52㎡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381-2전	47.90㎡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381-3전	9.75㎡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381-9천	75.21㎡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382천	19,109.04㎡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383도	110.66㎡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2-2대	1,823.14㎡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3-1공	3,894.88㎡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44-1도	34.83㎡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51-1도	41.56㎡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54-1도	22.56㎡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56-1도	14.71㎡	

명칭	번지(필지)	면적	비고
진주 촉석루 일원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59-1도	8.21㎡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60-1도	4.70㎡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63-2공	14.08㎡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64잡	3,889.17㎡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73-11대	369.94㎡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73-14대	424.82㎡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73-6도	244.40㎡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76대	393.25㎡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80공	37.82㎡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81공	26.26㎡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87-1대	3,023.14㎡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87-2도	25.78㎡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91-2도	31.52㎡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00대	2,431.55㎡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01-1잡	366.89㎡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06대	4,856.89㎡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08잡	48.48㎡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09대	647.63㎡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10-2도	24.78㎡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11-2도	55.36㎡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12-2도	2.37㎡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12-4대	18.02㎡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12-5도	64.28㎡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14-2도	5.54㎡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14-4도	33.74㎡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15-1대	2,015.59㎡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15-2도	49.33㎡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16-4도	2.77㎡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16-7전	304.11㎡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27대	872.03㎡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36-3공	1.96㎡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37대	2,989.83㎡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46대	9.47㎡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47-1공	15.18㎡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48공	1,613.39㎡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49-1대	116.69㎡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0대	579.00㎡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2공	4.11㎡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7공	3,699.80㎡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7-3대	987.66㎡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7-4대	346.02㎡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7-5대	766.20㎡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7-6공	2,813.29㎡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7-7잡	1,260.96㎡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7-10전	399.41㎡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7-11전	1,280.53㎡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7-12대	45.59㎡	

명칭	번지(필지)	면적	비고
진주 촉석루 일원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7-13대	49.60㎡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7-19도	329.82㎡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7-21도	131.43㎡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7-22대	368.42㎡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7-32대	206.11㎡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7-34대	182.15㎡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7-35대	260.90㎡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7-44대	26.03㎡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7-45공	25.85㎡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7-46잡	102.95㎡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8대	1,099.56㎡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9-2도	1,489.49㎡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9-14대	1,116.67㎡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9-17대	15,145.19㎡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97대	376.73㎡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97-1대	2,590.19㎡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07-1대	422.65㎡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07-4잡	405.72㎡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07-16대	35.70㎡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07-26도	6.66㎡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10-1도	29.93㎡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12-2대	812.13㎡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12-9대	551.69㎡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12-11대	73.10㎡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13-1종	1,667.85㎡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13-2도	1,532.76㎡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14-5종	3,001.95㎡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15-1수	6,065.45㎡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0-4도	57.87㎡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1-1공	1,555.69㎡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2-1대	3,842.10㎡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2-2대	829.96㎡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3-1공	2,396.90㎡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4-1공	1,620.30㎡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4-2공	762.82㎡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4-4공	8,007.35㎡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4-5공	1,010.44㎡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4-6공	42.89㎡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4-7공	122.02㎡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4-8공	29.12㎡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4-9공	20.24㎡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4-10공	10.70㎡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5대	1.91㎡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6-1수	35.62㎡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6-2도	10.13㎡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7-2도	0.77㎡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8-2대	2.76㎡	

명칭	번지(필지)	면적	비고
진주 촉석루 일원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9-5공	15,364.22㎡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9-14대	1,733.28㎡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49-15공	6.28㎡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51공	2,624.81㎡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56-1공	17.47㎡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60-1대	71.94㎡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60-3대	64.89㎡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62-2대	20.97㎡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63-2대	61.83㎡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64수	16.44㎡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65수	1.04㎡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66대	72.61㎡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67-1대	5.51㎡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68-1수	45.65㎡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68-3수	4.72㎡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69-1대	103.67㎡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69-2대	19.21㎡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70-1대	40.96㎡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70-4공	148.99㎡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70-5공	75.58㎡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70-7천	199.85㎡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70-8대	82.82㎡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70-9대	114.59㎡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70-11대	56.97㎡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94사	322.85㎡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95-2도	763.83㎡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95-5도	5,419.14㎡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96천	33,032.77㎡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99-1천	786.62㎡	
	경상남도 진주시 동성동 209-3천	1,147.18㎡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1임	7,355.39㎡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4천	1,287.52㎡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6-1대	137.89㎡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10-1잡	1,160.41㎡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10-6임	1,314.87㎡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11-1잡	690.83㎡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16천	438.29㎡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17-2전	492.14㎡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17-6대	1,082.14㎡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17-14전	65.67㎡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17-16전	1,173.23㎡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17-17대	1,001.69㎡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17-26대	582.92㎡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17-30대	132.98㎡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17-33천	406.13㎡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17-34천	1,039.52㎡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17-38전	43.56㎡	

명칭	번지(필지)	면적	비고
진주 촉석루 일원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44-1전	1,539.28㎡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44-9대	250.66㎡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44-14잡	601.49㎡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46-5도	213.15㎡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46-77전	52.80㎡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46-88천	16.39㎡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46-89천	26.00㎡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46-90천	159.52㎡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46-92천	209.71㎡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46-100천	15.45㎡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47전	5,796.96㎡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634천	136,576.73㎡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638-1도	148.22㎡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397공	6,104.41㎡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02대	238.42㎡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04-1공	69.56㎡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15대	1,673.29㎡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26대	19.62㎡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36-1공	939.90㎡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39-1대	91.34㎡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48-5대	112.67㎡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48-6대	147.73㎡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48-9대	48.98㎡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50-7도	2,666.78㎡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58-1공	12.11㎡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58-2공	5.01㎡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59-2공	34.09㎡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61-3공	83.93㎡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64-3공	8.81㎡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64-5공	9.55㎡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67-1도	124.82㎡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70-1대	4.55㎡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70-3대	2.08㎡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71-3공	22.41㎡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71-4대	4.60㎡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71-5공	9.61㎡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76-4공	12.99㎡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78-1공	1,472.59㎡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79공	35.29㎡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80-1공	24.33㎡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88-1공	19.57㎡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88-3대	3.71㎡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90공	61.64㎡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90-4공	52.91㎡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90-6공	16.58㎡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90-8공	100.10㎡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90-9공	125.32㎡	

명칭	번지(필지)	면적	비고
진주 촉석루 일원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90-10공	4.87㎡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90-11공	260.10㎡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90-12공	67.16㎡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90-15공	94.26㎡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90-16공	50.63㎡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98-1공	986.21㎡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99-1공	9,598.19㎡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499-9도	254.44㎡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00-10대	1,601.48㎡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00-1공	560.23㎡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00-3공	481.18㎡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18-1대	1,337.41㎡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32대	1,293.37㎡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40공	8.25㎡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43-1공	8.10㎡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48대	1,230.21㎡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59-1도	185.75㎡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59-2도	818.17㎡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60-1도	52.08㎡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61-1도	62.16㎡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65-3공	11.61㎡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66-2도	6.59㎡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69-3도	490.00㎡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70-1도	308.42㎡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71공	75.11㎡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72-1도	519.86㎡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72-2도	36.94㎡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72-4도	350.25㎡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73-1천	26,940.51㎡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74-8대	18.44㎡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74-9대	102.70㎡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74-10도	9.98㎡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64천	31.56㎡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102-23천	20,305.06㎡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271-1천	2,318.24㎡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272천	1,382.88㎡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273천	1,285.07㎡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274-1천	1,386.63㎡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274-2천	1,068.97㎡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275천	427.80㎡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276천	276.27㎡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277천	208.16㎡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288-1천	8.11㎡	

3. 조선시대의 지리지에 수록된 명승 자원 목록

경상도

신증-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여지도서

유형-산, 하천, 나루, 누각, 역, 원, 사찰

번호	지역	명칭	유형	편목	위치	내용	관련 시문	비고
1	경주부	금오산(金鼇山)	산	산천	부의 남쪽 6리에 있다.	<신증> 남산(南山)이라고도 한다. <여지> 묵장산에서 뻗어 나오며, 다른 이름으로 남산(南山)이라고도 한다.	당나라의 고운(顧雲)이 최치원에게 지어준 시	
2	경주부	문천(蚊川)	하천	산천	부의 남쪽 5리에 있다.	<신증> 사등이천의 하류이다. <여지> 사등이천(史等伊川)의 하류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김극기의 시, 불계시(祓禊詩)	
3	경주부	집경전(集慶殿)	건물	궁실	객관의 북쪽에 있다.	<신증> 아태조(我太祖) 강헌대왕(康獻大王)의 화상[睟容]을 봉안하였다.	조위의 시	
4	경주부	빈현루(賓賢樓)	정자	누정	객관 동쪽에 있다.		정인지의 기	
5	경주부	의풍루(倚風樓)	정자	누정	객관 서쪽에 있다.		아곡의 시의 서문, 서거정의 기, 이달충의 시	
6	경주부	동정(東亭)	정자	누정	관아 동쪽 5리에 있다.	<여지> 지금은 없어졌다.	전록생의 시	
7	경주부	이견대(利見臺)	정자	누정	부의 동쪽 50리 해안에 있다.	<신증> 대 아래의 10보(步) 바다 가운데 네 뿔이 우뚝 솟은 돌이 네 문과 같은 곳이 있는데, 이것이 그 장사한 곳이다. 지금까지 대왕암(大王巖)이라고 일컫는다.	이문화의 시	
8	경주부	독락당(獨樂堂)	정자	누정	옥산서원 위에 있다.	<여지>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의 별장이다.	유성룡, 장현광, 이안눌의 시	
9	경주부	양진암(養眞菴)	정자	누정	독락당 뒤쪽에 있다.	<여지> 또 다른 이름은 계정(溪亭)이다.	어득강, 이언적의 시	
10	경주부	육의당(六宜堂)	정자	누정	관아 동쪽 30리에 있다.	<여지> 현감 최계종이 지었다.	정문익, 전식의 시	
11	경주부	아화역(阿火驛)	역	역원	부의 서쪽 45리에 있다.	<여지> 북쪽으로 영천(永川) 청통역(淸通驛)까지 30리이다. 큰말 2마리, 중간 말 2마리, 짐말 10마리, 역리 14명, 역노 18명, 역비 19명이다.	김극기의 시	
12	경주부	잉보역(仍甫驛)	역	역원	부의 남쪽 55리에 있다.	<여지> 남쪽으로 언양(彦陽) 덕천역(德川驛)까지 30리이다. 큰말 1마리, 중간 말 2마리, 짐말 8마리, 역리 6백 76명, 역노 1백 11명이다.	김극기의 시	
13	경주부	모량역(牟梁驛)	역	역원	부의 서쪽 23리에 있다.	<여지> 서쪽으로 의곡역(義谷驛)까지 24리이며, 서북쪽으로 아화역(阿火驛)까지 22리이다. 큰말 2마리, 중간 말 2마리, 짐말 10마리, 역리 15명, 역노 20명, 역비 1명이다.	김극기, 정이오, 조준의 시	
14	경주부	혜리원(惠利院)	원	역원	부의 동남쪽 32리에 있다.		하륜의 서문	
15	경주부	분황사(芬皇寺)	사찰	불우	부의 동쪽 5리에 있다.	<신증> 선덕왕 3년에 세웠다. 고려의 평장사(平章事) 한문준(韓文俊)이 찬술한 화쟁국사비(和諍國師碑)가 있는데, 오금석(烏金石)이다.	김극기의 시	
16	경주부	불국사(佛國寺)	사찰	불우	토함산(吐含山) 속에 있다.	<신증> 석교가 둘이 있는데 청운교(靑雲橋)·백운교(白雲橋)라 한다. 제작이 지극히 정교하다. 신라 사람 김대성(金大城)이 창건한 것이다.	김종직의 시	
17	경주부	지림사(祇林寺)	사찰	불우	함월산(含月山)에 있다.		이달충의 시	
18	경주부	백률사(栢栗寺)	사찰	불우	금강산(金剛山)에 있다.	<신증> 전단(栴檀)나무로 조각한 불상이 있다 <여지> 향나무로 조각한 불상이 있다.	전사경의 서루기(西樓記), 정지상, 박효수의 시	
19	경주부	서악서원(西岳書院)	서원	단묘	관아의 서쪽 5리 선도산(仙桃山) 아래에 있다.	<여지> 신라 홍유후(弘儒侯) 설총(薛聰), 각간(角干) 김유신(金庾信), 문창공(文昌公) 최치원(崔致遠)의 제사를 모시는 곳이다.	이정, 이황, 정종영의 시	

번호	지역	명칭	유형	편목	위치	내용	관련 시문	비고
20	경주부	옥 산 서원	서원	단묘	관아의 북쪽 50리 안강현(安康縣)의 서쪽, 자옥산(紫玉山)의 동쪽인 화개산(華盖山) 아래에 있다.	<여지> 호가 회재(晦齋)인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의 제사를 모시는 곳이다.	이안눌의 시, 허엽의 옥산서원기	
21	경주부	월성(月城)	성	고적	관아 동남쪽 5리에 있다.	<여지> 파사왕(婆娑王) 22년에 쌓았는데, 반달 모양이기 때문에 '월성(月城)'이라고 이름지은 것이다. 흙으로 쌓았으며, 둘레가 3천 23척이다.	이인로의 시	
22	경주부	포석정(鮑石亭)	정자	고적	관아의 남쪽 7리 금오산 서쪽 기슭에 있다	<여지> 돌을 다듬어 전복[鮑魚]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포석정'이라고 이름지은 것이다.	이인로, 조위의 시	
23	경주부	첨성대(瞻星臺)	대	고적	관아 동남쪽 3리에 있다.	<여지> 선덕왕(善德王) 때에 돌을 다듬어 대(臺)를 쌓았는데, 위는 모나고 아래는 둥글다. 높이는 19척이다. 그 속은 비어서, 사람이 속으로 오르내리면서 천문(天文)을 관측한다.	안축, 정몽주, 조위의 시	
24	경주부	월명항(月明巷)	포구	고적	금성(金城) 남쪽에 있다.		이제현, 이첨의 시	
25	경주부	열박령(悅朴嶺)	고개	고적	관아남쪽 30리에 있다.	<여지> 경주 기생 전화앵(囀花鶯)이 묻힌 이다.	김극기의 시	
26	경주부	월정교(月精橋)	다리	고적	관아의 서남쪽 문천가에 있었다.	<여지> 두 다리의 옛 터[遺基]가 아직도 남아 있다.	김극기의 시	
27	경주부	천관사(天官寺)	절	고적	오릉 동쪽에 있다.		고려 이공승(李公升)의 시	
28	경주부	황룡사(皇龍寺)	절	고적	월성 동쪽에 있었다.	<여지> 지금은 없어지고, '장륙존상(丈六尊像)'만이 남아있다.	김극기의 시	
29	울산군	대화루(大和樓)	정자	누정	고을 서남쪽 5리에 있다.	<신증> 고려 성종(成宗)이 동경(東京)으로부터 흥려부(興麗府)를 지나다가 대화루에 거둥하여 여러 신하들과 잔치를 열고 서로 수창(酬唱)하며, 또 바다에서 큰 고기를 잡았는데, 이로부터 왕이 몸이 편치 않아 서울에 돌아와서 드디어 훙(薨)했다.	권근의 기, 김극기의 시서(詩序), 서거정의 중신기(重新記), 전 사람의 시	
30	양산군	칠점산(七點山)	산	산천	고을 남쪽 44리 되는 곳 바닷가에 있다.	<신증> 일곱 봉우리의 산이 점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지은 것이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가락국(駕洛國) 때 참시선인(昆始仙人)이 놀던 곳이라 한다.	안축의 시	
31	양산군	황산강(黃山江)	하천	산천	고을 서쪽 18리에 있다.	<신증> 신라에서 사대독(四大瀆)의 하나로 쳤고 중사(中祀)에 실려 있다. 고려에서는 무안(務安)의 용진강(龍津江)과 광양(光陽)의 섬진강(蟾津江)과 이 강을 배반하여 흐르는 삼대수(三大水)라고 일컬었다.	정포의 노래, 이곡의 시	
32	양산군	쌍벽루(雙碧樓)	정자	누정	징심헌(澄心軒) 남쪽에 있다.	<신증> 누 아래에 물과 대나무가 서로 비치므로 인하여 이름 지었다	김시용의 기, 김극기, 장청, 이행, 김종직, 강혼의 시	
33	양산군	징심헌(澄心軒)	정자	누정	객관 서쪽에 있다.		김구경, 강희안, 서거정, 김수동의 시	
34	양산군	일아정(日哦亭)	정자	누정	관아 서쪽 황산역(黃山驛)에 있다.		송시열의 기	
35	양산군	통도사(通度寺)	사찰	불우	취서산(鷲棲山)에 있다.	<신증> 이색(李穡)의 기문이 있다.	김극기의 시	
36	영천군	공산(公山)	산	산천	고을 서쪽 30리에 있다.	<신증> 대구부(大丘府)조에도 있다.	유방선의 시	永川
37	영천군	명원루(明遠樓)	정자	누정	객사 동남쪽에 있다.	<신증> 삼면이 모두 넓고, 아래에는 큰 냇물이 있어 남쪽으로 흐른다.	정몽주, 최원우, 이용의 시, 서거정의 기문	永川
38	영천군	문회루(文會樓)	정자	누정	남정원(南亭院)에 있다		최원우의 시	永川

번호	지역	명칭	유형	편목	위치	내용	관련 시문	비고
39	영천군	청량당	정자	누정	명원루 동쪽에 있다.		조위의 시	永川
40	영천군	명옥정(鳴玉亭)	정자	누정	관아의 서쪽 30리에 있다.	<여지> 지곡(止谷) 윤담(尹聃)이 지었다.	조호익의 시	永川
41	영천군	병애정(屛崖亭)	정자	누정	관아의 남쪽 오지산(五芝山) 아래에 있다.		조선장의 시	永川
42	영천군	청간정(聽磵亭)	정자	누정	관아남쪽 30리 오지산에 있다.		조선일의 시	永川
43	영천군	운심정(雲深亭)	정자	누정	관아의 남쪽 15리 채약산(採藥山) 아래에 있다.		조채신의 시	永川
44	영천군	산택정(山澤亭)	정자	누정	관아의 남쪽 10리 청제(菁堤) 안에 있다.		안정국의 시	永川
45	영천군	풍호정(風乎亭)	정자	누정	관아의 남쪽 10리에 있다.		서유대의 시	永川
46	영천군	운부사(雲浮寺)	사찰	불우			유방선의 시	永川
47	영천군	백지사(柏旨寺)	사찰	불우			유방선의 시	永川
48	영천군	고읍성(古邑城)	성	고적	관아의 서쪽 2리에 있다.		이첨의 기문	永川
49	동래현	온정(溫井)	온천	산천	현의 북쪽으로 5리 떨어진 곳에 있다	<신증> 그 온도는 닭도 익힐 수 있는 정도이며, 병을 지닌 사람이 목욕만 하면 곧 바로 낫는다. 신라 때에 왕이 여러 번 여기에 오곤 하여 돌을 쌓고 네 모퉁이에 구리 기둥을 세웠는데, 그 구멍이 아직껏 남아 있다.	이규보, 정포, 박효수, 권제의 시	
50	동래현	정원루(靖遠樓)	정자	누정	객관의 북쪽에 있다.	<여지> 이 누각은 임진왜란 뒤에 허물어져버렸는데, 강희 무자년(1708, 숙종 34)에 부사 한배하(韓配夏)가 객사의 남쪽에 옮겨 세웠다.	신숙주의 기	
51	동래도호부	해운대(海雲臺)	대	고적	관아 동쪽 18리에 있다.	<여지> 산의 가파른 경사면[山陡]이 바다 속에 잠겨 있어 그 모습이 마치 누에의 머리와 같다. 산 위에는 온통 동백나무, 두충나무, 소나무, 삼나무 등으로 무성하게 덮여 있어 사시사철 한결같이 푸르디푸르다. 이른봄이면 동백꽃 잎이 서너 치[寸] 깊이로 땅에 쌓여, 이곳에서 노니는 사람들의 말굽에 차이고 짓밟힌다[蹴踏].	정포, 최항, 권반의 시 유호인, 조위, 강혼의 시 이민구, 김석주의 시	
52	동래도호부	겸효대(謙孝臺)	대	고적	관아의 남쪽 5리에 있다.	<여지> 신선[仙人] 김겸효(金謙孝)가 노닐던 곳이라 해서 '겸효대'라고 이름했다.	정추의 시	
53	동래도호부	과정(瓜亭)	정자	고적	관아의 남쪽 10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여지> 정서(鄭敍)는 고려 때 벼슬살이를 했는데, 스스로 '과정'이라는 호를 지었으니, 악부(樂府)에 나오는 '정과정곡(鄭瓜亭曲)[80]'이 바로 그 곡이다. 정자의 터는 지금도 남아 있다.	이제현, 정추, 한수, 유숙, 이숭인의 시	
54	동래도호부	영가대(永嘉臺)	대	고적	관아의 남쪽 20리 부산진(釜山鎭) 가에 있다.	<여지> 만력(萬曆) 갑인년(1614, 광해군 6) 순찰사(巡察使)[巡使] 권반(權盼)[81]이 땅을 파고 호수를 만들어 전선(戰船)을 감추었으며, 작은 언덕을 쌓아 대(臺)를 만들었다. 권반이 곧 영가(永嘉) 사람이기 때문에 '영가대'라고 이름했다.	이민구, 조경의 시	
55	동래도호부	의상대(義湘臺)	대	고적	관아의 북쪽 20리 금정산(金井山) 꼭대기에 있다.	<여지> 승려 의상(義湘)이 노닐던 곳이다. 올라가 보면 일출을 구경할 수 있다.	이안눌의 시	
56	청하현	해월루(海月樓)	정자	누정	객사 서쪽에 있다.		이언적의 기	

번호	지역	명칭	유형	편목	위치	내용	관련 시문	비고
57	영일현	인빈당(寅賓堂)	정자	누정	의운정의 서쪽에 있다.	<신증> 성화(成化) 경자년에 현감 어득호(魚得湖)가 세웠다.	김종직의 기	
58	안동대도호부	문필산(文筆山)	산	산천	부의 남쪽 23리에 있다.	<신증> 세상에서 전하는 말에, 신라의 김생(金生)이 여기에서 글씨를 배웠으므로 산 이름을 문필산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안축의 시	
59	안동대도호부	청량산(淸凉山)	산	산천	재산현(才山縣)의 서쪽에 있다.	<여지> 동쪽의 영양(英陽) 일월산(日月山)에서 뻗어 나와서, 북쪽으로 예안(禮安)의 부저산(釜底山)과 재산(材山)의 여러 산봉우리로 뻗어 나간다.	주세붕의 시	
60	안동대도호부	관풍루(觀風樓)	정자	누정	부의 성안에 있다.		김수온의 기	
61	안동대도호부	영호루(映湖樓)	정자	누정	부의 남쪽 5리에 있다.		백문보의 금방기(金榜記), 이색의 찬과 서문, 정도전의 시 고려 채홍철, 우탁, 조간의 시 정포, 정자후, 신천, 전녹생, 정몽주, 권근, 권사복, 이원, 조효문, 최수의 시 김종직의 기	
62	안동대도호부	삼귀정(三龜亭)	정자	누정	풍산현(豊山縣)의 서쪽 6리에 있다.		성현의 기 김극검, 김영의 시	
63	안동대도호부	귀래정(歸來亭)	정자	누정	부의 동쪽 3리에 있다.	<신증> 유수(留守) 이굉(李硡)이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 돌아와서 와부탄(瓦釜灘) 위에 정자를 지었다. <여지> 와부탄(瓦釜灘) 가에 있다. 유수(留守) 이굉(李浤)이 나이가 늙어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은 것이다.	이우의 시	
64	안동대도호부	망호루(望湖樓)	정자	누정	객관 동쪽에 있다.	<여지> 부사 박호겸(朴好謙)이 세운 것이다.	조사수, 홍성민, 홍성구, 양문의 시	
65	안동대도호부	애련당(愛蓮堂)	정자	누정	망호루 동쪽에 있다.		이우, 이황의 시	
66	안동대도호부	연어헌(鳶魚軒)	정자	누정	관아의 서쪽 20리 청성산(靑城山)에 있다.	<여지> 처사(處士) 권호문(權好文)이 지었다.	주원조의 시	
67	안동대도호부	석문정(石門亭)	정자	누정	관아 서쪽 20리 청성산에 있다	<여지> 관찰사 김성일(金誠一)이 지었다.	김성일의 시	
68	안동대도호부	선유정(仙遊亭)	정자	누정	임하현 동쪽 15리에 있다.	<여지> 생원 김진(金璡)이 지은 것이다.	김진, 김극일의 시	
69	안동대도호부	백운정(白雲亭)	정자	누정	임하현 북쪽 2리에 있다.	<여지> 찰방(察訪) 김수일(金守一)이 지었다.	김진, 김성일, 이안눌, 김용의 시	
70	안동대도호부	금역당(琴易堂)	정자	누정	임하현 북쪽 30리에 있다.	<여지> 검열(檢閱) 배용길(裵龍吉)이 지었다.	주원조의 시	
71	안동대도호부	삼강당(三綱堂)	정자	누정	풍산현 상리(上里)에 있다.		김해의 기문	

번호	지역	명칭	유형	편목	위치	내용	관련 시문	비고
72	안동대도호부	타양정(沱陽亭)	정자	누정	일직현(一直縣) 서쪽에 있다.		양문의 시	
73	안동대도호부	청암정(靑岩亭)	정자	누정	내성현 북쪽 3리에 있다.	<여지> 우찬성(右贊成) 권벌(權橃)이 지었다.	이황, 권벽의 시	
74	안동대도호부	옥연정(玉淵亭)	정자	누정	겸암(謙岩)의 아래에 있다.	<여지> 영의정 유성룡(柳成龍)이 지었다	유성룡의 시	
75	안동대도호부	임청각(臨淸閣)	정자	누정	관아의 동쪽 3리에 있다.	<여지> 현감(縣監) 이명(李洺)이 지었다.	이현보, 고경영의 시	
76	안동대도호부	반구정(伴鷗亭)	정자	누정	관아의 남쪽 7리 귀래정(歸來亭)의 위쪽에 있다	<여지> 별제(別提) 이굉(李肱)이 지었다.	이황의 시	
77	안동대도호부	대표정사(大瓢精舍)	정자	누정	임하현 동쪽 15리에 있다.	<여지> 다른 이름으로 와룡초당(臥龍草堂)이라고도 한다. 숭정 처사(崇禎處士) 김시온(金是榲)이 지은 것이다.	김시온의 시, 이보의 기문	
78	안동대도호부	약원(藥院)	건물	공해	부성의 북문밖에 있다.		이색의 기문	
79	안동대도호부	옹천역(甕泉驛)	역	역원	부의 북쪽 34리에 있다.		김구용의 시	
80	안동대도호부	백련사(白蓮寺)	사찰	불우	노산(盧山)에 있으며, 침벽루(枕碧樓)가 있다.	<여지> 침벽루(枕碧樓)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권한공의 시	
81	안동대도호부	법흥사(法興寺)	사찰	불우	부의 동쪽에 있다.	<여지> 지금은 없어졌다.	박효수의 시	
82	안동대도호부	청량사(淸凉寺)	절	사찰	청량산에 있다.		주세붕의 시	
83	안동대도호부	서악사(西嶽寺)	절	사찰	관아 서쪽 5리에 있다.		임담의 시	
84	안동대도호부	현사사(玄沙寺)	절	사찰	관아의 동쪽 20리 와룡산(臥龍山)에 있다.		이려, 구봉령의 시	
85	안동대도호부	봉정사(鳳亭寺)	절	사찰	관아의 서쪽 30리 천등산(天燈山) 아래에 있다.	<여지> 신라 때의 옛 사찰이다.	이황의 시	
86	안동대도호부	광흥사(廣興寺)	절	사찰	관아의 서쪽 30리 학가산(鶴駕山) 남쪽에 있다.		이현보, 이황의 시	
87	안동대도호부	중대사(中臺寺)	절	사찰	풍산현 북쪽 15리 적산(赤山) 남쪽에 있다.		유성룡, 김상현, 이유장의 시	
88	영해도호부	서읍령(西泣嶺)	고개	산천	부의 동쪽 40리에 있다.	<신증> 온 고을의 전송(餞送), 영접(迎接)하는 곳이 되어 있다. <여지> 백암산에서 뻗어 나온다. 영해 고을 사람들이 손님을 전송하거나 맞이하는 곳이다.	권오복의 시	
89	영해도호부	서루(西樓)	정자	누정	성의 서쪽 문루이다.		권근의 기	
90	영해도호부	관어대(觀魚臺)	정자	누정	부의 동쪽 7리에 있다.		이색의 관어대부 서문, 시, 김종직의 관어대부	

번호	지역	명칭	유형	편목	위치	내용	관련 시문	비고
91	청송도호부	찬경루(讚慶樓)	정자	누정	객관의 남쪽에 있다.		홍여방의 찬경루기, 서거정의 시 김종직, 이심원의 시, 홍성민의 시, 송시열의 찬경루중수기	
92	청송도호부	수고정(秀孤亭)	정자	누정	객과 북쪽에 있다.	<여지> 만력(萬曆) 기묘년(1579, 선조 12)에 부사 고경허(高景虛)가 세운 것이다.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이 현판[扁額] 글씨를 썼다.	양극선의 시	
93	청송도호부	방대(方臺)	정자	산천	안덕현 북쪽 10리에 있다.	<여지> 시냇가 증암(甑巖) 위에 풍수정(風樹亭)이 있는데, 고을 사람인 주부 조준도가 세운 것으로 고을에서 으뜸가는 명승지이다.	김성일, 이준의 시	
94	예천군	쾌빈루(快賓樓)	정자	누정	객관의 동쪽에 있다		서거정의 시, 이의무의 기, 김종직의 시	
95	예천군	향사당(鄕射堂)	정자	누정	군의 서쪽 2리에 있다.		권오복의 기	
96	예천군	선몽대(仙夢臺)	정자	누정	관아 서쪽 5리에 있다.	<여지> 관가정(觀稼亭)이라고 부른다.	이황, 김상헌의 시	
97	예천군	용문사(龍門寺)	사찰	불우	용문산(龍門山)에 있다.	<신증> 고려 태조가 두운을 위하여 창건한 것이다. 뒤에 명종 때에 태자의 태를 절의 왼편에 있는 봉우리에 장치하고 이름을 창기사라 고쳤다. 산기상시 이지명이 기를 썼다.	이지명의 기 서거정의 시	
98	예천군	대곡사(大谷寺)	사찰	불우	비봉산(飛鳳山)에 있다.		이규보의 시	
99	영천군	소루(小樓)	정자	누정	객사 남쪽에 있다.	<신증> 천순(天順)[82] 년간에 군수 정종소(鄭從韶)가 세웠다.	김종직의 소루기, 김종직의 시	榮川
100	영천군	쌍청당(雙淸堂)	정자	누정	객관 동쪽에 있다.	<여지> 군수 김세훈(金世勳)이 지었다. 쌍청당의 남쪽과 북쪽에 모두 연못이 있다.	이황, 김상헌의 시	榮川
101	영천군	귀학정(龜鶴亭)	정자	누정	관아의 서쪽 3리 서귀대(西龜臺) 아래에 있다.	<여지> 참판(參判) 김륵(金玏)이 지은 것이다.	유성룡,이수광, 이식의 시	榮川
102	영천군	부석사(浮石寺)	사찰	불우	봉황산(鳳凰山)에 있다.		박효수의 시	榮川
103	영천군	이 산 서원	서원	단묘	관아의 동쪽 산이리(山伊里)에 있다.		이황의 시, 이황의 이산서원기	榮川
104	풍기군	소백산(小白山)	산	산천	순흥현에 있다. 군에서의 거리는 32리이다.		서거정의 시	
105	풍기군	죽계(竹溪)	계곡	산천	순흥부에 있다. 군에서 북쪽으로 23리 떨어져 있다.		이색의 시	
106	풍기군	숙수사(宿水寺)	절	고적	소백산 아래 있다		노여의 시	
107	풍기군	봉서루(鳳棲樓)	정자	고적	순흥부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안축의 봉서루기	
108	의성현	백장령(百丈嶺)	고개	산천	관아 서남쪽 28리에 있다.	<여지> 선암산에서 뻗어 나와 천방산(天放山)의 으뜸이 되는 산줄기를 이룬다. 산 아래에 봉대(鳳臺)라는 바위 절벽[石壁]이 있는데, 높이는 수 십 척이 될 만하며 그 길이는 높이의 10배는 된다. 봉대 아래에 수성담(水成潭)이 있다.	정현광의 기	
109	의성현	문소관(聞韶館)	건물	공해	객사	<여지> 동쪽을 봉의헌(鳳儀軒), 서쪽을 구성헌(九成軒)이라고 한다.	김성일의 시	
110	의성현	문소루(聞韶樓)	정자	누정	객사 북쪽에 있다		화지원의 기, 김지대, 이문화, 정몽주, 김자수의 시	

번호	지역	명칭	유형	편목	위치	내용	관련 시문	비고
111	의성현	도리원(都里院)	역	역원	관아 서쪽 32리에 있었다.		강희맹의 시	
112	의성현	수량암(修量菴)	절	사찰	금학산에 있다.	<여지> 지금은 수정사라 불린다.	이민성의 시	
113	의성현	백장사(白丈寺)	사찰	불우	비봉산(飛鳳山)에 있다.		유호인의 시	
114	의성현	성황사	사당	단묘	관아 북쪽 3리에 있다.		유호인의 영신가, 송신가	
115	영덕현	청심루(淸心樓)	정자	누정	바로 성 서문의 누각이다.	<신증> 영락(永樂) 계묘년(癸卯年)에 지현(知縣) 최우(崔宇)가 건축했고, 천순(天順) 정축년(丁丑年)에 현령(縣令) 염상항(廉尙恒)이 중수했으며, 권람(權擥)이 기(記)를 적었다.	권람의 기, 김종직의 시	
116	봉화현	태백산(太白山)	산	산천	현 북쪽 73리에 있다		고려 최선의 예안 용수사 기	
117	진보현	압각대(鴨脚臺)	정자	누정	객관의 북쪽에 있다.		서거정의 시	
118	진보현	추현원(楸峴院)	원	역원	현 서쪽 15리에 있다.		서거정의 시	
119	군위현	소계역(召溪驛)	역	역원	현 남쪽 41리 효령현(孝靈縣)에 있다.		김극기의 시	
120	군위현	김 유 신 사(金庾信祠)	건물	단묘	효령현(孝靈縣) 서악(西岳)에 있다.	<여지>민간에서는 '삼장군당'이라고 부른다. 해마다 단오날에 고을의 수리[83]가 고을 사람을 거느리고 역참의 말에 깃발과 북을 달고 귀신을 맞이하면서 마을거리를 누빈다.	허추의 시	
121	비안현	요산헌(樂山軒)	정자	누정	바로 객관의 동헌이다.		김지경의 기	
122	비안현	구요루(衢謠樓)	정자	누정	객관의 동쪽에 있다.		하륜의 기	
123	예안현	용두산(龍頭山)	산	산천	현 북쪽 22리에 있다.		최선의 용수사 기	
124	예안현	부용산(芙蓉山)	산	산천	관아의 동쪽 7리에 있다.	<여지> 조목(趙穆)이 이 산 아래서 살았다.	이황의 시	
125	예안현	고산(孤山)	산	산천	관아의 동쪽 25리에 있다.	<여지> 금란수(琴蘭秀)가 이 산 북쪽에 정자를 지었다.	이황의 시	
126	예안현	건지산(搴芝山)	산	산천	관아의 동쪽 20리에 있다.	<여지> 한 줄기가 서쪽으로 뻗어 나가 낙모봉(落帽峯)을 이룬다.	이황의 시	
127	예안현	단사협(丹砂峽)	계곡	산천	관아의 동쪽 20리에 있다.	<여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빙 둘러 에워싸고 낙동강[洛江]이 굽이치며 휘감아 돌아 흐른다. 이황이 이곳을 '단사협'이라고 이름했는데, 돌 색깔에 붉은 빛이 많이 감돌기 때문이다. 경치가 가장 빼어난 곳이라고 일컬어진다.	이황의 시	
128	예안현	퇴계(退溪)	계곡	산천	건지산 남쪽에 있다.	<여지> 이황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면서, 이곳의 지명을 따라 자신의 호를 '퇴계'라고 했다.	이황의 시	
129	예안현	탁영담(濯纓潭)	계곡	산천	천연대(天淵臺) 아래에 있다.	<여지> 그 안에 반타석(盤陀石)이 있다.	이황의 시	
130	예안현	추흥정(秋興亭)	정자	누정	객관 동쪽에 있다.		하연의 기 은여림의 시	
131	예안현	한서암(寒棲菴)	정자	누정	[신증]퇴계(退溪) 가에 있다.	<여지> 이황이 깃들여 살던 곳이다.	이황의 시	
132	예안현	애일당(愛日堂)	정자	누정	농암(聾巖) 가에 있다.	<여지> 이현보(李賢輔)가 짓고 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하며 '애일당[84]'이라고 이름했다.	이현보, 이언적, 이황의 시	
133	예안현	천연대(天淵臺)	정자	누정	도산 동쪽 기슭에 있다.		이황의 시	
134	예안현	월 천 서 당(月川書堂)	서당	누정	부용산(芙蓉山) 남쪽에 있다.	<여지> 조목(趙穆)이 책을 간직해둔 곳이다.	이황의 시	
135	예안현	탁청정(濯淸亭)	정자	누정	관아의 남쪽 5리에 있다.	<여지> 김수(金綏)가 지은 것이다.	이황의 시	

번호	지역	명칭	유형	편목	위치	내용	관련 시문	비고
136	예안현	용수사(龍壽寺)	절	사찰	용두산(龍頭山) 남쪽에 있다.	<여지> 고려 때의 중 성원(誠源)이 처음 지었으며, 의종(毅宗)이 중 석윤(釋胤)을 위하여 고쳐 짓고, 용수사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최선(崔詵)에게 명하여 기를 짓게 했다.	[구증]최선의 기문 [신증]이황의 시	
137	예안현	월란암(月瀾菴)	암자	사찰	관아의 동쪽 15리에 있다.	<여지> 일곱 대(臺)[七臺]와 세 굽이[三曲]로 이루어진 빼어난 경치를 간직하고 있다. 이황이 어렸을 때 글을 읽던 곳이다.	이황의 시	
138	예안현	운암(雲菴)	암자	사찰	어름산(禦廩山) 위에 있다.		이황의 시	
139	예안현	역 동 서원(易東書院)	서원	단묘	관아의 동쪽 10리에 있다.	<여지> 고려 좨주(祭酒) 우탁(禹倬)이 역학(易學)에 정통하여, 늙은 나이[晩年]에 벼슬에서 물러나 고을의 남쪽에서 살았다. 그 후 이황이 발의하여 사당을 세우고, '역동서원'이라 이름했다.	이황의 기문	
140	용궁현	하풍진(河豊津)	나루	산천	관아의 남쪽 20리에 있다.	<신증> 안동부의 견항진(犬項津), 예천군의 사천(沙川) 및 성화천(省火川)의 물이 용비산 아래에서 합쳐 하풍진이 된다.	이규보의 시	
141	용궁현	수월루(水月樓)	정자	누정	객관 동쪽에 있다.		김수온, 서거정의 시	
142	용궁현	부취루(浮翠樓)	정자	누정	수월루 북쪽에 있다.		홍귀달의 기, 강혼의 시, 이황의 시	
143	용궁현	청원정(淸遠亭)	정자	누정	성화천의 동쪽 기슭에 있다.		이제현, 이황의 시	
144	용궁현	백화사(白華寺)	사찰	불우	천덕산에 있다.	<신증> 절에 두 누가 있으니 서쪽에 있는 것을 관공(觀空), 동쪽에 있는 것을 정당(政堂)이라고 한다. <여지> 절에 두 개의 누각이 있어, 서쪽에 있는 누각을 '관공루', 동쪽에 있는 누각을 '정당루'라고 했는데, 둘 다 지금은 없어졌다.	이제현의 관공루기, 이제현, 권사복, 염흥방의 시 전원발의 발문, 시	
145	대구도호부	금학루(琴鶴樓)	정자	누정	객관의 동북 모퉁이에 있다.		김조의 기, 강진덕의 시, 일본 중 경양의 시	
146	밀양도호부	용진(龍津)	나루	산천	부의 남쪽 36리에 있다		정이오의 시	
147	밀양도호부	고야산(姑射山)	산	산천	관아의 동쪽 50리에 있다.	<여지> 재악산에서 뻗어 나온다.	김종직의 시	
148	밀양도호부	인교(茵橋)	다리	교량	관아 서쪽 45리에 있다	<여지> 내진천 하류에 있다.	이첨의 시	
149	밀양도호부	영남루(嶺南樓)	정자	누정	객관 동쪽에 있다.	<신증> 바로 옛 영남사(嶺南寺)의 작은 누각인데, 절은 없어졌다. 지원(至元) 을사년에 김주(金湊)가 군수가 되어 예전대로 고쳐 세우고, 인하여 절의 이름으로써 이름지었다. 뒤에 부사 안질(安質)이 중수하였다.	고려 김주의 기 신숙주의 기, 성원도, 임춘, 이숭인, 이인복, 권근, 하륜, 유관, 이원, 도원흥, 김계창의 시 신부, 김종직, 이윤, 유선정의 시 이황, 권벌, 주세붕, 유성룡, 김창흡의 시	
150	밀양도호부	소루(召樓)	정자	누정	영남루 서쪽에 있다.		권기의 기	
151	밀양도호부	덕민정(德民亭)	정자	누정	수산현(守山縣)에 있다.		권람의 기 서거정의 시 이광진의 시	

번호	지역	명칭	유형	편목	위치	내용	관련 시문	비고
152	밀양도호부	영정사(靈井寺)	절	사찰	재약산에 있다.		김종직, 김경중, 김극일의 시	
153	밀양도호부	영은사(靈隱寺)	절	사찰	종남산(終南山)에 있다.		변계량의 시	
154	밀양도호부	삼랑루(三郎樓)	정자	고적	관아의 남쪽 30여 리에 있다.	<여지> 응천(凝川)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이다. 그 후 교도(敎導) 민구령(閔九齡)의 다섯 형제가 이 곳에서 경치를 즐기며[湛樂] 집[棟宇]을 짓고 이름을 '오우정(五友亭)'이라고 했다.	고려 승려 원감의 시 안주의 시	
155	청도군	청덕루(淸德樓)	정자	누정	객관 동쪽에 있다.	<신증> 지군(知郡) 최안을(崔安乙)이 세우고, 최원우(崔元祐)가 기문을 지었다. <여지> 객관 동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전녹생, 심효생, 권근, 정이오의 시	
156	청도군	적천사(磧川寺)	사찰	불우	오산 남쪽에 있다.		승려 인각의 시	
157	경산현	차군헌(此君軒)	정자	누정			채신보의 기	
158	하양현	용벽루(聳碧樓)	정자	누정	동헌 동쪽에 있다.	<신증> 영락(永樂) 병신(丙申)년에 현감(縣監) 송을개(宋乙開)가 세웠다.	서거정의 시	
159	하양현	신림사(新林寺)	사찰	불우	무락산(無落山)에 있다.		김극기의 시	
160	하양현	남태사(南泰寺)	사찰	불우	시산(匙山)에 있다.		김극기의 시	
161	인동현	망호헌(望湖軒)	건물	궁실	객관 서쪽에 있다.		강혼의 기	
162	현풍현	비슬산(琵瑟山)	산	산천	일명 포산(苞山)이다. 현의 동쪽 5리에 있다.	<신증> 또한 성주(星州), 밀양(密陽), 창녕에 보인다. <여지> 다른 이름으로 포산(苞山)이다.	이숭인이 승사(僧舍)에 쓴 시	
163	현풍현	앙풍루(仰風樓)	정자	누정	객관 남쪽에 있다		이첨의 기	
164	현풍현	유가사(瑜伽寺)	절	고적	비슬산(琵瑟山) 아래에 있다.		김지대의 시	
165	의흥현	인각사(麟角寺)	사찰	불우	화산(華山) 동네 어귀에 있다.	<신증> 석벽(石壁)이 깎아지른 듯하다. 속담에 전하기를, "옛날 기린(麒麟)이 이 석벽에 뿔을 걸쳤다 해서 이렇게 불렀다." 한다. 민지(閔漬)가 지은 보각(普覺) 스님의 비명(碑銘)이 있다.	유호인의 시	
166	신녕현	장수역(長壽驛)	역	역원	현의 서쪽 5리에 있다.	<신증> 찰방(察訪)을 두었다. 본도에 속한 역은 청통(淸通)、아화(阿火)、모량(毛良)、사리(沙里)、압량(押梁)、우곡(牛谷)、부평(富平)、청경(淸景)、구어(仇於)、화양(華陽)、의곡(義谷)、인비(仁庇)、경역(境驛)、조역(朝驛) 14개다.	정몽의 시	
167	영산현	쌍수정(雙樹亭)	정자	누정	객관 남쪽에 있다.		홍의달의 회문시(回文詩)	
168	영산현	대월루(待月樓)	정자	누정	객관 동쪽에 있다.		권두경의 시	
169	영산현	광심정(廣心亭)	정자	누정	관아의 남쪽 25리에 있다.	송지일(宋知逸)의 별장이다.	이숙의 시	
170	영산현	추월헌(秋月軒)	정자	누정	객관의 서헌(西軒)이다.	현감(縣監) 박한주(朴漢柱)가 세웠다.	안침의 시	
171	창녕현	불일루(不日樓)	정자	누정	객관 서쪽에 있다.		이지강의 시	
172	창녕현	추월헌(秋月軒)	정자	누정	객관의 서헌(西軒)이니 현감 박한주(朴漢柱)가 세운 것이다.	<신증> 헌(軒)의 북쪽에 못을 파고 연꽃을 심었으며 돌을 모아 섬을 만들었다.	안침의 시	
173	상주목	사불산(四佛山)	산	산천	산양현(山陽縣) 북쪽에 있는데, 주와의 거리가 99리다.	<여지> 풍기 죽령에서 뻗어나온다.	고려 중 진정의 유산기(遊山記)	

번호	지역	명칭	유형	편목	위치	내용	관련 시문	비고
174	상주목	낙동강(洛東江)	하천	산천	주 동쪽 36리에 있다.	<신증> 문경의 용연(龍淵)과 군위의 병천(竝川) 등 여러 물이 주의 동북쪽에 이르러 용궁 하풍진에 합하여 남으로 흘러 낙동강이 되어, 선산부 경계로 들어간다. 여기로부터 바다에 들어가기까지 비록 땅에 따라 이름은 다르나 총칭 낙동강이라 하고 가야진(伽倻津)이라고 일컫는다.	이규보, 안축의 시	
175	상주목	풍영루(風詠樓)	정자	누정		<여지> 지금은 없어졌다.	이색, 권근의 기, 이숭인의 시, 김종직의 중수기	
176	상주목	응신루(凝神樓)	정자	누정	풍영루(風詠樓) 서쪽에 있다	<신증> 판관(判官) 민녕(閔寧)이 세웠다.	홍귀달의 기	
177	상주목	한연당(閒燕堂)	정자	누정	주 동쪽 40리에 있다.	<신증> 이항(李沆)의 별장이다.	남곤의 기	
178	상주목	관수루(觀水樓)	정자	누정	낙동강 동쪽 언덕에 있다.		김일손, 이황의 시	
179	상주목	용암사(龍巖寺)	사찰	불우	만악산(萬嶽山)에 있다.	<여지> 만악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고려 황보탁의 기	
180	상주목	승장사(勝長寺)	사찰	불우	장천부곡(長川部曲)에 있다.		김상직의 중창기, 이규보의 시, 김양경의 시	
181	상주목	미륵암(彌勒庵)	암자	불우	사불산(四佛山)에 있다.		권근의 기	
182	성주목	가야산(伽倻山)	산	산천	주 서남쪽 48리에 있다.	<신증> 합천(陜川)에 보인다. <여지> 산맥이 수도산 남쪽 기슭에서 뻗어 나와, 남쪽으로 합천(陜川)과의 경계에 접한다.	이숭인의 시	
183	성주목	태평촌(太平村)	마을	산천	팔거현(八莒縣) 서쪽 15리에 있다.		이첨의 시	
184	성주목	동안진(東安津)	나루	산천	주 동쪽 26리에 있다	<신증> 소야강(所耶江)의 하류다. <여지> 곧 소야강(所耶江)의 하류이며 대구부(大丘府)와의 경계이다.	채련의 시	
185	성주목	실록각	건물	궁실	성안 객관(客館) 동북쪽에 있다	<신증> 본조(本朝)의 실록을 간직하였다. <여지>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곳이다.	강희맹의 시, 신숙주의 기, 고려 이조년, 왕강의 시, 남재의 시	
186	성주목	백화헌(百花軒)	건물	궁실	동헌이다	<여지> 신숙주의 중영기가 전한다.	고려 이조년, 왕강의 시, 남재의 시	
187	성주목	임풍루(臨風樓)	정자	누정	객관 북쪽에 있다.		정인지의 기 강혼의 시	
188	성주목	청운루(靑雲樓)	정자	누정	성 동문 안에 있다.		고려 안유의 시 임춘, 박효수의 시	
189	성주목	몽송루(夢松樓)	정자	누정	옛터가 성 북쪽에 있는데 지금은 중수하여 정자를 만들었다.	<여지> 지금은 다시 손질하여 정자를 만들었다.	이숭인의 기	
190	성주목	남정(南亭)	정자	누정	주 남쪽 1리에 있다.	<신증> 김우(金祐)가 지었다.	황필의 기	
191	성주목	인흥사(仁興寺)	사찰	불우	비슬산(琵瑟山) 북쪽에 있다.	<신증> 고려 공민왕이 액자(額字)를 썼다	이숭인의 시	
192	성주목	심원사(深源寺)	사찰	불우	가야산(伽倻山) 남쪽에 있다.		이숭인의 시	
193	선산도호부	노자석(鸕鷀石)	바위	산천	원흥사(元興寺) 앞 물 가운데, 선산도호부에서 북쪽 18리에 있다.	<여지> 원흥사 앞 물 가운데 있다.	이규보의 시	
194	선산도호부	견탄(犬灘)	하천	산천	본부의 북쪽 34리이니 삼국 낙동강의 하류다.	<여지> 상주 낙동강의 하류이다.	이규보의 시	

번호	지역	명칭	유형	편목	위치	내용	관련 시문	비고
195	선산도호부	북관(北館)	건물	궁실		<여지> 지금은 없어졌다.	홍귀달의 기문	
196	선산도호부	남관(南館)	건물	궁실		<여지> 지금은 없어졌다.	권채 광선헌기	
197	선산도호부	월파정(月波亭)	정자	누정	여차니(餘次尼)나루 동쪽 기슭에 있다.		권근의 기, 전대유, 김복항, 강희맹의 시	
198	선산도호부	양소루(養素樓)	정자	누정	북관 북쪽에 있다.		조위의 기문	
199	선산도호부	매학정(梅鶴亭)	정자	누정	관아의 동쪽 15리 너른 들판 가운데에 있다.	<여지> 한 점 외딴 산에 낙동강을 굽어보고 있으며, 처사(處士) 황기로(黃耆老)가 지은 것이다.	이우, 이황, 송시열의 시	
200	선산도호부	낙서정(洛西亭)	정자	누정	관아의 남쪽 30리 비산진(緋山津) 서쪽 언덕에 있다.	<여지> 현감(縣監) 이지(李墀)가 지었다.	홍세태의 시	
201	선산도호부	노자정(鸕鷀亭)	정자	누정	관아의 북쪽 20리 낙동강 서쪽 기슭의 노자석(鸕鷀石) 위에 있다.	<여지> 선비 심치현(沈致賢)이 지은 것이다.	이재의 시	
202	선산도호부	대혈사(大穴寺)	사찰	불우	금오산 북쪽에 있다.	<여지> 지금은 없어졌다.	고려 길재의 시, 송을개의 시	
203	선산도호부	도선굴(道詵窟)	절	사찰	금오산 북쪽에 있는 바위굴이다.	<여지> 넓이가 16자이며, 깊이가 24자이고, 높이는 15자인데, 두 칸 짜리 집을 지었다.	송을개의 시	
204	선산도호부	길재사(吉再祠)	사당	단묘	읍내에서 20리이다.	<여지> 금오산 아래 구며리에 있으며, 관찰사 남재가 세운 것이다. 1707년(숙종 33)에 임금이 짓고 직접 써서 내려준 시가 전한다.	숙종 어제시	
205	김산군	김천역(金泉驛)	역	역원	관아 남쪽 10리에 있다.	<여지> 찰방이 있다.	이첨의 시	
206	개령현	무민루(撫民樓)	정자	누정	객관 동쪽에 있다.		이원의 시, 서거정의 기	
207	개령현	부상역(扶桑驛)	역	역원	현의 남쪽 30리에 있다.		서거정의 시	
208	고령현	쾌빈정(快賓亭)	정자	누정	객관 남쪽에 있다.		이중윤의 기	
209	고령현	반룡사(盤龍寺)	사찰	불우	미숭산(美崇山)에 있다.	<여지> 원(元)나라 세조(世祖) 때 써 붙인 방문(榜文)이 있어 전한다.	이인로, 박효수, 유방선의 시	
210	문경현	용추(龍湫)	하천	산천	새재[草岾] 밑의 동화원(桐華院) 서북쪽 1리에 있다.	<신증> 사면과 밑이 모두 돌이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폭포가 있다. 용이 오른 곳이라고 전한다.	이변갑의 시	
211	문경현	선유동(仙遊洞)	계곡	산천	대야산 동쪽 6, 7리에 있다.	<여지> 증(贈) 집의(執義) 신필정(申弼貞)이 부지런히 학문을 닦던 곳이다.	정경세의 시	
212	문경현	용추(龍湫)	계곡	산천	선유동 상류에 있다.	<여지> 그 아래에 판서(判書) 이재(李縡)의 정자가 있다.	이재의 시	
213	문경현	경운루(慶雲樓)	정자	누정	객관 동남쪽에 있다.		이지강, 함부림의 시	
214	문경현	교구정(交龜亭)	정자	누정	조령 용추(龍湫) 위에 있다.	<여지> 관찰사(觀察使)가 직무를 인수인계하기 위해 이름을 나란히 쓰고 날인하던 곳이다.	김종직의 시	
215	문경현	유곡역(幽谷驛)	역	역원	현의 남쪽 40리에 있다.		홍귀달의 중수기	
216	문경현	요성역(聊城驛)	역	역원	현의 동쪽 2리에 있다.		이규보, 김군수의 시	
217	문경현	견탄원(犬灘院)	원	역원	견탄 북쪽 기슭에 있다.		권근의 기	

번호	지역	명칭	유형	편목	위치	내용	관련 시문	비고
218	문경현	화봉원(華封院)	원	역원	현의 북쪽 4리에 있다.	<신증> 속칭 초곡원(草谷院)이다.	고려 유희의 시, 이규보의 시	
219	문경현	고모성(姑母城)	성	관애	토천(兎遷) 서쪽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인 단봉(斷峯) 위에 있다.	<여지> 임진왜란 때 왜적이, 성을 지키는 병사가 있을까 두려워서 두 세 번 엿본 뒤에야 지키는 병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지나갔다고 한다.	이언적의 시	
220	함창현	함녕루(咸寧樓)	정자	누정			조위의 기	
221	함창현	명은루(明隱樓)	문루	누정		<신증> 객관의 문루이다	홍귀달의 기 이육의 시	
222	함창현	쾌재정(快哉亭)	정자	누정	이안부곡(利安部曲)의 서쪽이다.	<신증> 채수(蔡壽)의 별장이 있다.	채수의 기	
223	함창현	가정(稼亭)	정자	고적	관아의 서쪽 20리에 있다.	<여지> 고려 문효공(文孝公) 이곡(李穀)이 살던 옛터이다.	홍여하의 비문	
224	진주목	지리산(智異山)	산	산천	주 서쪽 1백 리에 있다.	<신증> 상봉(上峯)을 천왕봉(天王峯)이라 하는데, 남원부(南原府)편에 자세히 적었다. 산 북쪽은 함양군 경계이다.	고려 김부의, 김돈중, 승려 정명, 이색, 이첨의 시, 이륙의 기, 성현의 시	
225	진주목	청학동(靑鶴洞)	마을	산천	주에서는 서쪽으로 1백 47리의 거리이다.	<신증> 지리산 속에 있다.	이인로의 파한집, 유방선의 시	
226	진주목	남강(南江)	하천	산천	주 남쪽 1리에 있다.	<신증> 강의 근원이 둘인데, 하나는 지리산 운봉현 경계에서 나오고, 하나는 지리산 남쪽에서 나오는데, 주 서쪽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의령현 경계에서 정암진(鼎巖津)이 된다.	최함일의 시	
227	진주목	촉석강(矗石江)	하천	산천		<신증> 누선이 있다.	조위의 시	
228	진주목	봉명루(鳳鳴樓)	정자	누정	객관 남쪽에 있다.		하륜의 기, 정이오, 박욱의 시	
229	진주목	촉석루(矗石樓)	정자	누정	촉석성 안에 있다.	<여지> 아래로 긴 강이 흐르고, 강가[江上]에 큰 바위가 말뚝을 포갠 듯[架疊]이 우뚝 솟아있는데, 그 위에 누각을 지었으므로 '촉석루'라고 이름했다.	하륜의 기 정을보, 백문보, 백미견, 김구경, 정이오의 시 허침, 유호인, 이우의 시 김종직, 이황의 시	
230	진주목	소촌역(召村驛)	역	역원	주 동쪽 24리에 있으며 역승(驛丞)이 있다.	<여지> 본도(本道)에 소속된 역은 15개이다.	정이오의 시	
231	진주목	부다역(富多驛)	역	역원	주 동쪽 59리에 있다.	<여지> 동쪽으로 진해(鎭海) 상령역(常令驛)까지 40리이며, 서쪽으로 소촌 본역까지 40리이다. 남쪽으로 고성 배둔역까지 40리이며, 북쪽으로 의령 지남역까지 50리이다.	정이오의 시	
232	진주목	개경원(開慶院)	원	역원	주 동쪽 2리에 있다.	<여지> 지금은 없어졌다.	정이오의 기	
233	진주목	오대사(五臺寺)	사찰	불우	살천현(薩川縣) 남쪽에서 고개 하나를 넘으면, 다섯 봉우리가 벌여 서서 그 모양이 대 같은데, 절이 그 복판에 있으므로 절 이름으로 되었다.	<신증> 또 수정사(水精寺)라 하기도 한다. 따오기알 만한 수정주(水精珠)가 있는데, 여의주(如意珠)라 부르며, 은으로 된 끈으로 얽어서 보배로 전해 온다. <여지> 살천현(薩川縣) 남쪽에서 고개 하나를 넘으면 다섯 봉우리가 벌여 서있는데, 그 모양이 대(臺)와 같으며, 절이 그 복판에 있으므로 '오대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권적의 기	
234	진주목	지거사(智居寺)	사찰	불우	지리산에 있다.		정몽주의 시	
235	진주목	영대사(靈臺寺)	사찰	불우	지리산에 있다.		정추의 시	

번호	지역	명칭	유형	편목	위치	내용	관련 시문	비고
236	진주목	용암사(龍巖寺)	사찰	불우	반성현(班城縣) 영봉산(靈鳳山) 속에 있다.	<신증> 고려 중 무외(無畏)가 거처하던 곳이다.	고려 박전지의 기	
237	진주목	쌍계사(雙溪寺)	절	사찰	지리산에 있다.		최치원의 시	
238	진주목	촉석성(矗石城)	성	성지	관아 남쪽 1리에 있다.	<여지> 돌로 쌓았다. 둘레가 4천 3백 59척(尺)이며, 높이는 15척이다. 성 안에 우물과 샘이 각각 셋이 있고, 군창(軍倉)이 있다.	하륜의 기	
239	합천군	가야산(伽倻山)	산	산천	야로현 북쪽 30리에 있다.	<신증> 일명 우두산(牛頭山)이며, 서쪽으로 뻗어서 월류봉(月留峯)이 되었다. <여지> 다른 이름으로는 우두산이라고도 한다. 서쪽으로 뻗어서 월류봉을 이룬다. 으뜸이 되는 산줄기는 성주 수도산(修道山)에서 뻗어 나온다.	이색의 시	
240	합천군	징심루(澄心樓)	정자	누정	객관 남쪽에 있다.	<신증> 지군(知郡) 윤목(尹穆)이 세웠다.	안노생의 기, 윤상, 서거정의 시	
241	합천군	함벽루(涵碧樓)	정자	누정	남강 돌벼랑 위에 있다.		안진의 기, 강희맹의 중신기, 조준, 민사평, 정이오의 시	
242	합천군	매월루(梅月樓)	정자	누정	객관 동쪽에 있다.	<신증> 군수 김영추(金永錘)가 세웠다.	김일손의 기, 조위, 강혼의 시	
243	합천군	해인사(海印寺)	사찰	불우	가야산 서쪽에 있다.	<신증> 신라 애장왕(哀莊王)이 창건하였다. 수행이 높은 중 순응(順應)·이정(利貞)·희랑(希朗)의 화상이 있다. 고려 때 판각한 《대장경》과 역대의 《실록》을 모두 이 절에다가 간직하였다.	홍간, 염정수, 권근, 배중부, 이숭인, 강희맹의 시 김종직의 시	
244	합천군	월광사(月光寺)	사찰	불우	야로현 북쪽 5리에 있다.	<신증> 대가야(大伽倻) 태자(太子) 월광이 창건한 것이다.	이숭인의 시	
245	합천군	내원사(內院寺)	사찰	불우	해인사 북쪽 5리에 있다.	<신증> 절에 조현당(釣賢堂)·나월헌(蘿月軒)·득검지(得劍池)가 있다. 절 중 옥명(玉明)이 절을 지을 때에 못을 파다가 옛 칼이 나왔으므로 그것을 인해서 이름하였다.	김일손의 기	
246	합천군	소리암(蘇利菴)	사찰	불우	가야산에 있다.		서거정의 중창기	
247	합천군	제시석(題詩石)	금석문	고적	골짜기 어귀에 무릉교(武陵橋)가 있는데, 다리를 건너 사찰을 향해 5, 6리쯤 가면 최치원의 시를 새긴 돌이 있다. 그 시가 전한다.	<여지> 해인사 골짜기를 민간에서는 홍류동(紅流洞)이라고도 한다.	김종직의 시	
248	초계군	감정루(鑑政樓)	정자	누정	객관 동쪽에 있다.		김태정, 이인복, 유호인의 시	
249	초계군	낙민정(樂民亭)	정자	누정	군 서쪽 15리에 있다.		이첨의 기	
250	함양부	지리산(智異山)	산	산천	관아의 남쪽 40리에 있다.		정여창의 시	
251	함양부	서계(西谿)	계곡	산천	관아의 서쪽 8리에 있다.	<여지> 팔량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여 제한역(蹄閑驛) 아래쪽 5리쯤에 이르러서, 두 산골짜기 사이에 뻗친 돌이 바닥을 이루는데 마치 갈아놓은 듯이 반들반들하다.	김종직의 시	
252	함양군	제운루(齊雲樓)	정자	누정			신숙주의 기 김종직의 시	
253	함양군	백사정(白沙亭)	정자	누정	군 서쪽 1리 지점에 있다.		조승숙의 시	
254	함양군	망악루(望岳樓)	문루	누정	성 남쪽 문루이다.	<신증> 지리산이 바라보이는 까닭으로 이 이름이 붙었다.	김종직의 시	
255	함양부	학사루(學士樓)	정자	누정	객관 서쪽에 있다.	<여지> 최치원이 태수로 있을 때 이곳에 올라 경치를 즐겼으므로 '학사루'라고 이름했다.	노진의 시	

번호	지역	명칭	유형	편목	위치	내용	관련 시문	비고
256	함양군	제한역(蹄閑驛)	역	역원	군 서쪽 15리 지점에 있다.		이첨의 시	
257	함양군	사근역(沙斤驛)	역	역원	군 동쪽 16리이다.		이첨, 이숙번, 정이오의 시	
258	함양군	광혜원(廣惠院)	원	역원	성 남쪽 2리 지점에 있는다.	<신증> 다락집이 있으며 사신을 맞이하는 곳이다.	이항무의 시	
259	함양군	견불사(見佛寺)	사찰	불우	지리산에 있다.		조승숙, 유호인의 시	
260	함양군	군자사(君子寺)	사찰	불우	지리산에 있다.	<여지> “신라 진평왕(眞平王)이 왕위를 피해서 여기에 살다가, 태자를 낳아서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이 집을 희사하여 절로 만들었다.”라고 한다.	유호인의 시	
261	함양부	남계서원(瀘溪書院)	건물	단묘	관아의 동쪽 20리에 있다.	<여지> 1552년(명종 7)에 강익(姜翼)이 정여창(鄭汝昌)을 위하여 처음 세웠다.	이황의 시	
262	함양부	마천소(馬川所)	마을	고적	관아의 남쪽 30리에 있다.	<여지> ‘천(川)’자는 옛날에 ‘천(淺)’로 썼다.	김종직의 시	
263	함양부	월명총(月明塚)	무덤	고적	수지봉(愁智峯) 위에 있다.		김종직의 시	
264	남해현	관음포(觀音浦)	포구	산천	현 북쪽 21리 지점에 있다.	<여지> 우왕(禑王)[辛禑] 때 원수(元帥) 정지(鄭地)가 수군을 거느리고 여기에서 왜적을 섬멸했다. 왜적이 우리에게 패배한 것은 이 싸움에서 비롯되었다.	정이오의 시	
265	거창도호부	수포대(水瀑臺)	바위	산천	오도산 아래에 있다.	<여지> 물과 돌로 어우러진 훌륭한 경치를 지니고 있다. 김굉필과 정여창이 서로 이곳으로 와서 모여 도학을 논하던 곳이다.	박공구의 시	
266	거창도호부	낙모대(落帽臺)	바위	산천	가조현 북쪽 용산리(龍山里)에 있다.	<여지> 기이한 모양의 바위가 대(臺)를 빚어내고 맑은 물줄기가 연못을 이루니, 세상에서는 경치가 매우 뛰어난 명승지라고 부른다.	정필달의 시	
267	거창도호부	침류정(枕流亭)	정자	누정	관아의 남쪽 1리 영천(瀅川) 가에 있다.		이후백, 표빈의 시	
268	거창도호부	송천정(松川亭)	정자	누정	가조현 용산(龍山)에 있다.	<여지> 김천일이 쌓았다.	김천일의 시	
269	삼가현	덕곡서원(德谷書院)	서당	학교	관아의 남쪽 덕곡리(德谷里)에 있다.	이황(李滉) 한 분의 위패만을 모시고 있다.	이정제의 시	
270	삼가현	십완정(十玩亭)	정자	누정	화양리(華陽里)에 있다.	정사룡(鄭士龍)이 살던 곳이다.	이제신의 시	
271	안의현	광풍루(光風樓)	정자	누정	객관 북쪽에 있다.	옛 이름은 ‘선화루(宣化樓)’였는데,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이 다시 짓고 지금 이름인 ‘광풍루’로 바꿨다.	송시열의 중수기	
272	안의현	사락정(四樂亭)	정자	누정	영승촌(迎勝村)에 있다.	군수(郡守) 전맹겸(全孟謙)이 지었다.	이황의 기	
273	김해도호부	황산강(黃山江)	하천	산천	부 동쪽 40리 지점에 있다.	<신증> 양산군(梁山郡) 경계이다.	김극기, 정포, 강혼의 시	
274	김해도호부	회로당(會老堂)	건물	궁실	부 성의 북쪽에 있다.	<신증> 홍치(弘治) 신해년에 고을 부로(父老)들이 건립하였다.	김일손의 기	
275	김해도호부	연자루(燕子樓)	정자	누정	호계(虎溪) 위에 있다.		주열, 김득배, 왕강, 정몽주, 이행, 맹사성, 김감의 시	
276	김해도호부	임금당(臨錦堂)	정자	누정			김일손의 기	

번호	지역	명칭	유형	편목	위치	내용	관련 시문	비고
277	김해도호부	함허정(涵虛亭)	정자	누정	연자루 북쪽에 있다.	<신증> 부사 최윤신(崔潤身)이 건축한 것이다. 호계 물을 끌어서 연못을 만들고 그 복판에다 정자를 지었는데 매우 조촐하고 시원하다.	김일손의 기	
278	김해도호부	황산원(黃山院)	원	역원	부의 황산강(黃山江) 언덕에 있다.	<여지> 양산에서 옮겨와 설치했다.	김극기의 시	
279	김해도호부	감로사(甘露寺)	사찰	불우	신어산(神魚山) 동쪽 옥지연(玉池淵)에 닿아 있다.	<신증> 송(宋) 나라 이종(理宗) 가희(嘉熙) 원년에 중 해안(海安)이 건립하였고, 중 몽암(夢庵)의 기문이 있다.	안유, 이견간, 서거정의 시	
280	김해도호부	이세사(離世寺)	사찰	불우	신어산에 있다.		고려 곽여의 시	
281	김해도호부	금강사(金剛社)	절	사찰	관아 북쪽 대사리에 있다.	<여지> 고려 충렬왕(忠烈王)이 합포(合浦)에 행차했을 때, 여기에 와서 놀았다. 불훼루(不毁樓)가 있다.	하륜의 기 서거정의 시	
282	창원도호부	두척산(斗尺山)	산	산천	월영대(月影臺) 북쪽 5리 지점에 있다.	<신증> 회원현(會原縣)에 있으며 봉우리 위에 고운대(孤雲臺)가 있다. <여지> 함안(咸安) 이제산(夷齊山)에서 뻗어 나온다. 봉우리 위에 고운대(孤雲臺)가 있는데, 월영대(月影臺) 북쪽 5리에 있다.	이첨의 시	
283	창원도호부	벽한루(碧寒樓)	정자	누정	객관(客館) 서쪽에 있다.		이석형의 시	
284	창원도호부	장성루(將星樓)	정자	누정	합포 절도사영(節度使營)에 있다.	<신증> 절도사 구겸(具謙)이 지었다.	서거정의 시	
285	창원도호부	연빈루(燕賓樓)	정자	누정			홍귀달의 기	
286	함안군	청범루(淸範樓)	정자	누정		<신증> 영락(永樂) 을사년에 군수 우승범(禹承範)이 지었고, 관찰사 하연(河演)이 명명하였다.	홍여방의 기	
287	거제현	칠천도(漆川島)	섬	산천	현 동쪽에 있다.	<신증> 둘레가 51리이다. 목장이 있다.	정이오의 시	
288	거제현	견내량(見乃梁)	바다	산천	현 서쪽 30리 지점에 있는데, 바로 바다이다.	<신증> 고성(固城)에서는 여기를 건너야 본현(本縣)에 들어오게 된다.	정이오의 시	
289	거제현	무이루(撫夷樓)	정자	누정	견내량(見乃梁) 동쪽 벼랑에 있다.		하연의 시	
290	거제부	영등포영(永登浦營)	성	관애	관아의 동북쪽 70리에 있다.	<여지> 돌로 쌓은 성이 있는데, 둘레는 1천 68척이고 높이는 13척이다. 성안에 한 줄기 냇물이 흐른다.	정이오의 시	
291	고성현	안청루(晏淸樓)	문루	누정	현성 남쪽 문루이다.		김수온의 시	
292	고성현	낙열정(樂悅亭)	정자	누정	죽도에 있다.		서거정의 시	
293	칠원현	멸포(蔑浦)	포구	산천	일명 매포이며, 현 북쪽 30리 지점에 있으니, 곧 우질포 하류이다.	<신증> 벼랑 위에 누각이 있다. <여지> 달리 매포(買浦)라고도 부르며, 우질포 하류이다. 언덕 위에 누각이 있다.	이첨의 시	
294	칠원현	경양대(景釀臺)	바위	고적	우질포(亏叱浦) 서쪽 기슭에 우뚝 솟은 바위	<여지> 그 위는 손바닥처럼 평탄하여 10여 명이 앉을 만하다. 고려 이인로(李仁老)가 일찍이 여기에서 노닌 적이 있다.	이첨의 시	
295	웅천현	가덕도(加德島)	섬	산천	현 남쪽 바다 가운데 있다.	<신증> 둘레는 75리이며 목장이 있다.	정이오의 시	
296	순흥부	소백산(小白山)	산	산천	관아의 서북쪽 20리에 있다.	안동(安東) 태백산(太白山)에서 뻗어 나온다.	서거정, 주세붕, 이황의 시	
297	순흥부	안분당(安分堂)	정자	누정	관아의 동쪽에 있다.	선비 김숙문(金叔文)이 지은 것이다.	명나라 장수 양호의 시	

번호	지역	명칭	유형	편목	위치	내용	관련 시문	비고
298	순흥부	한수정(寒水亭)	정자	누정	와단면(臥丹面) 춘양리(春陽里)에 있다.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橃)이 나이 들어 은퇴해서[退老] 머물 땅으로 염두에 두었던 곳이다.	이현보의 시	
299	순흥부	부석사(浮石寺)	절	사찰	관아의 북쪽 30리 봉황산(鳳凰山)에 있다.	승려 의상(義湘)[85]이 이 사찰을 처음 세우고, '부석사'라고 이름했다. 동쪽에 '선묘정(善妙井)', 서쪽에 '식사용정(食沙龍井)'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날이 가물어 기우제를 지내면 효험이 있다.	주세붕, 이황의 시	
300	순흥부	숙수사(宿水寺)	절	고적		옛터에 소수서원이 들어섰다.	노여, 안축의 시	
301	순흥부	압각수(鴨脚樹)	나무	고적	관아의 북쪽 3리에 있다.	'오리 발'을 뜻하는 '압각(鴨脚)'이란 이름의 오래 묵은 은행나무	주세붕의 죽계지	

80) 정과정곡: 고려 의종 때 정서가 지은 가요. 유배지에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애달프게 표현한 노래라고 하여, 궁중의 속악(俗樂) 악장으로 채택되어 사용되었다. 그 가사는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전하며, 이제현의 한역시(漢譯詩)가 있다. 악보는 『대악후보(大樂後譜)』에 진작(眞勺)의 이름으로 전한다.

81) 권반: 영인본은 '權盼'이라고 되어 있는데, '權盼'으로 바로잡아 번역한다.

82) 천순: 명(明)나라 영종(英宗)의 연호(1457-1464)이다.

83) 수리: 한 관아나 고을에서 으뜸이 되는 벼슬아치; 육방(六房) 가운데 으뜸이 되는 아전이라는 뜻으로, 이방(吏房) 아전을 이르는 말이다.

84) 애일당: 세월이 가는 것을 애석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효자가 부모를 오래도록 모시고자 하는 마음을 이른다.

85) 의상: 영인본은 '義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義湘'로 바로잡아 번역한다.

4. 최종 검토 대상 명승 자원 목록

연번	지역	명 칭	연계 명승	지리지	시문	산수화	현재 위치
1	경남	촉석루 일원	촉석루	〈신증-진주목〉 〈여지-진주목〉	번역21/문집128	작자미상, 〈촉석루〉, (영남명승35경도) 작자미상, 〈진주 촉석루〉, (교남명승첩)	경남 진주시 본성동
			의암	없음	번역0/문집5		
2	경남	재약산 표충사 계곡	재약산 표충사 계곡	〈신증-밀양도호부〉 〈여지-밀양도호부〉	번역0/문집4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3	경남	천성산 화엄벌	천성산 화엄벌	〈신증-양산군〉 〈신증-울산군〉	번역0/문집4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4	경남	정암루	정암루	없음	번역2/문집11	작자미상, 〈의령 정암〉, (교남명승첩)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5	경남	여항산과 별천계곡	여항산	〈신증-함안군〉 〈여지-함안군〉	번역0/문집5		경남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6	경남	관룡산 관룡사	관룡사	〈신증-창녕현〉 〈여지-창녕현〉	번역0/문집10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7	경남	문암정	문암정	〈여지-영산현〉	번역0/문집0 (기타:5)		경남 창녕군 계성면 사리
8	경남	불일폭포 일원	불일 폭포	없음	번역1/문집1	작자미상, 〈하동 불일암폭포〉, (교남명승첩)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불일암	〈여지-하동부〉 〈여지-진주목〉	번역0/문집2	작자미상, 〈불일암〉, (영남명승35경도)	
			청학동	없음	번역2/문집6		
9	경남	삼신동 및 세이암	삼신동 및 세이암	〈여지-진주목〉	번역0/문집0	작자미상, 〈삼신동〉, (영남명승35경도)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0	경남	백운동 계곡	백운동	〈여지-진주목〉	번역0/문집1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11	경남	웅석봉 웅석계곡	웅석 계곡	없음	번역0/문집16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12	경남	지리산 천왕봉	천왕봉	〈신증-진주목〉 〈신증-함양군〉 〈신증-남원도호부〉 〈여지-진주목〉	번역0/문집0	작자미상, 〈지리산〉, (영남명승35경도) 작자미상, 〈하동 지리산 천왕봉〉, (교남명승첩)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13	경남	농월정 일원	농월정 및 월연	〈여지-안의현〉	번역0/문집12	김윤겸, 〈월연〉, (영남기행첩)	경남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화림동	〈여지-안의현〉	번역0/문집8	작자미상, 〈화림동〉, (영남명승35경도) 작자미상, 〈안음 화림동〉, (교남명승첩)	
14	경남	함허정 일원	함허정	없음	번역1/문집4		경남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엄천사	없음	번역6/문집1		
15	경남	금원산	금원산	〈여지-안의현〉	번역0/문집1	김윤겸, 〈가섭암〉, (영남기행첩) 김윤겸, 〈가섭동폭〉, (영남기행첩)	경남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연번	지역	명 칭	연계 명승	지리지	시문	산수화	현재 위치
16	경남	용산숲과 낙모대	용산숲 및 낙모대	〈여지-거창도호부〉	번역0/문집4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용천정사 및 용원서원	없음	번역6/문집12		
17	경남	동호숲	동호숲	없음	번역0/문집0		경남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8	경남	사선대 일원	사선대	〈여지-안의현〉	번역0/문집3	김윤겸, 〈송대〉, (영남기행첩) 김희성, 〈안음 송대〉	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9	경남	황계폭포 일원	황계 폭포	〈여지-합천군〉	번역0/문집12	작자미상, 〈합천 황계폭포〉, (교남명승첩)	경남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20	부산	몰운대	몰운대	없음	번역0/문집33	김윤겸, 〈몰운대〉, (영남기행첩) 작자미상, 〈몰운대〉, (영남명승35경도) 작자미상, 〈동래 몰운대〉, (교남명승첩)	부산 사하구 신평동
21	부산	홍연 폭포	홍연 폭포	없음	번역0/문집2		부산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22	경북	입암 일원	입암	없음	번역11/문집15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만활당 및 일제당	없음	번역2/문집11		
23	경북	내연산 계곡	내연산 계곡	〈신증-청하현〉 〈여지-청하현〉 〈대동-청하현〉	번역3/문집19	정선, 〈내연산 삼용추도(견본수묵)〉 정선, 〈내연산 삼용추도(지본수묵)〉 작자미상, 〈내연산〉, (영남명승35경도) 작자미상, 〈청하 내연산 폭포〉, (교남명승첩)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24	경북	수도산 청암사	청암사	없음	번역0/문집6	작자미상, 〈청암〉, (영남명승35경도)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수도산	없음	번역3/문집10		
25	경북	가송협과 고산정	고산정	〈여지-예안현〉	번역1/문집33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26	경북	매학정	매학정	〈여지-선산도호부〉	번역0/문집53	작자미상, 〈매학정〉, (영남명승35경도) 작자미상, 〈선산 매학정〉, (교남명승첩)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27	경북	소백산 금선계곡	금선 계곡	없음	번역1/문집15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28	경북	희방 폭포	희방 폭포	없음	번역0/문집3 (기타:3)		경북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희방사	없음	번역0/문집3 (기타:1)		
29	경북	소백산 죽계구곡	죽계 구곡	〈여지-순흥부〉	번역2/문집1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초암사	〈신증-풍기군〉 〈여지-순흥부〉	번역0/문집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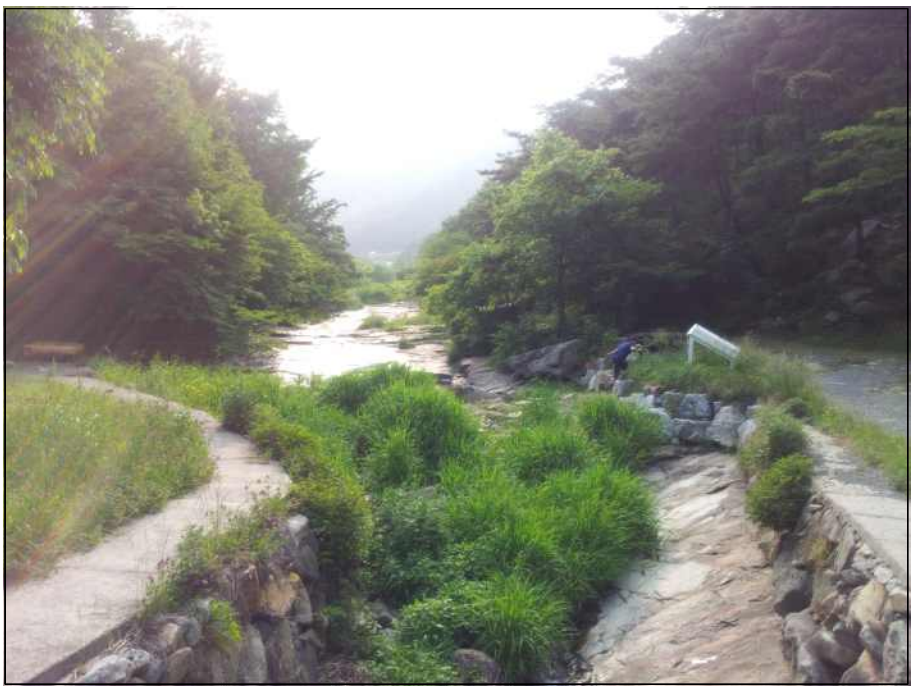
연번	지역	명 칭	연계 명승	지리지	시문	산수화	현재 위치
30	경북	조양각	조양각	〈여지-영천군〉	번역7/문집100	작자미상, 〈조양각〉, (영남명승35경도) 작자미상, 〈영천 조양각〉, (교남명승첩)	경북 영천시 창구동
31	경북	속리산 문장대	문장대	없음	번역2/문집9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속리산	〈신증-상주목〉 〈신증-보은현〉 〈여지-상주목〉	번역16/문집81		
32	경북	경천대	경천대 및 무우정	없음	번역3/문집13		경북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옥주봉	없음	번역0/문집1		
33	경북	대산루와 계정	대산루와 계정	없음	번역2/문집12		경북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34	경북	옥류정	옥류정	없음	번역3/문집9		경북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35	경북	도장산과 쌍용계곡 (용유동)	도장산	없음	번역0/문집0		경북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용유동	없음	번역2/문집13	작자미상, 〈용유동〉, (영남명승35경도) 작자미상, 〈상주 용유동〉, (교남명승첩)	
36	경북	선유 구곡	선유 구곡	〈여지-문경현〉	번역3/문집12	작자미상, 〈선유동〉, (영남명승35경도) 작자미상, 〈문경 선유동〉, (교남명승첩)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37	경북	의성 빙계리 얼음골	얼음골	〈신증-의성현〉 〈여지-의성현〉	번역3/문집25		경북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38	경북	침수정 일원	침수정	없음	번역1/문집6 (기타:5)		경북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39	경북	운문산 학심이골	운문산 학심이골	〈신증-청도군〉	번역0/문집3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40	경북	봉비암	봉비암	없음	번역0/문집7	김상진, 〈봉비암〉, (무흘구곡도)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41	경북	만귀정	만귀정	없음	번역0/문집6		경북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
42	경북	가산 바위	가산 바위	〈여지-칠곡도호부〉	번역0/문집1	작자미상, 〈가암〉, (영남명승35경도)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가산 산성	〈여지-칠곡도호부〉	번역2/문집1	작자미상, 〈칠곡 가암산성〉, (교남명승첩)	
43	경북	주천대	주천대	없음	번역0/문집7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44	경북	팔공산 파계사	파계사	〈신증-대구도호부〉	번역0/문집1		대구 동구 중대동
45	경북	비슬산 용연사 계곡	용연사 계곡	〈여지-대구도호부〉	번역0/문집18		대구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5. 최종 검토에서 탈락한 명승 자원 목록 및 사유

1) 정암루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경상남도 의령군 소재의 누각으로 정암교 옆 높은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정암루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조선 중기 취원루가 있었던 자리인데, 취원루는 소실되어 없어졌고, 1935년 이 고장 유림과 유지들이 그 자리에 정암루를 지었다고 한다. 정암루 아래는 정암나루가 있던 자리로, 1592년 임진왜란 때 곽재우 장군이 이끄는 의병들이 진격하는 왜적들을 몰살시킨 승전지로 유명하다. 정암교 아래는 가마솥을 닮은 바위가 하나 있는데, 솥바위라고 불리우며, 정암(鼎巖)이라는 이름의 유래이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없음</td><td>2/11</td><td>작자미상,
〈의령 정암〉,
(교남명승첩)</td></tr>
<tr><td rowspan="2">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정암철교가 놓인 정암진〉</td></tr>
<tr><td colspan="3">정암진은 과거 곽재우 장군이 남강을 도하하려는 왜적을 물리친 곳이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남강을 건너는 중요한 요충지였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위치가 현재 정암루가 입지하고 있는 언덕이다. 따라서 정암루의 명승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남강과 그 유역을 조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암루와 정암에 인접하여 정암철교와 제방 등의 인공구조물들이 설치되면서 시야를 차단하게 되어 조망점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었다.</td></tr>
</table>

2) 여항산과 별천계곡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여항산(艅航山, 770m)은 예부터 함안의 주산(主山)이자 진산(鎭山)으로, 지리산 영신봉에서 김해 분성산을 잇는 낙남정맥(洛南正脈)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며,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강명리 일원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여양리 일원에 분포한다. ‘여항’이라는 지명의 유래와 관련한 전설로는 천지사방이 물에 다 잠겼을 때 여항산의 꼭대기만이 배만큼 남았다고 하는 데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있는데, 『경상도지리지』를 비롯한 조선시대 대부분의 기록에 ‘남을 여(餘)’자에 ‘배 항(航)’자의 ‘餘航’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별천계곡은 맑은 물줄기와 크고 작은 소, 소나무 군락으로 이뤄져 사람들이 찾는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여항면 주동리에 있는 별천계곡은 군의 영산인 여항산 자락에 있다. 별천은 여항면 주동리에 있는 주주골이라 부르는 골짜기 끝자락에 있으며 조선시대 정한강 선생이 이곳의 경치가 하도 아름다워 별천지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되었다. 별천계곡은 심심유곡의 지형 탓에 연중 맑은 물이 흐르고 크고 작은 소가 계곡을 따라 이어져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다.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은 6.25격전비가 있는 곳으로 넓고 평평한 바위가 펼쳐져 있고 바위를 따라 계곡의 찬 물이 쉼 없이 흘러 내려 크고 작은 소가 되어 만난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신증-함안군〉 군 서남쪽 15리 지점에 있으며 진산(鎭山)이다.
〈여지-함안군〉 관아의 서남쪽 15리에 있다. 진주 두류산에서 뻗어 나와 본 고을의 진산을 이룬다.</td><td>0/5</td><td>없음</td></tr>
<tr><td>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인공화가 많이 이뤄진 별천계곡〉
별천계곡은 창원시의 근교에 위치하여 이미 많은 피서객이 찾는 곳이다. 그 여파로 하천변은 펜션, 주차장, 위락시설들이 입지해있고, 그에 따라 경관적 가치가 훼손되었다.</td></tr>
</table>

3) 관룡산 관룡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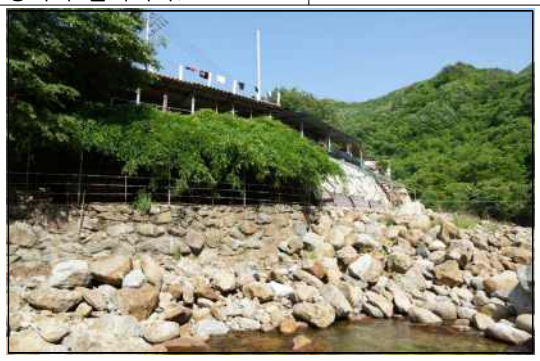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신라시대 8대 사찰 중의 하나로서 많은 문화재와 경치 좋은 사찰로 널리 알려졌지만 절의 역사에 관한 뚜렷한 기록은 없다. 사기(寺記)에 의하면 349년에 창건되었다고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은 지리산 칠불암(七佛庵)의 창건설화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불교가 인도에서 바다를 건너 가야에 전해졌다는 설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예증이 되기도 한다. 그 뒤 583년(진평왕5) 증법(證法)이 중창하였는데, 보통 이를 창건으로 삼기도 한다.
삼국통일 뒤에는 원효(元曉)가 1,000명의 중국 승려에게 『화엄경』을 설법하고 대도량을 이룩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원효가 제자 송파(松坡)와 함께 이곳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오색채운이 영롱한 하늘을 향해서 화왕산(火旺山) 마루의 월영삼지(月影三池)로부터 아홉 마리의 용이 등천하는 것을 보고 절 이름을 관룡사라 하고, 산 이름을 구룡산이라 하였다고 한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신증-창녕현〉 관룡사(觀龍寺), 자련사(紫連寺), 승지사(勝地寺) 모두 화왕산(火王山)에 있다.
〈여지-창녕현〉 관아의 동쪽 20리 화왕산(火王山) 남쪽에 있다.</td><td>0/10</td><td>없음</td></tr>
<tr><td>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용선대와 병풍바위〉

관룡사에서 약 680m 떨어진 용선대는 중생대 말기 불국사 화강암이 관입된 후 주빙하 기후를 거치면서 심층풍화산물이 제거되면서 형성되었다. 이곳은 고도차이가 크며, 곳곳에서 핵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우리나라에 널리 분포하는 화강암 산지의 웅장함과 수평·수직 절리의 발달로 형성된 기암괴석의 규모가 크지 않아 자연경관적 가치는 그리 높게 평가되지 않는다.</td></tr>
</table>

4) 문암정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문암정은 행정구역상 창녕군 계성면 사리에 위치한 정자로 화왕산과 석대산, 영취산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던 문암(聞巖) 신초(辛礎: 1568~1637)를 배향하고 있는 곳으로, 뒤편에는 장군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영정각이 있으며, 그 곁에 장군의 사적비가 있는 비각이 있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여지-영산현〉 관아의 북쪽 15리 계성천(桂城川) 가에 있다. 군수(郡守) 신초(辛礎)가 거처하던 정사의 옛 터이다. 신초의 자손들이 새로 지었으며, 현감(縣監) 윤이일(尹彝逸)이 ‘선조의 뜻을 잇는다’라는 뜻에서 ‘술선정(述先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기문(記文)을 지었다.</td><td>0/0
(기타: 5)</td><td>없음</td></tr>
<tr><td>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인공시설물에 의해 경관이 훼손된 문암정〉
문암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경관요소라 할 수 있는 정자 앞의 하천이 도로와 교량, 그리고 관개용수의 확보를 위한 보와 수로의 건설로 그 원형이 파괴되었다. 특히 홍수 시 하천의 사면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축대가 하천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적인 어울림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배롱나무 생육지역은 급경사지로 지속적인 토사침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배롱나무의 꽃대 마름현상, 끝가지고사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흰가루병, 꽃매미 피해, 알락하늘소 피해 등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생육적 문제로 인하여 배롱나무 개화(개화시기: 7-8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정자 건물도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특별한 경관적 또는 건축학적 우수성을 찾기 어려우며, 정자 아래 바위들에 새겨진 각자군도 신씨 일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보편적인 가치를 갖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문암정은 정자, 지형, 식생 등 개별 경관 요소의 경관적 가치가 낮고, 전체적으로 경관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며, 명승으로서의 경관 창출이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된다.</td></tr>
</table>

5) 삼신동 및 세이암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신흥마을에는 최치원에 얽힌 전설과 유적들이 많다. ‘삼신동’이라 새겨진 각자와 최치원이 신선이 되어 조선시대에 나타났다는 전설, 그리고 세이암에 얽힌 사연이 흥미롭다. 삼신동은 최치원이 이상향으로 설정했던 곳이다. 그가 당시 삼신동으로 들어가면서 속세의 모든 것을 훌훌 털어 버리는 심정으로 귀를 씻었다고 전하는 그 바위를 세이암이라고 부른다. 선유동계곡은 삼신봉과 그 능선에서부터 빚어진 골짜기로 이름 그대로 신선들이 노닐던 곳이라는 전설이 담긴 곳이다. 흐르는 물은 유리알처럼 맑아 잔잔한 흐름을 이루고 계곡마다 바위를 휘돌아 흐른다. 주변에는 기암괴석이 울창한 수림과 어울려 아기자기한 풍치가 선경을 이룬다. 의신 쪽에서 흐르는 냇물을 따라 마을 건너편에 절벽을 이루고 있는데 이 절벽엔 『세이암』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여지-진주목〉 신응암(神凝菴)은 쌍계 북쪽 10리에 있다. 골짜기 어귀에 바위가 우뚝 솟아있는데, ‘삼신동(三神洞)’이라고 새겨져있다. 이는 대개 ‘신응암(神凝菴)’, ‘의신암(義神菴)’, ‘영신암(靈神菴)’ 세 암자 이름의 뜻을 취한 것이다. 암자 앞으로 흐르는 물속에 베개 모양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세이암(洗耳嵓)’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이것도 최치원의 필적이라고 한다. 신응암을 지나 북쪽으로 10리를 가면 의신암이 나온다. 또 30리를 가면 영신암이 있는데, 여기는 다만 터만 남아 있다. 그런데 단지 영신암 뒤쪽 봉우리에 깎아지른 듯한 바위가 서있어, 기둥처럼 생긴 작은 돌을 꼭대기에 이고 있는데, 이름하여 ‘좌고대(坐高臺)’라고 한다. 민간에 전하는 말에 따르면, 여기에 올라 네 번의 절을 올리는 사람은 부처의 심성을 얻는다고 한다. 암자는 이제 없어졌다. ‘세이암’가의 돌벼랑에 ‘명암(明庵)’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처사 정식의 필적이다.</td><td>0/0</td><td>작자미상,
〈삼신동〉,
(영남명승35경도)</td></tr>
<tr><td>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세이암 주변 계곡의 인공구조물〉</td></tr>
<tr><td></td><td colspan="3">삼신동 일원의 계곡은 전반적으로 암반이 노출되어 있고, 거력들로 구성되어 있어 풍광이 수려한 곳이다. 또한 최치원과 관련된 전설이 내려오는 등 역사·문화적 가치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곡을 따라 도로가 나면서 주변 경관이 훼손되었고, 심지어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 위락시설 등과 용수 확보를 위한 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계곡 자체의 원형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td></tr>
</table>

6) 백운동계곡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웅석봉에서 내려 운산 자락이 길게 뻗어 나와 덕천강가에 닿으면서 계류를 쏟아 내는데 이 계곡이 백운동계곡이다. 일찍이 남명이 남겼다는 백운동(白雲洞), 용문동천(龍門洞天), 영남제일천석(嶺南第一泉石), 남명선생장지소(南冥先生杖之所) 등의 글자가 암석에 새겨져 있다. 계곡을 따라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점촌 마을에 들어서면 시원한 계류와 함께 '백운동'이란 글자를 새긴 기암절벽과 '용문동천'임을 알리는 글자가 음각되어 있는 널찍한 암반이 반긴다. 그 위로는 목욕을 하면 절로 아는 것이 생긴다는 다지소(多知沼)가 있다. 폭이 26m, 길이가 30m에 달하는데 주변이 모두 바위라 여름에는 피서객들이 줄을 잇는다. 또한 높이 4m 여의 백운폭포와 다섯 곳의 폭포와 담(潭)이 있다 하여 이름도 오담폭포인 곳을 비롯해 '영남제일천석'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는 등천대(登天臺)는 정말 계류의 물보라를 타고 하늘로 오를 수 있을 정도로 물살이 거세다. 이외에도 옳은 소리만을 듣는다는 청의소(聽義沼), 아함소, 장군소, 용소 등의 소(沼)와 탈속폭포, 용문폭포, 십오담폭포, 칠성폭포, 수왕성폭포 등이 있으며 사림 학파의 거두로 조선조 선비들의 정신적 자주였던 남명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안빈낙도(安彬樂道)의 풍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곡이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여지-진주목〉 덕천동(德川洞)에 있다. 골짜기가 깊고 고요하며[深邃], 하얀 돌이 겹겹이 깔려 있고 10리에 걸쳐 맑은 시냇물이 흐르니, 한눈에 바라보면[一望] 흰 눈처럼 보인다.</td><td>0/1</td><td>없음</td></tr>
<tr><td>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백운동 상류의 사유지와 공사현장〉

백운동계곡은 남명 조식이 머물던 곳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명승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계곡을 따라 늘어서 있는 기암절벽과 암반들은 명승 자원으로서의 경관적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백운동계곡 주변의 토지가 사유되고 있으며, 일부 토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영향으로 계곡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경관적 가치도 훼손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지정 방안을 꾀할 필요가 있다.</td></tr>
</table>

7) 웅석봉 웅석계곡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군립공원 웅석봉(1,099m) 기슭의 청정한 계곡으로 산청읍을 휘감아 흐르는 경호강에 물을 보태준다. 유서 깊은 지곡사를 지나 웅석봉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합류지점을 건너면 산길에 접어든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오르면 완만한 능선과 연결되는 등산로이고, 계곡으로 들어서면 등산로는 가파르지만 한국자연보존협회에서 '한국명수1백선'으로 선정한 선녀탕을 감상할 수 있다. 계곡으로 들어서면 점차 경사가 심해진다. 땀을 흘리며 오르다 보면 이름 없는 폭포를 비롯한 크고 작은 소(沼)들이 이어진다. 웅석봉의 절경이 선녀탕은 두 계곡이 만나는 지점 바로 위에 있는데, 주변에 넓은 암반이 펼쳐져 있어 물놀이를 즐기기에도 좋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없음</td><td>0/16</td><td>없음</td></tr>
<tr><td rowspan="2">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선녀탕 맞은편의 다리〉</td></tr>
<tr><td colspan="3">웅석계곡은 주변의 다른 계곡들보다도 더욱 깊이 들어가는 심산유곡이다. 그러나 웅석계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경관인 선녀탕 일원에는 사람들의 통행을 위한 다리가 놓여 있고, 그로 인해 경관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다.</td></tr>
</table>

8) 지리산 천왕봉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해발고도 1,915m로 남한에서 한라산(1,950m) 다음으로 높다. 거대한 암괴(岩塊)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서쪽 암벽에는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라는 의미의 '천주'라는 음각 글자가 있다. 바위로 이루어진 정상은 항상 구름에 싸여 있어 예로부터 3대에 걸쳐 선행을 쌓아야 이곳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다는 말이 전해올 정도이며, 지리산 8경 가운데 제1경이 천왕일출일 만큼 해돋이가 아름답다. 정상에 1칸 크기의 돌담벽이 있고, 그 안의 너와집 사당에 성모상이 안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빨치산에 의해 파손된 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다. 정상 아래에는 큰 바위 틈새에서 샘물이 솟아나오는 천왕샘이 있다. 정상에 오르려면 동쪽으로 개천문(개선문), 남서쪽으로 통천문을 거쳐야 하며, 이 외에 칠선계곡을 지나는 날카로운 비탈길과 대원사에서 중봉을 거쳐 오르는 험난한 길 등이 있다. 법계사를 지난 뒤에 나오는 개천문은 '하늘을 여는 문'이라는 뜻으로, 지금은 개선문으로 알려져 있다. 통천문은 '하늘을 오르는 문'이라는 뜻으로 노고단에서 천왕봉으로 오르는 마지막 관문이다. 통천문은 천연 암굴로 사다리를 타야 지날 수 있는데, 예로부터 부정한 사람은 출입할 수 없고 선인(신선)들도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한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신증-진주목〉 지리산(智異山) 주 서쪽 1백리에 있다. 상봉(上峯)을 천왕봉(天王峯)이라 하는데, 산 북쪽은 함양군 경계이다. 천불암(千佛庵), 향적사(香積寺), 성모사(聖母祠)가 있다.
〈여지-진주목〉 성모사(聖母祠)는 지리산 천왕봉 꼭대기에 있다. 성모상(聖母像)이 있는데, 이마에 칼 흔적이 있다.</td><td>0/0</td><td>작자미상,
〈지리산〉,
(영남명승35경도)

작자미상,
〈하동 지리산 천왕봉〉,
(교남명승첩)</td></tr>
<tr><td>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지리산 천왕봉〉 (사진 : 산청문화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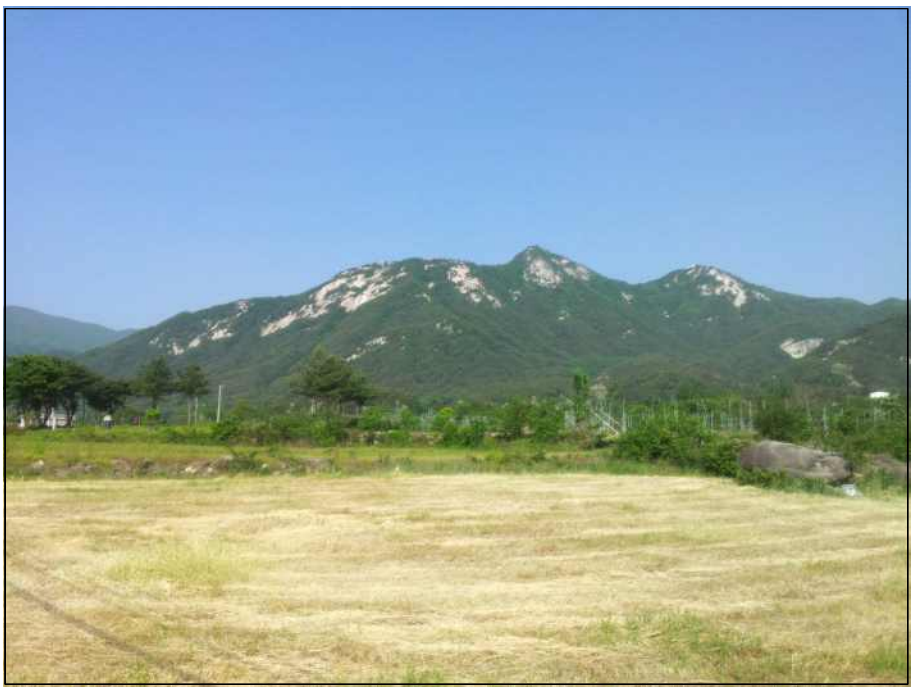
주변부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점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정상부의 기암괴석이 갖는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다. 그러나 이 일대는 이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발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명승 자원이다.</td></tr>
</table>

9) 함허정 일원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이 정자는 조선시대 초기에 함양군수로 부임한 최한후(崔漢候)가 산수가 빼어난 이곳에 지은 것이다. 최한후의 함양군수 재직 년대는 1482~1486년이며 농업을 권장하고 학문을 진흥시켰고 만년에 도승지를 끝으로 사직하고 유림면 지곡에 정착하여 함허정을 짓고 소요 자적하였다. 함허정은 여러 번 중건을 하였는데, 오랜 세월동안 낡고 허물어져 가는 함허정을 2006년도 함양군에서 새로 중건을 하였으며 도로에서 내려가는 길까지 말끔하게 정비를 하여 그 위용을 더해준다. 가파른 벼랑위에 아담하게 지어진 함허정은 주변의 나무와 어우러져 있으며 정각 아래의 엄천강과 잘 조화되어 그야말로 시적인 운치를 더해주는 엄천골의 유명 문화재이다. 박장원의 〈유두류산기(1643년)〉와 이동항의 〈방장유록(1790년)〉에 옛날 함허정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전해오고 있기도 하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없음</td><td>함허정(1/4)
엄천사(6/1)</td><td>없음</td></tr>
<tr><td rowspan="2">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함허정 일원〉</td></tr>
<tr><td colspan="3">함허정은 임천의 공격사면에 자리 잡고 있다. 즉, 임천을 조망하는 위치로 역할을 수행하는 정자이다. 그러나 현재는 수풀로 가려 조망이 시야가 차단된 상태이며, 시야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 특별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정자 자체가 이미 지역주민들과 괴리되어 인근 마을주민들조차 함허정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형평이므로, 이미 그 기능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td></tr>
</table>

10) 금원산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금원산의 본디 이름은「검은 산」이다. 옛 고현의 서쪽에 자리하여 산이 검게 보인데서 이름 하였다. 이 산은 금원암을 비롯하여 일암(一岩), 일봉(一峰), 일곡(一谷)이 모두 전설에 묶여 있는 산이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옛날 금원숭이가 하도 날뛰는 바람에 한 도승이 그를 바위 속에 가두었다 하며, 그 바위는 마치 원숭이 얼굴처럼 생겨 낯바위라 하는데 음의 바꿈으로 납바위라 부른다. 금원산에는 크게 이름난 두 골 짜기가 있다. 성인골(聖人谷) 유안청(儒案廳)계곡과 지장암에서 와전된 지재미골이다. 유안청계곡은 조선 중기 이 고장 선비들이 공부하던 유안청이 자리한 골짜기로 유안청폭포를 비롯한 자운폭포와 소담이 주변 숲과 어우러져 산악경관이 빼어난다. 지재미골은 서문씨의 전설을 안은 서문가 바위와 옛날 원나라에서 온 공민왕비 노국대장공주를 따라서 감음현을 식읍으로 받아 살았던 이정공 서문기(理政公 西門記)의 유허지로 그 자손들이 공부하던 곳으로 전한다. 지재미골 초입에는 문바위와 차 문화를 꽃피웠던 가섭암지 마애삼존불이 있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여지-안의현〉 월봉에서 동쪽으로 달려나와 이 산을 이룬다. 곧 옛 감음현(感陰縣)의 주산이다. 관아의 북쪽 40리에 있다.</td><td>0/1</td><td>김윤겸,
〈가섭암〉,
(영남기행첩)

김윤겸,
〈가섭동폭〉,
(영남기행첩)</td></tr>
<tr><td>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위천면에서 바라본 금원산〉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근방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산봉우리이지만, 다른 산지에 비해 명승으로 지정될 정도의 차별적인 특징을 찾기는 어렵다.</td></tr>
</table>

11) 용산숲 및 낙모대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가북면 용산마을 어귀에는 천연 솔숲이 있어 언제나 회초꾼이 떠날 날이 없는 장소이다. 수백년 된 소나무 수십 그루가 커다란 숲을 이루고 있으며, 마을 안의 용천정사와 용원서원과 마을 끝자락의 낙모대와 같이 한나절을 여유롭게 보내기는 그만인 장소이다. 낙모대는 문장을 즐기는 뜻있는 선비들이 모여 온종일 시를 짓고 술 마시면서 노니는데 모자가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에 떨어졌다는 중국 고사에서 인용한 이름으로 조선 인조 때 척화신으로 알려진 동계 정온 선생이 층층 암석으로 솟은 낙모대에 반하여 대 위에 범국정을 짓고 영남일대의 선비들과 학문을 토론하였던 곳이다. 낙모대 위에는 산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벗하며 분재처럼 자라난 나무들이 어울린 풍광이 아름다우며, 보해산의 긴 산 그림자를 드리운 아름다운 풍광만큼 아름다운 정서를 심었던 옛 선현들의 훌륭한 발자국을 간직한 명소이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여지-거창도호부〉 낙모대(落帽臺)는 가조현 북쪽 용산리(龍山里)에 있다. 기이한 모양의 바위가 대(臺)를 빚어내고 맑은 물줄기가 연못을 이루니, 세상에서는 경치가 매우 뛰어난 명승지라고 부른다. 정필달(鄭必達)의 시가 전한다.</td><td>용산숲 및 낙모대
(0/4)
용천정사 및 용연서원
(6/1)</td><td>없음</td></tr>
<tr><td>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용산숲〉

용산숲은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명맥만 남은 상태이다. 또한 용산숲에서 우천천을 따라 약 600m 상류의 하상에 위치하고 있는 낙모대도 교량이 놓이면서 외부에서 조망되지도, 외부를 조망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두 명승자원이 이격되어 있어, 그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있다.</td></tr>
</table>

12) 동호숲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거창군 웅양면 동호숲은 삼한시대부터 옛터라고 했으며, 특히 이 마을은 챙이(키)설이라 하여 마을 형태가 곡식의 껍질을 골라내는 챙이처럼 생겼으며 평균 높이가 20여 미터에 이르는 수령 2백년 이상의 소나무와 참나무 군락지로 조성되어 있다. 약 500년 정도의 유서가 깊은 숲으로 전체 면적은 약 66,000㎡이며, 30년 이상 된 소나무, 자작나무 등이 숲을 이루고 있다.
동호숲은 마을 밖에서 마을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림되었다고 하며, 주변의 동호리 이씨고가, 영은고택이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동호숲은 2013년도 전통마을숲 복원 공모사업에서 대상지로 선정되었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없음</td><td>0/0</td><td>없음</td></tr>
<tr><td rowspan="2">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동호숲〉</td></tr>
<tr><td colspan="3">동호숲은 용산숲에 비해 울창한 숲을 자랑한다. 연안 이씨 동족촌인 동호리 마을 주민들에 의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명승으로 지정하기에는 수령이 비교적 짧은 편으로, 대체로 30년 이내의 수령을 갖는 나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과거에 조림되었던 나무들이 동란을 겪으면서 많이 소실된 탓으로 보인다. 또한 연안 이씨 문중의 공간으로 지리지, 시문, 고서화가 한 편도 검색되지 않은 것도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된 이유이다.</td></tr>
</table>

13) 몰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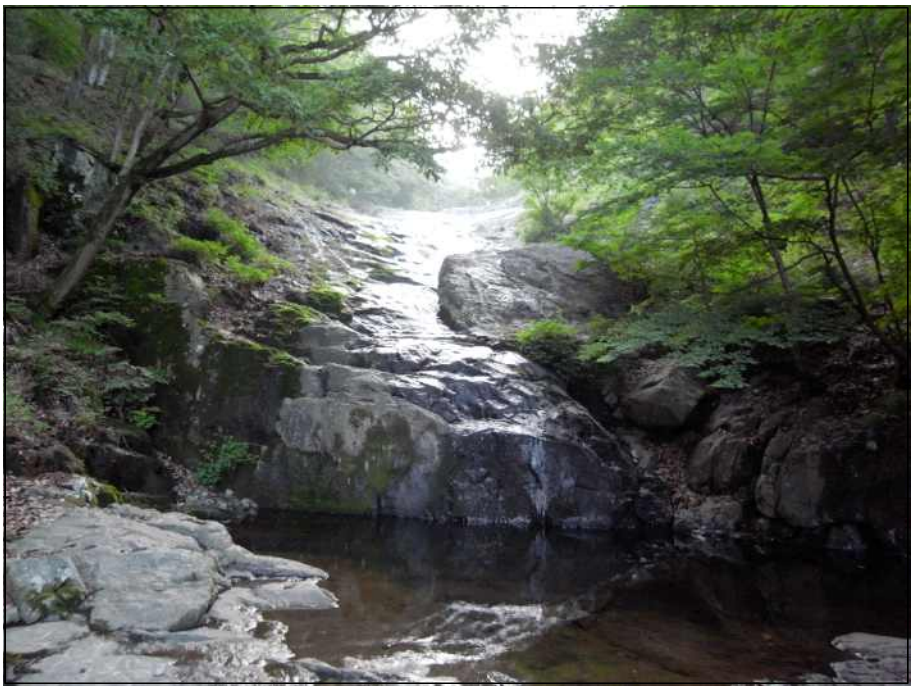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총면적 506천㎡로 1972년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27호로 지정되었다. 낙동강 하구의 최남단으로 다대포 서남쪽 해발 78m의 몰운대는 아주 오래 전에는 몰운도란 섬이었다. 몰운대의 이름은 낙동강 하구에 안개와 구름이 끼는 날이면 그 안개와 구름에 잠겨서 섬이 보이지 않는다고 구름 속에 빠진 섬이란 뜻에서 명명된 것이다. 낙동강 하구가 바다와 어우러지고 태백산맥의 마지막 끝자리가 되는 이 몰운대는 경관이 아주 뛰어나 시인 묵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멀리서 바라보는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노래한 동래부사 이춘원의 시가 동래부지에 전한다. 일반적으로 몰운도 전체를 몰운대라 하지만 몰운도의 남동쪽 끝의 대를 화손대, 남쪽 끝 가운데의 대를 몰운대라 한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없음</td><td>0/33</td><td>김윤겸,
〈몰운대〉,
(영남기행첩)

작자미상,
〈몰운대〉,
(영남명승35경도)

작자미상,
〈동래 몰운대〉,
(교남명승첩)</td></tr>
<tr><td>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몰운대의 폐 군사시설〉

몰운대는 과거 다대포진이 자연방파제 역할을 하던 돌출부이다. 그에 따라 시문과 산수화가 다수 전해지므로 역사·문화적 가치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 목적으로 이용되면서 해안 절벽들이 훼손되었고, 몰운대를 조망하던 아미산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그 가치가 크게 낮아졌다.</td></tr>
</table>

14) 홍연폭포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철마면 웅천리 웅천상류에 있다. 거문산과 옥녀봉 사이로 흐르는 계곡에 홍연이 있고 바로 위에 걸려 있는 폭포가 차성8경중의 하나인 홍연폭포이다. 차성가에는 구천은하 은하수가 떨어져 내리는 듯하다고 홍연폭포의 장관을 노래하며, 폭포의 물보라는 마치 영롱한 구슬이 되어 날고 튕기어 선녀의 옷자락처럼 나부낀다. 물보라는 맑은 햇살을 받아 찬란한 칠색무지개를 만들어 무지개폭포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량이 적은 평상시에도 상단이 약 5m이고 중단이 약 20m높이에서 낙하하고 있고, 중단에서 낙하한 물이 수직에 가까운 반석 위를 100m정도 급전직하하여 홍류동 소류지에 모인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없음</td><td>0/2</td><td>없음</td></tr>
<tr><td rowspan="2">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홍연폭포〉</td></tr>
<tr><td colspan="3">대로변에 자리하고 있어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갈수기임을 고려해도 다른 후보지들에 비해 지나치게 유량이 적고, 폭포 이외에 경관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다.</td></tr>
</table>

15) 입암 일원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죽장면 가사령에서 발원하는 가사천은 남서류하여 입암 일대를 관류한 후 입암28경 중 하나인 합류대(合流臺)에서 자호천과 합류 한 후 영천댐으로 흘러든다. 가사천과 자호천 유역은 산이 높고 골이 깊어 빼어난 자연경관을 간직한 탓에 예로부터 저명한 문사와 필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은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으로, 입암28경은 그의 시편 〈입암십삼영(立巖十三詠)〉에서 시작한 것이다. 또한 동시대 인물로 노계(盧溪) 박인로(朴仁老, 1561~1642)는 이곳에서 〈입암29곡(立巖二十九曲)〉이란 시조와 〈입암별곡(立巖別曲)〉이란 가사를 지어 남겼다. 입암28경은 탁립암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 걸쳐있는데, 그 중심이 되는 탁립암(託立岩)은 입암 또는 탁입암이라고 부르며. 입암리의 지명도 여기에 근거하여 정해졌다고 한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없음</td><td>입암(11/15)
만활당·일제당(2/11)</td><td>없음</td></tr>
<tr><td rowspan="2">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가사천에 설치된 교량과 보〉</td></tr>
<tr><td colspan="3">입암은 과거 미앤더넥(meander neck)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곡류하는 가사천의 침식력에 의해 절단된 것이다. 절단된 이후 공격사면에 해당되어 본래는 수심이 깊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69번 지방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가사천 건너편인 구인봉의 북사면이 깎여 나갔고, 구인봉과 입암서원 사이에 송내교가 놓여 탁립암에서 구인봉을 바라보는 시선이 소멸했다. 또한 송내교 아래에 보를 설치함에 따라 구인봉 주변은 수심이 깊어진 반면, 탁립암 주변은 수심이 얕아지고 하상에 식생이 정착하여 기존이 경관이 많이 훼손되었다. 또한 28경의 나머지 요소들도 도로 개설 과정에서 파괴되었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실전된 것이 많다.</td></tr>
</table>

16) 수도산 청암사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멀리 가야산 자락이 보이고 수도산(불령산)의 푸른 정기로 둘러싸인 청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 말사이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경관 속에 천년고찰의 신비로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859년(신라 헌안왕 3) 도선국사가 창건했으며, 몇 번의 중창을 거듭한 후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1647년(인조 25) 화재로 전소 되었는데 벽암성총화상이 덕유산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 문도인 허정대사로 하여금 청암사를 재건토록 하니 이에 허정대사가 심혈을 기울여 청암사를 중건하였다. 이로부터 130여년이 지난 1782년(정조 6)에 다시 재화를 입어 전각이 소실되자 환우대사가 다시 신궁보전과 누당을 중건하였으며, 고종 9년에는 주지 대운당 스님이 극락전을 중건하였다. 1911년 9월 21일 밤 청암사는 다시 화재를 입어 전각이 모두 소실되었다. 이에 대운대사가 화주가 되어 대중을 위로하고 독려하여 그 다음해 다시 청암사를 재건하였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없음</td><td>청암사(0/6)
수도산(3/10)</td><td>작자미상,
〈청암〉,
(영남명승35경도)</td></tr>
<tr><td rowspan="2">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청암사계곡〉</td></tr>
<tr><td colspan="3">청암사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으나, 1911년 대화재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었고, 현재의 건물들은 그 후 건립되었다. 청암사계곡은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으며, 계곡을 찾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제명이 많이 남아 있어 문화적으로도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몇 차례의 태풍으로 계곡이 많이 훼손되었으며, 다른 계곡과 비교해 볼 때, 그 규모와 경관 면에서 명승으로 지정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td></tr>
</table>

17) 매학정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고산 황기로가 1533년(중종 28)에 조부의 뜻을 받들어 지었다고 전하는 정자이다. 1862년(철종 13)에 화재를 입은 것을 7대손 황민술이 원래의 자리에 다시 지었다. 황기로는 1534년 초시에 합격하여 별좌를 지낸 후 관직을 떠나 이곳에서 자연을 벗 삼아 서예를 즐겼다. 초서를 잘 쓴 그는 초성(草聖)으로 통하였으며 대표작으로는 충주의 '이승지번비(李承旨蕃碑)'가 있다. 이 정자는 고산 기슭에 남향으로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강암으로 쌓은 3층의 기초단 위에 막돌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웠다. 처마 끝 서까래가 1단으로 된 홑처마에 팔작지붕이다. 좌측 2칸에 툇마루를 둔 2칸의 마루방을 두고 나머지 2칸은 대청으로 꾸몄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여지-선산도호부〉 옥산(玉山) 이우(李瑀)의 시가 전한다.</td><td>0/53</td><td>작자미상,
〈매학정〉,
(영남명승35경도)

작자미상,
〈선산 매학정〉,
(교남명승첩)</td></tr>
<tr><td>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낙동강 변에 위치하고 있는 매학정〉

매학정은 낙동강 변에 위치한 정자이다. 정자 건물은 원형을 보존한 채 남아 있으나, 주변 경관을 크게 훼손되었다. 특히 매학정에서 보는 낙동강이 가장 중요한 명승자원이나, 최근의 4대 강 사업 등으로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매학정 주변도 바로 옆까지 현대식 주택이 들어서 있어 명승 자원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td></tr>
</table>

18) 소백산 금선계곡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소백산 비로봉에서 남으로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 금계저수지 아래 속칭 장선마을이 있다. 이 마을을 안고 약 1.5㎞에 걸쳐 형성된 계곡이 바로 금선계곡이다. 금선계곡은 기암괴석의 골짜기와 노송이 우거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계곡 중간 지점의 물가 절벽위에 금선정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주변이 경관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정자아래에는 널찍한 반석이 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고장의 대표적 유학자인 금계 황준량(1517~1563)이 금선대라 이름 하였다 한다. 이후 1756년 부임한 풍기군수 송징계가 금선대란 3자를 바위벽에 새겼으며, 황준량의 후손들이 정자를 지어 금선정이라 이름 하였다. 이 계곡을 금선계곡이라 부르는 것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계곡의 수석을 부딪치며 흐르는 물소리와 노송을 스치는 바람소리는 주변 기암절경과 어우러져 많은 행락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금선정 서쪽 산 중턱에는 황준량이 학문을 연마하던 금양정사(錦陽精舍,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388호)가 있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없음</td><td>1/15</td><td>없음</td></tr>
<tr><td rowspan="2">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금선정 일원〉</td></tr>
<tr><td colspan="3">금선정이 위치한 일부 구간은 정자와 어우러진 소나무 숲과 계곡이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지만, 상류에 댐이 건설된 후 계곡에 이끼가 서리고 주변 지역의 원경관이 각종 인공 시설들로 인해 훼손되어 있음.</td></tr>
</table>

19) 소백산 죽계구곡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고려후기의 명현이자, 문장가인 근재 안축의 ‘죽계별곡’이며, 이퇴계와 주세붕 등 조선시대 유현들이 유상하던 자취들이 있어 잘 알려진 계곡이다. 죽계구곡은 초암사 앞에서 제1곡으로 시작되어, 시냇물을 따라내려 삼괴정을 못 미친 제9곡에 이르기까지 약 5리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이 죽계구곡은 영조 초에 순흥부사를 지낸 신필하가 처음 정한 바인데 옛 초암법당 앞 바위벽에 ‘죽계1곡’이라 커다랗게 새겨있고, 시냇물이 넓게 고여 흐르는 물밑 반석에 행서로 세긴 ‘제일수석’ 4자는 아주 힘차고 활달한 글씨인데 오랜 세월에 갈려 겨우 알아볼 지경이다. 계곡 밑바닥이 훤히 보이는 맑은 물, 울창한 푸르른 숲, 그사이로 보이는 하얀 바위들, 이들이 모여 빚어놓은 죽계구곡은 어느 지점에서든 주저앉아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죽계구곡을 찾고, 가을에는 계곡물 위에 떠도는 한 잎의 붉은 낙엽을 잊지 못해 죽계구곡으로 간다. 겨울의 등산객은 살짝 얼어붙은 계곡물 밑으로 느껴지는 생명력을 배운다. 사철 어느 때라도 찾고 싶은 한마디로 ‘산 좋고 물 맑고, 하늘 높은 곳이다. 또한 자연경관만 빼어날 뿐 아니라, 계곡을 따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있어 역사의 향기도 함께 느낄 수 있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여지-순흥부〉 관아의 동쪽에 있다. 소백산 초암동(草庵洞)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여, 백운동(白雲洞)을 지나 남쪽으로 흘러 사천(沙川)과 합쳐져서 영천(榮川)의 임천(臨川)을 이룬다. 이색(李穡)이 안(安) 시어(侍御)를 전송하여 지은 시(詩)의 서문이 전한다.</td><td>죽계구곡(2/1)
초암사(0/7)</td><td>없음</td></tr>
<tr><td>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탐방로에 의해 훼손된 제5곡 일원〉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구곡이나, 곳곳에 탐방로 시설에 의한 훼손이 보이고 계곡의 규모가 작은 편이어서 탁월한 아름다움을 지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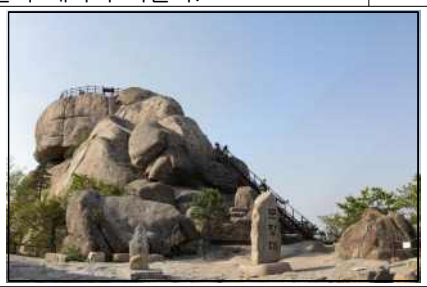
20) 조양각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1368년(고려 공민왕 17) 당시 부사였던 이용이 건립한 것으로 명원루라고 불리었다. 서거정의 기문에 따르면 당나라 문장가 한퇴지의 시에서 따온 말로 “훤히 트인 먼 곳 경치를 바라보니 두 눈조차 더 밝아오는 듯하다”는 뜻이라고 한다. 원래는 좌우에 청량당과 쌍청당 등 여러 개의 건물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1638년(인조 16)에 중건하여 이름을 조양각이라 고쳐 불렀다. 현재의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되어 있으며 이 고장을 거쳐 간 수많은 명현, 풍류객들의 시구가 조각된 80여개의 현판이 걸려있다. 또한 경내에는 백신애 문학비와 황성옛터 노래비, 영천지구전승비 등 있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여지-영천군〉 명원루(明遠樓) 옛터에 있다. 삼면이 시원스럽게 탁 트였고, 아래에는 큰 냇물이 남쪽으로 흐른다.</td><td>7/100</td><td>작자미상,
〈조양각〉,
(영남명승35경도)

작자미상,
〈영천 조양각〉,
(교남명승첩)</td></tr>
<tr><td>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금호강변 벼랑에 위치하고 있는 조양각〉 (사진 : 디지털영천문화대전)

조양각은 고려 말에 명원루로 창건되어 여러 차례 변란에도 지금까지 우뚝 서있는 영천을 상징하는 유적이다. 밀양의 영남루, 진주의 촉석루와 함께 영남 3루로 꼽히며,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다. 그러나 조양각에서 조망되는 주요 경관인 금호강이 둔치 정비사업으로 운동시설이 들어서는 등으로 원래의 모습을 상실하였고, 조양각을 에워싸고 영천문화원 등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전체적으로 경관 상의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td></tr>
</table>

21) 속리산 문장대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문장대는 큰 암석이 하늘 높이 치솟아 흰 구름과 맞닿은 듯한 절경을 이루고 있어 운장대(雲藏臺)라고도 한다. 세조가 꿈을 좇아 이곳에 올라와서 오륜삼강을 명시한 책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글을 읽었다하여 문장대(文藏臺)라 불리게 되었다. 산마루에는 약 5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빈터가 있으며, 속리산의 절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문장대에서 바라본 속리산 일원은 험준하면서도 수려하고 유수하면서도 명결하다. 쌓아올린 듯한 기암괴석이 구름위에 높이 솟아 있는가 하면 길게 뻗어 내려 계곡을 이루고, 작고 큰 봉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양상은 장관이 아닐 수 없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신증-상주목〉 화령현 서쪽 30리에 있다. 산 서쪽 15리 가량 되는 곳에 용화솔면촌(龍華率面村)이 있는데 황장과 궁실의 재목이 나온다.
〈신증-보은현〉 고을 동쪽 44리에 있다. 봉우리 아홉이 뾰족하게 일어섰기 때문에 구봉산(九峯山)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는 속리악(俗離岳)이라고 일컫고 중사에 올렸다. 산마루에 문장대(文藏臺)가 있는데, 층이 쌓인 것이 천연으로 이루어져 높게 공중에 솟았고, 그 높이가 몇 길인지 알지 못한다. 그 넓이는 사람 3천 명이 앉을 만하고, 대 위에 구덩이가 가마솥 만한 것이 있어 그 속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가물어도 줄지 않고 비가 와도 더 불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세 줄기로 나뉘어서 반공으로 쏟아져 내리는데, 한 줄기는 동쪽으로 흘러 낙동강이 되고, 한 줄기는 남쪽으로 흘러 금강이 되고, 또 한 줄기는 서쪽으로 흐르다가 북으로 가서 달천이 되어 김천으로 들어 갔다.
〈여지-상주목〉 화령현 서쪽 30리에 있다. 문경 조령에서 뻗어 나오며, 관아에서 1백 리이다. 속리산의 서쪽 15리 쯤 되는 곳에 용화솔면촌(龍華率面村)이 있는데 질이 좋은 목재인 황장목과 궁실의 재목이 나온다.</td><td>문장대(2/9)
속리산(16/81)</td><td>없음</td></tr>
<tr><td>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속리산 문장대〉</td></tr>
<tr><td></td><td colspan="3">문장대는 매년 많은 등산객이 방문하는 곳이며, 그 인근에 현재는 철거되었으나 1968년에 설치된 통신중계소(2013년)와 1975년에 설치된 문장대휴게소(2008년)가 최근까지도 자리 잡고 있었다. 그로 인해 일대의 식생 등 자연경관이 일부 훼손되어 복원이 시급하다. 또한 충북 보은군 쪽의 서사면은 '속리산 법주사 일원'으로 기지정 되어 있으므로, 지정구역의 확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한 관리 방안 구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td></tr>
</table>

22) 대산루와 계정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대산루는 마을 하천을 건너면 널찍한 대지 위에 잡석으로 축대를 낮게 쌓고 자연석 주초에 원기둥의 팔작 기와집으로 단층에 연결하여 2층 누각을 세운 T자형 건물이다. 대청 한 쪽 벽에 '우곡잡영이십절'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내용은 서실, 오봉당, 오노대, 산영담 등 부근 20절경을 예찬한 시구이다. 이층 누각으로 올라가 누마루에 서서 동남 쪽 앞을 내다보면 바로 앞에는 낙동강의 상류인 우산천이 흐르고 멀리는 겹겹 산봉이 사방으로 아늑히 둘러 싸여 별세임은 깨닫게 된다. 누상에는 정동교가 쓴 〈대산루〉란 초서 현판이 걸려 있는데 이것은 곧 이 누각을 비롯한 부속건물 일체를 통칭하고 있다. 누각 동편에 계정이 있는데 1603년에 세운 창간정의 별명이다. 이곳에 200여 m 떨어진 서편 산 대지에 도존당이 있다. 이 당은 처음 향인들이 서당으로 세운 것을 점차 증축하여 뒤에 우산서원으로 승격하고 우복을 봉향하다가 대원군 때 훼철되어 현재 건물만 남았다. 대산루와 계정은 우복선생이 개창한 선비의 독서처요 강학당으로 조선후기 입재 정종로선생에 이르기까지 영남의 강학소로 널리 알려진 건축물이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없음</td><td>2/12</td><td>없음</td></tr>
<tr><td rowspan="2">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계곡 건너편에서 바라본 대산루와 계정〉</td></tr>
<tr><td colspan="3">우산리 우복종택 인근에 있는 정경세 유적지이다.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지만, 누정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계곡의 규모가 작아 탁월한 아름다움을 지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td></tr>
</table>

23) 옥류정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갑장산 구룡연에서 발원한 물이 승장계곡을 지나며 수십 길의 폭포를 몇 층이나 이루어 옥같이 떨어지니 이 폭포를 옥류폭포 또는 승장폭포라고도 한다. 이 폭포는 수백 m나 되는데 옥류정이 위치한 상류 쪽이 절경이며 고려 때는 승장사가 이곳에 있었다. 김상직이 쓴 〈승장사 중창기〉에 충렬왕이 잠시 이곳에 머물렀다 하며, 이 때 '영남의 으뜸 산'이라 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검간 조정(1552~1636)이 어려서 이곳 암자에서 독서하였기에 이를 기념하여 1620년경에 세운 정자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없음</td><td>3/9</td><td>없음</td></tr>
<tr><td rowspan="2">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계곡 아래에서 올려다본 옥류정〉</td></tr>
<tr><td colspan="3">상주에 소재한 계류 변의 정자로 정자 자체는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나, 계류의 규모가 작고 탁월한 아름다움을 지닌 계류라고 보기에도 어렵다.</td></tr>
</table>

24) 도장산과 쌍용계곡(용유동)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상주시 화북면과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와 맞닿아 있는 도장산(828m)은 이름 그대로 도를 감추고 있는 도의 산이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교통도 불편하고 첩첩산중이라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비경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알려 질대로 알려진 곳으로, 중간 중간 숨겨진 폭포를 만날 때 마다 신선이 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속리산 남쪽에 환적대가 있는데 많은 봉우리는 높은 절벽이 되고, 여러 산골짜기는 그윽하고 길어 사람들의 갈 길을 알 수 없게 한다. 이런 골짜기 물은 모여서 작은 내가 되어 작은 언덕을 넘어 청화산 남쪽을 돌아 동쪽 용추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병천(쌍용계곡)이다. 이 내 남쪽의 도장산도 속리산의 한 지맥에 속하는데 청화산과 맞닿았고 두 산 사이와 용추 위를 통틀어 용유동이다.”라고 적고 있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없음</td><td>도장산(0/0)
용유동(2/13)</td><td>작자미상,
〈용유동〉,
(영남명승35경도)

작자미상,
〈상주 용유동〉,
(교남명승첩)</td></tr>
<tr><td rowspan="2">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쌍용계곡〉</td></tr>
<tr><td colspan="3">쌍용계곡을 따라 장려한 절벽과 깊은 계곡, 그리고 각자가 어우러져 계곡 명승 자원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6곡 일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td></tr>
</table>

25) 의성 빙계리 얼음골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경북 8승의 하나로 얼음구멍과 바람구멍이 있어 빙산이라 하며, 그 산을 감돌아 흐르는 내를 빙계라 하고, 동네를 빙계리라 부른다. 삼복 때 시원한 바람이 나오며 얼음이 얼고, 엄동설한엔 더운 김이 무럭무럭 솟아나는 신비의 계곡으로 빙계3리 서원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얼음구멍, 바람구멍, 어진바위, 의각, 물레방아, 석탑, 부처막, 용추를 빙계팔경이라 한다. 마을 건너편에 수십 미터 높이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그 아래 맑은 시냇물 가운데 우뚝 솟은 크고 작은 무수한 바위는 1933년 경북도내 경북팔승의 하나로 뽑혔으며, 계곡 가운데 돋보이는 큰 바위 위에는 경북 팔승지일이라고 새긴 아담한 돌비가 자리 잡고 있다. 경사면에 쌓인 암괴(Talus)들이 만드는 희귀한 자연현상으로 인해 2011.1.13에 빙계리 일대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27호로 지정되었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신증-의성현〉
• 빙산: 현 동남쪽 40리에 있다.
• 빙혈: 빙산의 큰 바위 밑에 돌구멍이 있는데, 구멍의 입구는 높이가 3척, 높이가 4척 8촌, 옆으로의 길이가 5척 1촌이다. 이것을 풍혈이라 한다. 또 하나의 구멍이 바위 밑에 직하로 나 있는데 넓이가 1척, 길이는 1척까지는 잴 수 있는데 아래로는 굽어 있어 잴 수 없다. 입하 뒤로 얼음이 엉기기 시작하여, 아주 더우면 얼음이 딱딱하게 되고, 장마가 들면 얼음이 풀린다. 봄·가을로는 춥지도 덥지도 않으며, 겨울에는 따뜻한 기운이 봄과 같다. 이것을 빙혈이라 한다.
〈여지-의성현〉
• 빙산: 관아의 동남쪽 40리에 있다. 보현산에서 뻗어 나온다.
• 빙혈: 上同</td><td>3/25</td><td>없음</td></tr>
<tr><td>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빙혈〉
예부터 한 여름에도 얼음이 서려있다는 계곡으로 이름이 난 계곡으로서, 빙혈(氷穴)과 같은 특이한 지점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닌 명승으로 보기에는 어렵다.</td></tr>
</table>

26) 봉비암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무흘구곡은 한강 정구 (1543~1620)가 설정한 것으로, 가야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대가천을 이루며 하류로 흘러가는 곳 주변 기암괴석과 수목이 어우러진 절경들을 뜻한다. 그 중 제1곡 봉비암(鳳飛岩)은 깎아지른 듯한 높다란 바위의 절벽과 양정소의 맑은 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봉황이 비상하는 형상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봉비암에 기대어 자리하고 있는 회연서원은 본래 한강 정구가 1583년(선조 16)에 세운 회연초당이었으나, 한강 사후에 문도들이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1627년(인조 5)에 서원을 건립하여 향사를 지냈으며, 1690년(숙종 16) 사액받았다. 초기에는 강당과 사당을 위시하여 지경재, 명의재, 양현청 등의 건물이 있었으나 1868년(고종 5) 서원훼철에 따라 훼철되었다가, 1975년에 사당, 1976년에 동·서재를 신축하였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없음</td><td>0/7</td><td>김상진,
〈봉비암〉,
(무흘구곡도)</td></tr>
<tr><td rowspan="2">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대가천 건너편에서 바라본 봉비암〉</td></tr>
<tr><td colspan="3">봉비암은 무흘구곡 중 하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천을 향해 튀어나온 작은 언덕이 하천의 침식으로 절벽을 이루고 있는 지형이다. 가야산 산줄기가 대가천과 맞닿은 곳에 있는 노인봉 산자락이 회연서원의 뒤편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산수화에 따르면 회연서원의 동북쪽, 봉비암과의 사이에는 회연이라는 소가 있었던 곳으로 보이나, 현재는 대가천을 따라 제방이 놓이면서 흔적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또한 대가천 건너편 퇴적사면에는 모래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상류에 성주댐이 건설되면서 유속이 느려져 식생피복이 이루어지는 등 경관이 상당히 훼손되었다. 더불어 회연서원 역시 기존의 공간배치와는 다르게 복원이 되어 문화적 가치도 낮은 상태이다.</td></tr>
</table>

27) 만귀정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만귀정은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2)가 만년(1851년)에 귀향하여 독서와 자연을 벗 삼으며, 여생을 보낸 곳이다. 가야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계곡을 따라 흐르며 화죽천을 이루고, 화죽천이 북쪽으로 흘러내려가는 상류부의 서편에 위치하고 있다. 만귀정 부근에는 만귀정폭포와 구이폭포와 작은 폭포가 있으며, 폭포의 물이 흘러와 세심지라는 조그마한 웅덩이를 이루고 하류고 흘러나간다. 만귀정폭포는 3단~4단을 이루는 작은 규모의 폭포이지만 주변 계곡과 암반 그리고 세심지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만산일폭루에서 계곡과 세심지, 만귀정폭포 모두가 조망가능하며 그 경관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인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없음</td><td>0/6</td><td>없음</td></tr>
<tr><td rowspan="2">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만귀정폭포와 상단의 교량〉</td></tr>
<tr><td colspan="3">만귀정 일원은 포천구곡의 제9곡 홍개동(洪開洞)에 해당된다. 만산일폭루 앞의 폭포와 보다 하류의 구이폭포 등 계단모양의 하도가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주변에 인공구조물들이 들어 경관이 훼손되어 있다. 특히, 만귀정폭포 상단의 콘크리트 교량은 경관의 심미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어 목조다리, 홍교 등으로의 교체가 시급하다. 또한 그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낮다.</td></tr>
</table>

28) 주천대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주천대는 근남면 행곡4리 ‘구미(龜尾)마을’에 있다. 마을 초입 우측에 소고산(小孤山)이라 부르는 작은 산이 흘러내려 자연스레 대(垈)를 형성한 곳이다. 불영계곡을 지나온 광천(光川)이 휘돌고 36번 국도가 건너편에 지나간다. 보호수로 지정된 소나무 3그루가 있으며, 그 아래로 흰 모래톱과 맑은 물이 흐른다. 맞은편에는 작은 바위산과 죽림이 한 폭의 그림을 이루는 절경지다. 조선 인조 때 만휴(萬休) 임유후(任有後)가 주천대의 풍광에 반해 이곳에서 20여 년간 주거하고, 주천대를 중심으로 울진지역의 인사들과 깊은 교유를 한다. 만휴에 앞서 격암(格菴) 남사고(南師古)가 주천대의 경관을 사랑하여 자주 제자들을 거느리고 찾던 곳이다. 천문에 능했던 그가 속세에 대한 잡념을 모두 떨쳐버리고 우주의 오묘한 원리에 잠심(潛心)하여 연구하던 공간이었다. 주천대는 지역의 문풍을 북돋은 교육의 새 발흥지라 할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지금은 만휴의 유적비와 동봉(東峯) 김시습(金時習, 1435~1493), 서파(西坡) 오도일(吳道一, 1645~1703), 만휴의 삼선생유허비(三先生遺虛碑)만이 주천대를 돌아 흐르는 내를 굽어보고 있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없음</td><td>0/7</td><td>없음</td></tr>
<tr><td rowspan="2">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주천대와 광천〉 (사진 : 디지털울진문화대전)</td></tr>
<tr><td colspan="3">주천대는 남사고, 오도일 등의 인물들과 관련된 유적지이며, 광천의 하도가 곧게 펴지는 과정에서 침식을 받아 형성된 잔구이다. 그러나 비교적 하류에 위치한 탓에 주변은 일반적인 농촌의 경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미 명승으로 지정된 불영사계곡이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별도의 지정은 무의하다고 판단된다.</td></tr>
</table>

29) 팔공산 파계사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동화사 서쪽 3㎞쯤 떨어진 곳에 있는 파계사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팔공산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 절은 역시 심지왕사에 의해 창건되었고, 임진왜란으로 불타자 계관법사가 중창하였으며, 그 후 숙종연간에 현응스님이 새로 고쳐지었다고 한다. 1981년 봄에 말끔히 포장된 길을 따라 주차장이 있는 입구에 이르면 10여개의 식당과 매점 등이 늘어선 가운데 절로 오르는 작은 길이 나 있다. 약 1㎞ 남짓한 울창한 산림으로 이루어진 이 길을 걷다보면 완전히 속세를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호젓한 정취를 느껴진다. 예전에 성철스님이 이곳 성전암에 머무르면서 수도하기도 했다. 절로 올라가는 길옆에는 시원한 계곡수가 흐르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유혹한다. '절의 좌우계곡에서 흐르는 9개의 물줄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모은다.'는 의미에서 절 이름을 파계사(把溪寺)라 했다 하니, 주위 자연경관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맑고 깨끗한 계곡수를 낀 영조의 원당사찰인 파계사를 둘러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신증-대구도호부〉 부인사(夫人寺), 자화사(慈華寺), 파계사(把溪寺), 보리사(菩提寺) 모두 공산에 있다.</td><td>0/1</td><td>없음</td></tr>
<tr><td>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파계사계곡〉

파계사 일원은 팔공산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녹지 보전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집단시설지구에서 파계사까지 800m 가량 구간의 도로 포장 등이 이루어지면서 주변 계곡의 아름다움이 훼손되었다. 또한 다른 유명 사찰과 비교할 때, 파계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터에 자리 잡고 있어 오밀조밀한 맛은 있으나 답답한 편이며, 경관상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없다는 점도 단점이다.</td></tr>
</table>

30) 비슬산 용연사계곡

<table>
<tr><td>개요</td><td colspan="3">옥포면 반송리에 위치한 용연사 우측에 깊은 계곡을 이루고 있으면서 이 계곡의 밑은 수많은 아름드리나무와 잡목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잘 볼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나무숲을 지나 골짜기까지 내려가면 기암괴석들이 좌우상하에 펼쳐져 있고 바위 사이로 맑은 물이 흘러내리며 주변의 아름다운 풍치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당장 사로잡아 버린다. 이 폭포는 높이가 15m나 되는 것으로 웅덩이에 용이 살았다고 하여 용주폭포라 한다.</td></tr>
<tr><td rowspan="2">관련 기록</td><td>지리지</td><td>시문 개수
(번역/문집)</td><td>고서화</td></tr>
<tr><td>〈여지-대구도호부〉 비슬산(琵瑟山)에 있다.</td><td>0/18</td><td>없음</td></tr>
<tr><td rowspan="2">사진 및 탈락 사유</td><td colspan="3"> 
〈용연사계곡〉</td></tr>
<tr><td colspan="3">용연사는 우리나라 7대 적멸보궁 중 하나로 꼽히는 사찰이다. 따라서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 가장 유명한데 이는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명승으로의 가치는 떨어진다. 한편 용연사 진입로를 따라서 이어지는 용연계곡은 인공석축과 콘크리트보의 설치로 본래의 아름다움이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용연사의 지명 유래를 담고 있는 용못 역시 반송저수지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td></tr>
</table>

참 여 연 구 진

연구기관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책임	**류 제 헌**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공동연구	**이 민 부**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조 융 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교수
	박 정 혜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예술학부 교수
	정 치 영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예술학부 부교수
	전 종 한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
	강 현 경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조교수
연구보조	**신 동 섭**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조 영 남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
	최 훈	동대전고등학교 교사
	김 지 현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여 희 정	서천고등학교 교사
	박 정 애	중앙대학교 미술학부 강사
	김 우 선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예술학부 박사과정
	유 영 석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전 소 열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백 승 준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박사과정
자문위원	**김 학 범**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이 재 근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최 기 수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명예교수
	황 재 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문연구원

고서화 고문헌 등에 나타난 명승자원 발굴조사

경남 · 부산 · 울산 · 경북 · 대구

발 행 일 2014. 11.

발 행 처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연구용역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태성탑연로 250

인 쇄 처 한국학술정보(주) 북토리사업부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30

ISBN 978-89-299-0489-0 93910 〈비매품〉

※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